장편력사소설

검이여 불타라

리 평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제 1 장

1

고려의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왔다. 저 멀리 수평선까지 다림질이라도 해놓은듯 일매지게 매끈하고 푸른 바다.

그우에서 자유로이 노니는 소복단장을 한 갈매기들.

겨끔내기로 울리는 갈매기들의 청쾌한 울음소리, 시원스레 풍겨오는 비릿한 해감내…

시종 바다우에 시선을 얹은채 적동백꽃향기와 생강꽃향기가 향긋하게 어울려 떠도는 산비탈의 소로길로 느리게 말을 몰아가던 경상도원수(도의 군사장관) 박위는 까만 수염발속에 반나마 파묻혀있는 자그마한 입을 벙긋이 터치며 천천히 고개방아를 찧었다.

(이즈막에 우리 경내의 군사일이 썩썩 잘돼나가니 날씨도 운을 맞추는 모양인가?! 하기사 하늘도 고려의 하늘이요, 바다도 고려국의 바다일진대 우리 군대의 애국지심에 어찌 무심하리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생긴것이리라.

아무튼 근래의 날씨가 이리 좋으니 매 고을들에서 군사일들이 부쩍부쩍 축이 날게라.)

박위는 지금 해변가고을들에서 새롭게 시작한 군사일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보름만에 경상도군영이 있는 김해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박위는 고려의 무관들이 일치하게 공인하듯이 자나깨나 군사일을 두고 마음쓰는 진짜배기무장이였다.

그는 이미 지난해(1387년)말에 임금에게 직접 연호군(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림시로 조직되던 지방군부대.)제도를 철페하고 매 고을,

특히 해변가고을들에 상비군을 조직하는 동시에 더 많은 병선을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었다.

그의 제안은 필경 혁신적인 발기였다.

허나 나라의 전반적인 형세를 놓고볼 때 북방의 외적을 견제하기 위해 수만의 대군이 동서북면에 항시 둔을 치고있는 조건에서 더우기는 군사징발의 기초인 호적, 군적이 심히 헝클어지고 군역대상이 훨씬 줄어든 정황에서 또다시 군사를 뽑고 싸움배를 뭇는 역사를 벌린다는것은 사실상 조련한 일이 아니였다.

그런데다 당시 문하시중이라는 국가의 최고관직을 타고앉은 부패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리인임은 군사일에 물력을 들이자는 박위의 제안이 꼭 제집 재물과 하인들을 털어쓰자는 소리처럼 들리여 상비군조직과 병선건조에 대한 말만 나오면 오만상을 찌프리고 홰홰 손을 내저었다.

허나 백전로장으로 나라안에는 물론 나라밖에까지 널리 알려진 최영은 임금이 《경들은 박위의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을 때마다 제일먼저 조정의 백관들앞에 나서서 《천만번 옳은 제안이니 커다란 난관이 있고 의견이 있더라도 조속히 실행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렴하고 강직한 최영과 탐욕스럽고 완악한 리인임이 겯고 트느라고 문제는 쉬이 풀리지 않는데 그 살짬에 끼운 년소하고 유약한 임금은 안팎곱사등이가 되여 어쩔바를 몰라하다보니 제안의 실행은 인차 결정되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론의속에서 달과 달을 넘겨오던 박위의 제안은 올해 봄 최영장군이 과감한 용단을 내리여 리인임일파를 숙청한 뒤에야 비로소 임금의 윤허를 받고 정식으로 수락되였다.

박위는 임금의 교지를 받자 그 즉시 해안고을들에 상비군을 조직하고 병선을 건조할데 대한 군령을 떨구었다.

뒤이어 열흘에 한번씩 매 고을의 원이나 호장이 직접 경상도군영에 들어와 자기 고을 군사일의 진척정형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령을 추가로 내리였다.

했으나 박위는 군영의 교자우에 틀고앉아 지령이나 내리고 올라오는 보고나 듣고있자니 오금이 근질거려 견딜수 없었다.

모든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지휘하고싶었다.

하여 그는 보름전 어뜩새벽에 자기가 직접 현지에 나가 군사일의 추진정형을 확인하고 더욱 다그어댈 결심으로 지방순행의 길에 올랐었다.

현지에 나가보니 간데 족족 군사를 뽑아들이고 전함을 뭇느라고 야단법석이였다.

나라님의 교지와 병부의 명령도 어마어마했지만 박위라는 예쁘장하게 생긴 장수가 얼마나 드센가를 너무나 잘 아는 고을의 부사, 현령, 판관, 감무들은 우선 박위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 오금에서 비파소리가 나도록 분주하게 뛰여다니고있었다.

고을마다 성과도 있었지만 페단도 없지 않았다.

어떤 고을에서는 군막도 세우고 싸움배도 몇척 무어놓았으나 무턱대고 일을 다몰아대기만 하다보니 병영의 지붕새로는 하늘이 파랗게 올려다보이는가 하면 엉성한 전함의 밑창으로는 물고기뼈다귀를 훔쳐문 부덕쥐들이 무시로 나들고있었다.

군사랍시고 제정된 인원수를 다 채워놓기는 했으나 노닥다리, 포병객(병자)이 절반나마 되는 고장도 있었다.

어느 고을에서는 제법 화약을 만든답시고 덩실하게 염초장까지 지어놓았으나 염초뽑는 방법을 전혀 모르다보니 일껏 품을 들여 세워놓은 아까운 염초장을 소득없이 비워놓고있었다.

박위는 외기둥에 집짓듯이 어설프게 해놓은 일이나 일시 눈가림식으로 건성 해놓은 일들은 건건이 발기짚어내여 호되게 꾸짖은 다음 빠른 시일안에 말끔히 시정하라고 엄명했다.

허나 염초장일처럼 모르고 비워놓은 일들은 자기가 직접 가르쳐주거나 이전에 개경의 화통도감에서 일할 때부터 슬기단지로 소문난 군영의 대정(초급지휘관) 오천에게 차근차근 배워주게 하였다.

하여 적지 않은 부족점을 내포한채 갈피없이 전개되던 해변고을들의 군사일은 기본적으로 제 곬에 들어서게 되였다.

더불어 이발빠진 얼레빗처럼 성글던 해안방어선은 하나하나 빈구석을 메꾸며 견고하게 일떠서기 시작했다. …

…아까부터 박위의 뒤를 따르며 저들끼리 수군거리던 군영군사들이 한층 목청을 높이여 떠들어댔다.

보름동안이나 박위와 함께 외지에서 나돌다가 정든 군영으로 돌아가자니 너나없이 기분이 흥떠오르는 모양이였다.

《…대정형님, 오늘도 우리 색시는 시큼털털한 탁배기를 걸러놓고 나를 기다릴게요. 이제 군영에 려장을 풀어놓고나서는 나하구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밸이 푹 젖도록 탁배기를 마시잔 말이우.》

박위의 시위군사(호위군사) 여삼이의 아이처럼 챙챙한 목소리가 사뭇 살갑게 울리였다.

여삼은 눈썰미가 빠르고 몸놀림이 민첩한데다 소시적부터 김해일판에서 이름을 들날리던 석전군이라 시위군사로서는 나무랄데가 없었다.

헌데 말이 무척 헤프고 매사에 부산스럽기 짝이 없어 자주 곁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군 하는것이 탈이였다.

그는 얼마전 군영의 앞동네에 사는 얌전데기처녀와 짝을 뭇고 상투를 틀어올렸다.

하지만 아직도 형님, 형님하던 예전의 버릇이 그냥 남아있는데다 난다뛴다하는 오천의 인끔에 어느 정도 눌리우기도 하여 로총각인 오천에게 반말을 쓰지 못했다.

여삼의 맑고 창창한 목소리가 잦아들자 이번에는 웃음기가 흐들흐들하게 배여있는 오천의 음성이 잇달리였다.

《글쎄 탁배기는 무척 먹고싶은데… 여삼이네 집에까지야 어떻게 가겠나?!》

오천은 무슨 일이나 막힘없이 수월수월하게 해제낄뿐아니라 매양 남에 없는 신통한 궁냥을 내놓군 하는 슬기단지였다. 게다가 성미는 대활하고 선들선들하여 어디 가나 사람들의 호감을 사군 했다.

그런 오천이 전에없이 자기의 청을 거절하자 여삼은 잔뜩 못마땅하여 볼메인 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니, 새삼스레 그건 무슨 소리우? 탁배기가 생각있으면 나와 함께 집에 가면 되는건데 못 가긴 왜 못 간단 말이우?!…》

《이렇다니… 임자 아직두 개구장이때를 깨깨 벗지 못하고 제 궁냥대로 놀아나니 얌전한 색시가 얼마나 속을 썩이겠나.

이보시, 지금 자네 색시가 탁배기만 걸러놓고 앉아서 랑군을 기다리는줄 아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수없이 중한것을 품어안고 기다린단 말이여. 그러니 내가 어떻게 탁배기만 크게 여기고 덜레덜레 임자를 따라가겠습나, 핫하하…》

오천의 걸죽한 롱담에 여러 군사들이 일시에 와 웃음보를 터뜨리였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웃던 여삼은 조금후에야 오천의 숨은 말뜻을 가려들은듯 불시에 새된 청을 왈칵 높이였다.

《아따, 그렇다면 형님은 구서방네 집으로 나가구려, 누가 말린다우?》

《아니, 내가 구서방네 집에는 왜 간단 말이?》

《흥, 시치미를 떼면 장땡이우?! 요새 형님이 구서방의 외동딸 취금이한테 반해서 틈만 나면 그 집 뒤담을 넘나든다구 동네의 애녀석들까지 지껄지껄합디다.

헤살을 놓기 싫어서 가만있으니까 사람을 아주 장님으로 아는게야.》

《알기는 칠월귀뚜라미 한가지로군. 사실 취금이와 어쩐다는 말이 날만 한 일이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 헛허허… 임자가 헤살을 놓겠다니 대체 어쩌자는건가?! 석전군의 팔매돌을 가지고 둘사이를 갈라놓겠습나?! 핫하하…》

오천의 유들유들한 대답소리, 웃음소리에 군사들은 또다시 푸지게 웃어댔다.

일쑤 발끈하기는 잘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뒤가 무른 여삼이도 언제 짜증을 냈던가싶게 깔깔 웃어댔다.

박위도 소리없이 느슨한 웃음을 피워올리였다. 기분은 더욱 흥그러워났다.

새삼스레 자기의 군사들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아무런 가식도 없이 자기의 마음속을 기탄없이 터놓는 그들의 소박한 생활세계가 은근히 부럽기도 했다.

얼마나 솔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인가.

저마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과 취미도 각각이지만 하나같이 점잔을 뺄줄도 모르고 걸발린 례의를 차릴줄도 모르며 유식한 문자말로 자기를 미화할줄도 모르는 저네들.

하지만 저들의 투박하면서도 엇구수한 말마디속에는 나라의 군사일에 사심없는 땀과 지혜를 바치고 정다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의 기쁨과 긍지가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하게 슴배여있는가!

훈훈하게 더워나는 가슴을 안고 생각에 잠겨있던 박위는 문득 이마

살을 찌프리였다. 가슴속 복판에서 홀연 싸늘한 눈가루같은것이 타래쳐올랐다.

(…저들에게 있어서 군영은 나라를 지키는 성스러운 초소인 동시에 청춘의 꿈을 꽃피우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군영이란 무엇인가! 시종 딱딱한 구령소리와 병장기들의 부딪침소리 같은것만이 울리는 병영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박위는 단정하게 박힌 대문이로 귀인성스럽게 생긴 작은 입술을 아프게 짓물었다.

꽃향기에 축축히 젖은 사위는 여전히 고요했다.

어디선가 날아온 두마리의 노랑나비가 눈앞이 어지럽도록 깝치며 돌아가더니 뿔뿔이 갈라져 날아올랐다.

어느 전장에서 왜구의 날카로운 칼날에 한쪽귀가 뭉청 잘린탓에 《짝귀》라는 점잖지 못한 별명을 달고다니는 박위의 황부루는 때마침 번번한 길녘에 파수군처럼 홀로 서있는 나무밑을 지나고있었다.

포도송이마냥 주렁주렁 내리드리운 하얀 꽃방망이들에서 코가 아리도록 싱그러운 꽃향기가 미여지게 쏟아져내리였다.

그 순수한 꽃향기가 어느 옛적 자기 안해의 몸에서 늘 풍기군 하던 이채로운 향내와 엇비슷하다는것을 감촉하는 순간 박위는 사금파리같은것이 가슴의 벽을 빡 내리긋는듯 한 예리한 아픔을 느끼였다.

박위는 슬며시 눈길을 내리떨구며 느슨하게 고삐를 놓아주었다.

2

…그해 초봄 김해부사로 있던 박위는 어느 해변고을의 만호(고려 후반기 지방의 요충지에 배치되였던 군사지휘관 또는 지방관.)로 임명되였다.

박위는 만호벼슬이 승급인지 좌천인지 선명하게 가려지지 않았으나

새 직무를 받자 그 즉시 군말없이 임지로 떠났다.

그의 안해 최씨는 갓 태여난 아들 현중이를 싸업고 밀양의 친정집으로 향하였다.

최씨는 친정집에서 아들의 젖이나 뗀 다음에 박위에게 가는것이 가군의 일을 옳게 돕는것이라고 생각한것이였다.

그가 친정집으로 온지 꼭 열흘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향간에서 즐거운 봄명절이라 일컫는 삼월삼짇날이였다.

고향마을의 야트막한 뒤산기슭에서는 그날을 기다려 한껏 피여난 진달래꽃송이들이 봄바람을 타고 설레며 이쁘게 웃고있었다.

그 진달래꽃속에서 최씨를 위시한 동네녀인들도 꽃다림(화전놀이)에 쓸 진달래꽃지짐을 지지고 꽃국수를 사리며 떨기떨기 웃음꽃을 피우고있었다.

그럴 때 갑자기 한무리의 왜구가 마을을 에워싸고 갈가마귀떼처럼 달려들었다.

고요속에 날이 밝고 적막속에 해가 지던 아늑한 산골마을의 곳곳에서 비명소리, 아우성, 고함소리가 터져올랐다.

곳곳에서 두리기둥같은 불길과 삼단같은 연기타래가 치솟았다.

마을사람들은 승냥이무리에게 쫓기우는 사슴무리처럼 산지사방으로 황급히 흩어져 달아났다.

최씨도 현중을 둘쳐업고 대중없이 내뛰였다. 황망히 꽃무더기를 헤치고나온 최씨가 뒤산골짜기에 들어가기 위해 음침한 벼랑그림자가 드리운 골어구에 다가섰을 때였다.

목을 지키고있던 세놈의 왜구가 솟아나기라도 한듯 우뚝우뚝 일어서더니 와르르 최씨에게 다가들었다.

무작정 칼을 휘두르려던 왜구들은 무엇때문인지 일시에 칼을 내리웠다.

아직 서른살도 채 안된 젊은 녀인, 한창 피여나는 작약꽃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운 최씨의 자태에 그만 얼혼이 빠진것이였다.

왜구들은 음독이 올라 지지벌개진 눈망울을 희번득거리며 저마끔 씨벌거리였다.

《보매 당신은 귀부인같은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해할수 있겠는가.》

《부인이 우리에게 잠시 몸을 허락한다면 머리터럭 하나 다치지 않고 살려주겠다.》

이를 사려물고 왜구들을 쏘아보던 최씨는 품속에서 번쩍거리는 단검을 뽑아들었다.

왜구들을 노려보며 통통히 호령하였다.

《이 짐승같은 놈들아, 내가 구구히 목숨이나 건지자구 네놈들의 개수작에 귀를 줄것 같으냐. 내 오늘로써 이 세상을 하직한다만 네놈들은 머지않아 내 피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똑똑히 알게 될게다.》

말을 마친 최씨는 자기의 가슴에 힘껏 칼을 들이박았다.

급보를 받은 고을의 군사들이 달려왔을 때 최씨는 이미 숨을 거둔뒤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10여년이 지나갔다.

10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옛적의 일은 아무리 가슴아픈것이라 할지라도 차츰 희미해지거나 가뭇없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마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세월의 흐름은 망각의 휘장이라고 일러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박위는 안해의 최후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수 없었다.

그날의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세월이 갈수록 잊혀지기는커녕 더 자주, 더 생동하게 뇌리속에 비껴들군 했다.

그럴 때마다 박위는 왜구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더더욱 이가 갈리고 살이 떨리였다. 지금도 마음속깊이에 안해의 모습이 떠오르자 대번에 복수의 붉은 피가 사품쳐 끓어번지였다.

뒤이어 순간이나마 그 어떤 자기만족에 빠지였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쓴 물처럼 우러났다.

(옛 병서에도 《네가 하루를 방심하면 적은 두배로 강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해변고을들의 군사일을 돌아본것이 무슨 공적이라도 되는듯이 여기지 않았는가.

어제 저녁 회군하던 길에 부산관가에 들어가 늦도록 술을 마신것도 그리고 지금껏 놀량으로 길을 걸어온것도 따져놓고보면 다 내 마음의 탕개가 풀어진 까닭이리라.

그런데다 새빠지게 녀인에 대한 생각에 빠진것은 또 웬일인고?!…

아서라, 왜구가 언제 어디로 쳐들어와 무슨 지랄을 할지 모르는 요즈음 어디 가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때 나라의 최전역에 나선 장수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한참이나 자신의 신통치 않은 정신상의 과실을 두고 정도이상으로 심각하게 속을 썩이던 박위는 날카롭게 벼려진 시선을 뒤쪽으로 돌리였다.

무슨 말끝엔가 또 한바탕 크게 웃어제끼느라고 어깨를 들썩거리던 오천은 박위의 시선과 부딪치자 금시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물었다.

얄팍한 어깨를 달싹거리며 해망스럽게 깔깔거리던 여삼이도 가느다란 눈을 샙뜨며 황급히 웃음기를 삼켜버리였다.

《그만들 해라. 이제는 그만 길을 재우쳐가야겠다.》

박위는 위엄기 배인 청으로 웨치듯이 말하고나서 세괃게 고삐끈을 나꾸어챘다.

주인의 불같은 성미에 익숙된 황부루는 박위의 급작스러운 신호에 놀라기는커녕 투레질 한번 하지 않고 화닥닥 네굽을 놓았다.

오천과 여삼을 위시한 10여명의 군사들도 박위의 흉내라도 내듯 일제히 고삐끈을 세차게 당기였다.

태평스레 드러누워 인간세상의 범인들로서는 감히 륜곽조차 헤아릴수 없는 거창한 꿈을 꾸는듯싶던 장려한 바다는 야단스러운 말발굽소리에 놀라 깨여나기라도 한듯 불시에 하얀 물이랑을 말아올리며 거방진 몸통을 뒤틀기 시작했다.

군마들의 행렬앞으로는 불덩이같은 꽃송이들이 다닥다닥 박혀있는 해당화덤불들이 빠르게 다가왔다가는 미처 여겨볼새도 없이 홱홱 스쳐지나갔다.

얼마후 가락촌을 지나서 구랑마을을 에돌아나온 군마행렬은 록산쪽으로 내리달리였다. 눈깜짝할새에 록산마을을 비껴치우고 야트막한 언덕우에 올라서니 적토색평야우에 엎어놓은 놋바리처럼 보이는 그리 높지 않은 군영뒤산이 우렷이 안겨왔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삘틈없이 들어찬고로 사시절 푸르게만 보이는 군영뒤산기슭에 덜썩덜썩 몸을 솟군 군막들도 뚜렷이 가려지였다.

박위의 두툼한 가슴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군영대문우로 문득 현중의 고집스럽게 생긴 귀여운 얼굴이 달덩이처럼 떠올랐다.

어머니의 살뜰한 사랑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라난 현중이.

키는 벌써 엄부렁하게 크지만 몸은 아직 봄날의 물버들처럼 애리애리한 현중이.

하지만 아들녀석은 벌써부터 활쏘기, 칼쓰기에 정신이 팔려 돌아가고있었다.

아마 오늘도 현중은 죽촌에 사는 리별장의 딸 리옥에게 내려가 활재주를 익히고있을것이였다.

아들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대견한 마음을 안고 고개를 끄먹거리던 박위는 부지중 리옥이가 군영에 들어와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지그시 입술귀를 짓물었다.

후둑후둑 가슴이 높뛰였다.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리옥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있는 얼굴모습이 아프게 심장을 찌르며 육박하듯 다가왔다.

일찌기 체험해본적 없는 류다른 번민이 가슴의 벽을 아리게 허비며 떠올랐다.

(이제 리옥을 만나거든 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고?)

박위는 난감한 표정을 하고 이런저런 말마디를 골라보았다.

허나 군영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름내내 짚여지지 않던 신통한 말마디가 이제 갑자기 떠오를리는 만무했다.

박위는 애써 번거로운 생각을 털어버리려 했으나 리옥이와 결부된 그날 밤의 일은 하냥 생동하게 떠오르며 괴롭게 속을 허벼팠다.

각일각 다가오는 군영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지만 옛 전우의 외동딸인 리옥이와 련관된 환희로우면서도 딱한 생활상의 고충도 있었다.

박위의 심중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군영대문앞에 아름드리몸통을 비틀고 서있는 소소리높은 느티나무는 기다란 팔을 벌려 흔들며 어서 오라 반기고있었다.

3

…박위의 체구는 일류 무장답게 장걸하면서도 탄력에 넘쳐있으나 동그스름한 얼굴은 그 볼만 한 체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희고 예쁜데다 노상 연한 웃음기까지 실려있어 적지 않은 무관들은 그를 두고 《백옥장군》이라고 불렀다.

무관으로서의 실력은 어떻든 녀성적인 미를 가진 장수라는 의미의 호칭으로서 조롱의 뜻이 아주 없는것도 아니였다.

다만 밀직부사 최칠석만은 박위를 두고 범의 젖을 먹고 자란 장군이라고 반롱조로 칭하군 했는데 그 부름속에는 자기의 벗에 대한 진심으로 되는 찬탄과 존경심이 짙게 어려있었다.

허나 유감스럽게도 조정안팎에는 최칠석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거의나 없었다.

박위의 외관을 보아서는 절대로 그럴수 없다는것이 무관일반의 견해였다.

하지만 사향이 있는 곳에서는 향내가 나기마련이요, 풍경이 있는 곳에서는 소리가 나기마련이였다.

무과에 급제한 박위가 처음으로 받은 벼슬은 룡호군(고려때 왕실과 수도 개경을 지키던 중앙상비군의 하나, 2군6위중에서 한개의 군.)의 중랑장이였다.

박위가 처음으로 룡호군지휘부에 들어서니 무엇때문인지 군의 지휘관들은 하나같이 찌뿌둥하고 먼산바라기를 하고있었다.

슬며시 기분이 언짢았으나 아마 자기가 오기 전에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있었는가부다 하고 제 좋게 생각한 박위는 상장군, 대장군 같은 상관들에게는 물론 동격의 중랑장들과 하급인 랑장들에게도 깍듯이 인사를 차리였다.

하고는 자기의 자리로 짐작되는 빈 교자우에 단정히 앉았다.

그러자 몸집이 황소만큼이나 요란스러운 중랑장 김극기가 퉁방울같

은 눈을 디룩거리며 제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

《여보 동관! 그대는 우리 군에 새로 온 사람인데 례법대로 우선 신래를 하고나서 면신을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신래는 빼먹고 면신부터 하니 그게 옳게 된 일이요?》

그제서야 박위는 방안의 공기가 랭랭해진 리유를 확연히 간파할수 있었다.

법적으로 규제된 조항은 아니지만 새로 벼슬을 받고 관가에 들어온 신관리는 오자바람 구관리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례를 차려야 하는데 그것을 신래라고 하였다.

그 신래는 한번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적어서 열흘, 많으면 30일을 넘기는것이 통례였다.

여하튼 그 신래가 끝나야 신관리는 자기 자리에 들어가앉을수도 있고 사람들과 말도 나눌수 있는데 그것을 면신이라 일렀다.

하고보면 맨손으로 들어와 술대접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들어앉은 박위는 례의도 모르고 렴치도 없는 사람이였다.

박위는 조정안에 이러한 페습이 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십일간이나 술과 음식을 펼쳐놓을 밑천도 없었고 조정관청에 인박힌 천하고 어지러운 페습을 지키고싶지도 않았다.

신래야말로 군기를 문란시키는 페풍중의 하나요 관헌의 인격을 좀먹는 페습중의 하나였다.

박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음은 몹시 언짢았으나 애써 인상적인 미소를 띄우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꽉지를 뗐다.

《본관은 시골에서 나서자라다보니 미거한 점이 다수한 사람입니다.

그저 전하의 하해같은 은덕을 입어 분에 넘치는 벼슬을 받았사온데 일후 결함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구 방금 저 뒤쪽에 앉아계시는 중랑장께서 신래를 권유하셨는데 그것은 후일 기회를 얻어 잘 준비하겠습니다.

본관은 우선 일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본관이 속한 령(룡호군은 두개의 령으로 되여있다.)이 어느 령인지 그것부터 알려주시면 지금 당장 령에 나가 군사일에 손을 붙이겠습니다.》

박위의 표정과 말마디는 더없이 부드러웠으나 사람들의 낯색은 더

욱 흐려들었다.
　마침내 하늘소처럼 귀가 빨쭉한 랑장 하나가 올롱하게 눈을 치뜨며 경망스럽게 손을 내리그었다.
　《우리 룡호군으로 말하면 2군6위(고려중앙 상비군의 통칭.)가운데서도 전하의 신임을 제일로 많이 받는 정예부대인데 이런 훌륭한 부대에 들어와서도 신래를 못하시겠다니 중랑장께서 너무하신듯 합니다.》
　출랑이처럼 천박하게 생긴 랑장은 박위보다 한품계나 벼슬이 낮건만 제법 꾸중 비슷한 훈시질을 하는데 보매 그는 예쁘장하게 생긴 박위가 상당히 우습게 생각되는 모양이였다.
　박위는 더이상 자기 속을 털어보이기가 싫어 탁자우에 놓인 선생안(전직벼슬아치들의 이름이 적힌 문건)을 끄당겨놓고 건성으로 읽어내려갔다.
　아까부터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눈으로 박위의 일거일동을 주의깊게 살펴보던 상장군 김종연이 뒤로 젖히였던 거방진 몸집을 앞으로 당기며 장히 거드름스럽게 말을 뗐다.
　《여보 중랑장, 내가 바로 그대가 속한 령을 통솔하는 상장군이요.
　보매 공은 신래라는것을 몹시 경원시하는것 같은데 나 역시 그런 놀음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신래는 그만두고 신, 구관리가 대항하여 수박희를 하는것으로 피차 무관다운 인사를 차리는게 어떻소?》
　종연은 박위의 당당한 언행이 은근히 마음에 들면서도 어딘가 가소롭게 생각되여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박위는 종연의 제의야말로 진정 반가운듯 싱긋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거야말로 무관다운 통성이고 례의인듯 합니다.》
　당장 먹자판을 벌리고싶어 몸달아하던 룡호군량반들은 금시 누구의 사등뼈라도 분질러내칠듯 기세등등하여 마당으로 쓸어내려갔다.
　제일먼저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비틀어뽑는 장사라고 소문난 김극기가 깍지동같은 상체를 멋스럽게 뚱깃거리며 깔판우에 올라

셨다.
극기는 박위의 기를 꺾어놓으라는 종연의 은근진 사촉을 받기도 했지만 그 사촉이 없더라도 정도이상으로 태연하고 당당한 신임중랑장을 단박에 까뭉개놓고싶었다.
박위가 깔개우에 올라서자 극기는 호랑이앞에 나선 하루강아지처럼 보이는 상대가 우습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여 시물시물 입술을 놀리며 여유작작하게 다가들었다. 두손을 유연하게 쳐들고 방어태세를 취하고 서있는 박위에게 접근한 극기는 불식간에 솥뚜껑같은 손을 펼쳐들었다.
드센 손칼질로 단매에 박위의 목줄기를 꺾어놓을 심산이였다.
극기의 손칼이 내리박히는 찰나 박위는 뒤로 넘어지기라도 하듯 상체를 뒤로 잔뜩 제끼였다.
이어 박위는 세칭 나비잡이라 일컫는 모두발을 버쩍 허공으로 솟구쳐올리였다. 극기가 미처 앞으로 쏠린 상체를 바로잡기도 전에 박위의 모두발이 꺽지게 생긴 극기의 턱에 세차게 들이박히였다.
극기의 우람진 몸집이 돗자리우에 통으로 나가떨어지였다.
재차 드센 타격을 가하면 극기는 더이상 자기를 수습할수 없을것이였다.
허나 박위는 손을 툭툭 털며 극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정히 안아 일으켜주었다.
《어디 상하지나 않으셨소?》
극기는 단 한번의 타격에 쓰러진것이 조금 창피하기는 했으나 워낙 무관답게 속이 확 트인데다 솔직한 사내라 껄껄 웃으며 머리를 흔들어털었다.
《헛허허… 그만한 놀음에 상할리야 있소. 내 오늘 희떱게 놀다가 단단히 버릇을 배웠소그려, 헛허허…》
그날 저녁 박위는 룡호군량반들을 모두 자기의 처소로 데리고갔다.
풍성하지는 못하나 성의껏 차린 주안상이 나오자 박위는 량반들에게 일일이 술을 권하고나서 자기의 진속을 그대로 터놓았다.
《터놓고말하여 사내로 나서 술을 마시는게야 무슨 흠절이겠습니까.
하지만 병기를 잡고 나라를 보위하는 우리 무관들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수십일동안 내처 술을 마신다는것은 옳은 일이 아닌줄 압니다.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맡은 군무를 정확히 실행할수 있으며 군영안의 군기는 또 어떻게 정연히 세울수 있겠습니까.

소장이 오늘 초면에 다소 어줍잖게 놀아댄것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군기와 군풍을 옳게 세웠으면 하는 소원에서 그리한것이니 너그럽게 리해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좌중에 제의할것은 앞으로 신래를 하려거든 술이 아니라 오늘처럼 수박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좋고 친교를 가까이하는 뜻에서도 좋으며 군기와 군풍을 세우는 의미에서도 좋을듯 합니다.》

《헛허허… 그거 참 뜻이 깊은 말씀이요. 워낙 우리 군대의 신래야 그렇게 돼야지요, 헛허…》

사람이 우둘렁거리기는 하나 뒤가 없는 김극기는 얼룩덜룩하게 고약을 바른 목덜미를 조심스레 쓸어만지며 시원스레 박위의 말을 받아주었다.

최랑장도 올롱한 눈을 반짝거리며 뾰족한 턱을 들까불었다.

《솔직히 말해서 소관은 예쁘게 생기신 중랑장께서 그렇게 수박희에 능하신줄은 정녕 몰랐소이다. 일후에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무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박위를 추어올렸으나 김종연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떡거릴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턱없이 자존심이 강한 김종연은 박위의 인품과 실력이 남달리 뛰여나다는것을 여실히 느낄수록 기분은 더욱 무거워났던것이였다.

그후 룡호군에는 신래라는 말과 관습이 차츰 사라져버리였다. …

박위는 불의라고 생각되는것은 비록 사소한것이라 할지라도 타협없이 도전해나서는 강건한 사내였다.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상대가 조정의 재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룡호군의 상장군 김종연의 고맙지 않은 추천에 의해 김해부사로 내려간 박위는 1377년 5월 황산강(락동강하류)에 기여든 왜적선 50척을 일격에 함몰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임금은 친히 박위를 개경에 불러올리여 전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차려주었다.

취흥이 도도해지자 여느때없이 너그러워진 임금은 부드러운 어조로

박위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김해부사의 날이니 그대가 원하는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풀어주겠노라. 그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어려워말고 말해보라.》

자나깨나 나라의 군력강화를 두고 마음쓰는 박위는 자리에서 일어서자 자기의 속생각을 그대로 펼쳐놓았다.

《황공하오나 신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나라의 한 폐단〈이것은 소신의 가장 큰 소원이기도 합니다.〉에 대해 아뢰겠습니다.

지금 전국도처에 널려있는 수천수만의 땡땡이중들은 산수 좋은 곳에 화려한 집을 짓고 살면서 해괴한 거짓말로 순박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일만을 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죄인데 중놈들은 절마다 수십수백의 노비와 수십리지경을 넘어서는 방대한 토지까지 가지고 제후장상들을 찜쪄먹을 부귀를 누리고있으니 이런 괴이한 죄상을 어찌 더이상 묻어둘수 있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하루빨리 땡땡이중들과 절간소속의 노비들은 군사로 박아넣고 사원의 토지와 비품은 여러 군영에 고루 나누어준다면 나라의 주요폐단을 없애는 동시에 국고의 지출이 없이 전반적군력을 한층 강화할수 있으니 이는 실로 일거량득일줄 압니다.》

화색이 충천하던 임금의 옥안이 금시 흙빛으로 변했다.

그도 그럴것이 하루가 멀다하게 벌리는 잡다한 궁중행사때는 물론이요, 무슨 제사, 무슨 놀이때마다 의례히 상추쌈에 된장 곁들이듯 중들을 불러들이거나 절을 찾아가는 임금이였다.

상고해보면 불과 몇십년전인 충선왕시절에 충선왕은 매일 2천명의 중들에게 반승(중잔치)을 차려주는가 하면 닷새에 한번씩 만등회라 하여 1만등의 등불을 켜고 만명의 중들을 푸짐히 먹여주는 의식을 벌리면서 노상 중놈들과 어울려지냈었다.

지금 임금의 아버지 공민왕도 충선왕 못지 않은 불교광신자로서 사시장철 중들을 달고다니고 절들을 찾아다니였다.

지어 신돈이라는 교만방자한 중을 궁중의 스승으로 들여앉히고 나라의 정사를 통으로 그에게 맡기다싶이한적도 있었다.

이러한 왕가에서 태여난 임금에게 있어서 절과 중을 없애라는 박위의 소청은 선대임금들의 치적과 유풍에 대한 악의에 찬 시비중상인 동

시에 오늘의 궁중행사들도 시급히 폐절하라는 무엄하기 짝이 없는 훈시질로 들리였다.

임금은 너무도 기가 막히여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박위를 가리키기는 했으나 언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뒤에서 보면 금빛찬란한 왕관과 시누런 곤룡포를 흘려입은 지엄한 임금이지만 앞에서 보면 아직도 해맑은 젖살이 채 빠지지 않은 10대의 소년인 우왕은 한참만에야 비린내나는 목청을 기운껏 내질렀다.

《천생 무식한 무관놈의 말본때로다.

나라의 록을 받는 신하로서 네 어찌 과인앞에서 그런 망발을 주어섬길수 있느뇨. 이봐라, 저놈을 당장 헌부에 나리여 엄히 치죄하도록 하라—》

따져보면 임금의 령이라는것은 그 어떤 리치나 론리에 준한 정치적인 견해인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소년의 충동적인 기분의 반영에 불과했다.

임금의 령이 내리기 바쁘게 자리에서 일어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꼭같은 소리로 대답했다.

《지당합신 분부외다.》

임금의 령이라면 무턱대고 《지당하외다.》라는 말만을 입버릇처럼 뇌이는 대감들.

무턱대고 임금을 찬양하고 무턱대고 임금을 추종하여 임금에게 한껏 잘 보임으로써 벼슬자리를 영구히 고수하고 부귀영화를 길이 누리려는 권신들.

바로 이들의 《지당하외다.》라는 말 한마디때문에 국사의 백가지, 천가지가 공전, 역전을 하고 아까운 충신, 인재들이 소장, 류실되건만 나라님은 언제나 그 《지당하외다.》라는 말만을 듣고싶어한다.

결국 박위는 솔직하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인 값으로 전공을 세운 장수로부터 임금의 뜻을 어긴 죄인으로 굴러떨어지였다.

누군가가 그린듯이 서있는 박위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이제라도 임금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라는 뜻이였다.

허나 박위는 서글픈 기색을 띄운채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용서를 빈단 말인가.

소원을 말하라기에 진정을 고한것뿐인데 정의를 아뢰고 주장한것이

어떻게 죄로 되는가?!

박위는 억울하게 벌을 당할지언정 속에 없는 용서를 빌어 구차하게 위기를 모면하고싶은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이때 백전로장 최영이 박위대신 우왕앞에 백발을 조아려박고 엎드렸다.

《전하! 박공으로 말하오면…》

박위의 뛰여난 군사적지략과 용맹, 사내다운 배짱과 의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최영은 진정을 다해 열변을 토하였다.

최영의 땀에 젖은 옆얼굴과 잔등을 바라보는 박위의 가슴은 쓰리였다.

고려안에서는 물론 외진 지방에까지 무적필승의 백전로장으로 널리 알려진 최영.

박위가 전공을 세울 때마다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던 최영.

그는 박위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군 했다.

《푸른 물감은 대쪽에서 뽑지만 대쪽보다 더 푸른 법이라더니… 공이야말로 고려군대의 으뜸가는 장수일세.》

선생보다 제자가 월등 낫다는 의미, 최영이 자신보다 박위가 더 훌륭하다는 뜻이였다.

그런 과찬을 받을 때마다 박위는 송구스럽다못해 죄스럽기까지 했다.

너무도 겸허하고 소탈한 최영이 열배, 백배로 쳐다보이였다.

헌데 그처럼 존경하여마지않는 백전로장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대신 땀을 철철 흘리며 절절히 용서를 빌고있었다.

박위는 최영을 와락 안아일으키고싶었다.

하지만 최영을 일으켜세운 다음 임금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역시 할말이 없었다.

스승에 대한 도의를 지키느라고 속에도 없는 용서를 빈다는것은 정의에 대한 우롱이요, 진실에 대한 롱락이 아니겠는가?!

박위는 최영에게 무등 죄스러웠으나 여전히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입은 열리지 않았다.

박위는 입술귀를 힘주어 짓물었다.

입술귀로 실오리같은 피줄기가 구불구불 흘러내리였다.

이 일이 있은 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박위를 《도의도 렴치도 없는 매정한 사람》, 《례의보다 자존심을 더 중히 여기는 거만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박위는 그날의 자신의 처신을 두고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아무튼 그때 박위는 최영의 덕으로 간신히 처벌을 면할수 있었다. …

4

앞서거니뒤서거니하며 기세좋게 내달리던 군마들은 군영앞에 이르자 푸푸 누런 게거품을 내불며 투덕투덕 걸음을 멈추었다.

말주둥이에서 흘러나온 실오리같은 느침들이 얼기설기 뒤얽히며 휘휘 날리였다.

박위가 안장에서 뛰여내리자 어느새 벌써 자기 말에서 내리여 짝귀앞에 서있던 여삼은 잽싸게 말끈을 받아쥐였다.

찌글사하게 박혀있는 기둥에 말끈을 빙빙 둘러감았다.

박위는 땀발이 지르르하게 내번진 볼편을 쓱쓱 문대기며 대문앞에 서있는 느티나무밑으로 걸어갔다.

아스라하게 솟은 나무의 우듬지에서 이름모를 풀벌레들의 늘어빠진 울음소리가 한낮때의 정적을 째며 쓰르륵쓰르륵 쏟아져내리였다.

그 소리때문인지 군영안팎이 별스레 더 괴괴하게 느껴지였다.

아니, 실지로 굿해먹고난 집마당처럼 어수선하고 썰렁했다.

박위는 까닭없이 기분이 찜찜해났다.

예전같으면 짝귀의 뻐기는듯 한 투레질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대문이 활짝 열리고 부원수를 선두로 한 숱한 장교들이 쏟아져나왔을것이였다.

군영이 통채로 술렁거렸을것이다.

헌데 오늘은 군마들마다 투레질소리를 청청히 내건만 대문은 조금

도 열리지 않았다.

사위는 귀가 멍멍할 지경으로 괴자누룩했다. 이 대체 어찌된 일인가?!

아까부터 대문 한쪽귀에 붙어서서 불안한 눈길로 박위쪽을 힐끔힐끔 훔쳐보던 나배기파수군이 장창자루를 질질 끌며 허위허위 다가왔다.

《장군께서 그지간 귀체만강하셨소이까?》

파수군은 깊숙이 허리를 꺾으며 여느때없이 떨리는 청으로 인사말을 뇌이는데 그것은 더욱 짙은 불안감을 몰아왔다. 허나 박위는 침착한 표정을 허물지 않은채 나직이 물었다.

《오냐. 헌데 군사들은 다 어디 가고 군영은 왜 이렇게 나간 집처럼 썰렁하냐?》

주름투성이좀상에 난색을 떠올린채 별로 처져내리지도 않은 통좁은 바지를 추썩거리던 파수군은 불식간에 울가망이 되여가지고 말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이까? 오늘 새벽에 그 육실할 놈의 왜구들이 죽촌에 달려들어 마을을 통채로 태워버렸소이다.》

《무엇이 어째?!》

박위는 파수군의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금시 뒤머리가 빠개져나가는듯 한 충격을 느끼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파수군은 우두두 진저리를 한번 떨고나서 계속하였다.

《소인은 꽁지대가리 없는 소문을 듣다보니 자상히 알지는 못하오나 오늘 새벽난에 죽촌의 백성들이 죽기도 많이 죽고 잡혀가기도 수다히 잡혀갔다고 하오이다.》

박위는 그만 숨길이 꾹 막혀버린듯싶었다. 잠시후에야 제 목소리같지 않은 거센 청을 터치였다.

《이놈아! 왜구가 군영의 코앞에까지 기여들어 그 지랄을 하도록 군사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있었느냐? 모두들 늘비하게 누워서 코배기가 삐뚤어지도록 잠만 잤단 말이냐?!》

애매한 두꺼비라 장교들이 맞아야 할 떡돌에 제가 치운 파수군은 혼겁을 하여 더이상 대꾸를 못하고 비실비실 가재걸음을 놓았다.

어깨를 헐썩거리며 박위와 파수군을 갈마보던 여삼은 분노로 하여 빨갛게 달아오른 턱을 오천이쪽으로 돌리였다.

《대정형님, 이게 무슨 일이요? 그놈들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옳소?

지금 당장 다그쳐가서 왜구의 뒤대가리를 바사놓아야 옳지 않겠소?》

흥분하면 말수가 더욱 불어나면서 좀체로 자기를 다잡지 못하는 여삼이였다.

허나 오천은 충격적인 사건에 부닥칠 때마다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이 깊어지였다.

여삼이 계곡을 휩쓸어내리는 흐름세찬 산골물이라면 오천은 드넓은 대지를 적시며 유유히 흐르는 깊고 넓은 강이였다. 두툼한 입술을 이리저리 놀리며 제딴의 생각에 깊숙이 잠겨있던 오천은 분기에 젖은 눈으로 여삼을 쳐다보며 나직이 말하였다.

《소견없는 소리 그만해라. 그게 어디 말주먹질로 바로잡을 일이냐?》

오천이 퉁을 주자 여삼은 더욱 등이 달아 열을 내였다.

《아니, 그럼 형님은 분하지도 않소? 왜구들이 우리 군영의 코앞에까지 기여들어 죽촌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별의별 란장을 다 쳤다는데 해가 기울도록 그렇게 생각만 하고 서있겠단 말이요?!》

《너 정말 진정하라는데 왜 그렇게 울뚝거리는거냐?!》

오천의 분기와 짜증기가 섞인 질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느티나무밑에서 박위의 석쉼하게 갈린 청이 쩌렁 울리였다.

《모두들 말에 올라라!》

박위는 벌써 자기의 군마우에 올라 단단히 고삐를 틀어쥐고있었다.

군사들은 황급히 자기의 군마우에 힁힁 날아올랐다.

이어 군마들은 다시금 먼지구름을 뽀얗게 말아올리며 네굽을 놓아 달리였다.

박위의 황부루가 선두에 서서 행길쪽으로 나섰다.

박위는 쌍까풀이 진 둥그스름한 눈을 스르시 내리깔았다. 머리는 훅훅 달아오르고 가슴은 걷잡을수없이 쿵쿵 높뛰였다.

두서없는 생각이 마구 뇌리를 들쑤시였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만사는 불측지변(모든 일은 예측할수없이 변한다는 뜻)이라더니 왜구가 군영앞에까지 달려들어 미친 지랄을 하고 돌아갈줄이야 누가 알았는가.

이야말로 전만고에 없을 변괴가 아니겠는가?!

우리 군영의 망신이요, 우리 군대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헌데 죽촌에서 사상자도 많이 나고 잡혀간 사람도 적지 않다니 그 마을 백성들의 고충과 고통은 얼마나 크리오. 가만있어라. 변을 당한 사람들중에 혹시 현중이와 리옥이도 끼워있는게 아닐가?)

불안스레 들뛰던 박위의 가슴속에서 돌멩이같은것이 툴렁 떨어져내리였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들면서 사지가 나른해왔다.

…박위가 지방고을순행을 떠나기 전날 밤이였다.

하루종일 배무이장에 나가있다가 늦게야 처소로 돌아온 박위는 저녁상을 물리자 곧 서탁에 마주앉아 병서를 읽기 시작했다.

얼마 안있어 소리없이 문이 열리더니 현중이가 들어섰다.

박위가 고개를 드니 현중은 밤새 편히 주무시라는 격식바른 밤인사를 하였다. 하고는 왜서인지 서성거리며 쉬이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밤인사를 올린 뒤면 의례히 작은 사랑으로 나가군 하던 현중이가 오늘은 이 웬일인가?!

의문을 느낀 박위가 다시 시선을 들자 현중은 나부시 꿇어앉더니 그리 크지 않은 꾸레미 하나를 펼쳐놓았다.

《아버님, 이건 마른 쑥을 넣어서 만든 요대입니다.

아버님께서 객지에 나가시여 습한 자리에라도 드시면 묵은 속탈이 도질듯 하여 마련한것입니다.》

박위는 대뜸 속이 뜨뜻해났다.

한창 장난에 정신이 팔려 돌아갈 어린 자식이 매사에 어른스럽게 처신하려드는것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어미없이 외로이 자라는 까닭에 남달리 올되여간다고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했다.

잠시 아무말없이 더운 침을 삼키던 박위는 축축하게 젖은 청으로 꾸중 비슷한 소리를 꺼내놓았다.

《이애 현중아, 아버지걱정은 할것 없다. 너는 그저 열심히 글을 읽고 부지런히 무술을 닦으면 그만이다. 알겠느냐?》

현중은 스르시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질을 했다.

《아버님, 이건 소자가 만든것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수일내에 지방순행을 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리옥누님이 제 손으로 햇쑥을 뜯어다 말리워서 만든것입니다.》

《리옥이가?!》

박위는 어망결에 현중의 말마디를 받아 뇌이였다.
왜서인지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리옥이가 나를 위해 요대를 만들었다?!)
고맙게 생각되기 전에 왜서인지 슬며시 얼굴이 달아올랐다.
리옥은 거제도에서 별장벼슬을 지내던 리일경의 외동딸이였다.
몇해전 박위가 경상도원수로 갓 부임되여왔을 때 일경은 제일먼저 배를 타고 군영에 찾아왔는데 그것이 두사람간의 첫상봉이였다.
일경은 그때 벌써 60나이가 불원한 로인이였다.
무관치고는 나이부터 넘고 처지는데 착하고 순하게 생긴 얼굴에는 병색까지 컴컴하게 비껴있었다.
박위는 첫상면에서 벌써 일경에게 실망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고리삭은 샌님같기도 하고 어리무던한 늙은이같기도 한 리일경이 지금껏 무관노릇을 해왔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장차 커다란 섬 하나를 옳게 지켜낼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역시 전혀 생기지 않았다.
허전하고 서운하고 서먹서먹하고…
일경을 처음으로 만난 박위의 느낌은 이것이 전부였다.
몇달후 박위는 거제도의 방비정형을 료해하기 위해 섬으로 넘어갔다.
아무래도 리일경의 일이 마음놓이지 않았던것이였다. 헌데 정작 섬에 가보니 거제도의 군사일은 애초의 짐작과는 판다르게 펼쳐져있었다.
무너진 곳 하나없이 든든하게 수축되여있는 성곽, 하나같이 다듬어 가꾼듯 칠칠한 군사들, 흠잡을데없이 정연한 경비체계와 비상동원체계…
미비하거나 허술한 구석은 한군데도 없었다.
박위는 만족하기 전에 어벙벙해났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외형에 준하여 평가한다는것은 얼마나 편협한 사고방식인가 하는 자기반성과 죄책감이 아프게 속을 비틀었다.
점심녘이 되자 박위는 일경이가 잡아끄는대로 그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한번 크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구기자덤불에 묻혀있는 대나무울타리, 무성한 참대숲을 병풍처럼 뒤에 두르고 서있는 아담한 초가집…
겉모양처럼 수수하면서도 정갈한 사랑방.
방안의 시렁우에는 크고작은 화살들이 주런이 놓여있었다.

벽면에는 손바닥만 한 종이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거기에는 활촉이 박혔던 자리가 벌둥지처럼 송송 뚫려있었다.
일경은 몸이 불편하거나 눈비가 내릴 때면 집안에서도 작은 화살을 가지고 활쏘기연습을 하는 모양이였다.
어디 가서도 본적이 없는 방안의 류다른 풍경앞에서 박위는 한참이나 할바를 잊고 굳어져있었다.
일경에 대한 그윽한 존경심이 따갑게 타래쳐올랐다.
요즘 량반들은 거개가 한쪼각의 벼슬이라도 얻어걸치면 천량재산을 뭉그려들이고 집안팎을 번듯하게 꾸리느라고 정신없이 뛰여다닌다. 그런데 리일경은 어떠한가. 다 실그러져가는 자기의 살림집마저 아늑한 생활의 요람이 아니라 하나의 격렬한 군사훈련장으로 꾸려놓았다.
그나 그뿐인가.
로쇠하고 병약한 그가 얼마나 애면글면했으면 섬안의 방비상태와 동원태세가 그리도 빈틈없이 든든하게 꾸려졌겠는가.
일경은 진정 심산에 홀로 핀 향기로운 꽃송이마냥 누가 보지도 알아주지도 않건만 자기의 심신을 깡그리 바치여 나라의 한 전구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고지식하고 성실한 진짜배기 무관이였다.
이런 사람을 미타하고 허술하게까지 여긴 자기가 못내 죄스러웠다.
누구앞에서나 자기의 진심을 가리울줄 모르는 박위는 영문을 모르는 일경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다.
그제서야 박위의 내심을 알게 된 일경은 제쪽에서 도리여 옹색해하며 자기의 소박한 인생지론을 간명하게 풀이했다.
《소관은 이제 늙은 말 한가지로 기력도 빠지고 정신도 쇠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전복을 입고 이 땅을 지키자고 합니다.
늙은 말이 만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즉 소관은 늙은 말이 만리를 가듯 생의 마감날까지 꾸준히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렵니다.
실상 누가 보든말든 병기를 잡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것이 우리 무관들의 사는 멋이 아니겠습니까.
사치나 부귀같은것은 제 갈데로 가라지요. 헛허…》
박위는 일경과 겨우 두번째로 만나지만 그의 인간적인 전모를 확연

히 헤아려 짐작할수 있었다.
일경은 진정 성실하고 량심적인 무관이였다. 박위 자기와는 성격도 판다르고 지식정도도, 나이와 군무년한도 엄청나게 차이나지만 병약한 나배기 무관인 리일경이 스승이상으로 쳐다보이였다.
그후 박위는 리일경을 다시 볼수 없었다.
이태전 봄 어느날.
5백도 넘는 왜구의 대부대가 아침나절의 짙은 안개발을 타고 불의에 거제도를 공격하였다.
어느때나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던 거제섬의 군사들은 즉시 반격을 가하였다.
치렬한 공방전은 아침부터 중낮까지 계속되였다.
성밖의 왜구들속에서도 수백의 사상자가 나고 성안의 거제군사들도 반수이상 쓰러지였다.
공격을 시작할 때부터 성을 허물기 위해 지랄발광을 하던 왜구들은 마침내 뒤쪽 성 한귀퉁이를 헐어내였다.
화살에 찔리고 불덩이에 끄슬리여 온통 피자박이 되여가지고도 정열적으로 방어전을 지휘하던 일경은 성이 허물어졌다는 급보를 받자 급히 뒤쪽 성으로 달려갔다.
성이 허물어진 곳으로 왜구들이 불개미떼처럼 밀려들고있었다.
최후를 예감한 일경은 더없이 침착한 어조로 남은 화약을 전부 뒤쪽 성으로 날라올것을 명하였다.
그윽한 웃음기같은것이 비낀 얼굴로 성안의 정경을 둘러보던 일경은 제 손으로 화약통에 불을 달았다.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일경은 물론 새까맣게 밀려들던 수십명의 왜구도 재가루가 되여 하늘가로 흩어졌다.
그때 마침 군영 군사들을 이끌고 거제도 앞바다의 배길을 순회하던 박위는 요란한 폭음이 들려오자 즉시 섬으로 방향을 돌리였다.
상륙하자바람 무자비한 소탕전이 벌어지였다.
석양이 불탈무렵 박위네들은 거제섬에 올랐던 왜구들을 남김없이 전부 잡아치웠다.
거제도의 하늘에도 피가 흐르고 거제도의 땅에도 피가 흘렀다.
싸움은 이겼으나 승리는 너무도 가슴아픈 피의 대가였다.

뭐니뭐니해도 그처럼 진실하고 열정적인 리일경을 잃은것이 뼈가 아프도록 괴로왔다.

박위는 거제도에서 선뜻 발을 뗄수가 없었다.

하여 며칠동안 섬에 머무르면서 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전사한 군사들의 장례를 성의껏 치르어주었다.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으나 끝끝내 고집을 부리여 고인의 근친자만이 입을수 있다는 회복(제일 거칠고 굵은 베로 지은 상복으로서 가장 많은 슬픔을 나타낸다는 의미)을 입고 상례를 주관하던 그 나날 박위는 처음으로 리옥을 알게 되였다.

참대지팽이를 짚고 상주노릇을 하는 처녀(리일경에게는 아들이 없었다.)의 청초한 모습을 대하는 첫 순간 박위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혀 처음 보는 처녀건만 너무도 낯이 익었다. 깨끗하고 그윽한 생김새도, 조용하고 현숙한 행동거지도 자기의 안해 최씨와 한판에 찍어내기라도 한것처럼 방불했다.

최씨와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시원스럽게 쑥 빠진 처녀의 하얀 목언저리에 팥알만 한 기미가 박혀있는것이였다.

(환생이란 말은 많이 들었어도 여적 실체를 본적은 없었는데 드디여 그 사람의 환생을 보는것인가?!)

허망한 생각인줄 알면서도 허망하게 스쳐버리고싶지 않았다.

뼈저린 아픔우에 또 하나의 고통이 겹쌓이였다.

하여 박위는 되도록이면 리옥이와 마주서는 일을 피하였다.

7일제까지 보아주고나서 서둘러 거제섬을 떠났다.

하지만 영용하게 싸우다 전사한 늙은 전우의 외동딸이요, 거제섬방어전때 적지 않은 왜구를 쏘아잡은 녀무사인 리옥의 운명을 두고 무심할수는 없었다.

일경의 돐제가 지나자 박위는 군영의 군사들을 파하여 리옥을 뭍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하고는 군영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포실한 어촌마을인 죽촌에 리옥의 살림집을 지어주고 각색 살림도구와 식량을 보내주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따금 현중을 죽촌에 보내여 며칠동안 처녀와 함께 지내게 하는가 하면 명절이 오거나 빛 다른 음식이 생

길 때면 리옥을 친히 군영에 불러들이였다.
박위가 각근히 살펴줄수록 리옥의 가슴에도 박위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정이 층층 두터워졌다.
요즘에 이르러 리옥은 박위와 현중을 한집안식구처럼 친근히 여길뿐아니라 그들을 위해 제나름껏 성의를 다하고있었다.
하지만 박위는 리옥이가 이처럼 자기의 속탈까지 념려하여 정성껏 요대까지 만들어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별치 않은듯 하나 스쳐지날수 없는 이 요대를 그 어떤 은혜에 보답하고싶어하는 처녀의 순수한 정성으로만 생각해야 하겠는가?…
…리옥의 따뜻한 마음이 슴배여있는 요대를 매만지며 추억의 나날을 더듬어나가던 박위는 문득 보라빛요대천이 무척 눈에 익다는 느낌이 들자 저도 모르는새 눈에 힘을 주었다.
보라빛비단천은 분명 어느땐가 자기가 리옥에게 보내준것이였다.
올해 정초 조정에서는 왜구와의 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운 박위에게 상을 내리였는데 그속에는 맛좋은 계피술과 함께 여러가지 색고운 비단옷감이 들어있었다.
박위는 사실 생활면에서는 매우 투미한편이였으나 오래전부터 과년한 처녀인 리옥의 장래일을 위해 무슨 마련이든 차근차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만은 가지고있었다.
그 생각은 언제인가 누구에게서 요즘 행세하는 집 딸들은 시집을 갈때 저고리 삼작이라 하여 초록저고리, 노랑저고리, 보라저고리를 갖추어입고 또 치마삼작이라 하여 웃치마, 속치마, 무지기를 겹겹으로 떨쳐입는다는 소리를 들은 뒤부터 더욱 굳어지였다.
허나 재산이라고는 칼 한자루밖에 없는 박위로서 그 모든 값진 옷감을 고루 마련한다는것은 너무도 아름찬 일이였다.
그러던차에 희귀한 옷감이 여러벌 생기게 되자 박위는 무슨 큰 소원이라도 성취된듯이 기뻐하며 그것을 고스란히 리옥에게 보내주었다.
헌데 뜻밖에도 박위의 사려깊은 마음이 담겨진 그 옷감중에서 한토막이 다시 그에게로 되돌아온것이였다.
고마운 생각은 차츰 숯불처럼 사위여들고 서운한 마음이 아릿하게 우러났다.

(그러니 리옥은 내가 보내준 옷감을 전부 이런 식으로 소모하려는 것인가?

며칠전에 현중이한테도 무관복을 한벌 지어주겠다고 했다던데 그것 역시 내가 보내준 천으로 만들 작정일수 있으렷다.

허— 나로서는 서운하기 이를데 없지만 처녀의 마음은 얼마나 갸륵한고?!

지금 한창 얼굴단장, 몸단장에 윈심을 쓸 나이의 처녀가 어쩜 이렇게 웅심깊을수 있을고?!…)

다시금 훈훈해나는 가슴을 안고 요대를 쓸어보던 박위는 문득 요대끝머리에 끼워있는 종이쪼박을 띄워보자 서둘러 그것을 집어들었다.

무심결에 종이쪼박을 펼치니 거기에는 리옥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이 박혀있었다.

《현중 아버님, 소녀의 가슴에 그냥 묻어둘수 없는 사연이 생기여 외람된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툴기 그지없는 글월을 올립니다. …》

대체 어떤 사연이 생겼기에 엎디면 코닿을데 있으면서 이런 이상야릇한 편지를 보낸단 말인고?!

박위는 얄팍한 호기심과 가느다란 불안을 느끼며 글줄을 더듬어내리였다.

《…사실 말이지 현중이는 소녀에게 있어서 마음과 정을 나눌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혈붙이가 아닐수 없습니다.

정말 소녀는 현중을 친동생이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변변치 못한 재주로나마 그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면서 할수 있는껏 성의를 다하고있습니다.

헌데 요즘에 이르러 현중은 소녀의 성의에서 어머니의 정같은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이 정녕 그리워선지 때없이 저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너무도 귀에 설은 부름을 그냥 듣기도 섬찍하고 만류하기도 수월치 않아 수일을 모대기던 소녀는 비로소 이 일이 소녀의 결심 하나로 처리할 문제가 아님을 확연히 깨닫게 되였습니다.》

박위는 와뜰 놀라 머리를 들었다. 종이장을 쥔 손이 중풍이라도 만난듯 부들부들 떨리였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 리옥은 나에게 한마디 대답으로 두가지 일을 결정하라는 뜻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변사가 어디 있을고.

리옥이 정녕 이리도 도담한 처녀였는가?!

박위는 창호지를 얼비치며 들어온 희푸른 달빛에 휘감긴채 돌상처럼 굳어져버리였다.

사색은 하냥 리옥에게로 달리였다.

리옥은 올해 들어 스물일곱살, 과년해도 지나치게 과년한 처녀였다.

하지만 그는 필경 린근 동네 처녀들과는 겨룰터수가 안될만큼 인물도 절등하고 성품도 우아했다.

거제도에 살 때부터 제노라고 꺼떡거리는 량반댁도령들은 쥐며느리 새우아재 사모하듯 가당치도 않은 사랑에 빠지여 리옥의 주위를 부절히 감돌았다.

혼담을 싸안은 매파들이 문돌쩌귀에 불이 일도록 리옥의 집을 나들었다.

하지만 매파들은 번마다 퇴를 맞고 뿌옇게 밀려나군 했다.

그도그럴것이 무관의 가정에서 태여나 결곡한 아버지의 신칙과 초달을 받으며 결바르게 자라난 처녀는 자기의 부풀어오른 가슴이 사랑을 속삭이는 첫 순간부터 뜻이 높고 기개가 헌헌한 무관총각을 배우자로 택하리라 굳게 결심하고있었다.

헌데 안팎으로 훌륭한 총각이 어디 그리 흔하랴.

한해, 두해 무정한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다.

열성좋고 구변좋은 매파들도 하나, 둘 기가 진하여 리옥이라 하면 들뗴놓고 홰홰 손을 내저었다.

허나 리옥은 불안과 애수에 시달릴망정 아무에게나 허턱 자기를 내던지려 하지 않았다. 한번밖에 없는 인생에 높이 세운 뜻도 없고 사내다운 열정과 의지도 없는 범박한 필부에게 한생의 운명을 기탁한다는것은 너무도 허망한 일이였다.

그러던중 거제도전투가 터지고 아버지의 희생이 잇달리였으며 그로하여 박위를 가까이 알게 되였다.

리옥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 박위라는 예쁘게 생긴 장수가 뜻이 높고 무술에 능하며 배짱과 인정도 사내싸다는 소리를 귀에 절도록 들

어왔었다.
소문은 과연 헛된것이 아니였다.
죽촌에 나온 뒤에 리옥은 박위의 인간됨을 자기의 눈과 폐부로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
리옥은 비로소 자기가 그처럼 애타게 찾고 부르던 진정한 사내가 바로 자기의 곁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있음을 커다란 환희속에서 발견하였다.
사랑의 불길은 고요히 솟아올랐다. 그 불길은 날이 갈수록 걷잡을수없이 황황 타번지였다.
마침내 폭발의 순간은 다닥치고야말았다.
며칠전 리옥이 현중에게 무관복을 지어주기 위해 한창 옷감을 마르고있을 때였다.
그때 마침 집에 나와있던 현중은 한참이나 리옥을 여겨보던 끝에 물기어린 청으로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꺼내놓았다.
《지금껏 어머니처럼 각근한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주시는분을 누님이라 불러온것은 너무도 경홀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님이라 부르겠사오니 사양말고 허락해주십시오.》
《?!》
철없는 소년의 말이라고 흘려듣기에는 너무도 곡진한 현중의 진정앞에서 리옥은 당황해났다.
허나 리옥은 곧 현중의 간절한 소청이 정신상의 부담이 아니라 무한한 행복과 잇닿아있음을 깨달을수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 샘솟아올랐다.
사랑의 파도가 키를 솟구었다.
며칠을 두고 바재이던 리옥은 마침내 한장 종이장우에 자기의 불붙는 가슴을 통으로 쏟아놓았다.
…최씨가 비명횡사를 당한 뒤 박위는 지금껏 그 어떤 녀자도 가까이해본적이 없었다.
최칠석과 같은 절친한 친지들은 만날 때마다 재취를 해야 한다고 못견디게 쑤셔댔지만 박위는 매양 고집스럽게 머리를 흔들었다.
자기에게는 이미 사랑의 의욕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깡그리 사라진듯싶었다.

아니, 지금같은 때 사랑이나 재취를 론한다는것자체가 안일과 해이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였다.

헌데 이밤 리옥의 비밀한 편지에서 은페된 사랑의 고백 같은것을 감득하게 되자 지금껏 깊은 잠에 들었던 박위의 가슴은 알릴듯말듯 박동을 높이였다.

자기에게도 련정이라는 감정상의 한뿌리가 의연히 존재하고있음을 기쁨과 괴로움속에서 의식할수 있었다.

허나 리옥의 사랑을 아무 꺼림없이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무질서하게 들뛰던 가슴이 적히 가라앉자 박위의 뇌리속으로는 엄연한 생활의 론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렇다. 태여나 지금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외롭게 자라난 현중에게 친어머니와 생김새도 꼭같고 마음씨나 행동거지조차 방불한 새 어머니가 생긴다는것은 기쁜 일이였다.

상처한 뒤 오늘까지 녀인의 살뜰한 정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한 자기에게 아름답고 젊은 녀인의 봄볕같은 사랑이 비쳐든다는것도 행복한 일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일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무턱대고 그러안아서는 안된다.

마땅히 인륜과 도의에 비추어보고 가려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놓고보면 리옥은 응당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젊은 사내에게 장래를 기탁해야 옳을것이였다.

자기 역시 왜구의 출몰이 그칠새 없는 이 세월 각처에 숱한 군사일을 번다하게 벌려놓은 이때 한 녀자와의 사랑에 몸적실수 없었다.

결심은 명백했으나 왜서인지 자기의 뜻을 리옥에게 알려야겠다는 용단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리옥의 요청(물론 우회적인것이라 할지라도)을 즉시로 거절한다는것은 리옥에게도 그리고 현중에게도 죄가 되는 일같았다.

자신으로서도 어딘가 애석하게 생각되였다.

하여 박위는 환희로우면서도 난중한 운명의 숙제, 한순간에 수월히 풀어내칠수 없는 단순하면서도 까다로운 생활의 수수께끼를 안은채 지방순행의 길에 올랐었다. …

…군영 앞거리를 벗어난 군마의 행렬은 초여름의 따거운 해빛을 들

쓴채 고즈넉한 정적에 깔려있는 앞마을 행길에 들어섰다.
급작스레 들이닥친 야단스러운 말발굽소리에 또 어떤 변이 생겼는가싶어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불안과 의혹이 비낀 까무잡잡한 얼굴들이 집집의 대나무울타리우에, 혹은 꽁꽁 닫아맨 삽짝문우에 조롱박열리듯 오롱조롱 매달리였다.
행길가 우물터에서 드륵 드르륵 다기차게 용드레줄을 당기던 구서방의 딸 취금이가 처음에는 군마의 행렬에 놀라고 다음에는 저같은것은 본체도 않고 지나치는 오천의 전에없이 험한 얼굴에 기가 질리여 다리던 줄을 툴렁 놓아버리였다.
번들번들한 물미역이 그득 담긴 함지박을 안고 허위허위 행길에 들어서던 꼬부랑로파 하나가 돌연히 다가서는 말떼를 띄여보자 혼겁을 하여 뒤로 나동그라지였다.
솔가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지게를 지고 건들건들 마주오던 초군아이는 길을 피하느라고 헤덤비던 끝에 길녘에 파놓은 진흙구뎅이속에 곤두박히였다.
대나무울타리밑에 드러누워 낮잠을 청하던 동네개들이 후덕후덕 뛰쳐일어나 앞발을 번디디고 짖어댔다.
병아리떼를 거느리고 유유히 산책을 하던 어미닭들이 꼬꼬댁 꼬꼬 다급한 비명을 지르며 행길을 가로질러 내달리였다.
박위는 지그시 눈길을 내리깔았다.
가슴은 숨가쁘게 옥죄여들었다.
(아, 왜구들의 때없는 침노와 악행으로 하여 백성들은 물론이요 짐승들까지도 속이 버들잎처럼 졸아들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하고보면 이 나라에 과연 무관다운 무관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느뇨?!
정녕 수치로다, 망신이로다.)
박위는 지금껏 포악한 왜구들을 꼼짝 못하게 잡죄지 못한 자신이 나라와 백성앞에 더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박위의 뒤를 따르는 오천과 여삼을 비롯한 군사들의 심정도 박위와 크게 다를바 없었다.

5

박위는 이를 악문채 폐허로 변한 죽촌마을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동구밖 등성이우에 굳어져있었다.

성벽처럼 동네를 둘러쌌던 무성한 대나무숲도, 올망졸망하게 박혀있던 수십채의 정갈한 초가마가리도 거의다 타버린듯 거칠것없이 번번한 마을터에서는 시꺼먼 연기타래와 뽀얀 재가루가 어지럽게 밀려다니고있었다.

천타는 내, 나무타는 내, 짚새기 타는 내…

별의별 역스러운 내가 코가 아리도록 풍겨왔다.

아까부터 군영군사들과 린근 동네 백성들은 애처로운 비명을 흘리는 부상자들과 시체들을 등성이쪽으로 날라올리고있었다.

등성이우의 펑퍼짐한 공지에는 벌써 숯등걸처럼 타고 끄슬리여 보기에도 끔찍한 시체들이 줄느른히 놓여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의 애절한 울음소리와 넉두리소리가 귀따갑게 울려왔다.

한식경이나 칼자루를 움켜쥔 손을 후들후들 떨며 사위를 두릿거리던 박위는 자기도 모르는새 스적스적 공지쪽으로 걸음을 떼놓았다.

맨땅우에 퍼더앉아 초점없는 시선으로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끅끅 마른 울음을 터치고있는 어떤 로인이 제일먼저 눈에 걸리였다.

로인은 박위가 다가서는줄도 모르고 도간도간 넉두리를 늘어놓는데 그의 무릎우에는 숯등걸처럼 타버린 잔약한 소녀의 시체가 놓여있었다.

로인의 울음소리, 넉두리소리는 박위의 귀가 아니라 심장을 쿡쿡 들쑤시였다.

《언년아, 네 아비어미도 다 왜구의 칼에 찔려 비명횡사를 했는데 네년마저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면 이 할아비는 어쩌란 말이냐?!

어허이구, 저 악귀같은 왜구들을 어떻게 쳐죽여야 분풀이가 될가보냐. 어허이구…》

얼추 내리드리웠던 로인의 얼굴이 서서히 다시 들리였다.

그제서야 박위는 그가 저대를 하도 잘 불어 린근동네에까지 《저대로인》으로 알려진 늙은이임을 알아볼수 있었다.

언제나 술이라도 마신것처럼 불깃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돌아가던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로인.

헌데 지금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모습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었다.

왜구들은 로인의 유일무이한 재산이며 희망이며 행복인 손녀딸을 이렇다할 목적도 없이 그저 심심풀이로 등허리를 찔러 불속에 처넣은것이였다.

세상에 홀로 남은 저대로인은 이제 무엇을 여생의 지주로 삼고 살아가겠는가. 어찌어찌하여 생활의 터전은 다시 회복한다 해도 예전의 그 남다른 흥과 기분은 어떻게 되찾을수 있겠는가?…

박위의 가슴은 예리한 이발에 깨물리기라도 한듯 모질게 아파났다.

욱신욱신 들쑤시는 뇌리속으로는 지방순행을 떠나기 며칠전에 이 고장을 찾아왔던 일이 어제런듯 생생히 밟혀왔다.

그날 중낮때 죽촌에 나와 화살재로 쓸 대나무들을 돌아보고난 박위는 리옥의 집에 들려 살림형편을 살펴보고나서 마을을 나섰다.

사위는 그리 어둡지 않은데 동천에는 벌써 열나흘 밝은 달이 두둥실 떠있었다.

그리 바쁘지 않은 걸음이라 천천히 말을 몰아 동구밖에 이르니 길옆의 등성이우에서 구성진 저대소리가 흘러내리였다.

오래만에 들어보는 저대소리는 은근히 박위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말에서 내린 박위는 교교한 달빛을 밟으며 슬밋슬밋 등성이우로 올랐다.

뜻밖에도 등성이우의 풀밭에는 숱한 사람들이 하얗게 모여앉았는데 그 복판에는 다발좋은 흰 수염을 가슴노리까지 내리드리운 어떤 로인이 올방자를 고이고앉아 멋스럽게 턱을 들까불며 저대를 불고있었다.

박위는 달그림자를 끌며 천천히 사람들께로 다가갔다.

박위가 다가온것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저대를 불던 로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새삼스레 의관을 정제하고 박위앞으로 다가왔다.

두손을 배허벅에 올려 읍을 하고나서 깊숙이 허리를 꺾었다.
《장군께서 이렇게 루추하기 그지없는 우리 골에 오시여 미거한 백성들까지 찾아주시니 영광이오이다.》
로인의 하도 격식바른 인사말에 다소 거북해진 박위는 제꺽 화제를 돌리였다.
《로인장, 오늘은 명절도 아닌데 무슨 일로 이렇게 동네사람들이 모여앉아 흥을 돋구고있소?》
로인은 빙그레 웃음을 띄우며 흥뜬 어조로 대답했다.
《예, 왜구들이 이 땅에 얼씬 못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장군께서 죽촌마을에 래림하신 오늘이야말로 소인들에게는 큰 명절이올시다.》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박위는 어벙벙해났다.
허나 로인은 여전히 웃음기를 띄우고 손세까지 써가며 계속했다.
《장군께서 손수 검을 드시고 바다가에 서계시니 이 고장에는 왜구들이 얼씬도 못하고있지 않소이까.
장군의 그 수고와 마음이 하도 고마워 소인들은 변변치 못한 음식이나마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모였소이다.
장군께서 별장댁아씨의 집을 나서시거든 술 한잔이라도 올리려고…》
박위는 로인의 말허리를 꺾으며 청을 높이였다.
《그러니 모두들 나를 기다리고있었단 말이요?》
《그렇소이다.》
《허어― 이런 변 봤나?!》
박위는 허허탄식같은 소리를 흘리며 어느결에 자기를 빼곡이 에워싼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문득 리옥의 집을 나설 때 황부루의 옆허리를 나는듯이 째고 지나가던 밤톨만 한 애녀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로 그놈이 리옥의 집앞을 지키고있다가 자기가 집을 나서자 바람같이 달려와 로인에게 선통을 한 모양이였다. 박위는 자기를 대접하기 위해 늦도록 목을 지키고 기다린 이 고장 사람들의 성의가 고마왔다.
그들의 분에 넘치는 기대와 믿음도 감사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송구스럽기도 했다.

박위는 이미 저대로인의 인생경력을 소상히 알고있었다.

그는 본시 전라도 어느 해변가마을에 살았는데 어부노릇을 하던 아들과 해녀노릇을 하던 며느리가 바다에 나갔다가 한날한시에 왜구들의 죽창에 찔려죽은 뒤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끌고 이 고장에 온 사람이였다.

그는 왜구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박위장군의 군영가까이에 오면 손녀딸이라도 등탈없이 키울수 있다고 생각한것이였다.

그의 타산은 틀리지 않았다.

한해가 가고 두해가 흘러도 왜구들은 죽촌어방에 얼씬도 못했다. 살재미도 나고 옛적의 흥도 살아올랐다.

그럴수록 죽촌의 평화를 철벽으로 지켜주는 박위와 군영군사들이 무등 고마왔다.

무엇으로든 그들에게 인사를 차리고싶었다.

하여 그는 박위가 모처럼 마을에 찾아오자 기회를 놓칠세라 동네사람들을 휘동하여가지고 소박하게나마 정성껏 음식마련을 한것이였다. …

박위는 그들의 심정이 십분 리해되였으나 그들의 성의를 받아들이자니 미안쩍기도 하고 거북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순박한 백성들의 곡진한 성의와 소청을 마구 뿌리치기도 어려웠다.

박위는 로인네들이 이끄는대로 돗자리우에 마련해놓은 주안상앞에 마주앉았다.

그들이 권하는대로 술잔을 받아들었다.

박위가 사양없이 술을 마시자 사람들은 무슨 큰 은혜라도 입은듯이 감지덕지해하며 어떻게 하나 박위를 기쁘게 해주려고 저저마다 수선을 떨었다.

연방 술을 권하고 새삼스레 인사말도 올리던 저대로인은 문득 등뒤에서 감도는 계집애의 손을 잡아끌어 박위앞에 세워놓았다.

자못 무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년이 바로 전라도 바다가 문암촌에서 애비에미를 다 잃은 소인의 손녀딸이올시다. 비록 초년에 부모를 잃고 외로이 자라기는 하오나 장군의 하해같은 덕으로 요즘은 아무 걱정없이 편히 지내고있소이다.

이애 언년아, 어서 장군께 큰절을 올려라.》

초롱초롱한 눈으로 로인과 박위를 번갈아 바라보던 언년은 붕어처럼 입을 나불거리였다.

《장군께서 내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우리 고을에 계시면서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나이다.》

이미 저대로인이 인사말을 준비시켰댔는지 언년은 제법 그럴사한 인사말을 숨 한번 톺지 않고 줄줄 내리엮었다.

《나어린 년이 여간 여돌차지 않구려. 그래그래, 네 청대로 내 오래오래 이 고을에 있으마. 헛허허…》

박위는 언년이와 사람들을 둘러보며 껄껄 웃었으나 가슴은 더욱 후더워났다.

이어 저대로인은 박위의 건강과 무공을 축하하여 한곡조 불어 올리겠노라며 대나무로 만든 저대를 들어올리였다.

희푸른 달빛에 한껏 젖은 여름의 저녁하늘로 구성진 저대소리가 은은히 울려퍼지였다.

처음에는 만경창파가 밀려오는듯 근감한 소리가 울리더니 어느결에 파도소리같은것은 슬며시 사라져버리였다.

파아란 하늘가에서 꽃구름이 피여나는듯, 우거진 숲속에서 새들이 우짖는듯 맑고도 청쾌한 음조가 굴러나왔다.

곡조는 다시 바뀌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에 겨워 환성을 터치며 설레는듯 한 격동적인 음향이 흘러나왔다.

여겨들으면 분명 하나의 생활적인 줄거리를 가진 곡조였으나 박위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음악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자기의 격발된 마음탓인지 곡조에는 필경 이 고을 군사들에 대한 백성들의 고마움의 노래, 래일에 대한 당부의 의미, 언제나 군사들과 뜻을 같이할 의지가 슴배여있는듯싶었다.

박위는 힘주어 칼자루를 움켜잡으며 서서히 시선을 들었다.

허공중에 높이 달린 달은 눈이 시도록 밝았다.

달빛에 젖은 대나무숲도 사람들도 더없이 아름다왔다.

그보다는 이 나라 백성들의 깨끗하고 절절한 마음, 소박하고 열렬한 심정이 더더욱 아름답게 마쳐왔다.

정녕 생각도 많아지고 맹세도 깊어지는 잊을수 없는 밤이였다. …

…칼자루를 단단히 움켜쥔채 추억의 갈피를 뒤번지던 박위는 숫제 눈을 꾹 감아버리였다.
갈비뼈가 우직우직 조여드는듯 한 모진 아픔이 전신에 동통같은것을 불러일으키며 몰밀려들었다.
전신의 피가 발밑으로 새버린듯 한 강한 허탈감도 느껴졌다.
(아, 내 이제 무슨 낯으로 이 사람들앞에 나선단 말인가?!…
나에게 그리도 또랑또랑한 음조로 감사의 인사말을 올리던 그날의 여돌찬 계집애는 숯덩이가 되여 나딩굴고있다.
나에게 보다 큰 무공을 축하하여 저대를 불어주던 그날의 유쾌한 저대로인은 슬픔에 잠겨 오열을 터치고있다.
나에게 지성으로 술을 권하고 감사를 드리던 그날의 마음착한 동네사람들은 반수이상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사람들조차 절망과 슬픔, 아픔과 분노에 싸이여 그날의 명랑하고 쾌활하던 기색은 찾아볼수 없다.
아, 정녕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연해 거친 숨을 내불며 말뚝처럼 굳어져있던 박위는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황망히 저대로인의 곁에서 물러섰다. 허나 몇걸음 나가지 못하여 또다시 가슴저린 광경과 맞부딪치였다.
그리 크지 않은 소나무밑에 산발한 어떤 녀인이 퍼더앉아 이미 죽은 아이에게 젖을 물린채 연방 아이를 들척거리는데 보매 녀인은 반정신이 나간것이 분명했다. 그는 박위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개개 풀어진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며 쉬임없이 중얼거렸다.
《백동아, 어서 젖먹어라. 어서. 이 소견없는 어미가 건너마을 피서방네 집에 잔치일을 봐주느라고 밤새 나가있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 어서 먹어라. 응, 어서. 그런데 네 할머니와 네 아비는 어딜 가구 너 혼자 먼지투성이뜨락에서 돌멩이처럼 뒹굴고있었느냐. 응, 백동아.》
박위는 황급히 백동 어미의 곁을 지나쳐버리였다.
박위는 몇걸음 못 나가서 다시금 우뚝 굳어지였다. 웬 젊은 사내가 펑퍼짐한 바위우에 죽은 녀인을 눕혀놓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직이 웅얼거리고있었다.
《이 사람아, 이제는 그만 눈을 뜨고 일어나게나. 고들이가 왔어.

임자 지아비가 왔단 말이여. 임자의 황달병에 민물고기가 약이라기에 황산강에 밤고기사냥을 나갔었는데 그새에 이렇게 왜구의 칼에 란탕이 되였으니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이제는 정말 임자가 이세상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어허이구!…》

박위는 무엇에 다쫓기기라도 하듯 거의 반달음을 치여 등성이를 내리였다.

이렇다할 작정도 없이 성큼성큼 걸음을 놓아 옛 마을터에 들어섰다.

가슴은 그냥 칼로 에이는듯 쓰리고 아리였다. 수치감과 분노는 기름을 들쓴 불길마냥 머리끝까지 확확 치달아올랐다. 참으로 섬나라 왜구들은 강도질을 해도 제일로 더럽게 하는 천하의 악한들이요, 도적질을 해도 비길데없이 너절하게 하는 세상에 다시 없는 추물들이였다.

왜구들은 어느때든 인가에 달려들면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부터 죽인다.

철퇴로 때려죽이고 칼로 찔러죽이고 화살로 쏘아죽이고 불로 태워죽이고…

무자비한 살륙전을 끝낸 뒤에는 로략질을 시작하는데 쌀이든 천이든 재물이라고 생긴것은 비자루로 쓸어내듯 반반히 털어낸다.

그다음엔 영낙없이 불을 싸지른다.

집과 허청칸, 장독대와 울타리, 지어 마을주변의 논과 밭, 숲까지도 말짱 태워버린다.

하여 왜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의 씨가 마르고 짐승의 종자가 사라진다. 기름진 농토는 황무지로 변하고 무성한 숲은 번대숭이로 변한다.

이즈막 세월 귀신의 화보다 더 무서운 왜구의 란을 당한 이 나라 사람들은 도처에서 설음과 분노로 터갈라진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있었다.

《더이상 참을수 없다. 단군의 후예들이요, 고구려의 후손들인 우리 고려의 백성들이 왜구에게 이처럼 무서운 변을 당하고도 어찌 더이상 참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나라에는 호미보다 검이 더 많아야 함을, 농사일보다 군사일이 백배로 더 중함을.

백성들이여, 우리도 분연히 떨쳐일어나 손에 손마다 검을 틀어잡자!…》

…재가루를 푸석푸석 밟으며 무작정 앞으로 걸어나가던 박위는 군영의 부원수인 윤통과 김해고을 부사인 조호백이 급급히 마주오는것을 띄워보자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윤통과 호백은 죽촌에 변이 났다는 급보를 받자 이곳에 나와 마을을 돌아보다가 좀전에야 박위가 동네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뒤쫓아온 모양이였다.

얼굴색이 남달리 검다고 하여 《흑면장수》로 불리우는 윤통은 더 말할것 없고 매끈한 얼굴이 노상 씻은 배추줄기처럼 해말쑥하던 조호백도 컴컴하게 낯색이 죽어있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동작이 날랜 윤통에게 뒤질세라 급급히 걸음을 재우치던 호백은 제 먼저 박위앞에 다가서며 비통한 어조로 말꽉지를 떼였다.

《장군께서 영을 비우신 때 고을 경내에서 이런 참변이 생겼으니 무슨 말로 용서를 빌고 죄를 청해야 할지 실로 백골난망이올시다.》

김해부사는 고을의 행정과 군정을 함께 껴잡아보는 관헌인만큼 응당 오늘의 참변앞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박위는 호백이보다 자기의 직하부하인 윤통이가 더 원망스러웠다.

박위는 윤통에게 먼저 준절한 청으로 질책을 퍼부었다.

《부원수는 본관이 영을 비운 사이 바다길순시는 어떻게 조직했고 순라군, 파수군은 어떻게 돌리였기에 청청하늘에서 이런 날벼락이 떨어졌소?!》

꺽뚜룩한 키를 곧추 세운채 먼산바라기를 하고 서있던 윤통은 매눈처럼 예리한 시선을 호백에게 돌리였다.

《모든 일이 다 하관의 잘못으로 하여 생긴것이니 무어라고 발명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변을 놓고 제일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대상은 김해관가라고 생각합니다. 털어놓고말해서 김해관가는 우리 군영이 곁에 있는 덕에 지금껏 군사일에는 큰 물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다할 피해가 없이 편히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군영의 덕을 고맙게 여기고 고을 경내의 군사일에 각근한 관심을 돌리는게 례절이 아니겠습니까.

하관은 이 자리에서 김해관가가 우리 군영에 조달하기로 된 군량과 반찬감을 수량대로 내지 않은것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지하는바이지만 원래 죽촌까지는 김해군사들이 맡아 지키고 죽촌 다음촌부터 우리 군영이 맡게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김해관가에서 맡은 죽촌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니 소장은 명백히 한계를 갈라가지고 책임을 묻고 죄를 따지는게 옳을줄 압니다.》

워낙 성정이 메마르고 성격이 팩팩한 윤통은 호백의 체면이나 립장같은것은 알은체도 않고 콩이야 팥이야 빠개가며 마구 내쏘았다.

호백의 희좁은 얼굴은 금시 구워놓은 가재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존심이 몹시 강한데다 량반의 지체를 대단하게 따지고드는 호백은 저보다 월등등급이 낮은 윤통에게 거의 야비한 질책을 당한것이 참을수없이 분해난것이였다.

호백은 눈을 까뒤집고 새된 청을 톺아올리였다.

《부원수는 말이면 다 하는줄 아오?

우리 관가에 설혹 여하한 과실이 있다손쳐도 어떻게 그렇게 짜게 말할수 있소?

죽촌백성들이 허다히 죽고 잡혀간고로 억장이 무너져내린 이 관장에게 꼭 그렇게 혹독한 질책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소?!》

윤통이 역시 호백의 생억지를 곱게 흘려버릴 사람이 아니였다.

그는 원래 참을성이 없는데다 옳지 않은 경우를 정당화하려드는 사람앞에서는 그가 누구든 더욱 열을 올리는 성미였다.

《아니, 하관은 책임한계를 갈라가지고 정확히 죄를 따지자는건데 부사께서는 무엇때문에 당치도 않은 변명을 꺼내여 삼태기로 앞을 가리듯 합니까?》

호백은 너무도 기가 막히여 입을 딱 벌리였다. 설핀 수염몽치가 매달린 뾰족한 아래턱이 걷잡을수없이 달달 떨리였다.

《삼태기로 앞을 가리듯 하다니?!

부원수는 뉘게다 감히 그런 상스러운 말을 가져다붙이는게요, 엥?》

《누구긴 누구겠소? 김해부사 당신에게 하는 말이요.》

《무엇이 어째?》

《큰소리는 왜 치우? 내가 당신의 호령에 기가 질릴 사람 같소?!》

두사람은 수닭처럼 마주서서 길길이 뛰였다.

박위는 재가루가 날리는 페허우에서 네 밀둥 내 밀둥하던 끝에 청을 높여가지고 싸움을 하는 호백이와 윤통이가 다같이 한심하게 생각되였다.

박위는 재티가 뽀얗게 앉은 커다란 주먹으로 공기를 갈라던지며 목청을 높이였다.

《그만하지 못하겠소? 공들은 이런 마당에서 옥신각신하는것이 창피하지도 않은가?

더우기 부원수는 나라의 록을 먹으며 전수히 군사일만 보는 무관인데 패전한것이나 다름없는 오늘의 일앞에서 계속 책임한계와 방비구간만 따지는게 옳겠소? 길게 말할것없이 부원수가 바다길을 책임적으로 지키기만 했어도 이같은 일은 없었을게 아니요?》

윤통은 아무 대꾸없이 다시 먼산바라기를 시작하였다. 얼굴빛은 여전히 사나왔으나 박위의 질책에는 별로 의견이 없는듯싶었다.

박위는 호백이쪽으로 돌아섰다.

《부사에게도 할말이 있소. 방금 부원수가 꼭지를 떼다 말았지만 부사는 군사일에 너무 무관심한게 탈이요.

한가지만 찍어말한다면(이번 사건과는 무관계하지만) 우리 경상군영에서 새로 모집한 군사들에게 필요한 군장을 보장해달라고 청탁한게 어느때 일이요?

그런데 부사는 청탁을 받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뒤에 돌아가서는 관가의 벼슬아치들에게 〈나라의 법에 군사로 뽑힌자는 자비로 복장과 장구를 갖추게 되여있으니 국법대로 시행하는게 옳지 않는가.〉고 시비 비슷한 소리를 했다는데 어디 말 좀 해보우. 요즘 모집한 신입군사들이란 태반이 왜구의 란을 만나 류랑걸식하던 농군들과 어부들, 관청과 대가집에 매여살던 관노, 사노들인데 덩그렇게 불쪽만 차고온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군장을 장만한단 말이요?

우리 관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군사일을 외면했거나 등한시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가슴아픈 실패를 당하게 된게요.

당부컨대 부사는 진정으로 고을의 군사일에 전심전력해주시우.

지금같은 때 군사일을 정사의 첫째 항목에 놓지 않고 의연히 그 어떤 요령이나 발림수로 굼때려든다면 후날 돌이킬수 없는 랑패를 당하

게 된다는것을 잊지 마오.》
박위는 오늘의 이 기회에 호백의 치명적인 결함을 고쳐주기 위해 진심으로 애타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았다.
허나 호백은 박위가 오늘일을 기화로 자기를 아예 거부기처럼 납죽하게 짓눌러놓으려고 부러 기를 돋구는듯싶었다.
아래턱, 웃턱도 없이 마구 날뛰는 윤통을 애써 두둔해주는것 같기도 했다.
호백은 여간만 속이 알찌근하지 않았으나 속마음과는 달리 무슨 큰 인생사의 리치라도 깨달은듯 고개를 주억거리며 흔연히 대답했다.
《장군의 충고를 골수에 새기고 일후로는 군사일에 각별히 관심을 돌리리다.》
《부디 그래주시우.》
호백이 달게 충고를 접수하자 박위는 자기 역시 누구들을 질책할만큼 떳떳치 못하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였다.
언제나 속마음을 가리울줄 모르는 너무도 단순하고 고지식한 박위는 즉시 침통한 어조로 자기반성을 하였다.
《사실 오늘의 변이 생긴데는 누구보다 본관의탓이 제일 크다고 해야 할거요. 어제 저녁 본관이 회군하던 길에 부산관가에 들려 늦도록 술을 마시지 않고 밤길을 잡아 곧바로 군영에 왔더라면 모름지기 오늘같은 변은 없었을거요.
그렇게 놓고보면 오늘일의 책임은 본관에게 있으니 그쯤 여기고 더이상 책임문제를 거론하지 맙시다.
오늘의 건에 대한 장계는 본관이 직접 올리겠소.
후일 우에서 내리는 추궁도 본관이 다 받겠소. 그러니 부사는 여러 생각 말고 살아남은 동네사람들의 생활과 죽은 사람들의 장례일을 잘 살펴주도록 하시우.》
박위가 시원스레 모든 책임을 맡아나서자 호백은 눈에 띄우게 화색을 피웠다. 이어 호백은 사뭇 헌걸스럽게 활개짓을 치며 아직도 곡성이 랑자한 등성이쪽으로 올라갔다.
벌레라도 씹은듯 상을 찡그리고 호백의 뒤모습을 쏘아보던 윤통은 불식간에 박위께로 고개를 홱 돌리였다.
《장군께서는 무엇때문에 저 좁쌀여우같은 김해부사의 죄까지 다 껴

안으려고 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 일에 리익보다 해를 더 끼칠 사람입니다.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물이 더러우면 발을 씻는다는거야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인생리치가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해서는 안될 요물입니다.》
군사일에서는 사소한 빈틈도 없지만 생활상에서는 지나치리만큼 관후한 박위는 윤통의 일면적인 사고방식이 무등 답답하게 생각되였다.
허나 그것은 한두번의 추궁으로 고쳐줄 일이 아니였다.
박위는 부드러운 어조를 골라 타이르듯 말하였다.
《부원수, 옛 병서에 장수는 다섯가지 덕을 지녀야 하는바 그중에서 첫째가 사람을 믿고 어짐을 발휘하는것이라 했소.
우리는 변이 생길 때마다 벌을 내리여 사람을 떼내칠것이 아니라 흐린 마음이라도 잘 닦아주고 잘 이끌어주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군사일에 인입해야 하오.
더우기 이 고을 부사로 말하면 한개 고을의 지방장관으로서 절대로 빗나가서는 안될 사람이 아니겠소.
그는 몇해전까지만 해도 칼을 잡았던 상원수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장수란 말이요.》
윤통은 검스레한 입술을 삐주름히 빼물며 길게 한숨을 내불었다.
그는 자기대로 박위의 일면적인 사고방식이 안타까왔다.
윤통은 박위의 과감하고 호방한 성격을 부러워하고 진중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존경했다.
하지만 박위의 인정과 관용이 누구에게나 차등없이 베풀어지는것은 질색이였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선과 악의 충돌, 진실과 위선의 알륵은 계속될것인즉 인간은 응당 매 사람들에게 선과 덕을 무턱대고 고루 베풀수 없다는것이 윤통의 굳어진 견해였다.
윤통의 체험에 의하면 선한 인간에게 돌려지는 덕은 대개 덕으로 되돌아오지만 악한 인간에게 베풀어진 덕은 해와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항간에는 길러준 개 발뒤꿈치 문다는 말도 나돌고 덕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윤통의 단순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에 비낀 호백의 정신적인 초상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어딘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같았다.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의의짓도 마다하지 않을것 같기도 했다. 누구보다 어질더분하면서도 누구보다 정의와 진실에 대해 크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하기에 그는 호백의 일이라면 무턱대고 의혹을 품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박위는 지금처럼 안팎의 공기가 어수선한 때 호백이 같은 인간을 그저 좋게만 리해하려드니 윤통으로서는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다.
윤통이 다시한번 모난 말로 호백을 타매하려고 입술을 감빠는데 그 눈치를 알아채기라도 한듯 박위는 성큼 걸음을 떼놓았다.
반사적으로 박위를 따라서려던 윤통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마다 늘 그러하듯 삐주름히 입술을 빼물며 스르시 굳어지였다.
꺼멓게 끄슬리여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알수 없는 아름드리거목의 휘청거리는 가지에 올라앉은 참새들은 이 마을의 참변이 너무도 놀라와 날아가는 재주도 잊어버린듯 아까부터 솜덩이처럼 굳어진채 자그마한 눈만을 깜빡거리고있었다.

6

박위는 무거운 사색에 짓눌린채 이제는 명색뿐인 어질더분한 골목길을 따라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였다.
푹석푹석 재가루가 솟아오르고 으직으지직 그릇쪼각들이 부서져나갔다.
눈앞으로는 눈보라같은 재티가 연기처럼 뽀얗게 밀려들었다.
한여름때 몰아치는 이 재난의 눈보라.
과연 언제부터 이 나라의 평화로운 강토에 이처럼 으스산한 원한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던가?…

…왜구가 처음으로 고려땅에 나타난것은 지금으로부터 백수십년전인 1223년 5월 어느날이였다.

먼저 김주(김해)를 습격하여 숱한 재물을 략탈하였다.

첫 도적질에서 성공하자 재미도 나고 자신도 생긴 왜구들은 그후 련속 경상도 여러 고을을 기습하였다.

역시 공으로 재물이 생기는 도적질, 강도질은 밑천 안 들이는 생산, 유쾌한 오락이였다. 놈들은 갈수록 도적질의 회수를 높이였다. 판도 넓히였다.

이렇게 되자 고려정부는 원침략군과 싸우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방군을 동원하여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감분위록사 한경운을 비롯한 중앙관리들을 일본에 파견하여 강도행위를 금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때마다 일본측은 저들의 죄행을 사죄하기도 하고 화친을 바란다는 막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워낙 거짓말을 떡먹듯 하는 왜구들, 도적질, 강도질에 한껏 재미를 붙인 왜구들은 말로는 사죄요, 화친이요 하면서도 계속 고려땅 각지에 기여들어 파괴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륙지에서만이 아니라 바다와 강에서도 고려의 세공선들과 조운선들을 련속 덮치였다.

1350년대에 이르러 왜구의 해적질, 강도질은 그전에 비길수없이 폭이 커지였다.

예전에는 소규모의 도적떼가 경상도 남쪽해안의 1～2개 고을이나 몇몇 섬들에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들었다면 1350년 이후로는 백여척의 대선단과 수백명 지어 수천명의 대무리가 서해와 남해의 수십개 고을을 목표로 두억시니떼처럼 밀려들었다.

개경가까이에 위치한 섬들인 자연도, 상목도에 쳐들어와 민가를 불사르고 백성들을 학살하였다.

강화도근처인 파음도와 교동도에도 그리고 동해연안의 큰 고을인 강릉에도 략탈의 검은 마수를 뻗치였다.

지어 수도 개경의 문어구인 승천부(개풍)에까지 밀려들어 몇달동안이나 온갖 지랄발광을 다 하며 돌아치기도 했다.

고려조정은 더이상 소규모적인 방어전이나 외교적인 방법에 매달릴

수 없었다.

압록강을 넘어온 북방의 외적들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북방정세를 어느 정도 수습한 고려군은 1364년 5월 드디여 왜구격멸을 위한 첫 대규모전을 벌리였다.

첫 대전에서 경상도 도순문사 김속명이 인솔하는 고려군은 진해현에 기여든 왜구 3천명을 일격에 생쥐무리 뚜드려잡듯 때려잡았다.

1372년 6월에는 만호 조인벽이 함주와 북청일대에서, 같은해 7월에는 백전로장 최영이 홍산일대에서 각각 수천명의 왜구를 소멸하였다.

1377년 5월에는 당시 김해부사였던 박위가 황산강하류에서 왜구의 전함 수십척을 침몰시키고 같은날 경상도원수(당시) 배극렴은 하까다지방의 령주이며 왜구의 한 괴수를 단칼에 찔러죽이였다.

그후에도 고려군의 대규모적인 왜구소탕전은 수십차에 걸쳐 계속되였다.

하건만 왜구의 침입은 오늘까지도 근절되기는커녕 더욱더 광포한 양상을 띠고 계속되고있었다.

작은 방망이로도 때려보고 큰 철퇴로도 조겨보고 좋은 말로도 타일러보고 엄한 소리로도 꾸짖어보았으나 왜구들은 그때마다 잠시잠간 움츠러들었다가는 또다시 피묻은 대가리를 쳐들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하기사 피맛을 볼대로 본 승냥이가 방망이찜질을 몇번 당했다 하여 금시 입맛을 돌리고 풀이나 열매 같은것을 먹으며 얌전하게 제 굴속에 죽치고 앉아있을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장차 어찌해야 왜구로 인한 이 땅의 랑자한 류혈, 이 하늘에 뒤덮인 재티를 말강스럽게 걷어낼수 있겠는가?

…방향없이 걸음을 옮기던 박위는 마을의 유측, 초가지붕우에 하얀 박꽃송이가 서글프게 웃고있는 초가마가리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제서야 박위는 자기가 리옥의 집(어찌된 일인지 유독 리옥의 집만은 성한채로 서있었다.)앞에 다달았음을 의식하였다.

박위는 옷자락을 활활 나붓기며 성급히 뜨락안으로 들어섰다.

혹시나 하는 그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언뜰 떠올랐다.

허나 뜰안에 들어서자마자 그 기대감은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 버리였다.
활활 열어젖힌 아래방문과 웃방문, 텅빈 방안… 방안에서는 써늘한 랭기같은것이 산산하게 쓸어나왔다.
얼없이 휑뎅그렁한 방안을 들여다보던 박위는 갑자기 울너머 소로길쪽에서 무질서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자 맥없이 고개를 돌리였다.
뜻밖에도 오천이와 여삼에게 량팔을 떠들리운 현중이가 병자마냥 비치닥거리며 질질 끌려오다싶이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살아있는 아들을 명백히 가려보았으나 왜서인지 다행스럽기 전에 더욱 불안하였다.
박위는 오천이네들이 뜰안에 들어서자 현중을 노려보며 거친 청으로 물었다.
《너는 어쩌다가 그 모양꼴이 되였느냐?》
현중이도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보건만 반색을 띄우기는커녕 뽀얗게 먼지가 게발린 낯을 보기 싫게 찡그리며 비명같은것을 흘리였다.
《아버님, 리옥누님이 종시… 잘못된것 같습니다, 으흑흑…》
박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심상한 낯빛을 허물지 않은채 조금 청을 높이였다.
《리옥이가 어찌되였다는게냐? 어서 똑똑하게 말을 해라.》
현중은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고 이리저리 입술을 궁싯거리더니 종시 말을 담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였다.
여삼이가 제꺽 발을 달았다.
《도련님은 어제 밤 군영의 작은 사랑에서 기침을 하다가 오늘 새벽 죽촌소식을 듣자 즉시로 군사들과 함께 이곳에 왔답니다. 오자마자 집집의 재무지를 다 헤쳐보고 뒤산 숲속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는데 댁 아씨는 시신조차 없더랍니다.》
이미 그 비슷한 짐작은 하고있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는것이 명백해지자 극심한 아픔과 허탈감으로 하여 금시 심장이 쭈그러드는듯싶었다.
박위는 꺼지는듯 한 음성으로 다시 말을 꺼내였다.
《그러니 리옥이가 왜구에게 잡혀갔다는 소리가 아니냐?》
《대체로 그리된것 같습니다.》

박위와 리옥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여삼은 리옥의 실종이 마치 제 잘못이기라도 한듯 고개를 비틀어꺾으며 골기없이 대답했다.

박위는 띠끔띠끔 들쑤시는 가슴을 안은채 천천히 앞마당 구석쪽에 어우러진 무성한 구기자덤불앞으로 다가갔다.

언제인가 리옥이 커다란 놋대접에 새빨간 구기자차를 담아들고 와서 하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현중 아버님, 거제섬에서 키우던 구기자뿌리를 여기에 옮겨심었더니 열매가 얼마나 잘 달렸는지 덤불이 온통 빨갛게 보일 지경입니다.

변변치 못한 솜씨로나마 차를 달였는데 성의로 알고 들어주십시오.

그전에 의생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구기자차는 단맛도 있지만 쓴맛, 아린맛도 있어 마시기는 그리 쾌하지 못하나 혈을 보하고 기를 성하게 하는 좋은 약이라고 하옵니다.》

그때 박위는 병약한 리일경에게 바쳐지던 리옥의 정성이 자기에게 돌아온것이 슬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끝에 반롱조로 응수하였다.

《쓴맛을 그리 탓할 까닭은 없느니, 고진감래라고 쓴맛을 본 뒤에 단맛이 찾아오는 법이지.

이것은 약물의 리치이기도 하지만 인생사의 리치이기도 하겠지, 헛허허…》

그후에도 리옥은 기회가 생기는대로 박위에게 제 손으로 달인 구기자차를 대접하군 하였다.

헌데 그처럼 각근한 정성으로 사연많은 이 구기자를 가꾸던 속이 깊고 마음씨 착한 이 집의 녀주인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생각탓인지 뽀얗게 재티를 들쓴 구기자덤불도 연해 몸서리를 치며 상실의 아픔을 하소하는듯싶었다.

잠시후 박위는 얼혼이 다 빠진듯 한 현중을 군영으로 데려가라고 이른 다음 저 혼자 바다가로 걸어나갔다.

체소한 여삼이가 저보다 한뽐이나 더 키가 큰 현중을 질질 끌다싶이하며 등성이쪽으로 사라지자 오천은 급급히 박위의 뒤를 따랐다.

때는 들물때라 한껏 높아진 바다는 살찐 가슴을 소리없이 들먹이며 코가 시글도록 청신한 바람을 말아올리고있었다.

바람결을 타고 비릿한 해감내도 풍겨왔다.

저 멀리 아득한 물마루우에서는 연한 연기처럼 보이는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눈이 시글게 피여오르고있었다.

인적없는 도래굽이의 펑퍼짐한 바위우에 올라선 박위는 퍼런 불찌가 번뜩이는 눈으로 물마루쪽을 노려보고있었다.

저 물마루너머 어디엔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쯔시마)가 있을것이였다.

죽촌을 말끔히 짓이겨놓은 왜구들은 지금 저 물마루너머 대마도에서 또 한차례의 강도질에서 성공한 도적패의 쾌감을 나누며 희희락락하고있을것이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씹으며 이렇게 빈주먹만 떨고있어야 하는가?…)

박위는 피가 나오도록 아프게 입술을 사려물며 옆구리의 칼을 더듬어잡았다.

불현듯 손녀딸의 시꺼멓게 끄슬린 시체앞에서 꺼이꺼이 마른 울음을 울던 저대로인의 처량한 모습이 떠올랐다.

죽은 애기에게 젖을 물리고 울던 실성한듯 한 아낙네의 얼굴과 안해의 시체를 정차게 매만지며 가슴저린 사연을 읊조리던 고들이라는 사내의 두리두리한 모습이 겹쳐지였다.

그 모든 수난자들은 말로써가 아니라 자기들의 처절한 모습으로 박위 자기를 준절히 꾸짖는듯싶었다.

《장군, 우리는 지금껏 군영군사들을 성벽처럼 든든히 믿어왔소이다.

그런데 왜구들은 군영군사들쯤은 허술히 알고 우리 동네에 달려들어 숱한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갔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구천에 사무친 이 원한을 누구에게 빌어 풀어야 합니까?》

《장군! 왜구들의 칼은 고려백성들의 피로 붉어졌는데 장군의 검은 노상 옆구리에 곱게 매달려있으니 그 물건은 대체 어디에 쓰는것이옵니까?》

박위는 어느 사이엔가 지르감았던 눈을 번쩍 뜨며 신음소리 같은것을 내뿥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건만 으득으득 이를 갈며 감사납게 부르짖었다.

《왜나라도적떼가 이제는 군영발치에까지 기여들어 수다한 사람을 살해하고 잡아가고 지어 우리 나라 장수의 딸까지 끌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단순히 불행과 고통이기 전에 민족의 수치, 군대의 망신이 아닌가.

이제 와서 무엇을 더 캐고 따질것 있다더냐.

귀신은 경으로 떼고 도깨비는 방망이로 떼라 했거늘 왜구의 침노를 막자면 다른 수란 있을수 없다.

대마도에 짓쳐나가 군력으로 도적떼의 소굴을 짓뭉개버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백수십년 쌓이고 엉킨 우리 백성들의 피맺힌 원한도 풀고 군대의 수치도 씻을수 있으며 고려국의 존엄과 기상도 떨칠수 있다. …》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번의 변란도 저 대마도놈들의 소위라고 생각합니다.》

등뒤에서 오천의 저력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도 강렬한 흥분탓에 잠시후에야 오천의 존재와 그의 말뜻을 어렴풋이 의식한 박위는 여전히 물마루쪽을 노려보며 몰풍스럽게 대답했다.

《누가 그걸 모른다더냐?!》

오천은 박위의 흥분을 전혀 감촉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박위이상으로 격동되였는지 전에없이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장군께서 이미 통촉하시는바이지만 대마도에는 흉악한 왜구들이 보쌈에 엉킨 송사리떼처럼 득시글거리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몇놈씩 잡고있으니(그나마도 빈번히 놓치기까지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십년, 백년이 가도 왜구의 란을 막지 못할것입니다.

도적떼를 근멸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군대가 대마도에 나가 놈들의 소굴을 짓뭉개버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량반들은 보잘것없는 일개 대정치고 너무나 푼수에 넘치는 소리를 하는 오천에게 《에끼, 이눔! 뉘게다 감히 어줍잖은 수작을 늘어놓는게냐!》 하고 된욕을 퍼붓는것이 상례였다.

허나 담대하고 배짱이 실한 사내, 군사일에 밝은 사내를 제일로 쳐주는 박위는 오천이가 전혀 방자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도리여 신통하게 자기와 견해를 같이하는 그가 무등 대견하고 기특했다.
잠시 믿음어린 시선으로 오천의 구리빛얼굴을 돌아보던 박위는 불현듯 귀인성스럽게 생긴 작은 입술을 아프게 감쳐물었다.
들뛰던 심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랭정한 사고와 판단이 떠오른것이였다.
(옛적부터 군사를 쓸 때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패라 하였다.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길수 있다는 리치를 내 어찌 순시도 망각할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현하 대마도의 형세는 어떠하고 우리 군대의 형편은 어떠한가.
날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대마도는 견고한 방어시설과 칼벼랑으로 둘러막혀있는 거의나 요새화된 섬이다.
게다가 섬에는 수백척의 전함과 실전경험이 풍부한 만여명의 정예한 군사가 항시 출동태세를 갖추고있다.
하지만 우리 경상도에는 통털어야 수십척의 전함과 수백의 군사(그나마도 갓 들어온 군사들까지 포함하여)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의 병력과 군력을 가지고 대마도를 칠수 있겠는가.
아니, 승리보다 참패를 얻기가 더 쉽다. 그렇다고 나라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형편도 못된다.
두달전인 지난 4월 18일 고려군의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수만의 정예한 군사들이 방대한 물자와 장비를 갖추어가지고 료동원정을 떠났다.
임금과 최영대감도(올해 봄 최영은 리인임을 제거한 후 조정의 최고벼슬인 문하시중으로 승탁되였다.) 원정군을 지휘하기 위해 서경(평양)에 나가있다.
그렇다면 대마도원정은 먼 후날로 미루어야 하는가.
아니, 이제 더이상 대마도원정을 미룬다는것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의 발현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비겁쟁이들의 맥빠진 침묵으로 해석될것이다.
무조건 가급적으로 대마도를 쳐야 한다.
물론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큰일이라도 누구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성사된다.

내가 먼저 여기 경상땅에서 최상최대의 힘을 발동하여 원정준비의 첫 기치를 추켜들자.

그러느라면 리성계대감이 이끄는 료동원정군도 일을 성사시키고 돌아올것이요, 임금과 최대감도 개경으로 올것이다.

그때는 나라의 힘을 크게 빌수 있을것이며 따라서 대마도원정은 빠른 시일안에 실현될것이다.)

사색이 예까지 치달아오르자 또다시 세찬 격동이 취기처럼 전신에 퍼지였다.

박위는 엄엄하게 굳어진 얼굴로 오천에게 다가섰다.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하였다.

《더 길게 말할것 없다. 우리는 한시바삐 준비를 차려가지고 대마도를 쳐야 한다.

왜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자기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우리 군대의 검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단 말이다.》

오천은 아무 응대도 없었다.

하지만 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빛으로 보아 그도 박위의 원정결단에 비낀 높은 기개와 배짱에 크게 감복하고 공감한것이 분명했다.

기척없이 설레이던 바다는 이 나라 사나이들의 높은 뜻과 억센 기상에 호응이라도 하듯 급기야 솨솨 소리를 높이며 집채같은 파도를 말아올리기 시작했다.

7

근 열흘째 군영안팎은 무슨 큰 란리라도 만난듯 설설 끓어번지였다.

그도 그럴것이 박위는 죽촌에서 돌아온 그날로 군영군사들과 각 고

을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군령을 하달했다.

1. 군영과 고을들에서는 상비군사의 수를 종전에 지적해준것보다 배로 확장하며 그들에 대한 교련을 적극 다그칠것.
2. 전함 역시 이미 제정해준 수보다 5척이상 더 무을것.
3.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 시급히 고을자체의 힘으로 염초와 화약을 만들도록 할것.
4. 새로 제시된 군사일의 내막이 절대로 외부에 류실되지 않도록 매사를 철저히 경계할것.
5. 이상의 령을 어기거나 태공하는자는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전시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릴것이다.

…

그날부터 박위의 령을 받은 파발들이 북 나들듯 군영대문을 나들었다.

군사를 뽑으러 나가는 장교, 뽑은 군사를 달고 들어오는 장교, 대장쟁이, 목수, 풀무군 같은 장공인들을 찍어가지고 오는 장교, 장공인들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는 장교…

진종일 들고나는 사람들은 많기도 했다.

사람들만이 아니였다.

량식과 젓갈따위를 실은 마바리, 소바리들이 쉬파리떼를 구름처럼 달고 줄레줄레 밀려들어오는가 하면 빈 바리들이 왈랑절랑 줄을 쳐서 나가기도 했다.

군영밖의 광경은 더한층 야단스러웠다.

얼마전까지만도 열댓명의 목수가 증편하게 퍼더앉아 언제까지고 끝날상싶지 않은 시시껄렁한 한담을 주고받으며 슬렁슬렁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던 바다가 배무이장에 사람사태가 났다.

백여명의 장공인들이 한꺼번에 쓸어들어 어기영치기영 통나무를 메나르는가 하면 스르릉스르릉 뚝딱뚝딱 배널을 켜고 박느라고 바다가가 노상 북적북적하였다. 거기서 두어마장가량 뒤로 나앉아있는 야산기슭에 띠풀이영으로 대충 웃설미만 씌워서 새로 만든 대장칸에서는 칼과 창, 활촉과 포탄깍지를 두드려 만드는 메질소리, 망치질소리, 풀무질소리가 밤낮없이 귀따갑게 울리였다.

대장칸과 이영을 맞대고 서있는 염초장에서는 염초를 끓이는 매캐

한 냄새와 등황색연기가 쉬임없이 꾸역꾸역 솟아올랐다.
각 고을들에서도 판은 비록 군영보다 작으나 형편은 군영과 류사하였다.
대마도원정준비는 박위의 드센 손탁아래서 이렇게 시작부터 줄기차게 벌어지였다. …
불그레한 석양이 서켠하늘가에서 수시로 기괴한 무늬를 섞바꾸어 그리며 어룽대는 저녁무렵이였다.
하루종일 바다가에 나가 번잡한 일들을 하나하나 신칙하고 군영으로 돌아오던 박위는 대문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요즘에 들어 교련장으로 쓰는 대문앞마당에서 신입군사 수십명이 땀을 철철 흘리며 칼쓰기훈련을 하고있었다.
박위의 심신은 말할수없이 피로하였다.
잠시라도 처소에 들어가 허리를 펴고 누워있고싶었다.
하지만 신입군사들에 대한 교련도 홀시할수 없었다.
아니, 원정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중의 하나가 신입군사들에 대한 교련이였다. 사실 신입군사들에 대한 교련은 윤통이가 전적으로 맡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일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을수는 없었다.
박위는 잠시라도 자리에 누워보려던 애초의 생각을 고쳐먹고 교련장으로 다가갔다.
느티나무아래서는 두건을 질끈질끈 동여맨 신입군사들이 윤통의 거센 구령소리에 맞추어 서툴게 칼을 휘두르고있었다. 헌데 검술을 가르치는 윤통의 기상은 여간만 험상하지 않았다.
윤통은 가뜩이나 시꺼멓게 생긴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연해 짜증기가 실린 고함을 왝왝 질러대는데 군사들은 검술을 배우는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짓눌리여 쩔쩔매고 돌아가는듯싶었다.
꼭 무슨 일을 칠 사람 같았다.
아니나다를가 날카로운 환도로 허공을 쿡쿡 찌르며 소리소리 지르던 윤통은 무엇때문인지 갑자기 칼을 홱 내던지였다.
사나운 시선과 손짓으로 대오속의 누군가를 가리켜보이며 된 욕설을 퍼부었다.
《야, 이놈아! 왜구의 멱을 찌르는 동작을 하라는데 그게 무슨 꼴이냐? 사냥놀이에 나와 메돼지를 튀기느냐, 버릇나쁜 녀편네의 궁둥

짝을 조기느냐? 게다가 굼벵이 천장하듯 왜 그렇게 어기적거리는거냐?
에끼, 이 두부자루같은 놈! 천생 농군노릇이나 해먹을 놈이로다. …》
윤통은 과연 성미가 급한 사람, 전혀 자기의 속을 묻어둘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엊그제도 그는 신입군사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다가 별치도 않은 일에 부아가 나서 몇사람의 귀쌈을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기고는 박위를 찾아와 푸념을 꺼내놓았다.
《이거 무슨 변을 내야지 쟈들을 가지고는 쇠통 안되겠습니다.
하나같이 두부자루같은 둔치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소에게 경을 읽히는것이 더 헐할겝니다.
저눔들은 전부 내보내고 새놈들을 끌어들입시다.
아무리 바가지가 없다 한들 짚신짝으로 국을 떠먹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박위는 윤통의 언행이 적지 않게 불쾌했으나 부드러운 어조로 일러주었다.
《이보 부원수, 항간에 이런 말이 있소. 〈번개불에 콩 닦아먹으랴〉, 〈돼지꼬리 잡고 순대 달란다〉. 이건 어떤 일이든 조급하게 성사를 보려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겠소?
그러니 화가 나더라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실속있게 가르쳐주어야 하오. 하루밤에 명궁이 된 사람이 어디 있고 날 때부터 검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야 그렇지요.》
윤통은 얼마간 화가 가라앉은 뒤라 선선히 박위의 충고를 받아들이였다.
하지만 타고난 성미는 쉬이 고칠수 없는것인지 윤통은 지금 그날의 일은 감감 다 잊고 또다시 왝왝 고아대다못해 이를 사려물고 주먹까지 후들후들 떨고있었다.
윤통은 진정 딱딱하고 팩팩한 사람이였다. 하지만 그는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고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결곡한 인간이였다.
하기에 박위는 남달리 윤통을 사랑했다.
그에게 자주 꾸중을 하고 신칙을 하는것도 구경은 그를 남달리 믿고 애중하기때문이였다.

부드러운 미소를 띠우고 윤통이 하는양을 지켜보던 박위는 천천히 교련장 복판으로 나섰다.

아무말없이 땅바닥에 내던져진 윤통의 칼을 집어들었다.

하고는 윤통에게 꾸중을 들은 군사를 대오앞으로 불러내였다.

정말 두부자루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게 몸집이 투실투실한 젊은 사내가 지싯지싯 골기없이 걸어나왔다.

균형없는 몸집은 비록 볼모양이 없었으나 가느스름한 눈에는 제법 열기가 도는것이 그저 어리숙한 촌보리동지같지는 않았다.

어디선가 꼭 만나본듯 했으나 얼추 기억되지 않았다.

박위는 살가운 어조로 물었다.

《너는 어느 골에서 살다가 군사로 뽑혔느냐?》

《예, 소인은 죽촌에서 살았사온데 저번의 란에 처자권속을 다 잃었소이다.

그래서 제 손으로 단 한놈의 왜구라도 때려죽이자구 자진해서 군사로 나왔소이다.》

《자진해서 군에 나왔다?! 그래, 네 이름은 뭐냐?》

《고들이라 하옵니다.》

《고들이?!》

박위는 그제서야 고들이라는 우습강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 군사가 죽촌에 나갔을 때 죽은 안해를 그러안고 마치 산 사람에게 말하듯 하던 그 불행한 사내임을 알아보았다.

공연히 속이 섬찍해났다.

그날에 보았던 저대로인의 꺼룩한 모습과 숯덩이같은 언년이의 참혹한 모습, 백동이라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채 미친것처럼 울부짖던 파리한 녀인의 모습이 연줄연줄 떠올랐다.

아무런 론리적련관도 없이 문득 현중의 구겨진 얼굴모습이 묻어올랐다.

죽촌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자리보전을 하고 누워있는 현중은 요즘 박위가 작은 사랑에 들어설 때마다 열에 떠서 부르짖었다.

《아버님! 언제면 우리 군사들이 리옥누님을 찾으러 갑니까?

소자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던 누님께서 짐승같은 왜구들에게 욕을 당하고있을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 견딜수 없습니다.》

박위는 벌써부터 아이 같지 않게 궁냥이 틔우고 인정이 깊은데다 배짱과 담기도 록록치 않은 아들녀석이 무등 대견하였다.
그와 함께 리옥의 절망적인 처지와 현중의 슬픈 심정이 새삼스레 가슴에 마쳐와 절로 발작적인 복수의식이 끓어올랐다.
허나 애어린 아들녀석에게 자기의 착잡한 심중을 루루이 털어보일수는 없었다. 하여 박위는 매양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부러 엄한 표정을 짓고 마음에 없는 책망을 꺼내놓았다.
《이녀석! 되지 못한 소리 작작해라.
세상일이란 네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야.》…
잠시 괴로운 생각을 씹어나가던 박위는 고들의 우둥퉁한 얼굴에 눈못을 박으며 힘찬 어조로 말하였다.
《죽촌에서 네스스로 원쑤를 갚기 위해 군사로 나섰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군사를 배워야 할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냐?
자고로 군사는 병기를 손에 들지만 다루기는 심장으로 한다고 일러왔다.
네가 진정 너의 처자를 무참히 살해한 왜구를 네 손으로 때려잡을 결심으로 심장을 불태운다면 어찌 검술이 그리도 늘지 않겠느냐.
어느때나 명심해라! 군사의 심장이 불타면 틀어잡은 검도 불타기마련이다.
불타는 검을 잡은 군사를 대적할자 누구라더냐. 자! 보아라!》
박위는 서슬푸른 장검을 번쩍 추켜들었다.
고들이도 부얼부얼한 얼굴에 결연한 빛을 띄우며 반사적으로 칼을 추켜올리였다.
박위는 불꽃튀는 시선으로 자기의 칼끝을 노려보며 웨치듯 말하였다.
《이렇게 일단 검을 추켜든 다음에는 머리를 곧추 들고 눈앞의 적을 노려보아야 한다.
왼쪽다리에 몸을 실을사 하되 두발은 너무 벌리지 말고…》
박위는 자기가 가르쳐준대로 다시 자세를 바로잡는 고들의 모습을 옆얼굴의 감각으로 포착하자 힘찬 어조로 계속하였다.
《그럼 나와 함께 본국검총도(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 검법의 한개 종류)의 34가지 동작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가보자.

제일 처음은 〈우내략〉!》
박위는 곧추 세웠던 칼을 오른쪽으로 힘차게 비껴내리였다.
고들이도 박위의 본을 따서 기운차게 칼을 비껴내리며 그의 문자말을 그대로 받아웨치였다.
《처음은 〈우내략〉!》
박위는 두세걸음 앞으로 내달리며 번개같이 칼을 내뻗치였다.
《다음은 〈진전살적〉!》
고들은 박위의 동작을 따라하며 또다시 그의 말을 받아웨치였다.
《다음은 〈진전살적〉!》
《초퇴방적!》(조금씩 물러나면서 방어한다는 뜻.)
《초퇴방적!》
《향우방적!》(오른쪽의 적을 막는다는 뜻.)
《향우방적!》
《룡약재연!》(룡이 못에서 뛰여나오듯 한다는 뜻.)
《룡약재연!》…
한참이나 뛰고 날며 칼을 휘두르던 박위는 34가지 동작을 다 해보이고나서 칼을 내리웠다.
박위의 흉내라도 내듯 서서히 칼을 내리운 고들은 무엇이 그리 흡족한지 우둥퉁한 얼굴모양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인성스러운 덧이를 빠끔히 드러내며 히뭇이 웃었다.
박위를 따라 칼쓰기를 해보니 자기가 노상 윤통의 구박이나 받을 못난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모양이였다.
역시 고들은 맺힌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눈썰미도 있고 자각과 열정도 있으며 다소 능청스러운데도 있는 진실하고 재미있는 사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인간을 외형에 준하여 서뿌르게 판단하고 따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릇된 처사가 아니라 너무도 허무한 상실이요, 너무도 잘못된 계책이 아니겠는가?!…
윤통이 박위의 곁으로 다가왔다.
윤통은 박위의 손에서 칼을 뽑아내며 병졸들이 들을수 없을 정도의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였다.
《소관은 한껏 참느라고 했는데 어느새 또 악증이 터져나와 실수를 했습니다.》

박위는 좀전까지만도 어깨가 잔뜩 처져있던 고들의 얼굴에 신심이 서려도는것도 기뻤지만 윤통의 솔직한 자기반성도 마음에 들었다.

《헛허허! 그럴수도 있는거지. 이보 부원수, 이네들은 모두 이발도 나지 않은 어린애나 같은 군사들인데 굳은 고기부터 씹으라고 닥달을 해서야 되겠소? 차근차근 품을 들여 가르쳐주어야 하오.

그건 그게고, 내 보건대 저 죽촌의 두부자루도 꽤 쓸만 한 두부자루 갈소그려.》

롱담을 그리 즐기지 않는 박위는 결코 롱으로 한 말이 아니였으나 모여선 군사들은 두부자루라는 박위의 소리에 와 웃음보를 터뜨렸다.

고들이 당자도 박위가 자기를 알아봐준것이 무등 자랑스러운듯 동료들을 둘러보며 눈이 없어지게 웃었다.

윤통이 다시 검을 들고 교련을 시작하자 박위는 군영앞마당을 나섰다.

습관적으로 바다가를 향해 걸음을 놓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천대정이 질그릇처럼 번들거리는 얼굴을 이리저리 문대기며 다가왔다.

그제서야 박위는 오늘 아침 자기가 오천을 김해관가에 보냈던 사실을 상기할수 있었다.

박위는 오늘 김해만이 아니라 군영의 린접고을들인 밀양과 창원관가에도 사람을 띄워 거의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었다.

군영군사들의 수효는 여느 고을에 비길수없이 많은데다 군영 앞동네의 장정들, 숱한 장공인들까지 생업에서 떼여 군사일에 동원시킨고로 군량이 어방없이 딸린다는것, 이제 한고비만 넘기면 군사들의 경작지에서 나오는 보리라도 풀어먹일수 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군량과 반찬감을 대달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물론 박위는 어느 고을이나 다 식량사정이 어렵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군량부탁을 하자니 관가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여간만 미안하지 않았다.

허나 달리 어쩌는 수가 없었다.

지금은 우선 싸움준비부터 생각해야 할 때였다.

《그래, 너는 지금 김해관가에서 돌아오는 길이냐?》

걸음을 멈춘 박위는 궁금증이 가득한 어조로 물었다.

오천은 여느때없이 급급하게 인사를 차리고나서 볼메인 소리를 꺼내놓았다.

《아니올시다. 오기는 중낮때 왔는데 장군께서 영에 계시지 않기에 바다가를 한바퀴 돌고나서 다시 들어오는 길입니다.》

《길이 어긋났던게로군. 그래, 김해관가에 갔던 일은 어떻게 되였느냐?》

《예, 김해에 득달하는 길로 관가에 들어가 원님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원님께서는 장군의 편지를 읽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제창 구실아치들에게 군량과 반찬감을 내주라고 하더이다.》

《그래, 군량은 얼마 주고 반찬감은 또 얼마나 내더냐?》

박위의 얼굴은 금시 환하게 밝아지였으나 오천의 낯빛은 여전히 찌뿌둥하였다.

《군량은 수수, 보리 다 합해서 세바리가 되옵고 반찬감은 미역, 김, 젓갈까지 해서 한바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게 적은 량이 아니로다. 너도 그걸 마련해가지고 오느라고 고생했겠지만 그걸 손모아 보내준 김해부사의 성의가 여간이 아니구나.》

박위는 얼마전에도 적지 않은 군량을 보내준 조호백이 다시금 아무 군소리없이 많은 물자를 내준것이 무척 고마왔다.

왜구들의 무시로 되는 침략탓에 바다농사나 땅농사의 소출이 다같이 시원치 못한데다 아직 춘궁기를 넘기지 못한 때 그렇게 많은 식량을 연거퍼 보내준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고보면 호백은 자기가 죽촌에서 한 당부와 추궁을 깊이 새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군사일을 대하는것이 분명했다.

호백의 성의도 고마왔지만 그의 개준은 더욱 기뻤다.

허나 오천의 옥맺힌 마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오늘 아침 오천이 김해관가에 들어가니 호백은 뒤뜰의 광앞에 산같이 쌓여있는 어물짐들의 수효를 세고있었다.

《절인 전광어가 스무짝이요, 생물도미가 열세두름이라, 말린 전복은 열닷통이요, 생물전어는…》

쉬파리떼가 윙윙 감돌아치건만 그에 아랑곳없이 노래가락마냥 말마디끝을 길게 끌어넘기며 신이 나서 짐짝들을 세여보던 호백은 오천이

가 내주는 박위의 편지를 받자 금시 생콩씹은 상이 되였다.

편지를 다 읽고나서도 한참이나 눈을 까박거리며 무슨 생각인가를 굴리던 호백은 오천이로서는 알아들을수 없는 문자말을 비양기어린 음조로 씨벌거리였다.

《그런즉 다다익선(많을수록 좋다는 뜻)이라는 뜻인데, 흠…》

이어 호백은 밑도 끝도 없이 옆자리에 장부책을 들고 서있는 호장에게 꾸중 비슷한 소리를 쏟아놓았다.

《이 사람, 호장! 요사이 조세납부가 왜 그리 더디 되나? 공물의 징수형편도 말이 아닌데 진상마련까지 밀려돌아가니 대체 일을 어쩌자는게야? 고을형편이 여의치 못하다는것을 모르는게 아니야? 하지만 사사에 짓눌려 공사를 내밀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제밀…》

가만 들어보니 엿가락처럼 질질 늘어놓는 호백의 개도라지타령은 호장이 아니라 오천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 같았다.

어찌 들으면 고을형편이 매우 곤난하나 군량만은 어김없이 보내노라는 뜻을 풍기는것 같았고 또 어찌 들으면 관가의 일만 해도 아름이 번데 군영에서까지 무얼 자꾸 내라고 못살게 구느냐하고 짜증을 내는것 같기도 했다.

여하튼 호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군사일을 돕는것이 아니라 박위의 눈에 덧나지 않기 위해 얼림수를 쓰고있는게 분명했다.

오천은 아니꼽고 미심쩍은 생각을 종시 털어버릴수 없었다.

하여 마바리들을 끌고 관가에서 나오기 바쁘게 짐짝을 헤쳐보았다.

아니나다를가 쌀이라는것은 전부 좀이 나서 시큼시큼한 냄새가 풍기는것이요, 반찬감이라는것은 고작 미역꽁다리, 잡어젓따위인데 그나마도 지푸래기와 모래가 반나마 섞인것이였다.

오천은 금시 홍두깨같은 밸이 치밀어올랐다.

(이 량반이 우리 군사들을 아주 사람셈에 넣지를 않는구나. 자기는 전광어나 도미 같은것을 산처럼 쌓아놓고 먹으면서 우리에게는 내버려도 아까울것 없는 이따위 썩은것을 내준단 말이야?)

오천은 량식이고 반찬감이고 모조리 개굴창에 처박아넣고싶었다.

하지만 고을원이 군영장수에게 보내는 물건을 중도에서 제맘대로 내버린다는것은 너무나 무엄한짓이라 끓어오르는 분을 간신히 눌러 참았다.

군영에 당도한 오천은 윤통에게(그때 마침 박위는 바다가에 나가있었다.) 모든 사연을 낱낱이 고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김해부사를 곱지 않게 보는 윤통은 그 당장 노기충천하여 짐바리를 이끌어온 배뚱뚱이호장을 불러들이였다.

무작정 형틀을 내오게 하고 그우에 호장을 끼얹어놓았다.

《네 이놈! 너희 관가것들은 기름기 찰찰한 흰쌀밥에 전광어, 도미도 파들파들한것만 골라먹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따위 썩은것만 퍼넘기니 이게 사람의 행실이냐, 개짐승의 소위냐.

더 길게 말할것 없다. 네놈이 어디 원님대신 매를 좀 맞아봐라.

여봐라, 저 호장놈의 북통같은 배가 늑대배때기처럼 훌쭉히 꺼질 때까지 사정보지 말고 매우 쳐라.》

윤통의 성급한 령이 떨어지자 잘 자란 참나무처럼 탄탄하고 미끈미끈한 군사들이 물에 적신 몽둥이를 꼬나들고 달려들었다.

철썩철썩 모진 매가 정월대보름 찰떡치는 소리를 내며 연거퍼 떨어져내리였다. 허여멀쑥한 호장의 볼기짝우에 당장 시꺼먼 먹구렝이가 얼기설기 휘감기였다.

얼마후 제가 나서지 않아도 좋을 일이건만 군영장수들에게 생색도 내고 희떠운 수작도 펴놓고싶어 자진하여 오천을 따라나섰던 허풍선이호장은 털뜯긴 장꿩꼴이 돼가지고 허청비청 군영대문을 빠져나갔다. …

오천은 한식경이나 열을 내여 전후사연을 알리였다. 분명 천둥같은 노성을 터칠줄 알았던 박위는 뜻밖에도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오천의 짐작과는 달리 박위는 선뜻 호백을 의심하고싶지 않았다.

한개 고을의 관장인 조호백이 그처럼 좀스럽고 비루한짓을 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호백은 한고향사람, 박위 자기에게 목숨까지 구원받은 사람이였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같이 의리없는짓, 몰렴치한짓을 할수 있겠는가.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은 필경 아래도리 아전놈들이 중간에서 롱간을 했거나 김해고을의 량식형편이 하도 어려운탓에 생긴것이리라.

생각은 이렇게 흘렀으나 어째선지 마음은 침침해났다.

박위는 저녁어스름이 밀려드는 앞동네의 부산스러운 골목길에 한참

이나 못박힌듯 서있었다.

8

…박위가 처음으로 호백을 알게 된것은 20대의 청년시절, 그러니 박위가 무과시험에 나가기 한해전 어느 가을날이였다.

그때 고향고을의 주봉인 달래봉의 버섯골에서 전고에 없던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도관(고려시기 노비소송을 취급하던 기관)에 근무하는 원외랑(도관의 정6품 벼슬아치) 하나가 노비추쇄(소속노비들을 조사, 재등록하고 그들로부터 신공을 수탈하는 일)를 나왔다가 그만에야 버섯골근처에서 형적없이 사라진것이였다.

원외랑이 그리 높은 벼슬은 아니나 명색은 당당한 조정의 관리라 형체없이 실종되고보니 조정이나 임금이 잠자코 있을리 없었다. 장계가 오르기 바쁘게 무조건 원외랑을 찾아내라는 임금의 교지가 떨어지였다.

원외랑의 행적을 찾기 위해 숱한 백성들이 버섯골로 떠밀려들어왔다.

얼마 안있어 버섯골 막바지에서 원외랑의것으로 짐작되는 허리띠와 노비안(노비등록대장), 사람의 머리털과 피자욱이 발견되였다.

더 말할것없이 오래전부터 달래봉주변을 감돌던 호랑이(소문에는 백년나마 묵었다는 늙은 호랑이의 잔등에는 하얀 버섯까지 듬성듬성 돋아있다고 했다.)가 노비추쇄를 위해 산중의 오솔길까지 갈피갈피 뒤지며 나돌아다니던 영악스러운 원외랑을 잡아먹은것이였다.

이것 역시 전고에 없던 호환이였다.

왕실과 조정에서는 재차 로망한 호랑이를 잡아바치라는 령을 떨구었다.

그러자 고을관가에서는 누구든 호랑이를 잡아바치면 황마포 50필을 상으로 주겠다는 방을 내붙이였다.

황마포는 개경에서도 특별히 재주가 있는 장공인들만이 짤수 있는

아주 정교한 포목이여서 값이 여간만 비싸지 않았다.

개경에서 황마포 닷필에 량곡 한평석(고려시기 용량단위, 한평석은 15말)을 아무 홍정없이 맞바꾸는 판이니 궁벽한 시골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황마포 50필이면 결코 작은 재물이 아니였다.

범 한마리를 잡아 큰 재물을 낚아보려는 탐심에 빠진 젊은이들, 자칭 무예에 능하고 담기있노라는 사내들이 줄달아 버섯골에 밀려들었다.

박위도 소문을 듣자 그날로 좋은 화살들을 골라가지고 버섯골에 들어섰다.

그는 물론 황마포가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지간에 련마한 자기의 무술을 실천적으로 시험해보고싶었던것이였다.

박위는 련 이틀째 버섯골의 숲속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호랑이의 그림자도 찾을수 없었다.

사흘째 저녁무렵, 이제는 그만 떡심이 풀린 박위는 물녘에 퍼더앉아 싸가지고온 과자를 점심 겸 저녁으로 먹고있었다.

이때였다. 그리 멀지 않은 버섯골 막바지 선바위쪽에서 갑자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쩡쩡 골을 울리며 들려왔다.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난 박위는 무작정 선바위쪽으로 내달리였다.

울창한 소나무숲과 바줄타래처럼 엉켜붙은 댕댕이덩굴을 헤치고 선바위밑에 이르니 열길은 실히 될 날카로운 벼랑이 한눈에 바라보이였다.

벼랑우에서는 거의 황소만 한 호랑이가 금시 날아오르기라도 할듯 기둥토막같은 앞발을 벋디디고 늘씬한 허리를 휘친거리며 연해 으르렁거리고있었다.

그앞에는 몸집이 체소한 웬 사내가 칼을 뽑아들고 서있는데 그는 결정적인 공세를 취할 대신 주춤주춤 뒤걸음을 놓고있었다.

가만 내버려두면 범에게 물려죽기 전에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죽을것 같았다.

박위는 지체없이 호랑이의 볼기짝을 겨냥하여 화살을 날리였다.

궁력이 센 박위의 화살은 호랑이의 푸들진 볼기짝에 면바로 들어가 박히였다.

《으흐흥!》

난데없이 뒤쪽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은 호랑이는 너무도 놀라 한길이나 껑충 뛰여오르며 다급한 비명을 터치였다.
때를 놓칠세라 칼을 뽑아든 박위는 나는듯이 벼랑우로 치달아올랐다.
그때까지도 화살이 박힌 궁둥이를 비비탈며 어쩔바를 몰라하던 호랑이는 뒤쪽에서 나는 사람내를 맡자 홱 몸통을 돌리였다.
시뻘건 아가리를 한껏 벌리고 박위에게 달려들었다.
헌데 호랑이는 잔뜩 나이를 먹은 비둔한 놈이요, 박위의 화살에 궁둥이가 터진 부실한 놈이라 사나운 겉모양에 비해 동작은 그리 날래지 못했다.
병신스럽게 비척대며 달려드는 호랑이를 마주쳐나가던 박위는 별안간 몸을 한옆으로 홱 빗세우며 번개같이 칼을 비껴내리였다.
날카롭기 짝이 없는 박위의 칼날은 미욱스럽게 곧추 날아드는 호랑이의 대가리뼈를 바수며 깊숙이 내리박히였다.
호랑이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거방진 몸통을 서서히 비틀며 기운없이 나자빠지였다.
몸집 체소한 사내가 칼을 움켜쥔채 황급히 박위앞으로 달려왔다. 그가 바로 황마포 50필을 상으로 준다는 소리에 귀가 항아리만 하여 버섯골에 달려들었다가 방금 호랑이를 만나 다 죽을번 했던 조호백이였다.
호백은 박위의 손을 덥석 움켜쥐더니 목메인 소리로 웅얼거리였다.
《그대가 아니였던들 나는 필시 오늘로써 생을 마쳤을게요.
하늘보다 크고 산보다 무거운 그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 나는 저기 조촌동에 사는 조호백이라는 사람이요.》
박위는 인명을 구원한것도 기쁘고 자기의 무술을 성공적으로 시험해본것도 흡족하여 빙그레 웃음을 띠우며 손사래질을 했다.
《은혜는 무슨 은혜겠소.
일이 우연히 그렇게 되여 내가 손을 쓴것인데…
아무튼 상한데없이 명을 보존했으니 천만다행이요.》
각기 제나름대로의 기쁨을 안고 말을 나누던 두사람은 얼마후 호랑이앞으로 다가섰다.
호백은 쓰러져누운 호랑이의 기름기 흐르는 잔등을 살살 쓸어만지던 끝에 조심스럽게 자기의 속을 터놓았다.
《우리 호랑이를 잡은 공을 절반씩 나누는게 어떻소?

호랑이를 잡기는 그대가 잡았으나 발견하기는 내가 발견했으니 그렇게 하는게 가장 공평할것 같구려.》

박위는 호백의 어딘가 뻔뻔스럽게 느껴지는 속심이 다소 불쾌했으나 아무 내색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구차스럽게 나누고 어쩌고 할게 없을듯 하오. 아닌게아니라 그대가 이놈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잡을수 있었겠소.

범을 잡은 공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있소. 상을 타는것은 나의 본의도 아니니 그대가 가져다 바치도록 하오.》

호백은 다 죽게 됐던 목숨을 살린것만 해도 하늘을 날것 같은데 한꺼번에 재물과 명성을 공으로 얻게 됐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도록 기뻤다.

허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허, 그건 너무 렴체없는노릇 같소그려. 둘이서 상을 반분하는것이 가장 옳은 경우 같은데…》

《아니, 나는 벌써 마음속으로 얻을것은 다 얻은셈이니 더 바랄것이 없소.

나는 이 길로 산을 내리겠소.》

박위는 호백에게 작별인사를 하고나서 씨엉씨엉 산을 내리였다.

박위가 사라지기 바쁘게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냥군들이 사처에서 몰려들었다.

모두들 황소같은 호랑이와 호백을 번갈아보며 탄성을 터치였다.

호백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호기를 뽑았다.

《여보게들! 이 호랑이라는 놈이 듣던 소문보다는 약약하더구만.

내 단살에 이놈의 몸을 뭉청 주저앉히고 다음엔 단칼에 이놈의 대갈통을 바수어놓았소.

자, 이제는 그만들 구경하고 어서 한발씩 떠들고 관가로 가세. …》

호백은 그길로 관가에 내려가 푸짐한 상을 받고 푸짐한 치하를 받았다.

그후 무과시험을 볼 때도 호랑이 잡은 덕을 톡톡히 보아 그리 힘들지 않게 어보(임금의 도장)가 찍힌 합격증서를 손에 넣을수 있었다.

호백에게 있어서 박위는 생명의 은인인 동시에 벼슬길의 첫 대문을

열어준 고마운 은사였다.

그후 호백은 자주 박위네 마을에 찾아와 그와 함께 무술훈련도 하고 술도 마시였다. 헌데 두사람사이는 이렇다할 리유도 없이 차츰 삐그러져나갔다.

호백은 호백이대로 박위의 고지식하고 융통성없는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박위는 박위대로 호백의 지나치게 경솔한 처사와 과도한 탐심이 비위에 거슬렸던것이였다.

두사람의 우정은 일년도 못되여 싱겁게 끊어져버리고말았다. …

…박위는 무관으로서의 자질은 차고넘치도록 풍부히 소유하고있었으나 인간생활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아는것이 적었다.

박위는 누구보다 호백의 래력과 됨됨을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를 그다지 나쁘게 보지 않았다.

지금도 박위는 김해관가에서 썩은 쌀과 너절한 반찬감을 보낸것을 호백이와 련관시켜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별로 크지도 않은 사건을 놓고 정도이상으로 심각하게 따져본것이 어딘가 옹졸하고 시시부나하게 생각되였다.

박위는 다시 군영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오천이 바투 따라서자 슬며시 고개를 돌린 박위는 말머리를 돌리였다.

《이 애 오천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가 주동적으로 대마도를 공격하자면 적지 않은 전함과 군사, 병기와 화약이 있어야 할텐데 그 모든걸 우리 군영의 힘으로 죄다 얻어내고 만들어낼것 같으냐 말이다.》

화제를 돌린다는것이 자기의 가슴에 늘 쇠쪼각처럼 아프게 맺혀있던 시름거리가 저절로 불쑥 튀여나왔다.

날은 살같이 흐르는데 일은 더디게 진전되고 화약과 전함 같은것은 얻어낼 방책은 묘연한데 임금과 최영은 아직 개경에 돌아오지 않으니 드세게 원정준비를 밀고나가면서도 가슴은 노상 무죽했다. 그러다보니 어망처망간에 일개 대정인 오천이한테까지 자기의 시름거리가 튕겨나간것이였다.

어찌 생각하면 남달리 총명하고 궁냥이 틔운 오천에게 언제부터 한번 해보고싶던 소리인지도 몰랐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오천은 좀전의 울울했던 기색을 활 털어버리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모든것을 우리 군영이 안아올린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것입니다.

하오나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긴다는데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두 떨쳐일어나면 그리 어려울것도 없을듯 합니다.》

오천은 때마침 박위에게 김해부사와 같은 껄끄름한 량반님네들을 믿을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평범한 군사들과 백성들을 믿고 일을 다그쳐야 한다고 소리쳐웨치고싶던차였다.

말마디끝은 여느때없이 강개하게 여물궈지였다.

박위에게는 오천의 장담이 구체적인 타산이 안배된 대답이 아니라 주관적인 욕망에서 나온 뜬소리처럼 들리였다.

그런데도 왜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났다.

아직은 모든것이 안개속에 빠진듯 흐릿하고 료원하게 여겨지는 이 마당에서 하잘것 없는 일개 대정이기는 하나 추호의 의문도 없이 거사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는것은 기쁜 일이였다.

의지가 되는 일이였다.

박위는 대체로 진중한 편이나 자기처럼 진중한 사람보다 쾌활한 사람, 락관적인 기분을 가진 사람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밀직부사를 지내는 최칠석이나 이곳의 오천에게 남다른 정이 가고 믿음이 가는지 몰랐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개운해진 박위는 틀지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그래, 옛적부터 장부일언중천금이라 하였거늘 사내대장부가 한번 말을 내고 뜻을 세웠으면 시종이 여일하게 일을 내밀어 기어이 끝을 보아야지. …》

이것은 오천에게 하는 말이기 전에 때없이 뒤숭숭해지는 자기자신의 마음에 대고 하는 소리였다.

다시 걸음을 옮기던 박위는 무춤 굳어지였다.

부지불식간 이처럼 사내싼 오천이가 아직도 둘레머리 로총각이라는 생각이 떠오른것이였다.

박위의 곱다랗게 생긴 입에서는 저도 모르는새 생청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애 오천아, 너 요즘도 구서방네 집에 더러 나가보느냐? 취금

이한테 말이다.》

숫기좋은 오천이건만 박위의 입에서 불쑥 튀여나온 녀자 소리는 전혀 뜻밖이라 퀭하게 눈을 홉뜬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사실 오천은 지난밤에도 구서방네 집 뒤담의 장독대곁에서 조용히 취금이를 만났었다.

취금은 얼굴도 둥실둥실하고 몸집도 두리두리한것이 덕성스러워 보이기는 하나 뻬여지게 인물이 고운 녀자는 아니였다.

하지만 오천의 눈에는 취금이가 세상에서 제일 고울뿐아니라 신기하리만큼 똑똑한 녀자로 보이였다.

오천이가 취금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올해 삼월삼짇날이였다.

해마다 삼월삼짇날(음력 3월 3일)이 오면 박위는 어김없이 군영군사들의 무술시합을 조직하군 했다.

이것은 심심풀이로 해보는 일도 아니요, 제 흥에 겨워 벌리는 놀음도 아니였다.

옛적부터 고구려사람들은 삼월삼짇날이 오면 5부 군사들을 전부 동원하여 메돼지와 사슴을 잡아오게 한 후 그것으로 하늘과 산천신에게 제사를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관례로 지켜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놀이나 제사행사가 아니라 명절을 기화로 병사들의 무술의욕을 더욱 높여주고 무술조련을 한층 다그치려는 상무기풍의 한 발현이였다.

헌데 고구려의 혁혁한 유풍은 날로 쇠미해지여 이제는 삼월삼질이 오면 문관들은 물론 무관들까지 의례 산에 올라가 꽃구경을 하고 꽃지짐에 꽃국수, 꽃술을 마시며 명절의 하루를 흥청으로 즐기였다.

하지만 박위는 자기의 군영에서만이라도 고구려의 전투적인 상무기풍을 면면히 이어가고싶었다.

군사들에게 꽃보다 검을 더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고싶었다.

하여 그는 삼월삼짇날이 오면 군사들속에서 사냥경기와 무술시합을 진행하는것을 정례화하였다.

올해 삼월삼짇날.

처음으로 무술시합에 참가한 오천은 말타기와 활쏘기, 검술과 창쓰기 등 모든 종목에서 단연 1등을 하였다.

박위는 오천에게 상등으로 쇠가 좋은 검 한자루와 맛좋은 계피술 한

방구리를 상으로 주었다.
상을 타자 오천의 뇌리속에는 제일먼저 선량하고 근실한 구서방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때인가 바다에 나갔다가 왜구들의 쇠장대에 얻어맞아 한쪽팔을 잃은탓에 곰배팔이라는 소리를 듣는 구서방은 누가 시키지도 않건만 틈만 있으면 그 부실한 몸으로 화살을 만들 대나무단을 묶어가지고 군영을 찾아오군 했다.
그러는 구서방을 볼 때마다 오천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이건 구서방에게 단단히 인사를 차리고싶었다.
그러던차에 저로서는 희한하기 그지없는 상을 타게 되자 그길로 구서방을 찾아간 오천은 제잡담 술방구리부터 꺼내놓았다.
구서방은 《무술시합에서 1등을 한 군사를 우정 모셔다가 대접은 못할망정 군사의 1등상을 빼앗아먹어서야 어디 백성의 도리가 됐느냐.》고 펄쩍 뛰였다.
하지만 오천의 소탈하고 끈덕진 고집으로 하여 두사람은 종시 술상앞에 마주앉게 되였다.
그 자리에서 오천은 연해 웃음발을 날리며 술시중을 드는 구서방의 딸 취금이를 처음으로 보게 되였는데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처녀역시 군사일을 제일로 중히 여길뿐아니라 무술시합에서 1등을 한 자기를 으뜸가는 사내로 쳐주는듯싶었다.
그날의 일을 빌미로 오천은 구서방과도 친해지고 취금이와도 친숙해지였다.
취금은 지금까지 오천을 정성스레 대접해주고 허물없이 대해주기는 했으나 유별스러운 소리 같은것은 한마디도 꺼낸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천은 자기가 무술시합에서 1등을 한것이 무슨 큰 공이라도 되는듯 말끝마다 1등군사라고 추어올리면서 번마다 다정하게 대해주는 처녀를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명랑하고 천진한 처녀, 담차고 오달진 취금에게 마음이 끌리였다.
헌데 어찌된 영문인지 취금이와 마주서기만 하면 오천의 입에서는 제 듣기에도 한심한 말마디만이 불려나갔다.
엊저녁에도 오천은 자신만만하게 취금이를 불러내기는 했으나 입을

여니 어느결에 또 씨알머리없는 소리가 흘러나갔다.
《취금이! 나 말이야, 장군을 따라 해변고을들을 나돌아다닐 때 취금이가 보고싶어 혼났다구.》
취금은 희고 가쯘한 이를 박속처럼 하얗게 드러내기는 했으나 서운하게도 그의 대답말속에는 싸늘한 랭기가 섞여있었다.
《누가 그따위 실없는 소리나 듣겠대?! 그런 말이나 하려거든 난 집안으로 들어가고말테야!》
《사실이 그런데 그렇다고 말도 못할가? 정말이지 취금이 생각을 하면 마음도 즐겁지만 없던 힘이 불끈불끈 생기면서…》
《아유, 징그러워! 1등군사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야?》
처녀의 말마디는 차거웠으나 오천의 생각은 제 좋을대로 흘러갔다.
(취금이는 말끝마다 나를 1등군사라는데 내가 무술시합에서 1등을 한것이 그리도 마음에 드는가?
취금의 속마음이 정녕 그렇다면 취금이야말로 내가 사랑해야 할 하나밖에 없는 처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자 어느결에 또 어리석은 말마디가 불려나갔다.
《난 말이지 취금이가 없이는 못살것 같애. 취금이가 있으니 마음은 항상…》
맥락이 닿지 않는 소리를 웅얼거리던 오천은 불현듯 저로서도 알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떠밀리워 처녀의 탐스런 머리태를 감아쥐였다.
《어머머! 남의 머리태는 왜 잡아다리는거야? 흉측스럽게…》
취금은 황급히 등뒤로 손을 보내여 자기의 머리태를 당기려들었다.
오천은 얼결에 처녀의 통통한 손까지 덥석 움켜잡았다.
취금은 실팍한 상체를 두어번 세차게 뒤틀더니 곧 잠잠해지였다.
취할듯 한 기분에 휩싸인 오천이 무슨 말인가 또 동닿지 않는 소리를 꺼내려는데 취금은 와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오천을 쏘아보며 랭랭한 어조로 말했다.
《난 집에 들어가겠어. 아버지는 불편한 몸으로 낮에는 염초장일을 보시구 밤에는 밤대로 화살감을 다듬으시는데 내가 모르쇠를 해서야 그게 몹쓸년이 아니구 무어야?》
오천은 처녀의 심정이야 어떻든 그의 작별선언이 무척 서운하였다.

아무리 아버지의 손을 돕는 일이 바쁘다 한들 달밝은 이 저녁 오랜만에 찾아온 사내에게 살뜰한 말 두어마디쯤이야 왜 못해준단 말인가?!

《그러니 취금인 내가 안중에 없단 말이지?》

《흥! 어떤년이 저같이 늙은 총각한테 마음을 준담.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버지가 아시게 되면 나 욕먹어. …》

처녀는 통통한 몸집을 놀라우리만큼 민첩하게 놀리여 장독대를 씽에돌더니 어느 틈에 집모퉁이로 꼴깍 사라져버리였다. …

오천은 박위에게 간밤의 일을 사실대로 아뢰기도 딱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수월치 않아 끙끙 갑자르던 끝에 잘 할줄도 모르는 거짓말을 힘겹게 번져놓았다.

《명색이 군사라는 사람이… 지금처럼 바쁜 때… 어찌 계집이나 찾아다니겠습니까?》

박위는 오천의 말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였다.

그러자 여직껏 해본적 없는, 자기로서는 다소 계면쩍은 느낌이 드는 생각이 뭉게뭉게 떠올랐다.

(자고로 군사라 하면 아무런 정도 나눌줄 모르는 돌상같은 사람이여야 하는가?

아니, 꼭 그렇지도 않은게야.

우선 나부터가 리옥을 생각하면 아픔과 그리움이 열배로 가중되고 대마도에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한시바삐 되찾아올 결심이 백배로 굳어지지 않는가.

이런게 사랑이라면 사랑은 인생의 부담일수 없느니…

사랑은 분명 인생을 추동하는 열이고 힘이고 아름다움이라 해야 할게다.

헌데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리옥의 모습이 이리도 깊숙이 새겨지였고 언제부터 그의 존재가 내 심장을 이리도 아프게, 이리도 뜨겁게 휘저어주기 시작했는고?!…)

박위는 다시는 이룰수 없을것 같은 자기의 사랑, 시작조차 떼보지 못한 자기의 서글픈 사랑이 새삼스레 애석해났다.

쓰라린 마음을 안고 서성거리던 박위는 오천에게 또박또박 뇌이였다.

《이 애 오천아, 군사라 하여 목석처럼 살라는 규례는 없는거다.

내 혼자 생각인데 이 땅이 사무치게 귀중한것은 아마도 정다운 사

람들이 살고있는 곳이여서 더욱 그럴게다.
우리 군사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 내대고 싸우는것 역시 어느 누구보다 이 땅과 정다운 사람들을 더 열렬히 사랑하기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취금에게 정이 가거들랑 열심으로 정을 나누어라, 군사답게 말이다.》
이것은 박위자신도 여직껏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였다. 이런 말이 스스럼없이 터져나온것이 자기로서도 이상하고 놀라왔다.
잠시후 박위와 헤여진 오천은 앞동네쪽으로 덜레덜레 나가다말고 무춤 굳어지였다.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리 크지 않은 꾸레미를 감촉한것이였다.
그것은 오천이가 바다가에 나갔다가 다시 군영으로 올 때 마을어구에 지켜서있던 취금이가 안겨준것이였다.
그때 취금은 엊저녁과는 판다르게 정찬 어조로 말했다.
《요즘 장군댁 도령이 몹시 앓는다지? 왜구에게 끌려간 리옥아씨 생각이 가슴에 맺히여 그리도 심하게 앓는다니 년소한 도령의 속이 얼마나 깊으면 그럴가.
이건 앵두인데 말랑말랑하고 달큼한게 맛이 폭 들었더라구.
군영에 들어가거든 도령에게 대접해주어. 그리구 1등군사에게 줄건 따로 건사해두었어.
이따 저녁때 나오면 꺼내줄게. …》
례장받은 벙어리마냥 저혼자 히죽벌쭉 웃으며 취금이를 만나던 광경을 되새겨보던 오천은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아무래도 취금의 마음은 조화속이다.
다시는 제집에 오지 말라더니 오늘 저녁에 또 나오란다.
게다가 내 몫으로 따로 간수해둔 첫물앵두까지 꺼내주겠단다.
그리구 1등군사라는 말은 또 얼마나 마음에 흐뭇한가.
내가 운수가 좋아 어쩌다 1등을 했지마는 사실 1등군사라고야 할수 있는가.
그런데도 취금이는 굳이 나를 1등군사란다. 취금이는 정말로 나를 우리 군영에서 제일가는 군사로 치부하는가.
아닐거야.

취금이는 나에게 군사를 더욱 열심히 배워서 고려국의 제일가는 군사가 되라는 당부를, 우리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왜구를 제일로 많이 잡아달라는 소원을 그렇게 말하는걸거야.

그러고보면 취금은 얼마나 속이 깊은가.

정말 장군의 말씀대로 나에게는 취금이라는 처녀가 있어 이 땅이 더욱 소중하고 우리의 군사일이 더욱 성수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 애 취금아, 내 기어이 1등군사가 되여 대마도공격전의 그날 제일로 큰 공을 세울테니 조금도 념려말아.

여적 이 오천이가 결심을 다져서 못해낸 일이란 없단다…

생각을 마친 오천은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듯 기운차게 활개를 치며 박위의 처소쪽으로 되돌아올라갔다.

저녁밥 지을 물을 뜨러 나가던 군사 여러명이 요즘에 들어 별스레 성급해지고 분주해진 오천을 저으기 놀란 눈길로 바라보았다.

허나 오천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오늘 저녁도 현중에게 앵두꾸레미를 넘겨주고나서 잠시잠간 취금이를 만나보고는 그길로 염초장에 나가 장밤을 새워야 하는 오천이였다.

9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중천을 바라고 둥깃둥깃 떠오르자 앞쪽의 솔숲에도, 동쪽내가의 버들숲에도, 실실이 내리드리운 버들가지들사이로 빠금빠금 내다보이는 잔잔한 내물우에도 희푸른 달빛이 가득 덮이였다.

내가는 고요하고 저녁의 대기는 싱그러운 꽃내, 풀내로 그득 들어찼는데 고르로운 풀밭우에 펼쳐진 돗자리우에는 류두명절날음식이 울긋불긋하게 차려져있었다.

그런데다 곁에는 인물곱고 기예 뛰여나며 고임성과 붙임성이 뛰여나게 좋은 김해관가의 1등명기 매화가 해반주그레한 얼굴에 함박

꽃같은 웃음을 피우고 바싹 다가붙어있었다.

빠진것없이 차려져있는 류두명절의 저녁상이요, 손만 내뻗치면 무엇이든 집을수 있는 풍성하고 아늑한 좌석이였다.

하건만 단정하게 올방자를 고이고앉아 휘휘 사위를 둘러보는 호백의 희좁은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덕지덕지 발려있었다.

아까부터 호백의 음울한 기색을 할깃할깃 훔쳐보던 매화는 마침내 사내의 척 늘어진 팔을 가볍게 잡아흔들며 간지러운 애교를 떨었다.

《아이유 원님, 어인 일로 이리도 심란해하시오이까. 오늘이야 년중의 명절중에서도 제일로 운치있고 재미스러운 류두명절이 아니오니까?!》

호백은 멀리 군영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시푸녕스럽게 대답했다.

《이년아, 아무리 운치있고 재미스러운 명절이래도 내가 흥이 나지 않는데야 무슨 소용이냐?》

계집은 앵두알처럼 도드라진 빨간 입술을 살살 감빨며 더한층 아양을 떨었다.

《어야나! 커다란 김해고을을 떡반죽처럼 쥐락펴락하시는 원님께서 이 기쁜 날 흥이 나지 않으시다니 이 어인 일이오니까?》

《이년아, 자발스러운 소리 작작해라. 속 상한다.》

《아유! 말씀을 지망지망히 해서 죄송하오이다.》

호백의 등을 문지르고 배를 쓰다듬으며 갖은 애교를 다 부리던 매화는 호백이 눈을 부라리며 짐짓 노여운체 하자 가장 황송한듯 나부시 고개를 숙이였다.

허나 사내다루기를 개떡 주무르듯 하는 계집은 벌써 호백의 얼어붙었던 속이 흐물흐물 녹아내리고있음을 여실히 느낀듯 살그니 입을 가리고 뜻있는 미소를 머금었다.

조호백이 경상군영에서 상원수벼슬을 지내다가 여기 김해고을 부사로 돌아앉은지는 올해까지 꼭 다섯해가 되였다.

호백이 상원수노릇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매 도의 군영에는 상원수요, 도원수요, 병마원수요 하는 동급의 군사장관들이 거의 10여명이나 되였다.

그로 하여 지방군은 도저히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수립할수 없었다.

일이 제기되면 매 원수들은 저마끔 마음내키는대로 령을 내리고 그

에 따라 군사들은 방향없이 밀려다니였다.

당시 어느 고을 만호로 있던 박위는 누구보다 먼저 이러한 페단을 포착하고 임금에게 매 도에 한명의 원수를 두고 그에게 도안의 모든 군사들이 전적으로 복종하게 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올리였다.

임금은 최영과 거듭 토론한 후 박위의 건의를 조정의 군사정책으로 집행할것을 명령하였다.

그 바람에 숱한 원수들과 함께 호백이도 상원수자리에서 밀려나 김해부사로 내려앉았다.

사실 상원수에서 김해부사로 돌아앉은것은 거의나 동급조동에 가까왔다.

허나 도의 군사장관을 1명으로 규정하고 모든 원수들을 축출하도록 한 임금의 조치를 최영과 결탁한 박위의 음모로 여긴 호백은 자기의 조동을 무서운 좌천으로 생각하였다.

하여 호백은 이를 으득으득 갈며 군영을 나섰다.

헌데 정작 김해관가의 높직한 동헌마루에 올라앉고보니 최영과 박위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은 가뭇없이 사라지였다.

남해와 락동강하류를 끼고있는 김해는 땅이 비옥하고 물자원이 풍부한데다 기후가 온화하여 곡식과 파일이 여느 고장에 비길바없이 잘되였다.

희고 찰기 좋은 김해쌀, 대저벌에서 나는 김해배와 진영벌에서 나는 김해단감은 경향각처에 특히 이름이 높았다.

물고기 또한 없는것없이 다 잡히였다.

명지 앞바다와 록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칼치와 도미, 전광어와 숭어 같은 해산물들은 덩지가 크고 맛이 특이하게 좋아 나라안에는 물론 나라밖에까지 소문이 파다했다.

헌데 그 모든 희귀한 재물이 호백의 줌안에 들었으니 엎어져도 떡함지에 엎어진다는 항간의 속담은 얼마나 그럴듯한가. 게다가 걸핏하면 위험천만한 전장에 뛰여들어야 하는 무관의 전복과 칼을 벗어놓았으니 마음은 또 얼마나 편안한가!

워낙 재물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호백은 우선 고을밖으로 개미 한마리 새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방비책을 세웠다. 하고는 손수 팔을 부르걷고나서서 살살 털을 불어가며 고을안의 알짬들을 찰찰하게 발그

집어내기 시작했다.

먼저 합법적으로 내려먹일수 있는 조세와 공물의 액수를 규정액보다 배로 높이였다.

또한 별선이라는 명목으로 각 촌의 술과 어물을 끌어들이고 잡공이라는 명색으로 밤과 대추, 개암과 같은 산열매들까지 끌어들이였다.

호백은 원노릇을 시작한지 불과 얼마 안되여 열칸도 넘는 너렁청한 광속에 각색 재물을 둥덩산같이 쌓아놓았다.

매일과 같이 주지육림에 파묻히여 풍청거리면서 기회가 생기는대로 임금과 조정의 재상들에게 품들여 마련한 뢰물을 섬기고 진상을 올리였다.

우황든 소마냥 껍질만 남은 백성들은 울며불며 원망을 터치는데 저 멀리 개경의 만월대 궁궐속에 깊숙이 들어앉은 나라님과 재상들은 호백이를 두고 기특하다, 예쁘다 온갖 칭찬을 다 하였다.

호백은 정녕 살맛이 났다.

부귀는 날을 따라 늘어만 가고 권세는 온 고을에 샅샅이 뻗쳤는데 귀맛좋은 칭찬은 비발치듯 내리지 않는가!

이럴 때 재미나는 골에서 범난다고 호백이 그리도 절치부심을 하던 박위가 경상군영의 원수가 되여 김해로 내려왔다.

호백은 아뜩했다.

얼마간 흐릿해졌던 박위에 대한 반감은 다시금 바람맞은 숯불처럼 빨갛게 살아올랐다.

(그런즉 박위 너는 그때 벌써 여기 군영의 원수자리를 노리고 그따위 얼쑹덜쑹한 건의서를 올렸댔구나.

어쩌면 사람이 그리도 간특하고 모질수 있단 말이냐?!)

호백은 박위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고 치를 떨면서도 은근히 간이 오무라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확실히 박위는 두려운 존재였다.

재산이라고는 허리에 찬 칼 한자루밖에 없으면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군사일에만 전념하는 청렴하고 강개하고 헌신적인 박위의 눈앞에서 예전처럼 마구 으르렁거리며 갈퀴질을 해댈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하루아침새 욕심스러운 마음과 생활습벽을 헌데딱지 뜯어내듯 떼내칠수도 없는노릇이였다.

호백은 군영의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조심스레 공안(고려시기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국가세입을 기록한 장부)의 세입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인납(다음해공물을 미리 받는것)을 실시하였다.

수조지(정부로부터 전세를 내기로 하고 빌린 땅)의 규정액도 살금살금 불구어놓았다.

그밖에도 가지가지 교묘한 오그랑수를 계속 펼쳐나갔다.

하지만 아무리 기묘한 착안이나 음모라 해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이다.

협잡과 권모술수가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박위는 자기가 직접 관가에 찾아오거나 윤통이 같은 감때사나운 군영장수들을 보내여 오금을 박군 했다.

《왜구의 침탈로 고통을 받고있는 백성들인데 관가에서까지 핍박을 해서야 어디 살아내겠소?

관가의 공사에 대해 잘 모르기는 하겠소만 웬간하면 조금 늦춰주시구려.》

《부사도 아다싶이 이 고장 백성들은 장차 군사로 쓰거나 군사일의 협력군으로 써야 할 사람들인데 초보적인 생계야 살펴주어야 하지 않겠소?》

호백은 차츰 사지가 가드라들었다.

권세도 예전처럼 마구 휘두를수 없었고 부귀도 예전처럼 마음껏 누릴수 없었다.

그럴수록 박위에 대한 반감과 격분은 부풀어올랐다.

더우기 요즘에 와서 군사일의 판이 더욱 크게 벌어지자 이제는 그만 박위의 이름만 들어도 이가 으득으득 갈리고 소름이 오싹오싹 내돋았다.

박위는 관가에 대고 내라는것이 많기도 했다.

군사들을 뽑아올려라, 군량과 반찬감을 바쳐라, 각색 장공인들을 골라보내라, 배널과 쇠쪼박따위를 모아바쳐라.

지어 염초를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재까지 긁어내라. …

부르는대로 꼬박꼬박 섬겨바칠수는 없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번마다 모르쇠를 할수도 없었다.

그래 초기에는 눈치를 보아가며 미움이나 사지 않을 정도로 졸금졸

금 보내주었다.

그러자 박위는 만날 때마다 건건이 찍어가며 우뢰질을 하였다.

거짓열성이라도 보이지 않고서는 견디여배길것 같지 못했다.

그 거짓열성바람에 피를 졸이며 뭉그려들인 갖가지 재물이 뭉텅뭉텅 관가밖으로 떠실려나갔다.

그때마다 호백은 생살점이 뚝뚝 떨어져나가고 선지피가 줄줄 새나가는듯싶었다.

괴로움과 고통은 그뿐만이 아니였다.

요즘 박위와 군영의 장교들, 지어 보잘것 없는 군졸들까지 자기나 관가의 구실아치들을 소 닭보듯 하면서 걸핏하면 시비질, 엇드레질을 하려 들었다.

죽촌을 다녀온 그날 저녁도 호백은 밤늦도록 비단이부자리에서 궁싯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을관하의 한개 마을이 알쭌한 페허로 화한것도 기가 막혔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박위와 윤통의 살짬에 끼워 짚새기공처럼 이리 굴리우고 저리 굴리운것이 복통이 터지도록 분하였다.

(한개 고을의 방백이라면 조정의 재상들과도 떳떳이 항례(대등한 례로 대하는것.)를 할수 있는 나라의 당당한 관헌인데 이제는 시골의 무관나부래기들까지 내놓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자고드니 이게 귀구멍이 막힐 일이 아닌가.

그놈의 군영은 왜 하필 우리 고을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야단인가.

뭐니뭐니해도 제일로 괘씸한 놈은 박위 그 작자로다.)

군량바리를 마련해가지고 군영에 갔던 배뚱뚱이 호장이 매를 얻어맞고 징징거리며 돌아온 날 밤에는 너무도 기가 막히여 혼자 화술을 퍼마시며 기염을 토하였다.

《윤통이 너 이놈! 무엇이 어쩌고 어째? 〈너희 골 부사대신 매를 좀 맞아보라.〉고? 그러니 나를 때릴수 없어 호장을 두드린단 소린데…

어이구, 네놈이 그따위 불공설화를 늘어놓으며 몽둥이를 휘둘러댈때는 이 조호백을 거랑말코지쯤으로 여긴다는 뜻이 아니냐.

오냐, 어디 두고보자.

네놈이 그렇게 하늘 높은줄 모르고 마구 날뛰는것도 구경은 박위를 등대고 하는 수작이렷다.

이놈들, 소금도 쉴 때가 있고 박달나무도 좀쓸 때가 있다더라. 어느때건 때가 오거든 내 네놈들을 모짝 한바리에 처실어서 저 율하천의 룡소에 꺼꾸로 처박아넣을테다.》

호백이도 물론 박위의 덕을 아주 모르는것이 아니였다.

오래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것은 더 말할것 없고 근일에 와서 박위의 군영이 김해에 있기에 이 고장에는 왜구의 침노가 극히 드물다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죽촌참변의 책임도 박위가 제 혼자 홈빡 뒤집어쓰고 나섰기에 그에게는 조정의 질책과 비난이 소나기처럼 쏟아져내렸지만 자기에게는 비방울 한꼬치 닿지 않았다는것 역시 모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박위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감소돼가는것은 결코 아니였다.

아니, 박위에게 입은 덕, 입고있는 덕은 날이 갈수록 별치 않게 생각되는 반면에 박위로 하여 당한 손해, 겪고있는 손해는 바람먹은 숯불마냥 더욱 따갑게 살아올랐다.

분노는 반격과 복수의 의지를 격증시켰다. …

…호백은 희푸른 달빛에 묻혀있는 내가의 고즈넉한 밤경치를 얼없이 살펴보며 검칙칙한 사색을 여념없이 씹어나갔다.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을고?!

재물을 그러모으는 재미도 없고 권세를 휘두르는 멋도 없이 원노릇을 해서 무엇한단 말이냐.

차라리 종형대감께 내직으로 벼슬을 옮겨달라고 품해보는게 어떨가.

(호백은 시골구석에 박혀있으면서도 얼마전 좌군도통사로 료동원정에 나갔던 자기의 사촌형 조민수가 리성계와 함께 원정을 포기하고 개경에 돌아온 사실을 환히 알고있었다.)

아서라, 아직은 종형대감의 일도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

요즘 리성계대감이 무엇때문인지 우리 종형을 곱지 않게 본다던데 그에게 붙어돌아가다가 만일 종형이 밀려나게 되면 내게도 그 불똥이 튀게 될게다.

하다면 이 자리에 그냥 붙박혀있을수도 없고 내직으로 옮겨앉을수도 없으니 이야말로 호미난방이 아닌가?!…)

《아이고 원님, 이 팔을 어이 하오리까. 원님께서는 어이하여 이 매

화를 이다지도 하대하시오이까?!》
매화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울려왔다.
그제서야 깊은 상념에서 깨여난 호백은 번쩍 눈을 치떴다.
술잔을 받쳐든 매화의 하얀 두손이 턱밑에서 살래살래 춤을 추고있었다.
호백은 얄팍한 입술에 연한 웃음기를 띄우며 헌헌히 술잔을 받아들었다.
《이 애 매화야, 내가 너를 박대할 까닭이 있느냐. 마음이 하도 어수선해서 그러는게다.
누구니누구니해도 내 마음을 위로할건 다만 매화와 술뿐인가 하노라.》
말을 마친 호백이 술잔을 쭉 찌워버리자 매화는 기다란 저가락으로 수란(삶은 햇보리와 농마를 오미자물과 꿀로 반죽하여 만든 류두날 음식.) 한덩이를 집어 사내의 손에 쥐여주었다.
하고는 미색이면 만사통과라는듯 서슴없이 호백의 무릎우에 말궁둥이같은 엉치를 넌떡 올려놓으며 종달새 열씨까듯 종알거리였다.
《원님, 소녀가 듣자하니 요즘 군영의 박장군께서 가는 곳마다 군사일을 벌려놓고 백성들을 못 견디게 지지고 볶는다던데 혹여 그로 해서 원님의 마음이 상하신게 아니오니까?》
술기운이 퍼지여 툭툭 높뛰는 호백의 가슴속으로는 계집에게 무작정 너그러워지고싶은 얼간이의 자비심같은것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헛허, 네년이 신통맹통하게 알아맞추는고나. 정말이지 박위라는자가 내 고을을 타고앉아 좌지우지하고있으니 내 마음이 어찌 순편할수 있겠느냐?!》
《아유, 원님도 참 답답하셔. 박장군의 속내를 뻔히 아시면서도 곱게 두손 동여매고 앉아 강건너 불보듯 하시니, 원 참.》
《이년아, 그놈이 노상 임금의 어명과 병부의 군령을 부작처럼 휘두르며 날뛰는데 뭐라고 대거리를 한단 말이냐?
소갈머리없는 소리 작작해라.》
호백의 무릎우에서 그네라도 타듯 살집좋은 궁뎅이를 이리저리 흔들며 아양을 떨던 매화는 갑자기 두눈이 동그래지며 오똑 굳어지였다.
《소녀가 소갈머리 없다니요?
원님이야말로 천군만마를 호령하시던 상원수시절의 그 기상을 죄다

버린듯 하오이다.》
호백은 매화의 당돌한 대꾸질에 부아가 난듯 짐짓 눈을 흡뜨더니 이내 낯색을 풀며 당치도 않은 허세를 부리였다.
《이런 살똥스러운 년 보았나. 이년아, 내 비록 검을 놓기는 했으나 아직도 상원수시절의 기상은 그대로 가지고있느니.
이제라도 호풍완우(바람을 부르고 비를 몰아오는 재주)도 할수 있고 둔갑장신(몸을 감추는 재주)도 할수 있단 말이다.》
《그렇다면 어이하여 원님을 시동다루듯 하려드는 박장군을 그냥 내버려두나이까?
원님을 극진으로 보살펴드리고 따르는 소녀는 그게 안타깝소이다.》
취기에 젖어 멸떠름해진 사내를 제 마음대로 주물러대던 매화는 이제야말로 가장 긴요한 이야기를 한다는듯 사뭇 긴장된 시선으로 사위를 휘둘러보더니 앵두알처럼 빨간 입술을 호백의 귀바투에 가져다붙이였다.
《원님, 듣자니 요즘 박장군이 왜구를 치겠노라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들의 역적모의를 가리우기 위한 방편이라고… 알만 한 량반들은 모두 뒤에 돌아앉아 수군수군한답니다.》
《무웨? 역적모의? 그게 무슨 소리냐?!》
호백은 자기의 곁에서 금방 화약무지가 터지기라도 한듯 깜짝 놀라며 갈고리눈을 한껏 흡떴다.
(이년이 안면이 너르다더니 못 물어들이는 소문이 없구나.
박위가 역적모의를 한다?! 그러니 조정을 뒤집어엎을 반정을 준비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게 정말일가, 아니면 매화가 나를 돕고싶은 마음이 하도 간절한 나머지 그런 생먹은 소리를 지어냈을가?)
호백의 가슴은 쿵쿵 높뛰였다.
호백이 알건대 매화는 전라도 령광의 어느 촌락에서 살다가 몇해전에 왜구에게 량부모를 다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김해에 들어와 어느 아전의 천거로 기적에 오른 녀자였다.
호백은 올해 정초 초닷새 자기의 생일잔치때 처음으로 매화를 보게 되였는데 첫눈에 그만 홀딱 반해버리였다.
매화의 나이는 올해 들어 열아홉, 휘친하게 쭉 빠진 몸에서는 한창

피여나는 매화꽃같은 싱싱한 기운이 약동하는데 요염하게 생긴 이쁜 얼굴에서는 노상 사랑의 욕구같은것이 지글지글 끓고있었다.

그때부터 호백은 기회가 생길 때는 물론이요 기회가 없을 때도 우야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매화를 제결에 불러들이군 했다. 매화를 끼고있으면 시간가는줄을 알수 없었다.

함께 술을 마시기도 즐겁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재미있었지만 시들시들한 호백의 몸에 향내풍기는 매화의 단단한 육체가 밀착해 들어올때면 이루 형언키 어려운 무아경의 쾌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관가의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우리 원님이 정사는 아주 전페하고 매화에게 빠져 세월 가는줄 모른다.》는 뒤소리가 쉬쉬 나돌았다.

그런데도 호백은 조사때마다 상판에 개가죽을 뒤집어쓰고 나서서 《매화로 말하면 량부모를 다 왜구에게 잃은 불쌍한 애인데 우리가 잘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도 그 애 일에 깊이 관심을 돌리느라 하지만 너희들도 그 애를 각별히 살펴주어라.》 하고 자기가 마치 양아버지노릇이나 하는듯이 얼레발을 떨었다.

일이 이쯤 되고보니 계집에게 혼이 빠진 어리석은 사내들이 대개 그러하듯 호백의 눈에는 매화의 모든 언행이 하나같이 신통맹통하게 보이였다.

호백은 매화가 방금 귀속말로 일러준 말도 훌훌히 스쳐버리게 되지 않았다.

아니, 매화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뜻밖에 얻어가진 홰불마냥 무등 반가왔다.

호백은 박위가 음흉하게 뒤에 돌아앉아 반역음모같은것을 꾸밀 사람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사건건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박위를 일격에 제거할수 있는 단서가 생긴 이상 그것을 버리고싶지 않았다.

아니, 가능한껏 확장하여 본때있게 써먹어야 했다.

호백은 너무도 긴장하여 돌부처처럼 굳어진채 당치도 않은 제나름의 리치를 억지다짐으로 전개해나갔다.

(…세상에 역적모의를 할 놈이 어디 따로 있다드냐. 박위쯤 그악스러운 놈이면 역적질도 능사로 할수 있으렷다.

그렇지, 그놈이 작년에 해변고을들에 상비군을 내오자고 제의를 한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저 일이 아니다.
요즈음 불시에 군사일의 판을 크게 벌리는것도 반역을 바싹 다그치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시각빨리 역적고변을 해야 한다. 조정의 형세인즉 때마츰하다.
리성계대감이 회군한 후 임금은 왕좌에서 밀려나고 최대감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으니 때는 누구도 세상일의 꼬리대가리를 판별할수 없는 때다.
이런 때 고변을 하면 십중팔구 내 뜻대로 성사되리다.)
사람이 약으면서도 경망스러운 호백은 이렇게 결심이 서자 금시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듯싶었다.
속이 훅훅 달아오르고 숨이 헐헐 가빠났다.
허나 저로서도 엄청나게 생각되는 자기의 비밀한 속내를 함부로 발설하고싶지 않았다.
겁이 나기도 하고 아직은 모든 일을 좀더 무르익혀야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참이나 모주 먹은 수돼지마냥 어깨를 들썩거리며 헐헐 가쁜숨을 내불던 호백은 다소 마음이 진정되자 무슨 장난이라도 하듯 매화의 하얀 볼을 다독이며 짐짓 딴전을 부리였다.
《이 애 매화야, 설마하니 박장군께서 역적모의를 하겠느냐?
항간에 떠도는 소리를 그대로 믿어서는 못쓰느니.
자,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이야 동류두목욕날인데 동쪽내가에 나가 머리를 감고 몸을 씻어 부정을 말끔히 털어버려야지.
액막이술은 이미 마신셈이니 이제 목욕만 정히 하면 이런저런 시름거리도 날아나겠지. …》
호백은 아까와는 전혀 딴판으로 활기있게 주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어서는 참 얼결에 바다쪽으로 시선을 돌린 호백은 갑자기 후두두턱을 떨며 비명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저게 무어냐, 엉? 저게…》

지금껏 호백의 표정을 놓칠세라 여겨보던 매화는 침착하게 치마폭을 휘감아쥐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기 록산은 크고작은 지류들을 수없이 품어안고 흘러내리는 락동강의 드넓은 하류와 끝간데없이 펼쳐진 남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평야지대였다.

그러니 여기 내가의 두두룩한 등성이우에서는 락동강하류와 바다가가 그림처럼 선명하게 내다보이였다.

역시 달빛이 하얗게 내린 바다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와 소리까지 질러대며 끓고있는데 그 광경에 호백은 그리도 놀란것이였다.

주의깊게 바다가를 살펴보던 매화는 놀라기는커녕 싸늘한 미소를 띄우며 씹어뱉듯이 말하였다.

《요즘 군영군사들은 저렇게 밤에도 배를 뭇고 화약을 뽑느라고 복새를 떨고있소이다. 듣자니 대마도로 쳐나갈 준비를 차린다는데 그게 혹시 저들의 반정준비를 가리우려는 수작이 아닌지… 누가 알겠소이까?》

매화는 박위네가 대마도원정을 준비한다는 소리는 누구에게서도 들은적 없건만 호백을 더욱 자극하기 위해 생각나는대로 마구 주어섬기였다.

아니나다를가 호백은 다시한번 크게 놀라 염소수염이 매달린 강파른 아래턱을 후두둑 떨었다.

그의 뇌리속에서는 연해 섬광같은것이 번쩍거리였다.

(이게 또 웬떡이냐?

그래, 그렇게 들떼놓고 역적고변을 할게 아니라 박위가 그 무슨 대마도원정준비를 차린다는 방편뒤에서 반역을 준비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럴듯한가?!

정말 박위 저자가 반역을 하기는 하려는가부다. 그렇지 않고야 저다지 기를 쓰고 날뛸리가 있겠는가. 한즉 일각이 여삼추로다.)

호백이 오늘 관가에서 수십리나 떨어진 여기 록산으로 조용히 나온것은 고요한 내가에서 젊고 예쁜 기생년을 짓주무르며 울적한 심사를 달래보려는 욕망도 있었지만 보다는 군영의 동태를 제 눈으로 살펴보고싶은 아기뚱한 마음이 작용했기때문이였다.

헌데 바늘을 찾다가 송이버섯을 발견한 격이라 할가, 개천을 치다

가 금덩이를 얻은셈이라 할가.

록산에 나오자 앉은자리에서 역적고변의 기틀을 물샐틈없이 세운데다 인생의 새 출구까지 명확히 내다보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무엇을 더 캐고 따질것없이 대마도원정준비를 코에 걸어가지고 역적고변을 해야 한다.

잠시라도 시각을 늦구어서 저 야단스러운 원정준비가 계속된다면 나는 박위네들에게 더욱 괴퍅한 모욕과 행패를 당할것이요, 지금껏 고수해온 재물까지 깡그리 다 털리우고말게다.

박위 너 이놈! 버러지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온 세상이 다 아는 명관이요, 조민수대감의 사촌동생인 이 조호백이 노상 두손 동여매고 앉아 네놈의 무쌍한 행패를 곱게 당하고있을줄 아느냐.

그리구 윤통이 너 이놈— 네놈도 가재새끼 바위등대듯 박위를 등대고 나서서 무서운것없이 날뛰고있지만 이제 당해보아라.

대가리를 삶으면 귀도 익기마련이라더라.)

호백은 잔뜩 몸이 달아오른 탓에 요즘 새로 류행되는 자기의 양태넓은 새 갓이 풀밭에 구겨박힌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바다가쪽을 노려보고있었다.

희푸른 달빛, 불그레한 화광이 번뜩거리는 저 멀리 바다가에서는 여전히 숱한 사람들이 와와 기세를 올리며 분주하게 돌아가고있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똑똑히 가려지지 않았으나 그것은 장차 호백에게 더 큰 재앙을 가져다줄것만은 분명했다.

이밤 군사들과 백성들의 가슴속에서는 애국의 붉은 피가 끓고있었으나 호백의 흉중에서는 일신의 권세와 부귀를 위해 그 무엇이든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무서운 흑심이 사품치고있었다.

통통하게 부푼 가슴을 들먹이며 바다가의 군사들과 눈앞의 호백을 갈마보던 매화는 무엇때문인지 미묘한 미소를 띄우며 호백의 어깨우에 치렁치렁 매달리였다.

10

창밖에서는 이름모를 풀벌레들이 괴자누룩한 밤의 정적을 썰며 쉬임없이 바스락거리고있었다. 어디선가 이따금 개짖는 소리가 컹컹 광활한 대기를 공허하게 울리며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그린듯이 단정하게 앉아 개경에서 보내온 최칠석의 편지를 세번째로 읽어내려가던 박위는 갑자기 종이를 와락와락 구기였다.

머리가 통채로 물레에 태우기라도 한듯 빙글빙글 돌아갔다.

가슴속에서는 연방 돌담같은것이 와르르와르르 허물어져내리였다.

박위는 꺼지는듯 한 한숨을 길게 내불며 내심깊이로 부르짖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고?

그렇게도 장한 기세로 료동에 출정했던 원정군이 어찌하여 중도에서 걸음을 되돌려 개경으로 왔는가.

설사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돌아왔다면 무엇때문에 원정군은 오는 걸음으로 임금을 들어내고 최영대감을 밀어냈는가.

아아, 이 일이 과연 꿈 아닌 생시의 일이란 말인가?!)

의혹과 절망, 불안과 위구심이 집게처럼 아프게 뇌리를 조이고 가슴을 비틀었다.

그런 중에도 지난 4월 어느날의 일이 어제런듯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 중낮때 개경의 동쪽 교외에서는 료동으로 출동하는 원정군의 열병의식이 거행되였다.

임금과 최영이 조정의 재상들을 거느리고 단우에 올라서자 떠나갈듯 한 환성이 터지였다.

이어 백마를 탄 리성계와 조민수가 수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단아래로 흘러갔다.

숲처럼 펼쳐진 기치창검이 위엄있게 번쩍거리였다. 무수한 군기들이 펄럭이였다.

고취악대는 장쾌한 군악으로 군사들의 위세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그때 박위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단우에 올라있었다.

최영은 왜구의 침노가 그칠새 없는 남도의 군영들에서는 원정군에 군사를 보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으나 박위는 적지 않은 군사들을 떼내여 원정군에 포함시키였다.

박위가 보낸 군사들은 그자신이 직접 손때를 묻혀 키운 패기(당시 이름있는 장수들이 개별적으로 거느리고있던 사병)들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생력군(기운이 왕성한 군사)들이였다.

그들을 떼내자니 아쉬운 마음 금할수 없었으나 나라의 존엄을 떨치고 선조의 옛 강토를 수복하는 성스러운 국사앞에서 사사로운 욕심을 따로 차리고싶지 않았다.

아니, 남쪽의 긴장한 정세만 아니라면 자신부터 선참으로 원정군에 뛰여들고싶었다.

사실 료동원정은 하루이틀새 몇몇 고위관리들의 결심에 의해 결정된 단순한 군사문제가 아니였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원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새로 일어선 명나라의 사신 설사가 고려에 도착한 그때부터 명나라와 고려사이에 심각한 정치외교상의 알륵과 마찰이 시작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때 설사는 공민왕에게 비단 40필과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보내는 편지를 올리였다.

주원장은 편지에서 자기가 여러 봉건세력들을 통합하고 원의 지배를 뒤집어엎은 다음 새 나라의 황제로 등극하게 된 경위를 루루이 설명하고나서 이렇게 부언하였다.

《…나는 덕이 옛날의 현명한 임금들만 못하여 사이가 돌아오게는 하지 못하나 그러나 천하에 두루 알게 하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뜯어보아야 자세를 한껏 낮추고 쓴 겸허한 첫 인사편지였다.

하다면 주원장을 아무런 술수도 야욕도 없는 겸손하고 진실한 황제로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이때 벌써 주원장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계략을 펼치기 시작한것이였다.

새로 명나라가 섰다고는 하나 명나라안에는 아직 적지 않은 몽골귀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다 사막지대로 쫓겨난 북원은 여전히 옛땅을 회복할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었다.

한편 북원과의 태줄을 완전히 절단하지 않은 료동지방의 할거세력들인 납합출과 홍보보는 의연히 명나라를 적대시하는 립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명나라는 사방에 적을 가지고있는데다 대외적으로는 고립되여있고 대내적으로는 인정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자기의 적수들을 견제하자면 당분간 고려에 접근하는 정책을 취해야 했다.

하여 주원장은 그리도 겸손하게 공민왕에게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낸것이였다.

고려정부는 명나라의 속심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명이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반원투쟁에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다고 보았다.

고려와 명나라는 각기 제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신과 사신단을 자주 교환하면서 대체로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갔다.

헌데 1373년초 명나라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려사신단은 료동지방을 통과하지 말고 바다길로 오라는 거의 명령식의 통보를 보내여왔다.

같은 해 7월에는 주원장이 직접 《고려는 사신을 보내여 명나라의 내정을 렴탐하고있다.

명은 마땅히 대군을 동원하여 고려를 징벌할것이다.》라는 터무니없는 강억지와 오만무례한 위협을 늘어놓았다.

명나라는 저들의 세력기반을 구축하고 내부의 불안정을 어느 정도 수습하자 드디여 본색을 드러내놓은것이였다.

명나라의 대국주의적압력과 침략적기도가 날로 로골화되여가고있을 때 고려에서는 전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1374년 11월 본국으로 돌아가던 명나라사신 림밀과 채빈은 개주참(봉황성)에 들리여 진종일 술을 퍼마시며 온갖 야료와 행패를 다 부리였다.

고려의 호송관 김의는 보다못해 그들에게 점잖게 처신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자 림밀과 채빈은 술병으로 김의의 정수리를 내리깠다.

격분한 김의는 응당한 보복으로 즉석에서 채빈을 처단하였다.

이렇게 되자 명나라는 제쪽에서 도리여 사신살해사건을 코에 걸고

고려에 대한 위협공갈의 도수를 더한층 높이였다.

13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나라의 행패는 더욱 우심해졌다.

1388년 2월 명나라는 드디여 철령이북의 고려땅을 전부 료동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요구를 들고나왔다.

명나라통치배들은 본래 철령이북지방은 원나라의 개원로가 관할하던 쌍성총관부에 속한 지역이므로 원이 망한 정황에서 응당 저들이 차지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명나라는 말로만 귀속을 주장한것이 아니라 실지 군대와 관리들을 강계일대에 보내여 철령위설치를 구조적으로 완비하려고 날뛰였다.

얼마후 정부특사의 명색으로 개경에 도착한 료동백호 왕득명은 정식으로 철령위설치를 통고하였다.

고려정부는 더이상 외교적경로에만 매달려있을수 없었다.

명나라의 침략적기도를 분쇄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자면 강력한 군사력을 발동하는 길외 다른 방법이 없었다. 때마침 부패무능한 리인임일당을 제거하고 문하시중의 최고벼슬에 오른 최영은 일부 관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의 료동공격을 국책으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오만무례한 명나라통치배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야욕을 일거에 분쇄할수 있는 가장 적극적방도인 동시에 지극히 정당한 조국수호전략이였다. 이것은 또한 료동지방의 거의 모든 군사들이 명나라군사들과 함께 북원의 주력을 격파하기 위해 멀리 포의아해(현재의 내몽골자치구 만주리남쪽)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승산이 명백한 맵시있는 군사작전이였다. …

…헌데 원대한 포부와 양양한 조국수호정신을 안고 기세충천하여 떠났던 원정군은 위화섬에 이르러 돌연 걸음을 돌리였다.

원정군의 부사령관격인 리성계는 회군의 리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킨것은 시기를 잘못 택한것이다.

왜냐하면 장마로 하여 활에 먹인 아교가 풀리고 대군이 병에 걸릴수 있기때문이다.

…그밖에 대군이 나라지경을 벗어난 기회에 왜구가 남쪽으로 쳐들어올수 있기때문이다. …》

박위는 리성계의 회군리유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임금의 윤허도 없이 갑자기 군사를 돌려세운 그의 모호한 태도는 쉬이 리해되지 않았다.
개경에 들어서자바람 원정군을 동원하여 임금을 내쫓고 최영을 귀양지에 밀어낸 너무도 무엄하고 가혹한 행위는 더더구나 리해되지 않았다.
박위는 스르시 눈을 감으며 몇번이나 되뇌여본 소리를 처절한 음성으로 다시금 웅얼거리였다.
《최대감의 원정용단은 지극히 정당하고 장한것이였다.
청렴결백하고 전투적인 그의 생활은 무관들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인생거울이였다.
최대감은 또한 오래전부터 리성계를 애중하고 이끌어준 은인이요 오늘에는 원정군의 지휘권까지 사심없이 넘겨준 인생의 대선배다. 그런 최대감에게 설사 간과할수 없는 과실이나 흠절이 있다 해도 리성계가 어찌 군력까지 동원하여 그를 내쫓을수 있는가?!
모를 일이다, 정녕 모를 일이다. …》
박위는 우두두 몸을 떨며 다시 눈을 치떴다.
꼬리를 들까불며 피여오르는 초불이 커다란 불덩이처럼 확대되여 안겨왔다.
(리성계, 리병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박위는 벼슬살이 초기에 얼마간 내직에 있기는 했으나 대체로는 외직에 나가 지낸탓에 노상 동북면에서 활약하다싶이 한 리성계를 생활적으로 파악할 기회가 없었다.
다만 10여년전 어느 초가을 전라도 운봉에서 중앙군과 지방군의 협동작전으로 수천의 왜구를 요정낸 뒤 잠시잠간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리성계와의 첫 상면이자 마지막교제였다. 허나 박위는 오래전부터 리성계의 래력과 그의 전투공적에 대해 잘 알고있었다.
리성계를 고려군대의 큰 기둥으로, 최영 다음가는 명장으로 깊이 존경해왔었다.
당시 27살의 젊은 장수였던 리성계는 오늘까지 근 30년간 적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련전련승하여 수시중의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다.

실로 리성계는 소문만 듣고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할만 한 고려군의 거물급장수였다.

그러한 리성계가 세인이 경악할 엄청난 군변을 청천백일에 창출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기 전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였다.

그처럼 깊이 존경하던 인간을 한순간에 증오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사랑에서 증오로 가려면, 존경에서 격분으로 가려면 다문 몇개의 세부라도 계단으로 놓여야 하지 않겠는가?!…

…최칠석은 편지에 《…자고로 짧은 혀바닥에 긴 목을 달아매고 죽은 수다쟁이가 한둘이 아님을 공도 잘 알고있으리다.

하고싶은 말은 많으나 그 많은 말을 다해야 리보다는 해가 더 많을듯 하여 이만 필을 거두리다.》라고 썼었다.

임금의 추방동기와 최영의 삭탈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의도적으로 피한것이 분명했다.

칠석의 전에없이 소심한 태도는 자기에 대한 불신의 표시처럼 생각되여 박위는 오랜 지우인 칠석이조차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불안과 걱정은 역시 왕실과 조정의 래일, 나라와 군대의 장래였다.

자기 또한 장차 누구와 더불어 군사일을 론하고 떠밀어야 할지 암담하기 그지없었다.

돌아가지 않는 수레바퀴를 떠밀어올리듯 힘겹게 사색을 이어나가던 박위는 천근추라도 들어올리듯 무겁게 몸을 일으켜세웠다.

기다란 그림자를 끌며 아무 목적도 없이 너렁청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박위는 지금까지 대바르고 결곡한 성품탓으로 인생에서 적지 않은 풍파와 경난을 겪었었다.

하지만 언제한번 자기 인생을 두고 비관하거나 실망해본적이 없었다.

사람이 원체 강건하기도 했지만 고려군대와 조정의 상좌에 최영과 리성계 같은 거물급의 장수들이 튼튼히 틀고앉아있기에 마음은 늘 든든했던것이였다.

박위는 또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이면 주저없이 결심을 내리고 완강하게 내밀군 했는데 그것 역시 그의 드틸줄 모르는 의지의 발현이

기도 했지만 보다는 상층관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탓이였다.

언제인가 오천이가 군사들과 백성들이 떨쳐일어나면 못해낼 일이 없노라고 했을 때 박위는 군말없이 그의 주장을 치하해주었는데 그 역시 오천의 말이 전적으로 믿어져서가 아니라 임금과 최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때문이였다.

헌데 갑자기 임금과 최영이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고보니 박위의 사고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수 없었다.

사고에서 방향상실이 일어나자 가슴속에서는 극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이 눈보라처럼 차겁게 회오리쳤다.

(아,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군사일을 해나간단 말인가?!)

불시에 숨이 꾹 막히는듯 한 생리적인 고통이 엄습해오는 순간 박위는 드르륵 사랑채 문을 활짝 밀어제끼였다.

사위는 먹물을 타놓은듯 캄캄했다.

하늘에는 별 하나 없고 대기에는 바람 한점 없었다. 가슴은 더욱 답답해났다.

문설주를 틀어잡은채 한참이나 캄캄한 허공을 노려보던 박위는 채수염을 부르르 떨며 침통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아, 천지신명이시여,

바라고 또 바라옵건대 세상사의 가불가를 옳게 밝혀주시고 의와 불의를 밝게 살펴주옵소서.

아사달민족의 래일과 대마도원정의 앞길을 참되게 이끌어주옵소서. …》

11

아침밥을 먹는둥마는둥하고 상을 물린 박위는 한잠도 자지 못했건만 아직 잠에서 채 깨지 못한 사람처럼 비척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사랑채 뒤뜰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다.

핑핑, 편전(작은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딱딱 널판자로 만든 목표판에 화살이 들어가박히는 소리도 들려왔다.

박위는 무심결에 뒤뜰쪽으로 걸음을 놓았다.

여삼의 쟁쟁한 목소리가 아침의 청쾌한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도령의 활솜씨가 그새 퍼그나 늘었소이다. 두번씩이나 거퍼 오중몰기(다섯번 쏘아서 다섯번 다 맞힌다는 뜻.)를 했으니 군영의 활잡이들 못지 않소이다.》

박위는 한잠도 자지 못한탓에 골속에서 날벌레의 나래소리같은것이 징징 울렸으나 무겁던 기분이 다소 가셔지는듯싶었다.

조정의 형세야 어찌됐든 여전히 제나름대로 다사하고 분주한 여삼이의 현중에 대한 극진한 관심이 고마왔다.

요즘에 이르러 더욱 극성스럽게 무술을 익히려드는 현중의 열정과 속마음도 갸륵하였다.

(현중이녀석이 또 아침활쏘기련습을 하러 나온 모양이군.

여삼이녀석은 색시가 요즘 애기설이를 한다면서 어제 저녁 집으로 나갔다더니 어느새 또 군영에 들어왔노?!

타고난 신분도 량반상놈으로 현격하게 차이나고 나이도 10년이상이나 벌어진 여삼이와 현중이가 노상 한동아리가 되여 돌아가는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박위는 뒤뜰쪽으로 몇걸음 더 나가다말고 스르시 멈춰섰다.

소년의 단순한 심리가 비껴있는 현중의 볼메인 소리가 울려왔다.

《쳇,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은 내 활솜씨가 서툴다구 장참 꾸중이시라우.

그건 그게구… 저기 대마도라는 왜섬에 왜구들이 디디구 쌓였다던데 그게 적실한 소리우?》

《적실하다마다… 썩은 물웅뎅이에 벌레알 끼듯 씨글씨글하답니다.》

《그렇다한들 살살 새들어가서 사람 하나 빼내는 일이야 못하겠소?》

《그게 식은죽먹기로 되겠소이까?

손칼을 들고 칼상어잡으러 나가는 격으로 허술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섰다가는 랑패보기가 십상이외다.

또 이왕지사 대마도로 갈바에야 숱한 군사들이 한꺼번에 쳐나가서 섬안의 왜구들을 쥐무리잡듯 모조리 쳐죽이고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말짱 찾아와야 할게 아니오니까?》
《제기, 차비 삼년에 제떡 쉬겠네.
우리가 노상 준비만 하는 사이 잡혀간 사람들은 열번도 더 죽어나가겠소.》
박위는 칼끝에 찔리기라도 한듯 가슴이 떠끔해났다.
문득 얼마전에 현중의 진맥을 보기 위해 군영에 들어왔던 청수하게 생긴 늙은 의원이 점잖게 뇌이던 말이 떠올랐다.
《어줍잖게 들릴지 모르겠사오나 시생이 지금껏 병자에게 손을 대서 못 고친 병이 별반 없소이다.
헌데 장군댁 도령은 신체에 병통이 생긴게 아니라 마음속에 은혈이 들었소이다.
이런 경우 백약이 무효요 화태, 편작의 의술이래도 어쩌는수가 없습니다.
자고로 마음에 생긴 병은 마음을 풀어서 치료해야 합니다.
도령의 나이 아직 년소하시니 상사병은 아닐게고… 대체 무엇이 도령의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응어리지여 그리도 풀리지 않소이까?》
박위는 늙은 의원의 오리무중한 소리가 꼭 변변치 못한 자기의 의술을 가리우기 위한 구차스러운 변명처럼 들리였다.
허나 현중은 무슨 큰 리치라도 깨달은듯 영민하게 생긴 눈을 빛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얼마전에 소자의 누님께서 왜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소자의 병은 필시 누님을 찾아온 뒤에야 빠질줄 압니다.》
박위는 코끝이 매워나 슬며시 고개를 비틀었다.
현중의 책상우에 정히 포개져있는 구겨진 천덩이가 (그것은 리옥이 못다지은 현중의 무관복인데 무엇때문인지 현중은 죽촌에 나갔던 날 가지고와서 자기의 책상우에 올려놓고있었다.) 눈뿌리를 지지며 안겨왔다.
박위의 가슴은 더욱 쓰리였다.
현중의 작은 가슴에 항시 무엇이 끓고있는지 불을 보듯 명백했다. …
…지금도 박위의 심정은 그날 그때와 다를바 없었다.
때이르게 속이 여문 아들이 기특하다는 생각에 앞서 노상 선혈같은 것이 뚝뚝 떨어져내리는 현중의 가슴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수 없

을것이라는 느낌이 재삼재사 굳어지였다.
한참이나 멍하니 굳어진채 사색의 페지를 번져가던 박위는 관습의 힘에 이끌리여 바다가로 걸음을 내짚었다.
바다는 노호하고있었다.
집채같은 파도는 주먹같은 포말을 수없이 날리며 껑충 뛰여올랐다가는 내리꽂히듯 미끄러져내리였다.
무너졌다가는 다시금 쏴— 으스산한 소리를 지르며 솟구쳐올랐다.
박위는 검푸른 파도가 연연 드달려와 골받이를 해대는 앞코숭이가 꼭 전함의 선수처럼 묘하게 쳐들린 바위우에 올라섰다.
눈길은 저도 모르는새 격파 날뛰는 바다를 건너 저 멀리 대마도쪽의 하늘가로 나래쳐올랐다.
대마도쪽의 하늘에서는 비기운을 머금은 검층층한 구름장들이 겹겹으로 뭉치여 아무런 규칙성도 없이 마구 뒹굴고있었다.
사납게 태질하는 바다, 시꺼먼 구름장들이 뒤덮인 하늘…
그래서인지 천지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좁아진듯싶었다.
귀를 기울이면 저 멀리 하늘가 비구름장사이로 리옥의 애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올듯싶었다.
안해의 최후의 웨침소리가 파도소리에 어울리여 메아리쳐오는것 같기도 했다.
잡혀간 죽촌백성들의 처량한 울음소리, 왜구에게 화를 당한 수천수만의 이 나라 백성들의 령혼의 울부짖음이 파도의 목소리를 빌어 울리는것 같기도 했다.
파고 심은듯이 굳어진채 한참이나 속을 짓태우던 박위는 물바래에 젖어 눅눅해진 전복자락을 무겁게 날리며 염초장으로 향했다.
원정준비에서 첫째로 걸린것이 염초이기때문인지 아니면 언제나 자신만만해서 돌아가는 오천이가 별스레 보고싶어서인지 자신으로서도 자기의 마음을 정확히 가늠할수 없었다.
띠풀이영으로 웃설미만 대충 해씌운 너렁청한 염초장안에서는 여러사람이 공기돌처럼 널려앉아 한담을 나누고있었다.
《이 사람 구서방, 내 눈으로 직접 오천대정이 임자 딸을 끌고 두이산속으로 들어가는걸 보았다니. …》
마흔살이 불원하건만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계집의것처럼 해망스

러운 옥보라는 수다쟁이가 신바람이 나서 어수룩한 구서방을 몰아대고있는 판이였다.

구서방은 사람이 어지고 고지식하기는 하나 다소 의뭉스러운데도 있고 한창나이때는 어떤 시골글방에서 어깨너머로 글자깨나 외워두기도 한 까닭에 제깐에는 매사를 기품있게 처신하려 드는 사람이였다.

헌데 언제나 구서방을 놀려먹는것으로 한재미 보려드는 옥보가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딸년의 비행을 사람들앞에서 꿰여올리자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였다.

잠시 순박하게 생긴 눈을 슴벅거리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던 구서방은 일부러 옥보의 약을 올릴 심산인지 점잖게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딴전을 피웠다.

《이보게 옥보, 그런 생먹은 소리를 누가 곧이 듣겠나.

우리 딸년은 지금 토방우에 앉아 저녁거리 보리쌀에서 뉘를 고르고 있는데… 두이산은 무슨 말라 비틀어진 두이산인가?!》

옥보 역시 아무렇게나 둘러치는 구서방의 딴청에 홀홀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였다.

《저렇다니… 명색이 아비요, 한창때는 글자깨나 읽었다는 사람이 딸년의 흠절을 무턱대고 가리우자고만 하니.

두고보게, 그러다가 이제 취금이한테 큰 탈이 생기지 않나…》

《탈이 생기다니? 대체 우리 취금이한테 무슨 탈이 난단 말인가! 사람이 허랑하기는…》

《이 사람아, 가시내가 머슴애하구 밀려다니면 나중가서 어떤 탈이 나는지 아직 모르나?!

누구한테 물어볼것없이 님자가 젊었을 때 일을 한번 생각해보게나, 핫하하.》

옥보가 자지러지게 웃어대자 모두들 어깨를 들썩거리며 따라웃었다.

박위는 시시껄렁한 그들의 대화에 더이상 귀를 주고싶지 않았다.

큰 기침을 톺아올리며 성큼 염초장안으로 들어섰다.

그제서야 박위를 알아본 염초장사람들은 서둘러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일어서더니 너푼너푼 허리를 꺾었다.

박위는 괴괴한 염초장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한유한 태도가 저으기 불쾌했으나 아무말없이 염초장복판에 우뚝하게 걸려있는 염초가마

앞으로 다가갔다.
시꺼먼 끄스름이 더깨로 앉은 가마의 속안은 휑하게 비였는데 터실터실한 솔가리에는 거미줄이 얼기설기 엉키여 흐느적거리고있었다.
화약을 만드는데서 가장 힘겨운 일은 염초를 뽑는것이였다.
염초는 대개 부엌에서 나오는 재나 오래된 집, 오래된 절간의 마루밑에서 긁어낸 먼지를 물에 타서 끓이는 방법으로 얻어내였다.
얼핏 생각하면 부엌의 재나 마루밑의 먼지 같은것은 어디서나 헐하게 얻어낼것 같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먼지는 더 말할것 없고 재라는것도 매일 무더기로 나오는것이 아니였다.
그나마도 농군들이 봄내, 여름내 진거름을 만드는데 쓰고 염초장 장인들과 군영군사들이 매일과 같이 염초가마에 쏟아붓다보니 군영앞동네는 물론 김해일판의 부엌재와 먼지가 말짱 동이 나버리였다.
염초가마는 벌써 며칠전에 산산하니 식어버리고 염초장일군들은 매일 이렇게 시시부시한 한담으로 날을 보내고있었다.
박위는 애초에 원정에 쓸 화약은 전량 조정에 건의하여 얻어올 작정을 했었다.
그런데 오천이가 화통도감의 현재형편에서 다량의 화약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일이니 자기에게 사람만 떼주면 수요되는 화약을 거지반 자체로 만들겠노라고 장담을 하고 나섰다.
박위는 오천의 장담이 그대로 믿어지지는 않았으나 아직 조정에 손을 내밀 형편이 못되는데다 오천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서 군말없이 그가 달라는대로 사람도 주고 염초가마며 풀무따위들도 얻어주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 요즘 아무리 일감이 없다 한들 염초장을 책임진 대정이라는 놈이 자기가 맡은 일은 아주 덮어놓고 백주에 계집을 끼고 나갔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박위의 속은 우걱우걱 괴여올랐다.
언제인가 오천에게 틈이 나는대로 취금을 찾아가 정을 나누라고 권유했던 자기의 진정이 모욕으로 되돌아온것 같기도 하여 기분은 더욱 불쾌하였다.
(그러니 무식한 상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의 정의나 도의 같은것을 옳게 새기지 못하는 막된것들인가?!

그건 그게고… 사실상 지금형편에서 오천이라는 녀석이 오만가지 재주를 다 부린다 해도 원정에 소요되는 염초를 다 뽑아낼수는 없을게다.

그러고보면 일개 대정에 불과한 오천이녀석의 일을 두고 지나치게 윈심을 쓰는 내가 도리여 부질없는 사람이 아닐가?)

입귀를 꾹 짓문채 두서없이 생각을 펼쳐나가던 박위는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말없이 염초장을 나섰다.

비릿한 해감내를 머금은 누습한 해풍이 불어와 숱좋은 채수염을 훨훨 날리였다.

아직도 채 마르지 않은 전복자락을 퍼득퍼득 물어뜯었다.

가슴은 여전히 연덩이를 삼킨것처럼 무죽하고 기분은 그냥 진연기를 쐬운것처럼 울울했다.

눅눅한 모래불을 걷어차며 스적스적 바다쪽으로 걸음을 놓던 박위는 부지불식간 걸음을 멈추었다.

뇌리속에서 돌연 기름불같은것이 펑끗 일어번지였다.

그것은 필경 새로운 발견의 섬광이 아니라 울울한 가슴속에서 터져나온 발작적인 충동의 불길이였다.

(이제는 더이상 임금이나 최대감에게 기대를 걸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오천이같은 상사람들과 시골구석에 골박히여 버들쩍거린다는것은 뒤가 뻔드름한 일이다.

지금처럼 똑똑한 결심이 없이 일을 하다가는 범을 그린다고 소문을 내놓고 개모양을 만들어놓는것과 같은 결과를 빚어낼것이다.

지체없이 대담하게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결정적인 출구를 개척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항간의 속된 말에도 길고 짧은것은 대보아야 한다고 했거늘 내가 직접 상경하여 리성계대감을 만나는게 어떨가?

현재의 정황에서 조속히 원정을 단행하자면 리대감을 움직이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지 않는가.

리대감을 직접 만나 임금과 최대감을 축출하게 된 동기를 저저이 들어보는것 역시 나쁘지 않을것이다.

그래야만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수 있으며 앞으로의 모든 군사행정에서 견해의 일치를 도모할수 있을것이다.

사실 리대감은 누구보다 왜구와의 싸움을 많이 해본 장수로서 왜구

격멸의 필요성과 의의를 누구보다 잘 알것이다.
그는 료동원정도 왜구의 대거침입이 우려되여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
박위는 대마도원정의 성사를 두고 너무도 속을 태우던 나머지 그처럼 원망스럽고 의문스럽던 리성계를 되도록이면 좋게 생각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리성계의 지지와 동의, 구체적으로는 그의 도움이 있어야 대마도원정이 성공할것이라는 현실적인 타산이 굳어질수록 더더욱 리성계가 중시되였다.
박위는 갑자기 무엇에 들레이기라도 한듯 서둘러 군영쪽으로 걸음을 돌리였다. 때는 마침 점심참이였다.
군영앞동네도 고요하고 군영안팎도 조용한데 대문앞 느티나무밑에서는 몸집이 두리두리한 웬 사내가 저 혼자 날고 뛰며 칼을 휘두르고있었다.
그는 보습을 끄는 황소마냥 씨근거리면서도 연해 큰소리로 중얼거리였다.
《옳지, 네놈이 오른쪽으로 덤벼들 때는 〈우내략〉을 하나 먹고싶은 모양이구나.
옛다, 〈우내략〉이다.》
《그렇지, 네놈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때는 〈룡약재연〉을 한번 써야겠구나. 자, 이번에는 〈룡약재연〉 이다!》
그는 언제인가 윤통에게 《두부자루》라는 별명을 얻어가진 고들이였다.
고들은 지금 점심참이 되였다는것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칼쓰기훈련을 하고있었다.
험하게 낯을 찡그리고 휙휙 칼을 휘두르는 모양이 그의 눈앞에는 정말로 집안식구들을 도륙낸 왜구들이 나타난듯싶었다. 박위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왜구의 침입은 이 땅에 파괴만을 가져온것이 아니였다.
왜구의 침노로 하여 이 땅에는 병기만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지킬수 있다는 인생의 새로운 철리를 피로써 체득한 용맹한 복수자들이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고있었다.

고들이와 같은 너무도 평범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들이 흘린 붉은 피로 정의의 칼을 갈며 판가리결전을 준비하고있었다.

박위는 겉모양과는 판판다르게 웅심깊고 열정적인 고들이가 정녕 대견하였다.

어깨라도 정히 두드려주고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길차비를 다그쳐야 래일 아침 일찌감치 개경길을 잡을것이였다.

박위는 한결 기운차게 활개짓을 치며 대문앞으로 다가섰다.

고들의 웨침소리는 박위의 잔등을 따갑게 지지며 계속 힘차게 울려왔다.

《이놈들아, 이번에는 〈진전살적〉을 한대 먹어라.

이것은 네놈들의 칼에 찔려죽은 불쌍한 우리 녀편네의 몫이다!》

12

날바다 한복판에 찢어발긴 걸레짝처럼 널려있는 해적떼의 소굴 대마도에 또 하루의 아침이 밝아왔다.

짙은 안개발속에서 수닭들의 거센 울음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며 겨끔내기로 울리였다.

감때사나운 섬계집들이 아침밥 지을 물을 길으러 가며 쌈싸우듯 고아대는 소리도 간간이 들려왔다.

허나 대마도령주가 틀고앉은 이즈하라(대마도의 큰 고을중의 하나)의 중심부에 청색기와를 층층 겹올려 지은 관사안팎은 아직 고요했다.

관사주위에 공기돌처럼 널려있는 군막들도 괴괴한 정적에 묻혀있었다.

아까부터 관사의 대문앞에서 서성거리던 박달몽치처럼 다부지게 생긴 파수군은 입아귀가 찢어지도록 기껏 하품을 하고나서 슬며시 대문틈새에 깨끄눈을 가져다붙이였다.

바로 그 순간 높직한 돌담에 쌓인 판사의 앞마당쪽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왜가리소리가 왝왝 터져나왔다.

《오멘―》

《도―》

《후꾸―》

파수군은 대문에 바싹 들어붙어가지고 여념없이 앞뜰의 광경을 훔쳐보고있었다.

넓다란 판사 앞마당에서는 웃동을 홀딱 벗어제낀 왜구 하나가 미친것처럼 고래고래 소래기를 질러대며 칼을 휘두르고있었다.

그가 바로 대마도의 최고통치자인 동시에 해적무리의 대두령인 오바 사다께였다.

사다께는 청돌처럼 탄탄해보이는 상체를 껑충껑충 날리며 연해 칼을 내리찍고 후려치고 비껴내리였다.

돼지멱따는듯 한 청으로 꼭같은 소리를 곱씹어 웨치였다.

《오멘―》

《도―》

《후꾸―》

그 소리인즉 곧 얼굴, 정수리, 배라는 말인데 자기의 칼은 언제나 적수의 급소만을 타격한다는 뜻이였다.

사다께는 북부 규수지방에서 기비요꼬메 (사탕수수의 재배 및 수확을 감시통제하는 하급관리)노릇을 하던 제 아비와 함께 아시까가막부를 위한 가렬처절한 싸움판에 뛰여들었던 그때로부터 40고개를 넘어선 오늘까지 수십년세월 단 한번도 검을 놓은적 없는 알짜배기 사무라이였다.

돌이켜보면 사다께에게 있어서 검은 가장 친근하고 믿음직한 인생의 길동무인 동시에 유일무이한 운명의 수호신이였다.

만약 이 세상에 검이라는 날카로운 물건이 없다면 사다께의 일생은 물에 물탄것처럼 더없이 슴슴하고 적막하였을것이였다.

검이 아니였다면 사다께는 40평생을 누벼온 전란속에서 절대로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것이였다.

검은 또한 사다께에게 있어서 오늘의 막강한 권세와 부귀, 눈부신 명예를 가져다준 고마운 은인이였다.

그가 만일 검이 아니라 붓을 택했다면 오늘까지도 자기의 조상들처럼 규수의 산골마을에서 항시 하브 (강한 독성을 가진 독사의 일종)떼의 위협을 받으며 사탕수수밭을 나돌아다니는 기비요끄메노릇을 하고있을것이였다.

무자비한 검으로 점령지를 확대하고 적대세력들을 쓸어버렸기에 사다께는 오늘 다이묘(봉건제후)가문의 귀족출신으로 둔갑하여 나라사람들이 모두 아는 유명짜한 정객으로 될수 있었다.

검은 또한 희한한 래일을 눈짓해주는 희망의 혼이였다.

온 세상을 타고앉아 천하를 호령하려는 사다께의 엄청난 꿈을 검이 아닌 무엇으로 이룰수 있겠는가?!…

하기에 사다께는 작지 않은 섬을 방석처럼 깔고앉은 일류 고관의 지위에 올랐으나 지금까지 단 하루도 검을 놓아본적이 없었다.

전장은 이미 눈앞에서 사라졌어도 여전히 검의 언어를 심장에 새기고 무사도의 열렬철저한 기개와 정신으로 심신을 수련하면서 섬안의 모든 정사(정사의 주요항목은 물론 해적행위와 타민족에 대한 략탈로 일관되여있었다.)를 역시 무사도의 기백으로 과단성있게 처리해나가고있었다.

그와 함께 대마도의 군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재력을 루거만으로 확장하여 자기의 통치구역을 계속 늘이며 나아가서는 권력의 자리까지도 타고앉을 웅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었다.

하기에 섬밖에서나 섬안에서나 조금이라도 사다께의 속심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귀신다께》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부러워했다.

사다께는 졸개들앞에서 때없이 자신을 《항우의 용력과 제갈공명의 지모를 한몸에 껴잡아 지닌 희세의 검객》이라고 거의 로골적으로 지껄이군 했다.

그것은 물론 자신의 능력과 욕망을 혼돈한 터무니없는 자기 과찬이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혀 근거없는 말이라고 할수는 없었다.

얼추 보면 사다께는 밸통머리 사나운 우직한 메돼지같았으나 세세히 관찰해보면 분명 승냥이의 흉맹성과 여우의 약은 꾀를 한데 어울려가진 야심만만한 검객인 동시에 과대망상증이라는 고치기 힘든 병을 가진 허풍선이 정객이였다.

어딜 가나 매일같이 칼싸움이 벌어지여 이제는 피바람이 일어번지는 칼싸움이 하나의 즐거운 유희로, 뜻있는 사내들의 자아수양의 《교실》로 인정된 이 나라의 살벌한 공기.

무엇이든 물리치고 찔러죽여야 자기와 가문의 생존과 명예를 고수확장할수 있다는 잔악한 생활법칙이 가장 현명한 인생지론으로 공인된 이 나라의 썩은 토양…

과연 그러한 공기와 토양속에서 아름다운 꽃송이의 탄생같은 기적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지금은 이 땅 어딜 가나 필수불가결적으로 사다께와 같은 악질, 괴질의 인간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형성되고 살판뛰을 하는 세월이였다.…

한식경이나 정신없이 날고 뛰며 끓어넘치는 정력과 비상한 칼재주를 유감없이 시위하고난 사다께는 호기있게 칼을 비껴내리더니 땀방울이 숭숭 내번진 시뻘건 얼굴을 장하게 들어올리였다.

관사의 뒤뜰에서 쓸어나와 사다께의 훈련모습을 경탄에 젖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가병들은 일제히 야생적인 탄성을 터치였다.

《반자이!》, 《반자이!》

아까부터 나설듯말듯 바재이던 쌍상투를 틀어올린 해사하게 생긴 애젊은 시녀가 안타까운 종종걸음으로 사다께에게 다가왔다.

두무릎을 단정히 꺾으며 차종을 들어올리였다.

달크무레한 기문홍차를 천천히 마시고난 사다께는 졸개들에게 관사의 두리기둥에 초자로 휘갈겨쓴 《력발산 기개세》(용력은 산을 뽑을수 있고 기상은 천하를 덮을수 있다는 뜻의 항우의 말.)라는 글발을 가리켜보이였다.

보기흉하게 뒤번져진 웃입술을 너덜거리며 소리높이 웨치였다.

《너희들 듣거라. 일찌기 600년에 벌써 우리의 수이끄녀왕은 수나라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은 해뜨는 나라요, 우리는 해뜨는 나라의 천자들〉이라고 썼다.

녀왕의 그 말은 우리 일본남아들로 하여금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 해뜨는 나라의 천자들인 우리들은 마땅히 세상천하를 거머쥘 웅지를 안고 만고에 길이 빛날 큰일을 성취하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

내 말뜻을 알겠는가?》
《하잇ㅡ》
사다께의 드센 손탁에 주물리워 하나같이 침략열에 들뜨고 살륙의 욕에 충만된 졸개들은 열광적으로 웨치였다.
대마도의 아침은 매일 이렇게 사다께의 고함소리와 칼부림소리, 거의 반정신이 나간 졸개들의 야생적인 웨침소리로 시작되군 했다.
사다께는 흐뭇한 미소를 띄우고 청바위처럼 단단한 웃몸에 천천히 하오리를 걸치였다.
이럴 때 후끈하게 달아있는 앞마당의 공기를 아츠럽게 찢으며 관사의 대문이 열리였다.
난쟁이나 겨우 면한 작달막한 키에 땡땡한 몸집이 잔뜩 가로퍼진 지또(령지관리인) 세가오 무라나가가 귤쪽같이 삐죽한 상판을 강하게 꺼떡거리며 띠뚝띠뚝 들어섰다. 그뒤로 무슨 변을 당했는지 상판과 앞가슴에 온통 피를 게바른 왜구 세놈이 각기 눈챠꾸(쇠사슬에 방망이를 단 흉기)와 구사리가마(쇠사슬끌에 낫과 쇠뭉치를 단 옛 무기)같은것을 질질 끌며 줄레줄레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금시 기분이 사나와진 사다께는 세모진 눈을 곤두세우며 왝 소래기를 질렀다. 세가오는 두손을 모두어잡고 황황히 사다께앞으로 다가왔다.
이즈음 어느 고장의 지또이든 주인대신 령지관리를 착실히 거행하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지또라는 평화로운 직무를 맡은 놈들까지 칼을 뽑아들고 령주라는 우두머리를 보좌하고 대행하는 무뢰배들은 작은 패두노릇을 하고있었다.
《령주도노, 이놈들은 대륙에 나갔다가 어제 밤에 돌아온것들입니다.
하관이 오늘 아침도 일찌감치 바다가를 순시하느라고 나섰는데 이것들이 글쎄 저기 도래굽이에서 싸움질을 하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싸움질은 왜?》
사다께의 음성은 조금 누그러지였다.
그것은 사다께의 기분이 다소 가라앉은 표현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발작의 전조였다.
《예, 내막을 알아보니 이놈들은 저들끼리 따로 감추어가지고온 외

국비단을 남몰래 노누메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상치되여 싸움을 하는것이였습니다.》

소대가리같이 커다란 머리를 찌글사하고 서서 세놈의 왜구를 하나하나 노려보던 사다께는 옆구리에서 스르륵 칼을 뽑아들었다.

족제비굴에 갇힌 병아리새끼들처럼 파들파들 떨고있는 세 왜구앞으로 천천히 다가섰다.

사다께의 페장은 벌써 비릿한 피냄새를 흡인하기를 갈망하고있었다.

사다께는 칼끝으로 제일앞에 서있는 추접스럽게 생긴 왜구의 이마빡을 가리켜보이며 입을 열었다.

《네놈은 겐고가 아닌가?》

겐고는 퍽 오래전 어느 싸움터에서 부상을 입은 사다께를 등에 업고 30리 밤길을 달린바 있는 생명의 은인이였다.

겐고는 사다께가 자기를 알아본것이 너무도 고마와 단박에 주르르 눈물을 흘리였다.

《네, 소인이 바로 시즈마번(현재의 가고시마현 남부에 위치했던 번)과 싸울 때 부상을 입으신 령주도노를 등에 업고 30리 밤길을 달렸던 겐고올시다.》

겐고는 사다께에게 자기의 충실성과 공적을 다시금 눈물겹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나오지도 않는 웃음을 띄우고 열심히 질벌거렸으나 사다께의 상통으로 보아 그것은 별로 효과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이놈! 나의 뜻을 어기고 군기를 문란시키는 경우 어떤 벌이 차례진다는것을 모르는가?

그가 누구든 나의 검은 용서를 모른다. 도-》

사다께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힘차게 내리박히였다.

정수리뼈가 깨져나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겐고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풀썩 무너져내리였다.

《오멘-》

사다께의 칼이 다시 휘파람소리를 내며 비껴내리였다.

또 한놈의 왜구가 피가 쏟아져내리는 얼굴에로 두손을 올리다말고 맥없이 나동그라지였다.

《후꾸-》

사다께의 칼이 또 한번 날카롭게 번뜩이였다.

마지막놈은 시누런 창자와 피덩이가 꾸역꾸역 쏟아져내리는 배를 그러안다말고 모재비로 나뗠어지였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살벌한 공기가 떠돌았다.
하지만 사다께는 심상한 낯으로 피범벅이가 된 시체들을 대충 훑어보고나서 세가오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이 더러운 놈들의 시체를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개무리에게 던져주어라.
배신자, 졸장부들의 말로가 어떤가를 똑똑히 보여주란 말이다.》
사다께는 세가오의 대답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관사를 향해 뚜걱뚜걱 걸음을 놓았다.

13

관사로 돌아온 사다께는 시중군계집의 말큰말큰한 손을 빌어 깨끗하게 몸을 씻은 다음 니찌렌상이 모셔져있는 정갈한 방으로 들어갔다.
돌로 깎아 만들기는 했으나 미소를 머금은 표정이 너무도 생동한 니찌렌의 부얼부얼한 얼굴을 사뭇 경건한 시선으로 쳐다보던 사다께는 두손바닥을 마주 붙이고 눈을 감았다.
숙연히 고개를 숙이였다.
명상에 잠기려는것이였다.
이것은 매일과 같이 준수해야 하는 니찌렌교(불교에서 파생된 일본의 얼치기종교, 련꽃을 숭상한다.)도들의 한 계률인 동시에 도적떼의 대두령치고는 맞지도 않게 공상에 잠기기를 즐기는 사다께의 생활습벽이였다.
살아있는 니찌렌앞에 나선듯 한 황홀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이 사무쳐오르자 사다께는 니찌렌에게 진정을 다해 일생일대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했다.
(니찌렌도노, 해뜨는 나라의 《천자》로 태여난 이 몸이 어찌 일생

범박한 욕망에 시달릴수 있으며 어찌 보잘것 없는 성공에 만족할수 있겠습니까.

현철하시고 대자대비하신 도노께서는 그대의 충실한 적자인 이 사다께의 앞길에 춘하추동 번영의 비를 뿌려주옵소서. 하루빨리 거창한 대망의 실현을 보게 하여주옵소서.)…

…왜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정확하게는 수백년전부터 크고작은 전쟁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였다.

멀리 옛적의 일은 다 그만두고 12세기말에 수립된 가마꾸라막부시대때부터 이야기해보자.

전쟁을 통해 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전쟁으로 정권을 탈취한 가마꾸라막부가 집권하자 도시상업과 대외무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고리대자본은 급속히 장성하였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마꾸라막부가 디디고섰던 무사계급의 경제적기초를 약화시켰다.

무사출신 농민들은 소철나무가지와 열매를 분쇄하여 먹는가 하면 옷톤(두꺼비)까지도 귀중한 식량원천으로 여기게 되였다. 이는 필경 말기증상이였다.

가마꾸라막부를 뒤집어엎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근왕파세력은 또다시 전쟁의 불을 걸었다.

물먹은 담을 떠밀치는 일은 그다지 힘들것도 없었다.

1330년대초에 가마꾸라막부는 제거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치세력이 편성되였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아시까가막부의 창시자인 아시까가 다까우찌가 규수지방 봉건세력들의 지원밑에 근왕파가 틀고앉은 교또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이를 발단으로 《천황》제 중심을 고집하는 근왕파와 막부정권을 주장하는 무인세력간의 정권쟁탈전과 각기 두파세력을 추종하는 봉건세력들의 개싸움은 근 30년동안 계속되였다.

비로소 온 나라 방방곡곡에 차넘치던 칼부림소리와 대류혈은 가까스로 봉합되였다.

불안전하게나마 평화시대가 도래하자 다시금 상업자본은 현저한 장성추이를 보이였다.

그렇게 되자 막부정권수립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던 상층무사들과 상인들은 막대한 리익을 얻었으나 덩그렇게 불쪽만 차고 싸움판으로 뛰여다니던 고께닌(하층무사)들과 농민들은 빈절의 빈대마냥 알쭌히 껍질만 남게 되였다.

《이렇게 굶어죽느니 강도질이라도 해야겠다.》

《또 한번 조정을 갈아엎어야 살수가 생기리다.》

원체 흉폭한 고께닌들과 농민들은 저저마다 녹쓴 칼을 꺼내 갈며 내놓고 으르렁거리였다.

이러한 때 봉건령주들과 신흥상인들은 빈민구제와 치부의 주요원천을 타국에서 략탈하여 충당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정립했다.

그들은 이미 악당 혹은 도적으로 굴러떨어진 고께닌들은 물론 아직까지 거지꼴을 하고 가도에서 방황하는 얼뜨기 고께닌들에게도 해외침략만이 살길이라고 로골적으로 꼬드기였다.

그러지 않아도 지랄발광을 하고싶어 뼈투성이 알몸을 들썽거리던 고께닌들은 귀가 항아리만 하여 너도나도 해적질하기에 제일 유리한 대마도로 등겨섬에 새앙쥐 엉키듯 몰려들었다.

하여 가마꾸라막부시대인 1220년대에 국내전쟁과 병행하여 발생한 소규모적인 해적단은 열배, 백배로 확장되였다.

고려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나라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해외략탈전을 시작했다.

결과 령주들과 신흥상인들은 비대해지고 고께닌들은 그들대로 저들의 체질에 맞는 그럴듯한 직업과 생도를 얻게 되였다.

이제 와서 령주들은 교또의 궁성에 높직이 올라앉은 막부조차 제마음대로 휘고 부릴수 없을 지경으로 막강한 세력과 재력을 가진 한개 지역의 절대적인 제왕으로 군림하고있었다.

허나 해외략탈전의 피비린내나는 력사를 소급해보면 강도질이나 도적질이 매번 리득과 승리만을 가져온것은 아니였다.

침략과 략탈의 회수가 늘어나고 판이 커지자 그에 대처한 당지 군사들의 반격도 판이 커지고 도수가 높아지였다.

특히 고려에 나갔던 왜구들은 한꺼번에 수백명, 지어 수천명씩 무리로 죽어넘어지군 하였다.

10여년전에는 백전로장 최영이 동서남해안을 휘돌며 무자비하게 칼

을 휘둘러대더니 근년에는 경상도원수 박위가 김해바다가에 바투 나앉아 호랑이처럼 사납게 으릉대고있었다.

하기에 졸개들은 요즘 경상도쪽에 나가라면 너나없이 오줌맞은 개구리처럼 쭈그러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꼬리를 사리려들었다.

천하에 두려운 상대가 없노라고 흰목을 뽑는 사다께자신도 박위를 생각하면 꼭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괴로왔으나 은근히 오금이 가드라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10여년전 5월 어느날 사다께는 하까다령주와 함께 황산강을 거슬러오르다가 불시에 박위와 부딪친적이 있었다.

단 한번의 접전에서 사다께는 무던히도 예쁘게 생긴 고려장수 박위의 완력과 검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수 있었다. 그때 사다께는 박위의 칼끝에 턱살이 찢어지기 바쁘게 황산강에 뛰여들었기망정이지 무모한 싸움을 계속했더라면 위불없이 천리 타국에서 하백(물귀신)이 되였을것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그사이 추억의 세부들이 더러 지워지기도 한데다 엉터리없을 지경으로 자기를 과신하는 사다께는 이제 와서 박위의 용력과 검술이 결코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이따금 황산강격전을 회고할 때면 온몸이 으시시해나면서 수치감과 시기심이 동해오르고 복수의 검은 피가 끓어올랐다.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력권을 끝없이 팽창하여 이름을 날릴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급적으로 박위를 없애버려야 했다.

그러되 무분별한 접전으로가 아니라 능활한 지략으로 솜씨있게 후려쳐 잡아야 했다.

하여 사다께는 지난해부터 침략의 예봉을 기본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나라들 그리고 고려의 전라도와 서해안일대로 돌리게 한 후 자기자신은 박위를 꼼짝없이 제거하기 위한 음모의 그물을 한코두코 착실하게 떠나갔다.

그는 우선 거제도 왜촌 (당시 고려조정에서는 표류된 일본어민들과 살길이 막혀 찾아온 왜인들을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도록 해주었다.)의 두목이 나무랄데 없는 세작(간첩)이라고 천거한 무찌야마

요리꼬라는 계집을 대마도에 불러들이는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요리꼬는 거제도에서 나서자란 알쭌한 시골계집이건만 용모와 언행에서 전혀 촌티가 나지 않는데다 인물도 요염하고 교태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게다가 고려의 지리와 풍습에도 밝고 고려의 음률도 제법 튕길줄 아는 총명한 계집이였다.

올데갈데 없는 세작감이였다.

사다께는 관사의 밀실에서 근 열흘동안 계집의 그닥지 않은 처녀성을 산산이 짓이겨놓은 후 요리꼬의 작은 가슴에 세작일의 묘리와 앞으로 해야 할 일, 성공하는 경우 차례지게 될 희한한 지위와 막대한 재물의 량을 꽁꽁 심어주고는 고려의 김해로 떠밀어보내였다.

고려로 넘어간 요리꼬는 시작부터 교묘하고 다기차게 일을 벌려나가는데 수법도 령롱하고 진척도 빨라서 그에게 세작일을 가르쳐준 사다께자신도 혀를 내두르지 않을수 없었다.

불과 한두달사이에 김해관가의 동헌에까지 나들게 된 요리꼬는 그 요염한 자태와 애교로 부사를 초 친 문어모양으로 흐물흐물하게 데쳐놓았다.

부사를 통하여 또는 제 눈으로 김해관가와 경상군영의 실태, 조정의 형편까지 알아내여 속속 대마도로 뽑아넘기였다.

요리꼬가 보낸 정보가운데는 죽촌에 사는 리별장의 딸이 박위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채로운 소식도 끼워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유난히 사다께의 관심을 끌었다.

궁리를 거듭하던 사다께는 지체없이 요리꼬에게 고려조정의 형세가 복잡한 이때 박위와 호백의 갈등과 리옥의 대마도체류를 리용하여 박위에게 역신의 올가미를 씌우게 하라는 지령을 새로 떨구었다.

거제도의 왜인들, 사다께가 직접 파견한 대마도의 간자들이 요리꼬와 사다께사이로 줄을 늘인 거미새끼들모양으로 부지런히 오고갔다.

발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사개가 척척 물려들어갔다.

이제는 박위를 사갈시하는 김해부사에게 그럴사한 미끼를 몇개 던져주면 일은 자기의 의도대로 산뜻하게 결속될것 같았다.

박위를 결정적으로 요정내게 할 미끼는 자기 사다께와 리옥이(본의든 본의아니든)가 공동으로 제출하게 될것이였다.

일의 성공을 확고하게 내다보게 된 이 마당에서 사다께는 흥분하지 않을수 없었다. 천리밖에 나앉아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적장의 목을 도린다는것은 제갈공명도 상상할수 없는 명쾌한 전투가 아니겠는가.

박위의 처형과 때를 같이하여 대마도군사들은 경상도를 공격할것이며 그것으로써 자기는 재력과 군력을 더한층 불구고 다질것이였다.

어이 알랴, 고려를 타고앉은 뒤에는 막부의 룡상까지 끌어당겨 앉게 되겠는지? 그것은 결코 까마득히 멀리에 있는 일이거나 보라빛꿈일수 없었다.

《사략》이라는 옛책에도 씌여있지 않는가.

왕과 장상의 종자가 어디 따로 있다더냐?!…

…지엄하신 니찌렌도노에게 자기의 대망과 진정을 속속들이 아뢰인 후 니찌렌이 음성이 없는 하늘의 목소리로 일러주는 래일의 방도와 격려를 몸에 받은 사다께는 한층 넓어진 가슴으로 돌상앞에서 물러났다.

소리없이 문을 열고 나서니 명상중에 계시는 령주를 감히 방해할수 없어 협실앞에서 서성거리던 지또가 다가왔다.

《도노께서 분부하신대로 세 도적놈의 시체는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개무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를 벌하여 열을 징계하려는 령주도노의 의도대로 군사들은 깨닫는바가 자못 클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급하게 결처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가?》

사다께는 아침에 만났을 때와는 전혀 딴판으로 부드럽게 물었다.

《예, 오늘 전라도에 나가게 된 구리부네 패들이 낮때부터 바다길이 사나워질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주저하는 꼴이던데… 어찌했으면 좋을는지?!…》

칼자리가 박혀있는 아래턱을 습관적으로 긁적거리던 사다께는 대바람 세모진 눈에 파란 불꽃을 띄우며 지또를 노려보았다.

《고노야로— 바다길이 무서워서 길을 못 떠나겠다는 그따위 겁쟁이들이 우리에게 천이면 무엇하고 만이면 어디에 쓰겠는가.

위험은 용맹의 교련장이다. 천자인 우리들에게 공포나 불안이 있을수 없다.

구리부네에게 일러라. 룡왕제를 지내고는 지체없이 떠나라고 말이다.
그리구 지또부터가 그따위 얼간이들의 잡설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이 동해서는 안된다.
내 벌써 몇번이나 말했는가.
포부를 크게 세우고 검을 잡은 이상 유약한 문관나부래기들같은 소심성, 농사군류의 인정이나 사고방식과는 인연을 싹 끊어야 한단 말이다.》
연방 귤쪽같은 대가리를 조아리던 지또는 저도 모르는새 사다께가 그리도 싫어하는 농사군류의 어정쩡한 소리를 다시금 꺼내놓았다.
《…그런데 제를 지내자면 제물로 쓸 아이놈이 또 하나 있어야 할게 아니오니까.
제를 지낼 때마다 아이놈을 잡아 대다보니 이제는 씨가 마를 지경이여서…》
왜인들은 옛적부터 귀신놀이라면 기를 빡 쓰고 달라붙는 종자들이였다.
룡왕제를 지낼 때면 산 아이의 배를 가르고 그속에 생쌀을 집어넣어 상우에 올려놓거나 산 아이를 통채로 바다물에 던져놓는 끔찍한짓도 꺼림없이 행하였다.
헌데 여러 갈래의 크고작은 도적패가 무시로 로략질을 떠나고 그때마다 대개 룡왕제를 지내다보니 이제 와서는 번마다 귀신놀이에 바칠 아이놈을 찍어대는것도 헐후한 일이 아니였다.
잔뜩 못마땅한 시선으로 귀족냄새도 나지 않고 무장의 체취도 풍기지 않는, 다만 열성과 아첨으로 자기의 무능을 메꾸려드는 지또를 노려보던 사다께는 세모진 눈에 다시 독을 올리였다.
(인간은 인간앞에 승냥이이상으로 무자비할 때 인간세상의 승자로 군림할수 있다. 사람이 사람앞에 사람일반의 인정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그는 영원히 바다물에 휩쓸린 하나의 물방울처럼 개성적인 형체를 가질수 없게 된다.
이 촌장같은 작자도 응당 아첨과 열성만이 아니라 맹수와 같은 결단력과 독사와 같은 무자비성을 가지고 나를 받들게 해야 한다.)
결심이 서자 사다께는 단호한 어조로 언명했다.
《이봐, 무릇 승리란 가슴아픈 희생우에서 피여나는 피로 얼룩진 꽃

이다.
  희생이 없이 승리를 얻겠다는자는 영원히 자기의 소원을 성취할수 없다.
  그러니 이번 제사에는 너의 둘째아들놈을 바치도록 해라. 네자신부터 수범을 보이란 말이다.》
  지또는 허옇게 눈망울을 까뒤집으며 전신을 후들후들 떨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지옥의 문어구에 들어선듯 신음소리까지 끙끙 흘리였다.
  한참만에야 달리 어쩔수 없는 자기 운명의 애달픔을 탄식하며 가까스로 대답하였다.
  《그리… 하겠소이다.》
  물론 지또는 자기의 농민적근성과 사고방식을 뿌리뽑으려는 사다께의 깊은 속마음에 감동되여서가 아니라 습관적인 복종심과 공포심에 짓눌리여 대답한것이였다.
  했으나 눈앞으로는 자꾸만 광란하는 바다물속에 개구리처럼 사지를 뻗고 알몸으로 곤두박히는 아들놈의 형국과 미친년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행악질을 하는 녀편네의 모습이 언거번거로 떠올라 각일각 피가 졸아들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사다께는 볼장을 다 보았다는듯이 대청마루쪽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다.
  잠시 그 자리에 못박혀있던 지또는 자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약성을 드러내다가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고기밥이 될수 있다는 섬찍한 생각이 떠오르자 불시에 정신이 버쩍 들어 황급히 사다께의 뒤를 따랐다.
  대청마루에 뒤짐을 돌려잡고 위엄있게 서있는 사다께의 등뒤에 바싹 다가붙었다.
  지또의 속마음을 환히 꿰뚫어본 사다께는 자기의 교육방식이 만족하고 지또의 즉시적인 성장이 무척 갸륵하여 속이 흐뭇했으나 아무런 내색도 없이 다시한번 고삐를 바싹 조여잡았다.
  《그건그게고… 내가 어제 밤 일러준대로 혼슈와 규수, 시꼬꾸지방으로 오늘중에 또 사람들을 띄워라.
  아직도 가도와 산야에서 방황하는 고께닌들과 농군들을 될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끌어와야 한다.

우리의 군세를 더욱 확장하고 큰일의 성취를 앞당기자면 군사들을 모집하는 일 역시 항시 중시해야 한다.》

《알겠소이다.》

《내 보건대 너는 지금도 아이놈일때문에 속을 떨고있는데…

격동하는 시대에 남아로 나서 그렇게 속이 얍슬해가지고야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마음을 크게 먹어라.

해뜨는 나라의 천자답게 사사로운 감정일체를 털어버리고 오로지 큰일의 실행을 위해 줄달음쳐 살아야 한다.》

《평주도노의 높은 뜻과 헌앙한 기개를 충심으로 받들고 따르겠소이다.》

지또는 사다께의 거창한 뜻과 실한 배짱에 진정으로 탄복하고 공감한듯 한 표정을 진실하게 그려보이기 위해 애쓰며 자못 강개한 어조로 대답했다.

관사의 담너머에 바싹 들어붙어있는 이찌대(1대)군영쪽에서 사나운 섭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더한층 소란하게 들려왔다.

숱한 군사들앞에서 세구의 시체를 말강스레 뜯어먹은 개들은 먹이를 깨깨 다 삼켜버리고도 아직 왕성한 식욕을 누를길 없는듯 저들끼리 물고뜯으며 싸움을 하는것이였다.

14

조출한 방안의 왼쪽벽에 동그랗게 뚫린 퇴창너머에는 한쪼각의 밤하늘이 그림처럼 까닭없이 드리워있었다.

거기서는 쥐여뿌린듯이 무수한 별들이 은싸래기처럼 바글바글 끓고있었다.

큰 별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작은 별들은 헤아릴수없이 많았다.

살아움직이는 물체라고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탓인지 아니면 고려

에서 바라볼 때나 다름없이 유난스러운 정체를 발산하는 낯익은 별들이 정에 겨워선지 하나하나가 다 의미깊게 안겨왔다.
(저기 먼 웃쪽에서 유난히 빛나는 제일 큰 별은 나라님이시고 그곁에서 반짝이는 작은 별들은 나라님의 거동길을 따라나선 룡호군의 군사들이라고 해야 할거야.
그렇다면 왕별곁에 초간히 떨어져있는 조금 큰 별은 현중이 아버님이라고 봐야지.
그뒤에 바투 따라선 애기별들은 군영의 군사들과 귀여운 현중이?!…
그럼 나 리옥은 어디에 있는거나?
아, 저기 맨 구석에서 애처롭게 파들파들 떨고있는 자그마한 저 별, 그만에야 기다란 은꼬리를 끌며 곤두박혀 떨어지는 저 별이 바로 내가 아닐가.
아아 그래, 나는 정녕 저 별처럼 인간세상에서 떨어져서 지옥속으로 굴러내리였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
대마도에 끌려온 리옥이 정신을 차리자 제일먼저 안겨온것은 동그란 뙤창속에 들어있는 한쪼각 밤하늘, 그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무리였다.
리옥은 그 별무리를 살펴보며 절망적인 사색을 두서없이 이어가고 있었다. …
…리옥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기가 겪은 며칠간의 일이 도무지 현실처럼 실감되지 않았다.
꼭 악몽속에서 겪은 일같았다.
(어떻게 되여 아늑한 시골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나의 운명이 하루 아침새에 이렇게 엄청나게 뒤번져지였는가?!
이것이야말로 귀신의 작희가 아니고 무엇이랴?…)
리옥은 절망과 공포, 불안과 위구가 가슴을 옥죄일수록 이 땅에서의 래일이 소름끼치게 두려웠다.
그런중에도 고국에서 흘러간 나날, 다시는 돌아올것 같지 않은 지난 나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날 아침 여느때없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리옥은 대숲속에 청동거울쪼박처럼 박혀있는 정갈한 샘둥천에 나가 말끔히 세면을 하고

나서 난생처음 얼굴치장에 달라붙었다.
그러지 않아도 하얀 얼굴에 조개껍질을 보드랍게 가루내여 만든 조개분을 고루 문대기였다.
윤기가 자르르하게 도는 검은 머리에는 향긋한 동백기름을 조금 진할사하게 발랐다.
그다음은 앞가슴우로 태머리를 끄당겨놓았다.
몇번이나 풀었다꼬았다 하던 끝에 실하지도 여위지도 않게 탐스러이 땋아지자 머리태끝에 장농깊이 간수했던 새 다홍색댕기를 곱게 드리웠다.
얼굴치장, 머리치장에 이어 몸치장까지 꼼꼼히 하고난 뒤 잠시 할바를 잊고 서성거리던 리옥은 자꾸만 들썽거리는 마음을 누잦힐양으로 앞마당에 나섰다.
구기자포기마다 질벅하게 물을 주었다.
몽당비로 앞마당을 쓸고 걸레로 마루를 닦았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리옥은 짓다가 만 현중의 무관복을 꺼내들었다.
바늘을 들고 골무까지 끼였으나 왜서인지 일손이 놀려지지 않았다.
저로서도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자기의 모양이 우습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여 절로 허거픈 웃음이 나갔다.
조금후 단단히 마음을 조여먹은 리옥은 화살을 벗겨들고 뒤뜰로 들어갔다.
했으나 활쏘기에도 집념할수 없었다.
한껏 부풀어오른 처녀의 마음은 하냥 박위에게로 달음쳐갔다.
오늘은 해변고을들을 돌아보러나간 박위가 군영으로 오게 된 날이였다.
박위가 군영에 들어서면 현중은 그 즉시 여기 죽촌으로 달려올것이였다.
어쩌면 박위가 직접 이곳에 나올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보름전의 그날 밤 자기가 불타는 마음을 통으로 기울이여 써올린 편지의 회답을 받게 될것이였다.
말로든 글로든…
헌데 그 회신은 과연 어떤 내용일가.
찬동일가, 거절일가?!…

얼굴생김새는 준수해보이기도 하고 위엄있어보이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깊고 너그러운 박위는 필시 절절한 자기의 마음에 찬동을 보낼것 같았다.

어찌 생각하면 노상 군사일에만 집착하는 딱딱하고 드바쁜 그의 생활태도로 보아 거절할것 같기도 했다.

찬동은 더 말할것없이 기쁠것이요, 거절은 제일로 괴로울것이였다.

아니, 씹어 생각해보면 꼭 그럴것 같지도 않았다.

박위가 선선히 찬동한다면 일변 기쁜중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울것 같았다.

그가 거절한다면 한켠으로는 슬프면서도 다른 한켠으로는 다행스러울것 같았다.

한참이나 번거로우면서도 환희로운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던 리옥은 자기의 살진 귀밥이 따갑게 달아올랐음을 의식하자 살풋이 얼굴을 붉히며 살래살래 도리머리를 저었다.

(무슨 녀자의 마음이 이렇게 경망스러울가.

내가 이렇게 싱숭생숭해가지고 마음을 진정 못하는것은 나의 됨됨이 천박한탓이 아닐가.

아니, 그렇지 않을거야. 나는 지금 그 어떤 찬동이나 거절을 두려워하는것이 아니라 몰리해를 겁나하고있어.

그걸 어떻게 천박하다고 볼수 있으랴.

그래, 나의 청순한 진정이 전혀 다른 뜻으로 곡해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슴아픈 일일거야. …)

겉모양은 아련하나 내성적인 가슴속에는 풍만한 정서와 도담하고 열정적인 성품이 넘치도록 그득히 들어있는 리옥은 자기로서도 알길없는 슬픔과 기쁨에 잠기여 상반되는 두 감정의 근원을 찾아보느라고 무던히도 속을 태우고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저벅저벅 앞마당쪽에서 청신한 고요를 짓째며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아, 현중이가 왔구나!)

가슴속에서 후두둑 새가 깃을 쳤다.

리옥이 높뛰는 가슴을 제어하며 앞마당으로 나가려는데 뒤뜰의 참

대숲언저리에서도 소삽한 발자국소리가 났다.

그제서야 리옥은 이상한 느낌, 불길한 예감에 싸이여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허나 때는 이미 늦었었다.

앞뜰, 뒤뜰의 울바자를 타넘고 들어온 왜구들은 리옥을 에워싸고 갈가마귀떼처럼 모여들었다.

한뉘 무관의 집에서 무관들과 어울려지낸 처녀, 어릴적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와 같은 무술을 열심히 련마해온 리옥은 자기가 승산없는 정황에 맞다들렸음을 직감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적들에게 공손히 목을 내댈수는 없었다.

익달된 동작으로 재빨리 살을 메워든 리옥은 맨 앞장에서 다가드는 절구통같이 생긴 왜구의 목대를 겨누고 살을 날리였다.

상대가 마닐마닐해보이는 아녀자라 시물시물 웃기까지 하며 다가들던 절구통은 번개처럼 날아온 리옥의 화살에 멱살을 찔리자 상판에서 징그러운 웃음기를 채 지우지도 못한채 뒤로 나뗼어지였다.

리옥은 다시 시위에 살을 메웠다.

순간 뒤쪽에서 달려든 검덕귀신같은 왜구가 처녀의 머리에 검은 자루를 푹 내리씌웠다.

리옥은 새된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으나 두억시니떼처럼 달려든 왜구들은 우악스러운 손질로 순식간에 자루속에 든 처녀의 몸을 꽁꽁 묶어버리였다.

아늑한 정적에 묻히여 또 하루의 생활을 즐겁게 꿈꾸던 죽촌마을의 곳곳에서 급작스레 무엇이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비명소리가 귀따갑게 터져올랐다.

초가이영과 나무기둥, 천뭉테기 같은것이 타는 소리가 황황 들려오고 후끈후끈한 열풍이 밀려드는 소리가 훅훅 울려왔다.

리옥은 자기의 몸이 말달구지우에 허궁 날아 떨어지는 순간 그만에야 의식을 잃고말았다.

그가 처음으로 정신을 차린것은 다락배의 갑판우에서였다.

간신히 눈시울을 올리고보니 왜구의 다락배는 기세좋게 물살을 헤가르며 왜땅쪽으로 미끄러져가는데 갑판우에 패패로 모여앉은 왜구들은 저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술을 퍼마시고있었다.

리옥은 순식간에 자기가 어떤 지경에 처했는가를 포착하였다.
수치와 모욕을 모면하자면 죽든살든 바다물에 뛰여들어야 한다는 발작적인 충동이 떠올랐다.
리옥은 무작정 몸을 솟구쳤다.
무엇인가 온몸을 세차게 나꾸어채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 그제서야 리옥은 자기의 몸이 돛대에 꽁꽁 묶이웠다는것을 알아차리였다.
리옥은 피가 나도록 아프게 입술을 깨물며 맥없이 고개를 푹 내리떨구었다.
다시금 까박까박 의식이 흐려들었다.
이것은 결코 리옥의 기질이나 속심지가 섬약한탓이 아니였다.
리옥은 숫눈처럼 깨끗하고 샘물처럼 정갈한 처녀였다. 불의라면 추호도 용납할줄 모르고 정의라면 온몸을 태워서라도 지키려드는 강개하고 정열적인 녀자이기도 했다.
하기에 그는 자기의 눈앞에 수치와 모욕의 진구렁이 꺼멓게 입을 벌리고있다는것을 깨닫자 심장이 터져나갈듯 한 극렬한 분노와 반발감에 휩싸이였다.
바로 그래서 홀연 의식을 잃어버리였다. 까마귀는 구린내나는 오물더미우에서도 먹을것을 헤집어내며 살수 있지만 물새는 맑고 푸른 물과 청신한 공기를 떠나서는 순시도 살수 없지 않는가?!…
…세월의 흐름은 정지되고 세상만물은 순환의 섭리를 망각한채 죄다 화석으로 굳어진듯싶었다.
그속에서 또 하나의 석상으로 변한듯 까딱없이 앉아있는 리옥의 명상적인 눈에서는 맑디맑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생각탓인지 퇴창너머에서 울리는 밤바다의 파도소리는 한층 높아진듯싶었다.
예전에는 으스산하게만 생각되던 밤바다의 파도소리조차 지금에는 애틋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아! 저 파도를 가르며 가고 또 가느라면 이삼일도 안되여 그리운 고국땅에 가닿을것이다.
현중이가 있고 현중 아버님이 계시는 곳, 오늘도 오가는 바람결에조차 이 딸의 명복을 실어보내고계실 아버님의 령혼이 있고 구기자열매들이 어우러진 아늑한 내 집이 있는 그곳에…

아아! 현중 아버님! 대체 이 어인 일이옵니까!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끼친적 없는 이 소녀에게 이런 악몽같은 현실이 차례진단 말입니까!

현중 아버님! 흉폭한 왜구들은 이제 소녀에게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는 모욕과 수치를 강요할것입니다.

소녀는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능히 견디여낼수 있지만 수치와 모욕은 비록 하잘것없는것이라 할지라도 들쓰고는 한시도 살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소녀는 죽음을 택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서러운 사연도 있었지만 아직은 너무도 많은 미련이 남아있는 이승입니다.

그 이승과 서둘러 작별하자니 가지가지 한과 원이 얼음덩이처럼 차겁게 이 가슴에 맺혀오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슴아픈것은 평생을 조용히 살아오시다가 요란한 폭음과 함께 인생의 문을 소리없이 닫으신 아버님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또 아버님의 원쑤도 갚지 못한채 값눅게 세상을 하직하는것입니다.

…현중 아버님이 지방순행을 떠나시기 전날 저녁 소녀는 열번, 스무번을 바재이던 끝에 그리도 힘겨운 글월을 써올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례절인지 바르지 못한 행실인지 지금도 소녀는 똑똑히 가늠할수 없습니다.

하오나 진정을 고하건대 소녀는 당신의 중하신 군영일을 성심으로 도와드리고 현중이의 성장을 성의껏 살펴주는것이 곧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 길이요, 고려땅에 태를 묻은 녀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불행한 이 소녀는 당신의 대답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승을 떠납니다.

그것 역시 무척 한스럽고 애석한 일입니다.

현중에게 무관복을 채 지어주지 못한것도, 그에게 있는 정을 다 기울이지 못한것도 무척 서운합니다.

장군! 소녀는 비록 왜땅의 한구석에서 빛없이 스러지지만 당신께서 가끔이라도 이 세상에 당신을 열렬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녀자가 있었다는것을 추억해주신다면 그것만이라도 소녀는 행복할것입니다.

모쪼록 당신께서 내내 건강하시여 왜구와의 싸움에서 더 큰 공을 세

우시기를, 그래서 소녀의 쌓이고 맺힌 원한도 백배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리옥은 자정이 훨씬 지난 뒤에야 잊지 못할 그날 박위를 맞이하기 위해 그처럼 가슴설레이며 정히 드리웠던 다홍색댕기와 머리태를 감싸쥔채 살풋이 잠이 들었다.

15

짙은 어둠이 덮여있던 뙤창이 하얗게 벗겨지였다.

사위는 귀멍멍할 지경으로 고요한데 어디선가 이름모를 바다새들의 명쾌한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비릿한 해감내와 싱긋한 나무잎새냄새같은것이 바다바람을 타고 느긋하게 쓸어들어왔다.

여기 도적떼의 소굴에도 고려땅이나 다름없이 맑고 신선한 아침이 밝아오고 새울음소리며 나무잎내 같은것이 풍긴다는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였다.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새가 우짖고 싱긋한 바람이 불어오는것은 너무도 엄연한 자연의 리치건만 자연은 과연 인간세상이 아닌 짐승들의 세계에도 자기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숨김없이 펼쳐보일수 있단 말인가.

리옥은 뒤엉킨 심리, 어벙벙한 기분에 사로잡히여 별로 흐트러지지도 않은 머리를 비다듬어넘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뙤창가로 다가섰다.

체념이 깃든 시들한 시선으로 아무런 목적도 의욕도 없이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창밖의 자연이 한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안겨왔다.

하얀 꽃무더기를 한가득 품어안고 그 어떤 심원한 사색에라도 잠긴듯 미동도 없이 서있는 애젊은 때쭉나무.

그 나무의 상가지우에서 술래잡기라도 하듯 빙글빙글 돌아가는 숫제 랑군처럼 보이는 호구니와 숫색시처럼 보이는 호구니…

여기서도 여름의 자연은 아름다운 화폭을 펼치고 즐거운 음향과 싱그러운 향기를 날리며 약동하건만 리옥의 가슴은 더더욱 아프게 비틀리고 허우룩하게 무너져내리였다.

갑자기 참대쪽을 깔아놓은 복도의 바닥이 쿵쿵 울리였다.

리옥은 변함없이 퇴창너머에 시선을 던진채 까딱없이 서있었으나 가슴은 걷잡을수없이 활랑거리였다.

공포와 불안의 한순간이 지나가자 자기는 이미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라는 옹골진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지였다.

출입문이 펄썩 열리였다.

키는 무척 작고 몸집은 대단히 뚱뚱한데 대가리는 귤쪽처럼 삐죽한 왜구가 바싹 다가왔다.

전혀 알아들을수 없는 왜말로 쑤얼거리였다.

《고려처녀! 령주도노께서 몸소 너의 숙소에 래림하셨다. 인사를 올려라!》

리옥은 서서히 고개를 돌리였다.

방안에 들어선 놈은 두놈.

보매 령주의 막하 부하인듯 한 뚱뚱보는 절구통에 귤쪽을 접해놓은듯 한것이 첫눈에 벌써 저급한 지능을 가진 아둔패기라는것이 헨둥 알리였다.

허나 그놈의 뒤에 잇꽃무늬가 조잡하게 그려진 푸른색비단관복을 지르르하게 흘려입고 족도리같은 관모를 눌러쓴 놈팽이는 쇠덩이같이 단단해보이는 몸집에 독사의 눈알같은것이 판들거리는것이 여간만 독하고 사나울것 같지 않았다.

리옥은 심상한 낯빛으로 장님 은빛보듯 두놈의 모양꼴을 훑어보고나서 다시 고개를 돌리였다.

화가 동해오른 지또는 가느다란 눈을 지릅뜨며 서툴기 짝이 없는 고려말로 다시금 그 무슨 례의를 강박했다.

《무스메, 어서 령주도노께 인사를 올려라!》

리옥은 불뭉치같은것이 치밀어오르는듯 한 충동을 느끼는 순간 매서운 눈길로 지또를 노려보며 쏘아붙이였다.

《나는 당신들에게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요.
아무런 죄도 없이 강제로 잡혀온 사람이 누구에게 뭐라고 인사를 한단 말이요?》
《이년이 뉘앞에서 감히…》
지또는 리옥의 항변이 실지로 골이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기회에 사다께에게 보다 잘 보일 심산으로 자기의 분노를 턱없이 과장하며 당장 후려치기라도 할것처럼 수선을 떨었다.
사다께는 지또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것으로 졸개의 과장기가 농후한 저급한 행동을 제지시키고나서 방구석쪽에 놓여있는 까만 옻칠을 한 자그마한 밥상앞에 다가갔다.
밥상에는 기름떡과 연어회, 대순볶음 같은것이 조금조금 담겨있는 나무그릇들이 올망졸망 놓여있었다.
그런대로 성의를 넣어 차려준 상이건만 어디에도 사람의 손이 닿았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물그릇만이 반나마 비여있었다.
비양기어린 미소를 띄우고 소대가리같이 커다란 머리를 끄떡거리던 사다께는 자못 틀스럽게 올방자를 고이고 앉았다.
허옇게 뒤집어진 웃입술을 너덜거리며 흠할데없이 류창한 고려말로 씨벌거리였다.
《흠! 며칠동안 줄곧 입을 봉하고있단 말이지. 지독하군.
그러니까 적국의 음식은 죽어도 먹지 않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너는 정말 죽고싶은가?!》
사다께의 음성은 나직했으나 그 나직한 말속에 얼마나 끔찍한 행동의 뿌리가 들어있는가를 잘 아는 지또는 제쪽에서 먼저 흠칫 놀라며 리옥을 쳐다보았다.
리옥은 싸늘한 랭기가 풍기는 하얀 얼굴을 여전히 퇴창쪽에 돌린채 또박또박 그루를 박아 말했다.
《그렇소. 생도 내가 요구하는것이고 의도 내가 원하는것이요.
그러나 두가지를 다 얻을수 없다면 난 기꺼이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할것이요.》
만약 리옥이가 아니라 수하의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 사다께는 즉석에서 《오멘!》하고 멱따는 소리를 지르며 칼을 날렸을것이다.

허나 사납고 독할 망정 절대로 우직하지 않는 사다께는 이 처녀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이며 이 녀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것을 벌어들여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게다가 처녀의 도고한 기품은 난생처음 보는것이여서 그의 쌀쌀한 언행이 다소 화를 돋구기는 하지만 여간만 신기하지 않았다.

리옥의 나무랄데없이 깨끗한 얼굴과 몸매를 걸탐스럽게 여겨보던 사다께는 별안간 소대가리같은 상판을 뒤로 젖히며 껄껄 웃어댔다.

《핫하하! 리별장의 딸이요, 박위의 안으서감이라더니 과시 담기가 보통이 아니군. 그럴듯해, 그럴듯하단 말이야. 으핫하하!》

사다께의 전혀 뜻밖의 소리에 리옥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리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고려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는 여기 왜구의 섬에 골박혀있는 이놈이 내가 누구의 딸이라는것은 어떻게 알며 누구의 안으서감이라는 말은 또 무슨 소린가?)

리옥의 청초한 얼굴에 떠오르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놓칠세라 여겨보던 사다께는 우야 멋을 내느라고 쓰고나온 관모가 아무래도 불편스러워 조금 뒤로 제껴놓고나서 한결 여유있는 청으로 말을 이었다.

《생과 의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의를 지키겠다?!

녀자가 그렇게 의를 중히 여긴다는것은 갸륵한 일이다. 아주 좋아.

헌데 너는 우리에 대해 심히 그릇인식하고있는것 같은데…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것처럼 의리도 모르고 도리도 안중에 없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있고 우리의 도가 있단 말이다. 그러니 크게 걱정할것 없다. 너는 생도 구할것이며 의도 잃지 않을것이다.》

《?!…》

사다께는 자기의 거침없이 흐르는 말재주를 스스로 흡족해하며 성수가 나서 뒤말을 십어나갔다.

《에또— 그러면 내 이제 우리의 용건을 말해주겠다.

듣자니 너는 경상도원수 박위와 매우 친좁게 지낸다던데 사실인가?》

창날로 쿡 찌르는듯 한 사다께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리옥은 숨이 꾹 막히는듯싶었다.

이제는 그저 놀라운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속에서 상서롭지 못한 추측이 연줄연줄 묻어올랐다.

(이놈은 우리 군영과 김해고을의 내막을 자상히 알고있는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김해땅에 이놈과 줄이 닿아있는 렵탐군이 박혀있는게 아닐가?… 정말 모든것이 우연치 않다. 죄없는 생사람도 마구 때려죽이는 짐승같은 왜구들이 무엇때문에 저들의 병졸을 쏘아죽이기까지 한 나를 손톱눈 하나 다치지 않고 예까지 고이 데리고왔는가?

왜 지금까지도 살상의 《죄》를 전혀 따지지 않는가?

과연 무엇때문에 죽촌에서 잡아온 사람들은 죄다 마구칸같은데 쓸어넣으면서 나만은 유독 이렇게 깨끗한 방에 혼자 들여앉히고 귀빈처럼 대하는것일가?…)

리옥의 대답말을 별로 기다리는 빛도 없이 턱주가리의 칼자리를 슬슬 매만지며 침묵을 지키던 사다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자기의 거대한 음모전반을 놓고볼 때 너무도 지엽적인것이여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공정이였다.) 타인으로서는 전혀 음모의 륜곽을 짐작할수 없는 첫 미끼를 슬쩍 뿌려던지였다.

《털어놓고말해서 우리는 너에게서 큰것을 바라지 않는다.

무슨 거짓말을 하라는것도 아니요, 어떤 요란한 물건을 내라는것도 아니다. 박위는 지금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너로 하여 무척 근심하고있을게다.

그러니 간단하게라도 그지간의 너의 소식을 박위에게 알리라는것이다. 그것은 너도 소원하는바일줄 안다.》

《?!》

《너는 물론 우리의 청을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으나 사실상 의문날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번에 데려온 고려백성들중에 리별장의 딸이 끼워있는줄은 전혀 몰랐다. 본의는 아니라도 한 나라의 장수인 박위와 가깝게 지내는 녀자를 예까지 잡아온것은 우리로서 매우 미안쩍은 일이요, 떳떳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죄겸 너의 소식을 박위에게 알려주자는것이다.》

《?!》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짓고 한가지 거짓말을 꺼내놓은 사다께는 그 거

짓말을 사실처럼 묘사하기 위해 수다한 거짓말을 꺼내놓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너를 포함한 고려백성들을 예까지 데려왔으며 인차 되돌려보낼수 없는가.

에또— 그것은 박위와 화평교섭을 하기 위해서이다.

터놓고말해서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러 지치기도 했지만 마음이 달라지여 이제는 피차 검을 놓고 평화적인 교역을 하며 의좋게 살았으면 한다. 그런데 호전적인 성향이 농후한 박위가 우리의 청을 옳게 리해하고 쉽사리 응낙하겠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박위는 계속 옛적의 원한을 따지며 검을 휘두른다면 우리로서는 여간만 괴롭지 않을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로 신중히 따져본 끝에 박위가 평화교섭에 응해나설 때까지 고려사람들을 이곳에 그냥 눌러앉힐 결심을 내리였다. 그런즉 너의 편지는 박위에게 보내는 문안편지인 동시에 량국간의 력사적인 평화교섭의 첫시작으로 될것이다.》

사다께는 장광설을 끝내기 바쁘게 리옥의 반응을 슬며시 살펴보았다.

사다께의 검은 속심을 전혀 알리 없는 리옥은 아미를 나부시 내리깐채 제나름대로 무거운 생각에 잠기였다.

(이놈의 수작이 절반만 사실이라 해도 얼마나 좋겠는가.

평화교역! 그것은 파괴도 살륙도 없고 불과 피도 없는 생활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헌데 그것이 과연 이들의 본의겠는가?…)

아무리 되굴려 생각해보아도 믿음이 가지 않았다.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의혹과 불안만이 갈수록 불어올랐다.

(…벌써 백수십년전부터 고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일삼아온 왜구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검을 놓고 제 먼저 화평을 운운한다는것이 과연 있을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놈들이 진정으로 화평을 원한다면 우선 먼저 우리 고려국 조정에 찾아가 지난날의 대죄를 일일이 반성하고 앞날의 맹세를 진심으로 다져야 할것이다.

그런데 화평을 원한다는 놈들이 무엇때문에 죽촌을 불태우고 숱한 사람들을 죽인단 말인가?…

정녕 무엇때문에 여기 섬구석에 똬리를 틀고앉아 일개 시골녀자에 불과한 나를 내세워 화평교섭의 첫 꼭지를 떼겠노라고 구차스러운 소리를 하는가.

화평수작은 필경 거짓이다. 흉물스러운 이놈들은 나를 미끼로 무서운 음모를 꾸미려는것이 분명하다.)

예까지 생각이 이르자 절로 숨결이 높아지였다.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짙어가는 의혹속에서 리옥의 사색은 줄차게 내뻗치였다.

(혹시 이놈들이 나를 구렝이 닭알녹이듯 해가지고 현중 아버님과 군영군사들을 어째보려는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나는 이 마당에서 무턱대고 죽을 생각만 하면서 만사를 체념해야 하겠는가.

아니야, 오늘의 이 일이 나 하나의 목숨에 관계되는것이라면 내가 죽는것으로 끝장낼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분명 현중 아버님과 군영군사들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다.

크게 본다면 우리 고려국의 안위와 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기어이 살아서 가능한껏 김해땅에 박혀있는 왜구의 세작을 알아내고 여기 도적굴의 속내를 내탐하여 군영에 전하는것이 옳은 도리일것이다.

그것이 내 사랑 고려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일일것이다.

자결은 어느때든 할수 있는 일, 내 생의 마지막과제를 끝낸 뒤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다.)

리옥의 결심은 드디여 쇠덩이처럼 굳어지였다.

사실상 자기가 생의 마지막과제로 내세운 그 모든 일은 너무도 막연한것이여서 마치 하늘의 구름을 끌어내리려는것처럼 허황하게 생각되기도 했으나 절대로 외면할수 없는 일인것만은 명백했다.

불안과 절망에 싸여있던 리옥은 생활의 준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실행행로는 오리무중했으나 타산은 비교적 정확하였다. 허나 다음

순간 지나치게 결곡하고 정열적인 녀자들이 쉽게 편견에 빠지듯이 리옥이도 그만 한가지 착오를 범하였다.

그것은 놈들의 궁냥이 어찌됐든 자기의 행적을 몰라 안타까와할 박위에게 한쪼각의 소식이라도 전한다면 피차가 다 한시름 놓을것이라는 극히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힌것이였다.

솜씨있는 화공이 섬세하게 붓질을 하여 그려놓은 한폭의 정교한 인물화마냥 까딱없이 굳어져있던 리옥은 그 어떤 마술에서 풀려나기라도 한듯 고개를 들어올리였다.

사다께앞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전혀 예상밖의 일이라 사다께의 세모진 눈에 금시 의혹의 자욱이 허옇게 매달리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리옥은 사다께앞에 작고 고운 버선발을 멈추더니 나부시 무릎을 꺾고 앉았다.

좀전과는 훨씬 다르게 누그러진 어조로 말을 꺼냈다.

《실례인것 같은데 난 지금 몹시 시장하오. 무엇이든 조금 먹어야 생각도 하고 글도 쓸것 같으니 내가 술을 뜨는 동안 잠시 자리를 피해주었으면 하오.》

의혹과 놀라움이 비꼈던 사다께의 떡판같은 얼굴에 기쁨의 혈조가 징그럽게 번져지였다.

리옥이 자기가 던진 미끼를 연추채로 삼킨것이라고 짐작한것이였다.

여직껏 검둥개 굿구경하듯 아무런 흥심도 없이 사다께와 리옥을 갈마보던 지또의 가느스름한 곰눈도 휑하게 커지였다.

지또는 고려처녀가 제아무리 도고하다 해도 사다께의 비상한 계략의 그물에는 걸려들지 않을수 없노라는 뜻의 비굴한 웃음을 띄우며 칼자리가 얼기설기 흘러간 상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다께는 상당히 휘여내기 어려울줄 알았던 리옥이가 이처럼 수월하게 굽어들자 다소 어정쩡한중에도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계집이란 역시 제아무리 도담하고 총명하다 해도 단순하고 편벽한 물건이요, 자기의 계략으로 말하면 하늘과 감응하는것이니 의당 뒤끝은 이렇게 될법 아니냐 하는 자기나름의 판단과 자부심이 무덕무덕 피여올랐다.

그러거나말거나 리옥은 유연하게 팔을 내뻗치여 기다란 저가락으로 기름떡 하나를 꿰들었다.

기름이 찰찰 흐르고 달짝지근한 냄새가 몰몰 풍기는 기름떡이건만 정작 입에 넣으니 모래덩이처럼 깔깔하고 써벅써벅한것이 쉬이 씹어 넘길수 없었다.

리옥은 전혀 식욕이 느껴지지 않았으나 이몸에 힘을 주어 강다짐으로 기름떡을 씹어나갔다.

마당삼이라도 얻은 놈처럼 희색이 만면하여 노냥노냥 기름떡을 씹고있는 리옥을 유심히 뜯어보던 사다께는 처녀의 목언저리에 박혀있는 까만 기미를 띄워보자 왜서인지 흠칫 몸을 떨었다.

투실투실한 상판에서 어룽거리던 웃음기는 씻은듯이 사라져버리고 세모진 눈에서는 이상한 불꽃이 파랗게 부서지고있었다.

뙤창너머로 내다보이는 진회색하늘에서는 시꺼먼 비구름장들이 서리서리 뒤엉키며 이쪽으로 달음박질쳐오고있었다.

머지않아 무서운 폭우가 터질 조짐이였다.

제 2 장

1

장단고을을 지나 취적교를 건는 박위와 여삼은 개경의 동대문인 숭인문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야트막한 등성이로 군마를 쳐몰았다.
군마들은 융단같은 잔디가 고루 깔려있는 등성이마루에 오르자 투투 투레질을 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말안장에서 뛰여내린 박위는 등성이앞코숭이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파란 풀밭에 다문다문 박혀있는 노란색, 빨간색의 이름모를 들꽃들이 오랜만에 개경으로 올라온 박위에게 미쁜 웃음을 지어보이고있었다.
하나같이 시누런 비단조끼를 차려입은탓에 조금 건방져보이는 산벌들은 윙윙 이쪽으로 다가오며 엷고 투명한 나래로 단조롭기는 하나 더없이 열정적인 군악을 울리여 박위의 상경을 환영했다.
개경은 실로 정다운 고장, 한창나이때의 잊지 못할 추억이 어려있는 소중한 곳이였다.
까닭없이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박위는 송피를 벗겨낸 자리가 버짐자리처럼 듬성듬성 널려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밑에 이르자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너무도 눈에 익은 송악산의 자태가 가슴을 지지며 안겨왔다.
아름다운 녀인이 조금 부른 배를 솟구고 단정하게 누워있는것처럼 보이는 송악산줄기의 모습, 그래서 재미나는 사랑의 전설도 많고 사랑의 노래도 수없이 엮어낸 개경의 자랑 송악산이였다.
허나 송악산이 그토록 자랑스러운것은 사랑의 전설과 노래가 많은탓만이 아니였다. 뭐니뭐니해도 송악산이 자랑스러운것은 거창한 봉이와 줄기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애국의 넋이 진하게 슴배여있기때

문이였다.
감개에 젖은 박위의 시선은 벌써 송악산마루에서 시작되여 동서로 길게 뻗어내린 개경의 라성(고구려와 고려시기 일부 성곽들은 외성과 내성으로 쌓아 2중으로 방비를 강화하였는데 그런 경우 외성을 라성이라 하고 내성을 견성이라 하였다.)을 더듬고있었다.
개경의 라성은 지금으로부터 4백여년전 고려의 애국명장 강감찬이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무려 30만의 군민을 동원하여 쌓은 장성이였다.
성돌마다에는 검푸른 이끼가 두텁게 덮이고 돌틈마다 살구나무, 메대추나무, 쑥덤불 같은것이 박혀있는 고색이 창연한 라성.
하지만 여겨볼수록 라성의 곳곳에서는 그 시절 애국명장과 수십만 군민의 애국열정이 후덥게 끼쳐나오는듯싶었다.
오, 정녕 금덩이와도 바꿀수 없는 하나하나의 성돌들에는 얼마나 뜨거운 애국의 피와 땀이 어려있는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사라지지도 마르지도 않을것이며 이 나라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리라. …
《그러니까 저 성이 바로 강감찬장군께서 쌓으셨다는 그 유명한 라성이오니까?》
개경걸음이 난생처음인 여삼은 발에 닫고 눈에 띄우는 모든것이 희한하여 사위를 두릿거리며 제 혼자 시시벌거리던 끝에 종시 박위의 사색을 깨쳐놓았다.
박위는 여전히 라성쪽을 바라보며 조금 눌린듯 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저 성이 바로 강장군과 그 시절 군민의 애국의 혼령이 스며있는 라성이다. 군사를 최대의 국사로 여기고 몸과 마음을 깡그리 군사일에 몰바친 강장군은 고려국의 첫째가는 명장이였다.》
말을 마친 박위는 다시 혼자생각에 휘감기였다.
소나무들의 우듬지에서는 바람을 안은 솔가지들이 솨솨 파도소리같은것을 내며 설레이고있었다.
그 소리는 박위의 사색을 해치기는커녕 더욱더 깊은 세계로 떠밀어갔다.
(강장군의 애국의 넋과 그 시절 군민의 애국지심은 지금도 저 송악산은 물론 이 나라 하늘땅 그 어디나 뜨겁게 배회하고있는데 나를 위시한 현세의 장수들은 과연 그네들의 혼령앞에서 떳떳이 머리를 들고

자기의 애국심에 대해 말할수 있는가?…

왜구들은 장장 백수십년세월 도적고양이 반찬광나들듯 우리 땅을 나들며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루 다 말할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있는데…

지어 개경의 관문이라고 해야 할 승천부의 개태사에 달려들어 태조대왕의 화상까지 훔쳐가는 특대형의 만행도 서슴지 않고있는데…

고려의 국난, 민족의 수난을 막지 못하고있는 우리 장수들이 어떻게 선조들의 영령앞에, 오늘의 백성들앞에 그리고 래일의 후손들에게 떳떳할수 있겠는가?…)

얼마후 박위는 여삼을 뒤에 달고 개경장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번잡스럽기 짝이 없는 공랑(고려시기 나라에서 상인들에게 점포용으로 빌려주던 저자거리.)을 에돌아 비교적 인적이 드문 소로길에 들어섰다.

여삼은 두고두고 입에 올릴수 있는 개경의 요란한 장거리를 구경하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워 기름내, 술내 같은것이 풍겨오고 싸구려소리와 다툼질소리가 소란스레 울려오는 공랑쪽을 연해 돌아보았다.

여삼의 바글거리는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깊은 생각에 잠긴채 묵묵히 말을 걸키던 박위는 문득 고개를 돌리더니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꺼내놓았다.

《이애 여삼아, 오천이녀석이 요즘에 정말로 취금이에게 미쳐돌아가는 모양이더냐?》

여삼은 박위의 뜻밖의 물음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도 형제간의 우의도 모르고 외토리로 막돌처럼 굴러다니며 자라난 여삼은 오천을 알게 된 후 그를 친형이상으로 따르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오천은 경상군영에 내려와 처음으로 여삼을 알게 되자 생활처지와 자라난 환경도 자기와 엇비슷하고 손재주도 비상한 여삼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여 친동생처럼 살뜰히 위해주었다.

올해 초봄 여삼이가 장가를 갈 때 있은 일이였다.

부모도 형제도 없고 혼례식문제에도 깜깜인 여삼은 택일(날받이)을 해놓고도 어벙벙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럴 때 여삼을 찾아온 오천은 언제나 그러하듯 싱글벙글 웃으며 장

담을 했다.

《여삼아, 잔치준비는 내가 다 할테니 너는 아무 걱정말아라. 부처님처럼 곱게 앉아있다가 상도 받고 새색시도 받으란 말이다, 핫하하!…》

그날부터 오천은 파발마뛰듯 쉴새없이 뛰여다니였다.

납페(남자측에서 녀자집에 보내는 례장.)로 쓸 무명도 구해오고 잔치상에 놓을 꿩과 기러기도 안아왔다.

썩 후날에야 여삼은 그 모든 물건들은 오천이가 밤마다 손에서 피가 나도록 호미와 낫따위를 벼리는 야장일을 해주고 얻어온것임을 알게 되였다.

물론 군영군사들과 박위도 여러가지로 여삼의 잔치준비를 거들어주었다.

하여 잔치는 제법 격식있게 거행되였다.

헌데 구고례(신부가 시부모에게 재배를 하고 페백을 드리는 의식.)를 할 대목에 이르러 그만 말썽이 생기였다.

여삼에게는 신부의 절을 받고 페백을 받을 부모가 없는것이였다.

여삼의 눈에는 대바람 눈물이 핑 고이였다. 신부의 얼굴도 컴컴하게 흐려지였다.

난중한 빛으로 신랑신부를 갈마보던 오천은 시부모가 앉아야 할 자리에 제가 넌떡 들어앉았다.

사람들을 둘러보며 축축하게 젖은 청으로 말했다.

《나로 말하면 여삼이 형님이요, 형님인즉 부모없는 이 사람한테는 부모나 다를바 없으니 신부의 인사는 내가 받겠소.》

그러자 혼례나 장례때면 의례히 까다롭고 복잡한 례식절차를 따지는것으로 한몫 보는 동네의 나배기들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듯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세상에 이런 깍두기판이 어디 있나?!… 아무리 의형님이라 해도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어떻게 시부모행세를 하는가 말일세.》

《신부나 신랑이나 다 섭섭하겠지만 주자가례에 없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낼수는 없느니.》

오천은 금시 얼굴이 뻘겋게 달아가지고 버럭 증을 내였다.

《그러니 부모없이 자란 불쌍한 사람은 구고례구경도 못한단 말이요?

백사람, 천사람이 시비를 해도 소용없소.

나는 지금도 이 사람의 형님노릇을 하고 앞으로도 형님행실을 할테니 걱정들 말고 썩썩 물러나시오.

얼른 구고례를 해야겠소.》

오천은 여러 시비군들을 다 물리치고 끝끝내 자리를 지키고앉아 신부가 페백으로 올리는 대추쟁반을 받았다.

페백을 받는 부모들이 의례 그러듯 대추 한알을 맛본 다음 《다남다복》(아들을 많이 낳고 복을 많이 받으라는 뜻.) 하라는 내용의 덕담까지 격식대로 했다.

여삼이도 울고 신부도 눈물을 흘리였다. 오천이도 눈굽을 씻었다.

여삼과 신부는 저들의 서러운 심정을 깊이 헤아려준 오천이가 고마와서 울었고 오천은 불쌍하게 자란 여삼의 행복한 장래를 축복하여 눈물을 흘리였다.

여삼이가 오천을 친형처럼 믿고 따르는것은 그가 단지 인정이 깊기때문만이 아니였다.

검술과 활쏘기도 능하고 무슨 일이나 다 자신만만하게 해제끼는데다 성격까지 시원시원한 오천은 정녕 같은 사내로서도 반할만 한 사람이였다.

하기에 여삼은 틈만 생기면 오천을 따라다니며 무엇을 배워달라고 떼질을 내기도 하고 실지 이일저일을 배우기도 했다.

지어 여삼은 오천의 조금 휘저울사 하는 걸음새와 말끝마다 《그까짓것》이라는 군소리를 붙이군 하는 그의 말투까지 본따려들었다.

헌데 요즘 여삼을 대하는 오천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우정 틈을 내여 찾아가도 만날새가 없노라고 손을 홰홰 내저으며 어디론가 바삐 가버리였다.

술을 마시러 집에 나가자고 해도, 제수(여삼의 안해)가 모셔오란다며 손을 끌어도 당치도 않는 구실을 대고 피하였다. 서운했다.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여삼은 요즘에야 오천이가 취금이한테 빠지여 자기를 멀리하려 한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사내들이란 녀자가 생긴 뒤에야 제 본색이 나오는 모양인가?

남들은 다 그렇다 한들 오천형님이야 그럴수 있는가?

나같이 그닥 속이 너르지 못한 놈도 녀자의 정보다 사람의 도리와 인정을 더 중히 여기는데 오천형처럼 대활하고 난다뛴다 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쉽게 녀자한테 엎어져서 인정이고 우의고 다 줴버릴수 있는가?…)

요즘에 와서 여삼은 오천이를 찾아다니기도 멋적었다.

확실히 오천과 여삼이 사이는 예전같지 않았다. …

여삼은 오천에게 해가 될 소리를 꺼내기도 딱하였고 거짓말을 제일로 싫어하는 박위를 속이기도 어려워서 한참이나 끙끙 갑자르며 대답을 꺼내지 못했다.

허나 말을 묻어두고는 잠시도 참지 못하는 성미인데다 저로서도 오천이가 적지 않게 못마땅한 여삼은 종시 꼬부장한 속내를 털어놓고야 말았다.

《소인이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동네아낙네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천대정은 요즘 무슨 채단(신랑쪽에서 신부에게 보내는 포목 및 비단.) 같은것을 마련하느라고 바삐 뛰여다닌다고 하더이다.

소갈머리없는 아낙네들의 종작없는 소리를 그대로 곧이들을수는 없겠사오나 오천대정이 늘 염초장밖으로 나다니는걸 보면 그런 소문이 노상 허랑한 말 같지는 않소이다.》

박위의 예쁘게 생긴 입에서 허거픈 웃음소리가 불려나갔다.

《허어— 지금같은 때 명색이 군사라는 놈이 채단마련을 하느라고 나떠다닌다?! 괴이하도다.》

박위는 사실 오천에 대한 소문과 자기의 의심이 근거없는것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호젓한 기회에 여삼에게 넌지시 오천에 대해 물었었다.

그런데 오천이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여삼이마저 오천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꼴이였다. 하고보면 돌아가는 소문은 결코 랑설이 아니요, 자기자신도 헛의심을 한게 아니였다.

새삼스레 속이 언짢아지였다.

박위는 물론 오천을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았으나 자기로서 할수 있는껏 중히 여기고 내세워주었었다.

최무선장군의 당부도 잊을수 없었지만 최무선의 뜻대로 오천이가 군사일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깡그리 바치리라 믿어의심치 않았기때문

이였다.
그런데 오천은 제쪽에서 먼저 까치배때기같은 흰소리를 잔뜩 늘어놓고나서 이제 와서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취금이를 끼고 제멋대로 나돌아치고있었다.
박위의 가슴은 진정 저리였다.
(아무리 배운것 없는 상놈이래도 속심지가 바로 박힌 놈이라면 운우의 정이라는것이 인간의 도리나 뜻보다 더 귀할수 없다는것쯤은 알아야 할게 아닌가.
참으로 오천이라는 녀석은 항간의 속된 말 그대로 마파람에 돼지불알 놀듯 하는 놈이야. …)
얼마후 장거리뒤쪽의 안침진 주막집에서 늦은 조반겸 이른 점심을 먹은 박위는 거기에 여삼을 떨구어두고 보행으로 왕궁을 향하였다.
급급히 길을 다그치여 만월대 축대우에 올라서니 제일먼저 한쪽벽이 허물어진 궁궐의 회경전(봉건관료들이 조회를 하던 곳.)과 꺼멓게 끄슬린 춘궁 (태자가 살던 곳, 동궁이라고도 함.)이 시선에 걸리였다.
아직도 20여년전(1361년)에 개경에 범했던 홍두적이 궁궐에까지 밀려들어와 불을 질렀던 흔적을 채 가시지 못한것이였다.
몇걸음 더 옮기자 이제는 쓰지 않는 건물인 대관전의 무너지다만 벽체에 누군가가 커다란 글씨로 써넣은 절구 두수가 안겨왔다.

만호장안 넓은 거리
재가루되여 남은것 없는데
고궁의 터전에
오동나무 한그루 천연하구나

내 비록 늙은 나이나
기필코 개경의 재건을 보고야말리
그때 훈풍이 다시 불면
오동나무 너 나의 거문고 될지어다

추연한 마음으로 거듭 시를 읊어보던 박위는 때마침 곁을 지나가는 중수도감(궁궐의 개건공사를 책임진 아전.)을 띄워보자 그를 불러 시

의 사연을 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시는 퍽 오래전에 왕명으로 입궐했던 안가성을 가진 어느 고을 부사가 외적의 화를 당한 궁궐의 모습이 너무도 기가 막히여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나서 분연히 써놓고 간것이였다. 박위는 중수도감에게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싶었으나 도감이 바쁜 태를 내는데다 때마침 자기의 련락을 안고 궁궐에 들어갔던 금오위(국왕을 호위하며 수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앙상비군의 하나.)의 장군이 다가서는 바람에 더이상 말을 나눌수 없었다.

금오위장군은 소문으로만 알고있던 박위를 만나게 된것이 무척 반갑노라고 새삼스레 긴 인사를 늘어놓고나서 궁궐의 환관들이 전해준 소식을 되뇌이였다.

《…전하께서는 오늘 옥체 미령하시여 편전에 드신고로 일체 외인들과 상면할수 없다고 합니다.》

가능한껏 한줄기의 가능성이라도 잡아보려는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리성계를 직접 찾아가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맥없이 만월대를 내려선 박위는 되도록이면 리성계에 대한 좋은 인상만을 살리기 위해 애쓰며 륙부아문(여섯으로 나누어진 중앙관청.)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대궐앞거리에 들어섰다.

내직에 있을 때는 아침저녁으로 오가던 길이요, 지난 4월 원정군의 열병식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을 때도 찾아왔던 곳이건만 어디가 어딘지 쉬이 가려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퇴락한 옛 건물사이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덩실한 집들이 비좁게 끼여들었는가 하면 휑하게 비여있던 공지들과 격구장터에는 울긋불긋한 새집들이 빽빽이 들어앉아있었다.

전에없이 간고하고 어수선한 이때 불과 몇달사이에 이처럼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숲처럼 솟아난것은 자랑스럽거나 흐뭇하기는커녕 놀라움과 의혹만을 불러일으켰다. …

박위는 한참이나 거리를 오르내리던 끝에 간신히 중서문하성(국왕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최고행정기관.)을 찾아내였다.

중서문하성에 들어서니 텅 빈 방안에 홀로 앉아 무슨 문집같은것을

뒤적거리던 해사하게 생긴 낯선 관리는 큰 비밀이라도 일러주듯 리성계는 도평의사사에 가있노라고 소곤소곤 말하였다.

여기서 박위는 다시한번 크게 놀랐다.

원래 도평의사사는 필요할 때마다 소집되군 하던 높은 관료들의 비상설적인 림시합의기관이였다.

헌데 지금은 상설관청을 가진 최고행정기관으로 되고 거기에 리성계가 항시적으로 틀고앉아 전반정사를 본다는것이였다.

이 시기 리성계는 자기의 세력기반을 든든히 축성하고 왕권을 최대한 제약하기 위해 도평의사사를 중서문하성과 6부의 권한까지 대행하는 상설적인 최고행정기관으로 격변화시키였다.

하지만 자기의 심신을 온통 군사일에 쏟아붓고있는데다 노상 지방에 나가사는 박위는 시시각각으로 변천되는 조정의 형세와 야심가들의 속심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었다.

어벙벙한 기분으로 중서문하성을 나선 박위는 다시 이 골목, 저 골목을 휩쓸고다니던 끝에 간신히 도평의사사를 찾아내였다.

하느님의 코배기라도 찌를듯이 높이 치솟은 합각지붕들, 여의주를 희롱하는 청룡, 황룡이 부각된 두리기둥들,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대청마루와 육중한 화강석섬돌들…

도평의사사는 여느 관청에 비길수 없이 덩지도 컸지만 웅장화려하기도 이를데 없었다.

공연히 노기등등해서 눈알을 희번득거리는 파수군들과 싱갱이를 하다못해 불호령을 터치고서야 겨우 대문안에 들어선 박위는 섬돌우로 오르려다말고 우뚝 굳어지였다.

관청안에서 비단관복을 지르르하게 흘려입은 십여명의 재상들이 틀스러운 걸음으로 쏟아져나온것이였다.

재상들은 어떤 중대한 국사를 론하고 나오는듯싶은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낯색은 저마끔 달랐다.

요즘에 와서 저들의 정치적변절을 합리화하기 위해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사람이 자기 본성을 알게 된다는것.)과 유교에서 말하는 양성(사람이 자기 본성을 키워나간다는것.)은 같은 뿌리와 목적을 가진것이라는 얼치기리론을 쳐들고다니는 조준과 윤소종 같은 관리들은 희색이 만면했다.

허나 임금에 대한 충정과 깊은 지식으로 하여 세인의 찬탄과 존경을 받고있는 수문하시중 정몽주의 퉁퉁한 얼굴과 판 삼사사 리색의 병색이 도는 갱핏한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떠돌았다.

박위는 맨뒤에서 풀기없이 걸어나오는 리색에게 다가갔다.

리색은 몸집이 체소하고 체질도 약한데다 내성적인 성격이여서 얼추 보매 매우 유약해보이였다.

그러나 실상 리색은 유학과 문학에 깊은 조예를 가진 학자인 동시에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해 제나름대로 애면글면하는 성실하고 강직한 정치가였다.

리색은 이미 공민왕시절에 벌써 교육기관을 질적으로 갱신하여 쓸만 한 인재들을 양성하며 불교행사에 재물을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는 동시에 강력한 수군을 건설하여 왜구를 격멸할것을 임금에게 제기했었다.

박위는 그의 모든 견해가 다 마음에 들었으나 그중에서도 군사를 중시하는 리색의 선견지명과 과단성있는 정치용단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당시 박위는 룡호군의 중랑장이였고 리색은 어보(임금의 도장.)를 간수하고있는 밀직사의 우대언(임금의 지시를 받고 내는 관직.)이였다.

그들은 벼슬품계와 나이도 훨씬 차이나고 출신도 문관, 무관으로 각각 다른터에 어울려지낼 기회는 많지 못했다.

하지만 박위는 리색의 장계내용을 알게 된 그날로 리색을 찾아가 자기의 존경심을 숨김없이 표명하였다.

리색도 박위의 군사적지략과 용맹, 사내다운 기개와 후덕한 인품에 대해 널리 들어 아는 까닭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장수와 사귀게 된것을 무척 기뻐하였다.

그날로 두사람은 십년지기처럼 친숙해지였다. 그후로도 박위와 리색은 만날 때마다(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사심없이 세상사를 론하고 정을 나누었다.

헌데 그처럼 정열적이던 리색이 오늘은 이 웬일인가.

의혹과 불안에 싸여 리색을 여겨보던 박위는 때마침 자기앞을 지나치는 리색에게 성큼 다가섰다.

《판 삼사사(국가재정을 총찰하는 관직.)대감!》

그제서야 박위를 알아본 리색은 다소 공허해보이는 눈에 가까스로

반색의 빛을 떠올리였다.
《오, 박장군! 어수선한 이때… 수고로이 상경하셨소그려. …》
(어수선한 이때라니 무엇을 뜻하는 소린가?)
박위는 공연히 입안이 말라들고 혀가 굳어졌다.
재상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용기를 내여 말을 꺼냈다.
《대감! 그새 옥체건강하시고 가내일동 무고하시나이까? 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감의 안색이 그리 좋지 못하오이까?》
한식경이나 새털같은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가를 바라보던 리색은 동문서답같은 소리를 꺼내놓았다.
《내 나이 60에 이르는 오늘까지 밤낮없이 나라일을 두고 뼈를 깎아왔네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를만 한 가치가 없네그려. …》
워낙 내성적인데다 깊은 수심에 싸이고보니 길게 말하고싶은 의욕이 나지 않는듯 리색은 다시 하늘가로 시선을 들어올리며 난데없이 옛시를 읊조리였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참으로 아득하다
사람노릇 하기 힘들다는
옛말 바로 그대로구나

리색은 별로 흐리지도 않은 하늘을 새삼스레 둘러보며 혼자소리처럼 웅얼거리였다.
《박장군, 자고로 먹장구름이 떠돌 때는 된소나기가 쏟아질 조짐이라 하지 않았소.
이제 된소나기가 쏟아지면 이 땅에는 일진광풍이 일고 탁류가 덮일게요, 어허 기막힌지고…》
검버섯이 점점이 널린 리색의 여윈 얼굴에서 진액같은 눈물이 줄줄 흐르고있었다. 리색은 분명 그 어떤 날씨타령을 하는것이 아니라 날로 어지럽게 번져지는 조정의 일을 개탄하는것이였다.
잠시후 리색은 박위의 존재를 감감 잊어버린듯 작별인사도 없이 허위허위 대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2

박위는 리성계의 방으로 들어섰다.

휑뎅그렁한 방안의 상좌에 홀로 앉아 두툼한 문서장을 뒤적거리던 리성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로가 비낀 눈으로 박위를 바라보던 리성계의 길쑴한 얼굴에 홀연 밝은 웃음기가 확 퍼지였다.

리성계는 보기 좋게 발달한 체구를 움쭉 일으켜세우며 제쪽에서 먼저 인사말 비슷한 소리를 활기있게 꺼냈다.

《박장군이 상경했소그려. 우리가 대체 몇해만에 만나는거요?! 헛허허…》

박위는 리성계의 예상밖의 언행에 다소 얼떠름해지였다.

박위는 요즘 조정의 권세를 거의다 줌안에 넣은 리성계가 차림새도 으리으리하고 언행도 거드름스러울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헌데 리성계의 차림새는 너무도 수수했다. 옛적의 붉은 직령을 입고 전이 좁은 주립을 썼는데 그나마도 물이 너무 날아 거의 분홍색으로 보이였다.

언행 또한 예전과 다름없이 소탈하고 진실해보이였다.

솔직성과 진실성을 인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는 박위는 예나 다름없는 리성계의 수수한 모습앞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 정도 감격하기까지 하였다.

똑똑한 근거도 없이 리성계를 의문시하고 불신했던 자기가 은근히 불만스럽기도 했다. 그러자 진정으로 되는 인사말이 절로 우러나왔다.

《대감! 그지간 귀체만강하셨소이까!》

《념려덕분에 무탈했소. 박장군은 별고 없으셨소?》

살뜰한 문안인사를 나눈 뒤 두사람은 탁자를 마주하고 자리에 앉았다.

리성계는 무엇때문인지 초조한 기색을 떠올리며 서둘러 말꼭지를 뗐다.

《박공도 십분 짐작하겠지만 우리 고려국이 건립된 이래 지금처럼

국력이 쇠잔하고 기강이 해이된 때는 일찌기 없었소. 왜 그렇게 되였는가?…》

성계는 급급히 말을 이어나갔다.

그것은 정력적인 성격탓도 아니고 그 어떤 바쁜 일이 기다리고있기 때문도 아니였다.

성계는 뭐니뭐니해도 박위가 최영의 축출리유를 따져물으며 저주와 규탄을 쏟아놓을가보아 속이 저리였다.

물론 성계는 박위의 항변을 무찔러버릴 론거와 배심이 없는것도 아니고 박위라는 존재가 그리 두려운것도 아니였다.

필요하다면 능히 해제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적지 않은 반대파들이 왕권강화를 고집하고있는 형편에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언턱구를 잡힐 일을 한다는것은 너무도 우둔한짓이였다.

리성계의 심사는 이래저래 착잡하였다.

허나 대마도원정을 시급히 단행할 의지로 온몸이 달아있는 박위는 이미 최영의 축출이 아무리 가슴아픈 일일지라도 민족의 존망과 관련된 군사일우에 놓을수는 없다고 단정하고있었다.

성계는 근엄한 표정을 띄운채 급급한 어조로 계속 딴전을 펴나갔다.

《…남북으로 밀려드는 외적들과 장장 수십년동안 전쟁을 한데다 나라안의 몇 안되는 세신대족들의 손에 국가의 토지와 군대들의 둔전까지 거의 전부 흘러들어갔기때문이요.

또한 전임재상들인 림견미, 리인임 같은자들이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광분하면서 나라의 페단을 바로잡기는커녕 더욱 조장하고 확장시켜놓았기때문이요.

형세는 참으로 위급한데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세신대족들은 계속 저들의 줌안에 토지를 끌어들이여 이제는 한개 사영농장의 면적이 몇개 고을을 타고넘는 지경에 이르렀소.

이렇게 되니 얼마간의 제땅을 가지고있던 농민들까지 세신대족들의 사영농장에 의거하여 전호(소작농)로, 외거노비, 솔거노비로 굴러떨어지고있소.》

박위는 처음 한동안은 리성계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여 다소 떨떠름하였다.

새겨들어보니 그의 말인즉 나라의 악폐청산에 관한 문제요, 국력강화와 민생구제에 관한 이야기였다.

언제나 국가의 번성과 백성들의 생활향상에 대해 무심한적 없는 박위는 저도 모르는새 자기의 용건과는 전혀 갈래가 다른 왕청같은 화제에 깊숙이 말려들어갔다.

박위는 마침내 피빛이 내번진 얼굴을 번쩍 들어올리며 청을 높여 말했다.

《대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세신대족들의 특대형범행을 방치해둔것은 지난 기간 우리 조정의 가장 큰 실책인줄 압니다.》

잠시 말을 끊고 상대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피던 성계는 박위가 시비를 걸기는커녕 적극적인 공감과 성원을 보내자 더욱 기세가 올라 턱을 부들부들 떨며 열을 올리였다.

《옳소, 우리는 전시대 재상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하며 (이것은 최영을 념두에 둔 말이였으나 박위는 리인임을 두고 하는 말로 리해하였다.) 그것을 과감히 시정극복해야 하오.

이제 더이상 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치해둔다면 얼마 안 가서 나라안의 토지와 백성은 전부 세신대족들의 손아귀에 들게 될것이며 국가는 알쭌히 빈 허울만 남게 될게요.》

리성계는 체계적으로 글공부를 한적도 없었고 책권도 별로 읽은것이 없는 무식쟁이였다.

하지만 수십년세월 제노라 하는 조정의 엄지가락량반들과 어울려지낸데다 때없이 수하장졸들앞에 나서서 군령도 내리고 제나름의 인생풀이도 해온 덕에 언변은 그런대로 꽤 좋은편이였다.

그 좋은 언변, 그 좋은 목청으로 승기가 나서 장광설을 엮어나가던 리성계는 불시에 탁자의 모서리를 쾅 내리치며 결연히 부르짖었다.

《이제 더는 한시도 미룰수 없소.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세신대족들의 방대한 토지를 말짱 몰수해야 하오.

그래야 백성들이 살아나고 국력이 제고되며 나라의 기강도 바로 설수 있소.

이미 전하께서 주달하셨고 방금 국책으로도 론의되였지만 조정에서는 우선 료물고(왕실창고)에 속한 360여개의 장, 처전에서 절에 기증한 토지들을 모조리 회수하고 비법적으로 차지한 세신대족들, 량

반토호들의 사전을 가차없이 몰수할것이며…》

리성계는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이 다 그러하듯 말끝마다 나라와 백성을 떠올리며 박위를 포함한 관리들과 세상천하를 솜씨있게 기만하고있었다.

농사나 토지경영의 물계 같은것은 초보도 알지 못하는 리성계가 만사를 젖혀놓고 사전정리건부터 들고나온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권욕실행과 일파의 리익을 위해서였다.

방대한 토지를 장악하고있는 세신대족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자기가 온 나라의 토지를 독점할수 있으며 모든 농민들을 《국가토지》에 결박해놓고 세력권확장과 왕권탈취에 소요되는 재정을 시급히 지속적으로 뽑아낼수 있었다.

이런 리유로 하여 리성계를 추종하는 관리들은 사전정리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했으나 조락의 음영이 짙게 드리운 왕권의 회복을 갈망하는 리색과 정몽주네들은 사전정리를 필사적으로 반대하였다.

방금전 이 집을 나서던 재상들의 얼굴색이 그처럼 심한 대조를 이룬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아직은 수면아래서 고요히 소용돌이치는 조정의 파국적인 형세와 극으로 대립된 관료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알리 없는 박위는 거듭 리성계의 과단성있는 정치소신과 용단에 경탄과 공감을 표시하였다.

박위는 리성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술잔이나 나누자고 해서야 소스라치는 놀라움속에서 자기가 무엇때문에 이 방에 들어왔는가를 깨달을수 있었다.

헌데 정작 말을 떼자니 리성계의 거창한 정계쇄신의 구상에 비해볼때 자기의 대마도원정건은 너무도 지엽적이고 왜소한 문제같았다.

다음순간 대마도원정은 단순히 지역적의의를 가지는 협소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중대한 국사라는 생각이 불덩이처럼 가슴을 지지였다.

박위는 불타는 눈으로 리성계를 쳐다보며 비로소 자기의 용건을 터놓았다.

《이미 대감께서도 깊이 통촉하시는바이지만 왜구의 끝없는 침노와 략탈로 하여 우리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의 존엄은 훼손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지난 기간 왜구들을 바다에 나가 때려보기도 하고 륙지에 들여놓고 치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하여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왜구의 침략과 략탈은 근절된것이 아니라 더 자주, 더 큰판으로 계속되고있습니다.
열백번 생각해보아도 이제 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방비나 반격이 아니라 주동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도적무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통채로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우리 군대의 정의로운 출동은 필경 백세의 한을 풀고 오늘과 래일의 참화를 방지하며 나라의 위세와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입니다.》
두툼한 입술귀를 짓물고서서 연해 고개를 끄덕거리던 성계는 불시에 목침같은 주먹으로 허공을 내리찍었다.
《옳소, 박공의 대마도진공결심은 백번 지당한것이요.
대고구려의 후손들인 우리가 잰내비같은 왜구들의 불장난에 고통을 겪고 망신을 당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소!》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리성계의 진심이였다. 그러나 리성계는 박위의 원정용단이 정당하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시급히 그것을 단행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당장 성계에게 급한 일은 대마도원정이 아니라 온 나라의 토지를 탈취하고 리색과 정몽주 같은 반대파세력을 숙청 또는 흡수하여 자기의 정치경제적기반을 구축하는것이였다.
그와 함께 성리학을 국가정치의 리론적기조로 내세울것을 요망하는 조준, 윤소종 같은 관리들의 얼쑹덜쑹한 리론을 빌어 자기의 배신적인 죄행과 앞으로의 흉악한 사변을 장미빛으로 채색해나가면서 아직은 헐렁헐렁하게 잡혀있는 권력일체를 소고삐처럼 바싹 조여잡는것이였다.
총체적으로 말하여 리성계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한 일은 무혈의 역성혁명 즉 왕위찬탈이였다. …
천천히 자기의 교자에 들어앉은 리성계는 대마도원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박위라는 인간을 장차 어떻게 대하고 처리할것인가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얼마전 리성계는 오래전에 조민수를 통해 알게 되였던 김해부사 조호백으로부터 상당한 량의 희귀한 어물과 함께 한장의 비밀한 사찰(사적인 편지.)을 받았었다.

호백은 편지의 서두에서 《리대감이 원정군을 돌려세우고 최영을 축출한것은 국가정치의 새장을 알리는 혁신적인 처사》라고 리성계를 극구 추어올리였다.

계속하여 호백은 자기의 사촌형인 조민수가 관직을 삭탈당한것은 (최근 리성계는 자기와 함께 위화도회군을 단행한 좌시중 조민수를 파면시키였는데 공개적인 파면리유는 어떠하든 리성계로서는 전략적으로 반분했던 권력을 시한부적으로 회수한것이였다.) 전적으로 정당한 인사행정이노라고 덧붙이였다.

호백의 로골적인 아첨에 성계는 흡족한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왜서인지 자꾸만 속이 근지러워나고 얼굴이 뜨끔해났다.

마감으로 호백은 근래에 경상도원수 박위는 대마도원정을 준비한다는 표구아래 모반음모를 꾸미고있다고 악의에 차서 력설했는데 그것이야말로 호백이가 사찰을 내게 된 근본동기인듯싶었다.

그 대목에 이르러 성계는 시큰둥한 표정을 띄우며 코방귀를 내불었다.

성계가 알건대 박위는 지나칠 정도로 진실하고 고지식한 무관으로서 역신음모 같은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사람이였다.

모름지기 버들잎처럼 속이 좁고 무엇이든 제 마음에 시쁜것은 갈구리로 걸어채야 속이 시원해하는 조호백이 서뿌르게 판단했거나 개인적인 앙심을 먹고 생먹은 소리를 아무렇게나 엮어댄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성계는 박위의 역신음모라는 대목을 훌훌히 넘겨버릴수 없었다.

예전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자기에게 고분고분 숙어들것 같지 않은 박위.

최영의 축출로 하여 자기에게 극심한 의혹 내지 반감을 품고있을것이 분명한 박위는 필경 편안치 않은 인물, 거치장스러운 존재였다.

좀더 깊이 해부해본다면 한개 도의 군력을 총섭하는 군영의 원수요, 자기 손에 직접 검을 잡고있는 무관인 박위는 위험하기도 한 존재였다.

어느때든지 반드시 제껴버려야 할 대상이였다.

(리성계는 실지 공양왕 초기에 자기를 포함한 9명의 공신중에서 두명의 무관을 권력권밖으로 추방하였는데 그속에는 박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박위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아직까지 자기를 반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선망높은 장수를 이

렇다할 명분도 없이 제거한다면 그것은 반대파의 력량을 보강해주거나 자기의 세력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것이였다.
적절한 기회에 보다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잘 익은 열매를 따듯 아무탈없이 손쉽게 따던져야 했다.
성계는 호백에게 지금같은 때 증거가 불충분한 고변은 소요와 혼란만을 빚어낼수 있으니 모쪼록 심사숙고하라는 내용의 아리숑한 련락을 은밀히 내리떨구었다.
그 련락인즉 너무 조급해말고 박위의 일거일동을 세심히 주시하면서 보다 뚜렷하고 충분한 증거를 채집하라는 우회적인 암시와 당부였다.…
리성계의 두툼한 가슴속에서는 검은 피가 소용돌고있었으나 그의 넓둥그런 얼굴에는 박위야말로 자기와 뜻도 배짱도 맞는 무관이여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다는 뜻의 미소가 은은히 흐르고있었다.
이윽하여 성계는 은근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속잎이 자라면 떡잎은 젖혀지기마련이라더니 과시 박공은 오늘날 우리 군대의 가장 큰 기둥이고 제일가는 장수요. 공같은 무장이 전역에 나가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정녕 든든하오.
그렇다면 우리 군대의 대마도원정은 언제쯤 하는것이 가장 합당하겠는가, 요는 이것인데…》
리성계는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박위를 쳐다보았다.
다시한번 알락달락한 문양으로 치장된 기만극을 본때있게 연출할 잡도리였다.
여기서 잠시 리성계일가와 그의 래력을 소급해보자.
퍽 오래전에 전라도 전주에서 나지래기벼슬을 지내던 리성계의 조상 리안사는 13세기 중엽 당시 교전상태에 있던 원나라에 투항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리안사는 원나라가 타고앉아있던 쌍성총관부의 동계(현재 강원도 북부일대와 함경남도지방)에서 비교적 큰 세력지반을 가지게 되였다.
그후 리안사의 아들인 리행리와 손자인 리춘도 원나라로부터 천호라는 벼슬자리를 얻어가지고 한개 지역의 토호로 뚱땅거리며 살았다.
리춘의 아들 리자춘 (리성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리자춘일가의 토호생활을 감싸주고 떠밀어주던 원나라가 급기야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리자춘과 그의 아들 리성계는 원나라에 치중하던 종래의 생활태도에서 탈피하여 수평선상에서 고려와 원나라에 각각 한발씩 잠그고 량국의 형세를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원나라가 망하면 고려로 넘어가고 고려가 무너지면 원나라에 가붙을 심산이였다.

그무렵 고려는 강경한 자세로 반원의 기치를 추켜들었다.

원나라는 내리막길에 들어선 찌그러진 수레모양으로 더이상 본래의 모양을 수습할수 없었다.

오직 파멸만이 원을 기다리고있었다.

자춘과 성계는 재빨리 원나라에 잠그었던 한발을 각각 뽑아올리였다.

이제는 통으로 고려편에 가붙는것이 현책이였다.

그러한 때인 1356년(공민왕5년) 고려정부는 동북병마사 류인우에게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동계를 회복할것을 명령하였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리자춘은 자기가 직접 개경에 들어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는 돌아가자바람 동계전역에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다.

류인우의 공격에 호응한 리씨부자의 폭동으로 하여 고려군은 삶은개 눈뽑듯 손쉽게 동계를 되찾을수 있었다.

리성계의 특기는 활을 귀신같이 다루는것인데 사실 그는 활쏘기만이 아니라 검술과 기마술에도 능하였다.

리성계의 군사적재능을 포착한 최영은 그를 고려군대의 장군으로 끌어올리였다.

군대의 요직에 들어앉은 리성계는 북원의 납합출과 덕흥군의 반란군을 격파하고 1376년 개경을 위협하는 왜구의 집체를 요정낸것을 비롯하여 련속 전과를 거두었다.

성계는 시중벼슬을 거쳐 수시중의 관직에까지 톺아올랐다.

리성계는 시중이 되였을 때 연회장에서 시 한짝을 지었다.

석자 되는 환도로
나라를 평정하고

이렇게 운을 뗀 성계는 최영에게 자기의 시에 대구를 채워줄것을 요

청했다.
최영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그에게 더욱 잘 보일 심산이였다.
성계의 간특한 속심을 알리 없는 최영은 도리여 기마술에 능한 성계를 칭송하는 의미에서 대구를 채웠다.

한가닥 채찍끝에
천하가 평정되리

시는 필경 고려장수들의 높은 뜻과 웅건한 기상을 노래하며 내용적인 련관을 이루었으나 시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흑심과 진심으로 각각 달랐다. …
실로 리성계는 한생을 두길보기를 하며 흑심과 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였다.
그 덕에 료동원정군의 부사령관격인 우군도통사의 벼슬과 조정의 최고관직인 문하시중 다음가는 자리의 수시중벼슬에까지 오른 리성계는 마침내 왕위찬탈의 무서운 야망을 품게 되였다.
야욕실현의 첫 단계로 그는 료동원정군을 되돌려세우고 임금과 최영을 군력으로 몰아내였다.
성계는 최영을 제 손으로 묶어서 끌어내면서도 《도통사대감, 세상에 이처럼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소. 하늘의 뜻이 이러하오니 달리 어쩌는 수가 없소이다.》하고 넉두리를 해가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것이야말로 리성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능칼진 위선자인가를 극치의 높이에서 보여준 세련된 광대극이였다.
진정 리성계는 수십년세월 단 한번의 좌절도 없이 정계와 군계의 풍랑속을 교묘하게 누비며 오늘의 봉우리에까지 치달아오른 교활하고 영악스러운, 로회하고 야심만만한 늙은 여우(올해 그의 나이는 54살이지만)였다. …
리성계는 또다시 진지한 표정을 띄우고 박위의 결곡하고 단순한 마음을 우롱하기 시작했다.
《공도 아다싶이 본관은 얼마전까지 노방 전역에 나가살던 장수로서 누구보다 공의 심정을 통절히 헤아리고있소.

하지만 공의 제안을 조정의 탁자우에 쳐들어올리자니 자연 나라형편을 둘러보지 않을수 없구려.
수십년세월 줄창 전란을 겪은고로 나라는 피페해지고 국고는 텅텅 비였는데 가도와 산야 그 어디나 류랑하는 백성들과 굶어죽는 시체들이 돌멩이처럼 나딩굴고있소. 그런데다 옹이에 마디격으로 올해에는 혹심한 자연재해로 온 나라 들판이 벌거숭이가 되였으니 그 후과가 장차 어떻게 될지 누구도 가량할수 없소.
오죽하면 전하께서 엊그제 친히 흥왕사의 중들을 대궐에 불러들이여 금강경도량(비오기를 빌어 경전을 읽게 하는것.)을 펴시였겠소.
그 마당에서 본관은 숯불에 팔을 태우며 비가 내리기를 안타깝게 빌었소.
나라와 백성의 고통을 다소라도 덜수 있다면 팔이 아니라 온몸이라도 태우고싶은것이 본관의 진정이요.》
성계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조심스레 팔소매를 걷어올리였다.
피딱지가 덕지덕지 엉겨붙은 성계의 시꺼멓게 탄 팔이 드러났다.
박위는 호흡장애같은것이 느껴지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아니, 대감께서 몸소 팔까지 태우시며 기우제를 지내셨단 말입니까?!》
성계는 비통한 음조로 박위의 말을 받아넘기였다.
《어쩌겠소. 그런 일은 절차에도 없는것이지만 속이 끓어번져 견딜수가 없더란 말이요.
공도 알겠지만 원래 기우제라면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고 다섯마리 룡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 련못의 물독속에 도마뱀을 띄워놓고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내여 비를 펑펑 퍼부어야 너를 놓아보내리라.〉 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바라를 치는게 정해진 절차가 아니겠소.
헌데 그 번다한 절차를 꼬박꼬박 다 시행해도 비가 오지 않으니 너무 안타까워 본관의 살을 태워본거요.
애국이 지극하고 애민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응할게라—하고 말이요.》
박위의 가슴은 훗훗하게 더워났다.
리성계야말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불태우는 애국애족적인 관리, 정의로운 인물이라는 의식이 따겁게 속을 파고들었다.

성계는 석쉽한 음성으로 계속하였다.

《…이러한 형세로 하여 본관은 누구보다 박공의 심정을 잘 알면서도 지금 당장 대마도원정건을 들어올릴수 없소그려.

하지만 박공, 원정에 관한 문제는 조속히 전하께 품달하겠소.

이미 전하께서도 알고계시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전면적인 리해가 가도록 두번세번 설유를 해드리겠소.

그러니 공은 절대로 맥을 놓지 말고 이미 경상군영에서 시작한 원정준비를 계속 다그치면서 나라가 허리를 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오.

단언하건대 원정은 반드시 가까운 시일안에 성사될것이요.》

리성계의 속심을 알리 없는 박위는 나라와 백성들의 일을 두고 가슴태우면서도 대마도원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리성계가 눈물겹도록 감사하였다.

박위는 실상 리성계와의 상면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으나 전혀 그것을 감촉하지 못했다.

도리여 격정으로 가슴이 들먹거리여 바이 자신을 진정할수 없었다.

박위는 리성계의 당부대로 나라가 허리를 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원정을 단행하는것이 여러모로 옳을것이라고 자신을 납득시켜버리였다.

그러고도 모자라 박위는 자기자신이 기만과 롱락을 당한 수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란자인 성계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로의 말까지 덧붙이였다.

《대감, 너무 상심마시오이다. 대감과 같은 충신들이 충의로 일관된 정사로 전하를 받들어나간다면 우리 고려국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강성불락의 나라로 다시금 우뚝 솟을것입니다.》

성계는 색날은 전복의 앞자락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일이 자기의 의도대로 결속된것이 저으기 흡족한 리성계였다.

박위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성계의 어깨너머 벽면에 쌍으로 내리드리운 두폭의 족자가 또렷이 안겨왔다.

《충을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죽으리라》,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제몸을 돌본 후에 나라를 다스린다)

초자로 휘갈겨쓴 족자들의 글발 역시 성계의 진심을 반영한것이 아

니라 위선과 기만으로 충만된 그의 얼룩진 마음을 가리워주거나 윤색해주는 여러가지 소도구들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박위에게는 그것 역시 성계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생의 의미깊은 병장명계(병풍에 쓴 좌우명)처럼 생각되여 다시한번 크게 감복하였다.

3

개경장안의 언덕받이라고 할수 있는 남산재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예로부터 남산재는 조정의 고위관리들만이 사는 반촌(량반동네)중에서도 으뜸가는 반촌이여서 낮에도 조용했지만 밤에는 더욱 고요했다.

그 고요에 휘감기기라도 한듯 최칠석의 집 사랑방에 주안상을 마주하고앉은 박위와 칠석은 아까부터 덤덤히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주안상복판에서는 울긋불긋한 신선로가 구수한 고기내, 향긋한 양념내를 풍기며 지글지글 끓고있었다.

신선로주위에서는 설리적(소등심살로 만든 소고기산적)과 전유화(물고기지짐), 문어회와 붕어탕, 참대순볶음과 유밀과 같은 상등음식들이 맛스러운 향기와 아지랑이같은 김을 피워올리고있었다.

박위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고 풍성한 주안상을 마주했건만 왜서인지 술을 마시고싶은 의욕이 나지 않았다.

자꾸만 서글퍼지면서 뒤머리가 욱신욱신 들쑤시였다.

과연 무엇때문일가?!

…리성계와 헤여진 뒤 병부로 향하던 박위는 불식간에 속이 허우룩해나면서 무엇인가 마음속의 귀중한 보배를 잃은듯 한 극심한 상실감에 사로잡히였다.

그 어떤 소외감도 떠올랐다.

사실상 박위는 성계에게 모욕이나 무시를 당한 일도 없었고 따돌림

같은것을 당했거나 무엇인가 절취를 당한 일은 더우기 없었다.
아니, 환대라면 환대를 받은셈이였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울적해지고 쓸쓸해지고 공허해지는것인가, 무엇때문에 갑자기 서러워지고 맥적어지는것인가?!…
박위의 걸음은 저도 모르는새 칠석의 집이 있는 송악산기슭으로 꺾어들었다.
경상도군영에는 하루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속을 터놓을수 있는 유일한 지우인 칠석을 만나 울울한 마음을 활활 씻어버리고싶었다.
활달하고 통쾌한 친구의 위로와 조언을 듣고싶기도 했다.
느리게 흐르는 개울물결에 자리잡은 낮익은 반촌에 들어서니 소풍을 하던 동네늙은이들이 그새 칠석은 남산재로 이사를 갔다고 일러주었다.
박위는 그들에게 자세히 길을 물어가지고 남산재로 향하였다.
저녁때건만 칠석은 집에 없었다.
박위는 이미 잘 알고있는 상노아이에게 문을 열게 한 다음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이전과는 판다르게 으리으리하게 꾸려진 넓다란 사랑방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앉은지 얼마 안되여 칠석이가 들어섰다.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사무쳐올라 한참이나 인사말과 그지간의 소식말을 나누고난 끝에 칠석은 화색이 충천하여 제쪽에서 먼저 묻지도 않는 말을 꺼내놓았다.
《해암(박위의 호), 내 지금 좌주(자기가 급제한 과거의 수석시험관.)님댁에 갔다오는 길일세.
오늘이 좌주님의 손자 돌생일이라 우리 문생(과거의 시험관이 급제시킨 사람들.)들이 모두 모여가서 축하를 해주었지.
참말 생일잔치판이 대단하더구만.》
전혀 뜻밖의 화제에 처음 한순간 떨떨해졌던 박위는 인차 그의 말뜻을 가려들었다.
요즘 과거의 시험관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기가 급제시킨 사람들을 문생이라 부르며 아들이나 동생처럼 각근히 대해주고 문생들은 시험관을 좌주 또는 은문이라 칭하며 부모처럼 정성스레 섬기고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꼭 사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옛 인연을 잊지 않고 웃사람, 아래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일을 두고 옳지 않은 례절이라고 탓할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라안팎이 다 복잡한 때 나라일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보다 애써 뛰여다녀야 할 조정의 관리들이 좌주의 손자 돌생일까지 잊지 않고 찾아가 진종일 술상을 껴안고있는것을 정당한 처사라고 볼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칠석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좌주에게 기쁨을 드린것이 무슨 큰 공적이라도 되는듯이 하냥 즐거워하고있지 않는가.

박위는 그때부터 기분이 흐려지였다.

저도 모르는새 비틀린 소리가 흘러나갔다.

《요즘같은 때 개경의 량반들은 좌주의 손자 돌생일까지 꼬박꼬박 찾아가 즐기니 정말 살 재미가 있겠네그려.》

박위의 기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칠석은 흥이 나서 대답했다.

《그럼, 좌주와 문생들사이에 애경(슬픈 일과 경사스러운 일.)간의 인사는 분명해야지 그걸 몰라서야 사람인가.》

《역시 개경량반들의 례법이 다르구만.

하긴 요즘세월에 나같은 쑥이 또 어디 있겠나, 헛허…》

허거프게 웃고난 박위는 무슨 말이든 좀더 짭짤하게 하고싶었으나 그것이 칠석에게 옹졸한 마음의 표현으로 곡해될것 같아 화제를 돌리였다.

박위는 될수록이면 자기의 감정을 섞지 않기 위해 왼심을 쓰며 리성계를 만났던 일과 까닭없이 뒤숭숭하고 울울한 자기의 기분까지 털어놓았다.

화색이 충천하던 칠석의 얼굴색이 금시 컴컴하게 변하였다.

거동조차 전혀 딴사람처럼 이상해졌다.

덤덤히 앉아있던 끝에 마치 성이라도 난것처럼 소리높여 주안상을 재촉하더니 그다음은 꾸며낸듯 한 미소를 띄우며 새삼스레 문안인사 같은것을 늘어놓았다.

《해암, 이게 정말 몇해만이요? 지난 4월에 상경했을 때는 우리 집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내려갔더군.

아무튼 반가우이. 이렇게 불쑥 나타날줄은 정말 몰랐소그려, 헛허.

림진강 봄도 깊어 물가풀도 고울시고
흰모래발 백구백로 한가로이 조은다오
저 멀리 들려오는 노소리에 놀라 깨니
어드메 고기밴고 안개속에 손님 왔네

헛허허… 마침맞게 주안상이 나왔소그려. 자, 오랜만의 상봉을 축하하여 한잔씩 냅세그려.》

칠석은 몸집도 그리 크지 않고 얼굴도 안존하게 생긴것이 어딘가 얌전한 선비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성격은 생김새와 판다르게 소탈하고 대범했다.

장난기도 심하고 시읊기도 즐기는 유쾌한 사람이였다.

헌데 리성계에 대한 말을 듣자마자 전에없이 심중해지더니 좌석의 공기에 맞지도 않는 너스레를 떨던 끝에 시조까지 읊어내리였다.

박위는 아연해났다.

아니, 전혀 처음 보는 칠석의 류다른 언행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칠석은 내가 리성계를 만난것이 불만스러운가? 아니면 리성계에 대한 나의 불만조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여하튼 칠석은 무엇인가 몹시 불안해하고있다, 그래서 누거리광대극같은것을 놀고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요즘세월이 흉흉하고 어수선하다 해도 벗의 진정에는 진정으로 대답하는것이 지우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진정을 토파하는 벗에게 진속을 터놓기 꺼려한다면 그는 벌써 참된 우의를 가진 벗이라고 말할수 없다. …

…그때부터 박위는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별안간에 속이 꽁해진것이 아니라 칠석의 이상한 태도가 섭섭하고 벗에게까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가 서글퍼나서 술도 마시고싶지 않았고 말도 나누게 되지 않았다.

침묵, 침묵, 침묵…

마침내 칠석은 자기의 마음을 소리없이 칭칭 동이는 지루한 침묵이 지겨운듯 짜증어린 어조로 부르짖었다.

《해암, 오랜만에 취하도록 마시자는건데 왜서 술을 들지 않소?》

그제서야 박위는 갑자기 술생각이 난듯 맑은 술이 철철 넘쳐나는 놋주발을 집어들었다.

술을 마시고싶어서가 아니라 술로써 자기의 쓰라린 마음, 허우룩한 마음을 다소라도 가시고싶었다.

박위는 단숨에 주발의 술을 말끔히 비워버리였다.

불덩이처럼 따거운 술이 목을 지지며 굴러내리자 무거운 기분은 가셔지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아프게 뇌리를 조이였다.

박위는 칠석의 속마음을 알고싶었다.

벗의 진정을 느끼고싶었다.

박위는 턱수염에 튕겨난 술방울을 천천히 쓸어내리고나서 고개를 들었다.

《백운(칠석의 호), 나는 그대에게 털끝만 한 거짓도 없이 진속을 다 털어놓았소. 그런데 백운은 나에게 전혀 할말이 없는가본데 그대야말로 이 웬일이요?》

칠석은 너무도 직선적인 박위의 질문이 몹시 난처한듯 어줍은 미소를 띄우며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해암, 오랜만에 조용히 마주앉았는데 반가운 정이나 나누면 그만이지 무얼 자꾸 그런 소리를 하우. 우리 피차 정치에 너무 바투 다가서지 맙시다. 〈하이해후요, 유주내강〉이라는 옛장수의 말대로 술로써 시름을 풀며 그럭저럭 세월을 누벼나가는게 현책일줄 아오.

자, 또 한잔 마시세그려.》

박위는 무엇에 들레이기라도 한듯 번쩍 눈을 치떴다.

이제는 칠석의 너무도 변화된 정신적인 모습이 확연히 가려지였다.

칠석은 의심할바없이 리성계를 두려워하고있었다. 박위 자기를 꺼리고있었다.

그것은 상층권력가들에게는 될수록 밉지 않게 보이는것으로써 자기의 권력과 부귀를 길이 부지해나가려는 이 세월 권력배 일반의 공통된 심리에 뿌리를 둔것이였다.

박위의 속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백운은 이제 와서 나에게도 속을 터놓기가 무척 힘겨운 모양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대의 지기가 아니라 비편하고 부담스러운 객이 아니겠소?》

칠석은 주둥이가 묘하게 꼬부라진 은주전자를 기울이여 술을 붓다말고 황망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 객이란 무슨 소리고 비편과 부담이란 또 웬말이요?!
그거야 롱이라도 지나친 롱이 아니요?》
《백운은 내가 지금 롱을 하고 다닐 경황이 있다고 보우? 또 지금껏 내가 실없는 롱담을 하는걸 본적이 있소?》
주발을 잡으려던 박위의 커다란 손이 허공에서 부르르 떨었다.
박위는 아득히 흘러가버린 옛시절 고향마을에서 나누던 티없이 깨끗했던 우정이 못 견디게 그리워났다.
박위와 칠석은 참대말을 타고 참대칼을 휘두르며 뛰여놀던 소년시절에는 물론 여기 개경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한창나이때도 순진한 소년들처럼 서로 꺼리는것이 없었고 기이는것이 없었다.
네것이자 내것, 네 마음이자 내 마음…
슬픔도 기쁨도 언제나 반반씩 나누어가졌다.
박위가 칠석을 남달리 사랑하는것은 단지 한고향 태생, 유년시절의 흔치 않은 벗이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어릴 때부터 군사를 애중하던 칠석이 (소년시절 칠석은 무관을 지향했으나 아버지의 강권으로 문관이 되였다.), 누구보다 군사를 중시하는 칠석의 마음이 돋우보여서였다.
지나치게 군사일에 끼여든다고 뒤소리를 들을만큼 군사일에 극성스럽게 나서는 그의 마음이 고마워서였다.
리색이 해군력증강을 주장해나섰을 때도 제일선참으로 그의 발기를 지지찬동한 사람이 바로 최칠석이였다.
그런데 그때의 열렬하던 칠석은 어디로 갔는가?
애국이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것이라면 이 세상에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박위의 눈앞에는 예전의 솔직하고 유쾌하고 강직한 최칠석이가 아니라 조정의 벼슬살이속에서 조약돌처럼 동그랗게 다듬어진 꾀발발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최칠석의 탈을 쓰고 앉아있는것 같았다.
서글프고 괴로운 마음탓인지 사랑방의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는 은주전자며 옥차종, 은향합, 옻칠을 먹인 문갑따위의 값비싼 기물들마저 야릇한 혐오감을 자아냈다.
번들거리는 벽장에 아직까지 붙어있는 춘축(립춘날 새봄을 축하하여 대문이나 문설주, 벽장 같은데 써붙이는 글)의 《수여산 부여해》

(오래 살기를 산과 같이, 부유하기를 바다와 같이 되라), 《립춘대길 건양다경》(봄이 오자 행복이 오고 계절따라 경사가 많다)이라는 글발까지 꼭 칠석의 변화된 인생목표처럼 생각되여 더더욱 쓸쓸해났다.

박위의 낯색을 불안스레 살펴보던 칠석은 공연히 허리를 둘러감은 사치한 슬띠를 매만지며 가까스로 말을 꺼냈다.

《그러니 해암은 그예 송헌(리성계의 호)대감을 다시 만나겠다는거요?》

《만나겠소. 오늘은 내가 정신이 조금 흐려졌댔는지 아니면 도까비한테 홀리웠댔는지 군영에서부터 뼈물러가지고온 말을 절반도 하지 못했소.》

《…내 생각에는 송헌대감과 다시 만나는것은 삼가하는것이 좋을듯 하오.

아니, 대마도원정자체를 당분간 덮어두는게 옳을것 같소.

주역에도 〈때가 행함즉하면 행하고 때가 그침즉하면 그치라〉고 하지 않았소?》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해암, 놀라지 마오. 털어놓고 말해서 지금 조정의 일부 량반들속에서는 경상도원수가 대마도원정준비를 차린다고 하면서 실은 정변음모를 꾸미고있다는 소문이 쉬쉬 돌아가고있소.》

《정변음모?!》

박위는 정변이라는 당치도 않는 소리가 지나치게 들리기는 했으나 그런 생각은 꿈에도 품어본적이 없는지라 전혀 놀랍지 않았다. 허거픈 웃음이 나갈만큼 어이가 없을뿐이였다.

《내가 반정준비를 차린단 말이요?! 헛허허.… 그게야 할일 없는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해보는 소리겠지.…》

박위의 심상한 낯빛을 의아쩍게 쳐다보던 칠석은 한층 긴장된 표정으로 계속하였다.

《글쎄… 아직은 근거없는 랑설이니 해암의 말대로 롱담이라고 할수도 있겠지.

하지만 원정준비의 첫발을 떼기 바쁘게 이런 험한 소리가 나도는데 장차 준비가 성숙되는 경우 어떤 변이 생길지 누가 알겠소.

조정의 기둥뿌리노라고 꺼떡거리며 돌아가던 조민수대감도 하루아침새 떨컥하는판인데 매사를 조심해야 하지 않겠소.

사실말이지 누가 시키지도 않는 대마도원정을 하겠다고 뛰여다니다

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전정을 망친다면 그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전정(앞길)을 망친다?!》

박위는 침먹은 지네모양으로 잔뜩 쭈그리고있던 칠석이가 내놓고 대마도원정을 반대하자 기분이 상하다못해 격분하기까지 했다.

칠석이가 박위의 대마도원정을 애써 제지시키려는것은 자기도 무사하고 박위도 탈이 없게 하려는 의도로서 정의와 진실, 나라와 백성의 고통 같은것은 안중에 두지 않은 자기 보신책에서 나온것이였다.

박위는 이 정도로 생각할만큼 저급하게 변모된 칠석이가 측은해났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둘도 없는 벗으로 믿고 허위단심 찾아온 자기가 새삼스레 구슬퍼났다.

《내 이제야 백운의 진속을 알만 하오그려.

그대가 무엇때문에 송헌대감의 소리를 꺼내기 주저하고 무엇때문에 대마도원정을 한사코 만류하려 하는가를 손금보듯 알만 하단 말일세.

백운은 분명 송헌대감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될가봐 그것으로 해서 자기의 전정을 흐리게 할가봐 그리도 조심을 두는것 같은데…

옳은 처사일세.

요즘처럼 조정의 공기가 어수선한 때 백사만사를 다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듯 조심해야 벼슬자리도 오래오래 지키고 부귀영화도 길이길이 누릴수 있겠지.》

박위의 말속에 심각한 질책과 조롱이 스며있음을 감촉한 칠석은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으나 애써 딴전을 피웠다.

《해암,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오?! 해암이 그만 취했소그려.》

박위는 단정하게 올방자를 고이고앉은채 무겁게 고개를 끄떡거리였다.

《그건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소. 이왕 말부리를 헐어놓은김에 내 몇마디 더 하리다.

솔직히 말한다면 백운은 지금 송헌대감도 무섭고 대마도원정도 두렵고 역적소리가 묻어다니는 이 박위와 술을 마시는것도 껄끄럽할게요.

그대는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변했소?

옛적의 그 정갈하고 의기양양하던 최칠석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요.

하기야 누구를 탓할것도 없지.

요즘 세월이야 묘하게 인생의 노를 저어가면서 자기가 탄 배를 깨

지 않는자가 현명한 재사로 인정되는 때이니 백운도 역시 그렇게 사는거겠지…

하지만 나는 세상이 모두 미련둥이라고 흉을 보고 촌보리동지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옛모양대로 살아가겠소.

내 손으로 내 인생의 보습을 틀어쥐고 험악한 삶의 들판을 갈아엎으며 희망의 씨앗을 묻어나가겠단 말이요. …》

《…》

《하고보면 그대와 나는 물과 불처럼 도무지 어울릴수 없는 사람이요.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도 판판 다른것이 분명하오.

그러니 피차 거치장스럽게 우의라는 화려한 외피는 해서 무얼 하겠소.

속시원히 벗어던지는것이 홀가분할게요. 오늘로써 우리 영영 작별을 합세.

일후로는 내가 다시 이 집에 발길을 안할테니 그러더라도 어찌 생각지 마오.

그렇게 알고 난 그만 가겠소.》

박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혀 뜻밖의 결별선언에 깜짝 놀란 칠석은 반사적으로 튀여일어났다.

박위의 팔소매를 틀어잡으며 노기에 젖어 웨치였다.

《해암, 이 무슨 망녕이요? 취해도 류만부동이고 주정을 해도 한도가 있는게 아니요.》

《취중의 망녕이라면 작히나 좋겠소.

나는 그대에게 더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점잖게 칠석의 손을 털어버린 박위는 사랑채 문을 밀어제끼였다.

그 순간 만월대쪽에서 요란한 폭음이 울리였다.

불시에 궁궐쪽의 밤하늘이 빨갛게 타올랐다. 박위는 문지방을 넘어서다말고 칠석에게 놀란 눈길을 돌리였다.

《이게 무슨 일이요?!》

칠석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나직이 대답했다.

《전하께서 아마 불놀이를 구경하시는 모양이요.》

박위는 더욱 놀라워 커다랗게 눈을 흡떴다.

박위도 궁중의 불놀이에 대해 잘 알고있었다.

연등회나 팔관회와 마찬가지로 오랜 연원을 가진 불놀이는 궁중의

주요행사중의 하나로서 궁중행사전반이 그러하듯 막대한 비용이 드는 놀이였다.
불놀이는 매번 궁궐의 후원과 뒤산에서 진행되는데 후원에서 먼저 석류황, 염초, 반묘, 버드나무재 같은것을 두터운 종이에 싸서 만든 폭발물질을 터친다.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여러 줄기의 불기둥이 솟구쳐 오를 때면 수천개, 지어 수만개의 불화살을 묻어놓은 뒤산마루에도 불이 달린다.
불이 당긴 화살들이 길게 꼬리를 끌며 무수히 밤하늘로 솟구쳐오른다.
밤하늘은 온통 불화살에 덮이여 눈이 시글 정도로 번쩍거린다.
이 정도의 불놀이는 그래도 작은 폭이다.
대판으로 벌릴 때면 이외에도 후원복판에 보퉁이를 매단 장대들을 수없이 세워놓고 불을 다는데 그때면 보퉁이속에서도 불화살들이 홱홱 날아오른다.
돌로 깎아만든 커다란 거부기들의 입에서도 불줄기와 연기타래가 쉬임없이 쏟아져나간다.
그와 동시에 넓다란 풀밭에서 일어난 불길은 마치 화공이 커다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꽃모양, 새모양, 포도송이모양을 그리며 기묘하게 퍼져나간다.
이때라 갈파리떼처럼 쏟아져나온 광대들은 불붙는 풀판을 이리저리 뛰여넘으며 절묘한 춤가락을 펼친다.
임금은 2품이상의 문무량반들과 함께 후원의 솔숲에 들어앉아 향기로운 술을 마시며 밤늦도록 재미있게 불놀이를 구경한다. …
오늘 불놀이도 대판으로 벌어진듯 왕궁쪽에서는 연해 폭발소리가 울리고 련속 불기둥과 불화살들이 솟구쳐올랐다.
왕궁쪽의 하늘은 통으로 타번지는듯싶은데 그 장엄한 화광은 여기 남산재에까지 번뜩번뜩 날아들었다.
하염없이 궁궐쪽의 하늘을 바라보던 박위는 허청비청 퇴마루를 내려섰다.
근래에 이르러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불놀이였다.
헌데 어떻게 되여 세월도 어수선하고 나라와 백성들도 어렵게 살아가는 이때 랑비밖에 가져오는것이 없는 저 불놀이가 다시 생겨났는가.
과연 어느 누가 오늘의 불놀이를 기안하고 추진했는가.

그 사람은 두말할것도 없이 리성계일것이다.

성계는 분명 임금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명목밑에 자기파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저렇듯 야단스러운 놀음을 벌려놓은것이였다.

(아! 단지 몇몇 관리들의 흥과 위세를 돋구기 위해 이 나라 군사들과 백성들이 피와 땀을 몰부어만든 귀중한 화약을 하루밤새 수천근이나 태워버린다는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한심한 일인가.

이제 와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라면 팔이 아니라 온몸이라도 태우겠다던 송헌대감의 말을, 백성들의 생활이 추설 때까지 대마도원정을 미루자던 리성계의 말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박위는 술이 아니라 너무나 무거운 번민에 취하여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대문쪽으로 걸어갔다.

문득 새로 일떠선 도 평의사사의 으리으리한 건물이 우렷이 떠올랐다.

흐리지도 않은 하늘을 쳐다보며 된소나기가 터질 조짐이노라고 탄식하던 끝에 누런 눈물을 줄줄 흘리던 리색의 암울한 얼굴도 생생히 안겨왔다.

화사스럽게 꾸민 방안모양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수하게 차리고 앉아있던 리성계의 모습도 얼찐얼찐 비껴왔다.

침착한 얼굴표정과는 달리 불안과 긴장감을 띄고 쉬임없이 돌아가던 리성계의 쬐어린 눈동자, 나라와 백성들에게 거대한 덕행이라도 베풀듯이 고아대던 그의 열띤 음성도 상기되였다.

리성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간인가?!…

박위는 비로소 자신이 리성계에게 우롱과 기만을 당했다는것을 통감하였다.

그러자 학질에라도 걸린듯 전신이 후들후들 떨리였다.

머리속에서 날벌레의 나래소리같은것이 윙윙 울리였다.

행랑방의 퇴마루에 걸터앉아 연송 탄성을 질러가며 왕궁쪽의 하늘을 재미있게 구경하고있던 여삼은 비틀거리며 걸어나오는 박위를 띠여보자 덴겁을 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곤두박질하듯 달려와 박위를 부축해주었다. 박위는 여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나서 몇번이나 헛발질을 하던 끝에 가까스로 말우에 올라앉았다.

극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안은채 아직도 이글이글 타번지는 왕궁쪽의 하늘을 추연히 바라보던 박위는 제 듣기에도 구슬픈 음조로 옛시 한수를 뜨직뜨직 읊어내리였다.

하늘은 옛하늘 그대로건만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요
달은 명월이로되
사람들은 밝지 못하구나

《어허! 그러니 내 이제 누구와 더불어 대사를 의논하고 누구와 더불어 장부의 큰뜻을 이루리오.》

4

일전에 현중을 치료해준바 있는 늙은 의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든 병은 병자의 육체와 함께 정신까지도 심히 해치는데 그것으로 하여 마음속에 든 병은 육체에 든 병보다 훨씬 더 나쁘고 위험한것이였다.

그 의원의 말은 기실 적지 않게 난해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아주 무시해버릴만큼 허무맹랑한 견해라고 볼수는 없었다.

개경에 올라가 여적 받아본적 없는 심대한 정신적타격을 받은 박위는 군영에 돌아오자 예전의 그라고는 믿기 어려울만큼 과격한 언행으로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현상이 혹시 그 의원이 말한것처럼 마음속에 든 병이 정신까지 침해한 경우라고 봐야 하지 않을가?!…

아무튼 요즘 박위는 별치 않은 일을 놓고도 짜증을 내거나 화증을 터치였으며 뻔드름한 리치앞에서도 생억지를 쓰거나 우격다짐을 들이댔다.

평소에는 위엄기가 있기는 해도 늘 밝은 표정으로 누구나 너그럽게

대해주던 박위, 장교들은 간혹 드세게 다불러대도 군졸들은 하냥 부드럽게 살펴주던 박위가 이 어인 일인가?…
사람들은 모두 뻥뻥해지였다.
단지 어리둥절해지기만 한것이 아니였다.
원체 윤통의 딱딱하고 팩팩한 성미만 겪자고 해도 숨이 가쁠 지경인데 전에없이 드세지고 다급해지고 사나워지기까지 한 박위의 단근질까지 겹하여 당하자니 군사들은 노상 꽁무니에 불이 달려가지고 진둥한둥 드달아다니였다.
이제 와서 장교들은 물론 군사들과 여삼이, 지어 현중이까지 되도록이면 박위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 슬슬 눈치를 살피며 뒤를 사리군 했다.
오천은 된꾸중을 당할것이 두려워선지 아니면 사랑놀음에 더욱 깨가 쏟아지는지 아예 박위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박위자신도 과하다못해 사납게까지 번져가는 자기의 언행이 원정준비를 다그치는 필수적인 방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필경 박위의 가슴속에서 항시 우글거리는 그 어떤 울화와 초조감의 폭발인 동시에 때없이 밀려드는 좌절감과 공허감을 뿌리쳐보려는 충동적이면서도 서뿌른 시도에 불과했다.
박위는 스스로도 자기의 극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불만스러웠으나 그것을 쉬이 시정하거나 다잡을수 없었다.
오늘 아침도 일찌감치 염초장에 나간 박위는 산산하게 식어있는 염초가마앞에 퍼더앉은 구서방을 띠여보자 대바람 불호령을 터치였다.
《이놈들아! 하루 고기잡고 사흘 그물 말리는 격으로 일을 해서야 어느 하가에 염초를 다 뽑는단 말이냐?
이렇게 굼벵이 천장하듯 하다가 일이 터지게 되면 화포속에 돌멩이를 집어넣고 쏠테냐? 고이헌—》
염초장사람들은 경겁을 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뒤구석쪽으로 비실비실 가재걸음을 놓았다.
그래도 말주먹질깨나 한다고 으시대는 옥보가 용케 용기를 내여 박위앞에 다가섰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인네들은 지금 염초감대기가 제때에 썩썩 닿지 못해서 별로 일축을 못내고있습니다.

하오나 이제 감대기만 나지면 밀린 일을 열배로 벌충하겠소이다.》
제딴에는 사리정연하게 염초장의 형편을 알리고 앞날의 결심도 아뢰였다고 생각한 옥보가 자신있게 고개를 들어올리는찰나 머리우에서 다시 천둥이 울었다.
《무엇이 어째? 네 이놈! 지금껏 얻어내지 못한 염초감대기가 불시에 하늘에서 떨어져내린다더냐?
설혹 어느때인가 떨어져내린다 한들 그때까지 너희들은 빈절에 구렝이 꾀듯 모여들어서 그냥 공념불만 하고있을셈이냐?》
옥보의 긴 목이 대번에 쑥 들어가버리였다.
노기띤 얼굴로 염초장안을 휘뚜루 둘러보던 박위는 거친 청으로 말을 이었다.
《오천이란 놈은 어째서 오늘도 보이지 않느냐? 요즘도 되지 못하게 계집을 끼고 산놀이를 다닌다더냐?
워낙 그놈을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못쓰겠구나.
이봐라 여삼아, 이제 오천이라는 놈이 나타나거든 그 당장 오라를 지워서 내 앞에 끌어오너라. 알겠느냐?》
《알겠소이다.》
여삼은 습관적으로 제꺽 대답을 했으나 오천에게 오라를 지우라는것은 너무도 난처한 분부라 얄팍한 입술을 헤벌린채 말뚝처럼 굳어져버리였다.
구서방을 위시한 염초장사람들의 얼굴도 하얗게 질리였다.
이어 배무이장으로 나간 박위는 거기서도 또 한바탕 야단복장을 놓았다.
《이게 도대체 어느때부터 시작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배는 보이지 않고 왼통 뼈다귀같은것들만 널려서있느냐.
네놈들은 밥이 아니라 거미장을 지져먹고 나와서 일을 하느냐?》
그러자 된욕도 잘 타지 않고 조롱이나 야유 같은것도 시물시물 웃어넘기군 하는 키 꺽두룩한 군졸 하나가 말코를 벌름거리며 자신있게 박위앞에 나섰다.
그는 어느 대가집에서 주로 목수일을 하다가 군졸로 뽑혔는데 신통치 않은 목수재간이 장교들의 눈에 걸리여 곧장 배무이장으로 떠밀려나온 사람이였다.

막생기기는 했으나 무척 선량해보이는 그는 노상 셈평이 유하여 동료들로부터 《만사태평》이라는 별명을 얻어가지였다.

박위앞에 나선 지금도 그는 별로 놀라지 않고 한없이 느려빠진 어조로 태평스럽게 대답했다.

《황공하오나 지금처럼 일이 더디되는것은 소인네들이 거미장을 지져먹은탓이 아니오라 배무이재로 쓸 나무가 속속 닿지 못하는 까닭이오이다.

소인네들도 너무 안타까워 어제 중낮에는 배무이재로 쓸만 한 상무리나무(너도밤나무)가 한벌 쭉 깔려있다는 쇠풀골로 밀려갔댔소이다.

헌데 관가의 아전들이 미리 쇠풀골에 결진을 하고있다가 〈이곳의 나무는 동헌개축에 쓸것이니 다치지 못한다.〉고 욱대기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되밀려 왔소이다.》

《만사태평》의 다소 능갈친 대답말이 끝나기 바쁘게 박위는 벌컥 화증을 터치였다.

《에끼! 순 밥병신같은것들! 도끼를 둘러메고 산에까지 갔다가 관가것들에게 쫓겨서 되온단 말이냐!

그래 네놈들은 전함을 뭇는 일이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란 말이냐?

페일언하고 오늘 해중에 쇠풀골의 나무를 말짱 베다가 내앞에 쌓아놓아라.

그렇지 않다간 네놈들의 다리정갱이를 죄다 분질러내칠테니 그리 알아라!》

일이 늦어진 책임을 슬그머니 관가 아전들에게 넘겨씌우려던 《만사태평》은 금방 어깨가 축 꺼져내리여 뻐꾹소리 한마디 잇대지 못했다.

군사들이 저들끼리 웅성거리며 뿔뿔이 흩어져가자 박위는 할바를 망각한 사람마냥 우두커니 굳어져버리였다.

가는 곳마다 호령을 터치고 을러멨으나 속은 조금도 개운해지지 않았다.

아니, 갈수록 더욱 답답해나고 무죽해났다.

박위의 눅눅한 뇌리속으로는 불현듯 개경에 갔을 때 군자시(군수품의 저장보관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에 잠시잠간 들리여 목격했던 그곳 량반들의 유들유들한 모습이 떠올랐다.

…박위가 군자시대문안에 들어서니 앞마당 구석에 박혀있는 향오동

나무밑에서 한유하게 바둑을 두고있는 군자시량반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얼추 보아도 몸이 너무 나서 숨이 차보이는 소윤(군자시의 벼슬아치)은 박위를 띠여보자 어색해하거나 당황해하기는커녕 태연하게 인사말을 건네고나서 다시 바둑판에 고개를 구겨박았다.

이 소윤이라는 작자가 바로 구워서도 데쳐서도 먹을수 없는 소가죽같이 질긴 사람이요, 능구렝이같이 흉물스러운 인물임을 박위는 이미 알고있었다.

박위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으나 딱히 책 잡을 건덕지도 없고 그럴만한 상대도 아니여서 끓어오르는 부레를 애써 눌러참았다.

바둑판에 다가선 박위는 눈앞으로 날아드는 한쌍의 노랑나비를 휘휘 밀어던지고나서 찾아온 연유를 꺼내놓았다.

《소윤, 상경했던 길에 우리 군영에 화약을 좀 돌려줄수 없겠는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소.

그래 어떠시우? 군자시의 화약형편이?…》

소윤은 개기름이 번질거리는 살집좋은 얼굴을 바둑판우에 드리운채 배포유하게 대답했다.

《화약광이 동이 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화약소리를 하시우? 허허 참.》

박위의 속에서 주먹같은것이 불끈 치밀어올랐다.

《아니, 어제 밤 불놀이때에는 숱한 화약이 터지던데… 그게 여기서 나간게 아니란 말이요?! 그게야 오늘 죽은 사람 어제 장례지냈다는 소리나 비슷한 말이 아니요?!》

박위는 다소 흥분하기는 했으나 자기가 극력 삼가해야 할 말을 꺼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최칠석이같은 사람조차 매사에 조심을 두고 사는 요즘세월에 거의나 파악이 없는 군자시량반들앞에서 임금과 리성계를 념두에 두고 시비를 캔다는것은 저으기 위험한 일이였다.

그러나 박위는 자신을 후회하지 않았다.

사나이로 세상에 나서 진실을 말하기도 두렵고 속생각을 터놓기도 무섭다면 과연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아니, 그건 대체 뉘게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나다를가 소윤은 박위의 말꼬리를 후리쳐잡더니 염소눈처럼 노

란 눈알을 디굴리며 고개를 들었다.
《박장군도 병이나 재앙이 입을 거쳐 들어온다는 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궁중행사에 쓰인 화약을 두고 옴니암니 시비를 캐서야 일이 되겠소?
그리구 군자시의 업무는 병부에서 간참할 일도 아니고 군영의 일개 원수가 캐고 따질 문제도 아니요.
어련하겠지만 일후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은 삼가하는게 좋을듯 하오.》
소윤은 제법 훈계조로 오금이라도 박듯 말했다.
그의 속심인즉 임금과 리성계의 위엄을 빌어 올적마다 시끄럽게 구는 박위를 한시바삐 떠밀어보내려는것이였다.
박위는 소윤의 내속이 빤히 들여다보였으나 새암바리계집처럼 속이 꼬부라든 그와 시야비야 하고싶지 않았다.
박위가 제일로 관심하는것은 역시 화약이였다.
《그러니 우리에게 줄 화약은 한근도 없다는 말이겠소?!》
《그렇소. 쌓아놓고 주지 않는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겠단 말씀이요.》
소윤은 다시금 잔뜩 가로꿰진 소리를 하고나서 바둑판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박위는 속이 왈칵 치밀어올랐다.
군자시량반들의 너무도 무책임하고 라태한 태도를 그냥 내버려둘수 없었다.
《여보 소윤,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왜구들의 침노가 그칠새 없어 매일과 같이 백성들의 원성과 곡성이 랑자한데 공들은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면서 모든 허실을 말휘갑질로 굼때려 하니 이래서야 되겠소?》
《아니, 말휘갑질이라니 그건 누구보고 하는 소리요?》
다시 고개를 쳐든 소윤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튕기였다.
박위는 소윤을 맞바로 쳐다보며 더욱 청을 높이였다.
《누구긴 누구겠소? 바로 당신보고 하는 소리요.
사실말이지 당신들처럼 한유하고 무사태평한 무관들이 이 나라에 천이 있으면 무엇하고 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요?
우로는 비위를 맞추고 아래는 내리누르며 잡스러운 놀음으로 허송

세월하는 당신들같은 무관들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왜구를 잡지 못하고있는게요.

전하의 대해같은 은혜를 입어 조정의 벼슬을 하고 나라의 록을 타는 당신들이 오늘날 정녕 이렇게 살아야 옳겠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려고 기회를 노리던 소윤은 독기서린 눈길을 스르시 내리깔았다.

같지않은 시골의 무관따위가 으르딱딱거리는 꼴은 장히 비위에 거슬렸으나 아침부터 관청앞마당에 바둑판을 펴놓은것은 역시 떳떳치 못한 일이였다.

자칫하다가는 도리여 박위에게 뒤덜미를 잡힐것 같았다.

소윤은 슬며시 고개를 외로 비틀며 쑤얼거리였다.

《…하도 속이 답답해서 바둑판을 펼쳤던것인데 책망이 너무 과하구려.

우리도 판을 거둘테니 장군도 그쯤해주시우.》

소윤의 말투는 뻣뻣하고 유들유들했으나 한손접고 물러서는 뜻이 분명했다. 사실 이들과 더 말해봤대야 리속은 없고 속만 더 졸아들것 같았다.

박위는 건성으로 작별인사를 나누고나서 군자시를 나섰다.

그 걸음으로 공조서(왕정귀족들의 각종 가구제작을 맡은 관영 수공업장)뒤쪽에 무성한 살구나무로 담을 두른 최무선의 집으로 갔다.

수년전 력사적인 진포해전을 준비할 때부터 친교를 가지고있던 최무선에게 화약을 부탁해보려는것이였다.

최무선은 화약과 화포를 발명한 학자인 동시에 라세장군과 함께 진포해전에 부원수로 참전하여 왜구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한 유명한 군사지휘관이였다.

박위가 무선의 조촐한 사랑방에 들어서니 왕년의 혈기방장하던 장군은 로환으로 앓고있었다.

허나 로인의 애국적열정과 기개는 예나 다름없이 펄펄했다.

그는 박위가 화약소리를 꺼내자마자 이마를 동이였던 수건을 풀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소의 침착하고 안존한 성미와는 달리 분주스럽게 설치고 돌아갔다.

하인들을 시켜 자기 집의 화약광을 반반히 쓸어내게 하는가하면 화통도감으로 사람을 띄워 자기의 옛 직분과 명망으로 얻을수 있는껏 화

약을 가져오게 하였다.
로인의 성의와 수선에 비해 모아진 화약은 많지 않았으나 그 화약에는 분명 최무선의 뜨거운 애국심과 변함없는 우의가 어려있어서 바라볼수록 가슴이 미여져올랐다.
박위는 거듭 사의를 표하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최무선은 고집스럽게 박위를 눌러앉히더니 빈한한 자기 집 살림을 털어내다싶이 하여 주안상을 차리게 했다. 차려내온 주안상은 그런대로 풍성해보였으나 무엇인가 못마땅하여 서성거리던 최무선은 터밭에 나가 수전증이 이는 손으로 오이와 참외를 한아름이나 따들여왔다.
칠석의 집에서는 수라상같은 주안상을 마주하고도 칠석의 어질더분해진 속마음이 가슴에 마쳐와 쾌하게 술을 마실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세월의 풍랑속에서도 변함없는 로인의 성실하고 정갈한 마음이 가슴을 지지여 쉬이 술을 넘길수 없었다.
무선은 병환으로 하여 전혀 술을 마시지 못했으나 술마신 사람보다 더 흥분하여 대마도원정을 기어이 승리적으로 단행할것과 예전에 자기가 부리던 오천을 부디 잘 키워줄것을 재삼재사 당부했다.
박위는 석양이 비낄무렵에야 무선의 집을 나섰다. 개경에 올라온 뒤 내내 무거운 기분에 짓눌려있던 박위는 무선의 집에 와서야 비로소 한가닥의 기쁨과 환희를 맛볼수 있었다. …

5

맴 매앰 맴—
느티나무의 우듬지에서 귀따거운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리고있었다.
그 자지러진 소리에 그만 기혼이라도 하였는지 이따금 나무가지속에서 손가락만큼이나 큰 청벌레들이 뚝뚝 떨어지였다. 징그럽게 구불거리며 나딩굴었다.

박위는 아까부터 누구인가 자기의 등뒤에서 서성거리고있다는것을 감촉했으나 깊은 고뇌에 눌리워 그에 관심을 돌릴수가 없었다.
한참후에야 사색에서 채 헤여나지 못한 흐릿한 시선을 등뒤로 돌리였다.
뜻밖에도 부원수 윤통이 시꺼먼 얼굴을 짓수굿한채 무슨 생각엔가 옴해있었다.
윤통이가 사색에 잠긴것도 의아했지만 그의 얼굴이 흐려있는것도 의아쩍었다.
내내 호랑이의 간이라도 빼올것처럼 딩딩해서 돌아가던 그가 어떻게 되여 갑자기 후줄근해졌는가.
박위는 부드러운 어조로 나직이 물었다.
《부원수는 어디 갔다오는 길이요?》
《둔전을 한바퀴 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윤통의 말소리는 첫술부터 곱지 못했다.
(둔전을 돌아보았다?!)
박위의 기분은 삽시에 흐려지였다.
박위는 요즘 군영군사들 거의 전부가 둔전에 붙박이로 나가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신입군졸들까지 교련을 전폐하다싶이하고 수수밭으로 밀려다니는것을 볼 때마다 박위는 어느때든 한번 윤통을 단단히 책망하리라 벼르군 했다.
허나 요즘 줄창 바다가에 나가 살다싶이 하는데다 기분 또한 무겁고 착잡한 까닭에 윤통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까박까박 잊어버리군하여 지금껏 벼르기만 하고 추궁을 하지 못했었다.
윤통이자신이 제발로 찾아와 둔전소리를 꺼림없이 꺼내놓는 지금 더이상 태만에 가까운 그의 과실을 용허할수 없었다.
노상 속이 시꺼멓게 타있는 박위라 입을 여니 대바람 몰풍스러운 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그러니 여직껏 수수밭 김은 채 잡지 못했단 말이겠소?!》
《예, 보리농사라는건 한해농사가 시원치 못해 태반이 쭉정이라 골라골라 베느라니 자연히 일이 더디되고 수수밭이나 조밭은 범이 새끼를 칠 지경으로 풀이 무성해서 썩썩 일축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이 끝나겠는지 아직은 걸가량도 할수 없습니다.》
윤통은 아무런 자책감도 없이 제쪽에서 도리여 못마땅한투로 대답했다.
《그러니 부원수는 군사들을 장참 둔전에만 비끄러매둘 심산이요?
우리 군사들을 전부 농군으로 돌려앉힐 작정인가 말이요?》
《그럴리야 있습니까. 군사들의 수효는 날을 따라 늘어나는데 관가에서 보내주는 군량으로는 어방없이 모자라니 자연 농사일에 무관할수 없습니다.
군사들도 우선 먹어야 사는게고…》
박위는 뒤로 돌려잡았던 주먹을 앞으로 쭉 내뻗치며 윤통의 어정쩡한 소리를 중도에서 무질러버리였다.
《여보 부원수, 군사는 먹자고 사는게 아니라 싸우자고 먹는게요.
농사일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싸움준비보다 더 중할수는 없소.
나는 우선 부원수의 전에없던 그 태만이 리해되지 않소.
농사일같은거야 번을 짜서 교대로 하든가 싸움에 나설수 없는 나배기군사들을 따로 골라 시킬수도 있는데 무엇때문에 참깨, 들깨 다 섞어가지고 한대중으로 내모는거요? 우리 군사들은 태반이 신출내기들인데 활이나 검이 익숙치 못한 손에 다시 호미, 낫 같은것을 한가득 들려놓았으니 이제 싸움이 나면 농쟁기들을 휘두르게 하겠소?
부원수가 그런 리치를 모를 사람인가?
대체 어떻게 되여 그런 암담한 생각을 가지게 되였소? 우선 그것부터 말 좀 해보우.》
윤통의 거무틱틱한 얼굴에 다시 못마땅한 기색이 뚜렷이 떠올랐다.
박위는 근간에 이르러 너무나 달라진 윤통이 불만스럽기 전에 무척 의아쩍었다.
(사람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조급하고 팩팩하기는 하나 진실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부원수가 어째서 이렇게 엇드레질, 뜸베질을 하는가?
윤통이 워낙 그런 사람인것을 내 여직껏 가려보지 못했는가?…)
이 시각 윤통은 윤통이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중난한 번민에 시달리고있었다.
얼마전 윤통은 삼촌의 졸곡제사(죽은지 석달만에 지내는 제사)를 보

려고 창원에 내려왔던 최칠석의 하인으로부터 칠석이가 보내는 비밀한 편지를 받았었다.

윤통은 최칠석이가 현임재상이요, 자기의 삼촌인 윤소종의 문생인것으로 하여 대강 면목은 알고있었다.

하지만 칠석은 어디까지나 박위의 벗이였다.

헌데 칠석이 무엇때문에 박위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것도 비밀히 편지를 보낸단 말인가?…

칠석의 편지는 대략 이러했다.

《…부원수도 잘 알다싶이 해암은 나의 둘도 없는 지우지만 그에 앞서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기둥뿌리 장수들중의 한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해암을 모해할 목적으로 괴이한 소문을 지어 돌리고있소.

소문인즉 박위가 대마도원정준비를 차린다는 허울뒤에서 왕권을 뒤집어엎을 반정을 준비한다는거요.

나는 물론 그따위 헛소문을 절대 믿지 않소만 조정백관의 심정이 다 나와 같을수야 없지 않소.

소문이 돌고돌던 끝에 그것이 조의(조정의 견해)처럼 굳어진다면 장차 어떤 화단이 생길것인가는 부원수도 십분 짐작할게요.

지금 나도는 소문만 해도 아짜아짜한데 요즘 군자시의 소윤이 들고일어나 박위가 군자시관리들을 참혹하게 모욕하던 끝에 임금과 리대감을 비방하였다고 먹어대여 일은 한층 더 복잡해질듯 하오.

…내 이미 해암이 개경에 왔을 때 원정준비를 일시 덮어두는것이 좋으리라고 권유했으나 종시 받아들이지 않았소.

아니, 도리여 절교를 선언하는것으로 가슴아픈 대답을 하였소.

해암의 성격이 강직함은 이미 알지만 그렇게까지 강경하고 무자비하게 나올줄은 미처 예기치 못했댔소.

…누가 뭐라든 나는 여전히 해암을 나의 소중한 지우로, 이 나라의 귀중한 장수로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오.

부원수의 심정 역시 나와 다를바 없으리라 생각하오.

하오니 부원수가 해암의 곁에서 사사건건 심중히 조처하여 모쪼록 불길한 일이 나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오.

물론 해암은 쉽게 자기의 결심을 철회하려 하지는 않을거요.

그렇다고 하여 해암의 머리우에 날벼락이 떨어질것을 번연히 알면서 곱게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한다면 그대나 나나 어찌 우의와 도의를 아는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소.
나는 물론 여기서 할수 있는껏 일을 바로잡아보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부원수가 더 애를 써야 할줄로 아오.
되도록이면 원정준비를 뒤로 미루게 함으로써 박장군의 창창한 앞길에 사소한 랑패도 없도록 해주오. …》
편지를 다 읽고난 윤통은 너무나 기가 막히여 한참이나 후들후들 몸을 떨었다. 박위에 대한 칠석의 우의에 감동되기 전에 박위를 모해하려 한다는 은폐된 음모군들이 찢어발기고싶도록 가증스러웠다.
(아마 나만큼 박장군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게다.
헌데 그리도 나라일, 군사일에 극성이고 그리도 사람들앞에 결곡한 박장군이 역신음모를 꾸민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대체 어떤 개아들놈이 그따위 말방귀같은 헛소문을 지어냈을가?…
가만있거라, 그게 혹시 조호백의 작간이 아닐가?!…)
윤통의 창끝처럼 날카로와진 신경은 아무런 론리적련관도 없이 호백이쪽으로 쏠리였다.
그러자 대뜸 호백이가 헛소문을 날조하여 조정에 꽂아넣었을것이라는 제나름의 견해가 굳어지였다.
당장 읍으로 짓쳐나가 호백의 멱살을 끌어내고싶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개 고을의 관장을 마구다지로 죄인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절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라던 칠석의 당부도 무시할수 없었다.
강렬한 흥분이 조금 가라앉자 이번에는 박위에 대한 경탄이 새삼스레 솟아올랐다.
(그러니 박장군은 조정에서 나돈다는 험한 소문을 알고있으면서 아무 내색없이 원정준비를 계속 내밀고있지 않는가!…
조정의 여론이 심화되면 자기의 신세를 망치게 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로 박위라는 인간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로다.
헌데 그처럼 강건한 장수가 터무니없는 협턱을 쓰고 군직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밀직부사나 내가 가슴아픈것은 차치하고 우리 고려군에

얼마나 큰 손실인가!…

절대로 일이 그렇게 번져지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온몸을 내대서라도 박장군에게 밀려드는 음산한 비구름을 제껴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밀직부사의 말대로 원정준비를 당분간이라도 덮어두게 하는것이 상책인데 박장군이 내가 권유한다고 하여 쉽사리 마음을 돌려먹겠는가?…)

윤통은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대마도원정의 제창자, 지휘자는 어디까지나 박위인것만큼 그 어떤 변이 생긴다면 모든 죄는 박위에게 쏠리기마련이였다.

그런데다 윤통의 가문은 대대로 개경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는 문벌좋은 집안이였다.

윤통의 당삼촌인 윤소종만 놓고봐도 그는 현재 조정의 재상으로서 리성계의 각별한 애중을 받는 뜨르르한 량반이였다.

물론 윤소종은 제 조카를 가문에 없는 무식한 무관놈이라고 실큼하게 여기고 윤통은 저대로 제 삼촌을 권력자의 사타구니에 붙어 대궁밥을 얻어먹는 비루한 인간이라고 시큰둥하게 여기는 까닭에 두사람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허나 그들의 관계가 어떠하든 지금 한창 기름진 몸뚱이에 날개까지 돋혀가지고 무서운것없이 퍼덕거리는 재상의 당조카를 해치려고 날뛰는 얼빠진 작자는 없을것이였다.

하기에 윤통은 오직 박위의 운명을 두고 머리를 썩이였다.

그러던중 마침내 제나름의 그럴사한 궁냥을 떠올리였다.

다음날부터 윤통은 자기의 궁냥을 행동으로 옮기였다. 그는 우선 수하의 군사들을 김매기와 가을을 핑게로 전부 둔전에 내몰았다.

벼락에는 바가지라도 뒤집어쓴다고 지금 당장 원정준비의 분위기를 다소라도 해소시키려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했다.

그 다음은 박위에게 이른바 최후통첩을 들이댈판이였다.

헌데 최후통첩이라는것이 자기의 진심에서 우러나온것이 아니라 순수 전략적인 수단에 불과한것이라 정작 실행하자니 솔직하고 고지식한 윤통으로서는 여간만 괴롭지 않았다.

며칠을 바재이던 윤통은 박위를 주저앉히려면 최후통첩을 하는 외

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재삼재사 자신을 납득시키고나서 오늘 드디여 박위앞에 나선것이였다. …

…헌데 정작 박위와 마주서고보니 자기의 최후통첩이라는것이 그지없이 범박하고 유치한 아이들의 놀음같은것이여서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다 박위가 먼저 둔전문제를 걸고 된우박을 퍼붓자 천백번 정당한 그의 추궁에 대거리도 할수 없었고 최후통첩은 더구나 꺼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윤통은 누구앞에서나 자기 할말은 하고야마는 사람이였다.

이 마당에서 마음을 늦추고 뒤로 물러선다면 자기의 비밀한 작전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것이였다.

모질게 마음을 도슬러먹은 윤통은 마침내 짓물었던 입술귀를 풀며 최후통첩의 서두를 뗴놓았다.

《하관은 지금까지 장군의 높은 뜻과 강건한 의지를 누구보다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관의 마음은 이제 와서 전혀 달라졌습니다.》

윤통의 착잡한 심사와 비밀한 궁냥을 알리없는 박위는 그의 단도직입적인 소리에 흠칫 놀라기까지 하였다.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요?!》

워낙 말주변이 없는 윤통은 이렇다할 전제도 없이 제창 문제의 정면으로 돌입했다.

《지금 조정에서는 우리 군영의 원정준비를 두고 반정준비라 한다는데 어쩌면 그럴수 있습니까!

옛적부터 도와주는 손은 적고 시비하는 입은 많다고 하지만 이건 시비를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박위는 윤통의 전에없던 언행이 어디에 뿌리를 둔것인지 비로소 환하게 헤아려지였다.

윤통이 어디서 반정소문을 얻어들었는지 자못 의문스러웠다.

이제 그 소문이 군영에 퍼지여 장교들과 군졸들까지 알게 되면 위불없이 그들의 기세도 쭈그러들것이라고 생각하니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흥분한 윤통은 점점 더 청을 높이였다.

《하관은 참을수 없습니다. 더이상 데데한 소문을 뒤에 달고 다니

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원수는 어쩌겠다는거요?》
박위의 청수한 얼굴은 컴컴하게 흐려들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부드러웠다.
윤통은 커다란 주먹으로 허공을 꾹꾹 찌르며 다시 말을 잇는데 지나치게 흥분한탓인지 그의 말은 박위의 물음에 전혀 동닿지 않았다.
《우리가 대마도를 공격하자는것은 국치를 씻고 국난을 막으며 국명을 떨치자는건데 여기에 어떻게 역적모의라는 딱지가 붙을수 있습니까?》
《부원수, 우리의 뜻이 정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결백한데야 무엇이 두려울것 있소?》
《아무리 뜻이 정당하고 마음이 청청하다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때문에 하지 않아도 별일 없을것을 부둥부둥 하겠다고 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험한 험턱을 들쓰고 신세를 망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원수는 헛소문이 무서워서 원정을 포기하자는거요?》
《포기하자는게 아니라 껄렁한 소문이 잦아들 때까지 덮어두자는겁니다.》
《명백히 말해두오만 원정준비는 순간도 덮어둘수 없소.》
《그렇다면… 하관은 소지(관청에 내는 글)를 바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구?!》
박위는 너무도 예상밖의 타격에 그만 신음소리같은것을 흘리며 입을 딱 벌리였다. 눈앞이 잉그르르 돌아갔다.
윤통의 시꺼먼 얼굴이 둘 혹은 셋으로 보이였다.
지금까지 자기의 오른팔로 확고하게 믿어온 부원수가 정면으로 원정준비를 반대하던 끝에 모든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할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박위였다.
과연 복은 외곬으로 오고 화는 쌍으로 든다고 한 옛사람들의 말은 틀린것이 아니였다.
리성계를 위시한 조정의 일부 량반들은 원정준비를 도와주기는커녕 요리저리 발뺌을 하고 지어 엄청난 모해까지 하려드는데 누구보다 든

든하게 자기 뒤를 받쳐줄줄 알았던 윤통은 주저없이 탈퇴를 선언하지 않는가.

너무도 가혹한 타격이였다.

외로운 섬에 홀로 남은듯 한 극심한 소외감이 몰밀려들면서 전신의 기운이 와르르 풀리였다,

박위는 긴숨을 내불며 멀리 바다가쪽으로 시선을 날리였다.

(인간이란 결국 이런것인가. …

유리한 형세가 조성되면 허장성세하며 분주를 피우다가도 불리하거나 위험한 때에 닥치면 아던정 보던정없이 뒤를 사리는 비루하고 비겁한 존재란 말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윤통이가 어쩜 이럴수 있는가. 아니, 어쩌면 윤통의 사고방식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대마도원정은 누가 시킨것도 아니요, 누가 간절히 원하는것도 아니다.

무엇때문에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어는 역신의 혐턱까지 들쓰며 끝끝내 고집하겠는가.

이미 백운이 권하였고 지금 윤통이가 주장하는대로 원정을 일시 덮어두거나 포기한다면 나의 육신은 편할것이다.

벼슬자리를 길게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부귀를 누릴수도 있으리라.)

박위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준수한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다.

안해 최씨와 리옥의 아름다운 자태도 방불하게 다가왔다.

죽촌의 저대로인과 《두부자루》고들이, 백동이 엄마라 부르는 젊은 녀인의 파리한 얼굴모양도 연줄연줄 솟아올랐다.

그들모두는 자기의 개성적인 표정과 각이한 거동으로 무엇인가를 소리없이 격렬하게 호소하고있었다.

박위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번쩍 눈을 치떴다.

절로 도리머리가 힘차게 저어지였다.

(아니, 그래서는 안된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도 가정도 티끌처럼 바칠것을 맹세하고 검을 잡은 내가 시련과 난관이 닥쳐왔다 하여 겁을 먹고 물러선다면 어느 누가 나를 일러 이 나라의 뜻있는 사내라 하겠는가.

가자, 나 혼자서라도 기어이 가자.
걸음걸음 죽음이 뒤덜미를 당기고 시시각각 츠렁바위, 가시덤불이 앞을 막는다 해도 변함없이 완강하게 돌진해나가자.)
불시에 성이라도 난것처럼 윤통이쪽으로 홱 돌아선 박위는 준절한 어조로 그루를 박아 말하였다.
《부원수의 결심이 진정 그러하다면 내 말리지 않겠소.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설사 죽음이 닥친다 해도 절대로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테니 부원수는 마음이 내키는대로 하오.
누구보다 깊이 믿었던 또 한사람의 장수가 나와 뜻을 달리한다는것은 그지없이 애석한 일이나 나는 여직껏 마음에 없다는 사람을 억지로 비끄러매둔적은 한번도 없소.》
《아니, 그러니?!…》
이번에는 윤통이가 깜짝 놀라며 떠드박거리던 끝에 종시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사실 윤통은 자기가 사퇴를 원하는 소지를 바치겠다고 하면 박위가 펄쩍 뛰며 팔소매를 당길줄 알았다.
원정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는다 해도 (원정의 완전한 포기는 윤통이자신도 절대로 바라지 않았다.) 음험한 소문이 잦을 때까지 원정준비를 얼마간이라도 덮어두자는 의견은 따를줄 알았었다.
헌데 박위는 여전히 강하게 원정을 주장할뿐아니라 자기의 손을 끌어당기기는커녕 무슨 배신자를 따버리듯 주저없이 결별을 선언하는것이 아닌가.
윤통은 애초의 궁냥이 빗나간것이 아쉽기 전에 서슴없이 자기를 털어버리는 박위의 소위가 원망스러웠다.
무엇인가 억울하기도 하였다.
(박장군이 어쩌면 이럴수 있는가.
아무리 내가 소지를 바치겠다고 한들 한마디의 만류도 없이 대뜸 찬성을 하고 결별을 선언한다는것은 인정으로 봐도 너무 박절한 처사가 아닌가.
그러니 박장군은 이 윤통을 지금껏 그렇게 헐값으로 여겨왔는가?…)
박위에 대한 원망이 한물 슬어들자 이번에는 연하게나마 자기반성감이 떠올랐다.

(나는 우선 박장군을 원망하기 전에 그의 믿음을 도용하여 속에도 없는 최후통첩을 꺼리낌없이 뇌까린 나자신의 너절하고 고약한 심보를 꾸짖는게 옳지 않을가?…)

윤통은 눈살을 찌프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무엇인가 남에게 몹쓸짓을 하고난것처럼 기분이 찜찜했다.

대마도원정을 두고 주야로 애면글면하는 박위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에게 또하나의 아픈 상처를 새겨준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그러자 필사의 의지로 기어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는 박위의 인품이 더욱 돋우보이였다.

그만큼 박위의 운명이 불안스럽기도 했다.

윤통의 발밑으로는 하얀 알을 입에 문 개미들이 길다랗게 행렬을 지어 질서있게 이동하고있었다.

얼마 안있어 비가 내릴 조짐이였다.

6

아침나절이였다.

대기는 싱그러운 여름내에 푹 젖었는데 대문너머 느티나무의 상가지에서는 방금 잠에서 깨여난 뭇새들이 밤새 저들의 목청에 별다른 고장이 생기지 않았는지 시험이라도 해보는듯 연해 짹짹 우짖고있었다.

자연은 이 땅우에 또 하루의 신선한 아침을 유감없이 펼쳐놓았으나 군영의 장군막 앞뜰에는 사뭇 험악한 공기가 떠돌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 아침, 장군막 앞뜰에서는 근래에 이르러 군영의 군기를 심히 문란시킨 오천을 징계하는 의식이 펼쳐진것이였다.

대청마루에 교자를 내다놓고앉은 박위는 엄엄한 시선으로 웅기중기 모여선 장졸들과 그들앞에 볼기를 까뭉개고 엎드린 오천을 휘뚜루 살펴보고나서 고개를 들었다.

아침나절의 느긋한 바람에 박위의 윤기도는 검은 채수염이 보기 좋

게 휠휠 나붓기였다.
박위는 자그마한 입술을 아프게 옥문채 무엇때문인지 자꾸만 물러지려는 자기의 마음을 조여잡느라고 무진애를 쓰고있었다.
최무선이 만날 때마다 잘 키워달라고 신신당부하던 오천이.
자기 역시 한때는 남달리 사랑하고 중히 여겼던 오천이.
그러나 누구의 당부가 어떻든 자기의 예전의 사랑과 믿음이 어찌됐든 현재의 오천은 최무선과 자기의 기대를 저바린 인간, 군기를 문란시킨 죄인이였다.
(자고로 군대안에 군기가 해이되면 군사들의 검에 녹이 오르고 군사들의 검에 녹이 쓸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하거늘 그가 누구든 군기를 문란시키고 군무를 태공했다면 가차없이 벌을 내려야 한다.
죄는 오로지 벌로 다스릴뿐이다.)
결심을 다진 박위는 형형이 빛나는 시선을 대문너머 느티나무쪽으로 보내며 청청한 목청을 터치였다.
《모두들 듣거라. 저 오천이란 놈은 명색이 염초장을 책임진 대정으로서 의당 맡은 중임을 옳게 거행했어야 했노라.
하지만 오천은 염초장일을 자행자지(제 마음대로 했다말았다 한다는 뜻.)하는것은 물론 록산과 죽촌, 구렁과 가야를 비롯한 여러 촌촌과 봉은사와 천관사를 위시한 여러 절간들을 쏘다니며 군기와 군무를 태공하고 원정준비에 막중한 해를 끼쳤노라.
이 어찌 가벼운 죄라 하겠는가.
그런즉 지금 당장 저놈의 대정구실을 떼내치고 큰매 50대를 내리노라.》
박위의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물에 추긴 참나무몽둥이를 꼬나든 건강한 군사들이 형틀앞으로 대들었다.
《엇사! 엇사!》
먹임소리까지 내며 언거번거로 기운차게 몽둥이를 내리박았다.
오천의 희멀쑥한 볼기짝우에 시꺼먼 먹구렝이가 얼기설기 휘감기였다.
앵두알같이 빨간 피방울이 후둑후둑 튀여나기도 했다.
오천을 지켜보는 군사들은 너나없이 입을 딱 벌리고 후들후들 어깨살을 떨었으나 형틀우에 고개를 구겨박고 엎드리여 무지스러운 매를

맞는 오천은 신음소리 한마디 흘리지 않았다.
그것이 까닭도 없이 박위의 부아를 더욱 돋구었다.
박위는 집장군사들을 노려보며 재차 령을 내리였다.
《이봐라ㅡ 저눔이 아직도 용서해줍시사 하는 소리는커녕 무언으로 앙버틸 때는 매가 무른탓이다.
사그려 조겨라!》
《예잇ㅡ》
공연히 악이 치받쳐오른 집장군사들은 더욱 사납게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철썩철썩, 볼기짝우에 떨어지는 매소리는 한층 더 맵짜지였다.
지금껏 숨을 죽이고 서서 형장을 주시하던 장교들과 군사들이 갑자기 바람맞은 물결마냥 설레이기 시작했다.
박위는 반사적으로 장졸들을 휘둘러보았다.
뜻밖에도 자기의 강단있는 일처사에 공감을 표시할줄 알았던 장졸들은 누구라없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있었다.
(오천대정이 실지로 군기를 문란시켰는가?…) 하는 뜻의 의혹에 젖은 얼굴이 있는가 하면 (죄를 범했다쳐도 예전의 공을 아주 돌아보지 않는다면야 경우가 옳게 됐다고 할수 있는가?) 하는 의미의 못마땅한 기색이 실린 얼굴도 보였다.
지어 (오천대정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 일시 과실을 범했다 해도 이건 너무 과한 벌이 아닌가?) 하는 의미의 거의 로골적인 반감이 어린 얼굴도 띄웠다.
대돌아래 시립하고있는 여삼은 잔약한 어깨를 후들후들 떨며 쏟아져나오는 오열을 간신히 씹어삼키고있었다.
여삼은 요즘도 자기같은것은 본체도 않고 나돌아다니는 오천이가 여전히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처럼 큰 벌이 내려지기는 바라지 않았었다.
물론 오천을 징계할데 대한 박위의 군령은 탓할것이 못되였다.
이같은 변이 터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입빠르게 오천의 요즘 행실을 박위에게 일러바친데서 생긴것이였다.
본의는 어찌됐든 여삼은 결국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처럼 각근한 인정을 베풀어준 오천에게 매가 떨어지도록 추동한셈이였다.

하여 여삼은 자기의 설익은 처사를 제스스로 저주하며 진정으로 괴로워하고있었다. …
한식경이나 수하장졸들의 얼룩진 표정을 살펴보던 박위는 다시 오천에게 시선을 떨구었다.
오늘 이 아침 오천에게 벌을 내린것은 군영의 군기를 옳게 세우는 일로서 백번 지당한 처사였다.
하기에 박위는 지금 사소한 후회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냥 시서늘해나고 머리속은 번거로왔다.
과연 무엇때문인가?
박위의 교자곁에서 뚝뚝한 표정으로 뜰아래 광경을 내려다보던 윤통이 문득 고개를 돌리였다.
나직한 소리로 말을 건늬였다.
《장군, 그만하면 저놈도 자기 죄를 깨달았을것이고 장졸들도 징계가 됐음직한데 이제는 그만 분을 풀고 매를 거두는게 어떻습니까?》
《음?!》
들을만 해있던 박위는 갑자기 비명비슷한 소리를 흘리며 윤통을 쳐다보았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윤통이였다.
며칠전까지만도 당장 벼슬을 내놓고 집으로 가겠다던 사람이 요즘은 제스스로 둔전에 나갔던 군사들을 모두 끌어들이여 밤낮으로 교련장에서 뒤굴리고있었다.
또 예전같으면 지금같은 좌석에서 박위가 매를 거두려 해도 제쪽에서 더 열을 내여 지은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한수 더 뜨고나섰을것이였다.
박위는 그의 속내를 잘 알수 없었으나 군영에 그냥 남아 군졸들의 교련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윤통이가 무등 고마웠다.
매를 거두자는 그의 소청 역시 동기는 잘 알수 없었으나 은근히 다행스러웠다.
박위는 어망처망간에 자기 목소리같지 않은 청으로 웨치였다.
《이제는 그만 매를 그쳐라!》
앞마당은 금시 고요해졌다.
박위는 술취한 사람마냥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오천을 주시하다말고

아까보다는 훨씬 눅어진 청으로 말했다.

《오천이 너 이놈! 일후에 다시 사소하게나마 군률을 어긴다면 그때는 장하에 물고가 날줄 알아라. 아니, 군영에서 아주 들내치여 원악도로 귀양을 보낼테니 알아해라. 들었느냐?》

뚜드려잡은 부엉이모양으로 거푸수수해서 서있던 오천은 고개를 들었다.

그 어떤 원망의 빛이 꽉 실려있을줄 알았던 오천의 너부죽한 얼굴에는 뜻밖에도 밝은 기색이 스멀거리고있었다.

박위는 어마뜨거라 놀랐다.

(저놈이 갑자기 실성이라도 한게 아닐가. 울어도 시원치 않을 이 마당에서 저게 무슨 모양인가.

아무리 속이 너르고 성격이 선들선들하기로서니 저럴수가 있는고? 괴이한지고…)

그러거나말거나 오천은 연한 미소가 발려있는 두툼한 입술을 힘겹게 놀리여 떠뜸떠뜸 말을 꺼내는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나 명랑하게 울리였다.

《장군의 령을 골수에 새기고 일후로는 매사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헌데 소인에게 간절한 소청이 하나 있사오니 깊이 통촉해주시오이다.》

《그 소청이라는게 무어냐?》

《예, 소인은 대정구실을 떼는것은 아무 의견도 없사오나 염초장일만은 끝장을 볼 때까지 그대로 하게 해주시오이다.

그리구 또 한가지 청은 이제 소인에게 며칠간만 더 말미를 주셨으면 하는것이오이다.》

박위는 아연한 색을 띄우며 엉거주춤 교자에서 일어서기까지 했다.

《며칠간의 말미는 해서 어디에 쓴다는거냐?》

《예, 자상한 사연은 후날 따로 사뢰일가 하나이다.》

《무얼?! 후날 따로 사뢰인다?! 저런 방자스러운 놈 보았나. 뉘앞에서 감히…》

박위는 또 한바탕 야단을 칠듯이 커다란 부들부채를 앞으로 쭉 내뻗치며 큰소리를 질렀으나 이제 와서 그의 가슴에 의혹은 있을망정 분노는 없었다.

(저놈이 며칠간의 말미는 해서 과연 어디에 쓰려는걸가?

오천은 최무선이가 각근한 애정을 담아 장래를 부탁한 녀석이다.

나도 그를 누구보다 애중해왔고 군사들도 지어 윤통까지도 귀히 여기며 두호해나서는판이다.

그러한 놈이 지금같은 때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을 망각하고 계집에게 반해 돌아갈수 있겠는가.

혹 저 녀석이 며칠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는것도 염초장일과 련관된게 아닐가？…

그렇다면… 앞뒤사연을 똑똑히 캐보지도 않고 무작정 매를 치게 한 이번 일도 근일에 이르러 한껏 좁아진듯 한 나의 마음에서 튀여나온 조급하고 서뿌른 행위가 아니겠는가. …)

박위는 다시 교자에 맥없이 들어앉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현듯 개경에 갔을 때 도 평의사사 앞뜰에서 만났던 리색이 눈물을 흘리며 뇌이던 옛 시구절이 뇌리를 지지였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참으로 아득하다
사람노릇 하기 힘들다는
옛말 바로 그대로구나

이윽하여 스르시 눈을 떠보니 앞마당은 굿해먹고난 집뜰처럼 괴괴하고 휑뎅그렁한데 저 멀리 동쪽하늘에서는 다홍색아침노을이 소리없이 이글거리고있었다.

노을빛을 받아 장미색을 띠고 응결되였던 구름장들은 차츰 새털모양으로 갈기갈기 찢겨져나가며 서서히 자기 본태의 순수한 흰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7

칠월칠석날을 명절로 기념하는 풍습은 일찌기 삼국시기부터 전해내

려오는 즐거운 유습이였다.

그 시절 고구려사람들은 칠월칠석날을 굉장히 큰 명절로 요란스럽게 쇠였으나 요즘에 와서 고려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쇠지 않았다.

가족끼리 혹은 사랑하는 남녀가 조용히 모여앉아 흘러간 사랑의 추억, 다가오는 사랑의 봄계절을 더듬어보며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것으로 이날 밤을 기념하는것이 고작이였다.

비록 다른 명절때처럼 떡을 치고 술을 빚거나 모여서 노는 일은 없어도 사랑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서정의 명절 칠월칠석날은 필경 이채로운 명절이였다.

그 어느 동네, 어느 집에서나 견우와 직녀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이 저녁.

박위는 군사 몇을 데리고 바다가를 돌아보고있었다.

요즘도 박위의 리성은 변함없이 원정준비를 내밀어야 한다고 웨치고있었다.

허나 리성의 목소리와는 달리 감성은 그 어떤 평온과 안정을 주장하고있었다.

현재의 모든 일이 부질없는짓, 승산이 없는노릇이라는 운명적인 체념이 무시로 리성의 소극적인 몸부림을 결정적으로 제압하려하군 했다.

오늘의 정황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정의 큰 량반들은 누구하나 원정에 관심이 없다.

아니, 그저 무관심한것이 아니라 원정소리가 날 때마다 왼새끼를 꼬거나 반정이라는 헛소문으로 사지를 결박하려 한다.

그런데다 윤통과 오천이같은 군영의 장졸들까지 예전처럼 나를 절대적으로 믿는 기색도 아니요, 성심으로 따르려는 자세도 아니다.

겉으로 보건대는 예나 다름없이 성실히 복종하고 추종하는듯 하나 모두들 제나름대로의 궁냥에 집착하여 옹송그리고 사는게 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원정준비를 완성할수 있으며 원정을 실현할수 있겠는가. …

오늘 저녁도 처소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며 침울한 사색을 방향없이 이어가던 박위는 갑자기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것처럼 저녁밥을 재촉해 먹고나서 군영을 나섰다.

불시에 해안선 순시를 할 생각이 난것이였다.

워낙 야간의 해안선순시는 윤통이 맡은 소임중의 하나였으나 박위는 잠시라도 시원한 바다바람을 맞으며 온갖 무거운 잡사를 잊어볼양으로 자기가 나선것이였다.
바다가에 나오니 애초의 짐작과는 달리 또다시 풀길 없는 운명의 숙제가 번거롭게 뇌리에 비껴들었다.
마음은 여전히 무직하고 머리속은 진연기라도 마신것처럼 흐리멍텅하였다.
하여 박위는 오늘이 어떤 명절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채 짝귀의 잔등에 맥을 놓고앉아 관습적으로 바다가를 누벼가고있었다.
파수군들을 박아놓은 곳에 이를 때마다 역시 습관적으로 푸릿한 어둠속에 대고 군호를 확인했다.
《산천!》 박위의 군호소리가 나기 바쁘게 파수군들은 《초목!》하고 대구를 웨치며 황망히 달려나와 황공한 자세로 절인사를 하군 했다.
박위는 매번 아무말없이 고개를 두어번 끄먹거리고나서 파수막을 지나쳐버리였다.
지금까지 파수막은 몇개나 지나치고 일행은 어느 마을 지경에까지 왔는지?…
박위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검푸른 밤하늘에 광대한 폭으로 하얗게 내리드리운 은하수를 아무런 미적흥취도 없이 멀거니 쳐다보며 말을 몰던 박위는 갑자기 여삼이가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홀연 현실감을 의식했다.
《너는 왜 또 부잡스레 구는거냐?》
박위가 짜증스럽게 따져묻자 여삼은 가느다란 눈을 새별처럼 빛내며 명쾌하게 대답했다.
《저기 죽촌쪽에서 무슨 소리가 와자자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여기가 죽촌 앞바다란 소리냐?》
죽촌이란 소리에 공연히 가슴이 띠끔해난 박위는 조금후에야 여삼의 말뜻을 가려듣고 다시 물었다.
《소리라니,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이냐? 아닌밤중에…》
《저기 마을어구 등성이쪽을 좀 보시오이다.》
여삼이가 쳐들어올린 손을 따라 죽촌 어구쪽을 살펴보니 아닌게아니라 나직한 등성이우에는 화광이 충천한데 거기서는 숱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와와 울리고있었다.

간데마다 박혀있는 파수군들은 아무런 적정도 없다고 했으니 왜구의 란같은것은 아닐것이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인고?!

《소인의 짐작에는 죽촌사람들이 호미씻기놀이를 벌려놓은것 갈소이다.》

구경이라면 어떤것이든 다 좋아하는 여삼은 늦을세라 제꺽 뒤를 받치였다.

여삼은 자기도 호미씻기놀이를 구경하고싶었지만 그보다는 요즘에 와서 시종 울울한 기분에 쌓여있는 박위의 마음을 순간이라도 가셔주고싶어 자신의 호기심을 과장하여 내비친것이였다.

호미씻기란 김매기를 전부 끝낸 다음 호미를 깨끗이 씻어 건사한다는 뜻인데 그런 날이면 김매기를 끝낸 기쁨을 안고 온 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처럼 즐기였다.

떡을 치고 술을 빚고 빛다른 음식들을 지지고 볶고…

공동연회를 펼치는데 연회 뒤끝에는 의례히 흥겨운 오락회가 동반되였다.

어려운 농사일의 한 고비를 넘긴 기쁨과 배불리 먹은 탁배기에 기분이 얼근해진 잡이군들이 먼저 건드러진 농악으로 오락회의 첫막을 열어제낀다.

그러면 쇠스랑이, 곰배, 호미 같은것을 비껴잡은 농군들이 뛰여나와 북과 장구, 꽹과리의 장단에 맞추어 너풀너풀 춤을 추며 돌아간다.

이런 호미씻기놀이는 흔히 7월 보름경에 하지만 지방마다, 마을마다 김매기를 끝내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놀이날자는 지방과 동네별로 들쑥날쑥하였다. 박위는 순간에 떨떠름해지였다.

(왜구들에게 집도 잃고 밭도 잃고 식솔들마저 빼앗긴 죽촌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슨 여유가 있어 호미씻기놀이를 하겠는가.

그럴리는 없다.

하다면 저 소리, 저 판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고?…)

박위는 말고삐를 죽촌쪽으로 돌리였다.

짝귀는 워낙 밤눈이 밝기도 했지만 칠월칠석날의 밤은 과히 어둡지도 않아서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길을 꺾어 등성이쪽으로 향했다.

여삼이와 군사들은 잰걸음으로 박위의 뒤를 따랐다.
행길에서 벗어난 일행은 별빛이 어리여 은빛으로 번들거리는 참대잎새들을 슬치며 소로길에 들어섰다.
너무도 눈에 익은 마을어구의 등성이가 선명하게 안겨왔다. 박위는 말에서 내리였다. 예전에는 팔뚝같이 실한 대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있던 등성이가 지금은 거의나 알몸으로 솟아있었다.
펑퍼짐한 등성이우에서는 여러 무지의 화토불이 기세좋게 황황 타오르고있었다.
죽촌사람들모두가 이곳에 떨쳐나온듯 수십명의 백성들이 불무지의 화광을 들쓴채 오글복작 끓고있었다.
태반이 널판자나 각자 같은것을 메나르거나 망치질, 톱질을 하는것으로 보아 죽촌사람들은 이제서야 저들이 쓰고살 집을 새로 짓는 모양이였다.
천천히 등성이우로 오르는 박위의 뇌리속으로는 언제인가 조호백이 죽촌백성들에게 집지을 재목과 살림재구들을 적지 않게 보내주었노라고 생색이라도 내듯 하던 말이 피끗 떠올랐다.
지금껏 군영의 일에 다몰리우다보니 한번도 이 고장에 나와보지 못한것이 저으기 면구스러웠다.
이렇게 나온김에 죽촌사람들이 사는 모양이며 집짓는 역사를 살펴주면 어느 정도라도 면무식이 될것 같았다.
박위는 눈앞으로 밀려드는 하루살이떼를 휘휘 들날리며 등성이우에 올라섰다.
화토불의 화광에 젖어 하나같이 구리빛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각이한 모습이 환하게 안겨왔다.
제일먼저 눈에 걸리는 사람은 등성이 복판에 우뚝 서서 옷자락과 채수염을 훨훨 날리며 소리소리 지르는 저대로인이였다.
그리도 푼푼하던 웃음기를 싹 가셔버린 로인의 둥글넙적한 얼굴은 화광탓인지 전에없이 근엄해보이였다.
올리뽑고 내리지르는 그의 우렁찬 목청은 마치 전장의 진두에서 군령을 내리는 장수의 목소리처럼 위엄있게 들려왔다. 보매 저대로인은 오늘의 일판을 단신으로 총찰하는듯싶었다.
《이 사람 인실이! 아까운 널판자를 그렇게 대구 베내치면서 홍청

망청 써서야 되겠나?
어림짐작으로 하지 말구 번마다 자막대기로 재가며 톱질을 하게.
여보게 문서방, 우리 일인즉 촌시를 다투는 매우 바쁜 일인데 한번 짐을 나르고 열나절씩 숨을 돌려서야 언제 끝을 보겠나. 힘을 돋구어서 재우재우 다니게!》
장검마냥 추켜든 작대기로 톱질을 하는 사람, 짐을 나르는 사람들을 일일이 신칙을 하던 저대로인은 무엇이 그리 마음에 걸리는지 사람들이 모여선 곳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찍었다.
그러다가 어둠속에서 화광이 비낀 곳으로 들어서는 박위를 띄여본 로인은 작대기를 휘두르며 박위앞으로 다가왔다.
깊숙이 절인사를 하고나서 감격에 겨워 뇌이였다.
《장군께서는 군영의 일만 보시재도 겨를이 없으실터인데 미거한 우리 골 백성들의 일까지 보아주시려고 이렇게 왕림해주시니 황감하기 이를데 없소이다.》
로인은 박위가 일부러 저들의 일을 보기 위해 나온것으로 아는 모양이였다.
박위는 대답말이 궁하여 무턱 고개를 끄떡거리고나서 한창 신이 나게 일손을 놀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웃고 떠들며 일손을 다그치던 사람들은 박위를 알아보자 잡은것들을 놓고 우르르 일어섰다.
저마끔 허리를 꺾으며 제나름대로의 인사말을 아뢰였다.
이번에도 역시 고개를 끄떡거리는것으로 모두거리답례를 하고난 박위는 뒤바투 다가선 로인에게 고개를 돌리였다.
《듣자니 일전에 김해부사가 집지을 목재와 살림재구들을 보내주었다던데…
이제 겨우 문짝 같은것을 만드는것을 보니 일을 퍽 더디게 하는 모양이구만.》
《글쎄 빠르다고는 할수 없사오나 과히 더디다고 생각되지는 않소이다.
다 된것들은 벌써 바다가 한옆에 내다 놓았소이다.》
로인은 막대기를 들어 바다가쪽을 가리켜보이며 다소 뻐기는투로 대답했다.

(바다가에 내다 놓다니?! 그건 무슨 소린고?!)

박위는 그 어떤 의혹과 함께 로인과 자기가 저마끔 제 좋은 소리를 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다소 우습강스러운 짐작이 떠올랐다.

《아니, 다 된것들은 바다가에 내다 놓다니?! 집을 지어서는 바다가에 내간다는 소리요?》

《집이 아니라 배를 두고 하는 말씀이오이다. 이제 전함 두척을 더 만들면 모두 네척이 되는데 래달 초생에는 그 네척을 다 끌고 군영앞바다에 들어서겠소이다.》

그제서야 로인의 말뜻을 완연히 깨달은 박위는 어깨를 흠칫 떨며 눈을 지릅떴다.

가슴이 훅훅 달아올랐다.

(그러니 죽촌사람들은… 왜구에게 집도 가산도 식구들도 모두 빼앗긴 이 불쌍한 백성들은 집을 지으라고 내준 목재로 싸움배를 뭇고있단 말이렷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요, 당부한 일도 아닌데… 이럴수가 있는가?!…)

그러고보니 죽촌사람들이 지금 만들고있는것은 문짝따위가 아니라 전함의 선미쪽에 깔 갑판의 한 부분이였다.

그들은 이렇게 전함의 부분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바다가에 나가 조립을 하는 모양이였다.

모든것이 선명해질수록 감동의 열물은 더욱 따갑게 가슴을 달구었다.

무슨 말이든 하고싶었으나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탓에 선선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격정이 어린 시선으로 다시 일손을 놀리는 사람들과 저대로인을 갈마보던 박위는 배무이장과는 초간히 떨어져있는 화토불무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놓았다.

설치며 돌아가던 아낙네 몇이 다가오는 박위를 띠여보자 닭무리 풍기듯 확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돌우에 걸어놓은 여러개의 가마가 뚜렷이 안겨왔다.

가마앞에 줄느런히 놓여있는 질자배기들도 똑똑히 가려지였다.

박위는 다가서는참 질자배기들을 휘뚜루 둘러보았다.

질자배기속에는 맹물이나 다름없는 멀건 보리죽이 골숨골숨하게 담겨있었다.

박위는 짓눌린듯 한 음성으로 곁에 다가선 저대로인에게 나직이 물었다.
《이렇게 보리죽만 먹으면서 장참 배 만드는 역사만 하고있으니… 앞으로 사람들의 살아갈 길은 어떻게 구처할셈이요?》
로인은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소인네들은 저번의 란을 겪고나서 통절히 느꼈소이다.
지금은 농사보다 중한 일이 군사라는것을 말이오이다.
쌀이 없으면 풀을 뜯어먹거나 송피를 벗겨 먹으면서도 살수 있지만 왜구를 가만 내버려두어서는 죽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소이까.
우리 죽촌백성들은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해 그리고 잡혀간 마을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군사일에 떨쳐나서자고 서로서로 맹약을 했소이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싸움배를 뭇고 다른 한켠에서는 저렇게 염초장을 만들어놓고 서툰대로 염초를 뽑고있소이다.》
로인은 다시 막대기를 들어 바로 옆에 이영만 해씌운 외양간처럼 초라한 집을 가리켜보이였다.
《염초까지 뽑는단 말이요?!》
박위는 한층 목청을 높이며 로인이 가리켜보이는 허술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안에는 관가와 린근동네에서 손모아 보내준것이 분명한 밥가마 여러개가 주런이 걸려있었다. 그곁에는 그리 크지 않은 염초무지가 눈더미처럼 하얗게 쌓여있었다.
이것 역시 상상밖의 일이였다.
박위는 로인에게 따져묻듯 재우쳐 물었다.
《아니, 염초를 내는 방법은 어디서 배우고 염초감은 어디서 났기에 염초까지 뽑는단 말이요?》
로인은 조금 득의연한 어조로 말했다.
《예, 지난 초생무렵 소인네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장차 어떻게 해야 살아갈수 있겠느냐 하는 공론을 했소이다.
조금 옥신각신하기는 했소만 종당에는 군사일을 협력하는것이 둘도 없는 살길이라는 생각을 모으게 됐소이다.
그 다음날로 소인네들은 동네에서 그중 말주변깨나 있고 눈썰미, 손

썰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군영의 오천대정을 찾아갔소이다.》
《오천이를 찾아갔다?…》
《예, 찾아가서는 우리도 군사일에 발벗고 나설테니 군영에서 제일로 걸린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대정이 하는 말이 〈전함을 만드는 일과 염초를 뽑는 일이 제일 난사외다.〉하는게 아니겠소이까.
그래 소인네들은 〈방법만 가르쳐주면 우리도 힘닿는껏 전함도 만들고 염초도 뽑겠소.〉하고 대답했소이다. 그랬더니 오천대정은 그 자리에서 일의 속내를 자상히 가르쳐주었는데 그후에도 왔소갔소하면서 소인네들을 바르게 이끌어주어 오늘은 이렇게 적으나마 군사일에 보탬을 주게 되였소이다.》
본래의 쾌활한 성미가 어느 정도 되살아난 로인은 일을 총섭할 때와는 달리 흥이 나서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보매 로인은 군사일을 협력하는 요즘의 일에서 생의 보람을 한껏 느끼는듯싶었다. 죽촌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의 정이 눈물겹도록 치밀어올랐다.
그러던중에도 오천의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듯 한 의혹과 자책감이 다시금 아릿하게 속을 허비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언제인가 백성들과 군사들이 한동아리가 되여 일떠서면 능히 자체로 원정준비를 끝낼수 있다던 오천의 말은 결코 허궁 뜬 소리가 아닌듯싶었다.
오천은 실지로 백성들의 힘을 제일로 믿고 그들과 함께 하나하나 실속있게 일을 떠밀어가고있지 않는가.
한참이나 기쁨과 자책이라는 상반되는 감정에 쌓이여 침묵을 지키던 박위는 다시 로인에게 말을 붙이였다.
《염초감대기를 연연 이어댄다는게 수월치 않을텐데… 그건 어떻게 충당하우?》
《예, 린근동네의 부엌재는 다 긁어먹은 뒤라 염초감을 련이어 들이대는 일이 사실 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의논들을 하다가 멀찌이 창원쪽에도 나가보자고 결정을 내리고 한패를 그리로 띄워보냈소이다.》
아무리 작은 폭으로 하는 일이래도 염초감대기를 끊기지 않게 보장

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련만 로인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처럼 수월수월 대답했다.

이럴 때 로인의 말이 죄다 사실임을 확증하듯 등성이아래쪽에서 술한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썩하게 울려왔다.

그들중에는 녀자들도 섞여있는지 녀인들의 쨍쨍한 목소리도 들리였다.

《내 오늘에야 우리 죽촌 백동이 엄마가 힘장사라는걸 알았다니까.

그 가냘픈 몸에서 어쩜 그리 쎈 힘이 쏟아져나오우.

멍구럭보다 세배나 더 큰 자루를 힝힝 메나르니 나같은건 감당도 못하겠다니까…》

《내가 무슨 장사겠소.

왜구에게 잡혀간 백동이 아버지도 찾아오고 참혹하게 죽은 우리 백동이 원쑤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절로 이를 사려물게 되는구만.》

《아무튼 옛적에 우리 나라에 설죽화라는 처녀장수가 있었다더니 우리 죽촌에서도 내인장수가 날라는가부야.》

이쪽으로 점점 가까와지는 녀인들의 말소리에 솔곳이 귀를 주고있던 로인은 박위에게 돌아섰다.

《저네들이 바로 창원쪽에 나갔던 패올시다.

배를 몰아갈적에는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는 염초감대기를 실어가지고 오니 한배에 백성의 일, 군영의 일을 다 싣고다니는셈이올시다.

이제 창원고을을 다 뒤져먹으면 전라도까지라도 나가볼 작정이올시다.》

《전라도에까지?!》

박위는 어망결에 로인의 말을 받아외웠다.

오, 정녕 얼마나 신심에 차넘치고 확신에 달아있는 사람들인가.

얼마나 슬기롭고 완강한 백성들인가.

참말이지 이들처럼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끈지게 달라붙는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박위는 이처럼 훌륭한 백성들을 가난하고 무식하다 하여 무지렁이 불상놈으로, 마음먹은대로 휘고 부릴수 있는 하잘것 없는 존재로 치부해온 지난날의 자신이 죄스러웠다.

이네들의 고결하고 순직한 마음같은것은 애초에 들여다보려고조차 하지 않은 자신이 무등 민망스러웠다.

오늘에야 비로소 군사들과 백성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치여 일을 벌리면 능히 승산을 볼수 있다던 오천의 주장을 한귀퉁이라도 실감있게 깨닫는듯싶었다.
박위는 자꾸만 이어지려는 사색을 애써 중단하고 고개를 돌리였다.
저대로인이 또다시 막대기를 쳐들어 아래쪽을 가리켜보이며 무엇이라고 승기가 나서 고함을 지른것이였다.
박위는 그제서야 로인이 쳐든 작대기가 아무데서나 꺾어든 나무가지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그리도 애용하던 참대로 만든 저대임을 알아보았다.
예전에는 가지가지 기묘한 가락을 뽑아내여 동네사람들의 흥취를 돋구어주던 로인의 저대는 오늘 마을의 군사일을 총찰하는 지휘도로 변하여 이 동네에 거세찬 군사적열풍을 불러일으키고있었다.
박위는 허공을 이리저리 엇갈아베며 번쩍거리는 로인의 저대를 그 어떤 신비로운 귀물처럼 여겨보며 속깊이로 뇌이였다.
(남은 여생과 말년의 취미까지 통으로 군사일에 쏟아붓는 로인은 얼마나 장한 인간인가.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군영의 일을 도와나선 죽촌백성들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정녕코 힘이로다.
암야의 등불이라더니 진정 캄캄한 밤길에 등불이 달린듯 원정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가.)
박위는 지휘도를 번쩍번쩍 휘두르며 등성이 아래쪽으로 내려서는 로인을 따라 휘적휘적 걸음을 옮기였다.
자기도 멀리 창원에까지 나갔던 사람들을 만나보고싶었다.
그들을 만나면 해감내와 먼지내가 훅훅 풍기는 그들과 마주서면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의 리치와 새로운 생활의욕을 얻을것 같았다.
걸음을 옮길수록 수억만개의 보석을 쪼아박은듯 한 밤하늘의 은하수가 눈앞을 메우며 바투바투 다가왔다.
현란한 별의 바다, 쏟아지는 폭포수마냥 길게 뻗어내린 은하의 흐름…
오늘은 저 멀리 신비로운 은하의 세계에서 일년내내 사랑의 목마름을 안고 애태우던 견우성과 직녀성이 상봉을 하는 기쁜 날이란다.
그래서인지 광활한 밤의 대공에서는 견우직녀의 상봉의 환희, 사랑

의 환희가 선률이 되고 가락이 되여 은은히 쏟아져내리는듯싶었다.
박위도 상봉의 환희, 사랑의 환희를 안고 등성이를 내리고있었다.
박위 역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봉하게 될것이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힘도 없는 미미하고 무능한 존재로, 일고의 존경도, 애정도 품을수 없는 보잘것 없는 상대로 여겼던 백성들과 난생처음 강렬한 사랑을 안고 만나게 될것이였다.
하늘에도 의미깊은 선률이 흐르고 땅우에도 뜨거운 노래가 흐르는 잊을수 없는 밤이였다.

8

아침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박위는 여느때없이 기운찬 손길로 사랑채문을 열어제끼였다.
오는듯마는듯 하던 장마철은 때이르게 지나가버리고 초가을의 신선한 공기가 밀려다니는 때라 자연은 고요히 얼룩덜룩한 가을의 색옷을 갈아입고있었다.
멀리 동켠하늘에서는 솔개미 한마리가 날개에 아침노을의 피빛광선을 반사하면서 유유히 날아예고있었다.
싱그러운 공기를 호흡하며 솔개미의 무한히 자유로운 아침운동을 바라보던 박위는 잠시후 방안의 서탁앞에 마주앉았다.
요즘 박위는 잠에서 깨면 곧 서탁에 마주앉아 두툼한 목책을 펼쳐보군 했다.
목책은 군영과 여러 고을들에서 새로 모집한 군사들과 새로 만든 전함의 수, 새로 생산한 화약과 염초의 수량, 새로 확보한 군량과 반찬감의 수량 같은것을 매일같이 기록한 기밀문서였다.
한장두장 손때묻은 책장을 번져나가던 박위는 《…7월 열이레 중낮때 김해부사가 직접 3백근의 량식과 2백근의 어물을 령거해가지고 찾아오다.》라고 쓴 대목에 이르자 우뚝 시선을 멈추었다.

그날 10여대의 마바리, 소바리를 뒤에 달고 범잡은 포수마냥 어깨를 으쓱거리며 군영에 들어서던 호백의 장한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박위앞에 다가온 호백은 제 손으로 흰쌀이 들어있는 자루와 전광어, 칼치 같은 절인 어물이 들어있는 대나무통의 뚜껑을 열어보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장군! 저번날 군영에서 량식청탁이 왔을 때는 본관이 일이 잔뜩 밀려놔서 아래것들에게 일임했댔소이다.

헌데 그것들이 중간에서 롱간질을 하여 종내는 듣기에도 창피한 썩은 쌀소동이 났댔소이다. 허허… 참, 무엇이라 사과해야 할지…》

《사과는 무슨… 나도 그쯤 짐작했댔소. 아무렴 부사께서 그런 좀스러운 일을 벌렸겠소. 아무튼 또 이렇게 군량을 대주니 감사의 말 무엇이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박위는 지나간 일을 놓고 가타부타 따질것 없다는 뜻으로 빙그레 웃으며 호백의 변명을 듣기 좋게 거들어주었다.

호백은 더욱 기가 올라 수염을 빡 내리씻고 련속적으로 거짓말을 널어나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관이 직접 백사를 제치고 나서서 시작부터 마감까지 일을 간검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말이지 이 고급어물들은 조정의 리부(고려시기 관리들의 임명과 성적을 맡아보던 관청.)에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따로 잡아 건사했던것인데… 지금이야 리부의 일보다 우리 고을 군사일이 훨씬 더 급하고 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져온 물자들을 군영의 군사일에 긴요히 써주시면 본관으로서는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손수 짐을 꾸려가지고 군영에까지 찾아온 호백의 헌신적인 행동도 무등 고마왔고 그의 길다란 설명 역시 조금 간지럽기는 해도 귀맛이 좋았다.

호백은 단단히 개심을 하고 군사일에 특별히 관심을 높이는것이 분명했다.

박위는 호백의 수고를 진심으로 치하해주고나서 그와 함께 처소로

들어갔다.
  급급히 재촉을 하여 성의있게 차린 주안상을 내오게 하였다.
  기름에 튀긴 전복꾜치(그것은 호백이가 박위에게 특별히 선사한것이였으나 박위는 통털어 호백에게 대접하도록 했다.)를 연해 저가락끝으로 집어내며 맛스럽게 술을 마시던 호백은 취기가 오르자 새빨갛게 익어번진 희좁은 얼굴을 호들갑스럽게 흔들어털며 말하였다.
  《정말이지 오늘처럼 우리 고을 지경이 평온하고 우리 고을 민심이 안연한것은 전적으로 박장군의 덕이요, 군영의 덕이올시다.
  그런즉 우리 관가가 군영군사들에게 군량과 반찬감을 대주는것쯤은 고맙다고 하실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의당한 일이지요.
  그리구 듣자니 일전에 우리 관가의 아전들이 쇠풀골에 배무이목재를 찍으러 온 군사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버렸다가 봉변을 당했다던데 그런 좋지 못한 광경이 생긴것은 구경 하관의 불찰입니다.
  하관이 평시에 아래것들을 옳게 주물러놓았다면야 어찌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늦게나마 하관이 단단히 신칙을 하고 닥달을 해놓았으니 이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겝니다.》
  호백의 뜻밖의 사죄와 반성앞에서 박위는 일순 떨떠름해지였다.
  《부사가 그렇게 나오니 할말이 없소그려. 사실은 우리 군사들이 아전들에게 떠밀려내려온 뒤 본관이 다시 군사들을 내몰아 마구다지로 나무를 베오게 했소.
  오늘 부사의 말씀을 듣고보니 나로서도 그때 일이 여간 미안하지 않구려.》
  호백은 저가락을 든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털며 자못 대범한 태를 보이였다.
  《아니할 말씀이요. 그까짓 나무 몇대가 무엇이라고…
  왜구를 소탕할 원정에 쓸것이라면 나무가 아니라 온 고을을 통채로 퍼넣는다 해도 아까울것이 있겠소이까.
  자고로 대공이나 대첩은 만반의 준비우에서 피여나는 꽃이 아니였소이까?》
  《고마운 말씀이요. 부사의 그 곡진한 마음과 사심없는 지원을 잊

지 않겠소.》
박위는 전에없이 대활하고 우선우선해진 호백이가 무등 고마운 한편 다소 기이하게 생각되였다.
사실 이 순간 호백의 심리는 여간만 뒤숭숭하지 않았다.
그가 몸소 짐바리를 이끌고 수십리 울퉁불퉁한 산골길을 누벼온것은 물론 박위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였다.
제 눈으로 직접 군영의 동태, 박위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또한 희귀한 어물로써 박위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있을수 있는 자기에 대한 의심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여 그는 겉으로는 시종 소탈하고 대담한 태를 내면서 마음속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는 박위의 언행과 표정을 예리하게 살펴보았다.
박위가 혹시 조정에 꽂아넣은 자기의 고변을 눈치채지 않았는지, 그것으로 하여 자기를 의심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원정을 포기하지나 않았는지…
헌데 아무리 뜯어보아야 박위는 자기의 역적고변을 아는것 같지 않았다.
자기를 의심하는 눈치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원정준비는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큰 판으로 더 줄차게 내미는것 같았다.
이제는 마음놓고 리성계가 암시해준대로 박위의 목대를 바싹 옭아맬 빈틈없는 증거를 찾아내는데 전력해야 했다.
박위가 기어이 원정을 하겠노라고 날치는 이상 그럴듯한 증거를 찾아내는것은 별로 어려울것 같지 않았다.
매화의 말에 의하면 대마도에 잡혀간 죽촌사람들중에는 박위와 친밀하게 지내던 리옥(그는 박위의 후실감이란다.)이라는 계집도 있는데 그는 사실 잡혀간것이 아니라 제발로 찾아간것이였다.
박위는 왜구들에게 반정을 지원받기 위해(례컨대 병기의 조달같은것.) 부러 죽촌기습사건이라는 기만극을 꾸미고 감쪽같이 자기의 계집을 대마도령주에게 띄웠을수 있다는 뜻이였다.
그러니 박위의 원정준비(반정준비)가 계속된다면 대마도령주나 리옥에게서 무슨 소식이든 반드시 날아올것이였다.
그 소식을 손에 쥐면 더욱 좋고 설사 쥐지 못한다 해도 리옥에 대

한 이야기만 잘 반죽해놓으면 그럴듯한 증거는 능히 빚어질것이였다.
허나 어째선지 박위의 원정준비가 명백한 역신음모라는 매화의 말과 그에 대한 자기의 계략은 미심쩍게 생각되기도 하고 허황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하여 하루가 새로운 이때 다 익은 감이 저절로 물러떨어지기를 세월없이 기다리고있을수는 없었다.
가능한껏 확실하거나 확실해보이는 증거를 거머쥐기 위해 눈을 밝히는 한편 이미 주어진 건덕지를 우리고 또 우리여 누가 보아도 그럴직한 증거물을 만들어야 했다.
이제 와서 박위를 제끼는것은 단순히 그 어떤 앙갚음이나 하고 협착된 부귀와 권세를 회복하는 일 정도가 아니였다.
그것은 필경 조민수건으로 하여 리성계의 눈에 미운 털이 박혔을 조씨가문과 자기의 영상을 새롭게 개선하고 오늘의 벼슬자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일이였다.
그러니 리성계가 박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있는 이때(호백은 리성계의 우회적인 권고를 받았을 때 벌써 그것을 여실히 감촉했었다.) 지체없이 박위를 찍어넘길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섬겨바쳐야 했다.
그렇게 되면 박위를 들내치니 좋아, 리성계에게 어여쁜 인물, 요긴한 존재로 지목받으니 좋아, 정말 꿩먹고 알먹기요, 일거량득이 아니겠는가?!…
이래저래 기분이 좋아진 호백은 주량에 겨웁도록 술을 퍼마시고나서 다시금 박위에게 헛맹세와 걸발린 아첨을 잔뜩 늘어놓은 다음 비쓸거리며 군막을 나섰다.
아전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쪽으로 나가는 호백의 뒤모습을 쏘아보던 윤통은 독설에 가까운 소리를 꺼내놓았다.
《터놓고말해서 하관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상합니다. 어쩐지 말과 행동이 판판 다른듯 하고 가슴속에는 겉모양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이상한 얼굴이 있는것 같단 말입니다.》
박위는 윤통이가 소지를 바치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한 뒤로는 될수록이면 그에게 모진 소리를 하려 하지 않았다.
윤통이가 가는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명의 장수라도 제결에서 떨어져나간다면 원정준비는 그만큼 오래 걸리고 왜구와의 싸움은 그만

큼 어려울것이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호백을 불신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에 대한 독설을 퍼내는 윤통의 편벽한 심리와 피상적인 판단은 그냥 스쳐버릴수 없었다.

《부원수, 내 진정으로 하는 말인데 김해부사는 근래 단단히 채심을 하고 우리 일을 열심으로 돕고있소.

그런데 치사는 못할망정 헐어서 말해서야 일이 되겠소?》

박위는 한껏 부드럽게 말했으나 윤통은 벌컥 증을 내였다.

《김해부사가 채심을 했다고요?

흥, 아무리 애를 써도 게를 곧바로 걷게 할수는 없습니다.

원체 삐뚜로 걷게 된 물건이니까요.

하관은 오히려 김해부사가 예전보다 더 험하게 변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쩐지 앞에서는 살살 웃으며 돌아가다가는 뒤에 돌아앉아서는 썩썩 칼을 벼리는 음모군같단 말입니다.》

《음모군?!》

박위는 흠칫 몸을 떨며 윤통을 노려보았다.

그의 말이 무엇을 념두에 둔것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지였다.

(그러니 윤통은 조호백이가 반정준비라는 거짓소문을 지어내여 조정에 꽂아넣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우리의 원정준비에 대해서는 개경의 량반들보다 이곳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이 고장 사람들을 의심해야 하겠는가.

아니야. 호백이 무엇때문에 나를 모합하려 하겠는가, 과연 무엇때문에…)

박위 역시 저도 모르는새 호백에 대한 의혹이 갈마들었으나 애써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모지름을 썼다.

한참만에 박위는 다시금 준절한 어조로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은 윤통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자신에게도 하는 소리였다.

《부원수, 사람이 황달에 걸리면 세상이 전부 노랗게 보인다는 말이 있소. 우리 함부로 속단하지 맙시다.

의심이 병이요. 그 병이 커지면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되오.》

두툼한 입술을 삐주름히 내밀고 서서 듣는둥마는둥하던 윤통은 아

무 대꾸없이 교련장쪽으로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였다. …

…목책우에 가벼운 붓방아를 찧으며 여념없이 사색을 이어나가던 박위는 느리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조호백— 다른 일은 다 말말고라도 예전에 고향의 버섯골에서 내 손에 의해 목숨을 구한 그가 무엇때문에 왜구격멸을 주장하는 나를 해치려 하겠는가.

모해의 불똥은 필경 다른 곳에서 튀여올랐을것이다. 이제 더이상 당치도 않는 헛소문에 왼심을 쓰면서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는 좀스러운 노릇을 하지 말자.

우리의 원정이 천백번 정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청백한데야 두려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마음이 진정되고 결심이 굳어지자 박위는 교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벽에 걸려있는 환도를 벗겨들고 밖으로 나왔다. 검술훈련은 어느 하루도 어겨본적 없는 아침일과중의 하나였다. …

뒤뜰에 돌아가 온몸에 땀이 내돋도록 칼을 휘두르고난 박위는 날아갈듯이 거뿐해진 기분으로 앞마당에 나왔다.

어느새 왔는지 마당 구석쪽에서 서성거리던 윤통이 커다란 키를 꺽둑거리며 성급하게 다가왔다.

감때사납게 생긴 눈을 희번득거리며 대충 인사를 차리고나서 급급히 말을 꺼냈다.

《급보올시다. 오늘 아침 우리 군사들이 바다길순시에 나갔는데 갑자기 왜구의 배 한척이 나타나더니 우리 배 돛대에 수상한 화살 한대를 쏘아박고는 정신없이 내빼더랍니다.

화살을 뽑아보니 살깃에 편지 두장이 끼여있더랍니다.

하나는 대마도령주가 쓴것이고 다른 한장은 리옥이가 쓴것인데 모두 박장군앞으로 보냈습니다.》

《?!》

왜구들이 편지를 보내온것도 전에 없던 일이요, 대마도령주와 리옥의 편지가 함께 날아온것도 기이한 일이였다.

박위는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열지 못했다.

조금후에야 윤통에게서 편지를 받아든 박위는 우선 대마도령주의 편지라는것부터 펼치였다.

령주라는 작자는 거드름스러운 어투로 문안인사 비슷한 소리를 건숭 해넘기고나서 역시 거만하기 짝이 없는 글귀로 되지 못한 수작을 질질 늘어놓았다.

《…듣자니 박장군은 요즘 대마도를 치겠노라며 복닥소동을 피우고 있다는데 자중하는게 어떠시오?

당신들이 대마도를 공격하겠다는것은 잠자리가 수레바퀴를 굴리겠다는 수작과 엇비슷한것으로서 도저히 성사될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오.

털어놓고말하여 당신네 고려군은 생소한 날바다길을 헤쳐오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온다 한들 튼튼한 성곽과 험준한 천연바위들로 싸여있는 우리 섬, 수백척의 전함과 수만명의 정예한 군사들이 항시 출동태세를 갖추고있는 우리 섬을 무슨 수로 깨치겠소.

부질없는 망상을 품고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소모하지 마시오. …

박장군! 나로서는 오래동안 깊이 생각하고 고려한 끝에 하는 말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가 새로운 인생길을 선택했으면 하오.

이를테면 량국간의 화해와 화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우리가 물물교역의 새 장을 열자는거요.

그러자면 쌍방이 다같이 독기서린 검을 내려놓고 협상의 자리에 마주앉아야 할게요. 주지하는바이지만 검과 검이 부딪치면 죽음과 파괴가 생기지만 물건과 물건이 교역되면 진흥과 향상이 따르는 법이요.

깊이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주기 바라오.

우리는 당신의 회신을 받기 위해 또 협상문제를 론의하기 위해 성의껏 례물을 마련해가지고 이달 보름날 팔소앞바다에 우리 군사들을 보내겠소.

어련하겠지만 당신의 군사들도 다음과 같은 항목의 물건들을 례물로 마련해가지고 바다가에 나와 우리의 평화사절들을 맞아주기 바라오.

1. 곡물(김해흰쌀) 5천근
2. 과일(김해배와 김해단감) 2천근
3. 호피 300장
4. 비단 600필…》

사다께는 오만무례하기 짝이 없는 어투로 박위의 원정준비를 비난조소하고나서 그 무슨 화해와 화평을 뇌까리며 물물교역을 운운했다.
박위의 시점에서 볼 때 사다께의 모든 수작은 새로운 음모의 시작이거나 군사적도발의 서곡일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다.
보잘것없는 작자에게 하대를 받고 조롱을 당한것이 여간만 분하지 않았으나 눈앞에 없는 놈을 놓고 분을 터친다는것은 우스운 일이였다.
잠시 거친 숨을 내불며 대마도쪽을 노려보던 박위는 다시 편지의 글발을 더듬어나갔다.
《…내가 보건대 박장군의 성미와 처지로써는 우리의 제의를 선뜻 받아물기가 조련치 않으리다. 하지만 서둘러 거절하기 전에 조성된 오늘의 정황을 신중히 따져봐야 할게요.
알고있겠지만 여기 대마도에는 지금 100여명의 경상도백성들과 죽촌사람들 그리고 왕년의 거제도별장이였던 리일경의 딸이 와있소.
장군이 만약 우리의 화평제의를 거절하거나 이달 보름날 팔소에 당도하게 될 대마도의 평화사절에게 군사적위해를 가한다면 우리는 부득불 당신을 화평의 교란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리옥의 목을 잘라보내겠소.》
《잰내비같은 놈이 누구를 감히 협박하는고?!》
박위는 종시 애써 누르고있던 울분을 터치며 와락와락 종이장을 구기였다.
불타는 시선으로 이윽토록 사위를 두릿거리던 박위는 피끗 리옥의 편지에 생각이 미치자 남은 편지장을 마저 펼치였다.
리옥의 단정한 글씨들이 눈앞으로 밀려들었다.
후두둑 가슴이 뛰였다.
편지내용은 어찌됐든 리옥이가 살아있다는것이 우선 기쁘고 다행스러웠다.
《장군께 올립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리옥은 자기가 대마도로 잡혀오던 날의 정황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간단히 언급하고나서 침울하기 그지없는 필치로 급기야 기본화제를 펼쳐놓았다.
《…이곳 령주는 현중 아버님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는 경우 그날로

고려백성들과 소녀를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갇힌 고려백성들과 소녀의 생사여탈권은 전적으로 현중 아버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현중 아버님과 현중을 만나보고싶은 소녀의 마음 하늘에 닿도록 간절하건만 망망대해에 떠도는 일엽편주와 같은 소녀의 불행한 운명은 과연 구원될수 있사온지…
부디 소녀의 일생일대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주옵소서. …》
박위는 피가 나도록 아프게 입술귀를 짓물었다.
리옥의 편지를 읽고나니 그리도 바라던 리옥의 소식을 알게 된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딱히 가늠할수 없을만큼 속이 허우룩해났다.
또한 왜구들이 죽촌을 급습하여 백성들과 리옥을 잡아간것은 이처럼 자기를 우롱하고 협박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이였다는 짐작이 굳어지였다.
박위는 아무말없이 윤통에게 두장의 편지를 다 넘겨주었다.
박위의 어수선한 뇌리속으로는 착잡하기 이를데없는 사색이 갈피없이 뒤번져지였다.
(내가… 리옥을 구원하기 위해 고려장수의 본분을 저바리고 왜구들과 짝자꿍을 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대마도에 잡혀간 우리 백성들이 왜구들의 손에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둘수도 없지 않는가. 과연 무엇을 어찌해야 두가지 일을 다 옳게 처리할수 있는가?)
박위는 불현듯 지난해 어느 여름날 저녁이 생각나자 곱살하게 생긴 작은 입술을 푸르르 떨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창원의 어느 촌락에 출몰한 왜구들을 소멸하고 군영으로 돌아가던 박위는 대오가 죽촌어구에 이르자 말에서 내리였다. 부원수에게 부대를 이끌게 한 다음 홀로 마을에 들어섰다.
리옥의 집에 나와있는 현중을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꼭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조금 민망스러우나 은근히 리옥이가 보고싶어 그런 핑게가 떠올랐는지도 몰랐다.
수레바퀴자리가 움푹움푹 패이고 잡풀들이 듬성듬성 널려있는 행길을 지나 리옥의 집앞에 이른 박위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울타리를 타고넘은 앞뜰의 구기자잎새들은 석양빛을 들쓰고 와슬와

슬 설레는데 그 모양은 마치 이기고 돌아온 고려장수를 손벽을 치며 환영하는듯싶었다.

뒤울안에서는 리옥의 나직한 노래소리가 은은히 울려나오는데 그 소리 역시 박위의 전승을 축하하는 의미깊은 환영곡으로 해석되였다.

비단필을 수놓아
변방 멀리 싸움터에 보내옵니다
귀중한 몸 아끼시고
끼니나 많이 드시기 바라나이다

나라위해 공세움이
사내대장부 할일이니
원쑤 베지 않고는
돌아오지 마옵소서

리옥의 목청은 맑고 그윽했으나 소리하는 솜씨는 그닥 신통치 못했다.

허나 가락마다 처녀의 절절한 심정이 슴배여있는탓인지 노래의 구절구절은 감동적으로 마쳐왔다.

그와 함께 노래의 내용 그대로 리옥에게도 마침내 사랑하는 사내가 생긴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떠올랐다.

그러자 왜서인지 슬그머니 속마음이 알찌근해났다.

박위는 데데한 잡념을 털어버리려는듯 갑자기 활개를 휘휘 뿌리며 뒤울로 들어갔다.

옥돌같은 두손을 모두어잡고 평상우에 앉아 저 멀리 바다쪽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던 리옥은 가벼운 탄성을 터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회군하시는 길이오니까?》

리옥은 여느때없이 당황해하며 간신히 말끝을 여미였다.

그의 하얀 볼우로 파리빛이 번져지였다.

웬일일가?!… 내가 혹시 처녀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그 어떤 보지 말아야 할것을 훔쳐보기라도 했단 말인가?

박위는 심상치 않게 두근거리는 자기의 가슴을 애써 누르며 리성의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훌륭한 장수의 딸인 리옥에게 좋은 배우자가 생겼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다.

일이 정녕 그리 되였다면 처녀의 래일을 축복해주어야 한다.)

《그래, 지금 돌아오는 길이야. 오늘 싸움에서도 수십놈의 왜구를 모짝 때려잡았으니 작은 전승이 아니지.

헌데 현중이녀석은 동네에 나가 애놈들과 장난을 하는 모양인가?!》

부러 활기를 띄우며 우선우선한 태도로 말문을 연 박위는 자기의 허리춤에서 정교하게 만든 단검을 떼내였다.

싱그레 웃으며 리옥에게 단검을 내밀었다.

《뭐라구 할가, 리옥의 노래를 훔쳐들은 값이라 할가, 전승을 축하하는 의미라 할가. 아무튼 이건 내가 몹시 애용하던 물건인데… 네게 이걸 줄만 한 사내가 생겼거든 내 마음까지 합쳐서 그에게 선물로 주도록 해라.》

《황송하옵니다.》

리옥은 살며시 얼굴을 붉히면서도 사양없이 단검을 받아들었다.

(리옥의 선물을 받을 사내는 과연 누구일고?)

참대숲사이로 빠끔히 내다보이는 저 멀리 바다가 선바위쪽에서 한무리의 호구니떼가 저마끔 제 짝을 애타게 찾으며 분주히 날아예고있었다. …

…박위는 무겁게 고개를 들었다.

(그처럼 속이 깊고 도담한 리옥이가 아무리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다한들 왜구들의 음흉수에 거의나 장단을 맞춘 편지를 쓸수 있겠는가?)

그사이 두장의 편지를 다 읽어본 윤통은 마치 이가 쏘는 사람처럼 보기 싫게 얼굴을 찡그리며 부르짖었다.

《박장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왜구의 건수작에 발을 맞출수도 없고 우리 백성들과 리별장의 딸이 참을 당하도록 내버려둘수도 없고… 이야말로 호미난방이 아닙니까?…》

박위는 천천히 채머리를 흔들며 준절하게 말했다.

《우리는 검으로 말을 하는 무관들이요. 동풍이 불건 서풍이 불건 한시도 손에서 검을 놓을수 없소.

아니, 오늘처럼 안팎의 형세가 복잡한 때일수록 더욱 힘껏 검을 틀

어잡아야 하오.》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사다께의 제의에 검으로 대답하는 경우 리옥은 왜구의 칼에 목이 잘릴겁니다.

리별장이 우리에게 맡기고간 외동딸인 리옥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위는 가슴복판에 칼이라도 박힌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

순간이나마 리옥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무관으로서의 결기만을 살린 자기를 의식한것이였다.

(그러니 내가 검을 들면 리옥은 목이 잘리게 된단 말이지. …

세상에 이런 괴이한 변사가 또 어디 있을고?…)

앞마당 저편 구석쪽에서 돌연 현중의 울음소리가 끅끅 흘러나왔다.

그는 검술훈련을 하다말고 박위와 윤통이 나누는 말을 엿들은 모양이였다.

《이애 현중아—》

윤통은 울음소리가 새나오는쪽으로 겅정겅정 반달음을 놓았으나 현중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비맞은 장닭모양으로 후줄근해진 여삼이가 지척지척 골기없이 걸어왔다.

여삼이도 현중이와 함께 두 량반의 대화를 말끔히 훔쳐들은게 분명했다.

박위는 입빠른 여삼에게 오늘 엿들은 말을 일체 내돌리지 말라고 일러야 했으나 왜서인지 전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산기슭에 널려있는 군막쪽에서 아침밥을 짓는 군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추 드리운 비구름탓에 밥짓는 연기는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그물그물 땅바닥을 핥으며 이쪽으로 밀려내리고있었다.

박위는 졸지에 할바를 망각한 사람마냥 우두머니 굳어진채 움직일줄 몰랐다.

…그날 저녁 김해관가의 조호백도 박위가 받은 편지와 엇비슷한 내용의 얼쑹덜쑹한 편지 두통을 손에 넣었다.

그것은 물론 매화가 록산의 어느 촌길에서 주은것이라며 가져다준것이였다. 호백은 편지를 다 읽고나서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다.

이제는 이런저런 증거물을 꾸미거나 주어모을것도 없이 편지 두장만 조정에 가져다바치면 박위의 목대는 그날로 뎅겅할것이였다.
잔인한 환희로 온몸이 화끈 달아오른 호백은 수상쩍기 짝이 없는 두장의 편지가 어떻게 되여 유독 매화의 손에 들어오게 되였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캐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9

검충충한 구름장들이 갈가리 터지고 찢어지며 이쪽으로 빠르게 밀려오는 꼴이 머지않아 또 한차례의 된소나기가 쏟아질것 같았다.
우수수— 벌써부터 물기를 머금은 습한 바람이 밀려들며 손바닥만큼이나 넓은 나무잎새들을 희끗희끗하게 뒤번져놓았다. 시꺼멓게 색이 죽은 하늘을 흘낏흘낏 살펴보며 쩔뚝쩔뚝 걸음을 옮기던 오천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봄소나기 삼형제라더니 가을소나기도 삼형제인가?… 줄금줄금 내리기는 젠장… 이제 또 한차례 소나기가 쏟아지면 산을 오르내리기가 여간 구접스럽지 않을텐데…
에라— 해가 쨍쨍한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걷기보다는 시원하게 비를 맞으며 걷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빌어먹을 놈의 소나기 퍼붓겠거든 실컷 퍼부어라. …》
만사를 락관적으로 감수하는데 습관된 오천은 으스산한 날씨조차 제좋게 해석하고는 공연히 더 기분이 좋아지여 벌씬벌씬 웃기까지 하며 걸음을 내짚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허리가 지끈지끈 결리고 장다리가 쿡쿡 쑤시여 절로 이를 사려물게 되였다.
아직도 매맞은 어혈이 깨끗이 풀리지 않은탓이였다.
하지만 오천의 기분은 지금 무척 좋았다.

뭐니뭐니해도 오늘중에 염초감대기를 큼직하게 얻어내게 된것이 제일로 기뻤다.

하여 오천은 벙그레 웃음을 띄운채 그냥 제 혼자 시시벌거리였다.

《사람이 마음먹고 나선 다음에야 못해낼 일이 무엇이랴.

염초감대기도 고양이뿔이나 자라털이 아닌 다음에야 못 구해낼 턱이 없느니… 이 오천이 염초일때문에 박장군에게 애매한 매를 좀 맞기는 했다만 그게 무슨 대수냐. 큰일을 하러 나선 사내대장부의 앞길에 어찌 노상 평탄태로만 있으리오, 헛허허…》

오천은 마음이 들썽들썽해나는중에도 은근히 박위에 대한 악의없는 반감이 떠올랐다.

물론 그것은 억울한 매를 맞았다고 하여 옹졸하게 도사려먹은 치졸한 악심이 아니였다.

오천은 무엇보다도 임금이나 조정의 량반들과 어울려야 모든 일이 성사될수 있다고 보는 박위의 삐뚤어진 관념(박위는 언제한번 내놓고 그런 말을 한적이 없었으나 오천은 추호의 의문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이 진저리가 날만큼 싫었다.

원래 오천은 량반일반을 그다지 신통하게 여기지 않았다.

개경의 화통도감에서 일할 때부터 그의 눈에 비쳐진 량반들은 거개가 조상뼈다귀를 추켜들고 허세와 교기를 부리는 허풍선이들이였고 말시비질과 음풍영월로 허송세월하는 건달군들이였다.

그들중에는 외적이 출몰했다는 소문만 들어도 혼맹이가 건공중에 떠서 부들부들 떠는 겁쟁이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는 기가 나서 충의를 떠들다가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저 하나의 권세와 영달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위선자들도 적지 않았다.

개중에는 물론 최무선이처럼 진정으로 나라일을 걱정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깡그리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바치는 량반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은 쌀에 섞인 뉘만큼이나 희소했다.

하기에 오천은 권세있는 량반들이 떠밀어주어야 이번 원정이 성사될것이라고 믿고있는 박위가 적지 않게 못마땅하였다.

박위 역시 량반일반이 다 그러하듯 자기를 포함한 무세한 상사람들을 무턱대고 우습게 여기는듯싶어 은근히 섭섭하기도 했다.

물론 오천은 뜻이 높고 무술에 능하며 배짱과 기개도 헌헌할뿐

아니라 자기를 각방으로 내세워주고 믿어주는 박위를 깊이 존경하고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껏 드팀없이 고수해온 인생신조와 생활관념을 굽히게 되지는 않았다.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참깨, 들깨 다 섞어가지고는 일이 옳게 될것 같지 않았다.
더구나 자기들과는 처지도 다르고 궁냥도 다른 조정의 량반들과 김해부사같은 사람들을 믿고 일을 내민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제일 확실한것은 자기 몸에 붙어있는 머리와 팔다리요, 제일로 믿음직한것은 평범한 군사들과 백성들의 힘이였다.
오천의 인생관은 정녕 이러했다.
그의 인생관은 단순하고 소박할망정 절대로 허망한것이 아니여서 이번에도 역시 간난신고끝에 염초감대기를 쓰고도 남을만큼 얻게 된것이였다. …
부슬부슬 비방울이 떨어지였다.
허나 오천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산중깊이로 자꾸자꾸 들어갔다.
…오천의 고향은 교주도(오늘의 강원도지역)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난 도지촌이라는 곳이였다.
바다에는 철따라 각색 물고기떼가 오르내리고 들에는 갖가지 곡식들이 기름지게 잘도 되는데 집오래와 산기슭에는 온갖 과일들이 가지가 휘도록 주렁지였다.
오천이 아버지는 서글서글한 성격에 남의 어려운 사정을 제일처럼 살펴주고 도와주는 인정많은 사람이였다.
게다가 무슨 일이든 남들의 곱으로 걸싸게 해제끼면서도 눈썰미가 빠르고 손재주가 좋아서 바다에 나가면 주장 목대잡이노릇을 하고 들에 나가면 꼭지대접을 받았다.
성격이나 취미가 꼭 아버지를 닮은 오천은 연골적부터 바지런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바다일과 농사일에 몸을 적시고 농구나 어구를 손질하는 방법도 열심으로 익히였다.
부자가 억척같이 일하는데다 오천이 어머니까지 흑달과 해소병으로 장참 앓으면서도 고기밸을 따거나 미역과 조개를 말리우는따위

의 잡일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관가에서 불러대는 온갖 명색의 가렴잡세를 빠짐없이 훑어바치고나면 군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마을 앞바다로는 초복의 더운 물줄기를 타고 여느때없이 큰 낙지떼가 연연 밀려들었다.
도지촌사람들은 너도나도 바다에 뛰여들었다. 오천이부자도 뒤질리 없었다.
그날도 너벅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장밤 낙지잡이를 한 오천이부자는 동녘이 희붐하게 밝아오자 기슭쪽으로 배머리를 돌리였다.
밤새껏 기름불을 켜들고 낙지잡이를 한탓에 눈정기도 어지간히 흐렸지만 사방에 젖빛안개가 자오록이 덮이여 한치 앞도 가려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배꼽에 굴껍데기가 더께로 앉았다고 할만큼 바다물계에 밝은 오천이 아버지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노를 저어나갔다.
안개발에 몸을 잠그고 부지런히 노를 젓던 아버지가 갑자기 흠칫 몸을 떨더니 우뚝 굳어지였다.
앞쪽에서 돌연 코숭이가 뾰족하게 쳐들린 낯선 다락배 여러척이 안개덩이를 가르며 불쑥불쑥 나타난것이였다.
다락배들에서는 쌈싸우듯 하는 왜구들의 말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다.
《아뿔싸! 왜구들의 배로다! 오천아! 어서 물에 뛰여들어라!》
아버지는 한손에 노대를 틀어쥔채 오천의 등을 마구다지로 떠밀었다.
《아버지도 같이 뛰여내리자요. 저놈들에게 잡히면 죽어요.》
오천은 아버지의 솥뚜껑같은 손을 힘껏 끌어당기였다.
아버지의 부리부리한 눈에서 절망적인 초조감이 류황불처럼 파랗게 타올랐다.
《이녀석아, 좁쌀여우처럼 잔꾀가 말짱한 왜구들이 빈 배를 보고 그냥 갈상싶으냐. 저놈들이 참빗질하듯 바다를 훑으면 너도나도 다 잡혀죽는다. 내 저놈들을 끌고갈테니 너만이라도…》
아버지는 제잡담 오천을 버쩍 안아들더니 바다물에 내동댕이라도 치

듯 던지였다.

하고는 일부러 노소리를 야단스럽게 내며 다락배들을 맞받아 배를 몰아갔다.

왜구의 배들은 먹이감을 발견한 구렝이떼마냥 아버지의 너벅선으로 우르르 밀려들었다.

물속에 곤두박혔던 오천이 수면우에 떠오르니 바다는 더없이 고요했다.

아버지는 필경 왜구들의 칼에 찔려 난탕이 되였을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오천의 뇌리를 번개처럼 때리였다.

쏟아져나오는 비명을 씹어삼키며 방향없이 바다를 헤가르던 오천은 중낮무렵에야 바다우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빈 배를 발견하였다.

황급히 배에 올라보니 그들먹이 쌓여있던 낙지무지는 간곳 없고 그 자리에는 온통 피자박이 된 아버지가 고기밸따는 칼을 틀어쥔채 쓰러져있었다.

목터지게 찾고 불러도 아버지는 전혀 기척이 없었다.

가슴이 꺼져내리였다. 바다가 빙그르르 돌아갔다. 오천이 아버지를 업고 집에 들어서니 그러지 않아도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어머니는 기혼을 하여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오천은 왜구로 하여 하루아침새 량부모를 다 잃은 혈혈단신, 천애고아로 세상밖에 내던져지였다.

소년의 작은 심장은 복수의 피로 끓어번지였다.

그후 오천은 군사가 될 꿈을 안고 이 고장, 저 고장으로 나돌아다니던 끝에 화통도감에서 행수(관청수공업장에서 일하는 장공인들에게 주던 낮은 급의 벼슬.)노릇을 하는 먼 친척벌되는 사람의 권유로 개경에 올라가 화통도감에서 일하게 되였다.

당시 화통도감은 최무선의 지휘밑에 화약과 화약무기를 생산하는 조정소속의 병기창으로서 그곳에서 일하는 장공인들은 군사들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최무선은 화통도감의 일군들에게 화약과 화약무기를 만들게 하는 한편 각종 화약무기의 사용방법도 배워주고있었다.

오천은 부모들의 원쑤를 갚는 심정으로 도감의 일에 심신을 다 바

쳐가면서 화약무기들의 사용방법을 열심히 배워나갔다. 하지만 오천의 소원은 병기를 만드는 군사가 아니라 병기를 잡고 싸우는 군사가 되는것이였다.

오천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최무선에게 지금 한창 왜구들과 싸움을 벌리는 전역으로 보내줄것을 열렬히 요청하였다.

용감하고 지혜로운 학자이며 사려깊은 인간인 최무선은 오천의 심정을 십분 리해하고 그의 갸륵한 소청을 높이 치하해줄뿐아니라 적절한 기회에 전방에 보내줄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무선은 오래전부터 화통도감에서 생산하는 화약과 화약무기로는 전군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는 조건에서 오천과 같은 재능있는 젊은이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방군자체로 화약과 화약무기를 만들어쓰게 하면 여러가지로 유익할것이라고 타산하고있었다.

일이 될 때라 지난해 여름 개경에 올라왔던 박위가 화통도감에 들리였다.

무선은 박위를 조용히 따로 만나 자기의 속생각을 자상히 알려주고나서 오천을 수하의 군사로 받아줄것을 부탁하였다.

박위는 무선의 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오천은 자기의 념원대로 통좁은 바지를 가뜬하게 차려입은 전역의 군사가 되였다.

이러한 오천이기에 대마도원정을 준비할데 대한 박위의 령이 떨어지자 그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팔을 부르걷고 원정준비에 떨쳐나섰다.

부모의 원쑤를 열백배로 갚게 된것도 기뻤지만 불구대천의 원쑤인 왜구가 다시는 나라지경을 범접하지 못하게 도적떼의 소굴을 통채로 짓뭉개버린다는것은 생각만 해도 통쾌한 일이였다.

오천은 힘에 겨운 염초장일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헌데 정작 염초장일을 껴안고보니 염초를 만드는 일은 애초의 짐작처럼 썩썩 풀려나가지 않았다.

역시 제일로 걸린것은 염초감대기였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여 염초감대기가 들나게 되자 오천이네들은 군영앞동네와 린근마을은 물론 수십리밖에까지 나돌며 촌촌호호를 훑었으나 번마다 모아지는 부엌재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염초생산을 확장할수 없었다. 염초감을 대량

으로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골을 썩이던 오천은 불현듯 최무선이가 처음으로 화약을 만들 때 오래된 절간마루밑의 먼지로 염초를 만들어 썼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오천은 무릎을 탁 치며 환성을 올리였다.

(챠, 어째서 그 생각이 이제야 떠올랐을가?… 아무튼지 이제는 됐다.

여기 김해는 옛적부터 타고장에 비길수없이 미신놀이가 성해온 고장이니 오래된 절간도 많을것이다.

우선 오래된 절간들을 전부 알아낸 다음 절마다에 마루밑먼지가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자.

그다음은 절의 주지들에게 군영의 형편을 잘 알려주고 협력을 요청하면 일은 그야말로 다 먹어놓은 떡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당장 일을 시작하자니 한가지 불안하고 께름한 문제가 있었다.

만약 절간의 주지들이 자기의 요청이나 설복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울뚝불뚝 소동을 일으킨다면 일은 예상외로 복잡해질것이였다.

여삼의 말에 의하면 지금 조정의 일부 량반들은 박위를 모해하기 위해 별의별 험한 소리를 다 지어돌린다고 한다.

그런데 자기의 절간마루밑의 먼지를 파낸 일이 절간파괴죄로 오도되여 그 죄가 박위에게 재차 덮씌워진다면 박위는 더 큰 위험에 처하고 원정은 파탄의 랑끝에 오를수도 있었다.

이 점이야말로 신중한 고려를 돌려야 할 문제였다.

오천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다.

마침내 그는 후날 절간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 자기 혼자 그 죄를 홈빡 뒤집어써야 하며 그러자면 절간마루먼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럴 때 뜻밖에도 죽촌에서 찾아온 저대로인은 저들도 전함건조와 염초생산을 한귀퉁이라도 맡아하겠노라고 자청해나섰다.

그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인 동시에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방도를 틩겨주는 계기로 되였다.

(우리의 군사일을 돕고싶어 몸달아있으면서 방도를 몰라서 바재이는 백성들이 어찌 죽촌사람들뿐이겠는가.

절간위치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동네방네 들리여 염초일이 얼마나 중하고 급한 일인가를 잘 알려주고 가능한껏 저들끼리 만들게 한다면 정

말 큰 도움이 될것이다.)
그때로부터 오천의 일감은 두배, 세배로 불어났다.
오천은 죽촌은 물론 구렁촌과 가락마을에까지 나들며 사람들에게 배를 뭇는 방법과 염초일의 묘리를 직심스럽게 가르쳐주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생소한 이 고장의 지형과 오래된 절간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누구도 모르게 산을 나들던 오천은 어느날 조용한 기회에 취금이를 찾아갔다.
때마침 구서방은 염초장으로 나간 뒤여서 집안팎은 쥐죽은듯 고요한데 취금은 토방우에 실팍한 무릎을 감싸고 앉아 수수쌀에 섞인 뉘를 고르고있었다.
오천은 셈평좋게 취금이곁에 털버덕 걸터앉았다.
《마침 집에 있었구먼. 내 오늘 먼길을 다녀와야겠는데 수고스러운대로 점심밥 한그릇 얼추 싸주어.》
이제는 상당히 친숙해지여 예전처럼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생청같은 소리가 터져나오군 하는 일은 거의나 없었다.
헌데 말부리를 털어놓고보니 오늘도 첫마디부터 썩 영글게 나간것같지 않아 은근히 속이 조여들었다.
사실 오천은 점심밥을 싸는것마저 남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것 같아 군영에서는 일체 입을 봉하고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매번 점심을 굶으며 나돌아다닐수는 없었다.
하여 오늘은 취금에게 조용히 점심밥부탁을 하려고 그의 집에 나온것이였다. 헌데 군말없이 응할줄 알았던 취금은 시작부터 의외의 태도를 보이였다.
《내가 무엇때문에 그녁의 밥을 싸준단 말이야? 군영에 가서 군졸들 보고 싸달래여.》
오천은 등이 달았다.
《챠 이런, 보리밥이나 수수밥 한덩이에 절인 조개 몇쪽을 꾹꾹 박아주면 될텐데 뭘 그리 비쌔구 저쌔구 하는거여?
군영에 대고는 밥싸달라고 할 형편이 못돼서 그래.》
취금은 숙어들기는커녕 더욱 랭랭하게 나왔다.
《군영에서 못 싸주는 밥을 내가 왜 싸준단 말이야. 객적은 소리 그

만하구 저리 비켜.

샘둥천에 나가서 저녁반찬으로 쓸 고사리를 씻어야겠어.》

무엇때문인지 잔뜩 앵돌아진 취금의 속을 풀어놓자면 앞뒤사연을 죄다 빠개놔야 할것 같은데 일의 시작부터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을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들개처럼 노상 굶어가지고 산속을 나돌아다닐수는 없는노릇이였다.

잠시 고개를 비틀어꽂고 서서 바재이던 오천은 사랑에 취한 총각녀석들이 대개 그러하듯 이 처녀만은 절대적으로 믿을수 있다고 자신을 납득시켜버리였다.

오천은 자기가 취금의 깜찍한 수에 넘어간줄도 모르고 루루이 량해까지 구해가며 자초지종을 전부 토설해놓았다.

오천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취금은 수수쌀이 골숨하게 담긴 질자배기를 드르륵 밀어내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함께 갈테야.》

일이 이렇게 번져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오천은 퀭하게 눈을 흡뜨고 취금의 상기된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어딜 함께 간단 말이야?》

《어디긴 어디야, 저 가는데지. 그녁은 여기 온지 한해도 되나마나하니 이 고장 산길도 잘 모르고 오래된 절간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도 똑똑히 모르지 않아.

하지만 난 봄내, 가으내 나물캐러 다니고 송피벗기러 다니고 또 아버지를 따라 화살감을 베러 다니기도 했으니 어느 산이나 다 손금보듯 환하단 말이야.》

잠시 어정쩡해있던 오천은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취금이와 함께 나섰다가는 후일 그에게까지 무서운 불행이 떨어질수 있다는 섬찍한 예감이 들자 다소간 흔들리던 오천의 마음은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다.

《딴은 그렇지만… 이번 길은 나 혼자 가야 해.》

취금의 덕성스럽게 생긴 하얀 얼굴은 그 어떤 원망의 빛을 띠고 이그러들었다.

《안되긴 왜 안된다는거야? 저한테만 가슴아픈 사연이 있고 저한테

만 왜구에 대한 원한이 있다구 생각지 말아.

우리 엄만 내가 두살도 되기 전에 바다에 무잡이질을 나갔다가 왜구의 칼에 찔려 돌아갔어.

시신도 찾을수 없게 먼바다 어딘가로 피물을 흘리며 밀려갔단 말이야.

또 우리 아버지는 갓 스무살 한창나이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바다복판에서 왜구들의 쇠장대에 얻어맞아 한쪽팔을 잃었어.

어깨뼈가 다 으스러졌단 말이야. …》

서럽게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어가던 취금은 눈물이 번들거리는 얼굴을 오연히 쳐들었다.

《그러니 나도 왜구를 요정내는 일에 마음 한귀퉁이라도 바쳐야 조금이나마 속이 개운할거야. 그녁처럼 일등군사는 못된다쳐도 꼬리잡이군사노릇이라도 해야 하겠단 말이야.

거기서 그예 나를 따버리려 한다면 난 이길로 군영에 들어가 장군께 금방 들은 소리를 몽땅 일러바칠테야.》

오천은 취금의 눈물어린 진정과 결연한 의지에 가슴이 저리도록 감심이 되였다.

자기의 비밀한 일의 속내를 박위에게 일러바치겠다는 취금의 위협또한 여간만 두렵지 않았다.

취금이를 데리고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고보니 이 고장 지형에 밝은 취금이와 함께 일을 펼치면 도움이 될 일도 적지 않을것 같았다.

그날부터 오천과 취금은 산과 산을 넘고 골과 골을 누비며 오래된 절들을 찾아다니였다.

가시덤불, 넝쿨나무에 할퀴우고 걸려 넘어지고…

츠렁바위에서 굴러내리고…

때로는 헛길을 잡아 밤새껏 수십리산길을 빙빙 에돌기도 했다.

언젠가는 봉은사의 응진전(석가모니의 제자라는 라한부처를 놓아두는 건물.) 마루밑을 들척거리다가 도적년놈으로 몰리여 하마트면 중놈들의 모두매에 들번 하였다.

또 어느날 밤엔가는 죽촌사람들의 일을 살펴주고나서 그곳 미륵불앞을 지나다가 굶주린 늑대무리를 만나 여차하면 맹수들의 밥이 될번

한적도 있었다.
심신은 말할수없이 고달팠으나 일이 진척되는것이 기쁘기만 한 오천은 노상 싱글벙글 웃으며 나다니였다.
《아이유! 오천대정이 요즘 별스레 얼굴이 환해진다?…
일이 아주 잘돼가나부지?》
입심센 동네아낙네들은 취금이와 오천을 볼적마다 공연한 호기심을 품고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
그러면 자기의 일이 누구도 모르게 썩썩 풀려나가는것이 흐뭇하기만 한 오천은 매양 신중성없는 롱담으로 그들의 말을 아무렇게나 받아넘기였다.
《그러문요. 이 오천대정의 일이 잘 안될 까닭이 있나요.
이제 채단마련만 다되면 이 늙은 총각도 제꺽 두루마리상투를 뭉그려 꽂으렵니다, 헛허.》
이렇게 되여 오천의 비밀한 속내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의 언행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되였고 결국은 억울한 매까지 맞게 되였다.
그래도 오천은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는것이 기쁘기만 했다.
여하튼 장근 두석달을 남모르게 애쓴 보람이 있어 이제는 오래된 절간들의 위치는 물론 들고나는 길도 환하게 알게 되였고 어느 절에 마루밑먼지가 얼마만큼 있다는것까지 알뜰하게 파악하게 되였다. 또한 절간의 주지들을 여러차례씩 만나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염초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미 짐작했던대로 가장 큰 골치거리는 역시 매 절의 주지들이였다.
오천의 소청을 옳게 여겨듣고 그까짓 마루밑먼지같은것이야 왜 못내겠느냐 하고 선뜻 응해나서는 주지들도 있었으나 그런 사람은 겨우 두명뿐이였다.
어떤 주지는 오천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세상에 이런 괴변이 어디 있느냐고 왝왝 고아대는가 하면 어떤 주지는 골살을 잔뜩 찌프린채 검다희다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또 어떤 작자들은 매번 한본새로 저들의 절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노라고 무턱대고 내우기였다.
보람없는 설복과 애원을 하고다니는 사이 날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더이상 주지들의 암매한 견해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있을수 없었다.
오천은 마침내 오늘까지 설복을 해도 먹어들지 않는다면 강짜를 써서라도 마루밑의 먼지를 전부 퍼내리라 결심하였다.
모든 절의 주지들이 거의 일치하게 반대하는 조건에서 오천의 이러한 용단은 장차 어떤 화단을 가져올지 알수 없는 매우 위태로운것이였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다 각오한 오천은 결심을 다지자 주저없이 행동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첫 과녁을 봉은사로 정한 오천은 아침일찍 염초장사람들에게 짐을 담을수 있는 물건들을 갖춰가지고 봉은사절문앞으로 오라고 이른 다음 제 먼저 길을 떠났다.
한걸음 앞서가서 봉은사주지를 다시한번 잘 주물러볼 작정이였다.
또한 중놈들과 어떤 드잡이가 벌어질지 알수 없는 오늘만은 취금이를 자기곁에서 떼버리기 위해서였다.
하여 오천은 군영에서 자고 나오자 잔입 그대로 황망히 산길로 접어들었다. …
…비발은 더욱 굵어지였다.
하지만 쩔뚝거리는 다리모양과는 판다르게 기운차게 활개짓을 치는 오천의 뇌리속에서는 취금의 사랑스러운 얼굴모양이 따갑게 맴돌고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천진하고 새침하고 또 명랑하기도 한 처녀의 이채로운 성격과 덕성스럽게 생긴 생김새에 마음이 끌렸었다.
허나 지금에는 왜구를 족치는 그 길에서 군사들과 한동아리가 되여 자기를 바치려는 처녀의 웅심깊고 강단있는 속심지에 걷잡을수없이 넋이 끌리였다.
그것이야말로 취금의 가장 큰 장점이요, 두사람이 한일생 시들지 않는 사랑의 꽃을 피워나갈수 있는 공통된 사랑의 바탕이 아니겠는가?!…
오천은 취금이가 마치 눈앞에 있기라도 한듯 벙시레 웃으며 중얼거리였다.
《지금쯤 취금이는 내가 혼자서 봉은사에 갔다는걸 알아차렸을게야.
눈이 쌍그레가지고 한창 야단을 치겠군. 하지만 혼자서야 따라올 생의를 못 내겠지. 저번날처럼 숲속에서 늑대들이 기여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테지. 이제 일을 끝내고 돌아가면 나 혼자 갔다 왔다고 성화가 이만저만 아닐게야.

헛허허… 그럴테면 그러라지. 취금이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밉기는 커녕 정나미가 폭폭 드는데야 그 성화인즉 얼마나 즐거운것이냐, 허허…》

후둑후둑… 쏴— 쏴—

어느새 소나기로 변한 비발은 제법 소란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몰박으로 쏟아져내리였다.

그제서야 확연히 현실감을 의식한 오천은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몽몽한 안개, 쏟아져내리는 소나기, 뒤척거리는 숲…

아무리 급한 길이라 해도 초입부터 온몸을 화락하게 적시고싶지는 않았다.

오천은 다리도 쉬우고 소나기도 그을겸 오솔길가에 홀로 허리를 꼬부리고 서있는 늙은 소나무밑으로 들어갔다.

지끈지끈 들쑤시는 거북스러운 다리를 쭉 내뻗치고 퍼더앉았다.

심상한 기색으로 소나기에 잠긴 숲속을 휘휘 둘러보던 오천은 바로 발치앞에 드리워있는 넝쿨속에 밤알만 한 머루알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것을 띠여보자 벌씬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요즘 여삼이 색시가 입쓰리인지 눈쓰리인지 한다던데 채 익지 않은 저 머루를 따다주면 좋아하겠구나.

근래 그 집에 자주 나가보지 못하니 여삼이나 여삼이 색시가 날 원망하겠지.)

머루넝쿨을 향해 몇걸음 다가가던 오천은 다시 우뚝 굳어지였다.

어제 저녁 저녁밥짓는 모닥불가로 우정 자기를 찾아왔던 여삼의 얄팍한 얼굴이 떠올랐다.

한동안은 제쪽에서 공연히 시뜩해다니던 여삼은 오천이가 매를 맞고난 뒤로는 왜서인지 마주칠 때마다 까닭없이 어색해하면서 무슨 말이든 정답게 나누고싶어하는 눈치였다.

헌데 어제 저녁 여삼의 말은 그의 평소의 표정과는 달리 제법 훈시조로 펼쳐지였다.

《형님, 내 일전에도 여러번 말하지 않았소. 지금 개경의 어떤 량

반들은 우리 군영에서 반정을 준비하고있노라구 떠든다구… 아, 그런데 저번날 아침에는 우리 군영에 대마도령주라는 놈의 편지가 날아들었소.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어떤 물건들을 저들에게 가져다바치지 않으면 잡아간 고려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떵떵 으르는 내용의 편지랍디다.

내참, 이런 괴변이 또 어디 있겠소.

부원수나리는 우리 군영근처에 왜구의 세작이 박혀있는게 분명하다구 찍어서 말합디다.

판국은 이러한데 형님은 허구헌 날 나돌아다니기만 하니 이게 어디 일이 됐소?

누구보다 일축을 많이 내야 할 형님이 그러고 다니니 나부터 안타깝고 서운하우.》

여삼은 박위가 군심민심이 다 소란해질수 있으니 절대로 대마도령주의 편지사건에 대해서는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까지 털어놓으며 알고있는 소식을 죄다 뱉아놓았다.

오천은 여삼의 말을 듣는 첫 순간에도 그러했지만 그의 말을 되새겨보는 지금에도 까닭모를 죄의식으로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내외의 형세는 날로 험악해지는데 여삼의 말과 같이 남보다 몇배로 일축을 내야 할 자기는 한정없이 늦장을 부리는듯싶었다.

매일, 매 시각 곤두박질하듯 뛰고 달려서 시각빨리 원정준비를 끝내야 했다.

그와 함께 앞에서 날뛰는 왜구도 때려잡고 뒤에 숨어서 군영의 비밀을 뽑아내는 왜구의 세작도 텅겨잡아야 했다.

어느결에 머루열매같은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오천은 자기의 눈앞에 금시 어떤 흉악한 적이 나서기라도 한듯 눈을 지릅뜨고 줄대처럼 쏟아져내리는 폭우속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갑자기 뒤쪽에서 와작와작 젖은 나무가지들과 잎새들을 헤치며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리였다.

오천은 잽싸게 몸을 돌리였다.

한껏 긴장된 시선으로 뿌잇한 비발속을 노려보던 오천은 온통 물참봉이 되여가지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가려보자 너무도 기가 막히여 입을 딱 벌리였다.

10

《아니, 왜 그렇게 놀라는거야? 무슨 귀신같은것이 다가붙는가 했는 모양이지, 호호호…》

온몸이 화락하게 젖었으나 후줄근해보이기는커녕 여느때보다 오히려 더 싱싱해보이는 취금은 유쾌한 꽃다림놀이에라도 나선듯 상글상글 웃으며 경쾌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가 걸음을 내짚는대로 젖은 나무잎들과 풀포기들에서 구슬알같은 물방울들이 후둑후둑 튀여났다.

치마자락에서도 구슬꿰미같은 물방울들이 줄줄 떨어져내리였다.

《아니, 취금이가 어떻게?!…》

천생 반죽좋고 숫기좋은 오천이건만 전혀 예상밖의 일이라 혀가 굳어지여 얼추 말마디가 굴려지지 않았다.

놀라움이 가라앉자 이처럼 지겨운 날씨에 기어이 자기뒤를 밟아온 취금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뜨거운 속마음이 헤아려지여 가슴이 뭉클해났다.

취금이도 오늘의 이 길이 험악한 드잡이판과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것이 후날 녀자로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악형과 옥살이로 번져질수 있다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도 취금은 종주먹을 부르쥐고 끝끝내 뒤쫓아온것이였다.

홀로 비내리는 숲속길을 걸어서, 그것도 상글상글 웃으면서…

단지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간다는 식의 세속적인 인정에 끌려서일가.

물론 그런 마음도 아주 없는것은 아닐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모진 고생속에서도 비끄이지 않고 곁바르게 자라난 처녀의 가슴속에는 왜구격멸의 전장에 화포알 하나라도 제힘으로 마련하여 섬기고싶은 열렬한 마음, 오천이와 고난도 위험도 함께 나

누려는 고결한 마음이 끓어넘치고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오천은 감동에 젖고 비물에 젖어 그냥 쓰려나는 눈을 재게 슴벅거리며 공연히 헛기침을 톺아올리였다.
희멀끔한 얼굴탓인지 뚱뚱할사 한 몸집탓인지 비물, 흙물에 매닥질이 되였어도 보름달처럼 환하게만 안겨오는 취금의 얼굴을 하염없이 쳐다보았다.
잠시 오천을 마주보던 취금은 무엇이 그리 기쁜지 살며시 뜻있는 웃음을 빼여물었다.
취금은 오천이가 도망이라도 치듯 혼자 몰래 떠나온것이 조금 고깝기는 했으나 바로 거기에서 자기를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내의 웅심깊은 속마음을 더욱 저저이 느낄수 있었다.
생각할수록 뜨거운 정이 사품쳐끓었다. 허나 이런 때면 대개 그러하듯 취금은 자기의 끓어오르는 마음을 웃음과 생청같은 화제로 가리우고싶었다.
《흠, 그렇게 혼자 도망을 쳐서야 그게 무슨 인정이람. 참, 알량도 하지…》
《할말이 없게 됐군.》
《헌데 이렇게 장참 먼길을 걸어서야 매맞은 어혈이 어디 풀리겠어?》
취금의 표정과 어투는 여전히 맑고 명랑했다. 허지만 옥쪼각처럼 반짝이는 처녀의 눈을 여겨보는 오천의 가슴은 갈수록 그들먹하게 괴여올랐다.
오천은 힘겹게 머리를 흔들며 떠드박거리였다.
《그까짓거… 이젠 거지반 풀렸는데 뭐.》
《아니야. 지금도 쑤시고 결리는걸 애써 참겠지.
아무튼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절간소리는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다니 그녁이 독하긴 독한 사람이야.》
《독하기야 뭘, 말을 해서는 일을 그르치겠기에 참고 견딘거지…》
《어쩜 사람이…》
오천의 넓둥그런 얼굴에도 격정이 어리고 취금의 퉁퉁한 낯에도 감동이 실려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색고운 노을빛은 억수로 쏟아지는 비

물도 씻어내지 못했다. 이윽하여 취금은 꽤 묵직해보이는 베보자기를 오천이앞에 들어올리였다.

《참, 울아버지 몰래 그녁이 좋아하는 수수탁배기를 한방구리 떠가지구왔어.

이걸 마시고 걸으면 다리도 덜 아프고 허리도 덜 쑤실거야.》

《아니, 그건 뭘… 난 취금이가 이렇게 따라나선것만 해도 기운이 나는데 뭐…》

오천은 주체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속이 넘쳐나는 바람에 종시 말끝을 여미지 못했다.

축축하게 젖은 손으로 후끈후끈해나는 얼굴을 문지르며 술방구리를 받아들념을 내지 못했다.

진정 취금의 맑고 랑랑한 말마디에서는 얼마나 후덥고 진실한 사랑의 향기가 풍기고있는가!…

어머니를 여읜 뒤 지금까지 녀자의 살뜰한 정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한 오천은 자기의 몸에 생긴 별치 않은 상처의 뒤탈까지 깊이 념려해주는 취금의 다심한 마음에 그만 코끝이 매워나고 눈시울이 깔깔해났다.

취금은 취금이대로 오천이가 여느때없이 사랑스러웠다.

예전에는 노상 싱글거리며 다니는것이 어딘가 맺힌데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었다.

허나 근래에 이르러보니 오천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웃음으로 휘감아던지며 간고한 인생길을 자신만만하게 맹속으로 달리는 쾌남아였다.

그의 넓은 가슴에는 진정 비길데없이 높은 뜻과 가지각색 재주, 뜨겁고 웅심깊은 인정이 넘치도록 출렁이고있었다.

오천은 어느모로 보나 일등의 품격을 갖춘 군사요, 제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싶은 사내였다.

촉촉하게 젖은 눈시울을 내리깐채 높은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던 취금은 오천의 담벽같은 가슴에 살며시 볼을 가져다대며 눈을 감았다.

《누군 뭐 그렇지 않나. 나도 그녁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힘이 나고…》

꿈속에서처럼 분명치 않은 소리를 흘리는 취금의 곱게 감겨진 눈에서는 순결한 처녀의 한생에 두번다시 있을수 없는 사연깊은 눈물이 소리없이 굴러내리고있었다. 오천은 부지불식간 자기로서도 쉬이 제

어할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에 떠밀리워 취금의 실한 어깨를 와락 그러안았다.

그 서슬에 처녀의 발밑에서 술방구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울리였으나 두사람은 다같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비는 여전히 몰박으로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인적없는 숲속에 쉬임없이 내리는 초가을의 소나기는 을씨년스러웠으나 불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된 두 청춘에게는 그것이 저들의 사랑을 축복하여 뿌려주는 자연의 선물처럼 의미깊게 느껴지였다. …

…신라의 미추왕때 고구려에서 넘어온 아도라는 법사가 이 땅에 처음으로 불법을 전파하면서 세웠다고 하는 상당히 미심쩍은 유래를 가지고있는 봉은사는 보전(절의 기본건물)도 웅장하고 승방(중들이 사는 집)과 암자도 무수히 많았다.

종루(종을 매달아두는 다락)와 경주(불경을 보관해두는 건물), 절문과 절탑따위들도 여느 절에 비교할수 없을만큼 크고도 근감했다.

그런데다 방금 휩쓸고 지나간 소나기에 함씬 미역을 감은 절의 건물들과 주변의 울창한 숲은 기름이라도 발라놓은것처럼 선명하게 색이 두드러지여 더한층 현란한 맛을 돋구고있었다.

8각의 돌탑과 대웅전, 응진전, 무량수전, 극락전, 보당전 등 각색 건물들의 추녀끝에 주렁주렁 매달린 풍경들은 오가는 바람결을 타고 잘그랑잘그랑 부드러운 금속음을 내는데 그 소리 또한 이 절의 유구한 력사와 풍미를 은은히 자랑하는듯싶었다.

어디선가 향불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목탁소리, 불경 외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세상사가 여의치 못해 절을 찾아온 속인들이 제를 지내놓고도 불당의 령험이라는것이 아무래도 좀 미타하여 예서제서 수군덕거리는 소리도 띄엄띄엄 울려왔다.

오천은 절문앞에서 떼를 쓰는 취금을 강다짐으로 떨구어두고 절의 중심건물을 향해 힁힁 걸어나갔다.

본전앞에 이른 오천은 주지를 찾아낼 길이 난감하여 잠시 사방을 두릿거리는데 때마침 대웅전에서 비둔하게 생긴 주지가 뚱뚱한 몸을 띠뚝거리며 걸어나왔다.

원체 중일반을 삭발한 협잡배로 경멸하는 오천은 상판이 유들유들한 주지와 마주서자 피가 역류하는듯 한 생리적인 협오감을 느끼였다.

하지만 애써 속을 누르고 공손히 인사를 차리고나서 역시 공손한 어조로 이미 여러번 되풀이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절절히 펼쳐나갔다.

《…스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이지만 지금 왜구들은…》

오천의 말이 끝나자 군살이 두겹으로 처져내린 푸들진 턱을 느리게 들어올린 주지는 귀에 길이 나도록 들은 당치도 않은 장광설을 뜨직뜨직 곱씹어내리였다.

《소승이 이미 루차에 걸쳐 이야기했소만 아도법사가 열반에 드신이후(죽었다는 뜻의 불교술어) 천년 가까이 줄곧 석가를 모시고 돈독히 불법을 지켜오는 우리 사찰을 이제 와서 벌둥지쑤시듯 하겠다니 천지간에 이런 괴변이 어디에 또 있으리오.

소승이 불가에 적을 둔지 수십년세월이 흐른터여서 속세의 일을 자상히 알수는 없으나 사찰침해는 교리와 천도에 어긋나는 범행이요, 국법에도 저촉되는 중죄라는것만은 분명히 알고있소.

상고해보면 우리 고려국은 태조대왕이래 지금까지 팔관회나 연등회를 해마다 빠짐없이 실행해오는데 그것은 모두 불법을 귀중히 여기는데서 나온것이요.

또한 임금의 맏아들은 대대로 태자가 되지만 둘째아들은 반드시 불가에 적을 두게 하는 관례를 엄격히 지켜오는것도 불법을 존중시하는데서 나온것이요.

또한 상감께서 매달 중전마마를 대동하시고 절에 올라…》

주지는 이번에도 역시 왕가의 행사와 그 무슨 국법의 위엄을 빌어 오천의 소청과 기세를 찍어누를 잡도리였다.

오천은 이 뻔뻔스러운 주지가 수많은 토지와 노비, 지어 10여명 처첩까지 거느리고 만판 호강을 하는 파계승이며 패덕한이라는것을 이미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도 주지는 상판에 돼지가죽을 뒤집어쓰고 나서서 또다시 불법이 어떻소 국법이 어떻소 하며 자기야말로 불법과 국법에 충실한듯이 진수작을 늘어놓고있었다.

오천은 무작정 주지의 우둥퉁한 볼퉁이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기고싶었다.

하지만 후날의 화를 피하자면 가능한껏 소동을 피우지 말아야 했다.

오천은 끓어오르는 부레를 애써 누르고 다시금 말주머니를 끌러놓

왔다.
《스님! 아무리 불법이 중하고 국법이 엄하다 해도 나라가 있고야 그 모든것도 있을게 아닙니까.
갈수록 광패스러워지는 왜구를 이제 더이상 내버려둔다면 우리 경상땅은 불시에 페허로 변할것이며 나라는 위험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그때 가서 불법은 누구에게 론하고 국법은 또 어디 가서 휘두르겠습니까. 지금에 이르러 제일로 급하고 중한 일은 군사일이요 왜구를 때려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 봉은사의 중들이 고구려시기 중들처럼 승병을 무어 싸울것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살례탑을 쏘아죽인 김윤후스님처럼 어떤 요란한 적장을 잡아줄것을 원하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염초를 만들 마루밑의 먼지를 내달라는것인데 따져놓고보면 그것은 절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절을 깨끗이 부셔내는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일을 도와주면 이 절의 스님들도 여러가지로 좋으면 좋았지 나쁠게 무엇이겠습니까?》
주지는 사실 진정으로 그 어떤 법도나 불도를 지키자는것이 아니라 같지않아보이는 상놈들의 일에 함께 말려든다는것이 시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판이였다.
헌데 오천의 론박할수 없는 리치에 몰리워 더이상 할말이 없게 되자 지금껏 눌러오던 분통이 저절로 터져올랐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어이 우리 절을 부셔놓아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살생을 철저히 엄금하지만 신성한 불가에 대한 무도한 침해는 살생을 내면서라도 막아야겠다.
이놈— 지금의 이 일을 가람신께서 지켜보시는줄 알기나 하느냐?—》
주지의 돼지멱따는듯 한 소리가 채 잦기도 전에 승방과 암자쪽에서 칼을 든 알대가리들이 가사자락을 훨훨 날리며 꾸역꾸역 쏟아져나왔다.
주지란 놈은 이미 오천이와 싸움을 벌릴 잡도리로 불한당같은 놈들을 따로 골라 등대시켜놓았던것이 분명했다.
가슴 한귀퉁이가 철렁 무너져내리였다.

싸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소동을 피할수 없게 된것이 난감해서였다.
하지만 중놈들이 먼저 칼을 뽑아들고나서는데 뒤탈이 싫다고 하여 부처님처럼 곱게 앉아서 당할수는 없었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제일로 심악스럽게 나오는 이 절의 주지와 중놈들에게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 절의 주지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했다.
오천은 결코 양순하게만 자라난 사람이 아니였다.
왜구들에게 량부모를 다 잃은 뒤 여기저기로 떠돌이생활을 할 때 오천은 어느 명성높은 소악패에 들어가 두목으로 활약한적도 있었다.
4월 초파일 등불놀이때면 집집의 대문앞에 내다 건 수박등을 깨치고 도망하는 놀음도 수다히 해보았고 잔치집, 상가집에 둔을 치고있다가 개비위를 부리며 밀려드는 각설이떼를 쫓아내는 장난도 적지 않게 해보았다.
화통도감에 들어간 뒤, 더우기는 여기 군영에 내려온 후 오천은 이를 악물고 무술을 련마하였고 기를 쓰고 왜구들과의 싸움판에 뛰여들었었다.
하기에 오천은 지금 칼을 빼들고 우쭐거리며 다가오는 중놈들이 두렵기는커녕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비양기가 실린 미소를 머금고 다가드는 중놈들을 노려보던 오천은 슬며시 옆구리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천천히 중놈들을 마주쳐나갔다. 불현듯 절문밖에 떨구어둔 취금이 생각이 들자 오천은 칼을 쳐든채로 피끗 절문쪽을 돌아보았다.
절문밖에서 두손을 모두어잡고 떨고있으리라 생각했던 취금은 치마자락을 날리며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그의 손에는 보기에도 앙증스러운 자그마한 활이 들려있었다.
오천의 심장은 바람이라도 머금은듯 삽시에 확 부풀어올랐다.
이 세상에 자기와 생사를 같이할 의지를 지닌 처녀가 있다는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였다.
이것은 결코 어느 사내나 다 맛볼수 있는 범상한 행복이 아니였다.
(고맙다, 취금아. 뉘라서 행복이라는것이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자취없이 숨어있는 진귀한것이라 하더냐.
내게는 네가 곧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 오천이가 있는 한 그 어떤 놈도 너의 머리칼 한오리 다치지 못한다.)

오천은 중놈들을 향해 달음쳐나갔다.

날카롭게 반짝이는 오천의 칼과 둔탁한 빛을 뿌리는 중놈들의 환도 여러개가 허공에서 막 엇갈리려 할 때였다.

무거운 정적이 드리워있던 아래쪽솔숲에서 불시에 우렁찬 영각소리가 울리였다.

이어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구성진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에라— 에헤라
울타리옆 꽃가지에
까치 우짖네
그리운 우리 님
이내 돌아오시리

유난스레 쨍쨍하게 울려오는 노래소리의 임자는 분명 염초장의 으뜸가는 수다쟁이인 옥보였다.

말재주를 부리는 솜씨를 보아서는 대단히 성급할듯 하나 실은 한정없이 성미가 느려빠진 그는 이제야 사람들을 이끌고오는것이였다.

그것도 제 나이에는 맞지도 않는 사랑가를 느릿느릿 흘려뽑으며…

오천은 싱그레 웃으며 칼을 내리웠다.

업혀가는 돼지눈처럼 뿌연 눈을 디룩거리던 중놈들도 하나, 둘 추켜들었던 칼을 맥없이 떨구었다.

입만 벌리면 이 땅의 천만중생을 다 사랑해야 한다고 떠벌이던 불교승들이 숱한 사람들앞에서 칼부림을 한다는것이 저들 생각에도 부끄러웠던지 아니면 이쪽으로 밀려오는 사람들도 오천의 짝패들로 짐작되여 지레 겁을 먹었는지…

중놈들은 둥지를 털리운 개미새끼들처럼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흑돼지같은 주지도 애어린 상좌중의 부축을 받으며 허둥지둥 웃방향의 암자쪽으로 내뛰였다.

《핫하하! 타고난 복은 귀신도 못 물어간다더니 이 오천의 복은 정

말 누구도 어쩌는 수가 없는 모양이로다!》
오천은 중놈들이 내빼는 꼴을 두루 훑어보다말고 큰소리로 웃어제끼였다.
칼을 들었다가 한번도 휘둘러보지 못하고 내리운것이 조금 싱겁기는 했으나 옥보네들의 출현으로 하여 중놈들의 기세를 소리없이 찍어누르고 소동을 피하게 된것은 여간만 기쁘지 않았다.
이제는 먼지를 말끔히 퍼낸 다음 원상대로 마루널을 정히 놓아주고 깨끗이 청소까지 해놓고 가면 후일에 무슨 탈이 생길것 같지 않았다.
오천은 취금에게 모든 일이 썩 잘되여간다는 뜻으로 지끈 눈을 감았다떠보이고나서 절문안으로 우줄우줄 들어서는 옥보네들을 향해 씨엉씨엉 걸어나갔다.
그리 멀지 않게 보이는 솔숲우에는 현란한 칠색무지개가 천궁으로 들어가는 신비의 대문인양 드높이 걸려있었다.
무지개를 떠받들고 서있는 소나무들의 우듬지에서는 무수한 물방울들이 은구슬처럼 눈부시게 반짝이고있었다.

11

《왜구들이 나타났소이다.》
바다기슭에서 두어마장가량 들어와있는 솔숲에 뒤짐을 돌려잡고 서서 바다쪽을 주시하던 윤통은 날카로운 시선을 박위에게 돌리며 나직이 말했다.
윤통이곁에 심상한 표정을 짓고 서서 바다쪽을 노려보던 박위는 알릴듯말듯하게 고개를 주억거리였다.
이른새벽이라 사위는 더없이 고요한데 배에서 내린 왜구들은 도적고양이떼처럼 소리없이 기슭으로 게바라오르고있었다.
모래불에 올라선 놈들도, 배우에 그냥 남아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눈이 화등잔같아가지고 사위를 두릿두릿 살펴보는 꼴이 여간만 불안하

지 않는 모양이였다.

하긴 적국의 장수라고 해야 할 박위에게 어느날 어느시 어느 장소에 당도하겠노라고 희떱게 선통까지 하고온 놈들이였다.

박위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놈들은 그가 어떤 희한한 례물을 안겨주기보다는 무서운 불화살을 퍼붓기가 십상일것이라는 짐작을 못할리 없었다.

하지만 포악한 사다께가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마구다지로 떠밀어보내니 범의 굴인줄 뻔히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혹시를 바라고 예까지 왔을것이였다.

그래서 왜구들은 지금 여차하면 줄행랑을 놓을 잡도리로 연해 사위를 살피며 발을 저겨디디는것이요, 타고온 다락배들의 돛폭도 내리지 않는것이리라. …

《나가보자구.》

박위는 저력있는 음성으로 누구에게라없이 이르고나서 성큼 걸음을 떼놓았다.

윤통이 박위의 앞을 막아섰다.

《꼭 박장군이 나가야 할 까닭이 뭡니까? 저것들은 하관이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나를 찾아온 놈들인데 내가 나가서 대접을 하겠소.》

박위는 가볍게 윤통을 비켜세우고나서 당당하게 걸음을 놓았다.

윤통이와 여삼을 위시한 스무명남짓한 군사들도 더 어쩔수없이 박위의 뒤를 따라나섰다.

저들쪽으로 위풍당당히 걸어오는 고려군사들을 띄여본 왜구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질리여 말뚝처럼 우뚝우뚝 굳어지였다.

박위는 놈들의 거동을 예리하게 살피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혹을 두고 다시금 생각을 거듭했다.

(사다께라는 놈은 무엇때문에 날자와 장소까지 찍어가지고 수하의 병졸들을 보냈을가?

정말로 놈들의 속심이 변하여 화평과 교역을 하자는건가!…

아니, 그것만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설혹 왜구의 흉심이 이제 와서 조금 달라졌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피에 젖은 과거를 피로써 결산해야 한다.

민족이 흘린 피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물로 계산될수 없다.
헌데 사다께는 내가 저들이 던진 음모의 올가미에 선선히 목을 들이밀리라고 타산했을가.
그럴리 없다.
승냥이처럼 흉악하고 여우처럼 교활한 그놈은 우리가 저들의 속임수에 들지 않으리라는것을 십분 짐작했을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때문에 사다께는 졸개들을 죽음의 함정이나 다름없는 이곳으로 보냈는가?…)
윤통이 힝힝 걸어나가며 다시 박위에게 말을 건네였다.
《박장군, 천행으로 맞다들린 기회인데 다시한번 생각해보는게 어떻습니까?
무슨 물건흥정을 하는체 하다가 저놈들을 산채로 모짝 잡아가지고 대마도에 끌려간 우리 백성들과 바꾸어먹는게 아무래도 득책일것 같습니다.》
윤통은 어제 저녁에도 이 비슷한 말을 했었다. 그때 박위는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뽑고 그들에 대한 교련정형을 료해하느라고 (박위는 신입군사들을 위주로 선발했는데 그것은 실전을 통하여 군사들을 더욱 알차게 키우려는 의도에서였다.) 미처 윤통의 말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윤통의 견해는 물론 왜구에 대한 그 어떤 환상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제나름의 전술적타산에서 시작된것이였다.
하지만 칼을 든 무관이 노상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장차 어떤 오유에 빠질지 알수 없었다.
박위는 여전히 왜구들쪽에 시선을 박은채 낮으나 단호한 어조로 언명했다.
《부원수, 우리는 장사군이 물건을 흥정하듯 해가지고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찾아오려 해서는 안되오.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거요.
우리는 반드시 전투의 승리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것을 당당하게 획득해야 하오. 병기를 잡은 장수가 적국의 흥정에 다소라도 마음이 끌리면 놈들의 음모에 말려들게 되고 음모의 나락에 빠지면 수치와 패배를 면할수 없소.

우리의 검은 오로지 승리를 위한 접전외에 다른것은 절대로 몰라야 하오.》

박위와 고려군사들이 병든 닭새끼들모양으로 오구구 몰켜선 왜구의 무리앞에 이르니 놈들은 그사이 어느 정도 마음을 도슬러먹었는지 제법 어깨를 으쓱거리였다.

박위는 왜구들의 막돼먹은 상통들을 휘뚜루 살펴보고나서 말문을 열었다.

《내가 경상군영의 원수인 박위다. 너희들중 누가 대장이냐?》

맨 앞장에 무슨 꾸레미같은것을 안아들고 서있던 옴두꺼비같이 생긴 작자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내짚으며 꽤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했다.

《제가 대장이올시다.》

《오, 네가 대장이라니 한가지만 묻자.

너희들은 항복하러 왔느냐, 아니면 전쟁을 하러 왔느냐?》

전혀 뜻밖의 물음에 옴두꺼비는 한참이나 눈알을 디룩거리며 박위의 근엄한 낯을 살피더니 자신없는 소리로 떠드박거리였다.

《난 군사들을 이끌고가서 박장군에게 이 뢰물을 올리고 또… 박장군이 주는 고려뢰물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 무슨 말씀인지?…》

박위는 버럭 청을 높이였다.

《이놈아! 내가 누구의 뢰물을 받고 또 누구에게 뢰물을 섬긴단 말이냐?! 천하에 너절하고 좀스러운것들…

나는 오직 두가지만을 원할뿐이다.

네놈들은 항복을 하겠느냐 아니면 전쟁을 하겠느냐?》

그제서야 사다께에게 속았다는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옴두꺼비는 사납게 흡뜬 눈으로 박위를 노려보더니 들고있던 꾸레미를 내동댕이치고 칼을 뽑아들었다.

그러자 왜구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와자자 산개대형으로 널리였다.

역시 하나같이 지독한 왜종자들이라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하지 않겠다는 태세였다.

박위는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칼을 뽑았다. 윤통과 군사들도 칼과 활을 들어올리였다. 박위는 아무런 겁기도 없이 칼을 쳐들고 서있는

옴두꺼비앞으로 척척 걸어나갔다.
옴두꺼비가 무슨 수인지 쓰려고 한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비호처럼 몸을 날린 박위는 자기의 발이 미처 땅에 닿기도 전에 왜구의 비게진 목대에 칼끝을 틀어박았다.
악— 옴두꺼비는 학춤이라도 추듯 두팔을 너풀거리며 뒤로 나자빠지였다.
《이것이 나의 뢰물이다!》
박위의 우렁찬 웨침소리가 잦기도 전에 고려군사들은 왜구들의 무리속으로 노도와 같이 뛰여들었다.
혼전이 벌어지였다.
사방에서 칼날이 번뜩이고 화살날아가는 소리가 핑핑 울리였다.
선두에 서서 제법 대거리를 하던 왜구 몇놈이 거의 동시에 밸이 빠져나가는듯 한 괴성을 지르며 픽픽 쓰러졌다.
그러자 싸울 궁냥보다는 도망칠 생각에 골독했던 왜구들은 와— 소래기를 지르며 저들이 타고온 다락배쪽으로 정신없이 내뛰기 시작했다.
박위는 피빛으로 번들거리는 칼을 추켜들고 제먼저 뛰여나가며 소리높이 웨치였다.
《나가자!—》
박위의 뒤를 따라 수십명의 군사들이 사태처럼 바다쪽으로 쏟아져내리였다. 허겁지겁 물속에 뛰여드는 놈, 출렁출렁 물탕을 튕기며 배전에 다가붙는 놈들의 잔등과 목덜미에 칼날이 박히고 장창이 꽂히였다.
예서제서 얼음쪼각같이 하얀 물탕이 튕겨오르고 꽃이파리같이 새빨간 피방울이 퍼져나갔다.
《이놈! 어딜 내빼자구?》
《게 서지 못할가!》
《한칼 먹어라!》
고려군사들의 힘찬 웨침소리가 사처에서 울리였다.
《요로시—》, 《고노야로—》
쓰러지면서도 악에 치받치여 혹은 마지막기력을 다 짜내여 짖어대는 왜구들의 비명소리도 들리였다.
무릎을 치는 물속에 들어서서 또 한놈 왜구의 잔등에 우지직 갈비

뼈 바사지는 소리가 나도록 깊숙이 칼을 들이박은 박위는 문득 자기 곁에서 춤추듯 날뛰며 돌아가는 고들을 띄여보자 무춤 굳어지였다. 창황중에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여치다리처럼 껑충한 왜구의 어깨에 엇비듬히 칼날을 들이박은 고들은 예전의 그라고는 상상도 못할만큼 날래게 홱 몸을 돌리였다.

돌아서는 참 옆으로 달려드는 왜구를 힘찬 발길질로 차눕히더니 물속에 엎어지여 개구리처럼 팔다리를 놀리는 놈의 잔등에 기운껏 칼을 들이박았다.

파란 수면우에 시뻘건 피물이 떠올랐다. 고들은 어지게 생긴 퉁투무레한 얼굴에 거의 잔인해보이는 미소를 띄우며 제 혼자 웅얼거리였다.

《악귀같은 놈이 어째 죽촌 〈두부자루〉보다 쎄지 못하구나.》

고들의 민첩한 몸놀림과 칼재주는 정녕 볼만 하였다. 그의 담차고 당당한 말마디도 새겨들을만 하였다.

박위는 고들이가 노는 태를 좀 더 여겨보고싶었으나 그럴 경황이 없었다.

박위는 곧 군사들을 이끌고 다락배쪽에 몰키여 오뉴월 송사리떼처럼 오글복작거리는 왜구들속으로 뛰여들었다.

싸움은 그리 오래 갈것도 없었다.

기슭에 올라섰던 놈들은 깔축없이 피범벅이가 되여 나동그라지고 배우에 남아있던 놈들은 황망히 배머리를 돌리여 내빼는데 돛폭마다 삼단같은 불길이 활활 일어번지는 품이 그놈들의 운명도 뒤끝은 뻔드름하였다.

도망치는 세척의 배중에서 제일 뒤에 선 배 하나만이 용케도 성해있었다.

《새앙쥐같은 놈이 어딜 내빼려구?!…》

여삼이가 활시위에 화전을 걸며 사람들앞으로 썩 나섰다.

성한 배의 돛폭을 겨냥한 여삼이 당겨잡은 시위에서 막 깍지손을 떼려는데 그곁에 서있던 박위가 나직이 말하였다.

《화전을 쏘지 말아라. 그래도 한놈쯤은 살려보내야지. …》

여삼은 물론 모여선 군사들모두가 의혹에 찬 눈길로 박위를 쳐다보았다.

그러거나말거나 박위는 자기가 들고있던 화살 한대를 여삼에게 내

주었다.

《여삼아, 이걸 저 성한 배의 돛대에 쏘아박아라.》

화살깃에 손바닥만 한 천쪼박이 매달려있는 이상야릇한 화살이였다.

박위가 준 화살을 얼추 살펴보고난 여삼은 군말없이 시위에 살을 메웠다.

별로 겨냥도 하지 않고 휙— 살을 그었다. 별스레 실해보이는 화살은 뒤꼬리에 달린 천쪼박을 댕기처럼 날리며 빠르게 날아갔다.

윤통은 찢어진 팔소매자락을 여미다말고 물었다.

《장군, 저건 무슨 화살입니까?》

박위는 꺼먼 연기타래를 트레트레 말아올리며 끼우뚱끼우뚱 위태롭게 내빼는 왜구들의 배를 노려보며 심상하게 대답했다.

《편지요. 대마도령주가 내게 편지를 보냈으니 나도 그자에게 회신을 하는게 례절이 아니겠소.

나는 그자에게 이렇게 썼소.

〈너와 나는 필생의 적이다. 적과는 오직 판가리싸움만이 있을뿐이다.

내 기어이 대마도에 찾아갈터이니 이번에는 네놈들의 땅에서 말로써가 아니라 검으로 결산을 하자!〉 …》

말을 마친 박위는 절벅절벅 물을 걷어차며 모래불로 나갔다.

모두들 무릎을 치는 물속에 말뚝처럼 굳어진채 찬탄과 공경이 어린 시선으로 박위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윤통은 두툼한 입술을 사려문채 우두두 몸을 떨었다. 왜구의 칼에 찢어진 그의 팔소매가 누데기처럼 오리오리 날리였다.

박위의 오늘의 결단과 배짱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속에서 솟아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윤통은 존경과 감격이 우러나기 전에 자기반성이라는 가볍지 않은 고통에 휘감긴것이였다.

일시 소요스러웠던 바다가는 다시 고요해졌다.

어디론가 사라졌던 갈매기들은 하얀 날개를 퍼덕이며 떼를 지어 밀려왔다.

소복단장을 한 산뜻한 갈매기들은 전승을 축복하는 고취악대마냥 명쾌한 울음소리를 목청껏 휘뿌리며 박위네들의 머리우를 유유히 감돌았다. …

군사들은 가을의 다양한 해빛을 받아 찌르는듯 한 반사광을 내쏘는 고요한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군영으로 가고있었다.

그들은 저저마다 오늘의 첫 싸움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본 일, 제몸으로 직접 겪은 일들을 조금씩 과장을 섞어가며 주고받았다. 그러다가는 유쾌히 웃고 떠들기도 했다.

신출내기군사들은 은근히 공포감을 자아내던 왜구들을 제손으로 쏘아눕히고 찔러죽인것이 그리도 통쾌하고 자랑스러운것이였다.

대오는 연해 웃음발을 날리며 흘러가고있었으나 군사들의 앞장에서 말을 타고가는 박위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처럼 흐릿한 표정으로 멀리 앞쪽만 바라보고있었다.

대오의 맨뒤에서 박위와 거의 비슷한 표정을 하고 뚜걱뚜걱 말을 걸키던 윤통은 불현듯 그 어떤 내부적인 충동에 떠밀리워 번쩍 눈을 치뜨더니 세차게 말고삐를 나꾸어챘다.

윤통의 검정말은 빠른 달음으로 대오를 거슬러 박위곁에 다가섰다.

그런데도 박위는 여전히 앞쪽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였다.

무슨 말인가 꺼내려던 윤통은 두툼한 입술귀를 꾹 짓물었다.

전에없이 수척해보이는 박위의 모습이 아릿하게 가슴을 허빈것이였다.

예전에는 연한 분홍색이 돌 지경으로 희맑던 박위의 얼굴색은 검스레하게 죽어있었다.

친근감을 자아내고 귀인성스러운 맛을 불러내던 볼편은 훌쭉하게 꺼져있었다.

담벽처럼 든든해보이던 어깨마저 별스럽게 삐죽이 솟아오른듯싶었다.

윤통은 무엇에 할퀴우기라도 한듯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괴로운 번민에 시달리면서도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왜구의 거짓 화평사절을 짓뭉개버린 이 사람!

오만무례한 대마도령주에게 바로 대마도에서 결판을 내자고 당당히 선언한 이 사람…

정녕 얼마나 높은 기개를 지닌 사내인가!…)

감탄과 찬사가 새삼스레 치밀어오르며 뜨겁게 속을 지지였다. 그에 정비례하여 그 어떤 죄의식과 수치감이 얼음덩이처럼 차겁게 가슴속 밑굽을 고패돌았다.

(…사실 나는 최칠석의 편지를 받은 뒤로 박위의 원정준비는 《무너져내리는 룡마수를 쳐다보면서도 절구질을 하는 무지스러운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솔하게도 최칠석의 견해에 즉흥적으로 공감하고 추종했다.
꼭 본의라고 할수는 없으나 여하튼 《최후통첩》이라는것을 착안해가지고 박위를 더욱 괴롭히였고 그것으로 하여 나자신은 스스로 유치하고 치졸한 인간으로 굴러내리였다.
내가 과연 이럴수 있는가?
길게 생각할것없이 오늘중으로 최칠석에게 편지를 쓰자.
나의 죄스러운 마음과 함께 달리는 될수 없는 나의 진심을 알리자.
이제와서 박위에게 원정준비의 중단이나 포기를 요구한다는것은 인간으로서도 무관으로서도 비렬하고 저속한 행위다.
아니, 정의에 대한 가장 혹독한 모독이다.
따라서 나는 어떤 풍파가 밀려온대도 사생동고의 억센 의지로 박위를 따를것이다.)
윤통은 아까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을 건뜻 들어올리였다.
눈앞에서는 온몸이 새빨간 고추잠자리들이 솟구치고 내리박히며 재주껏 깝치고있었다.
마음은 하냥 박위에게 쏠리였다.
박위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다시 받아주겠는지 알수 없었으나 여하튼 그에게 진정으로 되는 사죄를 해야 했다.
아프고 허우룩할 박위의 심경을 다소라도 위로해주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마음도 편하고 심혼도 깨끗해질것 같았다.
그래야 의리와 도리를 알고 정의와 진실을 아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신적면모를 다시 찾을것 같았다.
윤통은 용기있게 말부리를 헐었다.
헌데 정작 말을 떼고보니 마음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장군, 조반을 치르고 옷도 말리울겸 저기 고샅길어구의 소나무밑에서 잠시 쉬여가는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고뇌의 심연에서 현실로 올라선 박위는 군사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싸움차비, 길차비를 하느라고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할수 있었다.
강렬한 식욕이 동해오르자 머리속에서 끓던 복잡한 심리작용이 일시에 날아나버리였다.
《그게 좋겠군.》

박위는 헌헌히 응낙하였다.
잡시후 산기슭의 평평한 잔디밭우에 패패로 모여앉은 군사들은 저마끔 멍구럭속에서 비릿비릿한 젓갈내가 풍기는 밥보자기들을 꺼내놓았다.
박위와 윤통은 군사들과 조금 떨어진 소나무밑에 꿰진 돗자리를 깔고 마주앉았다.
가을의 따스한 해빛은 호듯호듯 퍼져내리는데 바다쪽에서는 갈매기우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풀숲에서는 유정한 풀벌레울음소리가 귀간지럽게 들려왔다.
윤통은 여삼에게 의미있는 턱짓을 해보이였다.
눈치빠른 여삼은 허리를 한번 갑삭해보이고나서 돗자리우에 술방구리와 말린 전복, 기름에 튀긴 게살과 유밀과가 담긴 모랭이들을 줄달아 꺼내놓았다.
《허, 이건 꼭 산놀이에 나온 사람들이 마음먹고 준비한 음식같구려. …》
박위는 음식그릇들을 두루 살펴보며 연한 웃음을 띄웠다.
윤통은 맑은 술이 찰찰 넘치는 커다란 술대접을 박위에게 들어올리였다.
제딴에는 일껏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현하느라고 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그의 말은 그다지 신통하게 들리지 않았다.
《장군, 후련하게 쭉 내시고 속을 푸십시오.》
박위는 그저 히뭇이 웃으며 술대접을 받아들었다. 몇모금 소리없이 술을 마시던 박위는 스르시 그릇전에서 입술을 떼였다.
문득 싸움판에서 보았던 고들의 날렵한 모습이 뇌리에 떠오른것이였다.
박위는 고들이가 그지간에 바친 남모르는 수고와 오늘 첫 싸움에서 거둔 뛰여난 전공을 축복해주고싶었다.
하나 지금 당장 손에 든것은 술밖에 없었다.
박위는 아직도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여삼을 가까이 오게 한 후 넌지시 물었다.
《술은 이 한방구리밖에 더 없느냐?》
《그렇소이다. 이 술도 사실은 부원수나리께서 특별히…》

박위의 속생각을 제꺽 알아차린 여삼은 윤통이까지 찍어대며 만류의 뜻을 펴놓았다. 그랬으나 박위는 여삼의 말자루를 초입에서 문질러버리였다.

《알겠다, 그럼 여기서는 이 대접의 술을 돌려가며 마실테니 방구리의 술은 저기 풀밭에 앉아있는 고들이에게 가져다주어라.

저눔이 오늘 첫 싸움에서 왜구 세놈을 찍어넘겼는데 그게 어디 간단한 공이냐?…》

반말들이는 실히 될것 같은 커다란 술방구리는 량반좌석에서 고들에게 통으로 넘어갔다. 그러지 않아도 산놀이에라도 나온듯이 흥성거리던 군사들은 와 환성을 터치였다.

언제인가 배무이장에서 박위에게 구변껏 말재주를 부리다가 된우박을 맞았던 《만사태평》이라는 뒤말을 달고다니는 군사가 말코를 벌름거리며 고들에게 다가갔다.

량반들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큰소리로 능글거리였다.

《이보시— 고들이, 나도 다음번 싸움때는 자네만큼 왜구를 때려잡아서 상을 탈테니 외상삼아 한대접 먼저 돌려주게나.》

만사태평은 실지 술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전공을 세우고 치하를 받은 고들이가 부러워 악의없는 노죽을 부려본것이였다.

군사들은 저마끔 입을 싸쥐고 킥킥 웃어댔다. 그 바람에 잔뜩 심기가 뒤틀려난 윤통은 험하게 눈살을 찡그리였다.

술로나마 박위에게 자기의 진정을 고하려 했던 은밀한 속궁냥이 여지없이 빗나간것이 서운하다못해 불쾌하기까지 했다.

이어 훈련에 성실하고 싸움에서 공을 세운 군사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쳐올리는 박위의 무관다운 성품이 새삼스레 마쳐와 가슴이 얼벌벌해났다.

박위는 진작 윤통의 유난스러운 언행에서 그의 속마음을 거지반 느낄수 있었다.

역시 본태를 저버리지 않은 윤통이가 고맙고 미더웠다.

이처럼 곧바른 인간을 지나치게 몰아댄듯 하여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와서 서로가 면구해질 어색한 말마디로 그 어떤 화해를 하고싶지 않았다.

말은 간사하고 행동은 진실한것이다.
앞으로 피차가 마음속의 그 모든 말을 행동으로 표명하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박위는 윤통에게 술대접을 내주며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부원수, 행동속에 사내대장부의 말이 있나니 우리 각자가 서뿌르게 말로써 행동을 약속하지 맙시다.
자, 부원수도 속이 활 풀리게 쭉 내우.》
윤통에게 술대접을 넘겨준 박위는 저가락끝으로 유밀과 한개를 꿰여들었다.
술을 마시면 다소라도 개운해질줄 알았던 마음은 더욱 어수선해났다.
한구석으로 밀려났던 울울한 번뇌는 다시금 뇌리를 헤집어파며 움쭉움쭉 고개를 들었다.
(오늘의 승리는 일시 통쾌한것이나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왜구들은 분명 그 무슨 《화평교섭》에서 패배를 당한 앙갚음으로 무고한 죽촌백성들과 리옥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할것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나에게 온갖 성심을 다 기울이던끝에 처녀의 가장 귀중한 마음속 보배인 사랑까지 선물한 고맙고 귀중한 리옥.
헌데 나는 본의는 아닐지라도 그에게 처참한 죽음을 가져다주지 않았는가!…
아! 리옥! 그대의 때아닌 절명은 정녕코 박위가 무정하거나 모질어서가 아니요.
그것은 전수히 롱락과 음모를 꺼리지 않는 저 개창자에 사람가죽을 뒤집어쓴 왜구들의탓이요.
리옥이, 그대도 이러한 리치를 아주 모르지는 않으리다.
하지만 지금의 아픈 내 마음, 터져나가는 내 심장을 무엇으로 기워매고 무엇으로 씻어낼수 있으리오.
맹세컨대 내 기어이 대마도를 산산이 박살내는것으로써 우리 백성들과 리옥의 피맺힌 원한을 천백배로 갚아주리다.
이제는 이 나라 산야에 혼령으로만 떠돌고있을 잊지 못할 리별장!
당신도 나의 이런 마음을 부디 옳게 헤아려주고 또 믿어주시우. …)

박위는 어제 밤 자기의 문갑에 깊숙이 건사해두었던 리옥의 옛 편지를 꺼내여 대마도에서 온 편지와 까근히 대조해보았다.

얼추 보매 두장 편지의 필적은 신통히 비슷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니 대마도에서 온 편지의 글씨는 세련된 맛은 있어도 단정하고 섬세한 느낌은 없었다.

속이 깊고 열정적인 리옥이의 체취 같은것은 더구나 풍기지 않았다.

틀림없이 대마도에서 온 편지는 리옥의 필적을 본딴 위조편지였다.

박위는 왜구들의 능활한 롱간질에 넘어가 순간이나마 리옥을 오해했던 자신이 괴롭고 부끄러웠다. …

갈피없이 번져지던 박위의 사색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사다께는 무엇때문에 패배가 정해진 지점으로 졸개들을 보냈을고?

그것이 또 하나의 음흉한 음모의 발단이라면 사다께가 궁극적으로 노리는것은 무엇일고?…)

술대접을 쳐든채 한식경이나 우중충한 그늘이 드리운 박위의 얼굴을 쳐다보던 윤통은 갑자기 성이라도 난 사람처럼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였다.

지금같은 때 박위에게 아니, 민족앞에 진정으로 사죄를 하자면 말이나 술로써가 아니라 량심과 의리가 비낀 행동으로 하는것이 가장 떳떳할것이다.

얼마후 제먼저 자리에서 일어선 윤통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듯 시각빨리 군영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소리 지르며 정신을 차릴수 없이 뒤설레를 떨었다.

12

군영에 돌아온 박위는 팔소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하루동안의 휴식을 주고나서 곧장 배무이장으로 나갔다.

푸르다못해 진록색으로 보이는 바다물우에는 그사이 새로 무은 열

척가량의 천료주와 발로도, 경질주와 급수소선(각종 배이름)들이 송진내와 생나무내를 향긋하게 풍기며 물결의 노님을 따라 느리게 흥떡이고있었다.

전함들의 선수에는 대장군포와 2장군포, 3장군포와 륙화석포, 화통신포와 질려포 등 각이한 모양새의 화포들이 무게있게 틀고앉아 둔탁한 빛을 발산하고있었다.

그리 많지는 않으나 군영자체의 힘으로 새로 무은 전함들과 화포들을 바라보느라니 가슴속에서 소용돌던 온갖 구지레한 시름들이 순간에 말짱 날아나버린듯싶었다.

전에없던 신심과 용기가 취기처럼 훈훈하게 퍼져오르기도 하였다.

습관적으로 전함들의 겉모양을 깐깐히 살피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던 박위는 방금 무어놓은듯 한 천료주앞에 이르자 무춤 굳어지였다.

어딘가 모르게 배모양이 부자연스럽게 안겨왔다. 한식경이나 전함의 모양을 상하좌우로 살펴보던 박위는 사다리를 타고 배의 갑판에 올라섰다.

때마침 천료주에 올려앉힐 화포를 목도해메고 《어기영 치기영》 먹임소리를 쳐가며 이쪽으로 오던 장공인들과 그뒤에 따라섰던 장교들은 배우에 올라선 박위를 발견하자 황망히 포를 내려놓았다.

장교들은 급급히 사다리를 타고 배에 올라와 박위에게 다가섰다.

그사이 자귀밥과 톱밥이 하얗게 깔려있는 갑판의 구석구석을 낱낱이 살펴보고난 박위는 장교들쪽으로 돌아섰다.

장교들은 전장에 나갔다온 박위에게 인사를 차릴 차비였으나 박위는 본체도 않고 허공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꾸지람부터 펼쳐놓았다.

《이 배는 도본보다 한자이상은 키가 높아진게 분명하다. 여기 선수에는 대장군포를 앉혀야 할텐데 배의 키가 이렇게 높아졌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화포를 쏠 때 진동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것은 물론이려니와 자칫하다가는 갑판이 깨져나갈수도 있겠는데 그리되면 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고기밥이 될게 아니냐?

이게 과연 제정신들을 가지고 한짓들이냐?》

첫마디부터 된욕설을 퍼붓던 박위는 곁에 서있는 텁수룩한 장교의 손에서 자막대기를 후리쳐뽑아냈다.

씨엉씨엉 배전으로 나가더니 누가 어쩔 사이도 없이 바다물속으로 풍덩 뛰여내리였다.

허리춤을 치는 바다물은 몹시 차거웠으나 박위는 그에 아랑곳없이 자막대기로 배의 바깥높이를 한치두치 재올라갔다.

어쩔수없이 박위의 뒤를 따라 풍덩풍덩 물속에 뛰여든 장교들은 박위의 젖은 손을 움켜쥘듯이 수선을 떨며 송구스러운 어조로 한마디씩 뇌이였다.

《물이 차거운데 이제는 그만 뭍에 오르시오이다.》

《소인들이 어리석다보니 일을 다그치기만 하면서 옳게 간검을 못했소이다.》

《일후에는 다시 이런 과실을 내지 않겠소이다.》

아무런 응대도 없이 배의 높이와 너비까지 꼼꼼히 다 재보고난 박위는 휘적휘적 물을 가르고 모래불우에 올라섰다.

전복자락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였다. 추들추들해진 가죽신속에서도 꿀찌럭꿀찌럭 모래알이 섞인 누런 물이 꾸역꾸역 솟구쳐나왔다.

후줄근하게 젖은 장교들이 줄레줄레 기슭으로 나오자 박위는 자막대기를 칼처럼 휘두르며 아까와는 판다르게 절절한 어조로 말하였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군사일에서는 티끌만 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내 이미 몇번이나 일렀느냐.

우리는 구천에 사무친 민족의 원한과 수치를 씻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만세에 떨치려고 원정을 하자는것인데 이런 소소한 실수로 해서 원정을 망친다면 세상에 이런 창피가 어디에 또 있겠느냐? 모두들 심장에 쪼아박으라구.

천년강대국 고구려의 후손들인 우리는 단 한번이라도 지는 전쟁을 할수 없으며 이겨도 크게 이기는 전쟁만을 해야 한다.

폐일언하고 오늘 해중에 이 배의 높이를 한자세치 더 내릴뿐아니라 이미 무어놓은 배들도 정확하게 도본대로 되였는가를 세밀히 따져보도록 해라―》

《알겠소이다.》

장교들은 입을 모아 기운차게 웨치였다.

박위는 젖은 옷을 말려입을 생각도 못하고 염초장쪽으로 걸음을 돌리였다.

또다시 염초라는 두글자가 바늘뭉치처럼 따끔따끔하게 흉벽을 찌르며 돌아갔다. 납덩이처럼 무죽하게 가슴을 짓누르기도 했다.

(전함과 화포는 저런 식으로 계속 밀고나가면 그런대로 마련을 볼듯 한데 아직도 염초와 화약이 없어서 포알을 썩썩 만들어내지 못하고있으니 이게 큰일이 아닌가!

최무선장군이 보내준 화약으로 만든 포알이 서른개정도, 이미 있던 염초로 만든 포알이 스무나무개.

그리고 죽촌에서 실어온 염초로 만든 포알이 일여덟개…

이것을 가지고 또 이런 속도로 포알을 뽑아가지고 언제 원정준비를 다 끝내겠는고?…)

박위는 죽촌에 나갔던 그날 밤 그곳 사람들의 열의와 기세, 그들이 만들어낸 염초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나니 염초를 마련하는 일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아니, 죽촌백성들처럼 매 고을, 매 동네 백성들이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일치하게 떨쳐나선다면 조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능준히 염초를 해결할것 같았다.

하여 그는 얼마전 각 고을 관가에 백성들의 애국적열의를 발동시켜 염초생산을 대판으로 벌리라는 내용의 군령을 새로 시달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능력간에는 언제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법이라는 엄연한 생활상의 리치가 무시로 뇌리를 들쑤시였다.

백성들이 순수 욕망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일이 아무래도 미타하여 자꾸만 고개가 기웃거려지였다.

죽촌과 같은 자그마한 동네에서 벌어진 현상이 전반적인 경상고을에서도 일제히 일어날수 있겠는지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일이였다.

최근에 이르러 염초생산에 원정승리의 열쇠가 있다는 생각이 굳어질수록 박위의 초조감과 조바심은 거의 생리적인 고통까지 동반하면서 시시로 급증되였다. …

금싸래기같은 모래불에 큼직큼직한 발자국을 찍으며 소리없이 걸어나가던 박위는 누군가가 아동판수 륙갑외우듯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웅얼거리며 다가서는 바람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앞에는 생면부지의 뚱뚱한 중이 념주알을 만지작거리며 서있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박위는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은 뚱뚱보중의 버릇없는 행동이 화가 나기 전에 중자체가 혐오감을 자아내여 버럭 청을 높이였다.
《대사는 대체 무슨 연고로 바쁜 사람의 앞길을 막는게요?》
중은 여전히 깊숙이 내려쓴 삿갓을 짓수굿한채 항아리에 대고 하는 소리처럼 으스산하게 울리는 목청을 끌어올리였다.
《소승은 봉은사의 주지로소이다. 소승이 장군을 찾아온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곳 군영에서 대정노릇을 한다는 오천인지 륙촌인지 하는 군사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항소코저 함이올시다.》
주지의 입에서 뜻밖에도 오천의 이름이 튀여나오자 박위는 이상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우리 군영의 오천이가 대체 무슨 일을 어찌했다는게요?》
주지는 퍼덕퍼덕 나붓기는 장삼자락을 여며잡으며 슬며시 고개를 드는데 보매 그는 박위의 거친 음성이 오천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오는것으로 아는 모양이였다.
《예, 그는 벌써 몇달전부터 우리 봉은사를 나들며 갖가지로 수상쩍은 행동을 하던끝에 엊그제는 열도 넘는 무뢰배를 이끌고 칼까지 휘두르며 절에 달려들었소이다.》
《칼까지 휘두르며 절에 달려들다니?… 그놈이 왜서 그런 소란을 피웠단 말이요?》
박위는 더한층 거친 청으로 울부짖듯 했다. 그것이 주지의 용기를 부쩍 돋구어주었다.
《예, 소승이 이제 그 사연을 자상히 말씀올리겠소이다.
오천이네들은 절간 마루밑의 먼지로 무슨 염초인지 염소인지 하는걸 만든다고 하면서 하루아침새 석가와 라한, 무량수불을 모신 절간들을 참혹하게 파헤쳐놓았소이다. 이런 괴변은 실로 후만고에 다시 없을 엄청난 범행으로서 마땅히…》
오천이네들은 그날 마루밑의 먼지를 퍼낸 후 마루널을 다시 잘 덮어놓은것은 물론 주변의 마당까지 깨끗이 쓸어놓았으나 상판에 개가죽을 뒤집어쓴 주지는 그들이 온 절을 까부셔놓기라도 한듯이 허겁을 떨었다.
저급한 복수의식과 도발심리로 가슴이 까맣게 달아오른 주지는 지

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천이네들을 속시원히 때려눕히고싶었다.
허나 주지의 심리를 전혀 알길없는 박위는 처음으로 알게 된 오천의 뒤생활이 소스라칠 지경으로 놀랍기만 하였다.
(그러니 여직껏 오천이가 가을중 쏘다니듯 나다닌것은 구경 염초감대기를 얻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결국 오늘에 와서 그는 염초감대기를 쓰고도 남을만큼 얻어낸셈이 아닌가.
언제인가 했던 그녀석의 장담이 결코 헛장담이 아니였단 말이렷다?…)
놀라움이 가라앉자 오천에 대한 탄복감이 치밀어올랐다. 그것은 다시 아릿한 죄의식으로 환원되였다.
(허어…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박위의 표정이 연해 석바뀌는것을 제 좋을대로 해석한 주지는 정기없는 거적눈을 험하게 번뜩거리며 더욱 승기가 나서 고아붙이였다.
《이는 정녕 석가여래를 참람히 무시하는 범행이요, 가람신(절을 지킨다는 신)을 우습게 여기는 망동이며 나라님과 국법을 허술히 보는 죄행으로서…》
원체 중 일반을 황당한 거짓말로 순후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협잡배로, 건달군으로 경멸하는 박위는 더이상 주지의 말을 귀에 담고싶지 않았다.
오천의 일과 자기의 처사를 놓고 홀로 조용히 생각을 굴려보고싶었다.
박위는 습관적으로 뒤짐을 돌려잡고 스적스적 지향없이 걸음을 옮겨놓으며 생각하였다.
(나 역시 오래된 절간의 먼지로 염초를 뽑는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하지만 어이하여 나는 그것을 파다쓸 용단을 일찌기 내리지 못했는가!
궁냥이 미처 돌아가지 못했는가 아니면 후날에 들이닥칠 죄책이 두려워 애초에 몸을 사리려 했는가?…
여하튼 나의 궁냥이나 담략이라는것은 일개 군졸에게도 미치지 못하지 않았는가.
헌데 오천이란 녀석은 알다가도 모를 놈이로다.
그녀석은 벌써 오래전부터 절먼지를 퍼낼 작정을 하고 나다니면서도 왜서 내게는 일언반구도 그 소리를 하지 않았는가. 저로서는 억울

한 매까지 맞으면서…)

주지는 뚱깃거리며 다가오더니 다시 박위의 앞을 막아섰다.

오천을 어떻게 다스리려는지 박위의 결심을 똑똑히 알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않겠다는 속심이였다.

모멸적인 시선으로 주지의 상판을 쏘아보던 박위는 준절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우리 군영 군사들의 일은 내가 알아 처리할테니 그리 알구 대사는 더이상 상관마우.

그리구 대사께 내 한마디 일러줄 말이 있소.

대사도 그 무슨 번뇌로 가득찬 어지러운 인간세상을 아름답고 깨끗한 정토의 세계로 만든다는 교리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겠는데 그대가 진정으로 순정한 세상을 원한다면 번뇌를 없애는 일에 앞서 왜구를 없애는 일에 나서야 할게요.》

말을 마친 박위는 주지의 반응 같은것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떼놓았다.

주지의 뿌잇한 거적눈은 독을 머금고 번들거리였다. 그 눈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오냐, 항간에 나도는 말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네놈도 군졸놈들과 한배속이로구나.

이놈들, 승속간에 생불스님으로 명망높은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고도 곱게 두손 동여매고 앉아 부처님흉내만 내고있을줄 아느냐.

내 이제 네놈들을 모두 지옥의 기름가마 같은데 처넣구 알알이 튀겨낼테니 어디 당해봐라.》

주지의 가슴속에서 어떤 악심이 끓고있는지 알리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박위는 시원한 바람이 마주쳐오는 바다가로 씨엉씨엉 걸어나갔다.

바다는 진분홍빛저녁노을을 들쓰고 고요히 누워있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쉬이 헤아려 감득할수 없는 웅건하고도 심원한 사색에 깊이 잠겨있는듯싶었다.

박위는 바다에서 하늘로 시선을 들어올리였다. 석양이 비낀 하늘은 아름다왔다. 그리고 신비로왔다.

붉은색, 분홍색, 감색으로 얼룩진 구름송이들이 처음에는 화포알을

무져놓은것처럼 보이더니 차츰 옆으로 펼쳐지면서 달리는 세마리의 군마모양으로 변하였다.

이어 세마리의 군마는 량손에 검을 든 장수가 전복자락을 날리며 칼을 엇갈아 휘두르는 모양으로 뒤번져지며 하늘높이로 훨훨 날아올랐다.

하늘에 껑충 뛰여올라 검을 든 거인의 곁에 다가서면 지상의 크고 작은 인생사의 리치가 손금보듯 선명하게 가려질것 같았다.

노을에 물든 하늘을 쳐다보며 잠시 아이들같은 공상에 잠겼던 박위는 슬며시 고개를 내리드리웠다.

아! 과연 내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정녕 잡힐듯 하면서도 쉬이 더위잡을수 없는 진정한 인생사의 리치는 어디에 골박혀있는가?…

박위는 붉은 하늘, 붉은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13

놋양푼같은 보름달은 육중한 자기 몸을 이기기 어려운듯 둥깃둥깃 힘겹게 바다물우로 떠올랐다.

만월은 수면우에 떠오르자 그렇게도 무겁게 뚱깃거리던 좀전과는 달리 하늘중천을 향해 쑥쑥 날아올랐다.

그러자 검칙칙하던 밤바다는 금빛, 은빛으로 쪼각쪼각 부서져나가며 인간의 언어로써는 쉬이 형용할수 없는 신비스러운 자연의 선률을 도란도란 읊조리기 시작했다.

문득 도래굽이쪽에서 술한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차츰 이쪽으로 가까와지자 바다는 그만 그렇게도 큰 입을 슬며시 다물어버리였다.

이제는 누구누구의 목소리라는것을 분명하게 집어낼수 있을만큼 사람들의 행렬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게 내 애초에 뭐라던가, 계집의 인물이 반드르하면 애만 들지만 취금이처럼 덕성스러우면 복만 든다고 하지 않던가.

이 일이 주장 오천대정이 선을 잡은 일이기는 하지만 임자네 취금이가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될번이나 했겠나.

하여튼 구서방은 사위감도 칠칠하지만 딸년도 여간만 잘 두지 않았단 말일세. … 핫하하!…》

옥보의 챙챙 울리는 말소리, 웃음소리였다.

언젠가는 구서방에게 딸년의 흠절을 덮어두면 큰일난다고 타박을 하던 옥보가 지금은 아닌보살을 하고 취금을 잔뜩 추켜올리는 판이였다.

《이 사람아, 일이 이렇게 잘되여가는게 어떻게 우리 딸년의 덕이겠나. 난 그게 다 오천대정이 남모르게 땀을 내고 피를 흘린 덕이라고 생각하네, 말은 바른대루…》

구서방은 바로 점잖게 오천을 추켜올리는투로 겸사를 표명했으나 그 속에는 자기 딸에 대한 찬사도 적지 않게 배여있었다.

박위는 달그림자를 길게 끌며 자기앞을 지나가는 염초장사람들을 홀린듯이 바라보고있었다. 자기도 모르는새 한걸음, 두걸음 그들을 따라서기 시작하였다.

가슴은 자꾸만 울렁거렸다.

무엇인가 거대한 발견에 직면한듯 가슴은 자꾸만 부풀어올랐다.

이제는 오천의 지난 일이 거의나 뚜렷하게 짐작되였다.

어떻게 되여 자기가 그리도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였는지도 명백히 리해가 갔다.

오천이와 취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안아왔는지도 저저이 느낄수 있었다.

박위는 걸음발을 재우치며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여겨보았다.

사람들의 맨앞에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총각이 다름아닌 오천임을 알아보는 순간 박위는 공연히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오천은 너무도 기쁜탓인지 자기들을 따라서는 박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채 손세를 써가며 열변을 토하였다.

《여러분네들, 오늘 명통사에 갔다오는 길이 멀기는 해도 다리 아픈줄은 조금도 모르겠수다.

이제 이놈의 감대기를 가져다가 백설같은 염초를 콸콸 뽑아내서 왜구의 소굴을 활활 태워버릴 생각을 하니 갈매기처럼 훨훨 날아갈것만 같수다. …》

오천의 말은 별로 우습지도 않은 소리건만 하나같이 기분이 흥뜬 사람들은 또다시 와하 소리높이 웃어제끼였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오천의 말과는 전혀 동닿지 않는 옥보의 해망스러운 목소리가 울리였다.

《그러게 내 뭐라던가. 옛적부터 사람이 많으면 하늘도 이긴다 했어.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며칠새에 절간 여러개를 싹 쓸어내지 않았다.

한두사람이 나서서야 어디 될법이나 한 일인가?!》

옥보에게 뒤질세라 구서방이 제꺽 꼬리를 물었다.

《아무렴, 지푸래기도 모아서 엮으면 호랑이를 동인다네.

무지렁이 촌백성들이래도 모두들 단단히 마음을 합쳐가지구 떨쳐나서면야 큰산도 허물고 대병도 막아내다마다.

말은 바른대로…》

달빛을 휘감고 흘러가는 사람들의 행렬, 소수레, 마수레들의 행렬을 얼없이 바라보던 박위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하기사 옛적부터 큰일을 해제끼고 수천수만의 외적들을 물리친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였지. …

그 백성들덕에 우리도 이제는 다시 염초를 뽑아낼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

이윽하여 박위가 염초장앞에 이르니 사람들은 한창 짐을 부리고 들이느라고 정신없이 돌아가고있었다.

복새판이라 누구 하나 저들속에 박위가 들어선것을 알지 못했다.

기쁨과 감동에 젖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던 박위는 갑자기 거친 숨을 훅 내불었다.

부지불식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어떤 노여움과 분기가 폭발적으로 뻗쳐올랐다.

박위는 누구에게라없이 와짝 청을 높여 웨치였다.

《모두들 잠시 일손을 거두어라. 그리구 오천이란 놈을 당장 내앞에 오라구 해라—》

흥이 나서 일손을 다그치던 사람들은 때아닌 벼락에 와뜰와뜰 놀라며 허리를 폈다.

저들속에 박위가 끼워있는것도 놀라왔지만 그의 불호령은 더욱 놀라운것이여서 모두들 겁에 질린 눈을 커다랗게 흡떴다. 저편 구석진 곳에서 큼직한 짐짝을 메고 오던 오천은 박위의 호령소리를 가려들은듯 소리없이 짐을 내려놓았다.

밤눈에도 뽀얀 먼지를 뒤집어쓴것이 헨둥 알리는 얼굴을 이리저리 빗씻으며 박위앞에 다가왔다.

《오천이 불러 왔사옵니다.》

박위는 제잡담 천둥같은 소리를 터치였다.

《오천이 너 이놈! 요즘 너희 염초장것들이 린근의 절간들을 나들며 마루밑의 먼지를 말강스럽게 퍼낸다던데 사실이냐?》

오천은 먼지투성이머리를 더 깊이 조아려박았으나 그의 대답소리에는 한끄치의 겁기도 없었다.

《네, 그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일을 작정한것도 소인이옵고 일을 휘동한것도 소인이옵니다.》

《뭐라구?! 작정도 네놈이 하고 휘동도 네놈이 했어?! 그래, 네놈은 그렇게 한것이 장한 일같아서 번마다 제 이름을 찍어대느냐?》

《…》

《네놈은 명색 대정노릇까지 했다는것이 군기도 모르고 군률도 아랑곳없단 말이냐? 그런 궁냥이 나고 작정이 섰다면 우선 군영에 보고를 한 다음 군영의 지휘를 물어가지고 일을 펴야 할게 아니냐. 모두 네놈처럼 제갈래로 놀아난다면 부대의 군기는 뭐가 되고 또 싸움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둘러선 사람들중에서 여러명은 비로소 박위가 성내는 까닭을 제나름대로 짐작하고 고개를 끄떡거리였다.

아하, 장군께선 오천이가 제멋대로 일을 지휘하는것이 지금껏 노여운 모양이고나…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볼에 밤알을 물고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아니, 군기문제로 말하면 이미 매를 쳐서 벌을 내린것이요, 요즘일을 말할것 같으면 오천이가 직접 취품을 하여 말미를 받고 하는것인

데 무엇이 또 새삼스럽게 분격하단 말인가!…

사람들의 기색은 각이했으나 박위는 그냥 눈을 지릅뜨고 오천을 노려보았다.

오천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진실을 터놓기가 딱하여 잠시 망설이던 끝에 헐쑥하게 살이 빠진 얼굴을 들었다.

《사실은 군기를 모르거나 망각해서가 아니오라…》

《무엇이 어째?! 네놈은 아직까지도 빙빙 에돌면서 사실을 바로 대지 않을셈이냐? 털끝만 한 거짓도 없이 바른대로 아뢰지 못할고!―》

오천은 마침내 모든 일이 결속단계에 들어선 이제 와서 더이상 일의 내막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매 절간의 주지들은 물론 염초장사람들도 모두 오천이가 주동이 되여 절간침해를 했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지 않는가.

후날 탈이 생긴다면 모든 죄는 자연히 오천이 자기에게 쏟아질것이였다.

오천은 드디여 입을 열었다.

《황송하오나 미리 내막을 알리고 일을 벌리면 후날에 가서 절을 파헤친 루가 장군께 미칠것 같아 그렇게 하지 못했소이다.

소인은 옥살이를 해도 별일없고 귀양살이를 가도 탈이 없지만 장군께 루가 미친다면 그만큼 원정이 늦어지거나 아주 파탄될수도 있겠기에…》

박위의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따가운것이 목젖을 치받으며 솟아올랐다.

자기의 예감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면바로 들어가맞은것이였다. 박위는 석쉼하게 갈린 청으로 부르짖었다.

《네 이놈! 되지 못한 수작 그만두지 못할가!》

박위는 불가마속에라도 들어선듯 전신이 훅훅 달아올랐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절간먼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미 생각했댔으나 뒤에 생길 후과가 시끄러워 손대지 않은 일이였다. 헌데 오천은 뒤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뒤에 생길 후과를 저 혼자 고스란히 들쓰기 위해 누구에게도 내막을 알리지 않고 오늘의 일을 떠밀어온것이였다.

온몸의 피가 다 몰린듯 화끈화끈해나는 얼굴을 들어 초점없이 허공을 응시하던 박위는 다시금 노성을 터치였다.

《그러니 네놈의 수작인즉 나는 뒤전에 나앉아 구경을 하다가 죄가 쏟아지거든 그 죄를 전수히 네게다 밀어붙이라는 뜻인데…

이놈아, 세상에 제 새끼를 잡아먹는 망둥이라는 고기는 있어도 제가 살겠다고 수하군사를 구렁속에 밀어넣는 장수가 어디 있다더냐?

에끼, 이 고이현놈—》

박위의 질책과 꾸중은 엄엄했으나 그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시작부터 거의 확연하게 감득하고있던 오천은 마침내 박위의 웅심깊은 사랑앞에 통으로 가슴이 젖어들었다. 오천의 눈에서는 달빛에 젖은 파아란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속이 한줌만큼이나 졸아들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사람들도 그제야 박위의 호령속에 깃들어있는 하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여실히 깨달은듯 눈굽을 찍어내고 코밑을 훔쳐냈다.

북받쳐오르는 오열을 흑흑 씹어삼키는 축들도 있었다. 박위는 오천이네들에게 감동되였으나 오천이네들은 박위에게 감격한것이였다.

그것이 박위의 가슴을 더욱 아프고 따갑게 휘저어주었다.

자기가 한 일은 조금도 크게 여기지 않으나 남의 사소한 인정에는 크게 감동하는 소박하고 진실한 이 사람들.

예전에는 마음먹은대로 휘고 부릴수 있는 하잘것 없는 존재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쉬이 가량할수 없는 높은 뜻과 비범한 슬기를 지닌 거인들처럼 쳐다보이였다.

박위는 울컥울컥 괴여오르는 속을 주체하기가 어려워 슬며시 바다가쪽으로 돌아섰다.

이때를 놓칠세라 구석쪽에 박혀있던 여삼이가 대들듯이 오천에게 다가섰다.

그의 동글납작한 얼굴에도 눈물자욱이 번들거리고있었다.

팔소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뒤 신출내기군사들과 함께 코가 삐뚤어지도록 밀린 잠을 자고난 여삼은 깨나자바람 박위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군영안에 없었다.

여삼은 박위의 털등거리를 찾아들고 바다가에 달려나왔다.

그렇게 되여 염초장사람들속에 섞이게 된 여삼은 방금전의 광경을 죄다 목격하였고 오천의 일도 낱낱이 알게 되였다.

속이 깊지 못한탓으로 하여 누구보다 쉽게 오해를 품기는 하나 그

대신 남달리 감동이 빠르고 리해가 빠른 여삼이였다. 한참이나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오천을 흘겨보던 여삼은 무슨 행풀이라도 하듯 큰 소리를 뽑았다.

《형님이 매정하고 모진줄은 오늘 다 알았소. 내가 아무리 입이 빠르고 말이 헤프다 한들 내게까지 일의 내막을 숨긴단 말이우.

너무하우, 세상에 그런 형이 어디 있고 그런 인정이 어디 있소?…》

여삼은 마치 오천이가 원망스러운듯 소리소리 질렀으나 사실상 그는 자기의 옮은 성격을 전에없이 아프게 꾸짖고있었다.

(오천형님은 지금껏 원정준비를 시각빨리 끝내기 위해 발에 불이 일도록 뛰여다니였다.

장군께 루가 미칠것이 두려워, 후날 자기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절간먼지소리 같은것은 애당초 입에 올리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형님의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취금에게 반해다닌다고 고깝게 여기던끝에 꽁지대가리없는 헛소문을 그대로 장군께 일러바치였다.

그래서 오천형님에게 매가 떨어지게 하고 그의 일을 더디게 하였으니 세상에 나처럼 경망스러운 놈, 나처럼 고약한 놈이 어디 있는가?!)

여삼은 소리쳐울고싶도록 마음이 괴로왔다. 허나 오천은 그의 울음 기섞인 말같은것은 별로 여겨듣지도 않고 여삼의 어깨를 툭툭치며 싱글거리였다.

《헛허허, 당장 애기아버지가 될 녀석이 속은 꽁해가지고…

젠장, 눈섭을 뽑으면 똥이 나오겠구나.》

여삼은 손을 홱 내리그으며 발칵 짜증을 내였다.

《형님, 난 지금 롱을 하는게 아니우.

아무튼 오늘 밤엔 짬을 내가지구 우리 집에 좀 나오우. 속이 쭉 풀리게 말을 해야지 장밤 잠을 못 잘것 같소.》

《아따, 삼년만에 만나는 가시애비냐.

새삼스럽게 말은 무슨 놈의 말… 하여간 내 틈을 봐서 나가도록 할테니 이제는 그쯤하고 우거지상을 풀어라.》

가까운 바다우에서 두점의 불꽃이 펑끗 살아올랐다.

박위는 더이상 오천과 여삼의 대화에 귀를 보낼수 없었다.

(저게 무슨 배일가. 우리 군영의 배라면 내가 모를리 없는게요, 왜구의 배라면 바다길순시를 나간 우리 군사들이 가만 내버려둘리 없을

텐데…)
박위는 가벼운 의혹을 안은채 바다쪽으로 걸어나갔다.
달밝은 밤이라 바다는 꼭 은빛비단필을 펴놓은듯 한데 그우에서 두척의 배가 뚜렷한 륜곽을 드러내며 이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오천이 급히 뛰여와 바다우의 배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아까는 미처 아뢰옵지 못했사온데… 저 배들은 죽촌사람들이 무어가지고오는 전함들이옵니다.》
박위는 첫순간 오천의 말뜻을 가려듣지 못했으나 인차 사연의 앞뒤를 짐작할수 있었다.
언제인가 죽촌에 나갔을 때 목격한 알고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언뜰언뜰 안겨왔다. 오천은 하얀 이발을 번쩍거리며 신명이 나서 뒤말을 심어나갔다.
《달이 좋은 이밤을 타서 그새 뽑은 염초를 제창 새로 만든 전함에 싣고 군영앞바다로 들어오겠노라고 일전에 벌써 통기해왔댔소이다.》
《그래?!》
염초장사람들은 어느결에 벌써 죽촌의 전함들을 알아보고 와와 소리를 지르며 이쪽으로 밀려오고있었다.
박위와 오천은 그 소리에 떠밀리기라도 한듯 성큼성큼 바다쪽으로 걸어나갔다.
배는 벌써 기슭에 이르러 닻을 내리고있었다.
누구인가 잽싸게 배우로 사다리를 뻗쳐놓았다.
박위는 천천히 사다리우에 올라섰다.
박위가 움쭉 몸을 솟구며 배우에 올라서자 배전에 두손을 모두어잡고 서있던 저대로인은 정중히 허리를 꺾으며 흥뜬 어조로 아뢰였다.
《우리 죽촌백성들이 군영에 기증할 전함과 염초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당도하는 길이올시다.》
훨훨 나붓기는 저대로인의 다발좋은 채수염을 홀린듯이 바라보던 박위는 그의 나무뿌리같은 손을 덥석 잡아주고싶은 충동을 가까스레 누르며 말했다.
《누구들보다 고생스럽게 사는 죽촌백성들이 군영의 일을 위해 전함과 염초까지 만들어가지고 왔으니 무엇이라고 치하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실로 갸륵하오.》
박위는 후둑후둑 골풀이치는 가슴을 안은채 뚜벅뚜벅 갑판을 거닐며 관습적으로 배안의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촘촘히 박혀있는 갑판우의 널판자들은 기름을 먹여 대우를 낸듯 청동거울처럼 알른거리는데 선미쪽에는 두세바리는 실히 될 흰눈같은 염초가 무져있었다.
무엇인가 크고 뜨거운것이 가슴버겁도록 밀려들었다.
(이 사람들은… 문벌좋고 권세 뜨르르한 량반들은 외눈으로도 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알뜰히 맨손으로 이 모든것을 만들어냈다.
아무런 평가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소리, 소문도 없이…
하고 보면 이 땅에서 누가 정녕 아름다운 인간, 힘있는 사람이며 진정한 애국자인가?
나는 진정 어느 토양에 인생의 뿌리를 박고 줄기를 뻗쳐야 하는가?!…)
한참이나 아무 말없이 생각을 이어나가던 박위는 마침내 오늘 밤 짧은 순간에 열번도 더 되굴려본 사색을 간추려 군령으로 선포하였다.
《오천이, 듣거라. 오늘부터 너는 다시 대정벼슬을 맡아보되 이제부터는 단지 군영의 염초장일만 간검할것이 아니라 도안의 염초장들을 모두 총찰하도록 해라.
따라서 너에게는 염초도감이라는 벼슬을 덧붙여준다.
또한 염초장일의 급속한 진전을 위해 각 고을, 각 촌의 염초장마다 정식으로 행수벼슬제를 내오도록 하겠노라.
죽촌의 좌상로인은 제창 여기 나와있으니 관령을 기다리느라 할것 없이 이 시각부터 행수벼슬을 행사하도록 하라.
이상의 사실은 곧 우에 품하고 아래에 알리여 정식 군령, 관령으로 통하게 할것이다.》
《황송하오이다.》
오천이와 저대로인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감격에 젖은 청을 모아 웨치였다.
잠시후 지금껏 괴괴한 정적에 묻혀있던 염초장에서는 기운찬 풀무질소리가 푸르르 딱딱, 푸르르 딱딱 울려나왔다.
은백색의 화광이 펑끗펑끗 솟구쳐오르는가 하면 사람들이 웃고 떠

드는 소리, 주고받는 먹임소리가 들썩하게 쏟아져나왔다.
박위는 기다란 달그림자를 끌며 염초장주위를 거닐고있었다.
격정은 갈수록 세차게 끓어올랐다.
그것이 억제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박위는 뜨거운 숨을 내불며 얼굴을 추켜들었다. 온 세상이 다 듣도록 백성들의 덕에 염초가 풀렸다고, 원정은 필경 승리로 결속될것이라고 소리쳐웨치고싶었다.
하늘에서는 도래멍석같은 보름달이 화려한 얼굴을 구름장속에 숨겼다가는 서둘러 빠져나오군 하는데 그때마다 천지간은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환하게 밝아지군 했다.
그렇다, 정의나 진실, 인생사의 참된 리치는 잠시잠간 구름장같은데 가리워지여 보이지 않을수는 있어도 영영 사라질수는 없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영영 사라졌다고 때이르게 탄식하며 자기의 인생을 실패에로 몰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을뿐이다.
하거니 그 어떤 광풍이나 어둠속에서도 한번 포착한 정의와 진실, 인생사의 참된 리치를 철석같이 믿고 그것에 의거하여 만사를 줄기차게 떠밀어나간다면 내세운 뜻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한들 어찌 성사를 이룰수 없겠는가?!…

제 3 장

1

리옥은 아까부터 밋밋한 모래불우에 미출한 두다리를 곧게 내뻗치고 앉아 수평선 저 멀리에 낮추 드리워있는 고국의 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대마도는 기온이 비교적 온화한 일본땅에서도 제일로 따스한 고장이다.

한겨울에도 내리는 눈이 땅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녹아내리는 바람에 땅에 덮인 눈은 거의나 찾아볼 길이 없다.

숲도 들도 사시절 푸른빛을 띠고있었다.

사람들은 노방 홑것을 입고 다니면서도 전혀 추운줄을 모른다.

지금은 겨울을 눈앞에 둔 마가을.

아무리 더운 지방이라 해도 철은 역시 철이여서 홑것차림으로 한지에 오래 앉아있으면 으시시 몸이 떨려난다.

하지만 착잡한 번뇌에 싸여있는 리옥은 지금 지긋게 옷섶을 파고드는 랭기를 거의나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리옥의 마음은 오늘도 하냥 조국으로 달리고있었다.

청동거울마냥 티 한점없이 맑고 푸른 고국의 하늘, 꽃송이처럼 점점이 떠있는 흰구름장사이로 죽촌의 정갈한 자기 집과 앞뜰에 무성한 구기자덤불이 그림처럼 생동하게 떠올랐다.

지금은 가을철이라 앞뜰의 구기자열매들은 죄다 떨어졌으련만 하늘가에 그려진 환상적인 구기자덤불에는 피방울같이 빨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도 달려있었다.

문득 그 열매더미우로 맛스럽게 구기자차를 마시는 박위의 흰 얼굴이 생동하게 그려지였다.

아버지의 흉내라도 내듯 단숨에 차종을 비우고 무슨 장한 일이라도 치른듯 보조개를 파며 방그레 웃는 현중의 귀인성스러운 얼굴도 비껴들었다.

리옥은 찌르는듯 한 아픔을 느끼며 앵두알같은 입술을 암팡지게 감쳐물었다.

(아, 현중 아버님, 언제인가 당신께서는 인생의 쓴맛은 단맛을 빚어내는 원천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생활의 하루하루가 시종 쓴맛으로 이어진다면 사람이 무슨 수로 그 장구한 괴로움을 이겨낼수 있을가요?

소녀는 그만 지쳤습니다. 지겹고 역스러운 이국살이 반년에 몸도 마음도 심령까지도…

따져놓고보면 소녀가 본의아닌 실수로 현중 아버님을 파멸적인 위기에 몰아넣게 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소녀는 만사를 체념했습니다.

정말이지 왜구들도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일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각성없이 그들에게 당신께 보내는 문안편지를 쥐여준것은 참으로 잘못된 실책이였습니다. …)

리옥의 절망적인 사색은 이 대목에 이르러 돌연히 사다께쪽으로 돌아갔다.

…그날 리옥을 자기의 관사에 불러들인 사다께는 징그러운 웃음을 띄운채 기고만장하여 말하였다.

《에또ー 일전에 네가 쓴 문안편지는 그대로 박위에게 전해주었어야 옳았을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네 필적을 취하여 만든 거짓편지(물론 네가 박위에게 전하고저 하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 넣었다.)를 그에게 보내였다.

본의가 아닌고로 미안스럽기는 하다만 너로서는 과히 나쁘게 생각할것이 없으리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고려가 화평을 맺자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것이니까.

헌데 내 명의로 된 편지와 네 이름으로 쓴 편지를 받아본 박위는 팔소앞에서 화평사절로 파견된 우리 군사들에게 화평을 뜻하는 례물이

아니라 전쟁을 원하는 불화살을 퍼부었다.
하여 우리의 아까운 군사들이 수십명이나 억울하게 죽었다.
결국 우리는 더이상 화평책을 견지할수 없게 되였다.
박위가 존재하는 한 량국간의 화평이 도저히 실현될수 없음을 피로써 절감한 우리는 부득불 새로운 방안을 선택하였다. 터놓고 말한다면 그것은 화평의 파괴자이며 우리의 극악한 원쑤인 박위를 역신으로 몰아 처형하자는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여러차례 내 이름과 너의 명의로 된 편지를 박위에게 보냈다.
편지의 내용들을 볼것 같으면 대략 이러하다.
〈…박원수, 당신은 팔소에서 우리 군사들을 적지 않게 죽였으니 고려조정은 앞으로도 당신을 계속 신임할것이다.
래일의 거사를 위해 그러한 제물이 또 필요하다면 우리는 비록 가슴아픈 손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제공할것이다.〉
〈박원수, 우리에게 고려비단과 곡물, 피륙과 어물을 비롯한 희귀한 물산들을 또다시 다량으로 보내주어 매우 감사하다. 우리는 당신의 성의에 대한 답례로 적절한 기회를 리용하여 리별장의 딸과 반정에 쓸 병기를 보내줄테니 믿고 기다리라.〉…
리옥의 생각은 어떤가?
이러루한 내용의 편지들이 김해관가에 기적을 둔 기생과 김해부사의 손을 거쳐 고려조정에 들어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것 같은가 말이다, 핫하하…
그러지 않아도 조정대신들의 미움을 받고있는 박위는 이제 머지않아 역신의 올가미를 들쓰게 될것이며 종내는 참형을 당하게 될것이다.
이쯤 말했으면 너도 자기의 처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짐작이 갈게고 장차 어느쪽으로 살길을 택해야겠는가 하는 결심도 내릴수 있을것 같은데…》
사다께는 자기의 구미와 용도에 맞게 거짓말을 얼럭덜럭하게 섞어넣으며 저들의 음모의 내막을 거지반 다 털어놓았다. 사다께는 자기의 능활한 계략을 유감없이 시위하는 동시에 리옥에게 오도가도 할수없는 절망적인 처지를 뚜렷이 인식시킴으로써 처녀의 마음을 될수록이면 조속히 저들쪽으로 돌려세우려는것이였다.

리옥은 대바람 자기가 사다께의 음흉한 술책에 걸려들었다는것, 그로 하여 박위에게 뜻밖의 위험이 조성되였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였다.

자기를 롱락한 사다께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기름불처럼 가슴을 태웠다.

세차게 어깨를 들먹이며 사다께를 노려보던 리옥은 별안간 탁자우에 놓여있는 둔하게 생긴 청자기를 후리쳐잡았다.

《너절한 놈!》

리옥은 사다께의 정수리를 겨누고 힘껏 자기병으로 내리깠다.

그 순간 처녀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노려보던 지또는 그 뚱뚱한 몸을 놀라우리만치 잽싸게 날리며 리옥의 손목을 틀어잡았다.

청자기는 방바닥에 떨어져 산산쪼각이 났다.

아무런 위험도 감촉하지 못한듯 침착하게 앉아있던 사다께는 야릇한 미소를 띄우며 뜨직뜨직 자리에서 일어섰다.

먹이를 노리는 독사마냥 파란 불꽃이 부서지는 눈으로 리옥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쏘아보던 사다께는 별안간 기다란 칼을 스르릉 뽑아들었다.

《요로시, 나는 올데갈데없이 된 네년을 우리 땅에 받아들이고 대부인마님처럼 공대해주려 했는데 사례는 못할망정 이따위 망동을 부려?!…》

리옥은 이를 사려문채 사다께의 개기름이 번질거리는 상판을 쏘아보며 오연히 부르짖었다.

《나는 이미 죽고사는 리치를 달통한 녀자다. 고려의 개돼지로 살지언정 왜구의 부귀는 절대로 원하지 않으니 죽일테면 죽여라!》

사다께의 누런 이발이 드러나면서 쇠덩이같은 턱주가리가 한쪽으로 실그러지였다. 째는듯 한 악청이 방안의 살벌한 공기를 찢었다.

《오멘!—》

날카로운 칼날이 홱 공기를 베며 힘차게 내리박히였다.

리옥의 볼편을 스쳐내린 칼날은 서탁우의 연적을 두쪽으로 갈라내치였다.

웬간한 녀자 같으면 단박에 기절을 하여 나동그라졌으련만 리옥은 여전히 까딱없이 굳어진채 사다께를 쏘아보고있었다.

발치에서 번뜩이는 연적쪼박과 리옥의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던 사

다께는 갑자기 미친 놈처럼 어깨를 들썩거리며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으핫하하… 너는 과시 희한한 녀자다. 천생 무관의 배필로 태여난 담찬 녀자란 말이다, 핫하하…》
게걸스레 웃어대던 사다께는 불시에 웃음기를 싹 거두더니 고려식으로 만든 교자우에 들어앉으며 씨벌거리였다.
《너는 지금 죽고싶기도 하고 발광이 나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럴 까닭은 없다.
마음을 눙치고 진정을 해라. 가슴속에 아무리 크고 아픈 상처가 있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아물기마련이요, 아물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성정이다.
우리는 방금 몽우리진 꽃망울과도 같은 처녀인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것이며 또 죽지도 못하게 하겠다.
에또— 그 리유는 첫째로…》
사다께는 리옥의 표정을 슬금슬금 훔쳐보며 손가락을 꼽아내리였다.
《…네가 죽었다는 소문이 혹여 고려땅에 날아가는 경우 박위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많이 지연될수 있기때문이다.
둘째로, 에또— 그에 대해서는 네가 속을 진정한 뒤에 가서 명백히 알려줄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무엇을 할것인가?!…》
방금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번뜩이던 사다께의 넙적한 상판에는 회심의 미소가 그득히 발려있었다.
사실 사다께는 철들어 지금까지 적지 않은 계집들을 떡반죽 이기듯 제마음대로 주물러본 경험많은 호색한이였다.
사다께의 경험에 의하면 상판이 밴밴한 계집들은 대개 변덕이 심하고 코가 높아서 일을 치려들면 일쑤 정조가 어떻소, 수절이 어떻소 하고 속에도 없는 소리를 참새처럼 재재거리며 몸을 뒤트는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알고보면 미인이나 추녀나 정조관념이 희박하기는 매일반이였다.
미인으로 소문난 계집들 역시 희귀한 재물을 듬뿍 안겨주거나 시퍼런 칼날을 목에 가져다대면 즉시 초친 문어처럼 나긋나긋해지여 제쪽에서 먼저 나팔꽃넌출처럼 휘감겨들었다.

헌데 고려의 처녀 리옥은 어떠한가.
티없이 깨끗하고 수려한 얼굴모양과 청신하고 싱싱한 몸매도 탐스러웠지만 그 어떤 재물도 반기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도도한 기상은 탄복할만큼 신기하고 매력적이였다.
하기에 방금전 리옥이가 청자기병을 휘둘렀을 때도 사다께는 놀라거나 악증이 나기 전에 여직껏 느껴보지 못한 신비한 매력을 느끼였다.
이처럼 아름답고 도담한 고려처녀를 거사에 계속 써먹으면서 차츰 온공하게 길을 들이여 제것으로 만든다면 한꺼번에 두가지 득을 얻는 셈이요, 그 쾌감은 비길데없이 감미로울것이였다.
얼추보매 리옥은 칼벼랑우에서 노니는 매처럼 길들이기가 매우 어려울것 같으나 따져보면 그 역시 언젠가는 남성과 어울려야 할 운명을 타고난 일개 녀자요 또 이미 박위에게 정을 주었던 계집인만큼 정신적인 공세를 들이대면서 박위이상의 인격을 보여준다면 능히 휘여낼것 같았다.
어쩌면 박위가 고려조정에 의해 처형되는 경우 박위를 제거하는 음모에 말려들었던 제 처지와 죄의식으로 하여 리옥은 제스스로 사다께 자기에게 엎어질수도 있을듯싶었다.
여하튼 모든 일이 다 때가 있고 철이 있는 법.
나무를 심고 꽃을 피웠다면 열매가 맺히고 익을 때까지 직심스레 가꾸며 참을성있게 기다려야 할것이다.
사다께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굳어질수록 여직껏 체감하지 못했던 류다른 희열이 가슴속에는 물론 얼굴거죽에까지 근지럽게 퍼져오르는듯싶었다.
사다께는 화독처럼 달아오르는 상판에 술렁술렁 손부채를 부치던끝에 무슨 큰 용단이라도 내리듯 호기있게 말하였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너에게 대부인마님의 지위를 선물할테니 너는 그에 맞는 자유와 부귀와 권세를 누리게 될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너의 일이다!…》…
…리옥은 여전히 고려의 푸른 하늘가에 시선을 박고있었다.
자기의 목언저리에 도두룩하게 박혀있는 팥알만 한 기미를 습관적으로 매만지고있었다.
박위의 정겨운 시선이 때없이 와닿군 하던 자리, 사다께의 음탕한

시선이 번마다 털벌레처럼 지나치군 하던 자리.

리옥은 벌써 몇번이나 기미가 박혀있는 이 자리에 박위가 선물로 준 단검을 깊숙이 들이박고싶은 충동을 느꼈었다.

그렇게 하는것으로써 박위에게 용서를 빌고싶었고 치욕스러운 지금의 지옥살이를 끝장내고싶었다.

하지만 결심과 실행을 일치시킨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언제나 가능한 일도 아니였다.

결코 죽기가 겁나서 칼을 박지 못하는것이 아니였고 밤낮으로 주위를 감도는 외통눈의 파수군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것도 아니였다.

박위의 체취가 슴배여있는 단검을 뽑아들기만 하면 리옥의 귀전에는 위불없이 아버지 목소리, 박위의 목소리가 준절하게 울리군 했다.

때로는 현중의 노란 목소리가 날아들기도 했다.

그들의 음성은 저마끔 달랐으나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것은 타락한 인간의 최대의 타락이라고 하나같이 웨치였다.

또한 고려의 모든 사람들은 리옥이가 절망과 고통속에서 승리자로 솟아오르기를 믿고있노라고 부르짖었다.

리옥은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그들의 목소리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리옥은 매번 단검을 꺼내들었다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다시 품속깊이 간수하군 했다.

그가 이렇게 번마다 자결을 포기하게 된데는 또한 박위나 군영의 군사들을 위해, 고려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는 죽을수 없다는 생각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

이 생각, 저 생각 두서없이 번져가던 리옥은 문득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두눈을 유난스레 빛내이며 하늘가에서 바다쪽으로 시선을 돌리였다.

오늘 아침 사다께가 하던 말이 아무런 론리적련관도 없이 귀전을 징징 울리였다.

그때 사다께는 기분이 매우 족한탓인지 아니면 단지 리옥을 깜짝 놀래워주고싶었던지 느물느물 웃으며 여직껏 감추고있던 비밀한 속내를 꺼림없이 터놓았다.

《이봐 리옥, 일전에 박위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글을 보니 아직도 그 사람의 기개가 제법 장하더군.

에또— 〈너와 나는 백년숙적이요, 필생의 적이다. 적과는 오직 판

가리싸움만이 있을뿐이다.
내 기어이 대마도에 찾아갈테니 이번에는 바로 너의 땅에서 검으로 결산을 하자!〉 이렇게 썼더군, 으핫하하…
역시 박위는 사내야, 용감하단 말이야.
다만 천동인지 지동인지 판별 못하는 그 우직성만은 참으로 유감스럽거던.
고려의 한 지방군을 가지고 우리 대마도를 치겠다?! 그게야 말똥구리가 수레바퀴를 굴리겠다는 수작이나 무엇이 다른가 말이야, 으핫하하.》
그때 리옥은 세면물을 뜨러 샘터로 나가던 길인데다 사다께의 웃입술이 훌렁 뒤번져진 징그러운 상판과 기고만장한 꼴이 보기에 역스러워 그의 말을 개짖는 소리쯤으로 흘려버렸었다.
그러나 지금에는 사다께가 뇌이던 말마디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띠고 자자구구 되새겨지였다.
(현중이 아버님이 고려군을 이끌고 이곳에 들어와 왜구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겠다고 했다지?!)
박위의 그 불같은 선언속에는 왜구의 소굴을 송두리채 요정내고야 말 고려장수의 당당한 배짱과 철석같은 의지가 어려있었다.
자기를 비롯한 죽촌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애족의 일념이 빛발치고있었다.
또한 그 선언속에는 리옥이 자기에게 고려군이 진격해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맥을 놓지 말고 꿋꿋이 싸워달라는 박위의 절절한 당부도 들어있는듯싶었다.
리옥의 가슴은 숯불처럼 지글지글 달아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는새 자그마한 주먹을 돌멩이처럼 단단히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이 불행과 난관에 도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되는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모든 파멸은 항상 완강한 저항력과 돌파의식을 상실하는데서부터 초래된다.
그런즉 지금이야말로 맥을 놓아서는 안된다. 아니, 백배로 마음을 도슬러먹고 힘을 내야 한다. 고려군대가 대마도진공을 준비하고있

는 이때 나는 기어이 살아서 현재의 난국을 헤치고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야 하며 오늘의 수치와 원한, 현중 아버님께 지은 죄를 씻어야 한다.

가능한껏 아니, 최대의 힘과 지혜를 짜내여 사다께의 흉악한 모략의 내막과 김해땅에 박혀있는 세작년의 정체를 군영에 알리는것으로써 우리 군대의 대마도원정과 현중 아버님의 거사를 도와야 한다.)

누군가 저벅저벅 매우 느린 걸음으로 모래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였다.

보나마나 노상 리옥의 주위를 맴도는 외통눈파수군일것이였다.

무심결에 고개를 돌려보니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파수군이 아니라 죽촌에 살 때부터 풋낯이나 알고있던 벙어리 장서방이였다.

사람이 지나치리만큼 말이 없고 용해빠지여 드살센 동네아낙네들로부터 죽에 든 가시도 못 뽑을 위인이라고 뒤손가락질을 받던 사람.

그는 죽촌이 변을 당하던 그날에도 갓 돌이 지난 자기의 아들 백동이가 왜구의 칼에 찔려죽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주먹 한번 둘러멜 생각을 못하고 꺼이꺼이 울기만 했다던가.

아무튼 과묵하고 용해빠진 덕분에 장서방은 요즘 왜구의 두목들에게 따로 처먹일 희귀한 해산물들을 잡아다바치는 중임을 맡고있었다.

콜콜한 비린내를 풍기는 불룩한 멍구럭을 지고 꺼꺼부정해서 지나치는 장서방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던 리옥은 그리 멀지 않은 모래불에 꺼꾸로 엎어놓은 퉁궁이가 피끗 가려지는 순간 불시에 심장이 곤두뛰을 하는듯 한 충격을 느끼였다.

황황히 타는 시선은 어느결에 퉁궁이쪽으로 돌아갔다.

높뛰는 심장은 벌써 몇번이나 똑같은 말마디를 소리없이 웨치고있었다.

(바로 저 배! 장서방의 고기배를 타고 나서면 얼마든지 이 섬을 빠져나갈수 있지 않겠는가.

아아, 내 왜 여직껏 장서방 생각을 하지 못했을가?)

높뛰는 가슴속에서 송진불같은것이 활활 타번지였다. 리옥의 입에서는 어느결에 나지막한 소리가 터져나갔다.

《장서방, 내 말 좀 듣소.》

장서방은 잔등에 비수가 날아와 박히기라도 한듯 흠칫 몸을 떨었다.

허연 소금기가 얼룩덜룩하게 피여있는 잔약해보이는 어깨를 느리게 돌리였다.

늙은이처럼 지거미가 꼬약꼬약 흘러나오는 정기없는 눈으로 장님 등불보듯 멀끄러미 리옥을 쳐다보았다.

리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저 멀리 석양이 비낀 바다우에서는 이른바 해상공격전을 가상한 전투훈련을 하는 왜구들이 오리새끼들처럼 퍼덕거리고있었다.

외통눈파수군은 그리 멀지 않은 안침진 바위벽에 기대앉아 병든 닭새끼처럼 거불거불 졸고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장서방에게 다가선 리옥은 흥분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장서방은 대체 언제까지 그따위 궤궤한 멍구럭을 메고 다니겠소? 그따위를 메고다니면서도 속마음은 편안하고 남들보기는 부끄럽지 않소?》

리옥의 말은 시작부터 야멸차게 울리였다. 허나 장서방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석양이 비낀 저녁하늘만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리옥은 속이 바질바질 타는중에도 밸머리가 통으로 빠져버린듯싶은 장서방이 그지없이 원망스러웠다.

《…장서방은 그래 왜구들에게 장참 이렇게 고기나 잡아다 섬기면서 살아가겠소? 장서방의 지금의 모양을 고향에 있는 백동이 엄마가 본다면 얼마나 분해하겠소.

불쌍하게 죽은 백동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갈수야 없지 않소?》

장서방의 불룩하게 튀여나온 어지게 생긴 황소눈에 눈물이 핑 고이였다.

리옥의 맑은 음성은 절절하게 번져갔다.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한시바삐 지긋지긋한 고역살이를 벗어던지고 고향으로 가야 하오.

오늘의 한을 풀고 어제의 원쑤를 갚기 위해 그리구 이곳의 죽촌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단 말이요. 모름지기 고향의 백동이 엄마도 그걸 바라고있을거요.》

장서방의 어깨는 세차게 오르내리였다.

그의 황소눈에서는 뿌연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리고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여가지고도 고사리같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생을 부여잡으려던 아들애의 마지막모습이 다시금 삼삼히 떠올라 새삼스레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모양이였다.
장서방은 한참만에야 눈물매닥질이 된 얼굴을 간신히 들어올리며 떠드박거리였다.
《그런데… 아씨… 무슨 수로 여기를… 빠져나간단 말이웨까. 도대체 아니될 소리웨다.》
리옥은 이런 바지저고리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된 지금의 자기의 처지가 기막히였다.
하지만 장서방을 놓아준다면 탈출의 출구는 영영 막혀버릴것이였다.
필사적으로 달라붙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장서방, 겁낼것 없소.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소? 이렇게 구지레하게 천년을 살아서는 무엇하겠소.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없소.
내가 아무때든 적당한 기회를 틈타서 연통을 하거든 장서방은 누구도 몰래 바다에 나와 배를 띄우오. 그뒤의 일은 내가 다 장담하겠소.》
고기비늘이 하얗게 달라붙은 설핀 턱수염을 바들바들 떨던 장서방은 갑자기 커다랗게 눈을 흡떴다.
노을빛을 받아 불그레한 바다물을 헤가르며 이쪽으로 헤염쳐오는 왜구들을 띄워본것이였다.
리옥은 장서방의 눈길을 따라 바다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바다우에서는 수십명의 왜구가 정신없이 헤염을 치고있는데 그들의 뒤로는 알락달락한 차일을 친 커다란 배 한척이 유유히 따르고있었다.
배의 갑판우에는 지또를 비롯한 섬안의 고위관리들과 수급장교들을 대동한 사다께가 관복자락을 펄펄 날리며 서있었다.
얼마전에 본토와 규수지방에서 새로 모아온 고께닌들의 해상훈련을 직접 현지에까지 나와 지휘하는 모양이였다.
헌데 물에 들어선 놈들은 거개가 륙지에서 제멋대로 바라다니던 알건달군들이라 헤염솜씨가 여간만 서툴지 않았다.
제법 물건너가는 개새끼처럼 대가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철썩철썩 물

을 가르는 놈들도 있으나 태반이 무거운 몸을 내리드리우고 미욱한 곰새끼처럼 마구 허우적거리고있었다.

어떤 놈들은 떡돌처럼 자꾸만 가라앉는 몸을 이길수 없어 사다께가 탄 배에 매달리여 가긍한 소리들을 질러댔다.

《령주도노,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제 물에 들어가면 소인은 꼼짝없이 죽습니다.》

불에 구워낸것처럼 누르끼레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장사귀에 달라붙은 파리떼마냥 배전을 그러잡고 아우성을 치는 왜구들을 노려보던 사다께는 칼을 홱 뽑아들었다.

《이놈들! 범도 새끼를 낳으면 벼랑에 굴려보고 산 놈만 품에 안는다는것을 아는가?

시라소니들은 모두 죽어라!》

사다께의 칼등이 배전을 딱딱 때리며 줄달음쳐나갔다.

칼등에 손잔등을 얻어맞은 왜구들은 자지러진 비명을 지르며 철썩철썩 물속에 떨어져내리였다.

사다께는 그에 아랑곳없이 번쩍거리는 칼끝으로 기슭쪽을 가리켜보이며 더한층 거센 소리를 내질렀다.

《헤염을 칠수 있는자들! 우리와 함께 필생의 대망을 이룰 용기를 가진자들은 계속 앞으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사다께의 광기어린 작태를 바라보던 장서방은 금시 왜두목의 칼이 자기의 가슴에 날아오기라도 하는듯 두팔을 엇갈아끼며 황망히 머리를 흔들었다.

《안되웨다. … 그러다간 아씨도 소인도 다 죽쉐다. …》

장서방은 리옥이가 어쩔새도 없이 허둥지둥 모래언덕으로 치달아올랐다.

리옥은 그만 온몸의 기운이 쭉 풀리였다. 평생 입에 올려보지 못한 모진 소리가 서슴없이 터져나왔다.

《얼간이! 바보! 치욕을 들쓰고도 능히 살아갈수 있다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이요. —》

그러거나말거나 장서방은 조개껍질들이 옥쪼각처럼 반짝거리는 모래언덕을 구을듯이 넘어가버리였다.

리옥의 매섭게 치뜬 눈에도 피빛같은것이 얼른거리고 앙다문 입술

언저리에도 피자욱이 번들거리였다.

차츰 날이 어두워지자 갖가지 희귀한 무늬를 펼쳐보이던 감빛구름장들은 꺼멓게 흐려지였다.

2

휘영청 밝은 달이 중천에 걸려있는 추석날 밤이였다.

군영에서 그리 멀지 않은 록산의 어느 자그마한 동네에서 갑자기 북소리, 징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였다.

이어 술기운에 휘감긴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질박한 소리가 들썩하게 잇달리였다.

미구하여 은백색달빛이 주단처럼 고르게 깔린 행길우로 거부기모양의 커다란 가장물을 앞세운 수십명의 농군들이 줄레줄레 올라섰다.

년례로 펼치군 하는 거북놀이를 시작한 꼴이였다.

추석날 밤이면 이 고장 농군들은 기장짚이나 벼짚으로 거부기모양의 굉장히 큰 가장물을 만든다.

가장물을 다 만들면 네명의 힘꼴이나 쓰는 총각녀석들이 앞뒤에 각각 두명씩 갈라서서 가장물을 뒤집어쓰고 마치 거부기가 기여가듯 굼불굼불 걸음발을 맞춰나간다.

그때면 대기하고있던 마을농군들이 북과 징을 두드리며 얼씨구나 좋다 거부기의 뒤를 따라서는데 이렇게 떠난 거부기행렬은 온 마을 집집을 거지반 다 들린다.

행렬이 집앞에 이르면 목청좋은 선통군이 기가 나서 소래기를 질러댄다.

《바다의 거부기가 파도를 헤치고 이 마을을 찾아왔는데 무엇이든 맛좋은것이 있거든 몽땅 내놓으시오. ―》

그러면 집식구들이 모두 나와 행렬을 집뜰에 들여앉히고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술이며 음식을 대접한다.

집주인의 성의있는 음식대접을 받은 거부기행렬은 그에 대한 답례로 한바탕 춤판을 벌리고나서 다시 대오를 수습해가지고 다음집을 찾아 떠나간다.

이러한 거부기놀이는 오랜 전통을 가진 가면무의 한 변형으로서 동네와 이웃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추석명절의 흥취를 멋들어지게 돋구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었다. …

거북놀이행렬은 록산동네 중심부를 벗어나 소리소리 지르며 지향없이 흘러갔다.

벌써 여러 집을 걸치면서 술판, 춤판을 벌린 뒤라 사람들은 누구라없이 종작없는 소리를 웨치면서 비틀거리였다.

그러면서도 행렬은 용케도 외딴집으로 들어가는 고샅길어구에까지 이르렀는데 바로 그 순간에 거부기대가리가 우뚝 굳어지였다.

거부기 바로 뒤에서 건들건들 춤을 추며 따라오던 중로배가 거부기탈을 쓴 사람들앞에 썩 나서며 짜증스럽게 고아붙이였다.

《이 사람들아, 왜 갑자기 이 모양인가?

썩썩 걸음을 재우쳐야 한집이라도 더 들릴게 아닌가?》

그러자 벼짚속에서 술기운에 젖은 총각들의 분명치 않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저기 외딴집이 우리 동네이기는 하지만 이름난 기생년의 집인데 그냥 짓쳐들어갔다가 망신이라도 당하지 않을가요?》

아직도 놀음놀이를 좋아하던 한창나이때의 흥취가 채 가라앉지 않아 이 판에 끼워들어 제스스로 꼭지노릇을 하는 중로배는 취기에 젖은 눈을 얼뜨게 슴벅거리며 휘휘 손을 내저었다.

《아따 이 사람들아, 기생도 우리 동네 기생인데 무얼 꺼릴게 있나.

우리같은 무지렁이농군들이 오늘같은 날 기생의 낮판대기를 구경하지 않으면 언제 구경하겠나.

자, 이러구저러구 할것없이 곧장 저 기생년의 집을 들이치세. …》

중로배는 거부기탈을 쓴 총각들을 손으로 썩썩 떠밀치고나서 선통군이 나서기도 전에 제먼저 수탉처럼 왝왝 소래기를 질러댔다.

《바다의 거부기가 파도를 헤치고 이 집에 찾아왔는데 무엇이든 극상등으로 좋은것을 얼씨덩 내놓으소-》

신명이 난 농군들은 웃고 떠들며 고샅길로 쓸어내려갔다.

거부기가 기생의 집 뜰앞에 이르자 화려한 비단치마저고리를 지르르하게 흘려입은 매화가 반달음을 쳐서 나왔다.
이어 일행은 풍성한 술상과 마주앉았다.
행렬이 기생집을 나설 때는 모두가 고주망태가 되여 저저마다 이게 정말 내가 옳긴 옳은가 하고 생각하게끔 되였다.
행렬의 맨뒤에서 벙어리처럼 거짓흉내를 내며 따라서던 고양이처럼 령리하게 생긴 정체모를 작자가 기생집에 스며들어간 뒤 다시 나오지 않은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북소리, 징소리, 웃고 떠드는 소리…
록산의 밤은 놀이군들로 하여 오래동안 소란스럽기 그지없었다.
…저녁밥이라고 지은 누룽지가 반나마 섞인 보리밥을 장국에 말아 대충 먹고난 오천과 여삼은 서둘러 군영을 나섰다.
요즘에 들어 오천과 여삼은 매일과 같이 어슬녘이 되면 하던 일을 털어버리고 군영에 들어와 저녁밥을 재촉해먹고는 바다가를 돌아보거나 김해부중으로 뻗은 행길을 오르내리군 했다.
조금이라도 수상해보이는 행인이 나지면 한나절씩 붙잡아놓고 기름을 짰다.
왜구의 세작이나 세작과 줄이 닿아있는 놈팽이를 잡아내려는것이였다.
사실 여삼은 진작 이렇게 야경을 돌면서 왜구의 세작을 뚱기쳐내고 싶었으나 절대로 뒤숭숭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한 박위의 당부를 어길수 없는데다 혼자서는 아무래도 조금 자신이 없어서 피일차일 미루어왔었다.
그런데 염초장사람들이 명통사의 염초감을 실어온 그날 밤 오천이 여삼의 당부를 잊지 않고 그의 집을 찾아왔었다.
애기설이를 하느라고 얼굴이 얼룩덜룩해진 여삼의 색시는 오천이가 들어서자 오래간만에 찾아온 그를 모셔들이느라고 그 얌전한 성미에 쩔쩔매고 돌아갔다.
게다가 오천이 뒤에는 취금이까지 달려있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너나들이를 하던 취금이 또한 어떻게 부르고 대해야 할지 내외가 다 난감하였으나 그 역시 여삼이부부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손이라 자못 례절있게 맞아들이였다.
좌중이 정돈되자 언제나 히죽벌쭉하며 롱말부터 시작하던 오천은 여

느때없이 정색을 띠고 말하였다.

《그새 별로 큰일도 치지 못하면서 자주 들려보지 못해 여삼이한테나 제수한테 여간 미안하지 않구려. 죄만 하우.》

이어 오천은 가져온 보자기를 헤치고 돌멩이처럼 검스레한 덩어리들을 척척 꺼내놓았다.

《저번날 봉은사에 갔다오던 길인데…

일이 되려면 엎어져도 떡함지에 엎어진다더니… 허허 참.

흠암령 바위고개를 넘어서다가 그만 주르르 미끄러 떨어지지 않았겠나.

일어서자고보니 바로 눈앞의 바위틈에서 산벌들이 윙 쓸어나오데.

이게 또 무슨 벼락이냐 하구 냅다 도망질을 하려는데 바위틈에서 무엇인가 번들번들하는게 아니겠나.

그게 바로 몇년 잘 묵은 이 산꿀이데. 대바람 임자 색시 생각이 나더군.

그래서 죽자꾸나 하구 바위틈에 손을 들이밀어 쪼각쪼각 뜯어냈지.

돌멩이처럼 굳은걸 뜯어내느라고 끙끙거리는데 이런 변 봤나, 산벌들은 무리로 달려들어 얼굴이고 목덜미고 사정없이 침을 찔러대네.

아프다못해 나중엔 숨이 다 꺽꺽 막히데. 어지간히 혼쫄이 나긴 했지만 어찌나 기쁘던지, 헛허허…

여삼이, 잘 간수했다가 이제 금줄에 고추를 매다는 날이 오거든(어린애가 출생하면 경사의 표시로 금줄(왼새끼)을 대문이나 처마끝에 늘이는데 출생아가 남자면 고추를, 녀자면 솔잎 또는 숯덩이를 매달았다.) 꺼내서 쓰도록 하라구. …》

오천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취금이가 상글상글 웃으며 커다란 보퉁이를 밀어내놓는데 그속에는 말린 미역과 김 같은것이 가득 들어있었다.

개다리소반우에 푸새김치며 토란볶음 같은 음식들을 챙기던 색시도, 시렁우에서 무엇을 내려놓기도 하고 봉당에 나가 무엇을 들여오기도 하며 부산을 피우던 여삼이도 슬며시 굳어져버리였다.

그러지 않아도 자책과 죄의식으로 속이 젖어있던 여삼은 그만에야 울가망이 되여가지고 털버덕 주저앉았다.

《형님, 내 무슨 말을 더 할게 있겠소. 그렇게 속속들이 진정인 형

님을 잘못 생각한 내가 워낙 몹쓸놈이요.
내 이제부턴 말수도 줄이고 걸핏하면 남을 그릇 생각하는 옯은 성격도 고치겠소.》
오천은 여삼이 색시와 여삼의 얼굴을 정차게 갈마보며 은근진 어조로 말하였다.
《혼사말하는데 제사말한다더니 통 생청같은 소리만 하는구먼.
제 잘못을 말할것 같으면 나도 잘못한 노릇이 많다. 노상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형제간의 우의 같은것은 깊이 살피지 않았으니 그게 어디 잘된 일이냐.
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 이제 그 말은 그만하자꾸나.
한노래를 가지고 장밤을 새울텐가.》
《나도 길게 말하지 않겠소. 그대신 이제부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군사노릇도 더 잘하고 동생노릇도 더 착실히 할테니 두고보우.
그리고… 이제는 염초감대기가 풀렸으니 형님이나 내나 우리 군영어방에 박혀있는듯 한 왜구의 세작놈을 잡아내는 일에 힘을 넣는게 어떻소?》
《네 말이 옳다. 너나나나 맡은 일을 착실히 거행하면서 세작놈을 잡아내는 일에 모를 박자꾸나. 워낙 세작놈을 곁에 두고는 아무 일도 바로할수 없느니…》
《형님말인즉 내 마음이요. 오늘 밤부터라도 당장 밤길을 타면서 눈밝혀 찾아보자구요.》
아래방에서는 오천이와 여삼이 세작 잡을 궁리를 겨끔내기로 터놓는데 웃방에서는 취금이와 얌전이가 따뜻한 음성으로 생활적인 화제를 나누고있었다.
《얌전언니, 산달은 제대로 잡았수?
남의 달을 잡으면 야단이라우…》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대로 잡은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골속이 노상 뒤숭숭해.
아이고, 이 자식이 또 발길질을 하네.》
《배속에서도 아이들이 발길질을 하우?》
《응, 벌써부터 세찬것이 올데갈데없이 사내자식이야. …》
《그게 좀 좋수? 애를 박서방처럼 팔팔한 군사로 키우면 그에서 더

바랄것이 무엇이겠수.》
《그야 그렇지만 지금은 영 거북한게 뭐나 다 시들해.》
《그게야 녀자들이면 누구나 다 겪는 행복한 고통이겠지 뭐. …》
웃방에서 도란도란 흘러나오는 녀자들의 말소리에 귀를 주던 두사람은 다같이 까닭모를 행복감이 치밀어올라 벙그레 마주 웃었다.
이어 오천은 웃음기를 싹 가셔버리고 말하였다.
《정말이지 이제 태여나는 우리 애들은 설음도 고통도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텐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피를 바쳐야 할게야. 난 그러지 않아도 가락촌과 구령촌의 염초장에도 자주 나가봐야 하는데 겸두겸두해서 오늘 밤부터 순찰을 돌자꾸나.》
《옳소, 밤길을 도는게 상수요.》
두사람은 술방구리를 앞에 놓고도 술생각을 까맣게 잊은채 부지런히 밥을 먹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깨나란히 행길로 나선 두사람은 하루밤사이에 배나 더 친밀해진듯싶었다.
그날부터 두사람의 순찰은 계속되였다. …
오천이와 여삼은 바싹 귀를 강군채 사위를 휘휘 둘러보며 길을 재촉했다.
얼마후 그들은 찌그러진 도가집을 지나 구령촌어구에 들어섰다.
구령촌염초장앞에 이른 오천은 안으로 들어가보려다가 오늘이 바로 추석날이라는것을 상기하자 아쉬운대로 그냥 지나쳐버리였다.
얼마 안 가서 굴암산의 웅장한 모습이 우줄우줄 다가왔다.
허우룩한 심경에 싸이여 잠시 다리쉼을 하고난 그들은 행길로만 내처 걸어온것이 잘된 일 같지 않아 이번에는 거치장스러운대로 행길에서 내려서기로 하였다.
두사람은 김해벌의 우둘투둘한 두렁길을 타고 다시 록산쪽으로 돌아섰다.
얼마후 눈에 익은 록산마을이 가까와지자 두사람은 다같이 오늘도 또 허탕이구나 하는 허전한 생각에 싸이여 그만 시무룩해지고말았다.
이럴 때 어디선가 분명 인기척이 났다.
순간에 바싹 긴장하여 앞쪽을 살펴보니 록산에서 뻗어나온 소로길

로 웬 사람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비틀비틀 걸어오고있었다.
오천이와 여삼은 눈독, 손독을 올리며 냅다 뛰여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알고보니 그들은 구렁촌사람들인데 록산의 친척집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만 거북놀이패에 걸리여 함뿍 취해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였다.
《제미, 곤죽이 되게 술을 퍼마실만큼 셈평이 늘어져서 살 재미는 있겠소.
술을 마셔두 좀 가량있게 마시우.》
공연히 화딱지가 난 여삼이 애꿎은 주정군들에게 한바탕 밸풀이를 하고나서 곁을 돌아보니 오천이 보이지 않았다.
여삼은 오천을 따라잡느라고 힝힝 반달음을 놓았다.
멀찍이 간줄 알았던 오천은 바로 몇발자욱앞의 탱자나무뒤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웬일이우, 장딴지에 쥐가 올랐소?》
여삼이가 다가서며 말을 붙이자 오천은 쉿 하고 바람소리를 내며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제서야 여삼은 무슨 일이 생긴줄로 짐작하고 오천이곁에 공손히 쭈그리고앉았다.
《여삼아, 방금 저 집의 뒤담을 넘어 웬 사내놈이 나왔다.
저기 봐라, 힐끗힐끗 사방을 살피면서 나무숲쪽으로 가는 저놈이 어디 례사놈같으냐?》
여삼이 눈여겨살펴보니 아닌게아니라 어떤 외딴집의 뒤담에서 내려선 한 놈팽이가 연방 사위를 둘러보며 나무숲으로 슬몃슬몃 다가들고있었다.
잠시 정체모를 놈팽이의 수상쩍은 거동을 세세히 살펴보던 여삼은 흠― 하고 코소리를 내며 싱그레 웃었다.
《난 또 굉장한 놈이 하나 걸린줄 알았더니… 흠, 오천형님! 저 집은 올해초엔가 김해관가에 새로 기적을 들인 기생년의 집이요.
그 기생년이 낯판대기가 밴밴하고 가야금을 잘 튕기는데다 시조까지 제법 주어댈줄 알아서 고을의 한다하는 량반들은 단꿀에 파리덤비듯 한답니다.

그쯤 되는 계집의 집에 오늘같은 명절날 밤에 개구멍출입을 하는 놈이 없을리 있소?!

보나마나 저놈도 오입쟁이 량반님이거나 기둥서방노릇을 하는 날바람둥이일게요.》

여삼은 자기가 가장 료량이나 잘한듯이 자신있게 말하고나서 오천의 팔을 끌어당기였다.

오천은 여삼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였으나 왜서인지 자꾸만 나무숲으로 도적고양이처럼 스며든 놈팽이에게 왼심이 갔다.

두사람은 군영을 향해 터벌터벌 맥풀린 걸음을 옮기였다.

휘영청 밝은 달빛에 락동강의 드넓은 하구와 남해의 어름점이 한눈에 환히 바라보이는 록산등성이에 올라섰을 때였다.

부지불식간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힌 오천은 자신으로서도 딱히 설명할길 없는 힘에 떠밀리워 바다가 도래굽이쪽으로 홱 몸을 돌리였다.

멀지 않게 보이는 바다가에서 참대갓을 쓰고 짧은 바지를 입은 꼴이 배군차림새가 분명한 웬 놈팽이가 배를 끌어내느라고 낑낑 기운을 뽑는 모양이 뚜렷이 안겨왔다.

오천의 가슴은 후두둑 높뛰였다.

《여삼아, 저놈인즉 기생년의 집에서 나온 놈 같은데 역시 쪼간이 붙어있는 놈이 분명하다.

우리 저놈을 덮치자!》

이제는 여삼이도 오천이와 견해가 일치했다.

《옳소, 저놈이 김해사람이라면 의례 강을 건너 평성이나 중촌으로 가겠는데 무엇때문에 이밤에 바다길을 잡겠소.

명호도와 신도를 지나서 대마도로 가려는 세작놈이 틀림없소.》

오천이와 여삼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도래굽이를 향해 달리였다.

헌데 공교롭게도 앞에는 나무 한대 없는 반반한 공지라 곧바로 내닫다가는 세작놈의 눈에 띄울것 같았다.

어쩔수없이 변두리의 나무숲기슭으로 길을 에돌다나니 퍼그나 지체가 되여서야 바다가에 이르렀다.

놈팽이는 벌써 너벅선을 타고 저 멀리 바다우로 가뭇가뭇 사라져가고있었다.

여삼은 바다쪽으로 냅다 달려나가다말고 힘껏 팔매돌을 던지였다.

《악—》 멀리 바다우에서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까마득하게 날아왔다.
여삼은 다시 팔매돌을 꺼내들었으나 너벅선은 바다물속에 잦아들기라도 한듯 더이상 보이지 않았다.
희푸른 달빛에 젖어 넘실대는 바다물만이 눈이 시글게 안겨왔다. …
집에 돌아와서도 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밤 고시랑고시랑 속을 앓던 여삼은 어뜩하게 날이 밝자 록산앞바다로 뛰여나갔다.
지난밤에 도망질을 한 수상쩍은 놈팽이가 바다가에 혹시 무슨 흔적이라도 남긴것이 없는가 하여 모래불은 물론 크고작은 바위들까지 낱낱이 살펴보았으나 이렇다 하게 이상한것은 전혀 띄우지 않았다.
여삼은 그만 떡심이 풀리였다.
속이 알찌근하기도 하고 영문모를 악증이 우걱우걱 치밀어오르기도 했다.
그런중에도 의혹은 더욱 깊어지였다.
(어제 밤 그놈이 정말 기생집을 나드는 날바람둥이나 기둥서방일가.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밤중으로 바다를 넘어간단 말인가?!
십중팔구는 왜구의 세작놈이다.
이 생각, 저 생각 할것없이 지금 당장 그 기생년을 옥쳐다가 다불려보는게 어떨가.
헌데 그 구미여우같은 기생년이 올곧게 밥을 토할 대신 닭의 다리 내뻗치듯 하면 야단이 아닌가?!
거기에다 김해부사같은 량반들까지 들고일어나 소란을 피우면 우리 군영이 크게 망신을 당할것이요, 그러지 않아도 어수선한 장군의 신상에 더욱 복잡한 일이 겹칠게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구.)
아침밥을 대충 설때린 여삼은 군영으로 들어오면서도 물었다 놓친 범처럼 그냥 속이 알찌근하여 연해 록산바다쪽을 돌아보았다.
군영대문앞에 이른 여삼이 막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누군가가 등뒤에서 수닭처럼 거센 청으로 여삼을 찾았다.
《여보— 여보시—》
고개를 돌려보니 도끼로 마구 깎아만든것처럼 못생긴 얼굴에 사람좋은 웃음을 가득 담은 생면부지의 작달막한 중로배가 정정정정 다가오고있었다.

여삼은 기분이 쾌하지 못한데다 알지도 못할 사람이 잔뜩 아는체 하고 다가오는것이 공연히 비위가 상하여 몰풍스럽게 물었다.

《그 댁은 대체 어디 사는 누군데 무슨 일로 우리 군영에 찾아왔소?》

중로배는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시작부터 무슨 시비라도 캐듯 따지고들자 대뜸 웃음기를 싹 지워버리였다.

중로배 역시 인상은 좋으나 여삼이나 마찬가지로 속은 그다지 너르지 못한 모양이였다.

그는 괜스레 먼지오른 미투리를 탁탁 털며 시푸녕스럽게 까불이였다.

《난 밀양관가의 통인이요. 보매 그녁은 이 군영의 군사같은데… 장군께 그대로 전해주우.

이제 밀직사(왕에게 올리는 문건을 접수하고 왕명을 전하며 왕을 보위하는 일과 군사관계의 일을 맡아보는 중앙관청)의 부사께서 이곳으로 오시니 장군께서는 어디 나뜨지마시고 계셔달라고 전갈이 왔다고…》

여삼이도 밀직부사가 어떤 사람인지 대강은 알고있었다.

지난 여름 박위를 따라 개경에 갔을 때 그 집 행랑에서 맛좋은 탁배기를 게트림이 나오도록 실컷 마시고나서 희한한 불구경을 했던 일도 잊을수 없었지만 그 밀직부사로 하여 박위의 기분이 심히 흐려졌던 일도 지워버릴수 없었다.

밀직부사 최칠석이 박위의 막역지우라 하지만 여삼이에게는 이모저모로 불만스럽게 생각되였다.

그런 사람이 개경에서 수천리나 떨어진 여기 군영에 긴급히 내려온다는것은 박위의 신상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겹씌워졌음을 시사해주는듯싶었다.

여삼은 그리 넓지도 못한 이마를 잔뜩 찌프리며 중로배에게 물었다.

《아니, 그 량반님이 대체 무슨 일로 예까지 오신다우?》

여삼에 대한 아니꼬운 생각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밀양통인은 가로궤진 소리로 대답했다.

《내니 알배때기 있소? 말심부름이나 다니는 사람더러 동헌방에 겝시는 원님이나 알 소리를 물으니 참 맹랑한 사람이로군.》

밀양통인은 말을 마치기 바쁘게 여삼의 약이라도 올려줄셈인지 일

부러 휘휘 멋스럽게 활개짓을 치며 행길쪽으로 걸어갔다.

여삼은 무거운 숨을 길게 내불며 고개를 비틀었다.

(그러니 이제 드디여 된우박이 터질 모양인가. 그렇게 되면 장군은 어찌 되고 대마도원정은 또 어떻게 될가?!)

오천이가 나가있는 바다가로 달음질을 놓으려던 여삼은 생각을 고쳐먹고 군영쪽으로 돌아섰다.

자못 당당한 걸음으로 군영대문앞에 다가서던 여삼의 발길에 닭 한 마리가 채워 다급한 비명을 지르며 걸레뭉치처럼 나딩굴었다.

3

바다가로 나가려던 박위는 다시 군막안으로 들어섰다.

어수선한 생각이 뒤머리를 쿡쿡 쑤시였다.

(노상 조정에 들어앉아 문서놀음을 해야 하는 밀직사의 관리인 백운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내려오는가.

나한테 어디 뜨지 말고있으라는 전갈까지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까지 조정관리의 위신을 차리자는건가.

아니면 진실로 무슨 일이 급하고 중해서일가. 아무튼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조정에서도 노란자위라고 할수 있는 밀직사의 중진관료인 최칠석이가 한개 도의 군영에 내려온다는것은 공적인 용무든 사적인 일이든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였다.

게다가 최칠석으로 말하면 박위쪽에서 먼저 절교를 선언한 옛적의 벗으로서 그사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량할수 없는 사람이였다.

과연 칠석은 이제 무엇을 안고오겠는가?!…

박위는 저으기 불안하면서도 은근히 궁금하였다.

이윽하여 박위는 심상한 낯빛, 침착한 거동으로 군막을 나섰다. 피덩이처럼 빨간 단풍잎들이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앞뜰을 지나 대문쪽

으로 걸어나갔다.

고려조정의 법규에 의하면 정3품관인 동시에 전서(당우에 올라 갈수 있는 량반, 후날의 당상관을 이르는 말이나 고려 말기까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급에 해당한 중앙관리가 지방에 내려올 때 그를 맞아들이는 의식은 여간만 번잡스럽지 않았다.

지방관은 중앙관리가 당도하기 전에 대문앞에 서있다가 그가 말에서 내리면 먼저 재배를 한다.

다음 중앙관리가 제 먼저 마루에 올라 자리에 앉은 후 지방관은 서편 층계로부터 마루에 올라와 방안쪽으로 물러선다.

지방관이 다시 절을 올린 후 중앙관리는 북쪽에, 지방관은 동쪽에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

시작부터 마감까지 조정관리의 위세를 돋구기 위한 허식적인 례법이였다.

박위는 자기자신이 누구보다 경멸하는 그 번다한 허례허식을 차리기 위해 대문가로 가고있었다.

이제 와서 최칠석은 허물없이 맞아들일 절친한 벗이 아니라 허식적인 례의로 깍듯이 모셔들여야 할 조정의 지엄한 관리였다.

박위는 허례허식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 페습에 말려들어야 하는 자기의 처지가 새삼스레 구슬퍼났다.

하지만 제 의사대로 휘거나 제칠수도 없고 무시하거나 도피할수도 없는것이 바로 세속의 풍습이요 조정의 법규였다.

대문안쪽에 이른 박위는 덤덤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미구하여 육중한 참나무대문이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제껴지였다.

그러자 그리 멀지 않은 앞쪽에서 건장해보이는 말 한필이 갈비뼈를 불끈거리며 기운차게 달려오는 모양이 한눈에 안겨왔다. 대문앞에 이른 말은 앞발을 껑충 들었다놓더니 요란스럽게 투레질소리를 내며 멎어섰다.

말우에 올라앉았던 중키의 관리가 뻘건 관복자락을 날리며 훌쩍 뛰여내리였다. 두말할것도 없이 그가 바로 최칠석이였다.

예전의 감정은 어찌됐든 오래간만에 옛적의 벗을 보니 우선 반가운 정이 사무쳐올랐다.

허나 박위는 칠석이가 대문안으로 들어서자 반가운 마음을 애써 누

르고 깊숙이 허리를 꺾었다.
《원로에 얼마나 수고가 막중하셨겠소?!》
칠석은 벼락같이 박위에게 다가들더니 숙어진 그의 어깨를 버쩍 들어올리며 노기에 차서 부르짖었다.
《해암, 이게 무슨 짓이요, 망녕이 나셨소?》
《그럴리가 있겠소. 나는 망녕이 나서가 아니라 례법을 지키자는게요.》
《례법? 해암이 내게다 조정의 례법을 지킨단 말이요? 그것 참, 고마운 생각을 했소그려.》
박위의 딱딱하면서도 정중한 인사가 진정으로 서운해난 칠석은 악의없는 조롱으로 박위를 꾸짖고나서 그의 팔소매를 세차게 잡아끌었다.
결국 박위는 예나 다름없이 소탈하고 대활한 칠석의 태도로 하여 조정관리를 맞이하는 지방관의 번폐스러운 의식을 한 조항도 실행할수 없었다.
그럴수록 의문은 더욱 짙어갔다.
(이 사람이 정녕 어쩌자고 이러는것인가?)
얼마후 박위와 칠석은 조촐한 주안상을 앞에 놓고 조용히 마주앉았다.
이것 역시 벗을 맞이한 기쁨에서가 아니라 중앙관리를 모시는 지방관의 례식에서 시작된것이였다.
수하의 군사들이 성의있게 상을 차리느라고 한참이나 분주탕을 피워댔으나 정작 상을 차려놓고보니 그 분주탕에 비해 반찬의 가지수는 많지 못했다.
그나마도 동자질에 서툰 남정들이 거칠기 짝이 없는 손으로 복닥소동을 피워서 만든것이라 어느것 하나 먹음직스러워보이지 않았다.
다만 쌉쌀한 냄새를 풍기는 도라지무침만은 칠석에게 그런대로 이채로운 안주가 된것 같았다.
《찬은 변변치 않으나 로독도 풀겸 한잔 드소그려.》
박위는 커다란 놋주발과 두둑이 솟아있는 도라지무침을 번갈아 가리켜보이며 뚝한 어조로 말꽉지를 떼였다.
잠시 무슨 생각엔가 골똘히 잠기였던 칠석은 술상같은것은 본체도 않고 전혀 왕청같은 화제를 꺼내놓았다.
《해암,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구차스러운 변명처럼 들

릴지 모르겠소만…
지난 여름 해암이 상경하여 우리 집에 들렸을 때 내 못난 꼴을 보여주어 지금껏 부끄럽고 죄스럽소.》
《그건 대체 어떻게 하는 소리요?》
뜻밖의 말이라 박위는 어안이 벙벙해지였다.
칠석은 진중한 표정으로 아무런 특징도 없는 방안을 휘둘러보고나서 계속하였다.
《해암이 내려간 뒤 내 며칠밤을 궁싯거리며 자신의 됨됨과 지나온 나날들을 심심히 돌이켜보았소.
돌이켜보니 나라는 사람은 확실히 젊은 시절의 순결과 이 나라 사내의 기개를 상실한 놈이요, 말로만 애국을 떠드는 관리가 분명하데그려.
사실 개경에서 십수년 좋이 벼슬살이를 하는 사이 정의와 진실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사치와 허욕에는 눈이 밝아진 위선자가 됐더군.
개경의 벼슬살이속에서 때벗이를 한게 아니라 때투성이가 됐드란 말이요.》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우?
어서 술이나 들지그래.》
칠석의 갑작스럽고도 심각한 자기 타매에 립장이 다소 난처해진 박위는 얼추 할말이 떠오르지 않아 연해 술을 권했다.
칠석이 무엇때문에 찾아온 사연을 말하기 전에 이렇듯 장황한 자기반성부터 터놓는지 까닭을 알수 없었다.
나를 중떠보자는건가, 아니면 진심인가. 칠석은 진정 무슨 리유로 예까지 왔는가.
박위의 내심은 착잡했다.
칠석은 박위가 무엇을 생각하든 아랑곳 없다는듯 단정하게 포개잡은 두손을 가늘게 떨며 뒤말을 심어나갔다.
《…그건 새삼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나의 진정이요.
아까의 계속이오만 해암이 군영에 내려간 뒤에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황에서 계속 원정준비를 드세게 밀고나간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소.
그때마다 나는 해암의 높은 뜻과 완강한 의지에 탄복하는 한편 속

심지가 다 빠지여 허울만 남은 자신이 창피하고 저주스러워 홀로 가슴을 들때리며 통탄해마지 않았소. …》

여기서 칠석은 윤통의 회답편지를 받은 뒤 다시한번 자기의 저조한 인생관과 박위의 강건한 기상을 대비해보며 며칠밤을 자책과 번뇌로 지새웠다는 말도 하고싶었으나 애써 눌러참았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마음은 더욱 후련할것이나 윤통의 립장은 난처해질것이였다.

잠시 숨을 몰아쉬던 칠석은 불시에 주먹을 불끈 틀어쥐며 고개를 떨구었다.

《…하고보면 나는 〈호유장군〉의 지기가 될 자격이 없는 용렬한 인간임에 틀림없소.

그대가 우리 집 사랑방에서 화약처럼 터쳐놓은 절교선언은 너무도 응당한 타격이였소.

아니, 고마운 매질인지도 모르오.》

박위는 그제서야 칠석이가 언제한번 타인의 마음을 중뗘보는따위의 유치한노릇을 해본적이 없는 깨끗한 인간이였음을 상기할수 있었다.

칠석은 필경 자기의 진심을 토파하고있었다.

사실 칠석은 박위가 대마도원정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벌써 내부적인 갈등에 직면하였다.

그후 박위가 반정음모를 꾸민다는 소리가 나돌자 칠석은 그것이 전혀 무근거한 랑설임을 뻔히 알면서도 바싹 긴장해지였다. 어차피 마음속의 갈등을 종결짓고 생활의 새 방향을 선정해야 했다.

박위의 편을 들것인가, 리성계를 추종할것인가?

리성계일파에 가담한다는것은 마음에도 내키지 않았지만 현세의 량심적인 인간들에게는 물론 후세사람들한테도 권력에 아부하여 정의를 외면한 비렬한으로 규탄을 받을것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박위를 지지한다면 필수불가결적으로 리성계와 대립될것이며 그 대립은 장차 인생파멸로 이어질것이였다.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 길, 그 어떤 위험도 없는 길을 택하는것이 현책이였다.

하여 칠석은 박위에게 조심스레 원정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자 박위는 절교선언으로 대답하였다. 천성적으로 결

곡한 칠석은 그때부터 심각한 내부모순에 빠지였다.
그 모순은 박위의 원정준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욱 격화되였다.
요즘에 와서야 칠석은 어떤 위협이 닥쳐온다 해도 정의와 량심에 살려는 결심을 다지고 오늘의 어려운 길을 떠나온것이였다.
박위는 칠석이가 겪어온 그 모든 정신적인 굴절과 성장을 희미하게나마 짐작할수 있었다. 마음속의 자기와 힘겨운 싸움을 벌리던 끝에 오늘의 높이에 오른 칠석이가 고맙기도 하고 쳐다보이기도 하였다.
허나 무엇이라고 딱히 할말이 생각나지 않아 슬며시 칠석의 말허리를 꺾었다.
《백운, 이제는 그만하지그래.》
칠석은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며 축축하게 젖은 소리로 계속하였다.
《아니, 하려고 마음먹은 말을 죄다 해야겠소. 해암도 아다싶이 나는 여직껏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혀본적이 없소.
하지만 내 오늘 그대에게만은 허리를 굽혀 사죄를 하리다.
진심으로 당부컨대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주오.》
박위는 눈굽이 쩌릿해났다.
역시 칠석은 바탕도 좋고 본태도 깨끗한 사람이였다. 자기의 결함도 주저없이 터놓고 용서를 빌줄 아는 솔직하고 대범한 인간이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졸장부들은 대개 자기의 결함이 들춰지는 경우 어떻게 하나 그것을 미화분식하거나 정당화하려고 열을 올린다.
그러나 결곡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저없이 갱생의 힘겨운 길에 자기를 던진다.
물론 이끼오른 마음이 일조에 물행주를 친 청동거울처럼 알른알른하게 빛날수는 없겠지만 반성이 있고 회개의 결심이 있으며 그에 맞는 노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허점이나 과실이 있을수 있겠는가.
하고보면 완성된 인간은 물론 훌륭하지만 자기의 결함을 의식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 역시 아름다운것이 아니겠는가?!…
박위는 이처럼 결바른 인간을 한순간의 충동에 사로잡혀 손쉽게 털어버리려 한 자기가 도리여 부끄러워 자꾸만 얼굴이 달아올랐다. 박위는 상우에 놓여있는 칠석의 커다란 손을 힘주어 부여잡았다.

《백운, 그대가 이렇게까지 적라라하게 속을 터쳐놓으니 내가 되려 괴롭소그려.

백운의 집을 찾아갔을 때 나 역시 처신을 옳게 하지 못했소. 그때로서는 앞날이 암담한데다 그대한테서까지 리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보니 이래저래 심사가 나서 과하게 행동한듯 하오만 그것 역시 워낙 나라는 인간이 그릇이 작은탓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보는게 옳겠지.

내 맹세컨대 다시는 순간의 흥분에 사로잡혀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리다.

자, 쾌하지 못했던 지난 일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보다 굳은 우의와 신의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한대접씩 마시세그려.》

박위의 절절하고도 명쾌한 말에서 다시금 자기를 벗으로 받아준 그의 너그럽고 뜨거운 마음을 저저이 읽은 칠석은 연방 더운 침을 삼키였다.

조금후에야 칠석은 갑자기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듯 표정을 바꾸더니 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지금은 한만하게 술이나 마시고있을 때가 아니요. 오죽하면 내가 일부러 안동대도호부에 일을 만들어가지고왔다가 동경(현재의 경주, 당시 경상도 도소재지 격이였음.)에도 들리지 않고 밀양을 거쳐 곧장 이리로 왔겠소?!》

《그래, 무슨 일이 또 생기였소?》

박위는 술대접을 내려놓으며 심상한 어조로 물었다.

칠석의 흰 얼굴은 불식간에 꺼멓게 흐려지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암에 대한 조의(조정의 여론)가 이제는 남산만큼이나 불어나서 더이상 덮어둘수 없을 지경이 되였소.》

칠석은 조정의 관리인 자기가 국가의 중대기밀에 속하는 문제를 현지에 내려와 사건관계자 당자에게 루설하는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로 되는가에 대해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칠석에게는 조정의 엄중한 형벌보다 정의와 량심이 더 중하였다. 놀라움보다 그 어떤 감사의 정이 더 진하게 어려있는 박위의 얼굴을 피끗 살펴보고난 칠석은 급급히 뒤말을 심어나갔다.

《내가 지난 여름 해암이 상경했을 때도 얼핏 비친바있지만 그때 벌

써 조정에서는 경상도원수가 반정준비를 차린다는 소문이 쉬쉬 나돌았소.
그런데 똑똑한 증거가 없는탓인지(애초에 그런것이 있을수도 없겠지만) 얼마 안 가서 그런 소리가 모래불에 물잦듯 하더군. 천만다행이로다 하구 안도의 숨을 쉬였는데 웬걸, 요즘에 와서 다시 흉흉한 소리들이 홍두깨처럼 불쑥불쑥 튀여나오는게 아니겠소.
헌데 근래의 소문은 저번때보다 훨씬 험악하더란 말이요.
가만, 얼마전에 여기 군영에서 굴암산 어디엔가 있다는 봉은사라는 절에 올라가 절간 여러채를 뒤진 일이 있소?》
말없이 채수염을 쓸어만지던 박위는 가볍게 고개를 끄떡이였다.
《그런 소문이 날만 한 일이 있었소.
조정에서는 인차 화약을 구해줄 잡도리가 아닌데 세월없이 조정의 도움만 기다리고있을수 없기에 내가 군사들에게 염초를 만들 절간마루밑의 먼지를 파오라고 했댔소.
화약이 없이야 원정도 할수 없지만 시시로 쳐들어오는 새앙쥐같은 왜구도 잡을수 없지 않소?!》
박위는 애당초 오천이나 염초장사람들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무슨 변이 생기든 자기가 다 들쓰고나설 잡도리였다.
《그러니 그건 생판으로 꾸며낸 소리가 아니였구려. 그다음 또 한가지, 이곳 군영에서 지난달 어느땐가 팔소바다가에 나가 왜구들을 잡은 일이 있소?》
《있었소. 그때 일은 이미 장계로도 올리고 동경류수를 통해 조정에도 상세히 알렸소. 헌데 왜구를 잡은 일도 죄목에 걸렸단 말이요?》
《그렇소. 사헌부에서는 지금 해암이 자기의 역신음모를 가리우기 위해 왜구들과 짜고 그런 놀음을 꾸몄다고 떠들고있소.》
《아니, 그건 대체 무슨 소리요?》
바위처럼 듬직하게 틀고앉아 심상한 어투로 칠석이와 말을 나누던 박위는 짙은 눈섭을 치켜올리며 소리를 높여 되물었다. 박위는 이미 팔소전투를 전후한 때 왜구들의 화평회담이라는것이 사다께의 기만책이라는것을 분명히 짐작하였으나 그것이 이렇게 고려조정과 련결되여 자기의 목을 조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사다께라는 놈은 찢어발기고싶도록 가증스러웠지만 그놈의 서뿌

른 작간에 놀아나는 조정관리들의 처사도 숨통이 꾹 막히도록 답답하고 안타까왔다.

왜구는 천생 타고난 강도배들이요, 승냥이와 여우를 접해붙인 악당들이니 그렇다치고 나라의 정사를 맡아본다는 기둥뿌리 관리들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우매할수 있는가.

박위의 넓은 가슴은 풀무질이라도 하듯 들썩거리였다.

칠석은 그리 덥지 않은 방이건만 몇번이나 목깃을 들척거리더니 허허 탄식조로 말을 이었다.

《기막힌 일이요. 나로서는 아직 어떤 놈이 어떻게 씹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사헌부에서는 해암이 대마도에 잡혀간 리별장의 딸을 뽑아오기 위해 여러 고을들에서 군품명색으로 징수한 재물을 왜구들에게 수없이 빼돌렸다는 소리도 돌리고있소.

대마도령주는 그에 대한 답례로 해암에게 반정에 쓸 병기와 리별장의 딸을 보내주기로 했다던가?!

허어— 이건 날조라 해도 너무나 빈틈없이 사개가 맞물려진 날조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

박위는 불식간에 혀가 굳어지여 한마디의 말도 꺼낼수 없었다.

커다란 주먹만이 찡찡 울리며 후둘후둘 떨리였다.

박위는 지금껏 자기에게 묻어돌아가는 반정음모라는 헛소문이 무척 불쾌했으나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았다.

뭐니뭐니해도 자기의 마음이 청백했기때문이였다. 허나 지금 생각해보니 일은 벌써 자기의 청백한 마음 하나만을 내대가지고 해결할 정도가 아니였다.

사다께라는 놈과 그놈이 파한 세작은 자기의 발밑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펴놓고 앉아 걸음을 옮기는대로 한치두치 그물의 아구리를 조이고있었다.

과연 우리 땅에서는 어느 놈이 사다께가 늘인 그물의 한귀를 잡고 있는가?!…

박위의 굳어진 얼굴을 점도록 지켜보던 칠석은 조급증이 가득 어린 어조로 뒤를 조이였다.

《사헌부의 대계가 아직 밀직사에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가부간 들이닥칠것은 명백하오.

그리되면 입이 열개, 백개라 해도 발명할 도리가 없을게요.
옛적부터 역모죄를 뒤집어쓴 사람은 세력이 빨래줄같은 재상재추라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 요즘같은 때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해암, 내 생각에는 사건의 전모가 쨋쨋하게 밝혀질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는게 상책일듯 하오.》
《몸을 피하라고?!》
박위는 장결한 몸집을 흠칫 떨며 눈을 지릅떴다.
몸을 피하는것은 눈앞에 닥쳐온 위험을 손쉽게 털어버릴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이 좀도적처럼 도망질을 한다는것은 너무도 비렬하고 너절한 행동이였다.
그렇게 하는 경우 지금까지 대마도원정을 위해 기울인 자기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막중한 수고는 하루아침새 물거품처럼 사라질것이였다.
원정은 영영 실현될수 없을것이였다.
또한 칠석은 국가비밀을 루설한 죄로 옥살이를 하거나 귀양살이를 하게 될것이였다.
인간이 뜻을 꺾고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면서도 기어이 살아서는 무엇하리.
죽음이 떳떳하고 삶이 치욕이라면 죽음을 택하는것이 천백번 지당하다.
우러러 하늘에 죄스러움이 없고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을진대 무엇때문에 한 나라의 당당한 장수가 구차스럽게 도망을 하겠는가?!
피할수 없는 불행이라면 과감히 맞이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지자 박위의 가슴은 이상할 지경으로 평온해지였다.
박위는 녀성적인 매력이 풍기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다.
《백운, 나를 걱정해주는 그대의 진정은 정말 고맙소. 하지만 내 어찌 도망질을 할수 있겠소.
일의 옳고 그름을 밝힐수 있는껏 밝히고 대마도원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할수 있는껏 주장하다가 종시 죽을 운수가 뻗친다면 떳떳하게 칼을 받는게 옳은 처신일게요.

그러니 나에게 더이상 도망같은것을 권하지 말아주오.》

칠석은 눈을 치켜뜨며 입을 하 벌리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무엇때문에 있지도 않는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벌을 받는단 말이요?!》

《백운, 그러지 마오. 이제 와서 내게 필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모든 변이 다 원정이 끝난 뒤에 왔으면 하는거요.

나는 물론 원정준비를 더욱 다그치겠지만 백운도 개경에 돌아가 할수 있는껏 내 뒤를 막아주오.

물론 나는 벌을 받는것이 겁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원정을 실현하자고 그러는거요. 원정을 끝낸 뒤에는 내 곤장이든 칼이든 웃으면서 받겠소.》

칠석은 치밀어오르는 격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운듯 한참이나 아래턱을 덜덜 떨었다.

조금후에야 오열이 섞인 청으로 무슨 분풀이라도 하듯 소리쳐 웨치였다.

《해암, 그대는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죽고사는 일이 눈앞에 닥쳐온 이 마당에서까지 온통 원정소리만 하는거요. 이 나라에 그대와 같이 뼈대가 실한 장수가 있는것은 실로 자랑스러우나 그 남다른 인격때문에 남에 없는 고초를 겪으며 운명의 랑끝으로 몰리니… 아아, 하늘이 무심하오.

깊이 든 주옥이니 그 광채를 뉘라서 알리오. 어허허…》

칠석은 마침내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위는 칠석의 물결치는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곡진한 청으로 뇌이였다.

《백운, 그만 자중하오. 나는 그대의 과분한 치사를 지우의 기대와 믿음으로 가슴속에 깊이 새기겠소.》

이윽하여 칠석은 불타는 두눈을 들어올리더니 아까와는 판다르게 힘찬 어조로 말하였다.

《해암의 심정이 그러할진대 내 어찌 뒤탈을 생각하면서 몸을 사리겠소.

짧은 팔로 먼곳의 돌을 집을수 있겠는지 모르겠소만 내 죽을 기를 쓰고 나서서 해암의 일을 바로잡아보겠소.

만약 모든 일이 옳게 밝혀지고 바로 펴지여 원정이 실현된다면 그땐 나도 해암과 함께 대마도원정에 참가하겠소.》

박위는 물론 밀직사의 중급관리에 불과한 칠석이가 나라의 중대결정을 자기 의사대로 손쉽게 조종할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주고 죽기로써 자기의 일을 도우려 하는 칠석이가 여느때없이 고맙고 미더웠다.

솔의 푸름은 겨울에 알고 벗의 진정은 역경에서 헤아리게 된다는 옛문장의 진의가 새삼스레 가슴에 마쳐왔다.

《백운, 별스러운 말 같소만 그대와 같은 지기를 가진것은 나의 제일 큰 자랑이고 행복이요.

나에게 있어서 백운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나날은 가장 쓸쓸하고 서글픈 시기였소. 고맙소, 정녕 고맙소.》

박위의 상기된 얼굴에서 벗의 뜨거운 진심을 여실히 헤아려본 칠석은 벅찬 감격과 환희로 하여 가슴이 훅훅 달아올랐다.

《해암, 나야말로 그대를 벗으로 가진것을 인생의 제일 큰 복으로 알고있소.

그대로 하여 나는 문생과 좌주간의 사사로운 도의보다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본분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인생의 참된 지주도 되찾을수 있었소.

그러니 내 어찌 그대와 더불어 생과 사를 같이하지 않으리오.

따져보면 실상 생이란 그리 요란한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것도 별로 무서운것이 아니요.

옛시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소.

살고 죽음이 괴롭다 하되
원래가 괴로움이 아니렷다
드러나고 숨고 살고 죽고
세계는 넓으리라

헛허허, 인생이란 충의로 살다가 충의로 마치면 족한것이요, 깨끗하게 지내다가 깨끗하게 끝내면 여한이 없는게요.

해암, 우리 새로이 정립한 인생리치와 오늘의 맹약을 더욱 굳게 다

지는 의미에서 한대접씩 내세그려.》

어느결에 본래의 소탈하고 쾌활한 성격이 되살아난 칠석은 방금전까지 술을 마실 계제가 못된다고 손사래질을 하던 사람같지 않게 껄껄 웃으며 거의 대접만 한 주발을 들어올리였다.

벗과 화해를 하고 인생사의 리치를 새로 수립한것으로 하여 한껏 가슴이 넓어진 칠석은 지금 불행이나 죽음 같은것이 눈아래로 아득히 내려다보이였다.

어느결에 칠석의 기분에 감염된 박위는 자기도 마음이 쇄락해지여 껄껄 웃으며 주발을 추켜들었다.

술이 철철 넘쳐나는 주발을 단숨에 비워버린 두사람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상대의 손을 억세게 틀어잡으며 또다시 속이 후련하게 웃어제끼였다.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진 대장부들의 뜻깊은 웃음이였다.

얼마후 칠석은 오늘중에 기어이 돌아서야 한다며 만류하는 박위의 손을 뿌리치고 부등부등 밖으로 나왔다.

저녁어스름이 깔린 괴자누룩한 행길로 홰군도 없이 홀로 말을 몰아가는 칠석의 모습을 바라보는 박위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못 견디게 아프고 쓰리기도 했다.

4

헐벗은 산과 들, 우불구불하게 뻗어나간 행길, 그 행길가에 간간이 늘어붙어있는 쭈그렁박같은 초가마가리들의 지붕우로 호함진 함박눈송이들이 오뉴월 나비떼마냥 가볍게 날아내리고있었다.

원래 소설이후 대설이전에 내리는 첫눈은 길할 징조요 복할 조짐이라고 하여 그런 눈이 오는 날이면 대궐에서는 물론 지방관청들에서까지 첫눈맞이의식을 요란하게 벌리군 했다.

축하표문을 올리고 절을 하고 각종 짐승의 탈을 쓴 아이들과 악대

를 앞세운 행렬이 잡귀신들을 내쫓는다는 세상에 있지도 않는 괴이한 짐승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러대며 빙빙 돌아가고…

그런 날에는 일년내내 고생살이에 짓눌리워 하루한시 맘편히 허리 펼새 없었던 민가의 상사람들도 희희락락하며 첫눈맞이를 하느라고 촌촌호호가 명절날처럼 북적거리였다.

하늘을 우러러 복을 빌고 자연에 비추어 길흉을 론단하는 이러한 의식을 훌륭한 풍속이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한때나마 겨울의 신선한 자연을 즐기며 심신을 수련하는 첫눈맞이를 노상 부질없는노릇이라고 볼수는 없었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각 틀림없이 소설이후 대설이전의 첫눈이 내리건만 마을과 마을은 두툼한 눈이불을 뒤집어쓴채 무거운 정적에 잠겨있었다.

년년이 겹치는 재해와 흉작탓인지 아니면 모기다리에서도 피를 내려 들고 마른 나무에서도 즙을 짜려드는 량반, 서리들의 그악스러운 갈퀴질바람에 모두들 옛 풍속을 즐길 흥취와 기력을 죄다 잃어버렸는지?!…

아니, 결코 그때문이 아니였다.

이 땅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풍속의 파괴자도 다름아닌 왜구들이였다.

왜구들의 그칠새 없는 침략과 략탈로 하여 이 고장 백성들은 너나없이 가슴이 데고 마음이 졸아들어 이제 와서는 옛 풍속을 즐길 정신적인 경황이 없었다. …

맹렬한 기세로 달리는 황부루의 잔등에 올라앉아 스칠듯이 지나치는 마을과 마을들을 바라보던 박위는 앞쪽으로 시선을 돌리였다.

흩날려내리는 함박눈, 죽탕처럼 질쩍거리는 대지, 행길가에 움푹움푹 꺼져들어간 진흙구뎅이들…

날은 지체궂고 길은 험했으나 성실하면서도 성깔사나운 황부루는 투레질 한번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짝귀를 곤두세운채 기운차게 네굽을 놓고있었다.

말이 달음을 놓는대로 엿덩이같은 진흙덩이들이 어질더분하게 튀여오르고 쌀가루같은 눈가루가 뽀얗게 흩날려 퍼지였다.

말궁뎅이와 말잔등에는 물론 사람의 어깨와 팔다리에도 진흙과 눈

가루가 덮이여 인마가 다 볼썽사나왔으나 박위는 연해 말고삐를 세차게 당기였다.

《쩌, 쩌쩌!…》

박위는 지금 룡호군시절의 상관이였던 전라도원수 김종연을 찾아가는 길이였다.

요즘 경상도군영의 원정준비는 그런대로 마감고비에서 다그쳐지고있었다.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 밀고나간다면 멀지 않아 원정준비를 끝낼것 같았다.

허나 박위는 한시라도 원정날자를 앞당기기 위해 전라도군영의 힘을 빌기로 하였다.

전라도군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대마도원정은 당장이라도 단행할수 있었다. 하여 박위는 칠석이가 다녀간 뒤 두차례에 걸쳐 김종연에게 대마도원정에 호응해줄것을 요망하는 사찰(개인적인 편지)을 보냈었다.

종연은 두번 다 차차 결심을 알릴테니 기다리라는 답전갈을 보내고는 지금껏 소식이 없었다.

간에 불이 달려가지고 종연의 소식을 기다리던 박위는 더이상 인내력을 발휘할수가 없어 군영의 바쁜 일감을 잠시 윤통에게 떠맡기고 순천부에 위치한 전라도군영을 찾아 떠난것이였다.

박위는 오래전부터 김종연에 대해 잘 알고있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는 문벌좋은 가문에서 나서자란 김종연은 인물도 잘나고 체격도 좋은데다 병서에도 밝고 무술에도 능한 매력있는 장수였다.

성격은 침착하면서도 과묵할사 한데 그것으로 하여 종연의 인격은 더욱 무게있게 안겨왔다.

헌데 지나치리만큼 자존심이 강한 종연은 누구든지 눈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우습게 여기는것이 큰 흠절이였다.

그로 하여 박위가 룡호군의 중랑장으로 있을 때 종연은 상장군으로서 그의 아득히 높은 상관이였는데 두사람은 자주 의견이 상치되여 서로 곱지 않은 눈으로 마주볼 때가 많았다.

그때 종연은 《재하자 함구무언》(아래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

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입버릇처럼 뇌이면서 수하무관들의 견해를 무턱대고 묵살하려 했고 박위는 누구앞에서도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개개로 보면 두사람 다 훌륭하고 매력있는 무관이였으나 함께 있으면 서로가 다 상대를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했다.

주위의 무관들은 그들을 두고 《두사람 다 동뜨게 뛰여난 무관이지만 영원히 의기투합(마음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낼 사이》라고 수군거리였다.

그러던중 종연은 왜구의 침입으로 노상 소란스러운 김해부에 무관출신의 부사를 특별히 선발하여 보낸다는 조정의 소식을 알게 되였다.

종연은 지체없이 박위를 천거하였다.

박위만 한 적임자가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모저모로 불편한 그를 자기밑에서 치워버리기 위해서였다.

박위는 종연의 곱지 않은 속심을 뻔히 짐작하였으나 무관인 자기가 전역에 나가는것을 너무나 응당한 일로 여긴터여서 아무런 내색도 없이 웃으면서 룡호군의 대문을 나섰다.

이것으로 두사람은 영영 헤여지는듯싶었다. 허나 운명의 장난이란 얄궂은것이였다.

몇해전 박위가 경상도원수로 승탁된지 얼마 안되여 어떤 과실로 내직에서 밀려난 김종연이 박위밑의 부원수로 내려왔다. 두사람 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상봉이였다.

종연은 박위의 수하로 굴러내린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박위를 늘 시끄럽게 여기던 끝에 멀리로 떠밀어보냈던 옛적의 온당치 못한 처사가 송구스러워 노상 어색해하였다.

허나 박위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종연을 무간하게, 지어 살틀하게까지 대해주었으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의 군사적재능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주었다.

박위는 임금에게 장계를 올리고 병부에 전투보고를 보낼 때면 매번 김종연의 전투공적과 군사적자질을 상세히 언급한 다음 고려군의 강화발전을 위해 그를 크게 써주는것이 합당할것이라는 자기의 견해를 덧붙이군 했다.

이것은 그 어떤 위선이거나 누구에게 생색을 내려는것이 아니라 박

위의 진심이였다.

당시(지금도 그러하지만) 김종연의 당형인 김종기는 중서 문하성의 좌우간의 대부(임금의 잘못을 충고하는 정4품의 벼슬아치)로 한창 위세를 떨치고있었다.

좌우간의 대부라는것은 그리 높은 벼슬은 아니나 조정백관들중에서 가장 발언권이 있는 관리로서 문벌이 좋고 인물이 청수하며 두뇌가 총명한 전도양양한 사람에게만 차례지는 특정한 지위였다. 그러한 형을 통해 종연은 매번 박위의 보고내용과 그속에 비낀 박위의 진정을 알수 있었다.

종연은 박위가 고맙기 전에 너무도 대바르고 공정한 인간을 턱없이 하대하고 랭대한 자기가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날이 갈수록 박위에게 머리가 숙어지였다.

종연은 경상부원수로 내려온지 1년도 못되여 전라도원수로 승진되였다.

좌천되였던 량반이 1년도 채우지 않고 승탁된것은 전고에 없는 일이였다.

무관으로서의 자질을 원만히 갖춘 장수 한사람이 천금처럼 귀중한 때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박위의 적극적인 추천이 은을 낸것이였다.

부임지로 떠나던 날 종연은 성의를 다해 음식상을 차려놓고 박위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죄와 감사의 말을 꺼내놓았다. 여적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적 없는 종연으로서는 생전 처음되는 일이였다.

종연의 말을 다 듣고난 박위는 빙그레 웃으며 채머리를 흔들었다.

《아니할 말씀이요. 사실상 동관이 나에게 고마울것이란 아무것도 없소.

나는 그저 벌어진 사실을 그대로 보고해야 할 자기의 의무와 본분을 실행했을뿐이요. 지난날의 감정이 어떻든 사람의 됨됨과 공적을 옳게 평가하고 보고하는것은 그 어떤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량심이고 도리가 아니겠소.

공의 이번 발탁은 전적으로 전하의 하해같은 은덕과 그대의 남다른 군사적재능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니 나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소.

어련하겠소만 나는 그저 그대가 나라의 준엄한 한 전구인 전라도를

잘 지켜주기만을 바랄뿐이요.》

전라도 군영으로 넘어간 종연은 얼마후 자기의 성의와 존경이 담긴 장검 한자루와 고급해산물 한바리를 박위에게 보내왔다.

박위는 장검만을 받고 해산물은 종연에게 되돌려보내였다. …

박위는 대마도원정을 준비하는 나날 이따금 종연이 생각났으나 그를 원정에 끌어들이고싶지는 않았다.

남에게 굽어들기 싫어하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싶지도 않았지만 그보다는 종연의 창창한 앞길에 혹여 어떤 그늘이라도 던져주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떠올랐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칠석이가 왔다간 뒤 박위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당길수 있는 일은 모두 당기고 나설수 있는 사람들은 죄다 들어일구어야 했다.

그것은 원정을 가급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김종연과 같은 뛰여난 장수들의 재능과 애국심을 최대로 꽃피워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였다.

하여 박위는 두번에 걸쳐 피가 뚝뚝 내돋도록 절절한 어휘로 원정참여를 요망하는 편지를 보냈건만 종연에게서는 확답이 없었다.

박위의 심정은 착잡했다.

종연은 원정에 나서기가 두려운가, 아니면 그의 유별스러운 자존심이 또 코를 쳐들었는가?!

종연의 심중은 딱히 가려지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어느 세월 그의 회신을 기다리고있을수 없었다.

찾아가서라도 명백한 대답을 들어야 했다. 가능한껏 그의 손목을 끌어당겨야 했다. …

박위가 경상도군영을 나선것은 어제 중낮때였다.

그때 벌써 박위는 자기의 몸이 별스럽게 무겁고 비둔해진듯싶었다.

오늘 아침 창원고을의 어느 한 역(역마가 머무르는 역참과 주막집등이 있는 일정한 규모의 거리가 형성되여있는 곳.)을 나설 때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골속이 들쑤시여 수월히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몇달째 지속되여온 과중한 정신육체적부담이 뼈속깊이에 배여있는데다 려로가 겹치고 찬바람이 스며들어 극심한 병세를 형성한것이였다.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였다.
이제 와서는 온몸이 학질에라도 걸린듯 걷잡을수없이 덜덜 떨리였다.
눈뿌리가 확확 달아오르고 귀속이 웅웅 울어댔다.
여느때같으면 질주의 쾌감을 자아냈을 군마의 기운찬 발굽소리와 귀전을 감도는 세찬 바람소리는 소란스러운 굉음마냥 귀찮고 시끄럽게 감각되였다.
박위는 사실상 말을 타고가는것이 아니라 말에 실려가고있었다.
불현듯 여삼의 챙챙한 목소리가 꿈속에서처럼 아렴풋하게 들려왔다.
《…장군의 신색이 좋지 않소이다. 병세가 더 심해진게 아니오니까?》
박위는 근심이 가득 어린 여삼의 얄팍한 얼굴을 돌아보며 애써 웃음을 피웠다.
《이놈아, 고뿔도 병이라더냐? 그러다 말겠지. 아무 걱정말구 내뒤를 바투 따라서기나 해라.》
박위의 시원스러운 대답을 그대로 믿어버린 여삼은 즉시 근심기를 확 날려버리였다.
여삼의 얄팍한 입에서는 아까부터 사물거리던 말마디들이 들물처럼 쏟아져나왔다.
《황송하오나 장군께 긴히 사뢰일 말씀이 있소이다.》
《황송이고 누런 송이고 어서 말을 해라.》
박위는 심한 고통으로 하여 아무런 호기심도 동하지 않았으나 묵묵히 앞쪽을 바라보며 여삼의 뒤말을 재촉했다.
여삼은 벌써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 자기의 구랑말을 다몰아 박위의 황부루곁에 세우고나서 말을 이었다.
《저번날에도 대략 말씀올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추석날 밤에 기생년의 집 뒤담을 뛰쳐나온 놈이 례사 난봉군같지 않소이다. 그놈이 바다를 건너와 거북놀이행렬에 끼워들어가지고 기생의 집에 스며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천의 짐작이였으나 여삼에게도 그렇게 생각되였다.) 더욱 그러하옵니다.
더구나 그 기생년이라는게 김해부사의 애기인데다 이 고장 태생도 아니고 타지에서 굴러들어온 얼쑹덜쑹한 잡년이라는데 아무래도…》
여삼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단서는 잡지 못했으나 거의 확정적으로

추석날 밤 바다로 내뺀 놈과 기생년 그리고 기생의 장단에 놀아난다는 김해부사가 한줄에 꿰여있는듯이 생각되였다.

하여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박위의 의향을 자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변죽을 울려보군 했다.

박위는 진작 여삼의 심중을 짐작하고있었다. 하지만 여삼이네들과 견해를 같이하고싶지 않았다.

(…바다로 내뺀 놈을 꼭 기생의 집에서 나온 놈이라고 단정할수도 없고 기생의 집을 나드는 놈을 무작정 세작이라고 보는것도 무리하다.

호백이까지 거기에 련루시켜본다는것은 지나치기 짝이 없는 억측이다.

나라의 록을 타먹는 관헌인 호백이가 어찌 역신노릇을 할수 있겠는가.

나 역시 호백이가 깨끗하고 진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지만…

자기가 곤경에 빠졌다 하여 아무 사람이나 함부로 의심한다는것은 사내답지 못한 소위다.

물론 추석날 밤 바다로 내뺐다는 수상한 놈과 기생년에 대해 그리고 조호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상히 알아보기는 해야 할것이다.

이제는 윤통이만이 아니라 이 애들까지 호백을 의심하고있는데 이게 그저 일은 아닐것이다.)

박위는 생각이 난김에 그 모든 일에 대해 깊이 따져보고싶었다.

허나 눈앞이 휘휘 돌아가고 머리속이 지끈지끈 들쑤시여 도저히 사색을 지속할수 없었다.

한참만에야 박위는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며 간신히 말을 꺼냈다.

《이 애 여삼아, 각성은 높이로되 함부로 사람을 의심해서는 못쓰느니… 확실한 단서를 얻기 전에는 다시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아라.…》

다음날 저녁무렵에야 박위네들은 전라도군영앞에 당도하였다.

원래 전라도군영은 순천부중심에 있었는데 얼마전에 김종연이 주장하여 바다가로 옮기였다.

종연은 바다가에 바투 나앉아 왜구의 동태를 살피다가 나타나는 놈들을 벼락같이 덮치군 하는 경상군영의 본을 따서 군영의 위치를 옮긴것이였다.

금시 자리를 잡은 뒤여서 군영의 건물들은 그리 미끈하지 못했으나 오가는 군사들은 제법 칠칠해보이였다.

박위는 엉금엉금 기여내리다싶이 말에서 내리였다.
땅에 발을 놓으니 물레에 태우기라도 한듯 눈앞이 빙그르르 돌아갔다.
잠시 눈에 힘을 주고 앞쪽을 주시하던 박위는 안깐힘을 짜내여 걸음을 떼놓았다. 그 순간 허공이라도 짚은듯 온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리였다.
곁에 서있는 소소리높은 나무기둥에 몸을 의지하려고 손을 내뻗치던 박위는 그만에야 몸의 중심을 잃고 눈판우에 모재비로 나떨어지였다.
육신은 구름우에 올라선듯 더없이 편안한데 의식은 가물가물 흐려들었다.
자기를 부르는 여삼의 울음섞인 소리와 황부루의 투레질소리가 아득히 먼곳에서 들려오는듯 하더니 곧 사라져버리였다.

5

종연은 군막안에 들어서자바람 우뚝 굳어지였다. 울기가 내뻗친 시선으로 한참이나 허공을 노려보던 종연은 으흠 신음소리같은것을 흘리고나서 으득으득 이를 갈았다.
무엇이든 찢어발기고싶도록 울화가 치밀어올랐다. 극심한 수치감이 가슴을 옥죄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것이 오늘 아침 담양의 어느 촌락에 왜구들이 기여들었다는 첩보를 받자 종연은 군사들을 이끌고 현지로 내려갔으나 한놈도 잡지 못하였다.
종연이 촌락에 당도하니 왜구들은 벌써 도망질을 친 뒤요, 재가루와 눈가루가 뒤범벅이 되여 흩날리는 페허우에서는 원성과 곡성만이 흐르고있었다.
종연은 요즘에 이르러 자주 이렇게 허탕을 쳤다.
근래에 들어 더욱 교활해진 왜구들은 꼭 미끼결을 감도는 약은 잉어처럼 군영의 눈치와 대상물의 동태를 살살 살피다가는 벼락같이 재

물을 털어가지고 내빼군 했다.
며칠전에는 남원과 령광이 재무지로 변하고 오늘은 담양이 털리였다.
래일은 과연 어느 고을이 또 화를 입을것인가?!…
온 도의 백성들은 매일, 매 시각 불안과 공포에 싸여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도의 안위를 책임진 나는 매양 이렇게 왜구들과 꼬리잡이놀이나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오래도록 돌상처럼 굳어져있던 종연은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건만 자기의 분을 이길수 없어 별안간 서탁의 모서리를 쾅 내리쳤다.
《괘씸한지고. 요 간특한 섬나라 도적개들을 어떻게 하면 모짝 잡아치울고?》
종연이 씹어뱉듯이 웅얼거리는데 서탁우에 놓여있던 종이두루마리가 두르르 굴러 그의 옷자락에 걸리였다.
종연은 무심결에 종이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분노로 하여 아직도 후들거리는 손으로 종이두루마리를 펼치였다.
어제 밤에도 두번이나 읽어본 개경의 형에게서 온 편지였다.
다시금 편지의 글발을 뜯어보던 종연은 마감대목에 이르러 눈못을 꾹 박았다.
편지의 글발이 김종기의 목소리로 변하여 귀를 울리고 가슴을 두드렸다.
《…나도 물론 박위가 반정모의를 할 사람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란 비방중상이라는 흉탄에 맞아 죽을수도 있으며 헛소문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명이 잘릴수도 있다.
그러니 어찌 박위에게 묻어다니는 반정소문을 홀홀히 대할수 있겠느냐.
박위의 대마도원정이 비록 천추에 길이 빛날 큰일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그를 따라섰다가는 필경 큰 해를 입을것이다.
절대로 그의 요청에 응해서는 아니될줄 안다.
만약 네가 그 어떤 옛적의 친분이나 무관의 자존심에 떠밀리워 박위의 요청에 응해나선다면 너자신은 물론 우리 가문모두가 멸문지화의 구렁텅이에 굴러내리게 된다는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
종연은 종이두루마리를 아무렇게나 움켜쥐고 교자에 들어앉았다.
장대한 웃몸을 비스듬히 뒤로 젖히고 스르시 눈을 감았다.

사색은 갈피없이 뒤번져지였다.

종연은 박위가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왔을 때 벌써 그의 어벌이 큰 주장에 살이 뛰고 피가 끓었다.

박위의 인간됨됨에 다시금 크게 탄복하였다.

확실히 박위의 일은 선이 굵고 판이 큼직큼직했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은 어느것이나 다 자드락자드락해보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껏 별치 않은 공적을 세우고도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싶어 몸이 달아하였다.

하지만 박위는 민족사적인 거사를 착안하고 내밀면서도 마치 일상적인 정사라도 보듯 조용하지 않는가.

세상에 과연 이처럼 희귀한 인물이 몇이나 있으련고?…

부러움이 엇섞인 탄복은 얼마 안 가서 야릇한 위구심으로 변하였다.

박위의 원정요청에 즉시 응하고싶었으나 정작 몸을 일으키자니 무엇인가 껄끄럼했다.

그렇다고 단념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것은 물론 박위와의 의리를 저버리는것 같아 저으기 괴로왔다.

종연의 위구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고려의 군법에 임금의 교지나 병부의 령이 없이 군사를 움직이는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헌데 박위는 대마도원정에 참가해달라는것을 개인적인 청탁처럼 전해온것이였다. 오래도록 망설이던 종연은 자기의 번민을 적은 편지를 개경의 형에게 보내였다.

얼마 안있어 형의 회신이 왔는데 내용인즉 이렇게 박위의 대마도원정에 절대로 참가하지 말라는것이였다.

종연의 번민은 더욱 커지였다.

박위의 인간됨됨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는 종연은 물론 반정음모라는 소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것은 필경 박위의 인생길에 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던 시기심 많은 소인배들이 꾸며낸 헛소문일것이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역모의 소문이 달린 대마도원정에 무모하게 뛰여들수는 없었다.

후날의 그 어떤 책임추궁이나 벌이 두려운것이 아니라 가정의 멸문지화가 두려웠다.

종연은 박위의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헌데 그 결심을 박위에게 알리자니 그것 역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선뜻 붓을 들수가 없었다. …

음울한 표정을 짓고 앉아 한참이나 방안구석쪽을 노려보던 종연은 별안간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이때에야 비로소 부원수가 아까부터 방안에 들어와있음을 느낀것이였다.

《무슨 일이요?》

종연은 짜증이라도 내듯 물었다.

키는 작으나 몸집은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부원수는 격렬한 전투장에 뛰여들기를 무척 좋아하는 타고난 싸움군이였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 한번도 시원스럽게 왜구들을 잡지 못하자 눈에 띄게 풀이 죽어가지고 다니였다.

그런 부원수를 볼 때면 종연도 덩달아 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이 떠올랐다.

잠시 덤덤한 기색으로 종연의 낯빛을 살피던 부원수는 조심스럽게 말꼭지를 뗐다.

《우리 도에 전고에 없던 변이 또 하나 생겼소이다. 바다길순시를 나갔다 돌아오던 우리 군사들이 독소고개어방에서 화적패당을 잡았는데…》

《화적패당을 잡았다고?! 지금같은 난시에 화적패까지 횡행한단 말이요?》

가뜩이나 기분이 어수선하여 지글지글 끓어번지는 속을 간신히 제어하고있던 종연은 금시 울화증이 치밀어올라 버럭 청을 높이였다.

《예, 도적패당도 례사 도적무리가 아니라 마수레까지 끌고다니는 아주 큰 무리인데 패중에는 계집사람도 있사옵고 륙십나이가 넘어보이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 그놈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두었소?》

《비여있는 광속에 처넣었소이다. 장군께 엿쭈고나서 한놈한놈 차례로 꺼내다가 다듬어볼가 하나이다.》

《왜구의 겁략만 겪자 해도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화적들의 성화까지 당하자니 백성들의 고생이 얼마나 막심하겠소.

부원수, 도적무리의 행적이 들춰진 다음에야 다듬고 쓔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소.

불문곡직하고 늙은 놈부터 마지막계집졸개까지 모두 내다가 목을 치오. 아니, 내가 직접 나가서 형을 집행하겠소.》

그러지 않아도 무슨 분풀이든 하고싶어 속이 들썽거리던 종연은 기품있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어서는참 옆구리의 칼을 뽑아들고 부원수의 뒤를 따랐다.

눈은 어느새 내리기를 그쳤는데 싸늘한 바람에 불린 눈가루들이 방향없이 흩날리고있었다.

눈가루를 헤가르며 걸음을 재우쳐 광앞에 이른 종연은 칼을 비껴잡은채 우뚝 굳어지였다.

부원수는 공연히 눈에 독이 올라가지고 광을 지켜선 두 군사를 흘겨보더니 을러메기라도 하듯 청을 높이였다.

《화적놈들을 전부 끼내오너라.》

두 군사는 익달된 동작으로 광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꽥꽥 고함을 쳐가며 《화적패》를 밖으로 끌어내였다.

도적이라면 상판에 기름기도 돌고 흉악스러운 기색과 뻔뻔스러운 표정도 엿보이련만 끌려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박하고 어져보이였다.

게다가 사흘에 피죽 한그릇도 먹지 못한 사람들처럼 피골이 상접한것이 다치면 금시 무너질것처럼 기운들이 없어보이였다.

그런대로 괴수라는 늙은이만은 풍신도 좋고 거동이나 표정도 그닥 어둡지 않았으나 그에게도 흉악스러운 도적패두의 흔적같은것은 엿보이지 않았다.

종연은 다소 어정쩡해났다.

다짜고짜로 칼을 휘두르려던 충동적인 분노는 서서히 사그러들었다.

두툼한 입술을 짓씹으며 한사람한사람의 초췌한 모양을 뜯어보던 종연은 위엄기있는 눈초리를 늙은이에게 돌리였다.

《너희들은 어디서 사는 화적들이냐?》

늙은이는 너부죽한 얼굴에 어딘가 반가와하는듯 한 기색을 띄우며 또박또박 그루를 박아 대답했다.

《소인네들은 화적이 아니오라 경상도 김해에 사는 알쭌한 량민들이올시다.》

《경상도 김해에 사는 량민들?!》

김해라는 소리에 아무 까닭없이 박위가 상기되면서 은근히 속이 조

여들었다.

《김해에 살면 그곳에서 살길을 찾을것이지 무엇때문에 남부녀대해서 마수레까지 끌고 함부로 넘나드는거냐. 네가 누구를 속이려는게냐?》

《뉘앞이라고 감히 거짓소리를 하오리까. 좀더 자상히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들은 김해 죽촌의 염초장일군들이고 소인은 경상군영의 박장군께서 내리신 염초장행수의 벼슬을 지내는 늙은이올시다.》

《염초장행수?! 그러니 박장군께서 너에게 그런 벼슬을 주었단 말이냐?》

종연의 말투는 어느새 조금 부드러워졌다. 로인은 그것이 매우 흡족하듯 히뭇이 웃음기를 띄우더니 제법 손세까지 써가며 말을 계속했다.

《그렇소이다. 장군께서도 이미 잘 알고계시겠지만 몇달전 우리 죽촌은 왜구의 란을 당하여 말짱 빈터만 남았소이다.

소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농사보다 훨씬 더 중한것이 군사요, 이 나라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농기보다 병기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세상의 리치에 눈을 떴소이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리치에 눈 떴다한들 어리석은 우리 촌백성들이 무슨 일을 똑똑히 하겠소이까.

그저 죽기로써 군사일을 돕자고 마음다지고 배무이와 염초뽑는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그렇게 되자 우리 군영 박장군께서는 과분하게도 소인에게 행수의 벼슬까지 안겨주시고…》

종연은 비로소 도적패당으로 몰린 죽촌사람들의 내막이 어느 정도 짐작되였다.

불시에 심장이 훈훈하게 더워나면서 생각이 깊어지였다.

종연은 여직껏 백성이라 하면 먹고사는 일외 다른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무지렁이들로 여겨왔었다.

헌데 박위로부터 행수벼슬을 받았다고 하는 이 풍신좋은 로인은 방금 뭐라고 했는가.

농사일보다 군사일이 더 중하다고 했다. 농기보다 병기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저들은 전함도 뭇고 염초도 뽑는다고 했다.

얼마나 훌륭하고 또 갸륵한 백성들인가!…

감동이 증대되는 속에서도 의혹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은 어찌하여 우리 도지경을 넘어섰으며 어떻게 되여 이

들중에는 계집사람까지 끼워있는가?)
　총기좋은 행수로인은 어느새 종연의 내심을 읽었는지 급급히 말을 이었다.
　《장군께서는 통촉합시는 바이지만 우리 군사들이 왜구의 소굴을 깡그리 짓태워버리자면 뭐니뭐니해도 화약이 많아야 할게 아니오니까.
　헌데 소인네들은 린근동네의 재먼지는 물론이요 창원과 밀양의것까지 거지반 긁어먹다싶이 했으니 이런 변이 어디 있소이까.
　그래서 소인네들은 패패로 나누어가지고 좀더 멀리까지 나돌아다니던 끝에 그만 길을 헛들어서 이렇게 전라도지경을 넘어섰소이다.
　헌데 독소고개에서 부닥친 이곳 군사들은 무엇때문인지 성이 독같이 올라가지고 무작정 소인네들을 화적패로 몰아붙이더니 이곳까지 끌고왔소이다.
　…그리고 저 아낙네가 소인네들의 일에 끼우게 된 리유로 말한다면…》
　로인은 언발을 강둥강둥 구르며 불안스러운 눈길로 종연을 살펴보는 체소하나 강단있게 생긴 녀인을 가리켜보이였다.
　《…갓 낳은 애기를 왜구들에게 잃은데다 지아비마저 왜구들에게 잡혀갔사온데 군사들의 원정준비를 돕는 일인즉 자기의 원쑤를 갚는 길이라고 하면서 부등부등 따라나서기에 어쩔수없이 데리고다니옵니다.
　여보게, 백동이 에미— 장군께 어서 인사를 올리지 않구 왜 그렇게 서있기만 하나?》
　로인이 갑자기 자기를 찍어대는 바람에 까무잡잡한 얼굴을 어떻게 건사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던 녀인은 종연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꺾었다.
　녀인의 진흙탕에 게발린 커다란 미투리와 뿌옇게 먼지가 오른 수건쓴 머리가 종연의 가슴에 아프게 마쳐왔다.
　(계집사람까지 군사일을 도우러 떨쳐나섰다?!
　하기사 갓 낳은 애기를 잃고 지아비까지 빼앗겼다니 저 나인의 좁은 가슴에 한인들 얼마나 쌓여있고 분인들 또 얼마나 덩이져있겠는고.
　아무튼 모두들 기특한지고…)
　종연은 가슴이 달아올라 더이상 죽촌사람들과 마주 서있을수 없었다.
　아무말없이 군막쪽으로 스적스적 걸음을 놓던 종연은 소리없이 뒤따르는 부원수에게 축축하게 젖은 음성으로 나직이 뇌이였다.

《부원수, 저 김해백성들이 며칠동안이나 길을 헛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것 같은데 며칠간이라도 우리 군영에 두고 성의껏 대접해서 보내도록 하오.》

《알겠습니다.》

부원수는 무엇때문인지 갑자기 활기를 띠며 씩씩하게 대답하고나서 어디론가 급히 사라져버리였다.

군막으로 돌아온 종연은 어슬녘이 되도록 교자에 들어앉은채 움직일줄 몰랐다.

그렇게도 많아보이던 할일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마음은 하냥 무죽하고 번거로왔다.

이제는 불을 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초대앞으로 다가서는데 문밖에서 부원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장군! 경상군영의 박원수가 우리 군영앞에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뭐라고?! 박원수가?!…》

깜짝 놀란 종연은 심장이 비틀리는듯 한 충격을 느끼며 우뚝 굳어지였다.

어떻게 손을 놀렸는지 탁자우의 초대가 딱 소리를 내며 넘어지였다.

이어 종연은 맨상투바람인지도 모르고 황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여나갔다.

6

박위는 간신히 눈시울을 밀어올리였다. 네활개를 뿌리고 편안히 누워있는 박위의 눈앞으로 올챙이무리같은것이 은빛꼬리를 까불거리며 밀려들었다.

현훈증이 일고 구토감이 치밀어올랐다. 박위는 다시 눈을 감았다.

방안은 땀이 흐를 지경으로 훈훈한데 어디선가 씁쓸한 냄새가 풍겨

왔다.
나직한 말소리도 들려왔다.
내가 지금 어디 와서 이렇게 편히 누워있을가. 할일은 산처럼 쌓였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고?!…
박위는 애써 뇌리를 긴장시켜가지고 생각을 굴려보았으나 딱히 짚여지는것이 없었다.
그 대신 곁에서 울리는 나직한 말소리는 차츰 선명하게 가려들을수 있었다.
《…이제 인차 피여나실테니 너무 걱정마시오이다. 경상원수께서는 이미전에 심히 기를 상하시고 혈을 상하신데다 려로가 겹쌓였으나 신체가 건장하시니 이제 약 한대접만 더 드시면 씻은듯, 부신듯 나을것이오이다.
시생의 의술이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으나 실속이 바이 없지 않은데다 진맥에 들어서는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으니 영낙없이…》
얼추 듣건대 매우 겸손한듯 하나 실은 제 자랑이 가득 섞인 어떤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만기가 력연한 종연의 음성이 울리였다.
《…그렇게 실속있는 의술이라면 고뿔이든 신뿔이든 어서 뽑아야 할게 아니요?》
박위는 다시 눈을 떴다.
정신은 그냥 몽롱한데 자기가 어떻게 되여 자리에 누워있는지 또 어떻게 되여 이 방에서 종연의 목소리가 울리고있는지 도시 깨도가 되지 않았다.
(내가 전라도에 왔는가 아니면 전라도원수가 우리 군영에 왔는가?
헌데 저 의생같은 사람은 무엇때문에 여기 와서 저리도 장장한 소리를 늘어놓고있는가?)
한동안 꿈같은 현실, 현실같은 꿈속에서 오락가락하던 박위는 마침내 자기가 종연을 만나기 위해 눈발을 가르며 달려오던 일과 전라군영앞에서 허궁 나넘어지던 일을 아득한 옛일처럼 어렴풋하게 되살려내였다.
그러자 그 어떤 조바심과 궁금증이 발작적으로 머리를 들었다.
절로 상반신이 쳐들리였다.
또다시 눈앞이 휭 돌아갔다.

《아, 이제야 정신이 드셨소그려.》
종연이 저력있는 소리를 터치며 뚜벅뚜벅 다가왔다. 박위의 침상곁에서 이글거리는 청동화로앞에 이른 종연은 웃음기인지 울음기인지 알 수 없는 괴이한 표정을 띄우며 말문을 열었다.
《장군, 이게 몇해만이요? 헌데 어쩌자구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먼길을 오시였소?》
박위는 희멀끔하게 잘생긴 종연의 너부죽한 얼굴을 정차게 바라보며 애써 웃음을 그리였다.
《그닥지 않은 병으로 알고 떠났더니… 헛허… 동관에게 창피한 모양꼴을 보였소그려.》
종연은 박위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더니 끌끌 혀를 찼다.
《아직도 열기가 채 빠지지 않았소그려. 왕년에 병을 이긴 장수가 없다는데 아무리 일이 중하고 급하다 한들 이렇게 무리해서야 쓰겠소.
사람이 있고야 일도 있는게 아니겠소?!》
《헛허허, 난 검을 잡은 무장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한것이 군사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병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헛허.》
박위는 종연의 만류를 뿌리치고 부등부등 침상에서 일어섰다.
아직도 축축한감이 있는 갖신을 찾아신은 다음 허리띠를 두르고 칼을 비껴찼다. 차림새를 끝내자 박위는 뒤늦은 인사말을 깍듯이 뇌이였다.
《그지간 장군께선 귀체만강하시고 가내일동은 모두 평안하시오?》
종연이 맞인사를 차리자 두사람은 곧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박위는 여느때없이 조급한 어조로 직팡 기본화제를 꺼내였다.
《동관도 아시다싶이 본관은 그닥 성급한 사람이 아닌데 20여년간 왜구들과 싸우는 사이 절로 조급한 사람이 돼버린것 같소그려. 하기사 우리사이에 무슨 겉치레의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소.
용건부터 말합시다.
본관이 이미 편지로 알리기도 했지만 그 편지가 아니더라도 동관은 누구보다 왜구격멸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잘 아실게요.
또 누구보다 왜구를 박살낼 의지로 가슴 불태우리라 믿어의심치 않소.
바로 그래서 경상, 전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대마도를 공격하자고 청

을 낸건데 어떠하시오. 솔직하게 말씀해주오.

동관은 원정에 참여할 용의가 있으시오?》

박위는 아무런 수식도 없이 따져묻듯 물었다. 늘어지게 말을 펴놓고있을 경황이 없었다.

필시 심리적인 방황에 잠긴듯 한 종연을 숨돌릴틈이 없이 다몰아대고싶기도 했다.

종연은 가슴노리까지 드리운 다발좋은 채수염을 쓸어만지며 이따금 헛기침만을 톺아올릴뿐 철문처럼 닫겨진 입을 쉬이 열려 하지 않았다.

종연의 거동과 표정에서 박위는 그의 속내를 거지반 짐작할수 있었다.

박위가 보건대 종연은 원정참여를 단념하였거나 망설이고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단념하였다면 애써 끌어당길 필요가 없겠지만 망설이고있다면 그냥 내버려둘수 없었다.

원정참여는 단순히 군사작전에 나서는가 안 나서는가 하는 군사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민족의 존엄을 떨치려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민족적자존심에 관한 문제였다.

헌데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김종연이 과연 그 어떤 불안과 위구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서야 되겠는가?…

박위는 종연의 침묵이 괴로왔다.

시시각각 가쁘게 가슴을 조이였다.

박위는 종시 더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동관, 내 지금 그대의 심정을 아주 짐작 못하는것은 아니나 진정으로 그대의 진심을 알고싶소.

오래전부터 병기를 잡고 나라를 지켜온 우리들사이에 꺼릴 말이 무엇이겠소. 터놓고 말해주시오. 동관은 원정에 나설 의향이 정녕 없으시오?》

박위의 절절하면서도 직설적인 말마디들은 종연의 량심과 자존심을 비수처럼 찌르고 쑤시였다.

문득 오늘 아침녘에 만났던 죽촌마을 행수로인의 너부죽한 얼굴이 떠올랐다.

농사보다 군사가 훨씬 중하노라고 하던 그의 말도 상기되였다.

도대체 기운이라고는 있어보이지 않는 백동 에미라는 젊은 녀인의 람루한 행색과 그의 고집스러운 표정도 떠올랐다.

보잘것없는 촌백성들까지 원정을 위해 필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는데 자기는 아직 그에 참여할 용단조차 내리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하니 누구에게라없이 부끄러웠다.
어쨌든 더이상 침묵을 지킬수 없었다.
종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본관이 어찌 사소하게나마 박장군을 원망하겠소. 사실 본관은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원정을 조정의 령이 없이 단행한다는것이 여러가지로 불길하게 생각되여 지금껏 주저하는중이요.》
말을 마친 종연은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입귀를 꾹 짓물며 시선을 조금 내리떨구었다.
박위는 종연의 처지와 심정이 십분 리해되였다.
인간의 자존심을 짓누르는 세상의 중압감은 미워도 그 세월에 눌리워 모대기는 인간은 밉지 않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박위는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솔직하게 대답해주어 고맙소. 터놓고말한다면 대마도원정에 대해서는 전하께서도 이미 아시고 리성계대감도 개별적으로는 응낙을 하였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곧 전하의 윤허나 조정의 령이라고 볼수는 물론 없소.
이런 상태에서 두 군영이 자의로 군사를 일으킨다면 후날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오.
하지만 동관, 지금껏 본관은 그대의 남다른 배짱과 자존심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겨왔고 또 높이 보아왔소.
본관이 여기에 온것도 경상도곁에 전라도가 붙어있기때문이 아니라 바로 동관의 배짱과 자존심에 기대를 걸었기때문이요. 동관이야말로 민족의 기개를 크게 떨치게 될 이번 원정에 백사를 제치고 나설줄 알았단 말이요.》
《…》
종연은 얼굴이 지지벌겋게 익어가지고 공연히 전복자락만 주물거리였다.
《동관도 잘 알고있지만 왜구가 지난 백수십년간 우리 고려국에 끼

친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없이 크오.
옛적의 일, 타고장의 일은 말 말고라도 이달에 여기 전라도에서만도 얼마나 막대한 해를 입었소. 남원과 령광, 광주와 담양의 여러 촌락들이 페허로 변하고 수백의 인명이 살해되지 않았소?
이게 과연 참을수 있는 일이요?》
종연은 다시금 날카로운 쇠끝에 찔리운듯 한 아픔을 느끼며 번쩍 시선을 들었다.
박위의 음성은 격해지였다.
《…얼마전 대마도령주라는 놈이 본관에게 편지를 보내왔댔소.
놈의 수작인즉 이제는 서로가 칼을 놓고 물물교역을 하면서 화평시대를 만들자는거요.
그러면 그 바다승냥이가 양으로 변했단 말인가?!
아니, 그놈은 화평이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의 칼을 무디게 해놓고는 벼락같이 달려들어 고려군의 살멱을 물어뜯자는거요. 이제는 이렇게 잰내비같은 왜구들이 공공연히 편지까지 띄우며 우리를 조소, 우롱하고 기만, 협박을 하는 판이요.
우리가 그래 이처럼 혹심한 모욕까지도 군말없이 곱게 감수해야 하겠소?》
박위는 저도 모르는새 왕소라같은 주먹으로 서탁을 쾅 내리치였다.
서탁우에 놓인 주전자와 차종이 지르릉 금속음을 내며 울었다.
박위의 주먹은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우리 무관들의 배짱과 자존심은 고리삭은 문관들이나 우습게 여기고 수하장졸들이나 턱짓으로 부리는데서 나타날것이 아니라 나라의 존엄을 떨치는 격전장에서 과시되여야 한다고 보오.
혹시 우리의 애국심과 자존심이 역신의 죄로 오명될수도 있소.
하지만 오명이 두렵고 죽음이 무서워서 너도나도 구구히 생이나 보존하는 행로를 택한다면 장차 나라와 백성의 안위는 어찌되고 민족의 존엄은 또 어찌 되겠소?》
종연은 급급히 박위의 말허리를 꺾었다.
《그러니 박장군은 원정준비에 역모소문이 붙어다니는줄 알면서도 그냥 일을 다그쳐왔단 말이요?》
박위는 흔연히 고개를 끄떡거리였다.

《애초부터 알고있었소. 이제는 단지 뛰뛰한 소문정도로 나도는것이 아니라 문서로 꾸며지여 조정의 층층을 오르내리고있다는것도 알고있소.》

종연은 그만 입을 딱 벌리였다.

가슴속 깊이에서 주먹같은 불덩이들이 우글우글 끓어올랐다.

무관의 고귀한 량심과 자존심이 두텁게 내리덮인 장막같은것을 깨치고 솟아오른것이 분명했다.

바로 이 순간 종연의 내심의 변화를 전혀 감촉하지 못한 박위는 구슬픈 심정에 싸이여 최후통첩을 했다.

《동관이 그예 원정에 나서지 못하겠다면 강박하지 않겠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도와주오. 전라도지경을 범한 왜구를 잡으러 가는셈잡고 본관에게 20척의 전함과 3백의 군사, 2백근의 화약을 빌려달라는거요.

후날 사헌부에서 오늘의 일을 발기짚어내면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밀어도 좋소. 박위가 전라도앞바다에 나간 전함들을 강다짐으로 경상수역으로 끌고갔다고 말이요.》

박위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종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종연은 자기가 지금껏 목숨이상으로 귀중히 여겨온 인간적인 존엄과 자존심이라는 무형의 실체가 형체없이 갈가리 찢겨져나가는듯싶었다.

(박위는 역모소문을 달고다니면서도 민족의 큰일을 성취하기 위해 전신의 피를 깡그리 태우고있다.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경상도백성들까지 원정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있다.

헌데 나는 노상 큰일이라도 칠것처럼 나다니면서도 왜구 한놈 변변히 잡지 못할뿐더러 박위의 청병요청까지 두려워하고있다.

그러니 지금껏 내가 고수해온 자존심이라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범박한것이란 말인가.

박위는 지금 장수의 자존심이란 민족의 존엄을 떨치는 거폭의 전장에서 나래칠 때 진정으로 아름답고 매력있는것이라고 호소하고있다.

정녕코 옳은 말이다. 따를만 한 주장이다!)

종연은 저도 모르는새 옆구리의 칼자루를 힘껏 틀어잡으며 저력있

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박장군은 도대체 본관을 무얼로 아는게요. 군사와 전함을 빌려달라니? 그리구 거짓말까지 하라니?

박장군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용렬한 인간으로 보인단 말이요?

본관은 전함은 빌려줄수 없고 거짓발명도 할수 없소.

나는 단지 헛되게 죽는것을 두려워할뿐이요. 그래서 망설이면서 진정을 못했는데 터놓고 말한다면 본관은 참되게 싸우다 죽는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소.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장에서 싸우다 죽는것은 본관의 진정한 소원이요.

장수가 검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말가죽에 싸여 환향하는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총화가 아니겠소?!》

박위의 넓은 가슴속에서 커다란 새 한마리가 후두둑 깃을 쳤다.

박위는 튕겨나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다면 동관은 이제 어떻게 할셈이요?》

《어떻게 하다니? 박장군도 아다싶이 예로부터 불교에는 열가지 계명이 있고 속세에는 다섯가지 계명이 있소.

그 다섯가지 계명중에서 〈신의로써 벗을 사귀라.〉,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두개의 계명이 가장 중하다 했거늘 명색 장수라는 사람이 어찌 나라를 떨치는 싸움앞에서 뒤를 사릴수 있으며 어찌 박장군과의 신의를 경홀히 저버릴수 있겠소?!》

박위는 불시에 가슴이 얼벌벌해났다.

자꾸만 따가와나는 눈시울을 슴벅이며 홀린듯이 종연을 쳐다보았다.

도래넓은 흰 얼굴에 시원스럽게 박혀있는 큼직한 두눈, 선이 뚜렷한 우뚝한 코와 널직하게 터를 잡은 두툼한 입술.

기름이라도 발라놓은듯 자르르하게 윤기가 도는 매력있는 코수염과 다발좋은 턱수염…

종연은 실로 생기기도 사내답게 잘생겼지만 속심지도 깨끗하고 실한 사람이였다.

《동관!》

박위는 거의 탄성에 가까운 소리를 터치고나서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옛적에 어떤 무관들은 우리 두사람을 두고 영원히 〈의기투합〉으로 지낼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 시절에 벌써 우리는 반드시 의기상합될것이라고 솔직히 믿었댔소.

역시 본관의 짐작이 빗나가지 않았소그려.》

《허허, 이제와서 옛적의 소리는 꺼내 무얼하겠소?!》

종연은 멋적은 생각이 들어 손사래질을 하였으나 박위는 열띤 어조로 계속했다.

《사실말이지 요즘세월에 오명과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다는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요.

동관과 같이 그릇이 크고 배짱이 있는 사람만이 실행할수 있는 일이요.

본관은 오늘 그대의 배짱과 자존심에 다시금 탄복하였소.

어떤 역경속에서도 신의를 지키려는 그대의 순결무구한 마음 또한 고맙기 이를데 없소.

내 이런저런 감사한 마음을 다 합하여 그대에게 절인사를 한번 하리다.》

박위는 정말로 큰절을 하려고 두팔을 벌려올리며 꿇어앉을 차비를 하였다.

깜짝 놀란 종연은 황황히 박위의 숙어지는 어깨를 잡아올리였다.

그제서야 종연은 홍시처럼 붉어진 박위의 얼굴에 눈물자욱이 번들거리고있는것을 알아볼수 있었다.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울음기같은것이 섞인 음성이 절로 미여져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요? 망녕이 나셨소? 장군이 대체 뉘게다 절을 한단 말이요.

이 마당에서 진정 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박장군 당신이요.

본관이 박장군께 절을 하리다.》

이번에는 김종연이 점잖게 절을 할 태세를 취하였다.

《동관! 무얼 이러시오?!》

박위는 울고 웃으며 종연의 어깨를 힘껏 그러잡았다.

종연은 박위에게 어깨를 잡힌채 자책에 젖은 어조로 말하였다.

《장군, 정녕 부끄럽소. 경상도에서는 군영군사들만이 아니라 명색없는 촌백성들도 길을 헛들어 전라도지경에 떨어지기까지 하면서 원정준비를 하고있는데 본관은 지금껏 바재이기만 했으니 이런 창피가 또 어디 있소?》

종연의 솔직한 자기 반성에 감동되여 고개를 주억거리던 박위는 조금후에야 그 어떤 의혹을 느끼였다.

《경상백성들이 길을 헛들어 전라도지경에 떨어졌다니 그건 대체 무슨 말씀이요?》

《그런 일이 있었소. 오늘 아침 우리 군사들이 화적패를 잡았다고해서 나가보니 그들인즉 화적무리가 아니라 염초감대기를 구하러다니는 김해고을 죽촌백성들이였소.

그들중에는 박장군에게서 직접 행수벼슬을 받았다는 로인도 있고 계집사람도 섞여있던데 모두들 피골은 상접하고 행색은 람루하지만…》

박위는 대뜸 그들이 누구들인지 짐작이 갔다. 새로운 감동과 충격이 따겁게 흉벽을 지지며 떠올랐다.

《그러니 죽촌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다갔단 말이요?》

《왔다간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소.

모두 지치고 굶주린것이 보기에 딱하여 며칠간이라도 쉬여서 보내려고 잡아두었소.》

《그 참 고마운 일이요, 동관! 그 사람들을 만나 말로라도 치사해주고싶구려.》

《어서 그러시우.》

박위와 종연은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대장군막을 에돌아 병졸들의 처소가 있는 나지막한 언덕우로 반달음치듯 하여 올라섰다.

사처에 화토불을 피워놓고 저녁밥을 짓던 군사들은 종연과 박위를 띄여보자 벌떡벌떡 몸을 일으키며 군례를 차리였다.

군사들의 인사를 받으며 제일 유축진 군막앞에 이른 종연은 문앞에서 지금 한창 신바람이 나서 나무주걱을 휘젓고있는 군사에게 말을 붙이였다.

《이봐라! 여기 들어있는 경상도백성들을 모두 밖으로 불러내거라.》

수수밥알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밥주걱을 쳐든채로 영민하게 생긴 눈을 삼박거리던 애젊은 군사는 또릿또릿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없소이다. 점심밥을 먹은 뒤로 그냥 가겠다고 강떼를 쓰는것을 간신히 눌러앉히고 저녁찬거리를 구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댔는데 그사이 모두 사라져버렸소이다.》

《그렇게 지쳐가지고도 밥 한그릇씩 먹고는 또 일을 찾아 떠났단 말이냐?》

종연은 기가 떡 막히여 입을 하 벌리였다.

박위도 서운하기에 앞서 감격한 마음이 들먹하게 괴여올라 할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잠시후 박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시도 허송할 때가 아니구려.

동관! 우리도 어서 들어가 미진된 문제들을 마저 상의합시다.》

《워낙 그게 옳겠소.》

그날 밤 박위와 김종연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조정의 형세가 복잡한 이때 전격적으로 대마도를 공격하여 원정을 무조건 승리로 결속해야 한다는것, 대마도로 떠날 때 두 장수의 련명으로 원정의 필요성과 촉급성을 내용으로 한 장계를 올리자는것, 그밖에 현안군사문제들과 후날에 대비할 방책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합의하였다.

다음날 이른새벽 박위는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전라도군영을 나섰다.

종연은 말을 타고 멀리까지 따라나와 박위를 바래워주었다.

7

경상도원수 박위를 잡아올리라는 나라님의 지엄한 교지를 몸에 받은 사헌부(관리들의 행동을 감찰하며 그들의 죄과를 론박하고 따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관청)의 감찰어사가 한무리의 라졸을 뒤에 달고

풍우마냥 김해로 내려오고있을 때 며칠동안 자리보전을 하고 심하게 앓던 박위는 가까스레 침상에서 일어나앉았다.

때는 아침나절 사위는 무던히도 고요한데 어디선가 방금 잠에서 깨여난 이름모를 새들이 겨울의 청쾌한 대기를 들쬣으며 명랑하게 우짖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아직도 이따금 뒤머리가 들쑤시고 맥없이 늘어진 두팔이 간헐적으로 떨리였다. 그러나 기분은 전에없이 개운했다.

몸을 일으키면 능히 행보를 할것 같았다.

《허, 요즘같은 때 내가 자리보전을 하고 며칠씩이나 누워있다니?!… 음음.》

박위는 개탄조로 웅얼거리며 느릿느릿 침상에서 일어섰다.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꼼꼼히 옷갓을 차리였다.

박위는 전라도군영을 다녀온 그날부터 심한 고열에 싸이여 헛소리까지 쳐가며 앓았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의식을 회복하자 즉시 윤통을 불러들이여 자기와 김종연이 약조한 내용을 대충 알려주고 그지간의 정형을 꼼꼼히 캐물었다.

일은 그새 많이 추진된듯 했으나 그렇다고 하여 마음을 놓을수는 없었다.

박위는 불덩이처럼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몸을 일으켜세워 바다가로 나갔으나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고말았다. 재차 병석에 누워 며칠동안 다시금 앓음치레를 하였다.

지금도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했으나 전신이 나른한것이 도저히 맥을 출것 같지 못했다.

허나 병세는 완구히 회복기에 들어선것이 틀림없었다.

뭐니뭐니해도 시시로 치밀어오르던 구토감과 현훈증이 씻은듯이 사라진것이 기뻤다. 아니, 자나깨나 원정에 떨쳐나서려는 불타는 열망이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납득시켰는지도 몰랐다.

병고에 시달리던 나날 박위는 원정에 바치는 사람들의 비상한 노력에도 재삼 감동되였지만 자기를 위해 기울인 군사들과 백성들의 뜨거운 정성에도 깊이 감동되였다.

여삼은 매일과 같이 산지사방으로 뛰여다니며 제노라 하는 의원들

을 수없이 불러들이였다. 김해부중에서 손꼽히는 의원들은 물론 어느 구석에 골박혀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돌팔이의생들까지 침통이며 부항단지를 꿍져안고 줄레줄레 모여들었다.

오천은 진종일 염초냄새, 염초연기에 쏘이여 빨갛게 눈이 부어가지고도 틈만 생기면 황산강에 나가 잉어나 메기 같은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찾아왔다.

바다고기보다 민물고기로 만든 지지개를 더 좋아하는 박위의 입맛을 돋구어주기 위해서였다.

옥보와 구서방은 자기 집 고방에 깊숙이 건사했던 해묵은 산꿀과 산저담 같은 약재들을 내오고 고들이와 《만사태평》같은 군사들은 밀양과 창원의 친척집에 나가 말린 노루피와 곰열을 구해가지고 왔다.

실로 수많은 사람들의 뜨겁고도 각근한 인정이 물결처럼 박위의 처소로 밀려들고 쓸어들었다. …

《인간이란 참… 겉모양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되는 법이요. 량반상놈을 따져서 평해서도 안되는 법이라—》

멀거니 굳어진채 사색을 펴나가던 박위는 혼자소리를 뇌이며 곁에 있는 자리끼를 집어들었다.

물 한그릇을 다 비우고서야 박위는 씁쓸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도는 물이 보통 숭늉이 아니라 구기자차라는것을 느끼였다.

(한겨울에 어디서 이런게 생겼을고?

리옥이도 없는 때에…)

리옥이 생각이 떠오르자 대뜸 가슴이 쩌릿하게 저려들었다.

한송이의 호함진 정향꽃처럼 그윽하고 청순한 처녀의 자태가 눈앞을 가득 메우며 육박하듯 다가왔다.

이제는 필시 저세상에 갔을 사람,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나 그럴수록 더욱 생생하게 가슴속에 파고들며 아리고 쓰린 추억, 달고 뜨거운 정회를 불러일으키는 처녀…

이런것이 바로 운우의 정인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것인가.

그건 어찌 됐든 예전에는 어느 정도 정신상의 부담이라고 여겼던 그와의 관계가 지금에는 어이하여 정신상의 소중한 보배로 느껴지는것인가.

다시는 그 모든것을 회복할수 없는 이 마당에 이르러서야…
서두를 까닭도 없건만 급급히 벽상에 걸린 칼을 벗겨든 박위는 밖으로 나왔다.
앓아누웠던 사이에 자기의 용력과 칼솜씨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는지 스스로 가늠해보고싶었다.
다쫓기듯 다급히 후원에 들어선 박위는 칼잡은 손을 번쩍 추켜들었다.
예리한 칼날이 차거운 아침공기를 베며 곧추 일어섰다.
홱홱— 박위의 장검은 증오와 복수의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허공에서 눈부시게 번쩍이며 꽃무늬같은것을 그리던 칼은 불식간 앞쪽으로 힘차게 내리박히였다.
황홀한 검무앞에서 얼이 빠진 적수가 뒤로 한발 물러서는 순간 벼락같이 달려들어 정수리를 내리까는 법수였다.
홱홱— 다시 칼을 끌어들인 박위는 돌개바람에 태우기라도 한듯 잉그르르 맴돌이를 하며 가로세로 마구 칼날을 휘날리였다.
사면팔방에서 한꺼번에 달려드는 적들을 일격에 쳐물리치는 법수였다.
순간의 정지도 없이 길길이 날고뛰며 본국검총도의 34가지 칼쓰기동작을 미끈하게 수행한 박위는 내처 등패총도의 11가지 동작과 월도총도의 33가지 동작까지 수행했다.
《맹호장과!》
월도총도의 마지막동작을 끝내며 큰소리로 동작의 제명을 웨치고난 박위는 서서히 칼을 내리웠다.
앓기 전보다 호흡은 조금 가빴으나 근력이나 칼솜씨는 결코 줄어든것 같지 않았다.
한결 거뿐해진 기분으로 후원을 나서던 박위는 무심결에 처마밑에 줄줄이 드리워있는 빨간 열매무더기를 띄여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초들초들하게 마른 구기자열매였다.
(어디서 저런게 생겼을가?
옳거니, 현중이녀석이 벌써 초가을때 죽촌에 나가서 따온게 틀림없으렷다. …)
언제부터인지 현중은 이따금 구기자차를 들여오군 했다.
그때는 일에 다몰리고 병고에 시달리던 때라 별생각없이 마셔버렸었다.

헌데 지금 생각해보니 현중은 단지 아버지의 원기를 돋구어주기 위해 구기자차를 들여온것이 아니였다.

현중은 리옥이가 못견디게 보고싶고 그의 정이 사무치게 그리워 처녀의 넋과 체취가 슴배여있는 열매를 따온것이였다.

엉큼한 녀석이 아버지에게 리옥의 정을 상기시켜주느라고 그랬는지도 몰랐다.

박위는 한참후에야 구기자열매타래앞에서 물러섰다. …

오래간만에 조반상을 말끔히 비운 박위는 아침밥이 자위 돌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가로 갔다.

오늘은 전라도원수 김종연이 20여척의 전함을 끌고 군영앞바다에 들어서겠다고 약속한 날이였다.

안동원수 최단도 오늘 백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륙로로 도착하겠다고 이미 전갈을 보내왔었다.

그들은 모두 중낮때나 당도할것이니 지금부터 바다가에 나가 서성거릴 까닭은 없었으나 박위는 다시금 원정준비상태를 제눈으로 깐깐히 확인하고싶었다.

하얀 모래불이 끝간데 없이 펼쳐진 바다가에는 오늘도 숱한 사람들이 하얗게 쓸어나와 설렁거리고있었다.

겨울의 아침공기는 쌀쌀하건만 거의 모두가 한여름때처럼 맨 등거리만 입고 나서서 시뻘건 팔뚝을 울뚝불뚝 뽐내고있었다. 앞바다를 메우다싶이 빽빽이 늘어선 전함들의 아래쪽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선체에 석회를 바르거나 동백기름을 칠하고있었다.

시꺼먼 연기타래가 트레트레 오르는 불망치로 배널을 지지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선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방비를 하는것이였다.

사다리나 널판자를 타고 분주하게 전함우로 오르는 사람들도 보이였다.

벌써 포알이며 화약 같은것을 적재하는것이였다.

바다가 모래불우의 광경도 장관이였다.

처마에 처마를 잇대고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대장간들과 염초장들에서는 망치질소리, 풀무질소리, 웃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썩들썩 울리는데 누렇게 마른 띠풀이영의 틈새로는 건회색 또는 등황색의 뜬

김과 염초연기가 꾸역꾸역 피져오르고있었다. 눈처럼 하얀 염초가 담긴 함지나 멍구럭 같은것을 들고나오는 사람, 새로 벼린 칼이나 창을 장작단처럼 안고나오는 사람, 숯가마니나 먼지, 혹은 재가 든 가마니를 메고 들어가는 사람… 들고나는 사람들은 많기도 했다.

그뒤로 길게 뻗어나간 돌성의 성가퀴들에서는 물고 뽑은듯이 칠칠한 군사들이 초롱같은 눈을 빛내이며 멀리 바다길을 살피고있었다.

성을 지키면서 적정을 살피는 파수군들이였다.

박위가 앓아누운새 싸움준비는 한층 더 완비되고 군사들과 백성들의 전투의욕은 훨씬 비등된것이 헨둥 알리였다.

쌍까풀이 선명하게 그어진 눈에 그윽한 정을 담고 곳곳을 모박아 살펴보던 박위는 대장간뒤쪽에서 숱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와자자 터져나오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기 바쁘게 어디서나 입심으로 한몫 보는 염초장 옥보의 쨍쨍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오천대장이 과연 난사람은 난사람이로군. 또 이렇게 영절스러운 궁냥을 해낼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나나 구서방 같은 사람들로서야 어림반푼어치나 있는 일인가?!》

언제든지 구서방을 껴들어가지고 악의 없는 야을 올리는것을 하나의 재미로 여기는 옥보는 이번에도 오천을 치사하는 말틈에 구서방을 끌어넣었다.

《암, 그 다 이를말인가. 나같은 사람은 일년내내 골을 썩인다 해도 땅띔도 못할 궁냥일세.

자고로 슬기단지란 따로 있는 법이야.》

옥보에 대한 승벽심과 사위감을 쳐들어올리는 뜻이 로골적으로 풍기는 구서방의 말소리가 잇달리였다.

《아니, 그게 무슨 요란한 궁냥이라고 모두들 이러시나요?!

날더러 난사람을 꼽으라면 난 선참으로 옥보아저씨를 꼽겠어요.

곰배질, 풀무질도 일등으로 잘하는데다 지금나이에 재가마니를 두개씩이나 포개메고 뛰여다니니 그게 보통 힘인가요.

상장군, 대장군들도 그 모양을 보면 기함을 할거예요, 헛허허.》

칭찬보따리를 슬그머니 옥보에게 넘겨씌우는 오천의 시원스러운 목소리.

그 바람에 더욱 기세가 오른 옥보는 다시 이야기판의 채를 잡았다.
《그 말 참 귀맛 좋으이. 그러니 오천대정이 도통사벼슬쯤 하면 이 옥보도 랑장이나 중랑장벼슬은 헐후히 얻어걸치겠네그려.
아무렴 이 옥보도 주기만 한다면야 중랑장벼슬이야 능준히 감당하지. 안 그런가, 구서방?》
핫하하… 또다시 솟구쳐오르는 웃음소리…
박위는 성큼성큼 대장간뒤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대장간과 염초장뒤쪽의 꽤 넓은 공지에 담을 두르고 서있던 사람들은 박위를 알아보자 저마끔 너푼너푼 허리를 꺾었다.
《장군께서 예까지 나오시다니요?!》
《찬바람을 맞으시면 몸에 해롭소이다.》
싱그레 웃으며 고개를 주억거리는것으로 사람들의 인사에 모두거리 답례를 하고난 박위는 오천에게 다가섰다.
어찌된 일인지 오천의 너부죽한 얼굴에는 시꺼먼 먹물자욱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우습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했다.
《여기서는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웃고떠드는게냐. 어디 말 좀 해보아라.》
오천은 자기의 얼굴꼴은 전혀 모르는듯 팔뚝같이 실한 붓으로 발치에 펼쳐진 돛천을 가리켜보이며 자못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긴게 아니라 그럴듯한 궁냥이 떠올라 지금 막 펴보는중이올시다.
되지 못한 궁냥인지 모르겠사오나 모든 전함의 돛천에 룡이나 범같은 무서운 짐승들과 괴상한 무늬를 그려넣으면 원정군의 기세가 한층 장해보일듯 하옵니다.
또한 왜구들은 우리 함대의 돛천에 새겨진 그림들과 그림이 비쳐진 바다물을 보면 첫순간에 벌써 혼이 빠지고 기가 질릴줄 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먹물에 아교를 타서 돛천에 그림을 그려넣고있소이다.》
박위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운채 말없이 고개를 끄떡거렸으나 마음은 못내 흡족하였다.
오천은 정녕 슬기단지였다.
허나 이번의 새로운 창안 역시 타고난 총명에 바탕을 둔것이 아니

라 왜구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고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뿌리를 둔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각방으로 동뜨게 잘난 녀석이니 최무선장군은 만날 때마다 그리도 각근히 당부를 한것이리라.

헌데 나는 이 녀석을 오해하고 미워하던 나머지 매까지 치게 했었지?!…

참으로 인생은 평면에서 살지만 평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리해해서는 안되는게라—)

박위는 어제날 자기의 경솔한 처사가 생각할수록 불만스러웠으나 오천의 기발한 궁냥이 비낀 그림은 볼수록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원정의 승리를 확증하는 또하나의 요인이 명백히 잡혀지는것 같기도 했다.

박위는 크게 고개를 끄떡이며 웨치듯이 말하였다.

《이는 필시 훌륭한 궁냥이로다.

이번 원정에서는 물론 앞으로의 바다싸움에서도 크게 써볼만 한 계책인줄 아노라.》

《황공하옵니다.》

박위의 과찬에 다시 쑥스러워진 오천은 먹물이 묻은 시꺼먼 손으로 공연히 자기의 볼편을 이리저리 문대였다.

그 바람에 오천의 얼굴은 아예 숯등걸처럼 새까매지고말았다.

심신이 더욱 개운해진 박위는 오천의 얼굴을 가리켜보이며 좀해서는 하지 않던 롱말을 꺼내놓았다.

《우선 나부터가 검덕귀신같은 네 얼굴만 봐도 더럭 겁이 나는데 이제 온갖 괴이한 그림들이 바다우와 바다물에 한벌 쭉 깔리면 왜구들이 어찌 혼비백산하지 않겠느냐.

덤벼들 생각도 못하고 홍찌를 내갈기며 줄행랑을 놓을게다, 으헛허허…》

핫하하… 모두들 박위를 따라 또 한바탕 유쾌하게 웃어제끼였다.

사람들의 웃음속에는 필경 박위의 치하를 고마와하는 뜻과 함께 엄엄하고 서슬푸른 장수로부터 정답고 친근한 인간이 되여 다시금 자기들속으로 돌아온 박위를 뜨겁게 반기는 의미도 깔려있었다.

살틀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던 박위는 류달리 큰소리로 웃고있는 죽촌의 행수로인을 띄여보자 까닭없이 가슴이 서늘해났다.

그에게 무슨 말이든 해주고싶었으나 혀끝으로 그네들의 수고를 치사하는것은 어딘가 성의없는 소위처럼 생각되여 그저 고개만을 크게 끄떡거려보이였다.

박위의 고개짓을 제나름대로 짐작한 행수로인은 박위앞으로 다가오더니 사뭇 정중하게 읍을 하고나서 말하였다.

《어제 소인네들은 장군께서 병석에 누워서도 미거한 우리 촌백성들을 념려하여 보내주신 식량을 받았소이다.

백성으로 생겨 군사를 돕는것은 너무도 의당한 일이온데 넉넉치도 못한 군량까지 덜어 보내주시니 실로 황감하기 이를데 없소이다.》

언제나와 같이 청청하고 격식바른 행수로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박위는 손을 내저었다.

《나는 군량을 덜어서 보낸것이 아니라 응당 보낼데로 보낸게요.

지금 이 고장에는 군사와 백성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모두가 군사요.

군사가 군량을 받은셈이니 고마울것도 없고 마음상에 부담을 가질것도 없소.》

이어 박위는 오천과 행수로인에게 일을 더욱 재우칠것을 당부하고나서 신도가 어렴풋하게 바라보이는 바다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이제는 김종연이네가 당도할 시각이 박두한듯싶었다. 차거운 모래불에 발을 묻고 선 박위는 전라도합대가 나타나게 될 신도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마음은 전에없이 초조하고 다급해났다.

(전라도원수와 안동원수가 오늘 중낮에 다같이 들어선다면 저녁중으로 작전토의를 초벌 끝낼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가. 혹시 그새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닐가.

아니, 내가 지금 공연한 근심을 하고있다. 김종연이나 최단은 다 묵직한 인물들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릴 장수들이 아니니 이제 곧 이쪽저쪽에서 나타날게다. …)

등뒤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꺼먼 얼굴을 보기싫게 찡그린 윤통이 전복자락을 날리며 드바삐 다가오고있었다.

박위앞에 온 윤통은 소금기가 허옇게 내번진 두툼한 입술을 실룩실룩거리더니 절망적인 음성을 끌어올리였다.

《장군! 전하의 어지를 몸에 받은 사헌부 감찰어사가 방금 군영에 도착했소이다.》

윤통은 감찰어사가 어떤 어지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박위는 어지의 내용이 대번에 짐작되였다.

박위는 하얀 대문이로 아프게 입술귀를 짓물었다.

(드디여 일이 닥쳐왔고나. …)

하늘은 푸르청청한데 어디선가 우뢰소리같은것이 꾸릉꾸릉 울리는듯싶었다.

대기는 티 한점없이 투명한데 짙은 안개장막이 밀려오기라도 한듯 눈앞이 뿌잇해났다.

하건만 박위의 마음은 자기로서도 놀라우리만큼 평온했다.

천둥이 울 때 뉘라서 소나기가 쏟아질것을 예측하지 못하랴?! 오늘같은 일은 아니아니 하면서도 이미 충분히 예견하고있었다.

단지 그처럼 애타게 바라던 원정을 당장 벌리려는 대목에 이르러 터진것이 못 견디게 아쉬웠다.

아니, 자기 몸을 통채로 땅바닥에 태질이라도 치고싶도록 분하고 억울했다.

허나 나라님의 지엄한 교지는 이미 내린것이요, 일은 눈앞에 현실로 닥쳐온것이니 불행은 피할수 없었다.

이제는 살점이 분분히 튀여나고 뼈가 산산이 바사진대도, 설사 형장의 대곤밀에서 목숨이 끊어진대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표명하고 대마도원정의 촉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외 다른 출로가 없었다.

박위는 태연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그렇다면 어서 군영으로 가야지. …》

《예?》

찢어져나가는듯 한 가슴을 안고 박위를 주시하던 윤통은 그만 입을 딱 벌리였다.

사람이 아무리 강건하고 담대하기로서니 어쩌면 자기를 옥쳐갈 지옥사자같은 감찰어사가 왔다는데도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어서 군영으로 가자고 할수 있는가.

윤통은 놀랍고 분하고 앞이 캄캄해나는중에도 박위의 인간됨됨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불식간에 박위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할 비장한 각오가 열탕처럼 세차게 끓어올랐다.

박위와 함께 만단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것은 인간으로서의 의당하고 떳떳한 의리인 동시에 지난날에 대한 가장 속시원한 속죄로 될것이였다.

윤통은 두터운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결연히 부르짖었다.

《장군! 하관도 장군과 같이 구격나래(중한 죄인의 손에 고랑을 채우고 목에 칼을 씌워서 잡아가는것)를 당하겠습니다.

장군이 한 일이자 하관이 한 일이고 하관이 한 일이자 장군이 한 일입니다.

피차 행한 일이 같은데야 당하는 벌에 어찌 등차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어서 군영으로 갑시다, 어서!…》

당장 걸음을 내짚으려던 박위는 스르시 굳어지였다.

갈범처럼 길길이 날뛰는 이 언틀먼틀하게 생긴 사내의 가슴속에 샘물가의 조약돌처럼 정가롭게 깔려있는 고결한 인정이 날날이 헤아려지였다.

눈굽이 지지듯 따가워나고 속이 숯불처럼 이글이글 달아올랐다.

허나 이런 때일수록 사사로운 감정이나 즉시적인 충동에 빠져서는 안되였다.

서로가 격감을 누르고 리성적인 판단을 세워 앞날의 일을 도모해야 했다.

잠시 바위처럼 굳어져있던 박위는 마치 성이라도 난 사람처럼 눈섭을 치솟구며 와짝 언성을 높이였다.

《부원수는 지금 무슨 소릴 하는게요.

부원수에게는 아무 죄도 없거니와 설사 무슨 죄가 될 끄트머리가 있다손쳐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오.

만약 모든 일이 여의치 못하여 본관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부원수는 여기서 기어이 원정을 성사시켜야 한단 말이요.》

노방 딱딱하고 표표하던 윤통의 피진 눈에서 뜻밖에도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윤통으로서는 난생처음으로 흘려보는 눈물이였다.

잠시 동안을 두었던 박위는 좀전과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 부원수는 오늘중에 내 청을 하나 들어주오.

이렇게 급작스레 떠나게 되고보니 그새 내가 일만 일이라고 부원수와 장졸들을 들볶아댄것이 미안쩍기 그지없소.

그러니 모두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푹 쉬도록 하오.

나를 대신해서 부원수가 결구도 여러마리 잡게 하고 술도 푼푼히 가져오게 하여 군사들과 백성들을 한밥 푸짐히 잘 먹여주오. 부원수도 오늘만은 시름을 놓고 푹 쉬면서 량껏 술을 마셔주오. 그러면 떠나는 내 마음도 한결 가벼울듯 하오.》

그러지 않아도 우격우격 괴여오르는 속을 주체하기 어려워 헉헉 숨을 갑시던 윤통은 그만에야 말울음소리같은 오열을 터치였다.

《어흑흑… 그게 무슨 소립니까?!

장군은 구격나래를 지고 떠나면서 하관더러는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라고 하니… 그게야 상제보고 곱새춤을 추라는 소리나 무엇이 다릅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씀할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 령만은 시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흑흑흑…》

얼마후 옷갓을 벗기우고 발병부 (군사를 동원할 때 쓰는 신임표의 하나, 두쪽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오른쪽은 지방군 장수에게, 왼쪽은 궁중에 보관되여있다.)와 임금의 어보가 찍혀있는 관교 (정부의 관리임명서)를 회수당한 박위는 칼을 차고 군영대문을 나섰다.

느티나무아래에 웅기중기 모여서서 웅성거리던 수십명의 군졸들과 백성들이 우르르 밀려왔다.

삽시에 박위의 주위를 담벽처럼 에워쌌다.

박위는 사실 그 누구의 배웅도 없이 조용히 군영을 떠나고싶었다.

그래서 윤통에게 일의 내막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엄하게 일렀건만 어찌된셈인지 그 뚝뚝한 사람이 제쪽에서 먼저 마른 울음을 끅끅 갑시며 소리소리 지르고 돌아가는 바람에 소문은 순식간에 짜하게 퍼지고말았다.

박위는 맨상투바람에 칼을 쓰고 사람들앞에 나서는것이 창피하고 거북하였다.

게다가 노상 육체의 한부분마냥 중히 여기던 장검과 발병부, 관교까지 떼우고보니 자기라는 인간이 속심지는 싹 빠져버리고 허울만 남

은듯 하여 허전하고 공허하기 이를데 없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바싹바싹 조여들었다.

사람들은 너나없이 고을의 자랑으로, 고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던 박위가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전옥으로 끌려가게 되자 그의 존재가 더욱 귀중해지고 그의 처지가 더욱 비통하게 생각되여 모두 제정신들이 아니였다.

사람들의 앞장에서 흑흑 울음을 삼키던 오천은 베개통같은 주먹으로 눈굽을 빗씻으며 박위앞으로 바투 다가섰다.

《장군께서 이렇게… 소인의 죄까지 들쓰고가시면 소인은 이 하늘아래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삽니까.

함께 가겠소이다. 소인의 죄는 소인이 당하겠소이다.》

박위는 축축하게 속이 젖어들었으나 짐짓 엄하게 꾸짖었다.

《당치 않은 소리 말아라.

왜구는 우리가 반드시 근멸해야 할 민족의 적이거늘 너는 여러 생각 말고 맡은 일에 더욱 착심해라.

소나기가 내린 연후에는 무지개가 비끼는 법이니라. …》

오천이 뒤에 서있던 구서방이 자기의 사위감을 전에없이 왁살스럽게 밀어젖히고 박위앞에 나섰다.

정중히 허리를 꺾어 하직인사를 올리고나서 지금의 정황에는 어딘가 맞지 않는듯 한 문자말을 꺼내놓았다.

《소인이 알건대 가장 어두운 때가 날이 밝기 전이올시다.

오늘의 일은 비길데없이 절통하오나 하늘은 반드시 창해속에 청룡이 누워있는줄 아실겝니다.

그러한즉 장군께서는 이제 하늘의 구원을 입어 채운을 허리에 감으시고 이내 다시 돌아오시리다.

이 애 취금아, 먼길을 떠나시는 장군께 어서 술 한잔 쳐올려라.》

구서방곁에서 실팍한 어깨를 떨고있던 취금은 두손으로 정히 술대접을 받쳐올리였다.

박위는 정찬 미소로 사의를 표하고나서 술대접을 기울이였다.

이때에야 어디선가 나타난 옥보는 급급히 사람들을 비집어헤치고 박위앞에 나섰다.

그렇게도 수다스럽던 옥보는 반나마 털을 뽑은 커다란 수닭을 부둥켜안은채 말 한마디없이 끅끅 느껴울기만 했다.

박위가 잡혀간다는 소문을 듣자 한번이나마 제손으로 기름진 안주를 마련해올리려고 급하게 닭을 튀기다가 랑자한 곡성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진둥한둥 달려온 꼴이였다.

옥보는 한마디의 말도 여쭙지 못했는데 죽촌의 행수로인이 흰수염을 훨훨 날리며 옥보앞을 막아섰다.

행수로인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세상만사를 휘여내기라도 할듯 자신만만하게 두팔을 벌리고 박위의 앞길을 막았다.

《못 가시오이다. 소인네들을 두고, 원정을 앞에 두고 어딜 가신단 말이오니까?

정녕코 가서는 아니되오이다.》

박위는 목이 꽉 잠기여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이리도 눈물겨운 지성과 진정을 토로하는것인가.

내가 저들의 상전이기때문일가. 아니면 지난날 내게서 그 어떤 은혜라도 입었기때문일가.

물론 그런것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자기들과 꼭같은 심정으로 왜구격멸을 주장하고 원정준비를 떠밀어왔기때문일것이다.

하다면 나는 이들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서빨리 전옥으로 가야 한다.

국문장에 나서서 나의 무죄를 밝히고 대마도원정을 촉구해야 한다.

박위는 둘러선 사람들을 다시한번 정차게 살펴보고나서 한옆에 나서있는 감찰어사에게 말하였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떠나는게 어떻소?!》

말안장우에 높직이 올라앉아 의아쩍은 시선으로 박위와 상사람들의 적극적인 교감을 갈마보던 감찰어사는 또한번 크게 놀란듯 흰자위가 가득한 눈을 뜨부럭거리며 선뜻 대답을 못했다.

여직껏 전옥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죄인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었던것이였다. 그러는새 박위는 사람들이 터놓은 길을 따라 제먼저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감찰어사가 탄 껑충한 피말과 장창을 비껴든 십수명의 라졸들이 줄레줄레 박위의 뒤를 따랐다.

소소리높은 느티나무의 우듬지에서 까치들의 명쾌한 울음소리가 울리였다.

그 소리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앞동네의 어느 한 집에서 쿵덕쿵덕 방아소리가 날아왔다.

그리 멀지 않게 보이는 행길가의 동뚝으로는 눈같이 흰 게사니들이 자못 거드름스럽게 걸어가고있었다.

사람들은 귀에 마쳐오고 눈에 안겨오는 목가적인 음향과 화폭이 공연히 못마땅하여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을 저저마다 찡그리였으나 박위의 기색은 눈에 띄게 밝아지였다.

얼마나 선명하고 구수하고 아름다운 생활의 노래, 생활의 그림인가.

저렇듯 소중한 이 땅의 노래와 그림이 단 한순간도 사라져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우리 무관들이 큰집의 기둥을 받든 보이지 않는 주추돌처럼 온몸에 민족의 무게를 안고 자기를 불태워야 한다.

열렬하게 완강하게 그리고 묵묵히…

얼마후 박위를 앞세운 감찰어사일행은 석양의 잔광이 누렇게 게발려있는 밀양쪽의 헐벗은 등성이밑으로 사라져버리였다.

그때에야 군영대문앞에 당도한 김종연과 최단은 대번에 사태의 전말을 짐작하고 한판에 찍어내기라도 한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우수수—

박위네들이 에돌아들어간 어스름이 깃든 등성이쪽에서 조팝꽃같은 눈싸래기들이 아츠러운 비명을 지르며 뽀얗게 밀려오고있었다.

8

희벗하게 색이 바랜 겨울의 창백한 해가 구름너머로 사라지자 대지에는 곧 침침한 저녁어스름이 깃을 펴기 시작했다.

관사의 대돌아래 제법 무게있게 솟아있는 두개의 돌탑속에서 색스러운 등롱불들이 평끗평끗 눈을 떴다.

조잡하게 층층으로 덧놓인 관사지붕들의 추녀끝에서도 각색모양의 앙증스러운 등롱들이 빠금빠금 눈을 떴다.

삽시에 관사 앞마당은 대낮처럼 밝아지였다.

얼마 안있어 앞마당으로는 하나같이 어깨가 되바라지고 몸집이 똥똥한 십수명의 왜구가 불구경가는 게사니무리마냥 떠뚝떠뚝 들어섰다.

주변 남해안과 고려의 서해안고을들을 급습하여 적지 않은 재물을 략취해가지고 엊그제 돌아온 여러 도적패의 두령들이였다.

이들은 지금 사다께가 저들의 전공을 축하하여 손수 배설한 연회에 참가하기 위해 관사로 밀려오는것이였다.

노상 근검소박을 입버릇처럼 떠드는 사다께로서는 매우 드물게 차리는 이런 연회에 참가한다는것은 크나큰 자랑인 동시에 무상의 영광이였다.

하여 두목들은 섬돌우에 발을 올려놓으면서부터 저마끔 자기의 처지와 직분에 어울리는 표정을 짓느라고 상판들을 실룩거렸으나 모두가 섬세한 인간감정과는 인연이 먼 무지막지한 강도배들이라 얼굴들에는 과분한 은혜를 받아안은 아래사람의 황공감사한 기색이라기보다는 우는지 웃는지 알수 없는 기괴한 표정이 그려져있었다.

잠시후 관사의 너렁청한 도회청에서는 이 집이 생겨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성대한 연회가 시작되였다.

울타리짬을 비집고 나온 호박처럼 막생긴 대가리우에 물소뿔같은 죤마게(왜상투)를 치솟군 왜구들이 음식상둘레에 갈가마귀떼처럼 모여앉자 지또와 리옥을 대동한 사다께가 비단옷자락을 너풀거리며 위엄있게 나타났다.

졸개들은 일제히 대가리를 조아려박으며 왜가리청을 뽑아올리였다.

《황공하오이다―》

자못 틀스러운 거동으로 상좌에 틀고앉은 사다께는 등뒤의 바람벽에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려진 새빨간 해를 얼핏 살펴보고나서 고개를 돌리였다.

《모두들 고개를 들어라.》

사다께의 위엄있는 령이 내리자 졸개들은 무슨 큰 혜택이라도 입은

듯 공경어린 시선으로 상관의 얼굴을 쳐다보며 우줄우줄 허리를 폈다.
사다께가 오늘 이 좌석에 리옥을 데리고 나온것은 요즘에 들어 더더욱 마음이 끌리는 리옥에게 자기의 막강한 권력과 권위, 비상한 군사적지략과 원대한 포부를 유감없이 과시하고싶어서였다.
리옥은 또 자기대로의 비밀한 속내가 있어 사다께의 청을 흔연히 받아들여 이곳에 나온것이였다.
기다랗게 잇대놓은 앉은뱅이식탁우에는 왜국의 음식은 물론 고려의 이름난 료리들이 울긋불긋하게 차려져있었다.
모두가 여러 나라를 무시로 나들며 순수 도적질을 해먹고사는 강도배들이라 갈지 않게도 음식취미까지 다양한것이였다.
잠시 졸개들의 상통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사다께는 드디여 껄껄한 청으로 말문을 열었다.
《에또—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고 나가 전고에 없는 대공을 세우고 돌아온 너희들을 축하한다.
내가 이미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한 인간의 성쇠도 재물의 유무에 좌우되고 한 나라의 흥망도 재력의 다소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놓고볼 때 너희들의 이번 전공은 애국지심과 무사도정신의 거대한 발동으로서 우리 대마도의 급속한 번영과 래일의 령토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그지간의 피로도 풀고 전승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밸이 푹 젖도록 실컷 마셔라.
온 세상의 술과 재부가 너희들의것이다.》
살인과 략탈로 일관된 천인공노할 만행을 애국심의 발동으로까지 추켜올린 사다께는 도적떼의 대두령답게 상스럽기 그지없는 어투로 연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하고는 햇비둘기처럼 배리배리한 왜계집들이 정히 올리는 커다란 주발을 받아들더니 제먼저 무슨 본보기라도 보이듯 단숨에 술을 찌워버리였다.
졸개들도 쭈룩쭈룩 소리를 내며 걸탐스럽게 술을 들이키였다.
왜구들은 독한 술을 한주발씩 퍼마시자 하나같이 구워놓은 가재처럼 상판들이 빨갛게 익어번지였다.
어느결에 꽈꽈하게 굳어졌던 표정들은 흐물흐물하게 풀어지고 그런대로 단정해보이던 몸가짐들은 거들거들하게 흐트러지였다.
질탕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곳곳에서 소란스럽게 울리였다.

세상만사를 초탈한듯 심상한 기색이 떠돌던 리옥의 청초한 얼굴에 모멸적인 랭소가 비끼였다.

리옥은 할수만 있다면 천박하고 무지스러운 왜구들의 비게진 몸뚱이에 기름을 활활 들붓고 불을 달아서 쥐무리처럼 통쾌하게 태워버리고싶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멀리에 있고 할일은 당장 눈앞에 있었다.

리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의 열을 애써 누르며 일을 벌리기에 가장 맞춤한 시각을 마음속으로 골라보기 시작했다.

술좋은 코수염을 가락지모양으로 슬슬 비틀어꼬며 리옥의 기색을 훔쳐보던 사다께는 문득 취기가 가득어린 거센 목소리로 웨치듯 말하였다.

《모두들 듣거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맹렬하게 전과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그 어느 나라보다 고려를 가장 중시해야 하는바 그 리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고려는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있으니 왕복기일이 짧은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고려의 곡물과 피륙, 어물을 비롯한 모든 물산들이 천하의 상등이기때문이다.》

소란스럽던 방안은 금시 쥐죽은듯 고요해졌다.

사다께의 껄껄한 음성은 즈렁즈렁 공명을 일으키며 계속되였다.

《에또— 우리가 예상한바와 같이 고려조정의 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어수선해지고있다. 권력의 상좌에 들어앉은 리성계는 가급적으로 반대파전원을 숙청 또는 흡수하고 왕권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조정의 형세는 이처럼 파국상태인데 가소롭게도 단신으로 대마도를 치겠다고 덤벼치던 경상도원수 박위는 드디여 우리의 계략에 걸려 칼을 쓰고 전옥에 갇혔다.

병든 호랑이가 혼자 날뛰는것도 무서울것 없는데 그나마 함정에 빠지기까지 했으니 박위야말로 비루먹은 강아지보다 두려울것이 없지 않는가, 으핫하하.》

사다께의 선창에 이어 졸개들의 웃음소리가 와자하게 터져올랐다.

볼퉁이에 험상한 칼자리가 패인 추접스럽게 생긴 왜구 하나가 술대접을 받쳐들고 사다께앞으로 썰썰 기여올라갔다.

놈은 자라목처럼 파묻힌 굵은 목을 한껏 빼올리며 아첨기가 가득한 어조로 허풍을 떨었다.

《참으로 항우이상의 용력과 제갈공명도 따르지 못할 출중한 지략을 지니신 령주도노는 우리 대마도는 물론이요 전 일본국의 가장 큰 자랑이올시다.》

사다께는 졸개의 낯간지러운 아첨이 무던히도 흡족하였으나 소대가리만큼이나 큰 머리를 두어번 끄떡거리는것으로 대강 답례를 하고나서 술대접을 받아들었다. 또다시 술대접을 자신만만하게 기울이였다. 사다께는 지금 리옥과 졸개들에게 자기의 거물스러운 인격을 각방으로 과시하고싶었으나 슬프게도 그의 주량은 욕망이나 허영에 비해 어방없이 딸리였다.

두번째로 술대접을 비우는 사이 점잖게 눌러썼던 통버선모양의 관모는 어디론가 벗겨져 달아나고 바위처럼 끄떡없던 다부진 상체는 위태롭게 기울거리는데 혀는 잔뜩 꼬부라지여 말소리는 반나마 가려들을수 없었다. 그래도 허욕과 광기는 그냥 뻗쳐올랐다.

사다께는 굵고 탄탄한 팔을 앞으로 길게 내던지며 또다시 고아붙이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곧 경상도로 나가야 하겠는가. 아니다, 용맹은 항상 지모와 결합돼야 백전불패를 가져온다.

최대로 력량손실을 없애면서 최상의 리득을 얻자면 총진격에 앞서 우선 박위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래일중에 우리 군사 몇명을 거제도에 보내려고 한다.

거제촌의 두령과 함께 두세척의 배에 병기를 가득 싣고 가서 무작정 경상군영바다가에 쏟아놓게 하겠단 말이다.

그다음은 요리꼬에게 그 모든 사연과 우리의 계책이 최종적으로 언급된 편지를 보내여 그것이 제창 고려조정에 들어가도록 할것이다.

그러면 박위는 옴치고 뛸데없이 목을 잘리게 될것이다.》

사다께는 음흉한 미소를 띠우며 두장의 편지 즉 요리꼬와 고려조정에 보낼 편지를 쳐들어보이였다.

리옥의 심장은 아까부터 세차게 높뛰고있었다.

사다께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슴이 뻘겋게 달아오르는중에도 가지가지 짐작과 제나름대로 세운 타산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모든 일이 사다께의 계획대로 진척된다면 옥에 갇혀있는 현중 아

버님은 십중팔구 생을 보존할수 없을것이다.
대마도원정계획도 수포로 돌아갈것이다.
그것을 위해 사다께와 왜구들은 미친개처럼 눈에 달이 떠서 뛰여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조롱에 갇힌 새처럼 꼼짝달싹 못하고있지 않는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다께는 큼직큼직하게 손세를 써가며 계속 씨벌거리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체없이 대거출동하여 천백가지 보물을 바다가의 모래 푸듯 푹푹 퍼낼것이다.》
사다께는 별안간 바위같은 상체를 홱 비틀더니 바람벽에 그려놓은 피덩이처럼 시뻘건 해를 가리켜보이였다.
《모두다 〈력발산기개세〉(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뒤엎는다)의 의지로 더한층 분발하여 이 나라 천자의 웅대한 포부를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
사다께의 열띤 호소가 끝나기 바쁘게 졸개들은 남생이소리에 자라떼가 호응하듯 투덕투덕 손벽을 치며 야생적인 소리를 터치였다.
《반쟈이!》, 《반쟈이!》
멋스러운 손짓으로 졸개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낸 사다께는 무슨 장한 일이라도 치른듯 헤벌쭉이 웃으며 리옥에게 고개를 돌리였다.
《리옥! 형세는 바야흐로 우리 대마도가 천하를 쥐게 될 성공의 전야에 이르렀는데 리옥이도 이제는 마음을 질정해야 하지 않을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결단을 내리라는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조용한 기회에 다시 하기로 하자.》
사다께는 자기앞에 놓여있는 음식그릇을 리옥이앞에 가져다놓으며 은근한 어조로 수작을 계속하였다.
《이건 다른 나라 귀족들이 즐겨 먹는다는 닭고기료리와 돼지고기볶음인데 한번 먹어보라구.
처음 먹을 때는 진챠이(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양념)냄새가 나서 상당히 역스럽지만 차츰 익숙되면 세상에 이보다 맛좋은 료리가 있는것 같지 않아. 알고보면 인생사의 리치도 이와 비슷하거던.
그래서 〈인간도처 유청산〉(인간이 가는 곳마다 청산이 있다.)이라는 말도 생긴것이겠지.
이제는 내 말뜻을 알만 한가?》

9

…사다께와 그의 졸개들이 모두 술에 휘감겨 곤죽이 되였을 때 리옥은 기척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연한 거동으로 관사를 나와 짙은 어둠이 엉켜있는 행길에 들어서자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초조감과 조급증에 떠밀리여 반달음을 놓기 시작했다.

한낮때는 귀가 멍멍할 지경으로 소란했으나 지금은 쥐죽은듯 고요한 장거리를 에돌아나온 리옥은 어질더분한 판자집, 돌집들이 빼곡이 박혀있는 민가로 들어섰다.

아직까지도 귀리 삶는 냄새가 퀴퀴하게 떠도는 골목길(이 고장의 천민들은 하루 삼시 귀리죽만 먹었다.)을 이리저리 에돌아나온 리옥은 그 걸음으로 후박나무가 몇그루 널려박힌 나지막한 등성이우로 치달아올랐다.

허청간같이 허술한 집 한채가 뿌옇게 안겨왔다.

죽촌사람들을 가두어넣은 집이였다.

걸음을 멈춘 리옥은 잠시 숨을 돌리며 이제 해야 할 일을 다시금 꼼꼼히 따져보았다.

마음이 안정되고 할바가 뚜렷이 정해지자 리옥은 독립가옥을 향해 자신있게 걸음을 내짚었다.

이때였다. 등뒤에서 누군가가 헐헐 숨을 톺아쉬며 다급히 뛰여오는 기척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외통눈이가 정신없이 뛰여오는 모양이 희미하게 가려지였다.

불안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수상쩍은 기미를 보인적이 없다는 확신이 생기자 마음은 다소 안정되였다.

리옥은 외통눈이를 마주쳐나가며 되알지게 말을 붙이였다.

《거기서 마침 맞게 오는구먼.》
《엉?! 헤헤헤, 여기 있었구만.》
리옥이 어둠속에서 불쑥 나타나자 제쪽에서 깜짝 놀란 외통눈은 말뚝처럼 우뚝 굳어지며 헤식어빠진 웃음을 날리였다.
리옥은 자신만만한 어조로 이미 생각해두었던 말마디를 거침없이 뇌이였다.
《난 빈대나 벼룩이 같은것이 묻을가봐 저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하도소도(외통눈의 이름)가 가서 파수군에게 말 좀 해주어, 장서방을 내보내달라구.》
뜻밖의 요청에 어안이 벙벙해진 하도소도는 잠시 외통눈을 끔뻑이며 무슨 생각인가를 굴리더니 의아쩍은 어조로 되물었다.
《이밤에 장서방은 찾아서 무얼 하려구?…》
《령주도노께서 급히 시원한 사까나사시미(물고기회의 일종)를 만들어오라시는데 오늘 새로 잡아온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수가 있어야지?! 그래 장서방을 찾는거여.》
《오, 그렇군. 하기사 술안주야 사까나사시미가 제일이지.》
군침까지 삼키며 웅얼거리는 꼴이 리옥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관사의 돌담밑에 쭈그리고앉아 개떨듯 했던 이 못난이는 술생각이 간절한 모양이였다.
리옥은 옷자락밑에서 깜찍하게 생긴 자그마한 술방구리를 꺼내들었다.
벌써 이 비슷한 정황을 예견하고 연회장에서 건사해두었던 술이였다.
《하도소도가 나를 지켜주느라고 늘 고생이 많은데 이거 한잔 마셔, 제백술이야.》
《어엉, 이렇게 희귀한 술을 내가…》
외통눈은 너무도 황감하여 술방구리를 두손으로 싸안은채 공경어린 시선으로 리옥을 쳐다보더니 소리없이 대문안으로 스며들었다. 찌그러진 대문너머에서 하도소도와 파수군이 나누는 말소리가 쑤얼쑤얼 들려왔다.
얼마 안있어 못생긴 대문짝이 찌그덩 젖혀지더니 여느때나 다름없이 후줄근한 장서방이 어정어정 걸어나왔다.
그는 대문앞에서 서성거리는 리옥을 알아보자 뿌잇하게 정기없는 눈을 흡뜨며 말뚝처럼 굳어졌다.

장서방은 왜구들의 이목을 외딴데로 돌리려는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심정이 정녕 그러한지 볼멘 소리로 웅얼거리였다.
《이런 제기… 잠도 변변히 못 자겠네. … 내 관비들에게 물고기멍구럭은 대나무시렁우에 올려놓았다구 떡먹듯이 일러주었는데 모두들 귀구멍을 틀어막고있었나?!》
리옥은 맵짠 어조로 장서방의 어정쩡한 뒤를 바싹 조이였다.
《장서방은 어찌했든 관비들은 모두 오늘 복새판에 새로 잡은 고기멍구럭이 어디 갔는지 알수 없다고 야단이니 가서 찾아주어야지 별수 있소?!
령주도노께서 노여움이 나시기 전에 어서 가야겠소.》
…리옥은 오늘 이 시각을 마련하기 위해 그지간 장서방을 여러번 따로 만나 설복도 하고 항변도 했었다.
장서방은 매번 첫날과 마찬가지로 사시나무 떨듯 하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며칠전 저녁 바다가에서 장서방을 만난 리옥은 너무도 분하고 안타까운김에 저도 모르게 단검을 꺼내들었다.
번쩍이는 단검을 장서방의 턱밑에 들이대고 부르짖었다.
《장서방! 사내로 나서 그렇게 등신바보노릇이나 하면서 살아서는 무얼해.
차라리 내 손에 죽는게 깨끗하지.
백동이 엄마도 그러길 원할거야!》
장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여 와들와들 떨던 끝에 간신히 고개를 주억거리였다.
마지못해 응낙한셈이나 리옥의 절절한 호소에 공감하였는지 아니면 처녀의 예상밖의 협박에 기가 질려 응했는지 장서방의 진속은 지금도 석연히 알수 없었다.
장서방을 뒤에 달고 등성이를 내려선 리옥은 하도소도와 파수군이 시시덕거리며 술을 나누어 마시는 모양을 띄워보자 즉시 길을 꺾어 바다쪽으로 향했다.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면서 전신이 호들호들 떨리였다. 하지만 사소한 소음이라도 놓칠세라 귀를 강구고 도담하게 앞으로 발을 내짚었다.
아직도 밑질긴 술주정뱅이들이 오글벅작거리는 오덴야(선술집)를

에돌아나오니 스산한 파도소리와 함께 차거운 바다바람이 덮치듯 다가들었다.
밤바다의 검은 형체가 뚜렷하게 가려지였다.
문득 장서방이 신음소리같은것을 섞어가며 나직이 웅얼거리였다.
《별장댁아씨, 이제는 어찌할 작정이시우?》
리옥이 자신도 적지 않게 속이 황황해났으나 애써 태연한 태를 내며 속삭이였다.
《아무 걱정 마오. 일은 벌써 다 된셈이요. 이제는 바다가에 나가 노대를 파내고 용층줄을 풀어낸 다음 배를 띄우면 그만이요. 이쪽길은 파수군이 없으니 장서방은 어서 가서 노대부터 찾아내오.》
리옥의 침착한 언행에서 한결 힘을 얻었는지 장서방은 더이상 군말을 하지 않고 허청비청 모래터로 내려섰다.
사위를 살펴보며 장서방의 뒤를 따르던 리옥은 부지불식간 아뿔싸 하고 혀를 깨물었다.
자기가 지나치게 긴장하고 흥분한탓에 가장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것을 비로소 깨달은것이였다.
고려에 돌아가 박위의 반역음모라는것이 왜구들이 꾸며낸 거짓수작이라는것을 까밝히고 김해관가에 박혀있다는 세작년을 잡아내자면 확실하고 유력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고려조정의 현재형편을 놓고볼 때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박위도 구출할수 없고 세작년도 잡을수 없었다.
그렇게도 눈독을 들이였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사다께의 편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예까지 나왔으니 실로 후회막급이였다.
(어떻게 할가? 이제 다시 관가로 들어간다는것은 천만번 위태로운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 좋은 탈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것은 물론 허망한 죽음을 당할수도 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떠나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녀자의 의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가자, 우선 이 악마의 소굴을 벗어나고 보자.)
리옥은 기운을 내여 걸음을 옮기였다.
갑자기 발목에 쇠덩이라도 매달린듯 썩썩 몸이 나가지 않았다.

가슴은 바늘뭉치라도 삼킨것처럼 아프게 들쑤시였다.
세차게 높뛰는 심장속으로 어디론가 아득히 사라져버렸던 리성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가.
내가 과연 나 하나 목숨을 구하자고 이 길에 들어섰단 말인가.
나는 살고 장군은 잘못된다면, 그래서 고려군대의 대마도원정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그보다 큰 죄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안된다, 그래서는 안된다. 사람이라면 그가 남자든 녀자든 살아있는 기간 단 한순간도 인생의 뜻과 인간의 도리를 망각하거나 배반해서는 안된다. …)
이를 사려문채 비장한 사색을 굴리던 리옥은 결심이 굳어지자 장서방에게 다가갔다.
노대를 찾아들고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장서방에게 자기의 결심을 대충 알려주었다.
장서방은 그당장 모래불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러다간… 다 죽게 되오이다. 댁아씨, 우선 여기를 빠져나가는게 상수외다.》
《안되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무난히 처리할테니 장서방은 여기서 기다려주오.》
생각같아서는 장서방이 다소라도 공포감을 잊도록 무슨 말이든 차근차근 해주고싶었으나 이러고저러고 할 경황이 없었다.
리옥은 이제 해야 할바를 급급히 따져보며 걸음을 재우쳤다.
관사앞에 이르니 연회는 이미 끝난지가 오랜듯 담장안팎이 괴괴한데 오지단지처럼 작달막한 파수군이 희뿌연 등롱불을 등지고 굴러오듯 다가왔다.
리옥이앞에 이른 파수군은 과일썩은내같은 술냄새를 풀풀 풍기며 이죽거리였다.
《어이구, 대부인마님이시구려. 이 밤중에 웬일로 이렇게?!》
리옥은 입에 올리기도 역겨운 거짓말을 힘겹게 번져놓았다.
《령주도노께서 연회를 파한 뒤에 다시 조용히 들어오라구 해서…》
사다께와 리옥이와의 관계를 제나름대로 짐작하고있는 파수군은 아무런 의문도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그렇다면야 무슨 할말이 있겠소. 어서 들어가시우.》
종종걸음을 놓아 관사에 들어선 리옥은 협실을 지나 제일 구석에 있는 사다께의 침방앞에 다가섰다.
방안에서는 사다께가 코고는 소리가 파도소리만큼 요란하게 울리였다.
가슴은 또다시 숨가쁘게 조여들었다.
비로소 자기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을 하고있다는 현실감이 약간한 후회감과 함께 저저이 의식되였다.
허나 이제는 칼날이 날아들어도 앞으로 돌진하는수밖에 다른 출구가 없었다.
살며시 문을 밀어젖힌 리옥은 발을 저겨디디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뙤창을 넘어들어온 앞마당의 등롱불빛에 네활개를 펴고 누워있는 사다께의 모습이 뚜렷이 안겨왔다.
리옥은 조심조심 서탁앞으로 다가섰다.
서탁우에는 고려땅에서 자주 보아온 푸른 사기주전자와 역시 고려의 것이 분명한 푸른 사기차종이 놓여있을뿐 편지같은것은 보이지 않았다.
도꼬노마 (바람벽 한부분을 장식벽함으로 만들고 꽃과 골동품 같은 것을 놓는 곳)안을 여겨보았다.
역시 종이장 같은것은 띄우지 않았다.
리옥은 사다께의 침상곁으로 발볌발볌 다가갔다.
침상주변에도 그가 찾는 물건은 없었다. 망연자실하여 방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던 리옥은 마침내 침대우에 네활개를 뿌리고 자빠져있는 사다께의 상판에 눈못을 박았다.
팔자수염밑에서 연방 게거품을 끓이며 푸푸 풀무질을 해대는 훌렁 뒤번져진 두툼한 입술.
뒤집어놓은 귤껍데기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스산하게 생긴 주먹코…
부지불식간 이 흉악한 도적떼의 왕초를 단칼에 찔러죽이고싶은 발작적인 충동이 치밀어올랐다.
걷잡을수없이 높뛰는 가슴을 애써누르며 사다께의 박통같은 대가리를 노려보던 리옥은 문득 그의 베개밑에 깔려있는 낯익은 종이봉투를 띄워보았다.
그러자 심장이 발을 구르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쿵쿵 방안을 진동하며 울리는듯싶었다.

허나 떨리는 손은 벌써 베개밑으로 서서히 내뻗치고있었다.

사르시 봉투의 귀마리를 당기니 봉투는 찢어질듯이 팽팽하게 켕길뿐 조금도 빠지지 않았다.

잠시 굳어졌던 리옥은 심호흡을 길게 하고나서 살며시 베개귀를 들어올리였다.

베개가 한켠으로 들리자 천천히 실그러지던 사다께의 소대가리같은 머리는 툴러덩 이불우에 떨어졌다.

코고는 소리가 뚝 멎더니 사다께의 눈시울이 닭새끼의 눈꺼풀처럼 스르르 벗겨지였다.

리옥의 심장은 뚝 멎어버리고 전신에 소름이 오싹 내끼치였다.

정기없는 시뻘건 눈으로 리옥의 얼굴을 멀거니 올려다보던 사다께는 언청이처럼 분명치 않은 소리로 쑤얼거리였다.

《또 한주발 가져와! 얼마든지 마실수 있다니까…》

아직도 잠에 취하고 술기운에 휘감기여 맥없이 헛손질을 하던 사다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흔들대던 손을 기운없이 떨구며 드렁드렁 다시금 코를 골았다.

리옥은 불시에 전신이 나른해났다.

자꾸만 무릎이 접혀질것처럼 장딴지가 후들후들 떨리였다.

그런중에도 이를데 없는 안도감이 벅찬 환희마냥 가슴그득히 몰밀려들었다.

(맙소사. 세상에 이런 행운도 있는가.

하늘이 도왔을가. 아니면 장군이 굽어살폈을가. 실로 천행이로구나. …)

얼마후 사다께의 편지를 품속 깊숙이 간수한 리옥은 등뒤에서 금시 칼날이 날아드는듯 한 짜릿한 공포감을 느끼며 황황히 관사를 빠져나왔다.

천방지축으로 바다가를 향해 달리였다.

바다가에 나오니 그사이 배를 띄워놓고 기다릴줄 알았던 장서방은 모래불에 무릎을 꿇고앉아 절망적인 소리를 곱씹어 뇌이고있었다.

《아니올시다, 아니라는데두요. 소인은 도망을 하려는게 아니라 고기가 든 멍구럭을 찾으러 나왔소이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에 힘을 주고 살펴보니 장서방앞에는 외통눈이가 칼을 추켜들고 서있었다.

하도소도는 금시 칼을 내리칠 태세를 취한채 회심의 웃음을 지으며 씨벌거리였다.

《으흐흐, 아름다운 꾀꼬리가 도마뱀을 잡아먹는다더니… 그렇게 곱다랗게 생긴 계집이 이런 흉측한 궁냥을 했단 말이지.

내 이미 그년이 네놈과 작당하여 도망질을 하려 한다는것을 짐작하고있었다.

어때?! 이쯤하면 이 보름보기 하도소도가 어떤 인물인지 알만 할테지.

이제 그 리옥이라는 년까지 홀치면 이 하도소도는 눈알이 세개있는 놈들도 부러워할 큼직한 상을 타게 될게다.

네 이놈! 이제는 그만 일어섯!》

리옥은 눈앞이 아뜩해났다.

리옥이가 하도소도를 어리숙한 못난이로 여긴것은 너무도 큰 실수였다.

리옥은 아프게 입술을 감쳐물며 내심깊이로 부르짖었다.

(아, 모든것이 이렇게 끝장나고마는가?!)

10

고려조정안에서는 요즘 가혹한 박해와 피비린내나는 탄압으로 얼룩진 전대미문의 정치사변들이 속출하고있었다.

이미 지난 7월 리성계는 지금까지 부덕쥐처럼 뛰여다니며 자기를 협력해온 좌시중 조민수를 탐욕죄에 걸어 정계밖으로 추방했다.

11월에는 최영의 조카벌되는 김저가 왕위에서 밀려난 우왕과 공모하여 리성계를 죽이고 우왕을 다시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음모를 꾸며내여 김저는 물론 왕년에 외적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변안렬을 비롯한 27명의 관헌들을 한꺼번에 축출, 처형하였다.

벌어지는 사변들은 몸서리치는데 돌아가는 소문들은 여간만 흉흉하지 않았다.

리성계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엇서거나 반발하는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도 몰래 흑산도 앞바다에 끌고나가 바다에 처넣어 죽이거나 배밑창에 구멍을 뚫어 배를 침몰시켜 죽인다는 소리가 어디서나 쉬쉬 떠돌았다.

리성계일당은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탄압과 음모로 정계에서 우세를 차지하던 종전의 지위에서 껑충 도약하여 나라의 정치적실권을 완전히 틀어쥔 제1의 세력으로 군림하였다.

시국이 소연할 때면 의례 그러하듯 흉흉한 소문과 함께 괴이한 소문도 수없이 나돌았다.

허다한 괴설과 잡설중에서도 제일로 기괴한것은 이제 나무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소리였다.

나무 목자(木)에 아들 자자(子)를 쓰면 곧 오얏 리자(李)가 되니 결국 리씨가 임금이 된다는 뜻이였다.

이것은 결코 소갈머리없는 촌아낙네들이나 철딱서니없는 시골의 초동들이 제멋대로 지어서 내돌리는 속설이 아니였다.

그것은 리성계와 그의 아들 리방원, 그밖에 리성계의 사타구니에 들어붙어 대궁밥을 얻어먹는 졸개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조작류포시킨 정치적인 광대놀음중의 한 변설이였다.

임금은 국정의 출발점으로 되는 현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였다.

밤낮없이 충성과 효성을 떠들며 《지당하외다》라는 말마디만을 외우던 지당대감들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바른 말을 하던 신하들은 없어졌다.

언제인가 임금이 어느 재상을 불러놓고 탄식끝에 했다는 말도 궁성의 높은 담을 넘어 새나왔다.

《죽자니 죽음이 괴롭도다. 살자니 그 삶이 또한 괴롭도다.》

이쯤 되고보면 왕권이 장차 누구에게 넘어가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였다.

하지만 고지식하고 단순한 정몽주와 리색이네들은 요즘도 리성계세력을 구축하고 왕권을 고수하기 위해 제나름껏 필사적으로 뛰여다니고있었다.

사실상 정몽주와 리색이네들이 리성계패당과 맞서싸운다는것은 연약한 사슴떼와 사나운 승냥이무리와의 접전이나 비슷한것이여서 결

말은 너무도 뻔드름했다. 리성계가 지금까지 정몽주와 리색이네들에게 칼을 내대지 않은것은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고작해야 입방아, 붓방아나 찧어대는 그네들이 그다지 위험하게 생각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또한 자국내는 물론이요 외국에까지 널리 이름이 퍼진 대학자들인 정몽주와 리색을 폭력으로 마구 제거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최대한 자기들의 파에 흡수해보려는 내밀적인 목적도 있었다.

정국이 이쯤 되고보니 조정안에서는 쌀과 뉘를 확연히 가릴수 없고 옥돌과 푸석돌을 명확히 판별할수 없는데 사헌부의 일이라고 유독 잘될리는 만무했다.

아니, 관헌들중에서도 제일로 성정이 혹독한자들로 꾸려진 사헌부 량반들은 리성계의 환심을 사는 일이라면 생사람의 간이라도 뽑아낼 잡도리로 동이랴 서랴 마구 날뛰고있었다.

이런 판세에 리성계의 은밀한 추동으로 잡아들인 역모죄인이요 왜구와 내통했다는 증거까지 뚜렷한 중범인 박위의 사건심의가 과연 결바르게 흘러갈수 있겠는가?…

…박위는 개경에 도착한 그날로 국문장에 끌려나갔다.

워낙 국문장이라면 임금이 직접 나오거나 어명을 받은 최고관리가 나와 주관하는 최대규모의 심문장이였다.

허나 그날의 국문장에는 임금은 물론 요직의 인물들도 보이지 않았다.

마루우에는 사헌부의 대사헌(사헌부의 장관. 종2품, 대부, 헌장 또는 도헌이라고도 함.)이 숯불이 이글거리는 청동화로를 끼고 나와있었다.

그곁의 서탁에는 사헌부의 록사(지금의 서기격)가 지필묵을 앞에 놓고 앉아있었다.

사헌부앞뜰에 들어선 박위는 국문장의 초라한 광경이 불만스러워 사위를 둘러보는데 퇴마루우에서 대사헌의 새된 목청이 눈가루처럼 쏟아져내리였다.

《얘들아, 저놈을 당장 계하에 꿇려라.》

박위의 량옆에 장승목신처럼 뻗치고서있던 우악스럽게 생긴 라졸들이 우르르 덤벼들었다.

박위의 눈에 대뜸 퍼런 불이 달리였다.

《모두들 가만있거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계하

에 꿇어앉을 죄인이 아니라 나라의 당당한 장수요, 경상도원수다. 저리 물러들가라—》

호령 한마디로 일거에 라졸들을 얼어붙게 한 박위는 칼을 쓴채로 퇴마루앞에 다가섰다.

입술을 삐주름히 빼물고앉아 잡아먹을것처럼 박위를 노려보는 대사헌의 해말쑥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청청한 목청을 터치였다.

《도헌령감, 내게 무슨 말을 물으려거든 먼저 계하수(섬돌아래 꿇어앉히는 죄인)로 대접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마디만마디를 물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을테요.》

대사헌의 올롱한 눈은 당장에 깨질듯이 뒤집혀지였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대역죄를 진 네놈이 사헌부의 일을 제멋대로 지휘할셈이냐?! 천하에 이런 괴변이 또 어디 있을고?!…》

박위에게 도리깨를 휘두르고난 대사헌은 재차 말뚝처럼 굳어져있는 라졸들에게 우뢰질을 했다.

《이 밥병신같은 놈들아, 저 역적놈을 당장 꺼얹지 못할테냐?!》

라졸들은 다시 용기를 내여 박위에게 달려들었다. 라졸들은 저마끔 지랄발광을 다했으나 박위의 불같은 호령과 드세찬 몸부림을 누르지 못했다.

종시 박위를 꿇어앉히지 못한 라졸들은 모주먹은 돼지떼마냥 씩씩거리며 하나, 둘 뒤로 물러섰다.

제가 바로 힘내기를 하듯 씨근거리며 기와골이 울리도록 고래고래 소래기를 지르던 대사헌도 세상에 소문난 박위의 배짱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잠시후 그를 세워둔채 심문을 시작했다.

《네놈이 간특하고 흉악한 왜구들과 내통해가지고 역적모의를 했다는게 사실이냐?》

박위는 쑥바구니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결연히 흔들었다.

《나는 꿈에도 역적모의를 해본적이 없소. 여직껏 수많은 왜구들을 쳐죽인 내가, 지금도 애오라지 왜구격멸만을 원하는 내가 어떻게 왜구와 내통할수 있단 말이요?》

대사헌은 얼추보건대 하얀 얼굴에 올롱한 두눈이 반들거리는것이 무척 영민해보였으나 기실 그는 앞뒤가 꽉꽉 막힌 안타깨비로서 그 어

면 현상도 상하좌우로 깊이 따져볼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네가 정말 어떻게 죽고싶어 시작부터 외로 트는게냐?
그래, 네놈의 대마도원정이라는것이 실상은 왜구를 치러나간다고 배를 띄웠다가 일제히 돌따서서 개경을 치자는 수작이 아니란 말이냐?》
《그런 억측의 소리는 대체 어느 놈이 꾸며냈소? 청천백주에 그런 터무니없는 수작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말이요?》
《이놈— 네놈과 배가 맞아돌아가는 대마도령주놈의 편지가 이렇게 두장, 석장씩 내앞에 와있는데도 그냥 생파리잡아뗴듯 할테냐?》
대사헌은 록사가 넘겨준 종이장을 세차게 흔들어보이며 경망스럽게 발까지 탕탕 굴렀다.
박위의 정연한 론리와 완강한 부정을 교활한 적수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굳게 확신하고있는 대사헌은 자기대로 분이 치밀어오른것이였다.
박위는 왜구들의 간교한 수작을 한사코 그대로 믿으려드는 암매한 대사헌이 가증스럽기 전에 안타깝고 답답했다.
인간의 진정을 기만으로 인식하는것은 그 어떤 무지나 암둔이기 전에 신성모독으로서 일종의 도덕적범죄행위다.
그러한 범죄행위가 평민들사이에 생활사말사를 놓고 벌어진대도 후과가 작지 않을텐데 관헌들 호상간에 국사를 놓고 감행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기겠는가.
자고로 암둔한 관리들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범죄로 하여 나라와 백성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슬픔을 얼마나 많이 당해왔던가?!…
잠시 괴로운 사색을 이어나가던 박위는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해야 할 시각임을 새삼스레 절감하였다.
무지와 암둔의 횡포한 도전앞에서 잠시라도 정신력을 잃는다면 지금껏 고수해온 정의와 순결은 역적의 외피를 쓰고 매장될것이였다.
박위는 순시도 리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정신을 도사리며 준절한 어조로 또박또박 그루를 박아 말했다.
《…그런 미심쩍은 편지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수 없소만 령감은 정녕 제 나라 장수의 말보다 좁쌀여우처럼 잔꾀가 말짱한 왜구들의 거짓수작을 더 믿소?
그렇다면 내 한마디만 물웁시다.

오늘은 경상도원수를 모합하는 왜구들의 편지가 나돌아서 무작정 나를 잡아왔는데 만약 래일에는 도헌령감을 모해하는 편지가 들어온다면 그땐 어찌하겠소. 그때도 왜구들의 수작만을 진실로 믿고 본인의 진술은 알은체도 없이 령감을 포박하고 문초하고 핍박한다면 령감의 심정은 어떨것 같소?!

내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조정의 관리들이 정의와 진실에 립각할 대신 상관의 비위를 맞추고 그 어떤 낯을 내기 위해 왜구들의 롱간질에 놀아난다면 나라일도 크게 망칠것이며 자신의 앞길도 심히 그르치게 될게요.》

대사헌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얼추 말을 꺼내지 못하는데 그것은 필시 대답말이 궁할 때마다 드러내군 하는 그의 점잖지 못한 버릇인듯싶었다.

허나 아래사람의 정당한 견해와 요구앞에서 권력배일반이 그러하듯 대사헌도 곧 당치도 않은 분을 터치며 생억지를 쓰기 시작했다.

《무엇이 어째?! 네가 죄인의 몸으로 헌부의 장관을 희롱하는거냐? 워낙 네놈은 말로 곱게 일러서는 안되겠구나.》

박위는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평생에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단 한사람도 희롱해본 일이 없소. 나는 지금 정의와 진실에 립각해서 사건의 진상을 옳게 밝히자는게요.》

박위는 말끝마다 자신을 《나》라고 자칭했다.

죄인이 죄과를 따지는 조정의 관리앞에서 자기를 나라고 칭하는것 또한 엄중한 죄로 되건만 박위의 련속적인 공세에 위압도 되고 얼떨떨해지기도 한 대사헌은 한번도 《나》라는 소리에 왼심을 쓰지 못했다.

박위는 숨돌릴틈없이 계속 강세를 보이였다.

《나는 먼저 왜구의 편지가 어떻게 되여 내 손에는 한번도 닿지 않고 (사다께의 편지는 내게 보내는것이라고 하는데) 련속 조정에만 날아드는지 그 연유부터 캐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내가 만일 정말로 왜구와 내통한 사람이라면 왜구들도 상당히 조심해서 련계를 취했을텐데 어째서 내 손에는 단 한번도 그런 편지가 와닿지 않았는가.

혹시 도헌령감에게 편지를 날라온 사람이 왜구와 내통이 있는게 아니요?!

그놈이 나를 모합하려는 대마도령주와 짝자꿍을 하는 나쁜 놈이 아닌가 말이요?》

대사헌에게 있어서 박위의 맵짠 질문은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왜구의 편지라는것은 사실 김해부사가 보내온것으로서 리성계가 은밀히 자기에게 넘겨주었었다.

그런 사정으로 하여 대사헌은 편지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자초지종 따져볼수 없었다.

그것을 캐보면 진상규명에는 매우 유리하겠지만 그자체가 벌써 리성계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되는것이라 극력 삼가해야 했다.

하여 대사헌은 거북한 구석은 다 밀어던지고 자복하라는 소리만을 곱씹어뇌이며 강짜를 부리는데 박위는 바로 그 미타한 고리를 들춰가지고 돌입하는것이였다.

대사헌은 어느 정도 속이 찔리기도 하고 가위가 눌리기도 했으나 그것으로 하여 더욱 노기가 동해올랐다.

그는 뜰아래 벌려선 라졸들을 사납게 훑어보며 또다시 아츠러운 고함을 질러댔다.

《저놈이 아직도 올곧게 자복을 할 대신 제쪽에서 도리여 관장을 우롱하고 타매하는것은 나라법을 우습게 아는 까닭이다.

되게 다듬어가지고 다시 말을 물어야겠다. 이봐라, 저놈에게 사정두지 말고 된매를 안겨라.》

대사헌의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물에 적신 몽둥이를 끄나들고 서있던 집장라졸들이 우르르 박위에게 달려들었다.

뜰앞에 깔려있던 하얀 눈가루가 후루루 날아올랐다. …

…그날로부터 이러구러 보름 남짓한 기일이 흘러갔다.

그사이 박위는 무려 십여차나 모욕적인 심문과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으나 매번 변함없이 자기의 죄상을 전면부정하고 진상규명을 완강히 요구했다.

그럴수록 대사헌은 억지와 기광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대사헌은 반드시 박위의 자복을 받아내야만 리성계의 눈에 긴한 존재로 어여삐 보일수 있었다.

만약 자기가 박위의 기개와 론리앞에 쭈그러든다면 그때부터 파멸은 시작될것이였다.

하여 두사람은 각각 자기나름의 목적과 지향을 품고 필사적으로 상

대에게 달려들었다.
정의는 량심과 진실을 가지고, 부정의는 권력과 억지를 가지고…
박위가 개경전옥에 갇힌 때로부터 꼭 스무날이 되는 날 아침.
대사헌은 또다시 박위를 심문장으로 끌어내였다.
《네 이놈, 오늘도 이실직고를 하지 않고 삐뚜루 나올테냐?》
대사헌은 첫시작부터 을러대며 여느때없이 사나운 기세를 보이였다.
박위는 태연하게 얼굴을 들었다.
이제는 대답말을 꺼내기도 지겨웠다.
하지만 말을 해야 했다. 해도 더 크게, 더 많이 불을 토하듯 해야 했다.
만일 이 지긋지긋한 대결전에서 한걸음이라도 맥을 놓고 물러선다면 자신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원정준비라는 거대한 애국의 탑은 졸지에 봄날의 얼음산처럼 무너질것이였다.
목숨은 버린다 해도 그것만은 잃을수 없었다.
박위는 거밋거밋한 피딱지가 엉켜붙은 험상한 입술을 가까스레 터치였다.
《나는 어제도 이실직고를 했고 오늘도 있는 그대로 바른말을 하는거요.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일구월심 왜구를 깡그리 격멸하여 나라의 수치를 씻고 민족의 존엄을 만세에 떨치려 했소.
그런데 령감은 수상쩍기 그지없는 왜구의 편지만을 부작처럼 휘두르며 그예 나를 잡으려 하고있소.
생각해보오. 흉모를 꾸미는데 이골이 난 왜구들이 그래 그 정도의 거짓편지도 만들어내지 못할것 같소?!》
박위의 피타는 웨침소리는 휑뎅그렁한 앞마당을 즈렁즈렁 울리였다.
무엇인가 호기있게 짓뭉개는 형국을 해보이려던 대사헌은 하얗고 매끈한 주먹을 허공에 매단채 독 쐬운 개구리처럼 찔금 움츠러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박위의 주장이 별로 이상해보이지 않았다.
그렇다 하여 리성계의 지시를 거역할수도 없었고 자기의 체면을 버릴수도 없었다.
좋기는 무슨 실오리만 한것이라도 새로운 끄트머리를 잡아내는것인데 그런것은 도무지 찾아낼수 없었다.
대사헌은 올롱한 눈을 깜빡거리며 주저주저하는데 박위는 청청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계속 뒤를 조이였다.

《령감도 잘 알겠지만 나라는 큰 산이요. 이내 몸은 한점의 티끌이요.

나는 이미 나라에 내 한몸을 티끌처럼 바칠것을 맹세하고 손에 검을 잡은 사람이요. 한고로 나는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한적이 없소.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것은 나라의 존엄과 위명을 천하에 떨치려는 나의 초지,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의 애국의지가 허랑하게 꺾이는것이요.

령감은 지금 왜구와 소인배들의 롱간질에 넘어가 기어코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래 이처럼 무지몰각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를 오늘 세상과 후세사람들앞에 책임질수 있소?》

박위의 호령에 가까운 질책을 또 하나의 커다란 모욕으로 감수한 대사헌은 너무도 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뒤일은 어찌 되든 모욕받은 설분을 속시원히 하고싶은 저급한 욕망이 설설 끓어번지였다.

대사헌은 성난 문지기개마냥 희끗희끗한 코수염을 빳빳하게 곤두세우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저놈이 줄창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을 때는 아직 매가 무른탓이다.

밥을 토할 때까지 대곤, 중곤 가리지 말고 사그려조겨라!》

원래 형구의 하나인 곤에는 대곤, 중곤, 소곤, 치도곤이 있는데 대곤은 2품이상의 고위관리에게, 중곤은 고을원이상의 관헌에게 그리고 소곤은 첨사, 만호, 별장 등에게 적용하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요즘세월은 일일이 조항을 따져가며 법을 시행할만큼 정연하지도 못한데다 발끈하기 잘하는 도헌령감께서 잔뜩 골딱지가 난 때라 중곤이고 대곤이고 가릴게 무엇이랴.

철썩철썩… 넉가래같은 방망이들이 언거번거로 솟아오르고 언거번거로 내리박히였다.

피방울이 튀여오르고 살점이 뿌려져나갔다.

박위는 금시 어깨가 으깨지고 정갱이가 바사지는듯 했으나 이를 악문채 신음소리 한마디 흘리지 않았다.

허나 보름여의 나날 내처 식음을 전폐하다싶이 한채 모진 악형만을 당해온 몸이라 오래 견디지 못하고 눈판우에 나동그라지였다.

바로 그 순간 대사헌의 뇌리속으로는 불쑥 어제 밤 대궐에서 만났

던 리성계의 흐린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 밤 궁중에서는 연회상을 물린 뒤 녀악(고려 중기이후 녀성예술가들에 의해 진행되던 궁중음악과 무용)이 펼쳐지였다.

무엄하게도 임금과 나란히 앉아 삿대질까지 해가며 왕에게 무슨 훈시같은것을 늘어놓던 리성계는 불쾌해진 얼굴로 만장을 휘둘러보았다.

이때를 놓칠세라 이쁘게 생긴 얼굴에 화사스러운 차림을 한 계집들은 은방울굴리듯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껏 뽑아올리며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물새처럼 미끄러져 날기도 하며 온갖 자태를 다 펼쳐보이였다.

성계는 계집들쪽은 보지도 않고 대신들속에 끼워앉은 대사헌을 거드름스러운 손짓으로 불렀다.

연회때 조금 과하게 마신 술바람에 끄떡끄떡 졸고있던 대사헌은 성계의 손짓 한번에 정신이 번쩍 들어 게질게질 흘러내리는 느침을 홱 털어버리고 썰썰기여 당우에 올라섰다.

한나라의 지엄한 임금이 바로 앞에 있건만 그를 코흘리개 동네애녀석 보듯 얼핏 살펴보고난 대사헌은 성계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리성계 역시 임금 같은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사헌에게 말을 걸었다.

《령감! 박위에 대한 치죄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게요. 듣자니 왜구의 편지라는것이 조정에 들어온 경로가 확연치 않다던데 너무 과하게 치죄를 하다가 혹여 말밥이 생기거나 무죄로 판명된다면 도리여 사헌부가 탄핵을 당할수 있소.

잘 알아서 과실이 없도록 하오.》…

그때는 술기운에 휘감기여 얼떨떨할 때라 그저 박위를 바싹 다불러대라는 소리쯤으로 여겼었다.

헌데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니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였다.

리성계의 말속에는 분명 역모죄의 증거라는것이 명확치 못하니 박위를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는 충고가 진하게 섞여있었다.

삽시에 방향감각을 상실한 대사헌은 꼼짝없이 굳어진채 올롱한 두 눈을 쉬임없이 깜박거리였다.

며칠전까지만도 박위의 자복을 얼른 받아내지 못한다고 기름을 짜던 리성계가 이 무슨 일인가.

이제와서는 제가 직접 넘겨준 증거물의 경로까지 명확치 않노라고

수염을 빡 내리씻고 아닌보살을 하니 나는 대체 어쩌라는건가?!…
사실 이때 리성계는 박위가 위험하고 불편한 존재이기는 하나 반대파세력에 가담한 인물은 아닌고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는 보지 않았다.
헌데 조호백이 하도 극성스럽게 뢰물을 섬겨바치며 들쑤시는 바람에 그럼직한 증거가 생겼을 때 박위를 제창 제껴버리는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였다.
박위를 잡아올리자 예상밖으로 사방에서 항의가 일어났다.
조정안에서는 쟁쟁한 중진관료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칠석과 김종기가, 조정밖의 지방에서는 전도유망한 장수로 이름난 김종연과 최단이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일치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 박위를 모함한 왜구의 편지가 조정에 들어온 경로부터 세세히 빠개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런데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숱한 백성들은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박위의 무죄를 론증하는 등장(관료기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내는 신소장)을 내돌리고있었다.
최칠석이나 김종기, 김종연과 최단과 같은 만만치 않은 관리들의 의사도 무시할수 없었지만 백성들의 견해도 마구 쓸어덮어버릴수도 없었다.
리성계는 진퇴량난에 빠지였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보아야 이번에도 역시 조호백은 그 어떤 조급증에 사로잡히여 서툴게 일을 꾸민것이 틀림없었다.
조호백의 편을 들어 수많은 관리들과 백성들을 또다시 처형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사실 시골의 개천에서 날뛰는 한마리의 송사리에 불과한 조호백은 리성계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두둔해주어야 할 재목일수는 없었다.
사헌부에서는 애초에 박위에게 역적모의죄와 함께 그 무슨 절간파괴죄라는것도 덧붙이였으나 리성계는 그것 역시 크게 꼬집어들수 없었다.
성리학파 관리들은 모두 불교를 배척하는 유교계 인물들이요, 리성계는 그들로부터 리론적인 옹호와 찬양을 받는 사람이였다.

따라서 리성계가 박위의 절간파괴죄를 들고나선다면 그것은 벌써 불교를 두둔하고 장려하는것으로 될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리론정신적진지를 스스로 차버리는 행위로 될것이였다.

리성계는 립장이 딱해질 때마다 매번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모든 책임을 사헌부에 전가시키고 자기는 슬그머니 박위의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심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더 큰 악감을 품었을 박위는 후날 자신이 직접 고급한 술수를 써서 제껴버려야 했다.

그러면 장차 조호백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성계가 보건대 호백은 아첨기가 많고 눈치가 빨라서 그런대로 쓸만하였으나 사람이 잘고 경망스러워 큰일을 칠만 한 위인은 못되였다.

아니, 이런 위인을 자기의 일에 섞어넣었다가는 사사건건 실패하기나 쉬웠지 크게 덕을 볼것 같지 않았다.

호백은 매양 변함없이 리성계를 따르겠노라고 귀맛좋은 맹세를 다지군 했으나 조민수의 축출로 하여 자기에게 앙심을 먹고있을수도 있었다.

이리의 상판을 보고서야 그놈의 속마음이 흐렸는지 개였는지 뉘라서 알겠는가?!…

만약 박위의 역모사건이 허위로 판명된다면 성계는 호백에게도 큼직한 죄를 씌워 (사실 역모가 아닌것을 역모로 고변하는것은 최대의 범죄였다.) 정계에서 완전히 매몰해버릴 결심이였다. …

…대사헌의 빈약한 두뇌로써는 리성계의 능활하고 변화무쌍한 계교를 륜곽조차 짐작할수 없었다.

허나 민물고기치고 감탕내가 나지 않는 놈이 없듯이 대사헌도 조정의 모든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지모는 저급해도 벼슬살이리치에는 여간 밝지 않았다.

대사헌은 리성계의 속내는 똑똑히 알수 없었으나 박위가 잘못되는 경우 자기에게 운명적인 날벼락이 떨어지게 된다는것만은 분명히 예감할수 있었다.

그러고보면 리성계의 은유적인 충고를 그릇 판단하고 밸이 동하는 대로 날뛰면서 박위를 때려눕힌것은 참으로 잘못된 계책이였다.

대사헌은 즉시 박위를 조기라고 한 자기의 죄는 덮어두고 매를 친 라졸들의 죄만을 남산만큼 불궈내리라 생각하였다.

갑자기 불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라졸들을 쏘아보던 대사헌은 미친놈처럼 왁작 고아댔다.
《천하에 불한당같은 놈들아, 누가 멀쩡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으라 했느냐?
만일 경상도원수가 병인이 되거나 숨이 진다면 네놈들을 모두 눈망울을 뽑아서 원악도로 귀양을 보낼테니 그리 알아라.
예봐라— 어느 한놈 얼른 뛰여가서 랭수 한그릇을 떠다가 경상도원수에게 먹여보아라.
아니다, 랭수가 아니라 따끈하게 덥힌 술을 한대접 가져다가 먹여보아라.》

11

개경의 전옥이 중앙감옥이기는 하나 이 집 역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든 시설이라 살창 몇개를 건숭 박아넣은 창으로도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사개가 물리지 않은 문틈으로도 눈가루가 훅훅 끼쳐들어와 한지나 다름없이 추웠다.
하지만 짚검불우에 아무렇게나 몸을 뿌리고 누워있는 박위는 거의나 추위를 의식하지 못했다.
몸은 어디라없이 바늘로 찌르고 불로 지지듯 쓰리고 따가웠으나 그것 역시 세세히 감각되지 않았다.
뚜렷이 감촉되는것은 여직껏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운명적인 절망과 공허감뿐이였다.
박위는 캄캄한 옥안이요, 누구도 마주한 사람이 없건만 절통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막막한지고… 옳은 리치가 통할 길이 없고 바른 마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 나는 결국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아무런 뜻도 펴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허무하게…》

문득 옥살창사이로 여러 줄기의 달빛이 꽂히듯 날아들었다.

감방벽과 땅바닥이 희번하게 밝아지였다. 떠오르는 달인지 기우는 달인지 알수 없었으나 여하튼 눈앞이 조금 밝아지니 마음속도 다시 개이는듯싶었다.

박위는 무의식중에 슬며시 손바닥을 펼치였다.

피묻은 손바닥우에 은회색달빛이 소리없이 올라앉았다.

못 잊을 추억의 페지들이 알알하게 가슴속을 허벼파며 두서없이 번져지였다.

박위는 스르시 눈을 감으며 입속으로 조용히 뇌이였다.

(그날 그때도 달빛밝은 밤이였지. …)

그렇다. 오천이네들이 보계산과 굴암산, 신어산과 불모산의 절간들에서 먼지를 퍼가지고 염초장으로 돌아오던 그 시각에도 달이 밝았다.

이제는 퍽 오래전 리옥의 편지를 곱씹어 읽으며 뜨겁게 근질거리는 가슴을 달래던 그날그때도 사랑방 뙤창으로는 은사같은 달빛이 교교히 흘러들었다.

한일생 잊지 못할 달밤은 그날뿐이 아니였다.

박위의 뇌리속으로는 정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희푸른 달빛에 어루싸이여 연줄연줄 다가왔다.

자기와 함께 옥으로 가겠다고 울부짖던 윤통의 질그릇같이 시꺼먼 얼굴.

목숨바쳐 자기를 돕겠노라며 비장한 감회에 싸이여 시구절을 읊던 최칠석의 깨끗하면서도 강건한 모습.

죽기를 각오하고 원정에 나서겠노라고 결연히 다짐하던 김종연의 무게있는 모습…

박위의 뇌리속으로는 엊그제 저녁에 있은 전혀 뜻밖의 일도 새록새록 떠올랐다.

저녁밥을 궁져든 여삼은(그는 개경에 올라와 취금이와 함께 박위의 옥바라지를 하고있었다.) 여느때없이 설레발을 떨며 살창앞에 다가서더니 울먹거리는 어조로 박위를 찾았다.

박위는 심상한 마음으로 살창앞에 다가섰다.

헌데 이 어인 일인가.

희푸른 달빛이 깔려있는 앞마당에는 여삼이 혼자가 아니라 숱한 사

람들이 웅기중기 서있었다.
그들은 박위를 띄여보자 눈물어린 얼굴을 번들거리며 욱 살창앞으로 모여들었다.
죽촌의 행수로인, 구서방과 옥보, 고들이와 《만사태평》… 모두들 낯익은 얼굴들이였다.
박위는 살창을 움켜쥔채 와짝 청을 높이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모두들 어떻게 예까지 찾아왔소?》
모두들 끅끅 울음을 삼키며 절인사를 하고나서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잠시후 행수로인이 정중한 자세로 격식바르게 말문을 열었다.
《그지간 장군께서 옥고를 치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이까?》
구서방이 질적한 눈굽을 찍어내며 행수로인의 뒤를 받치였다.
《소인들은 장군의 존안을 뵙고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그보다는 장군께서 입은 죄목이 터무니없는것이니 한시바삐 내놔줍시사 하는 내용의 등장을 바치는 일이 더 급하여 황망히 상경하였소이다.》
박위는 대번에 속이 울컥 괴여올랐다.
《그러니 모두들 내 일때문에 이 추운 때 그 먼길을 부러 왔단 말이요?》
《그렇소이다.》
모두들 축축하게 젖은 소리로 대답했다. 박위는 목이 꽉 갑겨들었다.
역적모의죄로 옥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등장을 돌린다는것은 여간만 위태한 일이 아니였다.
자칫하다가는 등장에 이름을 박아넣은 사람들까지 모두 역적모의죄에 걸려들수 있었다.
헌데 이들은 그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있는가.
어쩌자고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린단 말인가.
박위는 석쉽하게 갈린 소리로 말했다.
《그러지들 말라구. 내 일은 등장이나 돌려서 풀릴 일이 아니야.
여차하다가는 모두 해를 입을수 있으니 등장을 걷어가지고 당장 내려가라구, 당장!》
구서방에게 선수를 떼우는 바람에 은근히 속이 까부라들었던 옥보

는 박위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제꺽 입을 열었다.
《소인네들은 등장때문에 모두 옥에 갇혀 옥귀신이 된다 해도 그냥 내려갈수는 없소이다. 소인네들의 등장은 벌써 조정에 입문이 되였소이다.》
《그렇소이다.》
모두들 옥보와 한마음이라는듯 입을 모아 웨치였다.
《벌써 입문이 되였다고? 세상에 이런 변이 또 어디 있을고?!…》
박위는 너무도 기가 막히여 입을 하 벌린채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이나 얼벌벌한 가슴을 안고 벙벙해있던 박위는 축축하게 젖은 어조로 화제를 돌리였다.
《헌데 오천이가 어째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껏 말참녜를 할 기회를 엿보던 여삼은 고들이와 《만사태평》이 나설세라 서둘러 대답했다.
《예, 오천대정은 군영에 그냥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삼은 더이상 말을 잇지 않았으나 박위는 오천이가 어찌하여 이 사람들의 행렬에 끼우지 않았는지 대번에 짐작이 갔다. 오천은 분명 김해땅에 박혀있는 왜구의 세작을 제 손으로 잡아내기 위해 군영을 뜨지 못한것이였다.
모두들 제나름의 충동과 흥분에 싸여 잠시 덤덤해있는데 그것이 못마땅하여 연신 헛기침을 끌어올리던 《만사태평》이 큼직한 술방구리를 살창틈으로 밀어넣으며 화제를 돌리였다.
《변변치는 못하오나 소인들이 추위를 막을수 있는것들을 가지고왔소이다. 받아주시오이다.》
그제서야 고들이도 정신을 차린듯 부근부근한 털토시를 들이밀며 웅얼거렸다.
《서툰 솜씨로 만든것이라 부끄럽기 이를데 없소이다.》
행수로인도 묵직해보이는 베보자기를 힘겹게 쑤셔박으며 송구해하였다.
《소인네 촌에서도 되지 못한 음식이나마 조금 마련해왔사온데 나무람마시고 받아주소이다.》
박위는 아까부터 무슨 말이든 하고싶었으나 혀가 굳어지여 좀처럼 말마디를 굴려낼수 없었다.

살창을 떼고 들어서기라도 할듯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면서도 바투바투 다가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갈수록 뿌잇해졌으나 그들의 마음속 진정은 갈수록 선명하게 그려지였다.

그들만이 아닌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심장의 웨침소리는 가슴속에 커다란 공명을 일으키며 즈렁즈렁 울리는듯싶었다.

《장군께서는 왜구격멸을 위해 반드시 군영으로 돌아오셔야 하오이다―》…

박위는 슬며시 고개를 내리떨구었다.

달은 벌써 기울어졌는지 손바닥우의 달빛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리였다.

허나 추억을 부르는 은은한 달빛은 마음속 깊이로 하염없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이제는 퍽 오래전 어느해 정월대보름날 저녁이였다.

소년 박위는 희푸른 달빛이 얼비치는 조용한 글방에 앉아 따분하기그지없는 옛글을 읽고있었다.

문득 문밖에서 어머니의 자애에 넘친 음성이 부드럽게 울려왔다.

《이 애 위야! 잠시 책을 덮어두고 밖으로 나오너라. 아버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박위는 분분히 밖으로 나왔다.

천지간에는 은회색달빛이 가득차넘치는데 중천에 높이 뜬 휘영청 밝은 달은 벙싯벙싯 웃으며 꿈많은 소년에게 래일의 희망을 소리없이 묻고있었다.

그리 멀지 않게 보이는 앞마을에서는 방금 배고사(룡왕신에게 새해에 풍어를 맞게 해달라고 정월대보름날에 지내는 제사)를 지낸 어부들이 북과 꽹매기를 두드리며 봉죽놀이를 하고있었다.

즐거운 배사람들의 놀이소리는 운치있게 달밤의 대기를 적시며 울려왔다.

《어야디야, 어야디야. 빨리 저어라. 바다로 나가잔다. …》

선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노래소리, 북소리, 꽹매기소리가 와자자하게 울리였다.

봉죽놀이에 신명이 나서 벙글벙글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환히 보이였다.

거들거들 곱새춤을 추며 돌아가는 남정들.

나풀나풀 고사리춤을 추며 미끄러져나가는 녀인네들…
발최뚝에서 쥐불놀이를 하다말고 불을 놓던 홰를 그대로 추켜든채 봉죽놀이판으로 뛰여가는 조무래기들의 모양도 환히 안겨왔다.
박위는 들썽거리는 가슴을 눌러잡고 아버지곁에 다가섰다.
생각깊은 표정으로 달빛에 젖은 앞마을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박위에게 고개를 돌리며 나직이 물었다.
《위야, 너 지금 무슨 책을 읽고있었느냐?》
《예, 〈효경〉의 〈신체발부는 수지부모하니 불감훼상은 효지시야〉라는 대목을 읽고있었소이다.》
《그래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 부모가 준것이기때문에 터럭 하나 상하지 않는것이 효도의 시작이란 뜻이오이다.》
아버지는 아무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마을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아버님께서 왜 이러실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걸가?)
박위의 가슴은 은근히 조여들었다.
이윽하여 아버지는 달빛이 어리여 더욱 청수해보이는 얼굴을 돌리더니 어찌 들으면 준절하고 어찌 들으면 곡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위야, 이 아버지는 지금껏 네가 문장으로 우리 가문을 빛내기를 바래서 너에게 고금의 문장들을 열심히 통독하게 했다. 헌데 이제와서 내 생각은 달라졌다.
너도 알겠지만 지금 북방에서는 늑대무리같은 외적들이 지분거리고 여기 남쪽에서는 이리떼같은 왜구들이 쏠라닥거리고있지 않느냐.
이러한 시국에 민족의 남아로 태여나 허구헌날 책장이나 번지고있는게 과연 옳겠느냐?
사처에서 외적들이 칼을 들고 날뛰는데 붓을 들고앉아 문장이나 익혀서야 되겠느냐 말이다.》
박위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대뜸 짐작하였다.
아버지는 필경 오늘날의 사내는 붓을 들것이 아니라 칼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려는것이였다.
저렇듯 흥겨운 백성들의 노래소리를 붓으로 그려낼것이 아니라 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려는것이였다.

박위는 진정 기뻤다.

기실 그것은 이미 자기가 아버지에게 아뢰고싶었던 일생일대의 소원이였고 최상최대의 희망이였다.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은 계속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같은 때 진정으로 높은 뜻을 지닌 사내라면 문장으로 립신양명할것을 꿈꿀것이 아니라 검을 들고 전장에 나가 나라와 백성을 지킬 열망으로 심장을 태워야 한다고…

내 생각은 이러한데 네 결심은 어떠냐? 이제부터라도 병서를 탐독하고 무술을 익히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박위는 힘차게 대답했다.

《아버님, 미거한 소자도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었소이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기쁘고 감격할뿐 어찌 다른 생각이 있을수 있겠소이까?》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아버지의 코수염밑에서 함박꽃같은 웃음이 고요히 피여났다.

《장하다, 위야. 나는 육체의 터럭 하나 상하지 않는게 효도의 시작이 아니라 검을 잡고 전장에 나서는것이 참된 효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박위는 입이 아니라 높뛰는 심장으로 대답했다.

《아버님의 뜻깊은 말씀을 일생 골수에 새기고 평생을 검과 함께 전장에서 살겠습니다.》

이어 박위를 데리고 사랑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주안상을 차려오라고 일렀다.

어머니는 벌써 이런 일이 있을줄 알고있은듯 이내 성의있게 차린 술상을 들여왔다. 아버지는 박위앞에도 잔을 놓아주었다.

박위는 여적 마셔본적 없는 술을 아버지앞에서 마시는것이 례의에 어긋나는듯 하여 거듭 잔을 밀어놓았다.

과묵하고 근엄하나 세속의 까다롭고 허식적인 례의같은것은 우습게 아는 대활한 아버지는 기어이 박위의 손에 잔을 쥐여주었다.

《세상의 헛된 례의야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집안의 례법대로 살자꾸나.

나는 네가 그토록 장한 뜻을 가지고있는것도 기쁘고 또 부자일심동

체도 기쁘다.

그래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것이니 어서 잔을 비워라.》

술이 철철 넘쳐나는 잔을 받아든 박위는 조금 모로 꺾어앉아서 모금모금 술잔을 기울이였다.

아버지의 기대와 믿음대로 기어이 이 나라를 철벽으로 지키는 백전불패의 장수가 되리라는 억척같은 맹세가 전신의 피줄기를 활활 태웠다.

이날로써 박위의 소년시절은 때이르게 끝났다. …

살창과 옥문틈새로 게을러빠진 겨울의 새벽빛이 느릿느릿 흘러들고 있었다.

여느때없이 가볍게 몸을 일으켜세운 박위는 지척지척 살창앞으로 다가갔다.

눈덮인 앞마당과 마당앞으로 연연 겹쳐있는 전옥들의 지붕이 희끄무레하게 안겨왔다.

아직은 모든것이 선명치 않은 어스레한 대기속으로 차거운 새벽바람에 불린 눈가루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고있었다.

박위는 창살을 힘껏 틀어잡은채 저 멀리 고향하늘가로 마음의 시선을 날리였다.

청수하면서도 근엄한 아버지의 얼굴모습이 생생히 안겨왔다.

이 아침도 고향마을의 나지막한 뒤산기슭에 조용히 누워계실 아버지.

몸은 비록 봉분속에 들었지만 이 새벽도 차거운 겨울바람에 그날의 절절한 당부를 뜨겁게 실어보내고계시는 아버지…

박위의 가슴은 열탕처럼 끓어올랐다.

(아버님, 불효한 소자는 노상 전장으로 나돌아다니느라고 남들이 다하는 막도 짓지 못했소이다.

그런데도 언제 한번 이 아들을 꾸짖은적 없으신 아버님께서는 오늘도 미거한 소자의 시들어가는 마음속에 마침 맞게 찾아오시여 또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황공한 마음, 고마운 심정 실로 한량없소이다.

소자는 아버님의 그날의 당부와 믿음을 죽어서도 잊지 않을것이며 아버님앞에 다진 그밤의 맹세를 기어이 실행하고야말겠소이다. …

나와 함께 원정을 맹세하고 준비를 다그쳐온 군영의 군사들과 백성들이여, 나와 더불어 원정의 그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기로 한 지우들

이여, 그대들의 기대와 성의를 내 어찌 순시인들 잊을수 있으며 저버릴수 있겠소.

내 죽어서도 그대들과 한 맹약을 지킬것이오니 부디 믿어주오. …)

새벽의 하늘은 아직 캄캄했다.

마음의 시선으로 캄캄한 하늘에 새별처럼 어리여 빛나는 정다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던 박위는 부지중 장지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든든한 어금이로 손가락끝을 힘껏 물어뜯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물씬 떠오르더니 시뻘건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모진 동통이 손가락을 거쳐 팔전체에 엄습해왔으나 박위는 이를 앙다문채 자기의 덞어진 가슴우에 피흐르는 손가락을 가져다댔다.

한자두자 피로써 글을 새겨나갔다.

《일심원정》

12

저벅저벅…

여러 사람이 전옥앞마당의 눈을 밟으며 성급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위는 비몽사몽간에 스르시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살창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였다.

살창앞에 다가선 사람들의 륜곽은 어룽어룽하게 알리였으나 그들의 얼굴모상은 뚜렷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의식이 흐릿한데다 살창밖의 사람들은 전부 밝은빛을 등에 지고있는탓이였다.

(헌부의 라졸들이 또 나를 내가려고 왔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

누워 추한 꼴을 보여서야 안되지.
어서 일어나서 내 발로 나가자.
헌데 저놈들이 오늘은 어인 일로 창앞에 늘어붙어서 들어올념을 않는고.
이제는 저것들까지 나를 조롱할셈인가?!
그건 어찌 됐든 오늘은 완강하게 리성계나 전하의 국문을 요청하자.
대사헌과 아무리 골싸움을 해봐야 소득이 있을리 없다. 리성계나 전하앞에서 나의 청백과 원정의지를 밝혀야 한다.)
박위는 쇠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세웠다.
전신이 들쑤시고 눈앞이 핑핑 돌아갔으나 강잉히 한발두발 걸음을 내짚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걸음은 옥문쪽이 아니라 살창앞으로 옮겨지였다.
불현듯 살창밖에서 너무도 귀에 익은 음성이 울음소리와 엇섞이여 날아왔다.
《…어쩌다 장군께서 이 지경이 되였소이까. 어쩌다.… 어흐흑.》
박위는 흠칫 몸을 떨며 굳어지였다.
이게 누구의 소리인가?
여삼의 목소리가 아니였다. 아침저녁으로 때식을 날라들이는 여삼이가 새삼스럽게 울고불고할 까닭도 없었다.
그렇다면 오천의 목소리인가.
아니, 오천은 지금 김해에 남아 새로 무은 전함들과 화약창고를 지키는 한편 왜구의 세작을 잡기 위해 뛰여다니고있을것이다. 헌데 웅글진 음성은 아무래도 오천의 목소리와 비슷하지 않는가?!
으흑, 이번에는 어떤 녀자의 짓눌린듯 한 흐느낌소리가 간헐적으로 날아들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고?
무슨 연유로 계집사람이 옥에 왔으며 어이하여 오자바람 울음부터 터치는것인가?!
살창앞에 다가선 박위는 궁금증이 가득한 시선으로 밖을 내다보며 다급히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누구들인가?》
어떤 젊은 녀자가 나부시 수그렸던 고개를 오연히 들어올리였다.

눈물매닥질이 되기는 했으나 유순한 색조와 청순하면서도 도담한 기운이 어울려도는 젊은 녀자의 백옥같이 흰 얼굴이 눈부시게 안겨왔다.
그는 분명 자기의 안해 최씨였다.
10여년전 왜구의 란을 만나 죽은 최씨가 환생하여 옥앞에 나타난것이였다. 이 어찌된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들뛰는 가슴을 안고 녀인의 낯익은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던 박위는 녀자의 목언저리에 박혀있는 까만 기미를 찾아보는 순간 소스라치듯 놀라며 창밖으로 손을 내뻗치였다.
반가움과 놀라움이 극에 달했을 때만이 울릴수 있는 거의나 기괴한 음성이 터져나갔다.
《이게 리옥이 아닌가, 엉?!》
할끔하게 살이 깎이여 다소 생소해보이기는 했으나 처녀는 분명 살아있는 리옥이였다.
대마도에 잡혀간 리옥이, 이제는 필시 저세상 사람이 된줄로 알고있던 리옥이가 어떻게 되여 여기 개경의 옥문앞에 나타났단 말인가? 벅찬 환희로 하여 심장은 금시 흉곽을 터뜨리고 튀여나올듯이 세차게 높뛰였다.
그런중에도 도저히 풀릴것 같지 않은 의문이 그냥 샘처럼 솟구쳐올랐다.
리옥은 눈물자욱이 번들거리는 흰 얼굴을 다시금 나부시 숙이며 더 한층 세찬 오열을 터뜨렸다.
《으흐흑… 리옥이옵니다. 죄많은 소녀 리옥이 장군께 문안드리옵니다.》
《과연 리옥이로군. 헌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살아서 예까지 올수 있었나 말이야.》
모든것이 꿈아닌 현실임을 저저이 느낄수록 기쁨과 환희는 가슴버겹게 몰밀려들었다.
문득 만난고초를 헤치고 오늘에 이르렀을 리옥의 지난 생활이 막연하게나마 짐작되자 가슴은 오리오리 터갈라지는듯싶었다.
더운침을 삼키며 사무치게 그립던 리옥의 청순한 모습을 뜯어보던 박위는 그가 미처 대답말을 하기도 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왜구의 소굴을 박차고 예까지 오자니 속인들 얼마나 썩이고 고생인들 얼마나 했을텐고…
사내대장부도 쉬이 헤치지 못할 험난한 길을 아녀자의 몸으로 뚫고 왔으니 정녕 갸륵하도다.》
리옥은 리옥이대로 박위와의 꿈같은 상봉이 기쁘기 그지없었다. 자기가 헤쳐온 아슬아슬한 위험의 고비들이 더없이 자랑스럽고 긍지로 왔다.
그러면서도 예전의 미쁜 모색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박위의 처절한 모습이 볼수록 가슴이 찢어지였다.
하여 리옥은 박위의 물음에 한마디도 변변히 응대할수 없었다.
온순한 소녀애마냥 무턱대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내처 흐느끼기만 했다.
한옆에 물러서있던 오천은 이제야말로 자기가 나설 때라고 생각한듯 성큼 박위앞으로 다가서더니 때늦은 인사를 정히 차리고나서 그쯘한 이를 하얗게 드러냈다.
《기뻐하시오이다. 이제는 모든 일이 대낮처럼 쨋쨋하게 밝혀졌소이다.》
박위에게는 너무도 비약이 심한 오천의 말 역시 리옥의 돌연한 출현과 마찬가지로 선뜻 리해되지 않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어느 정도 자기의 들뜬 기분에 사로잡힌 오천은 연방 손세까지 써가며 말을 이어나갔다.
사연은 대략 이러했다.
…그날도 오천은 날이 저물자 새로 무은 전함들과 화약광을 돌아보고나서 팔팔한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길순시에 올랐다.
오천의 견해에 의하면 지난 추석날 기생년의 집에서 나와 바다로 내뺀 놈은 틀림없는 왜구의 세작이였다.
지금이라도 무작정 요망해사한 기생년을 잡아다 족치고싶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그년과 짬짜미를 하던 세작놈은 바싹 꼬리를 사릴것이요, 개경에 잡혀간 박위에게는 더 큰 루가 미칠것 같았다.
이제는 바다에 나가 목을 지키고있다가 기여드는 세작놈을 산채로 모짝 그물질해 올리는것이 제일로 현책이였다.
하여 그는 박위가 잡혀간 뒤 거의 매일 밤 전함정박장을 감돌거나 바다에 나가 대마도쪽의 바다길을 살피군 했다.

윤통은 물론 오천의 일을 각방으로 떠밀어주었다. …
오천이가 이끄는 세척의 전함은 느긋하게 불어내리는 북동풍을 타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도를 지나 가덕도쪽으로 나갔다.
세척의 전함이 각기 자기가 맡은 길목으로 흩어져가려고 돛폭을 펄럭이며 선수를 돌릴 때였다.
매일과 같이 소연한 파도소리만이 떠돌던 가덕도쪽에서 낯선 퉁궁이 한척이 자그마한 몸통을 들까불며 불쑥 떠올랐다.
불어내리는 바람탓에 퉁궁이는 거부기처럼 속도가 느린데 그뒤로 역시 속도가 변변치 않은 두척의 다락배가 기를 쓰고 다가들고있었다.
다락배갑판우에서 왜구들이 벅작 떠들어대는 소리가 오천이네들의 귀에까지 그대로 들려왔다.
《하야꾸(빨리) 하야꾸…》
선수에 나서서 눈앞의 정황을 예리하게 살펴보던 오천은 쾌재를 올리였다.
(이게 웬 떡이냐? 매일 밤 빈 그물만 당기던 이 오천이가 오늘 밤엔 한꺼번에 두세두름의 왜구를 떠올리게 되지 않았는가.
아무렴 이 오천의 궁냥이 빗나갈리 없지. 이놈들— 오늘은 내 손에서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오천은 신속히 령을 내리였다.
《모두들 퉁궁이쪽으로 배를 달려라! 우선 앞에 선 퉁궁이부터 먹어야겠다!》
전함들은 일제히 퉁궁이를 향해 달리였다.
불현듯 오천의 뇌리속으로 이상한 예감이 비껴들었다.
오천은 다시금 눈앞의 정황을 세세히 살피였다.
퉁궁이 역시 왜구들의 배건만 고려의 전함들이 다가오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마주 달려오고있었다.
헌데 퉁궁이를 따르던 다락배들은 차츰 뒤걸음을 치면서 고려의 전함이 아니라 퉁궁이에 대고 기수없이 화살을 퍼붓고있었다.
(이게 무슨 조간이 붙어있는 판이로구나. 다락배나 퉁궁이는 다 왜구들쪽에서 나왔는데 퉁궁이는 꼭 승냥이에게 쫓기는 애기사슴꼴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오천은 여념없이 뒤로 물러나는 다락배들과 내처 이쪽으로 다가오

는 퉁궁이를 갈마보며 착잡한 생각을 굴리였다.
실상 다락배들은 퉁궁이를 추격하고있었다.
리옥이가 대마도를 탈출하기 위해 장서방을 이끌고 바다가로 나왔던 그날 밤.
리옥은 자기가 하도소도의 교활한 수에 걸려들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잠시 절망과 공포에 휘감기여 할바를 찾지 못했다.
바로 그때 품속깊이 간수한 박위의 단검이 리옥의 심장에 대고 말을 시작했다.
(정의와 도의를 리해한다고 하여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다.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그것을 지킬 때 그는 정녕 아름다운 사람이다. 실행하라. 실행이 없다면 아름다운 인간도 없다.)
갑자기 불가사의한 힘과 용기가 뻗쳐올랐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하도소도의 뒤로 돌아간 리옥은 혼신의 힘을 다 내여 놈의 잔등에 단검을 들이박았다.
하고는 얼혼이 다 빠져버린 장서방을 질질 끌다싶이 하여 바다우에 배를 띄웠다.
다음날 정오때가 되여서야 술에서 깨여난 사다께는 밤새 벌어진 천만뜻밖의 사건을 알게 되자 관사가 떠나갈듯이 고아대며 길길이 날뛰였다.
파수군 세놈이 사다께의 칼에 《오멘》, 《도》, 《후꾸》를 얻어맞고 피범벅이 되여 나동그라지였다.
이어 사다께는 두척의 날랜 다락배를 따로 뽑아 퉁궁이를 뒤쫓아가게 하였다. …
오천은 물론 멀리 왜땅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연을 전혀 알수 없었다.
단지 직감적으로 매에게 쫓기우는 장꿩이나 다름없는 퉁궁이는 잠시 내버려두고 다락배들부터 소멸하는것이 옳을듯싶었다.
오천은 고쳐 령을 내리였다.
《퉁궁이는 내버려두고 다락배들부터 태워버려라.》
세척의 고려전함은 물갈기를 날리며 다락배들을 향해 진격하였다.
그러면서 불꼬리가 달린 화전들을 련속 날리였다.
화전들은 밤하늘을 빨갛게 째며 비발처럼 무수히 날아갔다.

얼마 안있어 다락배들의 돛폭에 불이 달리였다.
불달린 새앙쥐꼴이 된 다락배들은 검푸른 바다에 불그레한 화광을 던지며 황망히 뺑소니를 쳤다.
그들의 파멸은 정해진것이라 더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
오천은 곧 배머리를 돌려 가랑잎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퉁궁이에 다가갔다.
전함의 선수가 퉁궁이에 다가붙자 홰를 쳐들고 빈배처럼 괴괴한 퉁궁이갑판에 뛰여내리였다.
천만뜻밖에도 배안에는 고려복색을 한 젊은 사내와 젊은 녀인이 쓰러져있었다.
홰불을 바투 가져다대고 남녀의 얼굴을 번갈아 살펴보던 오천은 녀자의 얼굴에서 리옥의 모색을 찾아내는 순간 너무도 놀라 그만 홰불을 바다물에 떨구었다.
어느 옛 문헌의 갈피에 《대마도를 탈출한 고려인부부…》라고 잘못 기록된 대목의 실상은 대개 이러했다.
그날 밤도 윤통은 홀로 처소에 들어앉아 도저히 해결할 가망이 없어보이는 박위의 일이 통분하여 연방 술대접을 기울이고있었다.
이럴 때 오천이가 범잡은 포수의 얼굴을 하고 윤통의 처소로 뛰여들었다.
오천을 통해 리옥의 탈출소식과 역모사건의 대략적인 진상을 알게 된 윤통은 그 당장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술대접을 내동댕이친 윤통은 분분히 칼을 비껴차며 사려문 이발새로 부르짖었다.
《내 벌써 조호백의 밑구멍에서 구린내가 난다는것을 감촉한지는 이미 오랬다. 박장군은 호백이 네놈이 개심하기를 그리도 원하고 믿었는데 네놈은 종시 덕을 악으로 갚았구나.
하기사 검둥개 열번 목욕시킨다고 하얀 개가 될가부냐.
조호백이 네 이놈― 쥐새끼같은 네가 호랑이같은 박장군을 모합하고도 무탈할줄 알았느냐?》
한참이나 분을 토하던 윤통은 곧 문을 차고 밖으로 뛰여나갔다.
그당장 말을 몰아 읍내까지 치달아오른 윤통은 앞을 막는 관가의 문지기들을 허깨비처럼 차넘기고 곧장 동헌으로 돌입했다.

동헌앞뜰은 물속처럼 고요한데 환하게 불을 밝힌 동헌방에서는 음탕한 년놈이 마음놓고 진수작을 하는 소리가 두세두세 흘러나왔다.
그들은 두말할것도 없이 조호백과 매화였다.
《이 애 매화야, 박위라는 놈이 잡혀가니 요즘은 먹지 않아도 살이 오를것 같구나.
네가 아니였더면 박위는 지금도 김해땅을 타고앉아 우리 관가와 고을백성들을 못 견디게 지지고 볶고 할게다.
참말이지 너의 령롱한 수단덕에 만가지 시름이 다 사라졌구나.》
호백은 매화가 그지없이 고맙고 기특한듯 계집의 통통한 어깨를 정차게 쓸어만지였다.
허나 호백의 심사는 사실 박위가 이곳에 있을 때보다 훨씬 무겁고 착잡했다.
귀넓은 동자보살처럼 시골소식, 개경소식을 죄다 휑하게 꿰뚫고있는 호백은 조정의 요즘소식을 낱낱이 알고있었다.
처음 얼마간은 일이 유리하게 번져가는 바람에 박위의 처형은 먹어놓은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있어 예견치도 않았던 최칠석과 김종연들이 울뚝불뚝 솟구쳐올랐다.
백성놈들까지 와와 밀려다니며 박위의 무죄를 떠들어댔다.
차차 리성계파의 량반들까지 《분명치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박위와 같은 견실한 장수를 처형하는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손으로 죽이는것과 같은 미련한 행위》라고 수군거리였다.
그렇게도 믿고있던 리성계는 수염을 빡 내리씻고나앉아 박위의 사건을 먼산의 불구경하듯 했다.
호백은 간에 불이 달리였다.
이러다가 만일 박위가 무죄로 판명된다면 출처가 분명치 않은 왜구의 편지를 련속 주어다섬긴 자기에게 죽음이상의 형벌이 차례질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였다.
허나 이제와서 모래불에 흘린 물을 어떻게 주어담는단 말인가.
호백은 사실 박위가 역적모의를 한다고 처음으로 고변할 때 그에게 왜구와 한동아리가 되였다는 험턱까지 씌울 생각을 미처 못했었다.
헌데 매화가 그럴듯한 편지와 소문을 들고와 배를 쓸고 등을 문지르는 바람에 한발두발 걸음을 내짚은것이 이제는 도저히 헤여나올수

없는 진구렁속에 깊숙이 빠지였다.
그때는 이왕지사 젖은 치마에 이슬을 가리랴, 박위만 제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에 용기도 나고 배심도 생기였으며 실지 모든 일을 삶은개 눈알 뽑듯 손쉽게 해제낄 자신도 있었다.
모든 일이 마른 개다리 탈리듯 뒤탈리는 요즘에 와서야 호백은 비로소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일이 스스로도 엄청나게 생각되여 돌이켜볼 때마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러고보면 매화는 왜구와 줄이 닿아있는 암개귀신이 틀림없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며칠동안을 내처 술상을 끼고앉아 골을 썩이던 호백은 마침내 매화를 조용히 없애치우리라고 작정했다.
벼락에는 삼태기라도 뒤집어쓴다고 죽을고에서 헤여나오자면 지금 당장 그를 죽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매화를 없애치우면 후날 자기가 심문을 당하는 경우 모든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뒤번져놓아도 사헌부에서는 도저히 실상을 캐낼수 없을것이요, 따라서 죄상은 훨씬 가벼워질것이였다.
호백은 오늘 밤중으로 굴대장신같은 자객들의 손에 죽게 될 매화가 다소 측은했으나 원체 곱게 생긴 계집은 박명하다는 문자말이 떠오르자 자기의 행위가 전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을뿐아니라 계집의 운명도 타고난 팔자로 의당하게 생각되였다.
《아유, 아퍼요. 좀 살랑살랑…》
호백은 음기가 바싹 동해올라 계집을 끄당기고 계집은 달아오른 사내놈을 골려먹는 재미가 달달하여 이리저리 몸을 뒤틀었다.
바로 이때 거칠기 짝이 없는 손길이 거침없이 방문을 밀어제끼였다.
눈에서 퍼런 불이 뚝뚝 떨어지는 윤통이 먼저 신발을 신은채로 들어서고 그뒤로 오천이와 여러 군사가 같은 본새로 우르르 밀려들었다.
금시 지붕이 꺼져내리기라도 한듯 깜짝 놀란 호백은 탐라말같은 계집을 간신히 밀어제끼고 후닥닥 뛰여일어났다.
불길한 예감이 쇠몽치처럼 뒤머리를 때렸으나 한껏 기를 돋구어가지고 소래기를 내질렀다.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짓이냐?
군영것들은 법도 없고 례절도 모르느냐?》

윤통은 가뜩이나 험하게 생긴 눈을 사납게 뒤굴리며 을러메듯 말하였다.

《부사는 좀 가만있소. 이제 저 세작년에게 말 몇마디 묻고나서 법이든 례절이든 따져봅시다.》

호백은 잔뜩 속이 궁글어가지고도 구멍뚫린 새납소리 같은것을 그냥 질러댔으나 윤통은 본체도 않고 매화앞에 다가섰다.

세차게 들먹이는 계집의 불룩한 가슴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독수리울음소리같은것을 터치였다.

《이년아! 너도 이 〈흑면장수〉의 선성을 아주 모르지는 않을테지? 한마디로 외로 댔다간 당장에 찔러죽일테다.

네년은 왜구의 세작 요리끄! 대마도령주놈의 비밀한 령을 받고 이 땅에 스며들어 군영원수를 모함하는 몹쓸짓을 꾸며냈지? 옳으냐?》

매화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휘저으며 떠드박떠드박 분명치 않은 소리로 옹알거리였다.

《왜구의 세작이라니요?!… 쇤네는 저기 전라도에서 살다가…》

《무엇이 어째? 빌어먹을 암여우같으니… 당장 살멱을 찢어죽일테다!》

윤통은 번쩍 칼을 들어올리였다.

오천이 재빨리 윤통의 앞을 막아서며 계집의 기름기도는 머리끄뎅이를 휘감아잡았다. 하고는 다른 한손으로 사다께가 요리끄앞으로 쓴 편지를 펼쳐보이였다.

《네가 거짓말이 난당인걸보니 세작이 분명하구나.

눈을 똑바로 뜨고 이 편지를 봐라.

대마도에 잡혀갔던 우리 사람이 대마도관사에서 꺼내온 이 편지는 네년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바를 일러주는 령주의 자필이다.

이래도 닭의 다리 뻗대기듯 할테냐? 이 더러운 년…》

흰자위가 가득한 눈으로 편지의 글발을 대충 훑어보고난 요리끄는 더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깨달은듯 얄팍한 입술을 독스럽게 감쳐물더니 쑥바구니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푹 떨구었다.

낚시에 물린 붕어새끼처럼 갈고리눈을 삼박거리며 달달 떨던 호백은 자기의 파멸을 확연히 예감한듯 모래자루처럼 풀썩 무너져내리였다.

다음날 아침 윤통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광속에 처박아두었던 왜

년을 끌어내다 말잔등우에 짐짝처럼 동여싣게 했다.
아침밥을 먹는둥마는둥 하고난 윤통은 오천과 리옥을 비롯한 여러 군사들을 뒤에 달고 개경을 향해 풍우마냥 내달리였다.
밤낮으로 길을 재우쳐 개경에 당도한 윤통은 극심한 파로로 하여 눈앞이 어질거렸으나 즉시 리옥과 오천이 그리고 요리꾜를 앞세우고 승기가 나서 여러 관청을 들고날며 사건의 좌우전말을 고하였다.
최칠석과 김종기, 김종연과 최단도 더 한층 기세가 올라 뛰여다니였다.
사건인즉 전고에 보기 드문 중대사변이라 즉시에 관청들이 설설 끓고 왕궁까지 들썩거리였다. …
살창을 움켜잡은 박위의 터갈라진 손은 중풍이라도 만난듯 와들와들 떨리였다. 박위는 불같은 격정을 토하고싶었으나 목이 마르고 속이 젖어들어 도저히 말을 굴려낼수 없었다.
(얼마나 장한 사람들인가.
왜구의 세작을 잡으려고 매일 밤 바다길을 나돌다가 리옥을 구원한 오천이도 갸륵하지만 왜구의 비밀한 속내를 파가지고 대마도를 뛰쳐나온 리옥은 또 얼마나 기특한가.
아니, 모두가 비범한 인물들이요, 고마운 나의 은인들이다.)
저벅저벅… 앞마당 구석쪽에서 또다시 여러 사람의 무게있는 발자국소리가 울리였다.
눈길을 들어보니 앞마당으로 낯익은 무관 여러명이 전복자락을 날리며 헌결차게 들어서고있었다.
그들의 뒤로 사팔뜨기 옥사장이 허겁지겁 따라서고있었다.
《어서 옥문을 따고 밖으로 모셔내여라!》
김종연의 위엄기있는 목소리가 앞마당을 쩡쩡 울리였다.
박위의 심장은 다시금 세차게 곤두뛰을 하였다.
입만 벌리면 환성과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올것 같았다.
육중한 옥문이 열리자 박위는 제 먼저 허청비청 밖으로 걸어나갔다.
옥문곁에 바투 붙어서있던 최칠석이 울고웃으며 반달음으로 다가오더니 박위의 험한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입술을 실룩거리던 끝에 울음기가 가득 배인 청을 왈칵 쏟아놓았다.
《해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종연은 틀스러운 걸음새로 다가오다말고 부리부리한 두눈을 슴벅거

리였다.

《고초가 심하셨소그려.》

윤통은 선자리에서 시꺼먼 얼굴을 찡그리며 웅얼거리였다.

《박장군을 뵈올 면목이 없습니다.》

정겨운 시선으로 미더운 무관들을 둘러보던 박위는 속깊이에서 뜨겁게 고패도는 격정을 그대로 드레질해 올리였다.

《공들의 념려덕분에 별다른 탈이 없이 지냈소.

정말로 고생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엉킨 실꾸레미처럼 헝클어진 일을 바로 잡느라고 백사를 젖혀놓고 뛰여다닌 그대들이요. 내 정녕 결초보은하리다.》

《과찬의 말씀이요.》

《해암의 뜻이 하 높으매 하늘이 굽어살핀게요.》

종연과 칠석은 한마디씩 답례를 하고나서 어제오늘 왕궁과 조정에서 새로 내린 결정을 번갈아가며 알려주었다.

조정에서는 박위를 무죄석방하여 본직으로 돌려보내고 매화는 참형에 처하며 조호백은 원악도로 귀양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와 함께 대마도원정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성숙된 현조건에서 더 미룰것없이 왜구의 소굴 대마도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원정군의 총지휘는 지금까지 왜구들과 수많은 싸움을 해보았을뿐아니라 충의와 량심을 다하여 원정준비를 떠밀어온 박위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조정에서는 또한 원정에 필요한 군수물자들과 장수들을 박위에게 보충해주기로 하였는데 병부에서 추천한 장수들의 명단에는 최칠석과 박자안이 올라있었다.

진정 나라의 수치를 씻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게 될 첫 대마도원정은 이렇듯 깊은 사연속에서 자기의 서막을 열게 되였다.

박위는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 눈물로 하여 눈앞의 광경을 뚜렷이 가려볼수 없었다.

허나 마음은 날아오를듯이 기뻤다. 무한히 행복하기까지 하였다.

지금껏 겪어온 가슴아픈 번뇌와 뼈저린 고초마저 허무하거나 억울하기는커녕 오늘의 성공과 행복을 빚어올린 보귀한 밑거름처럼 생각되였다.

박위는 미덥고 고마운 세 무관을 한아름에 껴안고 눈판우에 마구 딩굴고싶었다.
천지가 들썩 울리도록 만세를 부르고싶기도 하였다.
한참후에야 박위는 천천히 눈굽을 찍어내며 누런 물딱지가 더덕더덕 매달려있는 입술을 간신히 열어헤치였다.
《천은(임금의 은혜)이 망극(끝이 없다는 뜻)하오이다.》
뻘겋게 짓물린 눈으로 박위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의 가슴팍에 씌여진 혈서를 띠여보고 하나같이 눈을 흡떴다.
《일심원정》.
그것은 정녕 박위의 필생의 초지요, 자나깨나 가슴을 짓태운 심장의 노래였다.
사람들의 가슴은 누구라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고로 세상에는 원대한 뜻을 지녔노라고 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그 뜻을 실행한 사람보다 빈소리만 요란하게 질러놓고 뒤를 끄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하기에 사람들은 큰뜻을 품었노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에게 서둘러 감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력사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사생결단의 의지로 과감히 자기의 뜻을 실현해나가는 뼈대있는 인간만을 민족의 장한 아들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만세에 길이 자랑하는것이다.

13

김해의 2월은 드바쁜 일계절이다.
물이 따스해지니 어부들과 해녀들은 그물질, 무잡이질을 하느라고 젖은 몸이 마를새 없고 땅이 부근부근하게 부풀어오르니 농군들은 밭을 갈고 씨를 묻느라고 굽은 허리를 펼 틈이 없었다.

집집의 큰애기들까지 산나물을 캐고 송피를 벗기느라고 사랑에 불타는 높은 가슴을 한가락의 애가로 달래이며 이산저산을 오르내리였다.

2월은 또한 여느때없이 번잡스러운 굿계절이였다.

오랜 옛적에 벌써 《…거북아 거북아…》라는 구절로 시작된 《구지가》라는 원시적인 신앙숭배를 내용으로 한 첫 가요를 엮어낸 고장이여서 그런지 일찌부터 이 고장 무당, 판수, 승려들은 비길데없이 신귀가 밝고 불법에 능통하다고 전국에 소문이 파다했다.

하여 경향 각처에서 세상사 여의치 못해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뻔질 이곳으로 밀려드는데 2월이면 온갖 귀신놀이가 가장 성행하는 때라 김해의 방방골골, 촌촌호호가 노상 북적북적 하였다.

허나 이해 기사년(1389년) 2월의 아침.

이 고장 사람들은 모두다 그처럼 번다한 일사를 깡그리 잊은듯 군영앞 바다기슭에 하얗게 모여있었다.

창원과 밀양, 부산과 동래를 비롯한 주변고을의 백성들, 지어 멀리 개경에서 길량식을 축내가며 부러 예까지 내려와 새벽부터 부산을 피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숱한 사람들의 맨 앞장에는 만나기만 하면 기가 나서 승벽내기를 하던 옥보와 구서방이 여느때없이 깨끗한 백저포(주로 농민, 장공인들이 입던 흰색의 겉옷)를 차려입고 의좋게 나란히 서있었다.

흐뭇한 미소를 띠운채 연해 기다란 수염을 쓸어내리는 죽촌의 행수로인과 전에없이 멀끔해진 얼굴로 바다우의 전함들을 살펴보는 백동이 엄마 그리고 어지게 생긴 황소눈을 슴벅거리는 장서방의 모습도 보이였다.

몸에 꼭 맞는 흰 저고리를 입고있어 복성스럽게 생긴 얼굴과 조금 부할사 한 탄력있는 몸매가 더욱 두드러져보이는 취금이의 생기발랄한 모습, 초록색바탕에 빨간 깃선을 댄 저고리를 차려입은 리옥이가 자그마한 꾸레미를 들고 서있는 모양도 뜨이였다.

이들은 모두 왜구의 소굴, 대마도를 요정내기 위해 출정하는 고려군사들을 전송하기 위해 백사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온것이였다.

원정군사들은 이미 전함우에 모두 올라있었다.

군영 앞바다를 꽉 메운 100여척의 전함우에서 출전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천료주의 갑판우에 뒤짐을 돌려잡고 서있는 박위는 아까부터 주위의 전함들과 그우에 올라있는 군사들, 봄별에 강철의 몸체를 번쩍이는 화포들을 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때로 바다가에 장사진을 이루고 서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내려다보기도 했다.

가슴은 하냥 후더워올랐다.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려온 이날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 이 시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밤을 지새웠던가!

정녕 2월의 오늘은 자연이 안아왔지만 원정의 이 시각은 이 나라 백성들의 애국충정과 멸적의 기상이 빚어낸것이 아니겠는가?

《헛허,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소?》

칼을 비껴잡은 최칠석이 껄껄 웃으며 박위앞으로 다가왔다.

그제서야 사색에서 깨여난 박위는 느슨한 미소를 띠우며 물었다.

《왜 그러우?》

《아니, 글쎄 현중이녀석이 날더러 원정에 가게 해달라구 땅파기로 졸라대는구려. 나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해암이 군령으로 쫓아내시우, 헛허허.》

칠석은 모든 일이 그저 기쁘기만 한듯 노방 웃어가지고있었다.

박위는 별로 놀라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했다.

《제가 가겠다면 내버려두구려.》

칠석의 크지 않은 눈이 대번에 떼꾼해졌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뼈도 채 굳지 않은 현중이를 싸움판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요?》

《원래 봉황의 새끼는 어려서부터 대공에 날아오를 마음을 가지고 기러기, 따오기새끼는 나면서부터 바다를 횡단할 꿈을 가진다오.

무관의 자식이 어려서부터 원쑤와 싸울 생각을 하는게야 너무도 응당한 일인데 무얼 놀랄게 있소?》

어느 틈에 박위의 뒤에 와 서있던 현중은 나직한 환성을 터치였다.

군사들이 입은 궁노(고려시기 군사들이 입던 통좁은 바지)를 가뜬하게 입고있어 한결 날렵해보이고 어른스러워보이는 현중은 곧 선미쪽으로 뛰여가더니 아래쪽에 대고 기운차게 손을 흔들었다.

바다가 모래불에 외따로 나와 서있던 리옥은 현중의 손짓을 보자 그

윽한 미소와 은근진 고개짓으로 화답을 보내였다.
보매 현중은 이미 리옥에게 원정에 참가할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리옥은 그의 의향을 두말없이 찬성한 모양이였다.
이어 리옥은 보꾸레미속에서 새파란 솔잎을 한줌 듬뿍이 집어내더니 박위가 탄 천료주주위에 무슨 씨라도 뿌리듯 솔솔 뿌리였다.
오늘은 항간에서 《꽃아침》이라 이르는 날이다.
옛적부터 2월의 이 아침이면 출입문과 방안, 지어는 앞뜰과 뒤뜨락에까지 솔잎을 뿌리였다.
새봄에 들어 빈대가 성하지 못하게 바늘(솔잎)을 뿌린다는 의미였다.
별로 신통한 방책은 아니지만 솔잎을 따기 위해 봄날의 신선한 대기를 호흡하며 소나무 우거진 산으로 오르는 등산도 나쁠것 없는 일이요, 불결한것을 꺼리고 순결한것을 취하려는 건전한 생활지향도 탓할것이 아니였다.
리옥은 배둘레를 따라가며 여념없이 솔잎을 뿌리고있었다.
그는 지금 빈대가 바늘에 찔려죽듯이 왜구들이 우리 군사들의 화살에 나서는 족족 맞아죽기를 바라며 솔잎을 뿌리는것이였다.
리옥의 일거일동을 놓칠세라 바라보는 박위의 눈뿌리는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아 리옥, 정답고 소중한 그대여.
뉘라서 사랑을 마음의 부담으로 여긴적 있었던가.
사랑은 마음속의 가장 큰 재부요, 인생의 큰뜻을 떠밀어주고 생활의 의의를 증대시키는 신기하면서도 확실한 하나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세련된 무희의 률동을 련상케 하는 리옥의 유연한 손놀림을 지켜보는 박위의 가슴에는 불이 일어번지였다.
보이지 않는 그 불길은 전신을 활활 태우는듯싶었다. …
며칠전 저녁이였다.
군영에서는 대마도원정작전을 최종적으로 토의결정하는 장수들의 중대한 모임이 있었다.
첫 의제인 원정날자를 정하는 대목에서부터 말썽이 일어났다.
박자안이 아닌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첫날은 모든 일을 조심하고 함부로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다음날에는 찰밥을 지어 제사를 하고 떠나야 한다는따위의 타령을 꺼내놓은것이였다.

박위는 즉각 자안의 귀신타령을 일축해버리고나서 출정날자를 2월초로 찍어서 눌러놓았다.

다음의제는 바다길을 어느 방향으로 택할것인가 하는것인데 그 문제는 그런대로 무난히 락착되였다.

마감으로 대마도대안에 접근한 후 어떤 형식으로 섬의 외곽을 타격하며 외곽을 깨친 후에는 어떻게 섬의 종심을 공격할것인가 하는 가장 주요한 의제에 이르자 의견은 다시 분분해졌다.

그것은 저마끔 전투경험과 실전능력이 다르고 사색의 농도와 궁냥의 깊이가 다른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보다는 누구라 할것없이 대마도지형을 잘 모르는데 근본원인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박위도 례외가 아니였다. 갑론을박하던 끝에 대체적인 공격안을 짜기는 했으나 그것은 꼭 장님들이 모여들어 지은 집처럼 어설프게 생각되여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무죽한 마음을 안고 처소로 돌아온 박위는 저녁상을 치르고나서 리옥이 내온 차종을 받아들었다.

오랜만에 리옥이 달여온 구기자차를 마시고난 박위는 감회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오랜만에 그대가 달여온 차를 마셔보네그려. 그래서인지 맛이 참 유별스러우이.》

박위는 리옥을 다시 만난 뒤로는 해라를 쓰지 않았다.

부러 쓰지 않는것이 아니라 절로 그렇게 되였다.

리옥은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박위를 만류하기는커녕 자연스럽게, 지어는 기쁘게 받아들이였다.

이것은 대체 어찌된 일이며 무슨 까닭인가?!…

《유별스럽다니? 맛이 답니까?》

한삼(속저고리)만 입은 리옥은 박위곁에 살풋이 모꺾어앉으며 은근지게 물었다.

《달리야 있겠소. 쓴맛이 유난히 마음에 즐겁다는 뜻이지.

아마도 칼잡은 무관은 쓴맛을 사랑해야 하는가보이. 그래야 백성들이 달게 살아갈수 있을게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리옥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수집게 들어올리였다.

《…대마도에서 돌아온 뒤 작은 사랑에 들어가보니 현중은 소녀가 짓다가 버려두고간 무관복을 서탁우에 그냥 놓아두고있더이다.
그걸 보니 소녀의 마음 아프고 쓰려서…》
《그건 그대가 버려두고간것이 아니라 왜구들탓에 채 못 지은것이지.
이제라도 마저 지어준다면 나도 기쁘고 현중이도 좋아할게요.》
박위가 여러가지 뜻을 담아 신중히 말하자 리옥의 얼굴은 더욱 붉어지였다.
이어 리옥은 꽤 큼직한 종이두루마리를 꺼내여 박위의 무릎앞에 주르르 펼쳐놓았다.
우불구불한 선들과 크고작은 동그라미들, 세모형과 네모형… 각이한 도형이 빼곡이 들어찬 종이장을 얼추 내려다보고난 박위는 의혹에 찬 시선으로 리옥을 쳐다보았다.
《이게 무엇인가?》
《대마도의 지형입니다. 소녀가 그곳에서 지낼 때 눈여겨 보아두었던것을 어제 오늘 생각을 더듬어서 그려보았습니다.
이번 거사에 꼭 필요할것 같아서…》
박위는 재빠른 시선으로 급급히 종이장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해변가의 성곽들과 바위벽들, 전함들의 정박장소와 왜구들의 병영, 무기고와 군수창고, 관사와 마을, 산야와 구릉지대…
대마도의 모든것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안겨왔다.
도형을 표기한 솜씨는 서툴렀으나 그것은 단순한 지형도가 아니라 대마도원정에 절실히 필요한 실용적인 군사지도였다.
박위는 룡의 알이라도 얻은듯 기뻤다.
리옥이가 더욱 소중하고 미더웠다.
사랑은 최고의 령봉에서 홰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연약한 아녀자의 몸으로 도적떼의 소굴을 빠져나온것만 해도 장하다 하련만 왜구의 흉계를 일격에 분쇄할 증거물을 빼오고 대마도의 지형지물까지 낱낱이 알아왔으니 리옥이야말로 세상에 소리쳐 자랑할만한 이 나라의 훌륭한 딸이요, 고금에 드문 녀걸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녀자와 사랑을 나눈다는것은 희한한 행운이 아닐수 없다.…
리옥의 맑은 얼굴과 하얀 목언저리에 박혀있는 까만 기미를 갈마보며 사색을 이어가던 박위는 종이장우에서 한마리의 귀여운 새처럼 파

들파들 떠는 처녀의 작은 손을 담쑥 움켜잡았다.
속깊이에 묻혀있던 불덩이같은 진정을 폭발적으로 쏟아놓았다.
《내 여직껏 그대가 지난 여름에 보낸 편지에 회답을 못했었는데 지금 하려네.
난 그대의 마음이자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와서 무슨 말을 길게 할게 있겠나.
바라건대 부디 현중이의 좋은 어머니가 되여달라고…》
리옥은 아무말없이 언제인가 박위가 따를만 한 사내가 생기면 선물로 주라고 했던 사연많은 단검을 두손으로 받쳐 올리였다.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받아든 박위는 리옥의 깊은 심중에 감동되여 한동안 고개만을 끄덕거리였다.
《…그대의 심정은 고맙기 이를데 없소만… 내 나이에 너무 체신머리 없는노릇이 아닌지 모르겠네.》
박위의 말은 심히 비약된것이였으나 총명한 리옥은 대번에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였다.
살래살래 도리머리를 젓던 리옥은 불식간에 꽈리처럼 빨갛게 익은 얼굴을 박위의 담벽같은 가슴에 묻으며 자기의 들끓는 심정을 펴올리였다.
《소녀는 현중 아버님의 나이를 모릅니다. 하오나 불덩이같은 심장을 지니신, 백년이 가도 늙지 않는 심장을 지니신분이라는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소녀는 그 심장을 사랑하고 존경할뿐 다른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고마운 말일세.》
박위는 떨리는 소리로 대답하고나서 리옥의 싱싱한 어깨를 으스러지게 그러안았다.
군영 뒤산에서는 밤깊도록 봄날의 새생활을 토의하는 이름모를 밤새들의 청아한 우짖음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울려왔다. …
근엄한 표정으로 다시금 전함들과 군사들을 둘러보던 박위는 잠풍한 바다와 인파로 설레는 백사장이 통으로 들썩하도록 우렁차게 웨치였다.
《대취타 하라!》

나팔소리, 북소리를 크게 울리라는 뜻이였다.
지휘함선인 천료주의 갑판우에 모여서있던 고취악대(관악기와 타악기를 위주로 한 군악대)가 명문고취(군대의 전투사기를 고무하기 위한 행군음악)를 터치였다.
쿵짝쿵짝 쿵쿵쿵 짝짝…
생황, 피리, 퉁소, 큰저 등의 관악기들이 풍작거리고 소가죽으로 만든 대북이 쿵쿵거리였다.
어느 틈에 악사들사이에 끼워든 여삼이도 납주그레한 턱을 유난스레 들까불며 차거라(소라로 만든 나팔)를 불고있었다.
어디선가 죽촌의 행수로인이 오래간만에 불어제끼는 세련된 저대소리도 들려왔다.
《출동하라!》
박위의 두번째 령이 울리였다.
커다란 돛폭을 활짝 펼친 전함들은 류랑한 군악소리에 장단을 맞추어 일제히 배머리를 돌리였다.
나팔소리, 북소리, 원정군을 전송하는 사람들의 격정에 찬 환성은 하늘을 뒤흔들고 바다를 진동했다.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온 나라에 과시할 드높은 각오, 민족의 백년숙적인 왜구를 씨도 없이 소탕할 멸적의 투지를 지닌 고려의 장한 아들들은 대마도를 향해 질풍같이 달리였다.

14

…정오가 지난지 얼마 안되여 날마다 한복판으로 예상치 않았던 돗팽이바람(회오리바람)이 밀려들었다.
배군들이 제일로 꺼리는 손돌바람보다 훨씬 더 사납다고 하는 돗팽이바람은 허연 물머리를 높이 쳐든 집채같은 파도가 껑충 뛰여오르게도 하고 허궁 내려꽂히게도 하면서 거대한 바다를 통채로 마구 휘저

어댔다.
질서있게 렬을 지어 전진하던 전함들은 삽시에 휘뿌려던진 락엽무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면서 곤두박질이라도 할듯이 위태롭게 기울거리였다.
팽팽하게 불어난 돛폭들은 금시 찢어져나갈듯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펄럭거리였다.
다락안의 평상우에 단정히 앉아 대마도지형도를 보고있던 박위는 선체의 심상치 않은 요동을 감촉하자 돗쾽이바람이 터졌다는것을 알아차리였다.
평상을 차고일어선 박위는 다락을 뛰쳐나왔다.
갑판우에 나서니 언제 어떻게 지휘선으로 넘어왔는지 여러 장수들이 배가 흔들리는대로 비칠거리며 박위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엥이, 내 그만큼 첫날에 길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끝끝내 고집을 쓰더니… 변을 만날수밖에…》
연방 들씌워지는 물보라에 온몸이 촉촉히 젖은 박자안이 쥐꼬리같은 수염을 비틀어짜며 두덜거리였다.
《종작없는 소리 그만하오.》
박위는 박자안의 얼뜬 소리를 단호하게 무찔러버리고나서 광란하는 바다를 휘둘러보았다.
사처에서 연해연방 솟구쳐오르는 거방진 파도, 그속에서 방향없이 밀려다니는 전함들.
귀가 아플 지경으로 소란한 파도소리.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으스산한 바람소리.
다급한 비명소리, 짜증어린 고함소리…
(어떻게 할것인가?)
박위의 긴장된 뇌리는 난국을 타개할 출구를 찾아 총망히 모대기였다.
노상 쟁개비 끓듯 하는 성미인데다 책을 통해서나 전쟁을 알고있지 실지 싸움마당에는 별반 나서본적 없는 박자안이 또다시 동닿지 않는 소리를 꺼내놓았다.
《옛글에 모사재인이요 성사재천이라 했소.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성사는 하늘이 한다는 뜻이 아니겠소.
암만 봐야 오늘은 하늘이 노한듯 하니 일시 회군했다가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다시 나오는게 어떻소?》
김종연이 비양기어린 시선으로 자안을 흘겨보더니 위엄기있는 청으로 면박을 주었다.
《그런 창피한 소리를 할바에야 함께 오기는 왜 왔소? 방략이 없거든 차라리 입다물고 가만있는 편이 낫겠구려.》
박위는 더이상 자안을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었다.
장수 한사람의 동요는 전군에 비관과 실망을 부식시킬수 있거늘 애초에 그 동요를 짓뭉개버려야 했다.
박위는 자안이쪽으로 돌아섰다.
또 한차례 솟구쳐오른 물바래를 뒤집어쓴 박위의 얼굴은 기름이라도 바른것처럼 번들거리였다.
《그러니 박공은 풍랑이 무서워서 원정을 포기하자는거요? 도대체 공은 이번 원정이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이 원정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알기나 하오?
우리는 절대로 이 길에서 물러설수 없소.
기어이 풍랑을 헤치고 나가 왜구를 격멸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단 말이요.
풍랑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다면 박공은 혼자 조용히 돌아가오.
하지만 그냥 여기 남아서 군심을 소란하게 한다면 즉시 군률의 칼을 받게 될게요.》
박자안은 황급히 채머리를 흔들며 몰풍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랑패가 있을가보아 한 소리지 풍랑이 무섭다는 뜻은 아니요.》
박위는 더이상 자안과 가타부타할 정신적경황이 없었다.
둘러선 장수들을 빠르게 살펴보고난 박위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제공, 천하에 제일로 간흉한 왜구를 소멸하기 위해 정의의 검을 들고 나선 우리가 이쯤한 풍랑에 기가 질려 배를 돌린다면 현세의 사람들과 래세의 후손들이 고려장수들을 두고 뭐라고 하겠소.
다들 아실테지만 사람의 몸은 오늘에 살고있지만 사람의 얼굴은 오늘과 래일앞에 다같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하오.
본관이 풍랑을 극복할 한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어떤고 하니 매 전함들을 바줄로 묶어서 하나로 쭉 잇자는거요. 그러면 배가 홀

로 뒤집히는 일도 없을게고 전함마다 풍랑의 힘도 덜 받게 될거란 말이요.》
《그것 참 명안이요.》
《당장 시행해봅시다그려.》
최칠석과 김종연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참으로 호응해나섰다.
박위는 지체없이 령을 내리였다.
령을 받은 장수들은 저마끔 소리를 지르고 기발을 휘둘러 주위에서 떠도는 자기의 배를 가까이 오게 했다.
배가 다가오자 훌쩍훌쩍 뛰여서 넘어가거나 바줄을 타고 미끄러져 넘어갔다.
제일 나중에야 박위의 지휘선을 떠나려던 칠석은 문득 고개를 돌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웠다.
《새삼스러운 말 같소만 해암은 진정 우리 장수들의 거울이요 아니, 살아있는 기념비라고 해야 옳을게요.》
박위는 쑥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했으나 웃음의 소리로 응대했다.
《헛허허, 백운은 이런 마당에서까지 시조를 지어 읊는게요?
그대의 그 말은 나의 인생목표이지 나자체는 아니요.
자, 그런 말은 후날에 하기로 하고 어서 제 배에 넘어가 그대의 우군을 잘 통솔해주오.》
칠석은 박위의 손을 힘껏 잡아 흔들고나서 끼우뚱거리며 다가온 자기의 전함으로 훌쩍 몸을 날리였다.
미구하여 사방사처에서 장수들의 청청한 웨침소리가 으스산한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울려퍼지였다.
《바줄을 썩썩 당겨라!》
《그쪽에서 바줄을 걸었거든 어서 이쪽으로 넘겨라!》
《굼벵이 천장하느냐, 빨리 배를 이쪽으로 바싹 붙여라!》…
얼마후 백여척의 전함은 모두 바줄과 바줄로 이어지였다.
방향없이 오가던 배들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매지게 진격방향으로 미끄러져나갔다.
전함들마다에서 기세가 오른 군사들이 왁작 떠들어댔다.
《돛대를 조금 틀어라!》
《노를 좀 더 세게 저어라.》

《나가자!》, 《나간다.》…

고함소리, 웨침소리는 바람소리,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기세차게 울리였다.

군사들의 사기가 고조된탓인지 풍랑은 아까보다 훨씬 숙어든듯싶었다.

홈빡 젖은 몸으로 선수에 나서서 진격하는 전함들을 살펴보던 박위는 자그마한 입술을 곱게 피우며 고개방아를 찧었다.

(정녕 배짱이 있고 기개가 있는 장수라면 할수 없다는 말을 가장 큰 적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의 검이 제일먼저 찔러눕혀야 할 적은 바로 그 〈할수 없다.〉는 말이다!)

뜻밖에 다닥친 돗꾕이바람으로 하여 일시 소요스러웠던 원정의 첫장은 성과적으로 열리였다.

고려의 전함들은 아직도 거방진 몸통을 흉물스럽게 뒤트는 사나운 파도를 헤가르며 흐뭇하게 달음쳐나갔다.

15

짙은 안개속에 웅크리고있는 대마도는 꼭 옛말에 나오는 커다란 뱀이 서리서리 또리를 틀고 누워있는것처럼 으스산하게 보이였다.

푸르스름한 안개는 차츰 섬을 둘러싼 벼랑들과 성곽들, 그뒤로 연연 겹놓인 구릉들을 벗어나 서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섬의 자태가 선명하게 드러나자 생각탓인지 비릿한 해감내와 함께 피비린내 같은것이 들쩍지근하게 풍겨왔다.

어디선가 맹수의 체취같은것이 시큼시큼하게 날아오는것 같기도 했다.

고려의 전함들은 이미 약속한대로 열척 혹은 스무척씩 패를 나누어 조용히 흩어지였다.

섬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일격에 해변의 군사시설들과 성곽을 분

쇄한 다음 지체없이 대마도의 중심부인 기미쯔시미와 이즈하라로 돌입할 계획이였다.

좌군을 맡은 김종연과 우군을 맡은 최칠석이 각각 20척의 전함을 이끌고 좌우로 갈라져나간 뒤 박자안과 윤통, 최단이 각기 10여척의 전함을 달고 때맞춤하게 바다쪽으로 밀려나오는 안개발속으로 스며들었다.

김종연은 동쪽을 치고 최칠석은 서쪽을 깨치며 최단은 북쪽을 공격하고 윤통과 박자안은 가미섬(웃섬)과 시모섬(아래섬)을 견제해야 했다.

전군을 총찰하면서 중군을 통솔하기로 한 박위는 나머지배를 이끌고 섬의 남쪽어구인 동시에 섬의 중심부를 통하는 관문인 쯔시요리(두지포)를 돌파해야 했다.

고려의 전함들은 섬을 에워싸고 소리없이 전진하여 대안바투까지 접근했으나 섬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바다우에 아직도 짙은 안개가 깔려있어 진공하는 고려함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저들의 소굴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굳게 믿고 마음을 푹 놓고있는지?!…

애초에 박위는 대마도앞바다에서 치렬한 싸움을 한차례 벌린 뒤에야 섬에 상륙할수 있으리라 타산했었다.

헌데 왜구들은 고려의 전함들이 하나둘 닻을 내리는 지금까지도 사뭇 기척이 없었다.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촌시도 머밋거릴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팽배한 전투의욕을 안고 전함들의 움직임과 섬의 지형을 엇갈아 갈마보던 박위는 눈이 시도록 빛나는 장검을 번쩍 추켜들었다.

목이 터지게 웨치였다.

《군사들, 싸움의 승패는 불의의 타격과 높은 진공속도에 달려있다. 먼저 화포를 터쳐라!》

박위의 령이 내리기 바쁘게 박위가 탄 천료주에서 제일먼저 요란한 포성이 터지였다.

《쾅!》

시뻘겋게 익은 박통같은 포알이 위잉— 무자비한 죽음의 노래를 읊조리며 창공높이 솟아올랐다.

하늘우에 두개의 해가 매달리였다.
그중에서 어느것 하나가 급기야 적진을 향해 곤두박히였다.
때를 같이하여 수십척의 전함들에서 화포들이 흠칫흠칫 몸을 떨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쾅! 쾅! 쾅!…
화전, 철령전, 피경전, 철탄자, 류화, 주화(각종 포탄들과 불화살들)가 천지를 진감하는 굉음을 터치며 기수없이 날아갔다.
좌군과 우군도 성과적으로 공격위치에 진입하여 포격을 개시한듯 동서량면에서도 요란한 포성이 북치듯 울려왔다.
해변은 금시 하늘땅이 터져나가는듯 한 포성과 버섯모양의 연기덩이들, 치솟아오르는 불길로 뒤덮이였다.
저 멀리 대마도의 중심지역도 불길과 연기에 휘감기여 어디가 어딘지 거의나 가려볼수 없었다.
허나 박위는 이미 마음속으로 열번도 더 확인해본 중심지대의 지형을 다시금 머리속에 그려보며 두번째 령을 내리였다.
《중군은 모두 나를 따르라!》
박위는 서슬푸른 장검을 비껴들고 선참으로 배에서 뛰여내리였다.
박위의 뒤를 따라 화살과 창, 검과 철퇴를 틀어잡은 원정군사들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리였다.
와— 우렁찬 함성을 울리며 파괴된 성곽과 우죽삐죽한 바위를 타고넘은 중군은 섬의 중심부를 향해 성난 파도마냥 달리였다.
좌우군도 공격을 개시한듯 이쪽저쪽에서 고려군대의 기세찬 함성이 왁자하게 들려왔다.
박위를 선두로 한 중군이 시가지어구인 오뎬야근방에 이르자 그제서야 급급히 편성된 왜구의 방어군이 바퀴떼처럼 무질서하게 밀려나왔다.
싸늘한 랭소를 머금고 놈들을 노려보던 박위는 뒤따르는 군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였다. 가쁜 숨을 헐썩거리며 힘차게 웨치였다.
《군사들은 내 말을 들으라!
고려국의 존엄을 걸고 정의로운 징벌의 전장에 나선 우리의 용맹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모두다 죽기를 두려워 말고 지금껏 우리 백성들이 흘린 피로 벼려

온 정의의 검을 유감없이 휘날리라!
오늘로써 백여년의 원한을 풀고 고려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라!》
박위의 열띤 호소에 목갈린 합성으로 호응한 군사들은 다시금 맹렬한 기세로 박위의 뒤를 따라 왜구의 무리속으로 뛰여들었다.
그렇게도 바라던 대마도에서의 격전은 드디여 시작되였다.
박위는 왜구들이 나타날 때마다 장검을 틀어잡은 손에 전신의 용솟는 힘을 그러모아 내리긋고 올리찌르고 앞으로 내찔렀다.
놈들은 다가서는 족족 피범벅이가 되여 자반뒤집기를 하였다.
박위의 곁에 바싹 붙어선 오천은 어딘가 잔인해보이는 미소를 머금고 드세게 칼질을 해대는데 왜구가 나동그라질 때마다 영낙없이 한마디씩 씹어뱉았다.
《고려군사의 칼맛이 짭짤할테지?》
《이건 우리 부모님의 피값이다!》
《오냐, 장인장모의 원한까지 풀자면 아직 멀었으니…》
두터운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오천의 뒤를 따르는 고들이도 실한 몸을 잽싸게 날리며 칼을 휘두르는데 피바래가 일 때마다 그 역시 오천의 흉내라도 내듯 씨벌거리였다.
《이놈, 죽촌 〈두부자루〉의 칼솜씨가 어떠냐?》
《이놈아! 우리 색시의 피가 물인줄 알았더냐?》
고들이와 나란히 달리는 《만사태평》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왝왝 내지르며 갈범마냥 펄펄 날고뛰였다.
박위의 뒤를 따르는 여삼이와 현중이도 연해 《받아라!》, 《먹어라》하고 소리를 지르며 살을 날리고 돌을 던지였다.
알몸뚱이에 칼 하나 잡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다가 창끝에 찔려 나번져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웃옷의 한쪽소매만을 결친채 마구 칼을 휘두르다가 상판에 화살을 맞고 뒤번져지는 놈도 있었다.
개중에는 독한 놈도 있어 화살에 멱을 찔려가지고도 칼을 지팽이처럼 짚고 비칙비칙 걸어나오다가 《도쯔께끼》를 부르며 모재비로 꺼꾸러지는 놈도 있었다.
드디여 왜구의 방어군은 누데기모양으로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지여 주춤주춤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연록색의 햇이파리가 무수히 내돋은 노린재나무와 쪽동백나무들이 듬성듬성 널려있는 행길어구에는 탕친 고기뭉치처럼 된 왜구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깔리였다.

고려군사들은 성난 맹수들처럼 계속 다기차게 활을 날리고 검을 휘두르며 섬의 중심부를 향해 진격했다.

중군의 맹렬한 공격에 거적때기 밀리듯 맥없이 뒤로 밀리던 왜구들은 마침내 상투꼭지를 뒤로 제끼고 줄행랑을 놓았다.

도망치는 왜구들을 쫓아 내달리던 박위는 갑자기 달음을 멈추었다.

이렇게 몰이군이 메돼지무리 튀기듯 무작정 왜구들을 밀고나간다면 놈들은 필경 장거리를 돌아 관사아래쪽으로 내뺄것이였다.

중군은 시가지중심으로 돌입하고있고 좌우군은 관사의 량익측을 압박하고있는 이때 관사아래쪽은 거의 개방된 상태에 있었다.

예까지 왔다가 한놈의 왜구라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완벽한 승리라고 말할수 없었다.

왜구들에게 아니, 온 세상에 고려군대가 어떤 군대이며 고려국의 존엄과 기상이 어떤것인가를 유감없이 과시하자면 단 한놈의 왜구도 구릉지대의 숲으로 스며들게 해서는 안되였다.

박위는 현중을 소리쳐 불렀다.

《현중아, 너 얼른 우군에 뛰여가서 관사의 지붕에 불화살을 쏘아박으라고 일러라.

관사에 불이 나면 왜구들의 기세는 더욱 쭈그러들게다.》

현중은 한창 독을 품고 왜구들을 쏘아잡는 재미에 자리를 뜨기 싫었으나 군말없이 우군이 있는 쪽으로 뛰여갔다.

박위는 재차 여삼을 찾았다.

《너는 좌군으로 가서 전라도원수께 내 령을 전해라.

군사를 두쪽으로 나누되 한패는 계속 관사의 옆구리를 조이고 다른 한패는 관사아래쪽 길을 막으라고 해라.

그렇게 되면 왜구는 필시 날개부러진 까마귀 채롱속에 든 격이 되리다.》

멍구럭을 걸메고 무작정 뛰여가려던 여삼은 다시 박위쪽으로 돌아서더니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에 근심의 빛을 가득 떠올리였다.

《소인이 자리를 뜨면 장군의 신변은 누가 시위하리까?》

《이놈! 무슨 군말이냐? 어서 가지 못할고—》
미치미치하는 여삼을 쫓아보내듯 떠밀어보낸 박위는 중군의 기본집체를 이끌고 시가지중심으로 돌입했다.
쑥셔놓은 벌둥지마냥 수라장이 된 왜구들의 병영 하나를 순간에 해일처럼 휩쓸어버린 박위는 얼마후 관사의 청기와지붕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드넓은 대통로에 들어섰다.
용기백배하여 관사의 량익을 각일각 조이는 좌우군군사들의 장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관사의 아래쪽에서는 어느결에 벌써 왜구의 퇴로를 차단한 김종연의 군사들이 밀려내려오는 놈들을 세괃게 올리밀고있었다.
관사의 지붕우에서는 두리기둥같은 불길이 널름널름 하늘을 핥고있는데 화광이 얼른거리는 대문 앞마당에서는 왜구들이 오뉴월 개천에 자가사리 끓듯 오글복작거리고있었다.
왜구들은 벌써 싸움판에 나선 군대가 아니라 사냥군들의 포위에 빠진 굶주린 늑대무리나 다를바 없었다.
싸움은 벌써 다 이겨놓은 싸움이였다.
박위는 벌써부터 몰밀려드는 전승의 환희로 하여 숨이 가빠났다.
그는 더러운 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붉은 장검을 높이 추켜들었다.
필경 이번 원정에서 마지막군령으로 될 령을 내리였다.
《중군은 관사정면으로 돌입하라!》
중군의 집체는 한달음에 행길을 건너 대문 앞마당으로 쏟아져내리였다.
박위는 중군만이 아니라 원정군전체의 마지막전투를 지휘하기 위해 행길가에 시체처럼 자빠져있는 돌탑우에 우뚝 올라섰다.
중군의 군사들이 모두 앞마당으로 달려나간 까닭에 박위의 주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불현듯 등뒤에서 돼지 멱따는 소리같은것이 울려왔다.
《박위는 내 칼을 받으라!》
박위는 관습적으로 날래게 칼을 비껴올리며 홱 몸을 돌리였다.
체구가 청바위처럼 단단해보이는 어떤 왜구가 소대가리같은 상판을 꼿꼿이 쳐들고 자신만만하게 다가오는데 놈의 심술궂게 생긴 눈에서는 퍼런 불덩이가 이글거리고있었다.
어디선가 마주쳤던 놈 같았으나 얼추 생각나지 않았다.

(여기 왜국에 내 얼굴을 아는 놈이 있다?!
헌데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자기의 칼을 받으라고?!…
이놈이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놈이 아니로다.
모두들 죽을기를 쓰고 도망질을 하는 판인데 언감 내 이름까지 부르며 싸움을 걸어?!…)
박위는 돌탑우에서 훌쩍 뛰여내리였다.
칼을 추켜든채 침착하게 마주 걸어나가며 위엄있게 웨치였다.
《너는 대체 어떤 놈이기에 하늘 높은줄 모르고 함부로 기광을 부리는거냐?》
괴한은 누런 이발을 사려문채 칼잡은 손을 부르르 떨며 개승냥이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대마도의 령주 사다께다. 우리는 오늘 운이 기울어 패했으나 나는 너와 단병접전을 하여 네놈의 목대를 분질러버릴테다.
나 개인의 승리를 하겠단 말이다. 내 칼이 무섭지 않거든 이리 썩 나서라!》
박위의 심장은 가볍게 골풀이쳤다.
이놈이 바로 사다께로구나.
10여년전 황산강에서 마주섰던 원쑤, 우리 백성들을 수없이 살해하고 우리 나라에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살인귀…
하기에 내 이놈과 마주서기를 꿈결에도 원하지 않았던가.
헌데 이놈은 제쪽에서 먼저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마구 날뛰지 않는가?!
박위는 랭소가 어린 입술을 느리게 터치였다.
《오냐, 네가 바로 해적떼의 대두령 사다께로구나.
같잖게 노는 꼴을 보고 벌써 그런 짐작을 했었다.
내 이미 편지로 알렸지만 나 역시 네놈과 판가리싸움을 하는것이 소원이였다.
하거늘 내 어찌 네놈의 칼을 피하겠느냐. 네놈이야말로 내앞에 썩 나서거라!》
박위는 사다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사다께도 자못 용기있게 박위앞으로 다가들었다.
…사실 사다께는 퍽 오래전부터 박위가 대마도공격을 준비한다는것

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고려국력과 형세로 보아 고려군의 한 지방부대가 완전히 요새화된 대마도를 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설사 박위가 쳐들어온다 해도 자신을 희세의 모사로, 용장으로 과신하고있는 사다께는 일거에 고려군을 불개미떼처럼 쓸어내칠 자신이 있었다.

헌데 이 아침 상상밖으로 강력한 타격력을 앞세운 정예한 고려군이 사태처럼 밀려들었다.

북치듯 울리는 화포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여난 사다께는 처음 한동안 코웃음을 킁킁 쳐가며 여유작작하게 방어군을 편성하여 보내고는 파발군들을 이리저리 띄워 각방면의 전투를 지휘하였다.

고려군의 첫 타격에 해변가의 견고한 방어시설과 적지 않은 병력, 수많은 전투기재들이 파괴되고 소멸되였다.

왜구들은 그전날 강도배의 용기같은것은 어느 구석으로 날려보냈는지 얼혼이 빠지여 갈팡질팡했다.

방어군의 선두에 서서 가장 치렬한 전방인 오덴야근방에 나갔던 지또는 어째보지도 못하고 허깨비처럼 나뗄어지였다.

방어군은 떠밀어보내는 족족 화토불에 가져다댄 연덩이처럼 물렁물렁 녹아버리였다.

고려군의 물샐틈없는 포위환은 각일각 조여들었다.

고려의 경상땅을 거의나 제 주머니에 따서 넣은듯이 생각했던 사다께, 박위의 원정군같은것은 눈가루처럼 가볍게 날려버릴수 있다고 타산했던 사다께는 그제서야 자기가 오산을 하고 착각을 해도 얼마나 엄청나게 했는가를 통감하였다.

이제 박위가 관사에 뛰여드는 순간이면 모든것이 끝장이였다.

오늘의 막강한 권세와 부귀도, 막부의 높은 자리를 획득할 래일의 거창한 꿈도 다시는 이룰수 없을것이였다.

허나 사다께는 닥쳐온 자기 인생의 파멸이 강도배의 응당한 말로로 생각되기는커녕 하늘의 온당치 못한 처사로 여겨지였다.

분하고 억울했다.

하늘이라도 찢어발기고싶도록 악이 치받쳐올랐다.

대마도는 비록 망해도 자기만은 세상과 력사앞에 용맹한 사나이로,

승리한 《천자》의 아들로 알려져야 한다는 비장한 최후의 결심이 돌덩이처럼 굳어지였다.

사다께는 훌렁 뒤번져진 입술밑으로 으득으득 이를 갈았다.

《소라도부 도리 아도오 개가라와즈.》(하늘을 나는 새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뜻)

이어 사다께는 그 어떤 타산이나 감정에 끌려서가 아니라 순수 관습의 힘에 떠밀리워 니찌렌상이 걸려있는 방으로 뛰여들었다.

니찌렌상앞에 지그시 눈을 감고 최후의 명상에 잠기였다.

(아아, 니찌렌도노!

얻는것은 세월의 힘이요 잃는것은 천도의 순서이니 내 이제 와서 과연 무엇을, 누구를 원망하리까.

나의 대마도는 비록 가혹한 운명의 희롱에 말려들어 멸망의 위기에 처했으나 이 사다께는 혼자서라도 력사앞에 희세의 남아로 찍혀지고 싶사오니 부디 소원을 이루게 해주소서…)

벙긋이 눈을 뜬 사다께는 홀린듯이 니찌렌을 쳐다보았다.

니찌렌은 대마도와 대마도의 령주가 파멸의 위기, 림종의 시각에 처했건만 오늘도 변함없이 련꽃단우에 단정히 올라앉아 이상야릇한 미소를 피우고있었다.

사다께의 흉중에서 부지불식간 그 어떤 강렬한 반발감과 거부반응이 불길처럼 치밀어올랐다.

전지전능하기는커녕 우직하고 매정한 이 돌덩이가 지금껏 자기에게 손톱눈만 한 리득도 가져다준적 없다는 엄연한 현실감이 떠오르자 이번에는 무분별한 복수의식이 발작적으로 북받쳐올랐다.

《퉤!》

사다께는 일생 그렇게도 깊이 숭상해온 니찌렌의 거룩한 상판에 걸쭉한 가래침을 뱉았다.

가차없는 발길질로 그 신성한 돌덩이를 힘껏 떠밀어넘기였다.

해괴한 요설과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인간들을 기만하고 세상을 희롱하던 니찌렌은 자기의 독실한 적자의 발길질에 걸리여 볼꼴없이 나자빠지였다.

사다께는 야릇한 환희를 느끼며 니찌렌의 몸뚱이를 타고넘어 밖으로 나갔다.

대마도는 불길과 매연에 뒤덮여있었다. 어디 가나 시체와 재무지가 밟히였다. 불달린 들쥐마냥 방향없이 마구 헤바라다니던 사다께는 마침내 나자빠진 돌탑우에 서있는 낯익은 고려장수를 찾아내였다.

그는 지체없이 대마도의 최고통치자 《천자》의 적자의 명예를 걸고 박위에게 《력사적인》 단병접전을 요청했다. …

박위의 칼과 사다께의 검은 연해 바람가르는 소리를 홱홱 일으키며 세차게 맞부딪치고 힘차게 엇갈리였다.

쨍쨍… 날카로운 금속음이 주위의 소란스러운 대기를 아츠럽게 들찢었다.

퍼렇게 불타는 두쌍의 눈은 허공을 태우며 무섭게 엇갈리였다.

만만치 않은 용력과 칼재주를 가진 뛰여난 두 검객은 연방 악악 고함을 터치며 성난 표범처럼 날고뛰였다.

사다께의 근력과 검술은 그가 일쑤 내놓고 흰목을 뽑을만큼 절등한 것은 사실이나 박위와 겨룰만 한 수는 못되였다. 게다가 사다께는 전면적인 패망을 눈앞에 둔 죄많은 도적두령이라 맹수의 단말마적인 발악같은것은 있어도 승리에 대한 신심이나 자긍심같은것은 꼬물만큼도 있을리 없었다.

원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 정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자신만만하게 공세를 취하던 박위는 어느 한순간 사다께가 병든 닭새끼처럼 비치닥거리자 때를 놓칠세라 번개같이 달려들었다. 서슬푸른 장검으로 사다께의 굵은 목덜미를 힘껏 내리찍었다.

허연 비게살이 훌렁 뒤번져지며 검붉은 피가 덩어리처럼 왈칵 쏟아져나왔다.

사다께는 밑둥잘린 통나무처럼 위태롭게 기우뚱거리더니 행길가의 파란 풀밭우에 모재비로 나가떨어지였다.

불맞은 송충이마냥 두어바퀴 나딩굴던 사다께는 차츰 사지를 뻣뻣하게 내뻗치였다. 박위는 먼지와 피로 얼룩진 커다란 갖신으로 사다께의 가슴팍을 힘껏 지르밟았다.

각일각 흐려지는 사다께의 뿌잇한 동공을 내려다보며 힘진 어조로 부르짖었다.

《네 이놈, 다시한번 지껄여봐라.

네놈은 우리 고려사람들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들씌웠을

뿐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군대를 모독하는 망발을 수없이 늘어놓았다.
또한 〈해뜨는 나라의 천자〉요, 〈력발산 기개세〉요 하면서 흰소리, 개소리를 수없이 뇌까렸다.
우리는 네놈의 모든 죄행을 어느것 하나도 용서할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고려국의 존엄을 유린하고 모독한 죄는 특히 용서할수 없다.
죽으면서라도 똑똑히 알아둬라.
앞으로도 이 세상에 고려국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놈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늘땅 끝에라도 찾아가 철저히 무자비하게 소탕할것이다!》
박위는 사다께의 두터운 가슴팍에 기운껏 칼을 들이박았다.
악! 항아리가 터져나가는듯 한 비명과 함께 검붉은 피줄기가 한길이나 솟구쳐올랐다.
박위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관사쪽으로 힝힝 걸어나갔다.
행길가에 어우러진 각색 이채로운 나무들이 박위의 래림을 환영하듯 손에 손을 맞잡고 가볍게 설레이였다.
흰 꽃송이들이 구름처럼 피여난 백당나무, 황록색꽃송이들이 주렁진 딱총나무, 이제 겨우 남자색, 붉은색꽃망울들이 쌀알처럼 다닥다닥 맺혀있는 순비기나무, 누리장나무, 작살나무들이 이 시각을 위해 고이 아껴두었던 독특한 꽃향기를 진하게 내뿜고있었다.
이곳의 자연도 결코 불결한것이 아니였다.
자연은 언제한번 인간을 괴롭힌적 없건만 이곳의 악당들이 그리도 악명을 떨쳤기에 대마도는 자연과 지명마저 세인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온것이였다.
하고보면 고려의 원정군은 포악무도한 강도배들을 징벌한 정의롭고 용감한 군대인 동시에 이 땅의 자연에도 순수한 아름다움을 되찾아준 고결하고 성스러운 미의 건설자들이였다.
승리의 기쁨과 환희로 하여 술이라도 마신것처럼 얼굴이 벌개진 김종연과 최칠석을 비롯한 장수들이 반달음을 놓고 다가오고있었다.
그뒤로 오천이와 여삼이, 현중이와 고들이… 알고 모르는 수백수천의 고려군사들이 목청껏 환성을 올리며 강물처럼 밀려오고있었다.

16

력사에 길이 빛날 민족사적인 대공을 세운 고려의 군사들은 대첩의 기쁨으로 가슴들먹이며 고국으로 돌아오고있었다.

하늘도 기쁨에 물젖어 떨기떨기 꽃구름을 피워올리고 바다도 기쁨에 둥 떠올라 소복소복 잔파도를 말아올리였다.

장수들과 함께 지휘선의 갑판에 나와 류량한 군악을 울리며 회군하는 고려함대의 장쾌한 모습을 둘러보던 최칠석은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억제하기 어려운듯 벌겋게 짓물린 눈을 슴벅이며 시 한수를 뽑아올리였다.

기발은 어이 저리 빛나게 나붓기고
군악소리 어이 저리 우렁찬고냐
외방의 왜구를 산산이 쳐부시니
고려군의 높은 기개 장하기도 하여라
2월의 봄바람은 옥촉처럼 고른데
천하가 다투어 우리 군대 칭송하리

칠석이가 시읊기를 마치자 장수들은 너나없이 그의 시재를 과분할 정도로 치사하고나서 또다시 승리의 기쁨을 들썩하게 나누었다.

《오늘의 승리는 실로 크게 자랑할만 한 일이요.》

《백세의 수치를 씻고 만세에 존엄을 떨쳤으니 이 아니 통쾌하리오.》

《박장군의 담대한 기상과 신묘한 지략이 오늘의 대성을 낳았소그려.》

사사건건 개경량반의 재세를 쓰고싶어 몸달아하던 박자안까지도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빠질세라 께끼였다.

《옛말에 얌전하게 생긴 선비가 귀신을 쫓는다더니 정말 미모의 박장군께서 이렇듯 큰 승리를 빚어놓을줄은 몰랐소그려.》

이어 장수들의 시선은 박위쪽으로 돌아갔다.

배머리에 홀로 뒤짐을 지고나선 박위는 장수들이 주고받는 말마디를 전혀 가려듣지 못한채 하염없이 고려의 하늘가를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저 멀리 고국의 푸른 하늘가에 박혀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잊지 못할 지난 나날들, 잊지 못할 사람들의 얼굴을 더듬어보고 있었다.

재가루가 펄펄 날리던 그 아침의 죽촌풍경이 떠오르는가 하면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왜구의 소굴을 들부셔야 한다고 주장하던 오천의 모습이 안겨왔다.

달밝은 그밤 염초감대기를 메고 지고 바다가로 흘러가던 염초장사람들의 행렬이 다가오는가 하면 혼자 칼쓰기련습을 하던 고들이, 노상 바다가에 붙박여살던 옥보와 구서방, 여삼이와 《만사태평》의 얼굴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은하수 비끼였던 그밤 저대를 장검처럼 비껴잡고 동네의 군사일을 지휘하던 죽촌의 행수로인과 그의 지휘를 물고 열심히 뛰여다니던 백동이 엄마를 위시한 죽촌사람들의 모습도 얼찐얼찐 다가왔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왜구의 소굴을 뛰쳐나오던 리옥의 도담하고 슬기로운 모습도 방불하게 그려지였다.

최칠석과 김종연, 윤통과 최단, 최무선과 이미 작고한 리일경의 얼굴도 언뜰언뜰 비껴들었다.

원정의 승리로 하여 한껏 부풀어오른 박위의 가슴은 더더욱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내가 대마도원정을 결심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얼마간의 나날이 흘렀는가.

넉넉잡아도 열달은 넘지 않으리다.

한 인간의 일생에서 열달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나날에 한생을 두고도 체험하지 못할 인생고초를 다 겪었고 평생을 두고도 깨치기 어려운 세상사의 새 리치를 분명히 감

득하지 않았는가?!

하고보면 이번 대마도원정은 우리 고려군대가 민족의 존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를 소리높이 과시한 력사적인 군사원정인 동시에 인생의 새로운 리치를 심장으로 깨달은 뜻깊은 인생원정이로다.)

박위는 채수염이 훨훨 날리는 동그스름한 턱을 자랑스럽게 들어올리였다.

하얀 비단옷을 일매지게 차려입은 갈매기들이 한껏 부푼 돛폭을 감돌며 그리 곱지는 못하나 더없이 열광적인 소리로 단조로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박위에게는 무심한 바다새들조차 원정대를 마중나온 고국의 친근한 사절마냥 정답게 안겨왔다.

박위는 허리춤에서 건둥거리는 묵직한 칼자루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며 내심깊이로 부르짖었다.

(그렇다. 세상사의 리치, 인생사의 철리는 더할나위없이 명백하다.

군사의 심장이 사랑과 증오로 열렬히 불탈 때 그가 잡은 검은 순간의 동요나 좌절도 없이 활활 불타오르거니.

검이 불타면 인생길에 시련은 있을지라도 실패는 있을수 없다.

검이여, 불타라!

애국에 차넘치고 슬기와 용맹으로 충만된 백성들의 심장과 함께…

그러면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이다!)

갑판에 나와있던 군사들이 불시에 와— 환성을 터치였다.

《고국이 보인다!》

《우리 군영이 보인다!》

군사들은 소리소리 지르며 손을 흔들고 발을 굴렀다.

떠나온지 이제 겨우 열흘정도밖에 되지 않건만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길이여서 고국은 그리도 눈물겹게 반가운것이리라.

박위는 들레이는 가슴을 안고 앞쪽을 바라보았다.

아닌게아니라 고국의 모습, 군영앞동네의 모양이 한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안겨왔다.

동구밖에 의좋은 형제마냥 쌍으로 솟아올라 꼭 성문처럼 보이는 두그루의 소소리높은 향오동나무.

아지랑이 가물가물 피여오르는 황산강가의 드넓은 벌판.

그 벌판의 여기저기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태평스레 배를 붙이고 엎드리여 느릿느릿 새김질을 하는 누렁소들…
자세히 여겨보면 싸움터에 나간 지아비와 아들을 기다리며 서성거리는 녀인들의 희맑은 얼굴도 보일것 같았다.
들국화처럼 청초하고 그윽한 리옥이 아니, 단검처럼 단호하고 용감한 리옥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젖살이 포동포동 오른 아기를 껴안은 얌전이의 모습 그리고 회군하는 즉시 성례를 치르기로 한 취금이의 얼굴도…
박위는 사품쳐오르는 그리움의 열물로 하여 가슴의 벽이 데는것 같았다.
그는 숫제 눈을 꾹 감아버리였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내 나라 고려인가.
아사달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우며 단군이래 수천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새겨온 우리 민족.
선조의 뼈가 묻혀있고 귀중한 사람들이 살고있으며 래일의 희한한 꿈이 꽃펴나는 삶의 요람…
과연 어느 오랑캐가 우리 고려를 한발자국이라도 범할수 있으며 어느 왜적이 언감 우리 민족을 순간이나마 턱아래로 굽어볼수 있단 말이냐.
이 땅에 뜻높은 무관들과 백성들이 있고 서슬푸른 장검이 있는 한 우리 고려는 영원히 철의 수호속에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쳐가리라. …
승리자의 기쁨과 자랑, 고려군사의 영예와 긍지를 가득 실은 전함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승벽내기를 하며 기운차게 썩썩 달리고있었다.
고려의 푸른 바다는 살찐 가슴을 들먹이며 승리하고 돌아오는 민족의 장한 아들들을 고국으로, 고국으로 힘차게 떠밀어주고있었다.

종　장

갑자기 대궐안팎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더니 숱한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다.

개경장안의 곳곳에서도 등불들이 펑끗펑끗 솟아오르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끓어번지였다.

2월의 연등회가 열린것이였다.

고려시기 가장 큰 명절로서는 봄의 연등과 여름의 류두, 가을의 팔관을 꼽는다.

연등은 선조의 명복을 빌고 그 여흥으로 화려한 식전을 벌리는것이요, 류두는 정화력에 의해 몸을 깨끗이 씻고 죄를 소멸한다는것이요, 팔관은 천신을 제사지낸다는것인데 고구려시기 가을제천에서 유래된것이였다.

이 세가지 명절중에서도 제일로 요란스러운 명절이 연등명절인데 그 연등중에서 가장 야단스러운 대목이 지금 벌리고있는 이른바 환궁악식전이 거행되는 때였다.

절에 행차하여 조종(왕실의 선조)의 명복을 비는 이른바 봉은행향을 마치고 돌아오는 임금과 그뒤를 따르는 찬란한 조복차림의 조정관리들.

그림과 글씨로 장식된 포장과 병풍이 수없이 드리워있는 도성의 아홉거리. 그 거리를 지나온 임금의 행렬이 홍례리빈문으로 들어서자 승평문밖에서 기다리고있던 궁녀들이 락화마냥 분분히 흩어져나오며 홍례리빈문의 환궁악신전, 즉 돌아오는 임금을 궁악으로 맞이하는 의식을 벌린것이였다.

대궐안은 물론 온 개경장안이 등불과 춤과 노래소리로 뒤덮였건만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듯 묵묵히 남산재를 내려선 두 량반은 남문으로 향한 행길로 곧바로 들어섰다.
박위와 최칠석이였다.
한참이나 묵묵히 걸음을 재우치던 칠석은 주위에서 번쩍이는 등불과 노래소리가 역스러운듯 벌컥 청을 높이였다.
《그러니 해암은 이밤중에 기어이 귀향길에 오르겠다는게요?》
박위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떡거리였다.
《그럼, 가야지. 쫓겨난 사람이 하루라도 여기서 더 묵으면 피차 부담스럽지 않겠소. 헛허허.》
칠석은 지금의 현실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듯 휑하게 눈을 흡뜬채 선뜻 말을 잇지 못했다.
조금후에야 북소리, 장고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 오색령롱한 등불빛이 흘러나오는 대궐쪽에 대고 허허탄식같은 소리를 꺼내였다.
《허어— 죽백지공을 세운 출중한 장수를 아무 죄도 없이 쫓아내고도 무엇이 그리 즐거워 저 야단들인고.
송편으로 목을 딸 일이로다.》
리성계는 지난해 11월에 창왕을 왕위에서 밀어내였다.
리유는 그가 왕족의 후손이 아니라 공민왕시절 이른바 국사로서 정계를 쥐락펴락했던 신돈의 자식이라는것이였다.
하고는 왕실의 먼 친척벌이 되는 공양왕을 왕좌에 올려앉히였다.
이것은 물론 리성계가 진정으로 왕실의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충심의 발현이 아니였다.
명백히 말하여 왕권찬탈을 위한 또하나의 최종적인 음모의 실현에 지나지 않았다.
리성계는 공양왕이 즉위하자 왕을 올려세우는데서 공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자기를 포함한 9명의 신하들을 일등공신으로 엄명하도록 하였다.
그중에는 박위도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리성계는 진정으로 박위를 크게 내세우고싶어 그를 일등공신의 계렬에 들게 했는가.
아니다.
대마도원정후 조정백관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박위는 민족사에 길이 빛날 정의의 원정으로써 나라의 존엄을 떨치고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수호한 일세의 용장이라고 떠들었다.
  성계는 이러한 조의와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그는 공양왕에게 박위를 일등공신으로 봉하게 하고는 그렇게 한것으로 하여 더욱 불안해했다.
  이제는 가급적으로 자기가 직접 박위를 제거하는 일에 손을 대야 했다.
  달과 달이 흐르고 해가 바뀌자 리성계는 사헌부에 은밀히 지시하여 박위가 원정을 준비하던 시기에 소모한 군량과 각종 재물들, 그것으로 하여 국세납부에 조성된 혼란상을 엄밀히 조사하도록 했다.
  사헌부가 애초에 생사람을 잡을 잡도리를 하고 접어든데다 원정준비에 적지 않은 군량과 재물이 소모된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조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여 덩어리가 큼직한 《죄상》들이 연줄연줄 묻어나왔다.
  박위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자기의 《죄상》을 전부 인정하였다.
  결국 《대마도원정은 의의가 큰 군사작전이였으나 준비단계에서 물자의 파잉소비와 비법적인 군령란포같은것은 후날을 징계하기 위해 죄를 따지지 않을수 없다.》는 조정의 결정에 따라 박위의 관직은 삭탈되였다. …
  박위는 입술귀를 꾹 짓문채 휘적휘적 걸음을 놓았다.
  연해 무거운 한숨을 내불며 박위를 따라서던 칠석은 나직이 입을 열었다.
  《해암, 이제 귀향을 하거든 무엇을 하실 생각이요?》
  《농사를 지으면서 고을의 젊은이들에게 군사를 가르치려 하오.》
  《역시 해암은 어쩔수 없는 사람이구려.
  하지만 해암과 같은 귀재가 어떻게 벽촌에 골박혀 농사나 지으면서 중년의 귀중한 시절을 허무하게 보낸단 말이요.
  자고로 공에는 상이 따르기마련인데 그처럼 큰공을 세운 장수에게 이처럼 혹독한 벌을 씌워 밀어내니 이런 기막힌 변이 어디 있소?!》
  생각할수록 분이 치밀어오른 칠석은 점점 청을 높이였다.
  박위는 여전히 쓸쓸한 웃음기가 떠도는 얼굴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받을만 한 상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오. 이미전의 전하께서 내린 상도 큰것이지만 이제는 우리 땅에 왜구가 얼씬 못하니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소.
  나는 내 인생에 세운 뜻을 실현한 사람이니 더 바랄것없이 족하오.
  이제 남은 세월도 젊은이들을 끌끌하게 잘 키워 군사로 내세울 생

각이니 어찌 허무하다고 하겠소.
그러니 백운도 내 일을 두고 너무 마음을 쓰지 마오.》
이건 박위의 진심이였다.
박위는 원정에서 돌아오자 왕이 내려보낸 문하평리 서균형을 통해 은덩이와 옷감을 비롯한 값진 선물과 축하문을 받았었다.
축하문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정의에 립각한 그대는 용기를 뽐내며 헤아리기 어려운 바다를 건너가 다년간 자라오던 불행의 화근을 없애버리였다.
또한… 대마도의 건물과 합선을 불사르고 포로되였던 백성들을 데려왔으니 나라의 수치를 씻고 원쑤를 갚았으며 국가의 위명을 만세에 떨치였다. …》
지난해 8월 류구(현재의 오끼나와) 중산국에서는 고위관리가 고려를 찾아와 왕에게 《고려에서 왜구의 소굴을 친것은 당연하고 통쾌한 일로서 나는 고려임금의 신하가 되려 하니 승인하여달라.》는 중산국임금의 편지와 류황, 후추와 같은 진귀한 특산물을 례물로 바치였다.
대마도징벌소식은 일본본토에도 파다하게 퍼지였는바 규수탐제(규수지방의 최고통치자) 이미기와 료순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여 서로 사이좋게 지낼것을 청원하면서 값비싼 례물을 올리였다.
이로써 고려에 대한 왜구의 침략과 략탈은 완전히 종식되였다. …
박위는 정녕 일생일대의 소원을 성취한 사람이였다.
하기에 그의 기분은 어둡지 않았다.
한시바삐 고향으로 내려가 자기의 모든 힘을 군사일에 깡그리 몰바칠 일념으로 가슴이 후후 달아올랐다.
개경장안의 불빛은 차츰 박위의 등뒤로 멀어져갔다.
허나 박위의 앞길은 어둡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박위의 눈앞으로는 비길데없이 휘황한 광명, 즉 더없이 진실하고 열렬하고 철저한 평범한 백성들의 모습, 고향 젊은이들의 얼굴이 별무리처럼 찬란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다가오고있었다.
또한 우리의 고향땅을 넘보는 승냥이들, 이 나라의 존엄을 침해하는 오만무례한 강도배들은 철의 주먹, 불타는 검으로 소굴채 들부셔버려야 한다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더욱 굳어지고있었다.
박위는 광명을 향해 더욱 힘차게 걸음을 옮기였다.